십계명 주해

A Commentary on the Decalogue

이 창배 지음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 אֶחָד׃

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לֹא־תַקֹּם וְלֹא־תִטֹּר אֶת־בְּנֵי עַמֶּךָ וְאָהַבְתָּ לְרֵעֲךָ כָּמוֹךָ אֲנִי יְהוָה׃

2011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글 저작권ⓒ 2011 이 창배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책을

하나님을 온 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딸 이 유선에게 바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차례

머리말 *ix*

I. 서론적 고찰 *1-54*

1. 십계명 명칭 *1*
2. 언약으로서의 십계명 *2*
3. 십계명(시내산 언약)과 고대근동 종주권 조약의 비교 *6*
4. 십계명 본문 (출 20:1-17; 신 5:4-21) *14*
5. 십계명 본문 (출 20:1-17; 신 5:4-21)의 번역 *22*
6. 십계명의 구분 *23*
7.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의 순서 *28*
8. 십계명의 중요성 *31*
9. 십계명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규칙들 *34*
10.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51*

II. 십계명의 서언 *55-77*

1. 십계명 서언 본문 *55*
2. 십계명 서언의 의미 *57*
3. 십계명 서언의 중요성 *70*
4. 그리스도와 십계명 서언 *74*
5. 십계명 서언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76*

III. 제 1 계명 *78-117*

1. 제 1 계명 본문 *78*
2. 제 1 계명의 의미 *84*
3. 다른 신들 *90*
4. 다른 신(우상)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태도 *96*
5. 제 1 계명과 솔로몬 *103*
6. 그리스도와 제 1 계명 *105*
7. 제 1 계명의 준수 *110*
8. 제 1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15*

IV. 제 2 계명 *118-162*

1. 제 2 계명 본문 *118*
2. 제 2 계명의 의미 *126*
3.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차이 *136*
4.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 *142*
5. 제 2 계명과 미술활동 *145*
6.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148*
7.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 *155*
8. 제 2 계명의 준수 *158*

9. 제 2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60*
V. 제 3 계명 *163-222*
1. 제 3 계명 본문 *163*
2. 제 3 계명의 의미 *170*
3. 제 3 계명의 위치와 맥락 *172*
4. "여호와"라는 이름의 표기와 발음 *175*
5.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용 *178*
6.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 *180*
7. 그리스도의 이름 *187*
8.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 *190*
9.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성경의 예들 *203*
10. 제 3 계명과 맹세 *207*
11. 제 3 계명의 준수 *213*
12. 제 3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220*
VI. 제 4 계명 *223-271*
1. 제 4 계명 본문 *223*
2. 제 4 계명의 의미 *233*
3. 안식일의 기원: 창조의 규례인가 아니면 구원의 규례인가? *249*
4. 구약의 안식일의 의의와 목적 *252*
5. 예수님과 안식일 *254*
6. 바울과 안식일 *256*
7. 그리스도와 주일 *258*
8. 제 4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261*
9. 안식일/주일과 일 *264*
10. 제 4 계명과 주일 성수 *268*
VII. 제 5 계명 *272-309*
1. 제 5 계명 본문 *272*
2. 제 5 계명의 의미 *276*
3. 제 5 계명의 위치와 중요성 *278*
4. 제 5 계명의 준수 (1): 부모의 자녀 교육 *283*
5. 제 5 계명의 준수 (2): 자녀의 부모 공경 *289*
6. 제 5 계명의 준수 (3): 권위에 대한 순종 *294*
7. 제 5 계명과 약속 *302*
8. 그리스도와 제 5 계명 *304*
9. 제 5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307*
VIII. 제 6 계명 *310-346*
1. 제 6 계명 본문 *310*

2. 제 6 계명의 의미 *314*
3. 제 6 계명과 생명 *323*
4. 불법적인 살인 *328*
5. 용인되는 살인 *337*
6. 제 6 계명의 준수 *340*
7. 그리스도와 제 6 계명 *341*
8. 제 6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344*
IX. 제 7 계명 *347-384*
1. 제 7 계명 본문 *347*
2. 제 7 계명의 의미 *350*
1) 간음과 성범죄 *350*
2) 다윗의 간음 *357*
3) 제 7 계명과 제 1 계명의 비교 *359*
3. 결혼 *360*
4. 결혼과 성 *371*
5. 이혼과 재혼 *374*
6. 그리스도와 제 7 계명 *380*
7. 제 7 계명의 준수 *382*
8. 제 7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383*
X. 제 8 계명 *385-409*
1. 제 8 계명 본문 *385*
2. 제 8 계명의 의미 *389*
3. 제 8 계명과 관련된 규례들 *393*
4. 제 8 계명과 관련된 내러티브들 *397*
5. 제 8 계명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 *399*
6. 제 8 계명의 준수: 재물의 가치 그리고 청지기직 *402*
7. 그리스도와 제 8 계명 *405*
8. 제 8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408*
XI. 제 9 계명 *410-446*
1. 제 9 계명 본문 *410*
2. 제 9 계명의 의미 *415*
3. 증언과 법정의 공의 *415*
4. 말과 명예의 가치 *422*
5. 진리의 가치 *427*
6. 선의의 거짓말 *430*
7. 제 9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계명들 *438*
8. 제 9 계명의 준수 *441*

9. 그리스도와 제 9 계명 *441*
10. 제 9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444*
XII. 제 10 계명 *447-487*
1. 제 10 계명 본문 *447*
2. 제 10 계명의 의미 *459*
1) 제 10 계명의 금지 출발점 *459*
2)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 *462*
3) 제 10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성경 본문들 *464*
3. 제 10 계명과 자력 구원 *466*
4. 제 10 계명과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 *467*
5. 제 1-9 계명과 제 10 계명의 관계 *472*
6. 자족과 자유 *478*
7. 그리스도와 제 10 계명 *482*
8. 제 10 계명 준수 *484*
9. 제 10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486*
참고문헌 *488*

머리말

룻기 원문주석에 이어 십계명 주해를 내놓는다. 룻기가 구약의 40 퍼센트를 차지하는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내러티브이라면 십계명 본문에 들어 있는 열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이시는 영원한 도덕법이요 율법 중의 율법이다. 십계명은 "언약"이며(신 4:13; 9:9, 11) 하나님께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32:15-16)에 기록하여 주신 최초의 성경 말씀(신 4:12-14; 5:22; 9:9-17; 10:1-5)으로 정경의 기초이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십계명 본문은 언약문으로서 준수 조항인 열 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전문과 역사적 서문과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도 포함하고 있다. 본 십계명 주해는 십계명 본문(출 20:1-17; 신 5:4-21)에 대한 석의와 강해이므로 "십계명"이란 용어를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다.

모세오경의 55%가 율법이다. 율법 가운데 십계명(열가지 계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계명은 몇 가지 점에서 어느 계명보다도 우월하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당위 명령 형식을 갖고 있고 2 인칭 복수가 아니라 2 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다. 오직 십계명만이 성막/성전의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신 10:1-5).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되었던 다른 법들과 달리 지역이나 역사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쉽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뜻은 방대하고 무한하다. 인간의 모든 의무를 그토록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그의 뜻을 계시하신 도덕법의 총괄이요 요약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십계명은 모세오경 이외의 다른 구약 성경(렘 7:9-10; 호 4:1-2)과 신약 성경(마 19:18-19; 막 10:19; 눅 18:20; 롬 13:9; 약 2:11; 딤전 1:9-10)에도 나온다. 이것은 십계명이 특별하게 취급되어 왔고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셰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회당에서 날마다 함께 읽었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 교육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개혁/장로교회들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에서 찾게 된다는 칼빈을 따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윤리 교육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본 십계명 주해는 서론적 고찰 부분에서 언약으로서 십계명을 논의하고 십계명 전반의 해석 원리를 다루고, 십계명 서언 부분에서 십계명을 지킬 동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각 계명을 주해하는 부분에서 먼저 본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경적 맥락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계명 준수와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각 계명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밝히고, 마지막에 각 계명마다 관련된 개혁주의 교리 문답(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92-115 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9-81 번; 대교리 문답 91-148 번)을 번역하여 실었다.

본 십계명 주해가 목회자들에게 십계명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보고 이를 거울 삼아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추어 죄인된 모습을 직시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I. 서론적 고찰

1. 십계명 명칭

1. 십계명 명칭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란 명칭은 출 34:28, 신 4:13, 10:4 에 나온다.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דִּבְרֵי הַבְּרִית [디브레 하브리트] 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ῥήματα ταῦτα τῆς διαθήκης[타 레마타 타우타 테스 디아세케스],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בְּרִיתוֹ[브리토])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δέκα ῥήματα [타 데카 레마타])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 10:4-5]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2. 용어 설명

MT (히브리어)	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LXX (헬라어)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 [→ **decalogue**]
KJV (영어)	**ten commandments**
개역개정	십계명(十誡命)

1) 히브리어 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의 문자적 의미는 עֲשֶׂרֶת[아쎄레트] "~의 열, ten of" + הַדְּבָרִים[하드바림] "그 말씀들, the words" 즉 "그 말씀들의 열 마디, 곧 그 열 마디 말씀들"이다.

2) 헬라어 성경은 [아쎄레트 하드바림]을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 "the ten words"]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decalogue"가 유래되었다.

3)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반영하는 "decalogue, ten words"라고 번역하지 않고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하였다.

4) 개역개정은 헬라어 성경처럼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 성경처럼 "계명"을 사용하여 "십계명"으로 번역하였다.

3. 용어 이해

1) 출 34:28 와 신 4:13; 10:4 에 나오는 영어 성경의 "ten commandments"와 개역개정의 "십계명"이란 용어는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내용만을 담은 법령(a legal code)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있다.

2) 십계명 본문은 시내산 언약으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열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전문(출 20:1)과 역사적 서문(출 20:2)과 축복과 저주(출 20:5-6, 12; cf. 출 20:24)도 들어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covenant)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pars pro toto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1]

2. 언약으로서의 십계명

1. 십계명을 언약으로 명시하는 구절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이 "그 언약의 말씀"(출 34:28) 혹은 "그의 언약"(신 4:13)과 동의어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1)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דִּבְרֵי הַבְּרִית [디브레 하브리트] 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ῥήματα ταῦτα τῆς διαθήκης[타 레마타 타우타 테스 디아세케스],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 [신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בְּרִיתוֹ[브리토])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עֲשֶׂרֶת הַדְּ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δέκα ῥήματα [타 데카 레마타])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2. 십계명의 돌판의 이름 그리고 돌판 보관을 위한 궤와 막의 이름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의 이름과 그 돌판을 담는 궤의 이름과 그 궤를 놓아두는 막의 이름에서 "언약" 혹은 "증거"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서도 확인된다.

1)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עֵדוּת[에두트]는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adē[아데](adū[아두]의 복수)와 관련이 있고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בְּרִית [브리트]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을 지칭할 때 "בְּרִית[브리트] 언약"보다 "עֵדוּת[에두트] 증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 데서 확인된다.

---

[1] Meredith G. 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989), 117-118. 영어 단어 sail(돛)과 keel(용골 龍骨)이 ship(배)을 나타내고 creature(피조물)가 man(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부로써 전체를 혹은 특수로써 일반을 나타내거나 그 반대로 전체로서 일부를 혹은 일반으로서 특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제유(提喩 synecdoche)라고 한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시 7:16 상)."라는 말씀에서 "머리"가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제유인 것처럼 십계명이 부분으로써 시내산 언약 전체를 지칭하는 것도 제유라고 할 수 있다. 제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시 7:16 상반절에 대한 ESV 의 "His mischief returns on his own head."라는 번역과 NIV 의 "The trouble he causes recoils on himself."라는 번역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Klin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18 n. 11.

2) 언약의 준수 사항을 요약하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증거판/증거의 두 판"(출 31:18; 32:15; 34:29 לֻחֹת הָעֵדֻת [루호트 하에두트])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돌판"(לוּחֹת/לֻחֹת הַבְּרִית [루호트 하브리트] 신 9:9, 11, 15)이라고도 하였다.

3)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궤는 "증거궤"(אֲרֹן הָעֵדֻת [아론 하에두트] 출 25:22; 26:33, 34; 30:6, 36; 31:7; 39:35; 40:3, 5, 21; 민 4:5) 혹은 "언약궤"(אֲרֹן הַבְּרִית [아론 하브리트] 민 10:33, 14:44; 신 10:8; 31:9)라고 하였다.[3]

4) 증거판과 증거궤는 "증거의 돌판"과 "증거의 궤"를 줄인 번역인데 돌판이나 궤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הָעֵדוּת/הָעֵדֻת[하에두트] "증거"라는 단어만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홀로 쓰인 "הָעֵדוּת/הָעֵדֻת[하에두트] 증거"라는 단어는 출 25:16, 21; 40:20 에서 증거판을 나타내는 반면 출 27:21; 30:6, 36; 레 16:13; 24:3; 민 7:89; 17:4, 10[MT 17:19, 25]에서 증거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증거판이나 증거궤가 "증거" 즉 "언약"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5) 출 38:21 의 הַמִּשְׁכָּן מִשְׁכַּן הָעֵדֻת [하미시칸 미시칸 하에두트]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나 증거궤로 부른 궤를 갖는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였다. מִשְׁכַּן הָעֵדֻת[미시칸 하에두트] "증거의 성막"이란 용어는 민 1:50, 53[2 번]; 10:11 에도 나온다. 민 9:15 에 나오는 הַמִּשְׁכָּן לְאֹהֶל הָעֵדֻת [하미시칸 르오헬 하에두트] "the tabernacle, [namely] the tent of testimony; 성막 곧 증거의 장막"에서

---

[3]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궤"라는 용어는 한글 성경(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말성경, 쉬운성경) 레위기 16 장 2 절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러나 레 16:2 에 "법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아론](הָאָרֹן)은 직역하면 "그 궤"이지 "법궤"가 아니다. "법궤"라는 용어 사용은 십계명을 율법 혹은 법령으로만 보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모세오경에 "법의 궤"로 명명된 적이 없고 "증거의 궤" 혹은 "언약의 궤"라는 의미의 "증거궤" 혹은 "언약궤"가 쓰인 것은 십계명이 법령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본 것을 잘 보여준다. 삼상 4-6 장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3, 4[2x], 5, 6)" 혹은 "하나님의 궤(삼상 4:11, 17, 18, 21; 5:1; 6:10[2x])" 혹은 "여호와의 궤(삼상 5:3, 4, 6:1, 2, 8, 11, 15, 18, 19, 21)"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삼상 5:7, 8[2x]; 6:3 cf. 개역개정: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이름이 나온다. 레 16:2 의 הָאָרֹן[하아론]은 "그 궤"로 번역하여야 하고, 십계명을 넣어 둔 궤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증거"만 나온 경우 개역개정에서 "증거판"(출 25:21)과 "증거궤"(출 30:6)처럼 폰트 크기를 달리하여 "증거판"과 "증거궤"로 문맥상 구별해 준 것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돌판과 궤 혹은 성막에 관련하여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증거" 대신 "법" 혹은 "법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일이 각주를 단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증거의 궤" 곧 "증거궤"라는 용어는 10 번(25:22; 26:33, 34; 27:21; 30:6, 26; 31:7; 39:35; 40:3, 5) 나오고 "증거"가 증거궤를 가리기는 경우는 2 번(30:6, 36)이고 "그 궤"가 증거궤를 가리키는 경우는 2 번(35:12; 40:21)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나 "그 궤"도 모두 증거궤라고 번역하고 있다.

보는 것처럼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였다.[5] "증거의 장막 אֹהֶל הָעֵדֻת [오헬 하에두트]"이란 용어는 민 17:7-8[MT 22-23]; 18:2; 대하 24:6 에도 사용되었다.[6] 성막과 관련된 용어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 다른 용어는 "אֹהֶל מוֹעֵד [오헬 모에드] Tent of Meeting 회막"이다.[7] "회막"이란 용어는 제사장과

---

[5] הַמִּשְׁכָּן לְאֹהֶל הָעֵדֻת [하미시칸 르오헬 하에두트]는 전치사 라멧을 사용한 완곡표현(circumlocution)의 명명구로(GKC 129) 직역하면 "증거의 장막의 성막"이다. 이 어구는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71 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The purpose of the apposition is to emphasize that by the Tabernacle is meant the Tent-shrine and not the entire enclosure. On the other hand, Ramban may be right in understanding these two terms not as an apposition but as construct: "the Tabernacle of the Tent of Pact," which also implies that the cloud rested solely on the Tabernacle shrine but not in the Tent courtyard.

[6]개역개정은 מִשְׁכַּן הָעֵדֻת [미시칸 하에두트]에 대하여 출 38:21 에서 "증거막"이라고 번역하고 민 1:50, 53[2 번]; 10:11 에서 "증거의 성막"으로 번역하였는데 "**증거의 성막** tabernacle of testimony"이라고 통일해서 번역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אֹהֶל הָעֵדֻת [오헬 하에두트]에 대하여 민 9:15 에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하고 민 17:7-8; 18:2 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대하 24:6 에서 "성막"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네 곳 모두 "**증거의 장막** tent of testimony"이라고 통일해서 번역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번역의 일관성을 위하여 성막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인 원문의 מִשְׁכַּן הָעֵדֻת [미시칸 하에두트]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하고 אֹהֶל הָעֵדֻת [오헬 하에두트]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번역하여 이 둘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출애굽후 제 2 년 1 월 1 일에 성막을 세우는 것을 기록한 출 40 장을 보면 22 절, 24 절, 34 절, 그리고 35 절에 "הַמִּשְׁכָּן[하미시칸] 그 성막"과 "אֹהֶל מוֹעֵד [오헬 모에드] 회막"이 동시에 나온다. 이것은 두 용어가 동의어로 번갈아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용어 중 하나만 사용한 경우 출 40:5, 9, 17, 18, 19, 21, 28, 33, 36, 38 에는 "성막"으로 나오고 출 40:7, 12, 26, 30, 32, 35 에는 "회막"으로 나온다. 출 40:2, 6, 29; 39:32 에 나오는 מִשְׁכַּן אֹהֶל מוֹעֵד [미시칸 오헬 모에드]는 "[미시칸] 성막"과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 회막"이 동격을 이루므로 "성막 곧 회막"의 의미를 갖는다. 개역개정은 출 39:32 와 40:2 에서 NIV 의 "the tabernacle, the Tent of Meeting"처럼 "성막 곧 회막"으로 동격을 잘 반영하였으나 출 40:6, 29 에서는 "회막의 성막"으로 오역하였다.

GKC 130e 는 מִשְׁכַּן אֹהֶל מוֹעֵד [미시칸 오헬 모에드]처럼 먼저 나오는 의존형([미시칸])이 뒤따라 나오는 의존형+자립형으로 된 명명구([오헬 모에드])와 동격을 이루는 것들로 삼상 28:17 의 "אֵשֶׁת בַּעֲלַת־אוֹב[에셰트 바알라트 오브] 여인 곧 신접한 자, a woman, possessor of a soothsaying spirit, a woman who is a medium" 그리고 사 37:22 의 " בְּתוּלַת בַּת־צִיּוֹן[브툴라트 바트 치온] 처녀 곧 시온의 딸 the virgin, the daughter of Zion"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출 40:6, 29 의 "회막의 성막"이란 번역은 출 39:32 와 40:2 처럼 동격을 반영하는 "**성막 곧 회막**"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의 사 37:22 "처녀 딸 시온"이란 번역도 GKC 133e 의 설명대로 원문의 동격을 반영하는 "**처녀, 시온의 딸**" 혹은 "**시온의 딸, 처녀**"처럼 고쳐야 할 것이다.

제사제도를 통하여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고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다.[8]

3.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부르는 구절들

케반(Kevan)이 지적하는 신 17:2; 왕하 18:12; 대하 6:11; 렘 11:2-4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에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다.[9]

4.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을 "언약" 혹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 것,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 혹은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 것, 그 돌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른 것, 그리고 언약궤를 넣은 성막을 증거의 성막/장막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 혹은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언급하는 것 등은 십계명이 "증거 곧 언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제 1 계명에서 제 10 계명까지 "하지 말라" 혹은 "하라"는 열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

[8] NIV 는 회막이 성막을 가리킬 때 인용부호 없이 대문자를 사용하여 Tent of Meeting(caps and no quotes)이라고 번역하였고 모세가 진 밖에 따로 마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임시 장막(אֹהֶל[오헬] tent 출 33:7-11)을 가리킬 때 인용부호와 함께 소문자를 써서 "tent of meeting"(lowercase and quotes)이라고 번역하였다. 증거막과 회막 이외에 성막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 중에는 מִשְׁכַּן יהוה[미시칸 아도나이]("여호와의 성막" 레 17:4; 민 16:9; 17:28; 19:13; 31:30, 47; 대하 1:5; 29:6), אֹהֶל יהוה[오헬 아도나이]("여호와의 장막" 왕상 2:28), הָאֹהֶל[하오헬]("성막" cf. NIV: the sacred tent [직역: **그 장막**] 왕상 1:39) 등이 있다.

[9] Ernest Kevan, *Moral Law* (Phillipsburg: P & R, 1991), 62.

[신 17:2-5] (2)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6)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왕하 18:11-12] (11)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이는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대하 6:10-11] (10)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1)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렘 11:2-4] (2)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라 (3)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해해야 한다. 십계명에 전문이 있고 계명을 지킬 동기를 부여하는 십계명의 서언(역사적 서문)과 준수 조항으로서 열 개의 계명 그리고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 임할 복과 저주가 들어 있는 것은 십계명을 언약의 문서로 이해할 때만 그 설명이 가능하다.[10] 십계명이 언약이란 것은 아래에서 곧바로 살펴볼 십계명과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비교를 통하여 더 밝히 드러날 것이다.

3. 십계명(시내산 언약)과 고대근동 종주권 조약의 비교

1. 언약 체결

1)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모세는 백성의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했다(출 19:4-8). 여호와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십계명을 반포하셨다(cf. 신 5:22).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므로 다른 율례들은 모세에게 주시며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셨다(cf. 신 5:23-27). 출 24:3-8 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러한 언약 체결의 관점에서 보면 출 20:1-23:33 은 시내산 언약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제공하시고 백성이 받아들인 언약의 조건적 성격은 출 20:1-23:23 에 기록된 언약 문서의 형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11]

---

[10] 아래의 논의에서 "십계명"이란 용어는 준수 조항으로서 열 개의 계명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문맥에 의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11] Roy B.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91), 33. Cf. 송제근은 그의 책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314 쪽)에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출 19-24 장	신 5-28 장
1. 언약관계 정의	출 19:3-8	신 26:17-19
2. 당사자들의 만남	출 19:9-25	신 5:1-5, 22
3. 모세의 권위	출 19;9a, 20ff; 20:18-21	신 5:23-6:3
4. 언약 조건 1	출 20:1-17	신 5:6-22
5. 언약 조건 2	출 20:23-23:19	신 6:3-11:7; 12:1-26:15

2) 그런데 레위기의 마지막 절(27:34)의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는 말씀과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간 것을 묘사하는 민 10:11-12 의 말씀을 고려하면 출 20:1-23:33 은 단지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은 편의상 십계명과 언약서라고 부르는 출 20:1-23:33 을 넘어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까지 계속되고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조항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2. 언약문의 6 요소

1)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20:1-17)이나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인 시내산 언약 문서(출 20:1-23:33)나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 조항을 포함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전체 시내산 언약(출 20 장-레 27 장)이나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신명기 1-34 장)이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권면한 세겜 언약(수 24 장)은 주전 1400-1200 년 사이에 번성했던 종주국 히타이트와 속국들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문(text of sovereign/suzerain-vassal treaty, suzerainty treaty)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13]

2)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문서들과[14]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 보면 여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 여섯 가지 요소는 ⑴전문(preamble), ⑵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 ⑶준수조항(stipulations),

6. 체결 의식		
(ㄱ) 약속/축복과 저주	출 23:20-33	신 28
(ㄴ) 제사, 서약	출 24:3-8	신 27:5-7a, 14-26
(ㄷ) 향연	출 24:9-11	신 27:7b
하나님 나라 역사 완성	백성의 완성과 관련	땅의 완성과 관련

[12] Douglas K. Stuart, *Exodus* NAC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440.

[13] Merrill("A Theology of the Pentateuch," in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33-35)은 출 20-24 장(+ 참고: 출 25 장과 레 26 장)과 종주권 조약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Merrill 은 시내산 언약이 엄밀하게 말하면 출 20-23 장에 국한되지만 레 26:46 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시내산 언약이 출 20-23 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과 레 1-26 장도 포함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Merrill 이나 송제근보다 본문의 범위를 넓혀 Stuart, *Exodus*, 439-440 와 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3 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종주권 조약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14]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69), 203-205 에는 히타이트 제국 무르실리스(Mursilis)와 아무루의 두피-테슙(Duppi-Tessub) 사이에 맺은 조약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문(Preamble # 1), 역사적 서문(Historical introduction, ## 2-7), 준수 조항(미래의 양국 관계: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군사 문제:

⑷문서보관 및 주기적 낭독(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 ⑸증인으로서 신들의 이름(list of deities as witnesses), ⑹축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이다.[15]

3. 전문 (preamble, 요소 1)

조약문	*ANET,* 203 (Treaty between Mursilis and Duppi-Tessub of Amurru) **Preamble** (#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 the great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the favorite of the Storm-god, the son of Suppliuliumas, the great king,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언약문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Military Clauses ## 9-12; 외국인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증인(Invocation of the gods # 18), 저주와 복(Curses and Blessings ## 20-21) 등이 들어 있다.

[15] Cf. J. A. Thompson(*Deuteronomy*, 18)은 G. J. Wenham 이 구약의 언약이 근동 조약문이나 법 문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오직 구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Wenham 이 근동의 조약문과 법문서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비교한 것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Law Code	OT Covenant	ANE Treaty
		1. Preamble
1. Prologue	1. Historical prologue	2. Historical prologue
2. Laws	2. Stipulations a) basic b) detailed	3. Stipulations a) basic b) detailed
3. Summary/ Document clause	3. Document clause	4. Document clause
4. Blessing	4. Blessing	5. God list
5. Curse	5. Curse	6. Curses and Blessings
	6. **Recapitulation**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구약의 언약의 여섯째 항목인 Recapitulation(요약적 반복 진술)은 구약의 언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이다. Thompson(*Deuteronomy*, 19)은 신명기에서 표제를 생략하면 신 1-30 장이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구약의 언약 구조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1:6-3:29	Historical prologue 역사적 서문
4:1-40; 5:1-11:32	Basic stipulations 기본적 준수사항
12:1-26:19	Detailed stipulations 세부적 준수사항
27:1-26	Document clause 문서 규정
28:1-14	Blessings 축복
28:15-68	Curses 저주
29:1-30:20	Recapitulation 요약/반복 진술

1) 종주권 조약문 전문의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조약의 내용을 종주국 왕의 말들(the words of the suzerain)이라고 부르듯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도 "언약의 말씀 곧 열 마디의 말씀(개역개정: 십계명, 출 34:28)"이라고 불렀다.
2) 종주권 조약의 첫 번째 요소인 전문(preamble)에는 종주국 히타이트 왕에 대한 장황하고 과장된 소개가 나온다. 이에 비해 시내산 언약(십계명)의 전문은 출 20:1 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임금(위대한 왕, 참고: 말 1:14)이신 하나님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3) 종주권 조약에서처럼 시내산 언약의 전문에 소개되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3 인칭으로 소개되어 있다.

4. 역사적 서문 (historical prologue, 요소 2)

조약문	*ANET,* 203 **Historical Introduction** (## 2-7): "Aziras was the grandfather of you, Duppi-Tessub. He rebelled against my father, but submitted to my father. . . . When my father became god and I seated myself on the throne of my father, Aziras behaved toward me just as he had behaved toward my father. . . . . When your father died, in accordance with your father's word I did not drop you. .... you were sick ailing, but although you were ailing, I, the Sun, put you in the place of your father and took y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Amurru land in oath for you."
언약문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전문에서 3 인칭으로 소개된 종주국 왕은 역사적 서문에서 말하는 자로서 1 인칭으로 서술되며 속국의 왕은 2 인칭으로 서술된다.
2) 종주권 조약문의 두 번째 요소인 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에는 종주국 왕과 그의 조상들 그리고 속국의 지배자와 그의 조상들과의 역사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종주국 왕이 속국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일들이 언급되며 자주 속국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푼 사실도 언급된다. 역사적 서문은 종주권 조약을 세우기 위한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내산 언약(십계명)의 역사적 서문은 출애굽기 20 장 2 절인데 전문의 3 인칭 서술이 1 인칭 서술로 바뀌며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되어 있다.[16] 이 역사적 서문에서 여호와란 이름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위대하신 왕,

[16] 전문에서 역사적 서문으로 올 때 3 인칭에서 1 인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다 자세히 논의한 Jeffery J. Niehaus, "Amos," in *The Minor Prophets* ed. Thomas E. McComiskey, Vol. 1 (Grand Rapids: Baker, 1992), 320-323 을 보라.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89), 102 도 출 20:1, 신 1:1-5; 수 24:1-2 이 전문에 해당하고 출 20:2; 신 1:6-3:29; 수 24:2-13 이 역사적 서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Hill 과 Walton 의 *A Survery of Old Testmament* 의 경우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부분(91 쪽)에서는 preamble: 20:2a; historical prologue: 20:b 라고 하고 신명기를

하나님의 위엄과 무한한 능력이 증거되고 있다. 여기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 아래서 소망 없이 고통만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5. 준수조항 (stipulations, 요소 3)

조약문	*ANET,* 204-205 **Stipulations**(## 8-17)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미래의 양국관계; **Military Clauses** ## 9-12 군사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외국인 문제) "# 8 .... And just as I shall be loyal toward you, even so shall I be loyal toward your son. But you, Duppi-Tessub, remain loyal toward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Hatti land, my sons and my grandsons forever! .... Do not turn your eyes to anyone else!"
언약문	출 20: 3-17 10 가지 계명(일반적인 조항) [Merrill: + 출 20:22-23:33 구체적인 조항] [Walton: + 출 20:22-23:33 언약서 + 출 34:10-26, 레 1-25 장 의식법] [Stuart: + 출 20:18-23:19 + 출 25:1-31:18]

1) 종주권 조약문의 세 번째 요소인 준수 조항들(stipulations)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하여 종주국이 속국에 이행토록 요구하는 규정들이며 일반적인 조항들과 구체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메릴(Merrill)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출 19-24 장에 국한하여 보면 출애굽기 20:3-17 의 열개의 계명은 일반적인 조항에 해당하며,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부분으로 언약서(the book of the covenant, 출 24:7)라고 부르는 출 20:22-23:33 은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십계명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당위적(apodictic) 조항이며, 언약서의 조항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적인(casuistic) 조항이다.

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출 24:3)"는 바로 일반 조항인 십계명(출 20:1-17)과 구체적 조항인 언약서(출 20:22-23:33)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③ 여기에 쓰인 용어 "말씀(דְּבָרִים 드바림)"이 다른 곳에서 십계명을 지칭하는데 쓰였고 "율례(מִשְׁפָּטִים 미시파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설명하는 부분(133 쪽)에서는 introduction of speaker: 20:1; historical prologue: 20:2 라고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신명기의 경우 Niehaus 는 1:1-5 를 전문으로, 1:6-4:43 을 역사적 서문으로 보았다. Merrill(Zuck, *Biblical Theology*, 33)과 Kline(*Biblical Authority*, 114-115)과 Stuart(*Exodus*, 439)가 출 20:2a(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을 전문으로 보고 출 20:2b(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를 역사적 서문으로 나눈 것은 전문에서 종주국 왕이 3 인칭으로 서술되고 역사적 서문에서 1 인칭으로 바뀌어 서술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출 19-24 장의 범위를 넘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조약문과 비교하는 월튼(Walton)은 준수사항으로 십계명과 언약서와 의식법을 언급하였고 스튜아트(Stuart)는 준수조항으로 출 20:3-23:19 과 25:1-31:18 을 언급하였다.

6. 보관과 주기적 낭독 (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 요소 4)

1) 종주권 조약문의 네 번째 요소인 조약 문서의 보관과 주기적인 낭독(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에 관한 부분은 무르실리스와 두피-테슙 사이의 조약문에 실려있지 않다.

2) 출 24 장에 의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고(출 24:4)"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출 24:7)"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기록은 보관하여 주기적으로 낭독하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문서 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대한 것은 시내산 언약 체결(출 19-24 장)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메릴이 지적한대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할 때 십계명을 넣을 언약궤/증거궤에 대한 지시(출 25:10-22)가 제일 먼저 나온 것과 언약궤를 성막, 나중에 성전에 둔 사실에서 언약 문서 보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월튼은 출 25:16 의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문서 보관에 대한 구절로 지적하였다. 메릴은 신 6:4-9 에서 주기적으로 언약 문서를 읽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와인펠트(Weinfeld)에 의하면 신명기에서 문서 보관은 신 10:1-5; 31:24-26 에서 볼 수 있고, 정기적 낭독은 신 31:9-13 에서 볼 수 있고, 복사본과 사본은 17:18-19; 31:25-26 에서 볼 수 있다.

7. 증인(witnesses, 요소 5)

조약문	*ANET,* 205 **Invocation of the Gods** # 18 참조
언약문	No gods as witnesses Merrill: 출 24:4 제단(여호와 대표)과 열두기둥(이스라엘 대표)? + 신 4:26; 30:19 천지 혹은 신 31:28 노래 Stuart: 출 29:46; 31:13; 레 11:44 "I am Yahweh. 나는 여호와니라"

1) 종주권 조약문의 다섯 번째 요소인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성실히 조약을 이행할 것을 그 앞에서 맹세하는 신들의 이름(list of deities as witnesses)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에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언약 위반에 대해 호소할 여호와보다 더 높은 신이 없으므로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 나오는 신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튜아트가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기-레위기에서 여호와는 언약의 유일한 증인이시다(출 29:46; 31:13; 레 11:44). 이렇게 여호와가 전문과 증인 목록 부분의 중심 인물인 것은 근동 조약문에서 종주국 왕이 전문의 중심 인물이고 신들이 증인 목록 부분의 중심 인물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2) 신들의 이름 목록이 없다고 해서 언약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메릴이 설명한 것처럼 출 24:4-8 의 언약 체결 의식에 대한 설명 부분의 쌓은 제단이 여호와를 대표하고 세운 열두 기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과 열 두 기둥이 언약 체결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천지(신 4:26; 30:19; 31:28)와 노래(신 31:19, 21)와 같은 무생물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명명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스튜아트가 지적한 대로 출애굽기-레위기에서는 여호와가 유일한 증인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가 일차적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천지" 혹은 "이 말씀들" 혹은 "너희 자신" 등이 이차적인 증인 역할을 한다.

8. 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 = 제재 조항 sanctions, 요소 6)

조약문	*ANET,* 205 **Curses and Blessings** "# 20 Th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that are inscribed on this tablet—should Duppi-Tessub not honor thes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may these gods of the oath destroy Duppi-Tessub together with his person, his wife, his son, his grandson, his house, his land and together with everything that he owns. # 21 But if Duppi-Tessub honors thes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that are inscribed on this tablet, may these gods of the oath protect him together with his person, his wife, his son, his grandson, his house (and) his country."
언약문	출 20:5-6, 7, 12, 24: (5)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 . (7)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 . (12)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Stuart: + 출 20:24; 23:20-31; cf. 레 26:3-14 복; 26:14-39 저주; 26:40-45 회복의 복 Merrill: 레 26:3-13 복 / 레 26:14-39 저주

1) 종주권 조약문의 여섯 번째 요소인 속국의 조약 이행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 = 제재 조항 sanctions)에 관한 언급은 십계명중 제 2, 3, 5 계명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레 26:46 의 말씀, 곧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레 26:3-13 은 축복 부분이고 레 26:14-39 는 저주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스튜아트(Stuart, *Exodus*, 439)는 출애굽기-레위기 언약의 축복과 저주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십계명

본문 부분인 출 20:5-6, 12 그리고 언약서 본문인 출 20:24 과 출 23:20-31 을 지적하고[17] 참고로 레 26:3-14 을 축복, 26:14-39 을 저주, 그리고 26:40-45 을 회복의 축복 부분으로 언급하였다.[18]

2)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사에 담당할 역할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충실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9. 이와 같이 전문(preamble, 출 20:1)과 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 출 20:2)이 아주 간결하고, 제재 조항들(sanctions =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 출 20:5-6, 7, 12)이 준수 조항들(stipulations, 출 20:3-17)과 함께 나오며, 보관(deposit, 출 25:16)과 낭독(reading, 신 6:6-9)에 대한 규정이 나중의 내러티브 부분에 나오는 것은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문 형식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유롭게 변형되어 시내산 언약(십계명)에 사용된 것을 보여 준다.

10. 힐과 월튼(Hill and Walton)은 근동의 조약문과 구약의 언약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19]

2 천년기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24 장

[17] [출 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3:20-31] (20)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9)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18] 레위기 26 장과 신 4 장, 28-32 장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임할 형벌(저주)와 순종의 결과로 임할 복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복 (6 corporate blessings): life, health, prosperity, agricultural abundance, respect, safety 생명, 건강, 번영, 농작물의 풍성함, 존경, 안전
- 저주 (10 corporate curses: 10 *d*-word punishments): death, disease, drought, dearth, danger, destruction, defeat, deportation, destitution, disgrace 죽음, 질병, 가뭄(한발), 기근(식량 부족), 위험, 파멸(파괴), 패전, 국외 추방(포로 생활), 빈곤(자원 결핍, 극빈), 치욕(수치)

[19] 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3.

히타이트 조약문서				
종주 소개	조약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는 종주국 왕	출 20:1	1:1-5	24:1-2
역사적 서문	종주국과 속국과의 과거 관계 서술	출 20:2	1:6-3:29	24:2-13
준수조항	속국의 의무 열거	십계명 출 20:1-17 언약법 출 20:22-23:19 의식법 출 34:10-26, 레 1-25 장	4-26 장	24:14-25
문서 규정	문서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관한 규정	출 25:16(?)	27:2-3	24:26
증인	맹세를 증언할 신들	없음	31-32 장	24:22, 27
저주와 축복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신(들)의 반응	레 26:1-33	28 장	24:20

4. 십계명 본문 (출 20:1-17; 신 5:4-21)

1. 역사적 배경

1) 십계명 본문은 출 20:1-17 과 신 5:4-21 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십계명은 두 책에서 각각 율법 부분이 시작되는 처음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 3 월 제 3 일 아침에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출 32:15-16)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2)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출 32: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율법을 주시고(출 34:10-27) 모세에 의해 새로 준비된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 주시며(출 34:1, 28; 신 10:4)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 모세는 이 돌판들을 궤 속에 넣어 성막의 지성소에 두었다(출 40:20-21).

2. 출 20:1-17

1) BHS

1 וַיְדַבֵּר אֱלֹהִים אֵת כָּל־הַדְּבָרִים הָאֵלֶּה לֵאמֹר׃ ס

2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3 לֹא יִהְיֶה־לְ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4 לֹא תַעֲשֶׂה־לְךָ פֶסֶל וְ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5 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ת עַל־בָּנִים 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6 וְעֹשֶׂה חֶסֶד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 ס

7 לֹא תִשָּׂא אֶת־שֵׁם־יְהוָה אֱלֹהֶיךָ לַשָּׁוְא כִּי לֹא 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ף

8 זָכ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9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10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11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הוָה אֶת־הַשָּׁמַיִם וְאֶת־הָאָרֶץ אֶת־הַיָּם וְ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
עַל־כֵּן בֵּרַךְ יְ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קַדְּשֵׁהוּ: ס
12 כַּבֵּד אֶת־אָבִיךָ וְאֶת־אִמֶּךָ לְמַעַן יַאֲרִכוּן יָמֶיךָ עַל הָאֲדָמָה אֲשֶׁר־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ס
13 לֹא תִרְצָח: ס
14 לֹא תִנְאָף: ס
15 לֹא תִגְנֹב: ס
16 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קֶר: ס
17 לֹא תַחְמֹד בֵּית רֵעֶךָ לֹא־תַחְמֹד אֵשֶׁת רֵעֶךָ וְעַבְדּוֹ וַאֲמָתוֹ וְ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ף

2) 개역개정[20]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①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②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④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원문에 "지키라"는 없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가 직역임]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⑥ 13) 살인하지 말라

⑦ 14) 간음하지 말라

---

[20] 십계명 본문에 첨가한 아라비아 숫자로 된 원번호는 개혁교회에서 십계명의 각 계명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⑧ 15) 도둑질하지 말라

⑨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⑩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3. 신 5:4-21

1) BHS[21]

4 [פָּנִים בְּפָנִים] דִּבֶּר יְהוָה [עִמָּכֶם בָּהָר מִתּוֹךְ הָאֵשׁ]: 5 [אָנֹכִי עֹמֵד בֵּין־יְהוָה וּבֵינֵיכֶם בָּעֵת הַהִוא
לְהַגִּיד לָכֶם אֶת־דְּבַר יְהוָה כִּי יְרֵאתֶם מִפְּנֵי הָאֵשׁ וְלֹא־עֲלִיתֶם בָּהָר] לֵאמֹר: ס
6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7 לֹא יִהְיֶה־לְ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8 לֹא־תַעֲשֶׂה־לְךָ פֶסֶל 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9 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10 וְעֹשֶׂה חֶסֶד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כ= מִצְוֹתוֹ] [ק= מִצְוֹתָי]: ס
11 לֹא תִשָּׂא אֶת־שֵׁם־יְהוָה אֱלֹהֶיךָ לַשָּׁוְא כִּי לֹא 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ס
12 שָׁמ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13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
מְלַאכְתֶּךָ: 14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וְעַבְדְּךָ־
וַאֲמָתֶךָ וְשׁוֹרְךָ וַחֲמֹרְךָ וְכָל־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 15 וְזָכַרְתָּ
כִּי־עֶבֶד הָיִיתָ בְּאֶרֶץ מִצְרַיִם וַיֹּצִאֲךָ יְהוָה אֱלֹהֶיךָ מִשָּׁם בְּיָד חֲזָקָה וּבִזְרֹעַ נְטוּיָה עַל־כֵּן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עֲשׂוֹת אֶת־יוֹם הַשַּׁבָּת: ס
16 כַּבֵּד אֶת־אָבִיךָ וְאֶת־אִמֶּךָ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מַעַן יַאֲרִיכֻן יָמֶיךָ וּלְמַעַן יִיטַב לָךְ עַל הָאֲדָמָה
אֲשֶׁר־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ס

---

[21] 신 5:4 과 5:5 에 [ ]로 표시한 내용을 빼면 출 20:1 의 전문처럼 여호와께서 3 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MT)은 신 5:17-20(제 6-9 계명)이 하나의 절 즉 5:17 이고 신 5:21(제 10 계명)이 5:18 이므로 여기부터 한글/영어 성경과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본문 절 수를 따르지 않고 영어/한글 성경과 같은 절 수를 취하(며 괄호 안에 MT 의 절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글 성경 절 수를 따라 이야기하면 신명기 5:18-21 의 계명들 앞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으나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접속사 바브가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세 계명 즉 신 5:18, 19, 20 의 계명들은 각각 부정어 לֹא[로] 앞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고 신 5:21(MT 5:18)에 나오는 두 개의 다른 동사를 부정하는 לֹא[로] 앞에도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출애굽기에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정어 לֹא[로]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다.

17 לֹא תִרְצָח׃ ס

18 וְלֹא תִנְאָף׃ ס

19 וְלֹא תִגְנֹב׃ ס

20 וְ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ס

21 וְלֹא תַחְמֹד אֵשֶׁת רֵעֶךָ ס

וְלֹא תִתְ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עַבְדּוֹ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ס

2) 개역개정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원문에 없음> **이르시되**

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개역의 *너희*라는 복수는 오역임> 하나님 여호와라

① 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②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원문에 "나"는 없음] 나의[원문은 "그의"로 되어있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④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⑤ 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⑥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⑦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⑧ 19)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⑨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⑩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4. 두 본문의 비교

1) 출 20:1-17 과 신 5:4-21 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제④계명, 제⑤계명, 제⑨계명, 그리고 제⑩계명이다.

2) 전문의 경우 출애굽기(20:1)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신명기(5:4 상, 5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하는 역사적 서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동일하다. 개역의 신명기의 십계명 서언 번역에 2 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를"을 사용한 것은 오역이었는데 개역개정에서 "너를"로 바로 잡았다.

[출 20:1-2]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4 상, 5 하-6]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 여호와께서**(원문에는 없음) **이르시되** [4-5 절을 연결하여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됨]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3) 제④계명의 경우 시작 단어가 차이가 나고([자호르] "기억하라"/ [샤모르] "지키라"),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어구들이 있고, 계명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 다르며 이 이유 구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 언급된다. {아래 이탤릭체는 차이가 있는 부분 표시; 밑줄 부분은 신명기에 추가된 것 표시; 볼드체는 원문에 없는 것 표시}

[출 20: 8-11]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원문에 "지키라"는 동사가 없음; "거룩히 지키라"는 "거룩하게 하라"로 고쳐야 함]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원문에 없음]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원문에 없음]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 5:12-15]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4) 제⑤계명의 경우 신명기에 밑줄 친 부분이 첨가되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 제⑨계명의 경우 거짓 증인을 표현하는 원문의 어구가 다르다.

① 개역/개역개정은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번역했다.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② 다음 번역은 "거짓"과 동의어인 "허위"를 사용하여 어구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22]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에드 **샤케르**]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에드 **샤브**]하지 말라.

6) 제⑩계명의 경우 탐내는 대상의 순서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이웃의 집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그의 아내를 언급하나 신명기는 이웃의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의 집을 언급하고 또 밭을 추가하고 있다. "탐내다"는 동사로 출애굽기에는 어근 חמד[하마드]가 두 번 쓰였으나 신명기에는 아내의 경우 출애굽기처럼 어근 חמד[하마드]를 쓰고 이웃의 집을 비롯한 소유물들의 경우 어근

---

[22] 출애굽기 제 9 계명에 나오는 עֵד שָׁקֶר[에드 샤케르]에서 [에드]는 "증인, witness"을 뜻하고 [샤케르]는 "거짓, 속임"을 뜻하는 שֶׁקֶר[셰케르]의 휴지형이다. 제 3 계명(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의 제 9 계명에 나오는 שָׁוְא[샤브]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 허망)**과 거짓됨**(falseness, deceit, fraud, 속임, 사기, 허탄,)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샤브]가 갖는 의미의 범위는 의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연속되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Miller, 72). 출애굽기는 3 계명에서 לַשָּׁוְא[라샤브]가 나오고 9 계명에서 עֵד שֶׁקֶר[에드 **샤케르**]가 나오는 반면, 신명기는 3 계명에서 לַשָּׁוְא[라**샤브**]가 나오고 9 계명에서 עֵד שָׁוְא[에드 **샤브**]가 나온다. 제 9 계명에서 신명기의 [에드 샤브]는 출애굽기의 [에드 셰케르]의 병행어이므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 3 계명에서 [샤브]는 헛됨의 뉘앙스가 더 강하므로 [르샤브]는 "망령되이, 헛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제 9 계명에서 [샤브]는 거짓됨의 뉘앙스가 더 강하므로 [에드 샤브]는 [에드 셰케르]처럼 "거짓/허위 증인"을 의미한다. 제 9 계명에서 이 두 어구는 부사적 대격으로 쓰였다. 9 계명을 직역하면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허위 증언/위증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 9 계명에서 [셰케르]와 [샤브]가 동의적 병행어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임을 반영하기 위해 출애굽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신명기는 "**허위** 증언하지 말라"로 번역했다. 헛됨과 거짓됨이란 서로 관련된 의미를 지닌 [샤브]를 3 계명과 9 계명에서 모두 사용하는 신명기의 경우 3 계명에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9 계명에서 "**망령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אוה[아바]가 사용되었다. 개역/개역개정은 구별하지 않았으나 본 주해는 [하마드]는 "탐내다"로 번역하고 [아바]는 "탐하다"로 번역하여 구별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תַּחְמֹד[타흐모드])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תַּחְמֹד[타흐모드]) *말라*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תַּחְמֹד[타흐모드])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תִּתְאַוֶּה[티트아베]) *말지니라*

7) 개역개정의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과 신명기 십계명 본문을 비교하면 원문이 똑같은 경우에도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많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부정적 계명들

(출) 말라

(신) 말지니라

② 이인칭 단수 주격 "너는"의 유무

(출) 1 계명과 3 계명의 서두에 "너는"을 사용하였음

(신) 2 계명과 3 계명과 5 계명의 서두에 "너는"을 사용하였음

③ 서언

(출 20:2)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6) 네 하나님 여호와라

④ 제 2 계명

(출 20:4) 너를 위하여 … 땅 아래 물속에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 땅 밑 물 속에

⑤ 제 3 계명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3 인칭으로 번역하고 신명기는 1 인칭으로 번역하였다. 출애굽기 번역이 원문의 3 인칭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의 어구 선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된 번역을 위해 제 3 계명을 논의하는 번역 부분을 참고하라.

⑥ 제 4 계명

(출 20:10) 네 문안에 머무는 객

(신 5:14) 네 문안에 유하는 객

⑦ 제 10 계명

(출 20:17)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신 5:21)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원문의 직역은 "네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이다. 신명기의 "무릇"과 "모든"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무릇"이나 "모든"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둘 모두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히브리어 성경의 두 본문의 차이에 대한 이해

1) 우리에게 전승된 십계명 본문은 길이에 있어서 다양하고, 형식에 있어서 여덟 가지 계명은 부정형이고 두 가지 계명은 긍정형이므로 일정하지 않으며, 몇몇 계명의 경우 두 본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많은 학자들은 십계명이 "[에쎄레트 하드바림] 열 마디의 말씀"으로 명명되고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원래 십계명은 제 ⑥, ⑦, ⑧계명과 같이 모두 10 개의 짧은 명령으로 되어 있었다고 본다.

① 라이트(C. J. H. Wright)는 전승된 십계명 본문에 들어 있는 동기 부여나 경고(②, ③계명), 신학적 해설(④계명), 약속(⑤계명), 세부 사항(⑩계명) 등은 나중에 첨부된 것으로 여긴다.[23]

② 콜(R. Alan Cole)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24]

③ 키드너(D. Kidner)도 긴 계명인 제 ①-⑤, ⑩계명이 원래의 짧은 명령에 주해(exposition)가 첨가된 것으로 보면서 제 4 계명의 두 본문의 차이점 그리고 제 10 계명의 두 본문의 차이점도 이런 주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25]

3) 클라인(Kline)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출애굽기의 십계명 본문 전체가 모두 돌판에 각각 한번씩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두 돌판이 모세가 들 수 있고 궤에 보관할 만한 크기이며 더구나 십계명이 돌판의 양면(출 32:15)에 기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렇고 또 고대 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도 두 부를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던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하였다.[26] 그리고 클라인(122)은

---

[23] G. W. Bromiley,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 ISBE* (Grand Rapids: Eerdmans, 1979-88), IV: 786.

[24] R. Alan Cole, *Exodus* TOTC (Downers Grove: IVP, 1973), 154, 157.

[25] M. C. Tenney, ed., *Zondervan Pictorial Bible Encyclopedia = ZPEB* (Grand Rapids: Zondervan, 1975), V: 673.

[26] Meredith G. 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Wipf & Stock, 1989), 119-120. Poythress 도 똑같은 십계명을 각각 담고 있는 두 돌판을 성막에 보관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경우에 종주이신 하나님의 중앙 거처가 바로 봉신인 이스라엘의 중심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Vern S.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1), 76: "When the ancient Hittites made treaties, they produced two copies, one for the suzerain and the other for the vassal. Corresponding to this practice, God wrote the Ten Commandments on two tablets—almost certainly two copies of the same Ten Commandments rather than one copy in two parts. Both copies were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내산에서 제 1 세대와 언약을 세운 뒤 약 40 년 후에 하나님이 제 2 세대와 언약을 갱신할 때 있었던 차이라고 설명한다.

5. 십계명(출 20:1-7; 신 5:4-21) 번역[27]

1. 출 20:1-17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르셨다.**

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3**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②**4**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5**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 사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6**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③**7**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④**8**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9**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⑤**12**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

⑥**13**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⑦**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⑧**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⑨**16**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⑩**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2. 신 5:4-21

---

deposited in the tabernacle since in the case of Israel the central residence of God the Suzerain was simultaneously the central point for Israel the vassal."]

[27] 두 본문의 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고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놓어 놓았다. 절 표시 숫자 앞에 있는 아라비아 원문자는 개혁교회에서 나누는 1 계명에서 10 계명을 표시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4 ***여호와께서*** [너희와 대면하여 그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5**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원문에 없음> **이르셨다.**

6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②**8**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9**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 사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10**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③**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④**1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13**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15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⑤**1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

⑥**17**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⑦**18 그리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⑧**19 그리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⑨**20 그리고**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지 말라.

⑩**21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6. 십계명의 구분

1. 개혁 교회와 희랍 정교회

1)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은 처음부터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개혁교회와 희랍 정교회에서는 위의 십계명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전문 그리고 역사적 서문인] 십계명

서언(출 20:1-2; 5:4 상, 5 하-6)과 아라비아 숫자 원번호로 표시된 열개의 계명(출 20:3-17; 신 5:7-21)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2)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3 인칭으로 서술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출 20:1)"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 이르시되(신 5:4 상, 5 하)"는 전문(前文 preamble)이다.

3) 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신 5:6)"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1 인칭으로 서술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땅, 종 되었던 집에 구원하신 사실을 천명하는 역사적 서문(歷史的 序文 historical prologue)이다.

4)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조항들(stipulations)인 10 개의 계명 중에서 제①-④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이요, 제⑤-⑩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들이다.

2. 유대교

1) 유대교에서는 십계명 서언을 제 1 계명으로 간주하고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2 계명으로 간주하나 나머지 제③-⑩계명은 개혁교회의 구분과 같다.

2) 각 계명(제①-⑩계명)들이 부정 명령 혹은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십계명의 서언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언약 문서의 관점에서 역사적 서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①계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은 아래의 제②계명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계명이 금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3. 루터교와 천주교

1) 루터교와 천주교에서는 개혁교회와 같이 십계명이 서언과 열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⑩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본다.

2)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3) 이와 대조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4) 세일하머(Sailhamer)는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저자가 열 마디 말씀(출 34:28)으로 이해한 것은 확실하지만 첫 두 계명의 가능성이 있는 출 20:2-6 과 마지막 두 계명의 가능성이 있는 출 20:17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루터교와 비슷하게 십계명을 구분하며 그 이유를 제시한다.[28]

① 출 20:3-6 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 언약의 일반적인 준수 조항인 십계명(말씀)에 이어 나오는 구체적인 준수 조항인 소위 언약서(출 20:22-23:33)의 42 율례를 우상 숭배 금지와 적절한 형태의 예배가 다음과 같이 감싸고 있다.

우상 숭배 금지(출 20:22-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적절한 형태의 예배 (20:24-26)
42 (7 x 6) 율례들 (21:1-23:12)
우상 숭배 금지 (출 23: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적절한 형태의 예배 (23:14-19)

- 출 32 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첫째로, 출 34:4, 8 에서 금송아지를 "송아지 형태로 부어 만든 우상(**עֵגֶל מַסֵּכָה** [에겔 마쎄하] a molten calf, an idol in the shape of a calf)"이라고 한 것은 금송아지를 다른 신(another god)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an idol of the one God)으로 본 것을 반영한다. 둘째로,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묘사는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출 32:4, 8 의 **אֵלֶּ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엘레 엘로헤하 이스라엘 아셰르 헤엘루하 메에레트 미츠라임]이 느 9:18 에서 단수 지시 대명사와 단수 동사가 사용되며 **זֶה אֱלֹהֶיךָ אֲשֶׁר הֶעֱלְךָ מִמִּצְרָיִם**[제 엘로헤하 아셰르 헤엘하 미미츠라임]이라고 해석된 것도 출 34:4, 8 의 **אֱלֹהֶיךָ** [엘로헤하]가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your gods"가 아니라 여호와를 나타내는 "your god"임을 보여준다.[29]

---

[28]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92), 283-284.

[29] 출 34:4, 8 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NI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ES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NASB: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② 출 20:3-6 이 하나의 계명이므로 10 가지 계명의 유지를 위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제 9 계명이고 "이웃의 아내를 비롯한 다른 대상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제 10 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③ 이러한 출애굽기의 십계명 구분은 반복되는 신명기의 십계명 구분과 조화를 이루는데 신명기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5) 그리고 세일하머는 신명기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두 개의 계명으로 간주되고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30]

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영어 성경의 신 5:17-20 을 한 절(MT 5:17)로 보지만 BHS 는 히브리어 성경 절 구분을 따르지 않고 영어 성경 절 구분을 따랐다. 영어 성경 절 구분을 따라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세 계명 즉 신 5:18(간음), 19(도둑질), 20(거짓증언)의 부정어 לֹא[로] 앞에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그리고 신 5:21 에 두 개의 다른 동사가 사용되며 두 동사를 부정하는 לֹא[로] 앞에도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17 לֹא תִרְצָח׃ ס

18 וְלֹא תִנְאָף׃ ס

19 וְלֹא תִגְנֹב׃ ס

20 וְ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ס

21 וְלֹא תַחְמֹד אֵשֶׁת רֵעֶךָ ס

וְלֹא תִתְ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עַבְדּוֹ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ס

② "탐내다"는 동사로 출 20:17 에는 תַחְמֹד[타흐모드]가 두 번 나왔으나 신 5:21 에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는 출애굽기처럼 보다 구체적인 תַחְמֹד[타흐모드]가 사용되고 집을 비롯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는 보다 일반적인 תִתְאַוֶּה[티트아베]가 사용된 것은 두 개의 계명의 어휘를 구별해 준다.

③ 출 20:17 에서 먼저 언급된 "이웃의 집"은 다음에 나오는 목록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이웃의 아내"가 소유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 5:21(MT 18)에서 출 20:17 의 "집-아내"의 순서가 "아내-집"의 순서로 바뀌고 출애굽기의 "아내" 자리에 "밭"이 오며 "아내"가 소유의 일부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금하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금하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따라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둘이며 하나는 이웃의 소유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④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7(영어/한글 신 5:17-20)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음에 오는 세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바브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8(영어/한글 신 5:21)에 두 개의

[30]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437-438.

접속사 바브가 사용된 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8(영어/한글 신 5:21)에 출애굽기와 달리 같은 동사가 두 번 사용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동사가 사용된 점, 그리고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집"을 언급하고 "아내"가 오던 자리에 "밭"을 추가함으로써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와 명시적으로 구별된 것 등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의 둘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6) 루터교와 천주교 그리고 세일하머가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⑩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아래 제 2 계명의 논의에서 보게 될 것처럼 제①명과 제②계명은 금하는 내용이 다른 각각 하나의 계명들이다. 따라서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위에서 지적한대로 제⑩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순서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출애굽기는 집 그리고 아내의 순서를 갖고 있는 반면 신명기는 아내 그리고 집의 순서를 갖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이렇게 제⑩계명을 둘로 나눌 때 루터교와 세일하머는 출애굽기 본문을 따르고 천주교는 신명기 본문을 따라 나누기 때문에 이들의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에 혼란이 생긴다.

③ 도우마(Douma)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31]

- 출 20:17 과 신 5:21 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절들이 둘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으나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기 때문에 제⑩계명을 둘로 나누어 10 개의 계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둘로 나눈 것이다.
- 출애굽기에서 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신명기에서 두 개의 다른 동사를 한번씩 사용한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절들이 두 개의 구별된 계명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31] 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lated by Nelson D. Kloosterman (New Jersey: P&R, 1996), 338.

-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십계명을 논의할 때 그들의 9 계명과 10 계명을 따로 따로 논의하지 않고 하나로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들이 둘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다.
- 롬 7:7 에 "탐내지 말라"로 나오고 롬 13:9 에 다른 계명들과 함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된 것이 분명하다.

④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 대상을 달리 하여 두 개의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7.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의 순서

1. 지금까지 십계명 구분에서 논의한 열 가지 계명들의 순서는 맛소라 본문에서 동일한 순서를 보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따른 것이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은 역본에서 번역되거나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될 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맛소라 본문의 순서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1) 칠십인역의 **신명기**에는 맛소라 본문처럼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을 금하는 계명들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칠십인역의 **출애굽기**에는 ⑦**간음**, ⑧도둑질, ⑥**살인**을 금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2) 렘 7:9 에는 ⑧도둑질, ⑥**살인**, ⑦**간음**, ⑨(?③)거짓 맹세의 순서로 나온다.[32]
   3) 호 4:2 에는 ③저주, ⑨속임, ⑥**살인**, ⑧도둑질, ⑦**간음**의 순서로 나온다.
2. 영생을 얻고자 왔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마 19:18-19 에는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을 금하고 ⑤부모 공경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2) 눅 18:20 에는 ⑦**간음**, ⑥**살인**,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을 금하고 ⑤부모 공경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3) 막 10:19 의 경우 개역과 NIV 에는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 그리고 (⑧?, ⑧+⑨?, ⑩?, ⑨+⑩?)속여 취하는 것을[33] 금하고 ⑤부모 공경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

[32] "거짓 맹세"는 렘 4:2 처럼 종교적 의미도 지니고 레 6:3 이나 슥 8:17 처럼 사회적 의미도 지니므로 종교적인 제 3 계명의 측면과 사회적인 제 9 계명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렘 4:1-2] (1)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슥 8:16-17] (16)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 6:2-3]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33]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언급된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의 어느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3. 바울은 롬 13:9 에서 ⑦**간음**, ⑥**살인**, ⑧도둑질, ⑩탐심을 언급하고 요약적 이웃 사랑을 언급한다. 바울은 딤전 1:9-10 에서 율법이 ⑤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⑥**살인**하는 자며 ⑦**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⑧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⑨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위한 것임을 지적한다.
4. 야고보는 "⑦**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⑥**살인**하지 말라(약 2:11)"고 하셨다고 지적한다.
5. 지금까지 살핀 대로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제 5-10 계명의 순서가 다르게 언급되는 것은 그 이유를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저작 목적, 문맥, 계명에 대한 관점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1) 맛소라 본문에서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의 연결고리로서 서 있는 제 5 계명의 위치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34]
   2) 공관복음(마 19:18-19; 막 10:19; 눅 18:20)에 공통적인 사항은 순서가 좀 다른 것이 있기는 해도 먼저 제 6-9 계명이 모두 언급되고 마지막 자리에 제 5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① 마가복음에만 제 5 계명 앞에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제 5 계명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적 진술이 들어 있다.
      ② 마 19:18-19 에서 제 5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함께 요약적인 이웃 사랑의 계명들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제 5 계명과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동의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대비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하나님 사랑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웃 사랑을 바라보며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35]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Baker, 1975), 393 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 본문이 아니라 레 19:13 과 신 24:14-15(cf. 약 5:4)의 품삯과 관련하여 착취하지 말라는 규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Henderiksen 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나타내거나(Lenski), 제 8 계명의 추가적 설명이거나(Vincent Taylor), 아니면 마 19:19 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적 진술(H. B. Swete, A. B. Bruce)로 보는 입장이 있는 것을 지적한다. Hendriksen 은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Baker, 1973)의 393 쪽에 있는 각주 693 번에서 막 10:19 의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의 결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D. A. Carson("Matthew"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423)은 막 10:19 의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적용이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Walter W. Wessel("Mark"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715)은 속여 취하는 것이 탐욕의 표현이기 때문에 막 10:19 에만 나오는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 10 계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4]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5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35] Patrick D. Miller, *The Ten Commandment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169.

3) 제 6-8 계명의 순서는 다양하다. 살인 금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맛소라 본문 십계명; 칠십인역 신명기 십계명; 렘 7:9; 호 4:2; 딤전 1:9-10; 마 19:18-19; 막 10:19) 간음 금지가 먼저 나오기도 한다(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 눅 18:20; 롬 13:9; 약 2:11). 도둑질 금지는 살인-간음 금지 혹은 간음-살인 금지 다음에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살인-간음 금지보다 앞서기도(렘 7:9) 하고 그 중간에(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 호 4:2) 오기도 한다.

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할 대상으로 생명(6 계명), 결혼(7 계명), 그리고 자유/재산(8 계명)의 순으로 나오는 맛소라 본문의 순서가 아주 논리적이다. 살인 금지 다음에 간음 금지가 나오는 것은 이웃의 권리의 관점에서 생명 보호의 계명인 제 6 계명 다음에 가정 보호의 계명인 제 7 계명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칠십인역의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에 부모 공경 계명 다음에 바로 간음 금지 계명이 나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을 금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가정 파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순서이다.

③ 도둑질이 살인-간음보다 먼저 나오거나(렘 7:9) 살인과 간음 사이(호 4:2) 혹은 간음과 살인 사이(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에 오는 것은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에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유괴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둑질인 유괴가 살인과 간음처럼 사형으로 다스려진 사실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순서이다.[36]

[36] Miller, *Ten Commandments*, 272 은 도둑질의 원래의 의미가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임을 보여 주며 렘 7:9 에 도둑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8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8. 십계명의 중요성

1. 특별한 위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다. 모세오경의 55%가 율법이다.[37]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계명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어느 계명보다도 우월하다.[38]

1)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란 점에서 우월적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당위 명령 형식을 갖고 있다(출 20:1-17). 이와 대조적으로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언약법(출 20:18-23:33)은 조건절과 귀결절로 이루어진 사례법들로서 십계명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십계명과 언약법과의 관계는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언약법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나머지 법들도 십계명의 구체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십계명은 율법의 최초 부분이고 다른 모든 율법과 분리되어 구별된다.

2)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대면하여(신 5:4) 직접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가 유일한 경우이다. 나머지 다른 법들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출 20:19-22; 신 5:23-32). 계시의 방법에서 있어서 십계명이 다른 법들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하시는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상이나 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것과 같다(cf. 민 12:1-8).

3) 십계명은 "언약"이며(신 4:13; 9:9, 11)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32:15-16)에 기록하여 주신 최초의 성경 말씀(신 4:12-14; 5:22; 9:9-17; 10:1-5)으로 정경의 기초이다.

---

[37] J. H. Sailhamer,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55-260. 모세오경을 전기라는 장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세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창세기(오경의 약 25%) 중 창 1-11 장(오경의 약 5%)은 오경 전체의 서론이고, 창 12-50 장(오경의 약 20%)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 즉 아브라함(창 12-25)과 야곱(창 26-36)과 요셉(창 37-50)의 전기이다. 모세 시대만을 다루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오경의 약 75%)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아래서 살았던 모세의 전기(출 1-18; 민 10:11-36:13 — 오경의 약 20%)와 그 율법(그 나머지 부분 — 오경의 약 55 %)에 대한 소개이다.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의 25:75 의 비율, 족장들의 전기와 모세의 전기의 20:20 의 같은 비율, 모세의 전기와 율법의 20:55 의 비율은 모세 오경이 모세의 삶을 족장들(특히,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그 아래서 살았던 율법의 성격과 주어진 목적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

[38] Bruce K. Waltke,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412-414; Miller, *Ten Commandments*, 3-4.

4) 오직 십계명만이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신 10:1-5).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두었다(신 31:24-26). 성막/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출 25:40; 히 8:5; 9:23)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백성과 만나는 곳이다. 성막/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보이시는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5)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되었던 다른 법들(신 5:31)과는 달리 지역이나 역사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쉽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뜻은 방대하고 무한하다. 인간의 모든 의무를 그토록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그의 뜻을 계시하신 도덕법의 총괄이요 요약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소교리 문답 40-41; 대교리 문답 93, 98).

6) 십계명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출 21:12)"는 명령처럼 비인칭적 3 인칭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법들(출 20:18-23:33)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다. 십계명은 2 인칭 복수가 아니라 **2 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십계명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개개 구성원 사이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 십계명은 어느 다른 율법 부분과 달리 시내산 내러티브 가운데 한 번(출 20 장)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할 때 한 번(신 5 장) 제시되며 **두 번** 주어진다.

2. 다른 성경책들의 인용

십계명은 모세오경에서 반복되고 다른 구약책들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다. 이것은 십계명이 특별하게 취급되었고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1) 구약의 다른 책들의 인용

①[렘 7:9-10] 너희가 ⑧도둑질하며[?=유괴하며] ⑥살인하며 ⑦간음하며 ⑨[③]거짓 맹세하여 ①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②[호 4:1-2]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③저주와 ⑨속임과 ⑥살인과 ⑧도둑질과 ⑦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2) 신약 성경의 인용

①[마 19: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⑥살인하지 말라, ⑦간음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증언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참고: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⑥살인하지 말라, ⑦간음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 증언하지 말라, ⑧속여 취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눅 18: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⑦간음하지 말라, ⑥살인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 증언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② [롬 13:9] ⑦간음하지 말라, ⑥살인하지 말라, ⑧도둑 질하지 말라, ⑩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③ [약 2:11] ⑦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⑥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④ [딤전 1:9-10]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⑤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⑥살인하는 자며 ⑦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⑧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⑨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③]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3. 교리 교육의 대상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셰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회당에서 날마다 함께 읽었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 교육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 종교 개혁 후에 작성된 교리 문답들은 다루는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혁/장로교회들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에서 찾게 된다는 칼빈을 따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윤리 교육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다시 말하면 개혁/장로교회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표준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① 루터의 대소 교리 문답(1529 년)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순서로 다루고 있으나,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1545 년)과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563 년)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순서로 다루고 있다.

②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신조로 채택하였다. 개혁교회 목사들은 12 세부터 18 세까지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따라 설교를 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92-115 번(34-44 주일)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③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교리 문답을 채택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39-81 번(1647 년)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 어른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대교리 문답은 91-148 번(1648 년)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9. 십계명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규칙들[39]

1. 경맥(經脈) [중시] 규칙(biblical rule)

1) 경맥 [중시] 규칙이란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이므로[40] 십계명 본문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따라 십계명의 모든 계명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선지자, 예수님, 사도들이 가르친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한 교훈을 십계명에 대한 주해로 받아들여야 한다(Hopkins #1)." 십계명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도덕의 축약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련된 규례들은 십계명 가운데 조문으로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십계명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관이 있다.

2)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이나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 2 계명은 매우 간결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제 1-2 계명은 나머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배에 관하여 말한 것과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한 것을 살필 때 그 이해가 훨씬 깊어진다.

① 선지자 이사야(44:6-23)는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제 1-2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

[39] E. Hopkins, *A Practical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1701. = "Understanding the Ten Commandments" in Walter C. Kaiser, Jr., ed., *Classical Evangelical Essays* (Grand Rapids: Baker, 1972), 41-58; Philip Graham Ryken, *Written in Stone: The Ten Commandments and Today's Moral Crisis* (Wheaton: Crossway, 2003), 41-55; Ernest C. Reisinger, *The Law and the Gospel* (Phillipsburg; P&R, 1997), 73-75; Johannes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ed. G. I. Williamson (Phillipsburg: P & R, 2002), 241-254.

[40] 성경해석학에 관한 시카고 성명(1982)의 제 17-18 조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 17 조.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 조화, 그리고 일관성을 시인하며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수정하거나 다른 구절에 배치된다고 제안하는 식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성경을 나중에 기록한 저자들이 먼저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 18 조. 우리는 성경의 성경 자신에 대한 해석이 항상 옳으며, 영감된 본문의 단일 의미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을 시인한다. 선지자의 말씀들의 단일 의미는 그 선지자가 그 말씀들에 대해 이해한 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그 말씀들의 성취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항상 자신이 기록한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빠짐없이 다 이해하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②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4:24). 이것은 제 1-3 계명을 이해하는 바른 원리를 가르쳐 준다.

③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다(엡 5:5; 골 3:5). 이것은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십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① 제 1 계명을 어긴 솔로몬(왕상 11:4-8), 제 2 계명을 어긴 아론(출 32:1-8)과 여로보암 1 세(왕상 12:28-30), 그리고 제 1-2 계명을 어긴 가장 나쁜 왕 아합(왕상 16:30-33)이 보여준 악행은 제 1-2 계명에서 피해야 할 죄들을 보여주며 두 계명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 대하여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대상 10:13-14)."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사울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제 3 계명을 위반했던 것을 보여준다.

③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는 제 6-7 계명을 어기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만이 아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제 10 계명을 범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어선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는 제 1-3 계명을 범했다(삼하 12:9-10).

④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길 청할 때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으까(창 39:9)?"라고 반문하였고 그녀가 매일 동침하자고 청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과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다윗과 달리 요셉은 제 10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제 7 계명도 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되는 계명들도 범하지 않았다.

4) 예수님은 산상수훈(마 5-7 장)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 설명해 주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을 보여 주셨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마 5:17)"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율법(마 5:18)"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신 내용들과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모범적 사례들을 살피는 것은 십계명의 해석과 이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롬 10:4)." 따라서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예표하였고[41]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2. 표리일치 규칙(inside/outside rule)

1) 표리일치 규칙은 계명 준수에 있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저주하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죽이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등 제 1-9 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외적인 형태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각 계명에 명시된 외적인 것만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의 모든 악한 것, 즉 내적인 것까지 금하고 있는 것이다. 제 10 계명의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얼핏 보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는 보다 더 내적인 죄로부터 시작하여 무심코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까지 금하고 있는 것이다.[42] 사실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서 탐내는 것을 금하는 제 10 계명과 같은 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해 준다.

② 십계명에 외적인 것(제 1-9 계명)과 보다 더 내적인 것(제 10 계명)이 명시되어 있듯이 "십계명에서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하는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죄의 욕구와 동기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계명은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을 요구한다(Hopkins #4)."

③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9 번의 두 번째 답처럼 하나님의 "(2)율법은 신령하므로 말과 행위와 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롬 7:14; 신 6:5; 마 22:37-39; 마 5:21-22, 27-28, 33-34, 37-39, 43-44)."[43]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하다(The moral law of God is spiritual.)"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행동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생각과 정신 상태,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결심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44] 국가에서 정한 인간의 법들은 사람들의 영적 혹은 정신적 삶을 지배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법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신념이나 감정의 순종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행동의 외적

---

[41]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하는 율법 문제는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59-93 에 잘 다루어져 있다.

[42] 제 1-9 계명에 명시된 것은 외적인 행위이고 제 10 계명에 명시된 것은 내적인 태도라고 이해하는 보편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을 위해 아래 "제 10 계명의 금지의 출발점"에서 다룬 Douma(*Ten Commandments*, 339-341)의 견해를 참고하라.

[43] WLC 99: (2) That it is spiritual, and so reacheth the understanding, will, affections, and all other powers of the soul; as well as words, works, and gestures.

[44]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44. "The moral law is spiritual, that is, it concerns not only our outward conduct or actions, but our spiritual life, our thoughts and mental states, our emotions, desires, and the resolutions of the will as well."

순종만을 요구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소득세를 내게 하는 외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소득세의 원리를 믿도록 하거나 기쁨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

④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고 말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므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므로(롬 7:14)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관련지어 다룬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왓슨(Watson)의 말대로 사람의 법은 손만을 묶지만 하나님의 법은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묶는다.[45]

2)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이 살인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노와 증오 그리고 모욕과 멸시도 금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다(마 5:21-22).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다(요일 3:15).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이 불륜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의 간음도 금하는 것임을 설명하셨다(마 5:2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훼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7-20).

3)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계명은 입술과 무릎의 외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공경과 사랑도 요구하므로 우리는 몸 전체뿐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사야(29:13)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하시며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고도 부모 공경을 했다고 하던 "고르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마 15:1-10).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눅 11:39)."라고 책망하신 것은 외적인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 내적인 참된 정신의 실현을 요구하신 것이다.

4) 모세는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45] Thomas Watson, *The Ten Commandments* (1692;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5), 45.

규례를 지킬" 것(신 10:12-13)을 권면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 10:16)"고 말했다. 바울도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지적하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하였다.

5) 표리일치의 규칙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며 그의 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가를 보여준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신실(inward integrity)과 외적 순종(outward conformity)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שָׁב אֶל־יהוה [샤브 엘-아도나이] turned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온) 왕은[개역: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왕하 23:25)."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긍부(肯否) 양면 규칙(two-sided rule; rule of opposites/contraries/contrapositives)

1) 긍부 양면 규칙이란 모든 계명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① 이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네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4)하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고(사 58:13; 마 15:4-6; 신 6:13; 비교, 마 4:9-10),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는(엡 4:28) 것과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에는 상반되는 경고가 포함되고(출 20:12), 부연된 경고에는 상반되는 약속이 포함된다(렘 18:7-8; 출 20:7; 비교, 시 15:1, 4-5; 24:4-5)."[46]

② 이 규칙에 따라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십계명을 다룰 때 각 계명의 형식이 하라는 긍정 명령이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든 먼저 각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각 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였다.

③ 홉킨스(Hopkins #2)는 긍부 양면 규칙에 대하여 "십계명이 긍정적인 넷째와 다섯째 계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를 포함하며 부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④ 사람들은 홉킨스처럼 십계명이 "하라"는 2 개의 긍정 명령(제 4-5 계명)과 "하지 말라"는 8 개의 부정 명령(제 1-3, 6-10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명령 형식을 엄밀하게 보면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긍정 명령 형식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 명령 형식을 갖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만이 순수한 긍정

[46] WLC 99: (4) That as, where a duty is commanded the contrary sin is forbidden, and where a sin is forbidden, the contrary duty is commanded; so, where a promise is annexed, the contrary threatening is included; and where a threatening annexed, the contrary promise is included.

명령이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두 개의 긍정 명령과 여덟 개의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제 4 계명을 포함하면 9 개의 계명이 부정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는 강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금지 형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카이저(Kaiser)는 율법의 명문화된 형식(substantive form)이 7 가지 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긍부 양면 규칙과 관련된 3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47] "도덕법은 항상 명하고 금하는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술되든 부정적으로 진술되든 차이가 없다(# 2). 계명들 중의 하나에 악이 금지되어 있을 때 그 반대되는 선이 장려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4). 주님께서 물으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눅 6:9)?'라는 질문을 고려하면 선을 거절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6)."

2) 긍부 양면 규칙은 십계명이 주어진 형식을 따라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으로 나누고 부정 명령의 경우 금하는 것만 논의하고 긍정 명령의 경우 명하는 것만 논의하는 것이 십계명을 올바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이는 주어진 형식이 부정 명령이든 긍정 명령이든 각 계명은 동전이 양면을 가진 것처럼 그 안에 꼭 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①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긍정 명령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덕행(virtue)을 명시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행(vice)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는 이사야(58:13-14)의 말은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금하는 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4 계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모든 계명에서도 각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what to do)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what not to do)를 말해 주는 참된 의도를 찾아야 한다.

②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에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엡 6:1; 골 3:20)"는 긍정적인 것과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잠 15:20; 겔 22:6)"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롬 1:30; 딤후 3:2)"나 "부모를 저주하는 죄(레 20:9; 잠 20:20; 30:11)"를 짓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는 솔로몬의 잠언(10:1)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보여 주며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긍정적인 것과 함께 미련한 아들이 되어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을 담고 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잠언(23:25)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47] Walter C. Kaiser, "Exodus" in *EBC*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0), 421.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바울의 권면(딤전 5:4)이 제 5 계명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는 잠언(17:25)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③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제 3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지 말라(레 24:11, 16; 사 37:4, 17; 계 13:6; 16:9, 11)"는 부정적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시 9:11) 높이고(시 34:3) 경외하고(느 1:11) 찬양하고(시 7:17) 감사하고(시 30:4; 44:8) 자랑하고(시 20:7) 전파하고(신 32:3) 사랑하라(시 5:11)"는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함으로써(레 19:12) 혹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레 18:21)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신 19:20, 22) 일을 금하는 한편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사용하며 그의 이름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신 6:13; 10:20) 일을 장려한다.

3) 이렇게 긍부 양면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적어도 두 배는 더 힘들게 하며 정말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준다.

4. 긍부(肯否) 차이 규칙(all-at-once rule)

1) 긍부 차이 규칙이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행위 즉 매순간 의무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이것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다섯 번째 답, 즉 "(5)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롬 3:8; 히 11:25; 욥 13:7-8; 36:21).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신 4:8-9)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마 12:7)."라는 진술에 잘 표현되어 있다.[48]

② 다시 말하면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에 있어서는 항상 구속력을 가지나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Hopkins #3)."[49]

2)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의 부정적 내용은 항상 지켜져야 하며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그모스나 밀곰 같은 신을 두고 섬기는 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

---

[48] WLC 99: (5) That what God forbids is at no time to be done, what he commands is always our duty and yet every particular duty is not to be done at all times.

[49] Hopkins #3: Every negative command binds always, and to every moment of time; but the affirmative precepts, though they bind always, yet they do not bind to every moment; that is, as to the habit of obedience, they do; but not as to the acts.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이행(履行)해야 하는 것이지마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며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만 계속해서 실행(實行)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3)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고 매 순간이 다 안식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제 4 계명처럼 긍정적인 계명들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어떤 때와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 4 계명은 다른 날들의 경우 안식일이 아니므로 안식일처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행위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때에라도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과 태도는 항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

4)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의 긍정적 내용은 어느 순간에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키며 이행해야 하지만 다른 의무를 도외시하고 부모 공경하는 행위만 끊이지 않고 계속 실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①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께 고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부모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이란 말처럼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용돈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해 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시는 부모님께 어느 때에라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제 5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②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을 위하여 바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 이외에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고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는 제 5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의무들을 제쳐두고 부모 공경이란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부모 공경이란 순종의 습관에 따른 행동을 매순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③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 5 계명의 부정적인 내용의 경우 순종의 습관과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위에 있어서도 항상 구속력을 가지고 매순간 의무화를 요구하므로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범주 규칙(rule of categories)

1) 범주 규칙 혹은 총망라 규칙이란 각 계명이 하나의 온전한 범주에 속하는, 해야 할 모든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죄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여섯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⑹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된다(마 5:21-22, 27-28; 15:4-6; 히 10:24-25; 살전 5:22; 유 23; 갈 5:26; 골 3:21)."[50]

② 범주 규칙은 각 계명이 제유(synecdoche)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Douma, 12). 돛이 배를, 피조물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부로서 전체를, 혹은 전체로서 일부를 나타내는 제유법에 의한 각 계명의 해석은 한 죄가 언급된 경우 관련된 죄들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해석이다.

2) "각 계명은 분명하게 언급된 죄 뿐만 아니라 죄로 이끄는 모든 요인도 함께 금하고 있다(Hopkins #5)." 악한 무리 즉 무신론자, 우상 숭배자, 복술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 위증자, 탐욕스런 부랑자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어느 계명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데 있어서 큰 유혹과 시험이 된다. 그러므로 악한 무리와 교제하는 것은 모든 계명에 저촉되는 죄이다.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반문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고후 6:14-16).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엡 5:18; 벧전 4:3; 갈 5:21)"는 명령도 십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끄는 요인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3)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은 외적으로 저지르는 살인뿐만 아니라 주먹 다짐, 신체 손상, 가정 폭력 등의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폭력을 금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도 정죄하고, 이러한 죄들로 이끄는 분노와 증오와 난폭 운전과 폭력 게임을 즐기는 것 등도 금하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은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부부 사이에 허락한 성관계를 넘어 불륜을 저지르는 간음죄는 물론이고 모든 형태의 성적 범죄 즉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 춘화나 외설책이나 외설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 성희롱이나 성추행 하는 것, 성관계는 갖지 않지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친밀 관계를 갖는 것 등도 금하고 있다.

4) "부정적인 계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든지 간에 그 금지된 것의 표징이나 증후 혹은 결과도 똑같이 금하는 것이다(Hopkins #9)."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은 우상의 전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금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도 금한다. 교만하지 말라는 계명은 교만의 모든 형태와 영향까지도 금한다. 이사야는 교만한 모습, 거드름을 피며 걷는 것,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태, 지나친 사치 등에 대하여 날카롭게 꾸짖었다(사 3:16-26). 이런 모습들은 그 자체로 교만이 아닐지라도 교만의 표시이고 결과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함과 단정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5) 어떤 면에서 보면 십계명의 각 계명에 명시된 죄는 한 특정한 죄의 가장 극단적인 것을 금한 것이다. 구원할 수도 없고 도울 힘도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거짓 예배의 가장 나쁜 형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참람한 신성모독의 가장 나쁜 형태이다. 살인은 폭력의 가장 나쁜

---

[50] WLC 99: (6) That, under one sin or duty, all of the same kind are forbidden or commanded; together with all the causes, means, occasions, and appearances thereof, and provocations thereunto.

형태이다. 간음은 성적 범죄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극단적인 죄를 들어 금하신 것은 보다 작은 죄들을 면해 주시거나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보다 큰 혐오스러움을 사람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형태의 죄만 문제 삼아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모든 죄도 십계명에 명시된 가장 극단적인 죄만큼 똑같이 악하게 여기시고 금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적은 죄로 시작하여 점점 큰 죄로 나아간다. 세상 법정에서는 바늘 도둑과 소 도둑은 죄질이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 도둑이나 소 도둑이나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간주된다.

6. 유기적 통일성 규칙(organic rule)

1) 유기적 통일성 규칙이란 "계명들이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전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Hopkins #10).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며 십계명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결속성은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다. 야고보(2:10-11)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했다. 도둑질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살인은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계명을 범했다고 해서 다른 계명을 실제로 범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모든 계명에 동등하게 인쳐져 있고 모든 법에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관통하며 묶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계명들이 상호 밀접하게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교리 문답 99 번의 세 번째 답은 "⑶(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골 3:5; 딤전 6:10; 잠 1:19; 암 8:5)."라고 말한다.[51] 도덕법을 통하여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의무를 십계명의 두 계명 이상에서 명하시고 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죄를 십계명의 두 계명 이상에서 금하시기도 하신다.

① 살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사형 판결을 받게 했다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 9 계명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이다.

②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제 4 계명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긍정의 내용의 의무를 요구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③ 이처럼 여러 계명이 중첩되는 것은 인간의 삶이 복잡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사실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

[51] WLC 99: ⑶ That one and the same thing, in divers respects, is required or forbidden in several commandments.

3) 하나님의 도덕법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52]

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골 3:5 에 비추어 탐심은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는 제 1 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모스 시대에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암 8:5-6)"라고 말하던 자들이 갖는 사악한 욕망은 제 4 계명과 제 8 계명을 범한 것이다.

③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전 6:10)."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다른 종류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④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고 온갖 보화를 얻어 집을 채우려는 자와 그런 일에 유혹받아 동참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라는 잠 1:19 의 말씀은 동일한 죄에 탐심과 살인이 포함된 것을 보여준다.

7. 형제 수호 규칙(brother's keeper rule)

1) 형제 수호 규칙이란 십계명이 하나님과 각 사람의 일대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개인이 행할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지만 각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자신처럼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형제 수호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일곱 번째 답과 여덟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7)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을 힘써 지키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른 의무대로 금지된 것을 피하고 명령된 것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출 20:10; 신 6:6-7; 수 24:15; 레 19:17; 창 18:19)." "(8)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며(고후 1:24) 그들에게 금지된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딤전 5:22; 엡 5:11)."[53]

②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시는 자이지(시 121:5)[54] 어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창

---

[52]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47.

[53] WLC 99: (7) That what is forbidden or commanded to ourselve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to endeavor that it may be avoided or preformed by others according to the duty of their places. (8) That in what is commanded to other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and callings, to be helpful to them; and to take heed of partaking with others in what is forbidden them.

[54] [시 121:1-8]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9)"라고 반문하였던 가인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본받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2)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종범/방조범(從犯/幇助犯 accessory)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좋지 못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과 제자들이 계명을 범하는 일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① 백성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처럼(출 32)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②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발락에게 꾀를 주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알 브올의 풍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발람처럼(민 31:16) 자신은 빠지면서 다른 사람은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금송아지를 만들어 벧엘과 단에 두고 백성에게 제 2 계명을 범하도록 이끈 여로보암 1 세처럼(왕상 12 장)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

④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를 지어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는 엄한 경고대로(삼상 3:13-14) 벌을 받은 엘리처럼(삼상 4 장)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녀들을 꾸짖지 않고 벌주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자기 발 앞에 두게 하고(행 7:58)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행 8:1) 사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우리가 방조하거나(범죄를 쉽게 저지르도록 거들어 주거나) 교사하거나(부추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사명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전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8. 사랑의 규칙(rule of love)

1) 사랑의 규칙이란 모든 계명의 목적이 사랑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계명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킨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도우마(Douma, 12)는 사랑의 규칙을 "모든 계명의 출발점과 목표는 사랑이다."라는 해석 원리로 표현했다.

2) 어느 계명이 크냐는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참고, 막 12:29-31; 눅 10:27)"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의 맥락에 두신 것은 사랑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첫 네 계명 중 처음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언급되며,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나머지 여섯 계명중 처음 자리에 육신의 부모가 공경의 대상으로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두 대상 중 먼저 창조주(creator)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육신의 부모(procreator) 더 나아가 이웃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고자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언급조차 아니 하시고 둘째 되는 계명만을 언급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진리(요한일서의 교훈)를 배우게 된다.

   ②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어 3 개월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여호아하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이유로 그의 눈과 마음이 탐람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살룸과 대조적으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렘 22:16)"는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사랑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재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4)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6 일간의 창조 사역 후에 제 7 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서 이레 되는 날 안식하라는 제 4 계명의 원리에서 보듯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요구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라는 말씀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드러내라는 명령이다.[55]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9. 우선 순위 규칙(rule of priority)[56]

1) 우선 순위 규칙이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상충될 때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상충될 때 지켜야 할 우선 순위를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 상충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므로 계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상충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2)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충돌할 때 지켜야 할 우선 순위가 있다.

①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네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나머지 여섯 계명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Hopkins #6)."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행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외식하는 자이고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에게 대한 그의 의무만 수행하는 자는 단지 세속적인 도덕가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55] 레 19:2 의 거룩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렇다. 농부의 거룩함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과일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줍지 않는" 것이다(레 19:9-10). 고용주의 거룩함은 고용인들을 "억압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고 않고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고"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레 19:13). 재판관의 거룩함은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다(레 19:15). 상인의 거룩함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는 것이다(레 19:35-36). 개인의 거룩함은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않고 무늬를 놓지 않고"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레 19:28-29).

[56] Ryken(*Written in Stone*, 51)은 이것을 "law of tables"라고 했다. 이 명칭은 첫 네 계명이 첫째 돌판에 기록되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이 둘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전제 아래 만든 것이다. Hopkins 도 Lyken 처럼 첫 돌비에 1-4 계명이 기록되고 둘째 돌비에 6-10 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문이 두 부 작성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십계명 전부가 두 돌판에 각각 한 번씩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두 돌판의 규칙"보다는 "우선 순위의 규칙"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고 말할 수 있다.

② "두 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과 참된 경건에 조화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우선 지켜져야 한다(Hopkins #7)." 만일 우리가 하나님 혹은 부모와 생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고 말씀하셨다. 부모를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

③ 이에 반하여 "도덕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제도적인 제 4 계명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덕적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다(Hopkins #8)." 절박한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이 가끔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속한 일과 당연히 지켜야 할 안식일 성수를 부득이하여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막 2:27)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호 6:6; 마 9:13) 부득불 꼭 해야 하는 일과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안식일에 할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시지 않는다.

3) 라합의 경우처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충돌할 때가 있다.[57] 제 9 계명에는 일차적으로 남을 나쁜 의도로 속이지 말라는 것과 이차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 있다. 라합은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 6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합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제 6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셨지만 제 9 계명의 두 번째 요소인 사실대로 말하라는 요구를 거두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제 6 계명을 지키고 제 9 계명의 이차적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 5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거짓말이 성경에서 한 번도 정죄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 요약

1) 경맥 규칙: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이므로 십계명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다루어지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도덕의 축약이다.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한 교훈은 십계명에 대한 주해로 받아들여야 한다. 십계명을 다룰 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예표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는가도 살펴야 한다.

2) 표리 일치 규칙: 십계명은 몸과 영혼에게 명하며 외적인 순종(outward conformity)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실(inward integrity)을 요구한다. 십계명은 전인격과 관련된 신령한(spiritual) 것이므로 말과 행위와

[57]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9 계명의 "라합의 거짓말" 부분을 참고하라.

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 십계명에서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하는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죄의 욕구와 동기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계명은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을 요구한다.

3) 긍부 양면 규칙: “하라!”는 긍정 명령(4, 5 계명)이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1-4, 6-10 계명)이든, 각 계명은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꼭 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를 포함하고 부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은 상반되는 경고를 포함하고 부연된 경고는 상반되는 약속을 포함한다.
4) 긍부 차이 규칙: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은 순종의 습관(태도, 자세)과 순종의 행위(실천, 매순간 의무화)에 대한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지나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5) 범주/총망라 규칙: 십계명은 긍정 형식이든 부정 형식이든 하나의 계명 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십계명은 각 계명에 명시된 극단적인 특별한 죄뿐만 아니라 같은 범주의 보다 더 작은 죄들 그리고 그런 죄로 이끄는 모든 요인도 금한다.
6) 유기적 통일성 규칙: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모든 계명에 동등하게 인쳐져 있고 모든 법에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십계명 중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전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덕법의 관점에서 삶을 보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십계명의 계명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7) 형제 수호 규칙: 십계명은 하나님과 각 사람의 일대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개인이 행할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지만 각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도 자신처럼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8) 사랑 규칙: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모든 계명의 출발점과 목표는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다.

9) 우선 순위 규칙: 십계명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지켜야 한다. 두 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과 참된 경건에 조화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우선 지켜져야 한다. 도덕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제도적인 제 4 계명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덕적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 충돌할 경우 라합처럼 제 9 계명의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보다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제 6 계명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상충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11. 결론

1)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완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온전히 이르고 온전한 순종에 영구히 이르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모든 의무의 완벽한 준수를 요구하고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이라도 금한다(시 19:7; 약 2:10; 마 5:21-48)."[58] 십계명의 각 계명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고 표리일치와 긍정-부정 양면과 그 범주와 유기적 통일성을 고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함께 우선 순위를 따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후 우리 자신이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한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순종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 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2)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레 19:2), 사랑하라(마 22:36-40), 완전하라(마 5:48)"고 요구한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그의 은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갈 3:24-25).

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전 1:30)."

②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므로(갈 5:22)"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할 모든 사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

[58] WLC 99: (1) That the law is perfect, and bindeth everyone to full conformity in the whole man unto the righteousness thereof, and unto entire obedience forever; so as to require the utmost perfection of every duty, and to forbid the least degree of every sin.

③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빌 1:6)" 우리는 완전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3)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므로 "거룩하라, 사랑하라, 완전하라"는 요구의 표준은 지극히 높고 깊고 넓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이런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진리(마 5:17)에 들어 있다.

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고한 표준에 따라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요 8:29)."라고 말씀하셨다.

②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적 희생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롬 6:23)."는 말씀처럼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③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시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골 3:4)"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언행심사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다.

10.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9-42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신 29:29; 삼상 15:22; 미 6:8; 요일 5:2-3).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은 도덕법입니다(창 2:16-17; 롬 2:14-15; 10:5).

문 **41**. 이 도덕법이 어디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신 4:13; 10:4; 마 19:17-19).

문 **42**.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신 6:5; 레 19:18; 마 22:37-40; 요 13:34; 롬 13:10).

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1-100

문 **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롬 12:1, 2; 미 6:8; 삼상 15:22).

문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순종의 규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입니다(창 1:26, 27, 2:17; 롬 2:14, 15, 10:5).

문 **93**.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요구하되, 영혼과 몸으로 된 전 인격을 다 바치는 마음 가짐과 의향을 가지고(신 5:1-3, 31, 33; 눅 10:26-27; 살전 5:23)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이행하도록(눅 1:75: 행 24:16)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롬 10:5; 갈 3:10, 12).

문 **94**. 도덕법이 사람에게 타락 이후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 어떤 사람도 타락 이후에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을지라도(롬 8:3; 갈 2:16),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큰 소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한 사람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각 특별하게 큰 소용이 있습니다(딤전 1:8).

문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공통적인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려주고(레 11:44-45; 20:7-8; 롬 8:12)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것(미 6:8; 약 2:10-11),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확신시키는 것(시 19:11-12; 롬 3:20; 7:7),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죄와 불행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여(롬 3:9, 23) 그들에게 그리스도(갈 3:21-22)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롬 10:4)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딤전 1:9-10)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거나(갈 3:24), 아니면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와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롬 1:20; 2:15)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갈 3:10) 것입니다.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롬 6:14; 7:4, 6; 갈 4:4-5)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롬 3:20) 정죄를 받는(갈 5:23; 롬 8:1) 일이 없을지라도, 도덕법이 모든 사람과 함께 중생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소용이 되는 것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되는 것은 그 법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보여줌으로써(롬 7:24-25; 갈 3:13-14; 롬 8:3-4) 그들로 더욱 더 감사하도록 하며(눅 1:68-69, 74-75; 골 1:12-14) 그들의 순종의 규칙인 도덕법을 더욱 더 세심하게 지키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롬 7:22; 12:2; 딛 2:11-14).

문 **98**. 도덕법이 어디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신 10:4; 출 34:1-4)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마 22:37-40).

문 **99**.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온전히 이르고 온전한 순종에 영구히 이르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모든 의무의 완벽한 준수를 요구하고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이라도 금한다(시 19:7; 약 2:10; 마 5:21-48).
2. 율법은 신령하므로 말과 행위와 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롬 7:14; 신 6:5; 마 22:37-39; 마 5:21-22, 27-28, 33-34, 37-39, 43-44).
3. (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골 3:5; 딤전 6:10; 잠 1:19; 암 8:5).
4. 하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고(사 58:13; 마 15:4-6; 신 6:13; 비교, 마 4:9-10)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는(엡 4:28) 것과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에는 상반되는 경고가 포함되고(출 20:12) 부연된 경고에는 상반되는 약속이 포함된다(렘 18:7-8; 출 20:7; 비교, 시 15:1, 4-5; 24:4-5).
5.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롬 3:8; 히 11:25; 욥 13:7-8; 36:21).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신 4:8-9)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마 12:7).

6.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된다(마 5:21-22, 27-28; 15:4-6; 히 10:24-25; 살전 5:22; 유 23; 갈 5:26; 골 3:21).
7.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을 힘써 지키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른 의무대로 금지된 것을 피하고 명령된 것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출 20:10; 신 6:6-7; 수 24:15; 레 19:17; 창 18:19).
8.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며(고후 1:24) 그들에게 금지된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딤전 5:22; 엡 5:11).

문 **100**. 우리가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찰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언과 계명들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들 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이유들을 고찰해야 합니다.

II. 십계명의 서언

1. 십계명 서언 본문

1. 보통 십계명의 서언 혹은 십계명의 머리말로 간주되는 부분은 시내산 언약/모압 언약의 3 인칭으로 된 전문(출 20:1; 신 5:4 상, 5 하)[1] 바로 다음에 나오는 1 인칭으로 된 역사적 서문(출 20:2; 신 5:6)을 말한다. 십계명 서언의 히브리어 본문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1) BHS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출 20:2)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신 5:6)

2) 개역개정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는 "여호와니라"고 번역하고 신명기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십계명의 서언 번역

1)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아노히 아도나이 엘로헤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① 이 명사문은 정체를 밝히는 명사문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 [아노히]가 주어이고 [아도나이]와 [엘로헤하]가 동격 보어라고 보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칠십인역, 벌게이트역, 대부분의 영어 성경, 한글 성경)라고 번역된다.[2]
- [아노히]와 [아도나이]가 동격 주어이고 [엘로헤하]가 보어라고 보면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다**(NJPS)라고 번역된다.[3]

② 출애굽기의 전체 문맥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아노히]를 주어로 보고 [아도나이]와 [엘로헤하]를 동격을 이루는 보어로 보며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지지한다.

- 출 6:2, 6, 8 에 "יְהוָה **אֲנִי**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명사문이 나온다. 그리고 출 7:5 에 "יְהוָה **וְיָדְעוּ מִצְרַיִם כִּי־אֲנִי** [브야드우 미츠라임 키 아니 아도나이]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진술에 나오는 [아니 아도나이]는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명사문이다. 이 구절들에서 [아니]와 [아도나이]는 동격 주어가 될 수 없다.

---

[1] 전문: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 5:4 상, 5 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 . . 이르시되"

[2] 영어 성경과 달리 한글 성경의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번역 순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된 순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Peter Enns, *Exodu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0), 412 n. 5.

- 출 20:7, 10, 12; 15:26; 23:19; 20:5 에서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네 하나님"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4]
- 출 6:7 과 출 29:46 에서도 [아니]가 주어이고 [아도나이]와 동격을 이루는 [엘로헤헴]/[엘로헤헴]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 출 6: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כִּי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너희가 알지라
  - ✓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אֲנִי** יְהוָה אֱלֹהֵיהֶם)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אֲנִי** יְהוָה אֱלֹהֵיהֶם)

2)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아셰르 호체티하 메에레츠 미츠라임 미베트 아바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이끄는 형용사절은 동격 보어인 [아도나이 엘로헤하]를 수식한다.

---

[4] Kaiser, *Exodus*, 422. "יְהוָה אֱלֹהֶיךָ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네 하나님**(출 20:2)"이란 어구는 출애굽기에서 6 번 더 사용된 것(출 20:7, 10, 12; 23:19; 15:26["여호와 네 하나님"]과 출 20:5["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지 않으나 신명기에서는 2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 ✓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אֶת־שֵׁם־יְהוָה אֱלֹהֶיךָ)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 출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לַיהוָה אֱלֹהֶיךָ **l** שַׁבָּת)
-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אֲשֶׁר־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4]
- ✓ 출 23:19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בֵּית יְהוָה אֱלֹהֶיךָ) 드릴지니라
- ✓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אִם־שָׁמוֹעַ תִּשְׁמַע לְקוֹל יְהוָה אֱלֹהֶיךָ **l**)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라는 개역/개역개정의 번역은 원문에 없는 "나"를 빼고, 원문에 단수 대명사를 복수 "너희가, 너희"가 아니라 단수 "네가, 네/너의"로 고쳐서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참으로 청종하고"라고 번역해야 한다.}

  Cf. 출 20:5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출 20:5 에서 [아니]와 [아도나이]와 [엘로헤하]는 모두 동격으로 주어이다. 영어 성경들(ESV, NIV, NASB)은 다음과 같이 동격을 보여주고 있다. ESV: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NIV/NASB: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② 이 절 안에 나오는 "מֵאֶרֶץ מִצְרַיִם [메에레츠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으로부터"와 "מִבֵּית עֲבָדִים [미베트 아바딤] 종살이하던 곳에서/으로부터"는 동격이다.

③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란 절은 구약에서 약 125 번 사용되었다.[5] 이 진술은 구약의 요한복음 3:16 이라 할 수 있다.

3) 번역

(출 20:2 = 신 5:6)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2. 십계명 서언의 의미

1. 개관: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동격 어구를 통하여 "**여호와**"가 "**네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임을 밝히고,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통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1) 십계명 서언은 크게 두 부분 즉 여호와의 자기 제시(the identification or self-presentation of the deity)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인물 묘사(the characterization of the Lord as the one who redeemed Israel from slavery)로 나눌 수 있다.[6]

   2) 칼빈(Calvin)은 십계명 서언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시려는 율법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삼중 증거를 주셨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그들의 순종을 요구할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된 이스라엘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현재 누리는 은택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밝히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죄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킬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다."[7]

   3) 십계명의 서언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고, 십계명이 지켜져야 할 맥락으로서 언약 관계를 세우고, 그 언약 관계가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십계명이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준수 조항인 것을 보여준다.

2. **나는 여호와이다**.

---

[5] Kaiser, *Exodus*, 422.

[6] Miller, *Ten Commandments*, 17-18.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I. viii. 13-15 (pp. 379-381).

1) 십계명의 서언은 언약의 종주(宗主)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여호와**이시고, 그의 백성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2) 여호와란 이름은 엘, 엘로아흐, 엘로힘, 엘 엘리욘, 엘 샤다이 등과 같은 이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이며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름이다.[8] **여호와**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모세 시대에 밝히 계시되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밝혀 주는 구절들은 3:13-15; 6:2-8; 15:1-3, 6, 11; 34:5-7 등이다.

3) 출 3:13-15 의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

13 וַיֹּאמֶר מֹשֶׁה אֶל־הָאֱלֹהִים הִנֵּה אָנֹכִי בָא אֶל־בְּנֵי יִשְׂרָאֵל וְאָמַרְתִּי לָהֶם אֱלֹהֵי אֲבוֹתֵיכֶם שְׁלָחַנִי אֲלֵיכֶם
וְאָמְרוּ־לִי מַה־שְּׁמוֹ מָה אֹמַר אֲלֵהֶם:
14 וַיֹּאמֶר אֱלֹהִים אֶל־מֹשֶׁה אֶהְיֶה אֲשֶׁר אֶהְיֶה וַיֹּאמֶר כֹּה תֹאמַר לִבְנֵי יִשְׂרָאֵל אֶהְיֶה שְׁלָחַנִי אֲלֵיכֶם:
15 וַיֹּאמֶר עוֹד אֱלֹהִים אֶל־מֹשֶׁה כֹּה־תֹאמַר אֶל־בְּנֵי יִשְׂרָאֵל יְהוָה אֱלֹהֵי אֲבֹתֵיכֶם
אֱלֹהֵי אַבְרָהָם אֱלֹהֵי יִצְחָק וֵאלֹהֵי יַעֲקֹב שְׁלָחַנִי אֲלֵיכֶם זֶה־שְּׁמִי לְעֹלָם וְזֶה זִכְרִי לְדֹר דֹּר:

[개역개정] (13)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אֶהְיֶה אֲשֶׁר אֶהְיֶ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개역개정 각주: 히, **나는 나다**")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אֶהְיֶה**[에흐예] ㅣ AM)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יהוה** [아도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① 출 3:14 의 한글 번역

- [개역개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 [표준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b)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c)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b) 70 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나다. c) 나라는 분이]

[8]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아래 제 3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 [공동번역]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 [바른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하라." 하셨다.
- [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b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b 70 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 ✓ 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과 쉬운성경과 표준새번역이 택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70 인역의 "ἐγώ εἰμι ὁ ὤν [cf. Brenton: I am The Being.]"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번역과 바른성경과 새번역이 택한 "**나는 나다**."는 히브리어 미완료를 현재로 번역한 것이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는 히브리어 미완료를 미래로 번역한 것이다. Cf. I am that I am (KJV); I am who I am(NIV, RSV, ESV, NKJV); I will be what I will be(RSV margin)

② 출 3:15 의 한글 번역

- [개역개정]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יְהוָה אֱלֹהֵי אֲבֹתֵיכֶם אֱלֹהֵי אַבְרָהָם אֱלֹהֵי יִצְחָק וֵאלֹהֵי יַעֲקֹב)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새번역]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14 절의 '나는……이다(또는 있다)'와 발음이 비슷하고, 뜻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이 있음. 6:3 의 주를 볼 것)
  - ✓ 출 3:15 에서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동격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격이다.

③ 출 3:14-15 문맥 정리

- 여호와께서는 호렙 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는 **네(=모세)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엘로헤 아비하**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하크 벨로헤 야아코브 3:6)"고 말씀하시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너희(=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엘로헤 아보테헴**

실라하니 알레헴]"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마 시모**]?"라고[9]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 것인지를 여쭈었다(3:13).

- 출 3:14 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אֶהְיֶה אֲשֶׁר אֶהְיֶ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I AM THAT/WHO/WHAT I AM; I WILL BE THAT/WHO/WHAT I WILL BE)"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אֶהְיֶה[에흐예] (I AM/I WILL BE)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실라하니 알레헴] has sent me to you)"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셨다.[10] 출 3:15 에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일인칭의 "אֶהְיֶה[에흐예] (I AM)"가 아니라혹은 삼인칭의 "**יהוה([이흐웨?] HE IS? / [야흐웨?] HE CAUSE TO BE?)**"로[11] 지칭하며 "**יהוה[아도나이]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실라하니 알레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셨다.
- 출 3:14-15 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흐예 아셰르 아흐예 >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를 줄인 אהיה[**에흐예**]에서 (첫 자음 알렙이 요드로 바뀌고 둘째

---

[9] Kaiser, *Exodus* REBC, 370-371: 히브리어 [마]는 이름에 담긴 의의, 성격, 성질,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마 시모]는 그의 이름이 명성과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여호와란 이름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족장 시대에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나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I am who I am]는 "I am truly he who exists and who will be dynamically present then and there in the situation to which I am sending you. 나는 참으로 존재하는 자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상황에 그때 거기에 역동적으로 있을 자이다"를 뜻한다.

[10] J.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58: 출 3:14 의 "I AM THAT I AM" 혹은 "I AM"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출 33:19 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주권적이심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언약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11] Kaiser, *Exodus*, 374: 문 구조가 1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단어 첫 자리에 오는 알렙과 요드는 서로 교환해 쓸 수 있기 때문에 3:14 의 1 인칭 אהיה[에흐예]가 3:15 에서 יהוה[이흐예]로 바뀌었다. יְהוָה에 붙어 있는 모음 표기는 이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꺼리며 [아도나이]로 읽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든은 첫 자음 알렙과 첫 자음 요드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예로 우가릿어 aḥd 와 yḥd("together"), 그리고 asḥ("he shouts")와 ysḥ("he shouts"); 우가릿어 ytn 과 히브리어 'itnn("gift")을 언급한다.

자음 요드가 원래의 바브로 표기된) יהוה[이흐웨/야흐웨 대신 **아도나이**로 발음하는] **여호와**인 것을 보여준다.[12]

④ 바빙크(Bavinck)는 출 3:13-15 을 근거로 **여호와**가 추상적인 의미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자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과 성품, 곧 족장들에게 보여오셨던 그대로의 하나님이실 것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이실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여호와는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the Ever-faithful Covenant God)을 뜻한다.[13] 베르코프(Berkhof)도 **여호와**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그 불변성은 본질적 존재의 불변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한 하나님이셨듯이 이제 모세 시대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4]

---

[12] Stuart, *Exodus*, 121: 원래 사역 어간 [아흐예 I CAUSE TO BE]가 맛소라 학자들과 칠십인역 번역자들에 의해 기본 어간 [에흐예 I AM]로 표기되었다. 현재 확립된 Yahweh 는 원래의 사역 어간 일인칭 [아흐예]에서 3 인칭으로 바뀐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모세는 분명 "[아흐예 아셰르 아흐예] I CAUSE TO BE because I cause to be."라고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흐예]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고 역사적 사건에 활동적이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13]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Reformed Dogmatics*, volume 2: 143: "In verses 13-15, after all, the meaning of the name is clearly indicated. In full it reads: אֶהְיֶה אֲשֶׁר אֶהְיֶה; by it the Lord says that he who now calls Moses and wants to save his people is the same [God] as he who appeared to their fathers. He is who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is meaning is further explained in verse 15: YHWH—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sends Moses, and that is his name forever. God does not simply call himself "the One who is" and offer no explanation of his aseity, but states expressly what and how he is. Then how and what will he be? That is not something one can say in a word or describe in an additional phrase, but "he will be what he will be." That sums up everything. This addition is still general and indefinite, but for that reason also rich and full of deep meaning. He will be everything to and for his people. It is not a new and strange God who comes to them by Moses, but the God of the fathers, the Unchangeable One, the Faithful One, the eternally Self-consistent One, who never leaves or forsakes his people but always again seeks out and saves his own. He is unchangeable in his grace, in his love, in his assistance, who will be what he is, because he is always himself. So in Isaiah he calls himself: "I am he, the first and the last" (אֲנִי הוּא, 41:4; 43:10, 13, 25; 44:6; 48:12). And indeed, his aseity underlies this view of God, but it is not in the foreground nor directly expressly in the name."

[14]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th Revised & Enlarg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49.

⑤ 도우마(Douma)는 여호와란 이름의 유래가 된 "I am who I am"을 "I am the saving and liberating One, who fulfills the promises that I gave to your 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준 약속을 이루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⑥ 월트키는 스스로 "*I AM*"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는 "I am here. 나는 여기 가까이에 있다"와 "I am eternal. 나는 영원하다"를 동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한다. 여호와란 이름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의 가까운 보호 아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 생명과 대조되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끈다.[15]

⑦ 출애굽기의 문맥을 따라 3:14 의 אֶהְיֶה אֲשֶׁר אֶהְיֶ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해석하면 현재 즉 I AM THAT/WHO/WHAT I AM 으로 번역할 수 있고 미래 즉 I WILL BE THAT/WHO/WHAT I WILL BE 라고 번역할 수 있다.

- 현재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신적 존재의 신비를 파악하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문맥과 어울린다.
- 미래로 번역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나는 나일 바로 그런 존재이다; 나는 나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낸다(cf. Vos; 새번역의 주 b: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둘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출애굽이란 구원 사건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 해석이 출애굽기 전체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린다(cf. Bavinck, Van Gemeren, Waltke, Douma).

4) 출 6:2-8 의 구조와 의미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라(אֲנִי יְהוָה [아니 아도나이])

(3)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u>전능의 하나님</u>(אֵל שַׁדָּי[엘 샤다이])으로 나타났으나

---

[15] Waltke, *Old Testament Theology*, 11: "His personal name paradoxically invites the hearer to enter into intimacy in his protective nearness and to stand in awe of him in his eternal being in contrast to human mortality." 월트키(Waltke)는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라는 책에서 "**여호와**"를 나타낼 때 그가 창세기 주석에서 사용한 Yahweh 나 잠언 주석에서 사용한 LORD 로 표기하지 않고 대문자 이탤릭체로 *I AM* 이라고 표시하였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יְהוָה[아도나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 6:6)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아니 아도나이] אֲנִי יְהוָ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의 약속, **3** 개의 동사]
(7)*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 **2** 개의 동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땅의 약속, **2** 개의 동사][16]
나는 여호와라(אֲנִי יְהוָה [아니 아도나이])
하셨다 하라

① 출 6:2-8 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으로 둘러싸여 있고(2 절과 8 절), 그 안쪽 대구를 이루는 6:3 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와 6:7 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너희가 알리라."가 서로 수동과 능동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②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세 번 반복하여 "나는 여호와다(출 6:2, 6, 8)."라고 선언하셨다. 이 삼중 선언은 (1)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출 6:6, 동사 3 개), (2)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고(출 6:7, 동사 2 개), (3)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출 6:8, 동사 2 개)는 7(3+2+2)중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③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실행하실 능력과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서명과 같은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사역들은 자기 백성에게 그가 신실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준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다. 여호와란 이름은 칭호(title)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이름(designation of a relationship of God and his people)으로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할 때나 맹세할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구약의

[16] [아니 아도나이]는 창세기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처럼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창 15:7 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28:13 에서 야곱에게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여호와는 신약의 하나님에 관한 칭호 중 가장 좋은 칭호이며 예수님께서 애용하신 πατήρ(파테르, 아버지)에 해당한다.[17]

④ 여호와란 이름의 영예는 그가 맹세하며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에 달려있다.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가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안다."라는 공식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구약에 50 회 정도 나오는 인정 공식이며 출애굽(출 6:7, 17)과 출바벨론(겔 37:6, 13) 등과 같은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과 관련이 있다. 여호와는 바로를 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18]

⑤ "나는 여호와이다"는 선언은 "나는 여호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I am Yahweh, your covenant God.)"와 같은 언약의 전문(preamble)으로 언약을 상기시키는 제유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I have a connection to him. I know him personally. He is not just any god. He is mine. 나는 여호와와 관계를 맺었다. 나는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안다. 그는 단지 어느 신이 아니다. 그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초청한다.[19]

5) 지금까지 살핀 출 3:13-15 과 출 6:2-8 이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밝혀주는 구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여호와 = 언약의 하나님, 한결 같은 인애의 하나님

- [출 34:5-7] (5)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6)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라훔] 은혜롭고[하눈] 노하기를 더디하고[에레흐 아파임] **인자와 진실**이 많은[라브-**헤쎄드 베에메트**] 하나님이라 (7)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 [왕상 8: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 [시 118:1-4, 14, 25, 29] (1)**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 . .

---

[17] W. Van 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Baker, 1995), 149-150.

[18] Waltke, *Old Testament Theology*, 367-369.

[19] Stuart, *Exodus*, 173. 참고: Stuart(170, n 165)는 출 3:1-4:17 과 출 6:2-9 을 서로 다른 문서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문서설이 너무 좁은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두 본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The present passage(=6:2-9) differs from the earlier one in chap. 3, because it describes what the name means and implies, whereas the chap. 3 account describes how Moses came to be chosen to know the name."

(14)**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 . . (25)**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 . . (29)**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② 여호와 = 유일하신 하나님

- [출 15:1-3, 6, 11] (1)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 . . (6)**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 . . (11)**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20]
- [신 4:39-40]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사 43:10-11] (10)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③ 여호와 = 질투하시는 하나님

-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 [신 4:23-24]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 [신 6:14-15] (14)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 [사 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20] 시편 136 편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어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시편이다. 여호와는 만신의 신, 만주의 주, 창조주, 천지의 주재,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주로 묘사되어 있다.

④ 여호와 = 이스라엘의 왕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시 24:1-10] (1)(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4)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7)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8)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10)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 [왕상 22:19]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 [슥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3. **나는 네 하나님이다**.

1) 십계명 서언은 종주이신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은 봉신(封臣)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여호와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출 6:7)"고 하신 말씀대로 언약관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구속력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스굴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 19:5-6)"이 되었다.
2) 십계명 서언(출 20:2)에서 여호와는 그가 친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백성을 가리킬 때 전체적으로 "너희"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너"라고 지칭하시며 자신을 "**네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와 "너" 곧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은 특별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었다.
3) 십계명 서언의 "**네 하나님**"은 "여호와"와 동격을 이룬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어구는 서언 다음의 계명들(출 20:5, 7, 10, 12)에도 나온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네/너희 하나님"이 매우 자주(200 여 번) 사용되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란 어구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의 이름의 일부요 정체의 일부가 되었다.

4) 십계명의 서언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는 선언과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을 나란히 놓으면 마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서언과 제 1 계명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이 드러난다. "너"의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네 하나님" 곧 여호와뿐임을 각인시키는 것 같다.

5)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란 사실은 애굽에서 구출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모세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권고하였다(신 6:7). 언약 백성의 표였던 할례나 유아 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치면서 이차적으로 교회 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1) 십계명의 서언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뜬 구름을 잡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난 후 열 가지 준수 사항을 요구하신 것에 유의하며 십계명이 주어진 전후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며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의 백성이 먼저 십계명을 지키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면 어느 때에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 출애굽 후에도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열 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모세는 십계명의 서언과 준수 조항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 6:10-19 에 나오는 권면에서 잘 보여 주었다.

(신 6: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서언] 잊지 말고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제 1 계명]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제 3 계명]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제 1 계명]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제 2 계명 축복/저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제 1 계명]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준수조항]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19)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3) 모세는 십계명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규례들을 설명할 때 아주 빈번하게 "**종살이하던 곳,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레 25:42; 신 13:5; 15:15; 20:1; 24:18, 22). 십계명의 윤리는 일반 윤리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반응과 감사의 윤리이고, 자유를 얻은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지킬 의무의 윤리이다.[21] 출애굽기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종들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출 15 장)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출 20 장). 종들의 해방은 힘들고 고달프고 끔찍했던 종살이에서 메기 쉽고 가벼운 새로운 섬김으로 옮기는 전환점이다. 자유를 얻은 백성이 삶의 지침으로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완전한 자유가 있다. 희년의 규례 가운데 나오는 레위기 25:42 의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처럼 구원 받은 백성은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때 선물로 받은 자유를 완전하게 그리고 계속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22]

4) 이렇게 십계명 서언은 은혜로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어서도 아니고 수효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이다(신 7:7-1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밝히시며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을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그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했다.

5. 십계명 서언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 "**너를 종살이하던 곳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물 묘사를 하신다. 이러한 서언의 패턴은 시내산

---

[21] Miller, *Ten Commandments*, 16: "The ethic of the Commandments is not a general ethic. . . . the way of the Commandments is the way to live in both freedom and subjection. . . . Those who live this way are not free people but a *freed* people. That freedom is not inherent; it is a gift and it shapes everything that follows. The ethic of the Commandments is as much an ethic of gratitude and response as it is an ethic of obligation and duty."

[22] Miller, *Ten Commandments*, 17.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출애굽 내러티브(출 1-15 장)를 크게 두 부분 즉 여호와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한 이야기(출 1-4 장)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길고 자세한 이야기(출 5-15 장)로 나누어 언급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23]

- 여호와는 백성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 .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 3:13-15)"고 대답하라고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출 6:6-8)"고 이르셨다.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로 끝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출 15:1-3)."
- 이렇게 출 1-15 장의 내러티브는 전체적으로 십계명의 서언의 의미의 해석적 설명으로 그리고 제 1 계명의 내러티브 근거로 읽을 수 있다.

2)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정체)와 **관계 수립**(성품)의 이야기는 패러다임이 되어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된다. 이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것을 두 개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24]

① 예수님은 사 61:1-2 과 58:6 의 말씀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라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하였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정체와 성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았다.

② 십계명 서언에서 시작되는 정체와 관계의 호(弧 arc)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 사건은 죄와 사망의 속박이 끊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빈 무덤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23] Miller, *Ten Commandments*, 17-18.

[24] Miller, *Ten Commandments*, 18-19.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롬 10:9). 부활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길을 확인해 준다.

3)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임금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밝히는 십계명의 서언과 같은 진술은 신약의 여러 곳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벧전 1:18-19 에서 찾아 볼 수 있다.[25]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3. 십계명 서언의 중요성

1. 십계명 서언은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고 뒤이어 나오는 열 가지 계명의 기초를 형성한다. 십계명 서언은 십계명의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므로** 중요하다.
   1) 십계명 서언은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도덕적 책임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두 가지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사역이란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십계명의 서언 없이 십계명만 제시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2) 도덕법의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십계명의 서언을 생략하는 것은 율법의 권위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며 십계명을 오해하게 만든다. 십계명을 가르칠 때 각 계명들보다 먼저 나오는 십계명의 서언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2. 십계명 서언은 언약의 역사적 서문으로서 복음과 같은 것이고 10 가지 계명은 언약의 준수조항으로서 율법과 같은 것이다. 복음에 해당하는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구원-거룩한 삶(God-liberation-holy living)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십계명의 서언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계명을 지킬 의무가 나중에 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의 어떤 찬송가들의 표지 안쪽에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출 20:1-17)을 실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으면서도 출 20:2 의 십계명 서언을 "**나는 . . .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만 실음으로써 유독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란 부분만 생략하며 출애굽이란 구원 사건 즉 복음을 빼어 버린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2)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자유을 얻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얻은 자유는 처음으로 우리 마음으로터 순종하길 배우며 실천하게 되는 자유이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 1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 이미

---

[25] Michael S.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 Relating to God and Others Through the Ten Commandments* (Chicago: Moody, 1993), 30-31.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서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 받고서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 받고서야 하나님의 법 지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구원 받고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그의 창조주와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 백성은 그의 구속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추가된 의무가 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성취이었듯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3. 하나님의 계시는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오는 순서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사역을 먼저 직설법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삶의 규칙을 명령법으로 제시한다. 십계명의 서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먼저 제시하는 직설법이므로** 중요하다.

1) 십계명 서언을 제 1 계명으로 보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하나로 묶어 제 2 계명으로 보는 유대교의 입장은 언약문서의 역사적 서문이요 복음이요 직설법인 서언을 준수조항, 율법, 명령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십계명 서언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그들의 첫 계명으로 삼을 만큼 주의를 기울인 점은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십계명 서언을 독자적인 하나의 계명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십계명 서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십계명의 서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권면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길게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백성을 권면할 때 첫 번째 설교(1:1-43)에서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먼저 길게 말한 후(신 1:6-3:29) 순종을 촉구하는 권면을 하였고(신 4:1-43), 두 번째 설교(4:44-28:69)에서 다시 십계명을 제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촉구하며 율법을 자세히 강해하였다.[26]

---

[26]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요소에 따라 신명기를 구분할 때 클라인(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7-8)은 전문(1:1-5)과 역사적 서문(1:6-4:49)과 준수사항(5:1-26:19)으로 제시했으나 힐과 월튼(Hill & Walton, *Old Testament Today*, 82) 그리고 딜러드와 롱맨(Dillard & Longman, *IOT*, 97)은 전문(1:1-5)과 역사적 서문(1:6-3:29)과 준수사항(4:1-26:19)로 제시했다. 신명기 4 장을 역사적 서문이 아니라 준수조항에 넣는

②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길게 회고한 후(수 24:2-13) 간단히 여호와만 섬기라(24:14-15)고 권면하였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잘 듣고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서(24:16)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24:17-18)을 들었다.

③ 사사 시대와 같은 배교와 패륜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서 비롯된다.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생존하던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일어난 세대의 차이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의 여부로 묘사하고 있다(삿 2:6-10).

"(삿 2: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것은 웬함(Wenham, *EOT* Pentateuch, 125)이 모세의 설교에 착안하여 신명기를 세분한 다음 구조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1:1-5 Heading (표제)

1:6-4:43 First Sermon (설교 1)

1:6-3:29 Reflection on journey from Horeb to Moab
(호렙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회고)

4:1-40 Isreal's duty of obedience (이스라엘의 순종 의무)

4:41-43 Cities of refuge appointed (도피성 지정)

4:44-49 Heading (표제)

5:1-28:69 Second Sermon (설교 2)

5:1-33 The giving of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 제시)

6:1-11:32 The challenge of loving God with the whole heart (하나님 사랑 촉구)

12:1-26:19 Exposition of the Law (율법 강해)

27:1-26 Ratifying the covenant on entry to the Land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28:1-68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

29:1-30:20 Third Sermon (설교 3)

31:1-34:12 Epilogue: Moses's Last Days (결어: 모세의 마지막 날들)

31:1-30 Appointment of Joshua as successor (후계자로 여호수아 임명)

32:1-43 The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

32:44-47 Exhortation of Moses (모세의 권면 cf. Wenham 의 책에는 없음)

32:48-52 God's final command to Moses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33:1-29 Blessing of Moses (모세의 축복)

34:1-12 The death of Moses (모세의 죽음)

(8)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9)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 신약의 서신서들이 직설법-명령법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모두 [1-11 장에서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12-16 장에서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처럼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오는 순서를 잘 보여준다.

4. 십계명 서언은 **은혜로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원 사건을 언급한 후 주어지는 계명들은 일차적으로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엄격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 받은 백성이 다시 속박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고 진정한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려는 관심을 보여준다.

1) 모세는 자녀들이 계명에 대하여 물을 때 계명 준수에 대한 설명 이전에 반드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구원의 자유를 계속 누리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하였다. 모세의 권면(신 6:20-25)은 이렇다.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2) 부모들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해 준 다음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부모와 자녀와 후손이 사랑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다(요 3: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마 22:37-40)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8-10).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경청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구원 사역(God's work of redemption)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두 가지 의무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충성의 의무(obligation of allegiance)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의 의무(obligation of obedience)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바된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27]

4. 그리스도와 십계명 서언

1. 십계명 서언에 나타난 세 가지 현저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위엄** 가운데 알리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대한 **구원자**로 알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율법 수여자**로 알리신 것이다.[28]

1) 하나님은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서 있을 때 우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연기가 자욱하며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어 언약 곧 십계명을 반포하시며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출 19:16-19; 신 4:10-13).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며 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그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신 4:10; 시 24:7, 9; 29:1-2; 96:6-10).

2)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로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출 2:23-25)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출 5:21-23; 6:9) 늘 패역하던(출 14:11-12; 신 9:24)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며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헌장이다.

3)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로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 구원받은 후 다시 노예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해방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 구원 받은 백성에게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약 1:25)이고 물고기에게 물과 같고 새에게 창공과 같은 것이며 우뢰가 아니라 이슬이며 그 음표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운 삶으로 이루어진 곡조와 같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권면은 자주 자주 십계명 서언과 연관지어 주어진다(레 11:45; 22:31-33).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

[27]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58-259.

[28] Douma, *Ten Commandments*, 2-5.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권면하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는 백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출 19:6)이 속해 있다.

2. 옛 언약의 중보이었던 모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히 8:6; 9:15; 12:24).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과 실질(essence and substance)에 차이가 없고 시행(administration)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 언약은 한 나라 이스라엘과만 세운 옛 언약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나라 족속에게 확대되며(행 2:39; 롬 9:24-26; 엡 2:11-22)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그림자들의 성취로서(골 2:16-17; 히 5-10 장) 그의 피로 값 주고 세우신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계명 서언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29]

   1)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신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기(출 19:5) 때문에 그의 위엄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떨며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 더 밝고 더 확실하게 진술되어 있다.

      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롬 11:36). 하나님은 모든 나라 족속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계 4:11; 21:26).

      ②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마 28:18),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빌 2:10-11).

   2)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출 20:2)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렘 16:14-15)보다 **더 위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옛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양으로서(고전 5:7)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인 **성만찬**에 의해 대치되었다.

      ① 출애굽의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행 26:18)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골 1:13),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벧전 2:9),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② 출애굽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선물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29] Douma, *Ten Commandments*, 5-7.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고 말했다.

③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눅 1:54-55, 72-73)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도록(창 12:3)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구원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갈 3:28-29).

3)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이 율법의 수여자인 것을 말한다. 율법의 수여자로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서보다 새 언약 아래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율법의 수여자로 자신을 알리신다.

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는 것이다.

②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였다(롬 12:1).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엡 1:4).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엡 2:10).

③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갈 5:1).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우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벧전 1:14-15).

④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전에 빠졌던 세상적인 삶,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으로 가득 찬 삶과 대조되는 삶이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빌 2:15).

5. 십계명 서언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3-44

문 **43**. 십계명의 서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출 20:2).”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 **44**. 십계명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엡 1:2; 롬 3:29; 사 43:11; 벧전 1:17-19; 수 24:18)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신 11:1; 레 18:30; 고전 6:20).

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1

문 **101**. 십계명의 서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출 20:2)."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사 44:6), 스스로 계시며(출 3:14) 말씀하시고(출 6:3) 일하시는(행 17:24, 28)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창 17:7; 롬 3:29),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신(눅 1:74-75)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벧전 1:16-18; 레 18:30; 19:37).

III. 제 1 계명

1. 제 1 계명 본문

1. 제 1 계명은 출 20:3 과 신 5:7 에 나온다.

1) BHS

לֹא יִהְיֶה־לְ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출 20:3)

לֹא יִהְיֶה־לְ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신 5:7)

2) LXX (Septuagint)

(출 20:3) οὐκ ἔσονταί σοι θεοὶ ἕτεροι πλὴν ἐμοῦ

[Brenton][1]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side me.

(신 5:7) οὐκ ἔσονταί σοι θεοὶ ἕτεροι πρὸ προσώπου μου

[Brenton]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y face.

3) Vulgate

(출 20:3) non habebis deos alienos coram me

[Douay-Rheims Bible] [2] Thou shalt not have strange gods before me.

(신 5:7) non habebis deos alienos in conspectu meo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have strange gods in my sight.

---

[1] [Brenton]은 Sir Lancelot C. L. Brenton 이 70 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 즉 *English Translation of the Greek Septuagint Bible* (1851)을 가리킨다. 이 칠십인역의 영역성경은 http://www.ecmarsh.com/lxx/에서 볼 수 있고 Sir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Peabody: Hendrickson, 1990)에서 볼 수 있다. 칠십인역과 영어 번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싸이트는 http://www.ellopos.net/elpenor/greek-texts/septuagint/default.asp 이다.

[2] [Douay-Rheims Bible]은 Jerome(342-420)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 Vulgate 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영국인 William Allen 은 1568 년에 프랑스 Douay 에 English College 를 세웠다. 이 학교는 1578 년에 Rheims 로 옮겼다가 1593 년에 다시 Douay 로 돌아왔다. 이 학교의 William Gregory 는 Rheims 에서 Vulgate 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시작하였고 William Allen 과 Richard Bristow 가 Douay 에서 번역을 완성했다. 이 영어 성경은 1582 년 Rheims 에서 신약이 출판되고 1609-10 년 Douay 에서 구약이 출판되었다. 지금 Douay-Rheims Bible 로 출판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1749-1752 년에 Bishop Richard Challoner 가 개정한 것(Challoner revision of the Douay-Rheims = Douay-Rheims-Challoner Bible)이다. 현재 영어권의 천주교회들에서 Jerusalem Bible, New American Bible, RSV, NRSV, New Jerusalem Bible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Challoner revision of the Duay-Rheims Bible 은 보다 전통적인 천주교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Paul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304-305 를 참고하라.

4)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 5: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신 5: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출 20:3=신 5:7)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출 20:3)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신 5:7)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출 20:3)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신 5:7)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5) 영어 성경

① ESV [NIV/NKJV/RSV/NRSV]

(출 20:3=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② NASB

(출 20:3=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③ NLT

(출 20:3=신 5:7) You must not have *any other god* but me.

④ NJPS

(출 20: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sides Me.

(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side Me.

6) 사본과 번역본들에 대한 주

① 출 20:3 과 신 5:7 의 히브리어 본문은 똑같다. 레닌그라드 사본의 출 20:3 에는 절의 끝을 뜻하는 부호 쏩 파쑥(׃)이 없으나 신 5:7 에는 쏩 파쑥이 붙어 있다. BHS 출애굽기 편집자의 난하 비평 주에 언급된 대로 출 20:3 에 쏩 파쑥이 없는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 필사자의 실수이다. 다른 많은 사본들에는 쏩 파쑥이 붙어 있다.

②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은 עַל־פָּנָי [알파나이]의 번역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두 역본은 모두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을 복수로 번역하였다.

③ 영어 성경들은 NJPS 를 제외하고 출 20:3 과 신 5:7 이 원문이 똑같은 것처럼 번역문도 똑같게 하였다. 영어 성경들은 עַל־פָּנָי [알파나이]의 번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고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의 번역에 있어서 대부분 복수로 번역하고 있다.

④ 한글 성경들은 영어 성경들과 달리 원문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새번역을 제외하고 출 20:3 과 신 5:7 의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하였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자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말성경처럼 번역자가 같더라도 원문이 똑같은 점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개역과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에서 "너는"을 넣어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너는"을 넣지 않고 번역하였다. 두 본문에 "너는"을 다 넣든지 아니면 둘 다 넣지 않든지 해야 할 것이다.
- 개역은 출애굽기에서 "다른 신들을"이라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위하는 신들을"이라고 번역하였다. 신명기에 나오는 "위하는"이란 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에서 "말라"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말지니라"로 번역하였다. 이것도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לְךָ[르하]를 번역할 때 단수 접미대명사를 반영하지 않고 새번역과 쉬운성경이 두 본문에 복수 "너희는"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번역에 복수 "너희는"이라고 한 것은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 번역이나 개역/개역개정의 출애굽기 번역처럼 단수 "너는"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은 대부분 "다른 신들을"이라고 복수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말성경은 신명기에서 "다른 신들을"이라고 복수로 번역한 반면 출애굽기에서 "어떤 다른 신도"라고 단수로 번역하였다.

2. 제 1 계명 본문 번역

1) לֹא יִהְיֶה־לְךָ [로 이흐예-르하]

①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Imperfect)의 결합(thou shalt not do that!)은 부정어 אַל[알]과 간접명령형(jussive)의 결합(do not do that!)보다 훨씬 더 강한 금지를 나타내며 신적 명령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GKC 107o: 출 20:15; cf. 20:3, 4, 5, 7, 10, 12, 13, 14, 16, 17). [3]

② יִהְיֶה־לְךָ [이흐예 르하]는 "너에게 있다"라고 직역된다. 히브리어는 영어의 have 동사와 같은 동사 없기 때문에 전치사 לְ[르]를 사용하여 소유를 표현하므로 יִהְיֶה־לְךָ [이흐예 르하]는 "belong to you = you have 너에게 속하다, 네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③ לֹא יִהְיֶה־לְךָ는 직역하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너는 갖지 말라, 너는 두지 말라, 너는 모시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2)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

[3] **GKC** =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 A. E. **C**owley (Oxford: Clarendon, 1910).

① אֱלֹהִים[엘로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 장엄(존엄/탁월)의 복수(plural of majesty/excellence; honorific plural)로서 אֱלֹהִים צַדִּיק [엘로힘 차디크](“의로우신 하나님” 시 7:9[MT 10])처럼 보통 단수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단수 동사를 취한다(GKC 132h). [엘로힘]이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 복수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אֱלֹהִים חֲדָשִׁים [엘로힘 하다심] “새로운 신들” 삿 5:8) 복수동사를 취한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경우 단수 형용사(חַי[하이])를 쓰기도 하고(왕하 19:4, 16) 복수 형용사(חַיִּים[하임])를 쓰기도 한다(신 5:23; 삼상 17:26; 렘 23:36). 그리고 수 24:19 의 אֱלֹהִים קְדֹשִׁים[엘로힘 크도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우 형용사는 복수이지만 대명사는 단수 אוּה[후]로 받고 있다(GBH 148a).[4]

②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언급하고 있는 출 20:3 의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에 대하여 영어 성경들과 IBHS 7.4.3b 는 “other gods”라고 복수로 번역한 반면[5] GKC 132h 와 GBH 148a 는 장엄 복수의 맥락에서 단수 “another god”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 출 20:3 에서 יִהְיֶה[이흐예]는 단수형 동사이고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은 주어로 복수형이다.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 주어의 성과 수에 상관없이 삼인칭 남성 단수 동사가 자주 사용되므로(GKC 145o; WHS 228)[6] 단수 동사 יִהְיֶה[이흐예]의 어형을 가지고 주어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이 둘 이상의 신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복수인지 아니면 장엄 복수의 맥락에서 “다른 신”을 나타내는 단수인지 판단할 수 없다.
-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신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길 만한 대상으로 삼아 모시는 것이므로 주어 [엘로힘 아헤림]이 장엄 복수로 단수를 나타내는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본 주해는 אֱלֹהִים אֲחֵרִים 를 GKC 132h 와 GBH 148a 를 따라 NLT 와 우리말성경 출애굽기의 번역처럼 단수 즉 “다른 신”이라고 번역하였다.

3) עַל־פָּנָי [알-파나이]

---

[4] **GBH** [=JM] = P.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 & rev. T. Muraoka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1).

[5] **IBHS** =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6] **WHS**= R. J. Williams, ***W**illiams' **H**ebrew **S**yntax*, third ed. revised & expanded by John C. Beck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76). WHS 228 은 특히 주어가 무생물 혹은 동물일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예: 창 1:14; 39:5; 왕하 3:18, 26) 주어가 사람인 경우로 삿 8:6 의 וַיֹּאמֶר שָׂרֵי סֻכּוֹת [바요메르 싸레 쑤코트](“숙곳의 방백들이 말했다”)를 예로 들었다.

① 전치사구 עַל־פָּנַי[알 프네]에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은 עַל־פָּנֵי[알 파나이](렘 6:7)이고 이것의 휴지형은 עַל־פָּנָי[알 파나이]이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한 BHS 의 출 20:3 과 신 5:7 에는 עַל־פָּנַי[알 파나야?]로 나오고 있다.

② 사전과 참고 문법서의 풀이

- BDB(818-819)는 עַל־פָּנַי[알 프네]가 (a) in front of [=in the sight of =in presence of]; (b) before, to the exclusion of another, i.e., in preference to; (c) in addition to; (d) in front of [of localities] (e) over towards 라는 다섯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지적하고 예를 들었다. BDB 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보다 앞서/앞세워; -보다 선호하여"라는 (b)의 의미를 지닌 예로 신 21:16 을 든 다음에 출 20:3 과 신 5:7 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풀이하였다.[7]
- KB(II: 944, 8 d)는 출 20:3 의 עַל־פָּנַי[알 파나이]에 대하여 1) next to me (Zorell, Beer); 2) except me (Gesenius); 3) over me, to my disadvantage (Von Rad); 4) in front of me (Nielsen, Childs); 5) opposite me, before my face (Noth; Knierim); 6) in defiance of me (KBL, Preuss, Driver) 등의 6 가지 의미를 실어놓았다.[8]
- IBHS 11.2.13f(p. 218)는 "over against me"로 번역하였다.

③ 역본들의 번역

- 칠십인역(LXX)은 출애굽기에서 πλὴν ἐμού[플렌 에무](beside/except me 나 이외에)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πρὸ προσώπου μου[프로 프로쏘푸 무](before my face 내 면전에)로 번역하였다.
- 벌게이트역(Vulgate)은 출애굽기에서 coram me(before me)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in conspectu meo(in my sight)로 번역하였다.
-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before me"로 번역하고 난외에 "besides me"를 가능한 번역으로 제시하였다. NLT 는 "but"로 번역하고 NJPS 는 "besides/beside"로 번역하였다.
-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나 외에[는]"라고 번역하였다. 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는 "내 앞에서"라고 번역하였다.

④ 교리 문답의 풀이

---

[7] **BDB** =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8] 약자 **KB** 가 가리키는 사전은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e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Study edition, 2 vols. (Leiden: Brill, 2001)이다. 이 사전은 보통 *HALOT* 로 약칭되지만 본 주해에서 편집자들의 성을 따라 KB 로 표시했다.

-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은 "before me 내 앞에" 혹은 "내 면전에 before my fac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9]
- 왓슨(Watson, 54)은 소교리 문답 해설에서 라틴어 신명기의 번역처럼 "in conspectu meo = in my sight, before my face"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⑤ 밀러(Miller, 20)는 עַל־פָּנָי[알 파나이]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다중적(multivalent) 의미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이 어구의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before me = in front of: "For you, no other god goes *in front of* this deity or can take a place prior to the Lord of Israel."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앞서게 하거나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 없다.]
- beside me = alongside me: "No other god may be placed in a pantheon *alongside* this deity for you." [너는 신전에서 여호와와 나란히 어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 Besides me = in my place = instead of me: "No other god may *take the place* of the Lord for you."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 Over against me = in hostile confrontation with me = against my face: "For you, no other god may *be set over against* the Lord."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를 대적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스튜아트(Stuart, 448-449)는 "before me 내 앞에"로 번역하면 1 계명이 다신론(polythieism)의 금지가 아니고 신의 서열을 정하며(hierarchicalizing)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단일신론적(henotheistic) 명령이 되고, "other than me 나 이외에"로 번역하면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유일신론적(monotheistic) 명령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어구가 나오는 구약의 구절들(cf. 창 49:30; 출 20:20; 레 9:24; 민 14:15; 16:22, 45; 20:6; 신 11:4; 사 65:3; 렘 6:7; 나 2:1)을 살핀 후 칠십인역과 페시타역과 타르굼역이 "나 이외에"로 번역하며 여호와의 우위성보다 배타성을 반영한 것처럼 "You must have no other gods over against me." 혹은 "You must have no other gods in distinction to me."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지었다.

⑦ 크레이기(Craigie)는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0]

- 히브리어 *'al-panay* "besides me 나 외에"는 언약의 맥락에서 어느 다른 신과의 관계를 배제하며 전적으로 배타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1 계명은 유일신론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

[9]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 106: "These words before me or before my face, in the first commandment, teach us, that God, who seeth all things, taketh special notice of, and is much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that so it may be an argument to dissuade from it, and to aggravate it as a most impudent provocation (Ez 8:5-6; Ps 44:20-21): as also to persuade us to do as in his sight, whatever we do in his service (1 Chr 28:9)."

[10]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52.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의 실재를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져야 할 직접적인 관계와 헌신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 1 계명이 (여호와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신들 중 으뜸가는 최고의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며 다른 신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좋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단일신론적인 접근은 언약의 배타적 성격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11]
- 이 어구를 "before my face, in my sight"로 해석하며 1 계명이 여호와의 신전에 다른 신들이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cf. R. Knierim, "Das erste Gebot," *ZAW* 77 [1965]: 20-39)도 이차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약의 맥락에서 관계와 헌신의 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거부되어야 한다.[12]

4) 번역

① 직역

-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지 않게 하라.
-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게 하라.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하라.

② 의역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갖지/두지/섬기지/모시지 말라.
-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갖지/두지/섬기지/모시지 말라

③ 번역

(출 20:3 = 신 5: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2. 제 1 계명의 의미

1. 신을 모신다(to have a god/God)는 의미의 배타성

1) 루터(Luther)는 "'신'이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위해 의지하는 대상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시에 피난처가 되는 대상에 대한 용어이다. 어떤 신을 모신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 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 . . 신을 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듯이 신을 손가락으로 붙잡거나 지갑 속에 넣거나 상자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을 모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마음으로 붙들고 달라붙으며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으로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그 자신 외에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떠나길

[11] 제 1 계명이 유일신론적(monotheistic) 명령이 아니라 단일신론적(henotheistic)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Enns, *Exodus*, 414 을 참고하라.

[12] Cole, *Exodus*, 153-154 도 Craigie 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라고 그가 유일하고 영원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였다.[13] 루터의 이러한 설명은 어떤 신을 모신다는 것이 그 신에게 전적이고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신들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2)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섬김을 받거나 하나님과 동일한 헌신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다른 신 혹은 다른 신들을 모시는 것은 남편이 보고 있는 보는 면전에 간부(adulterer 姦夫)를 데려오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아내의 파렴치한 행위와 같다.

①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고 "both/and 둘 다"가 아니라 "either/or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섬기라고 분명하게 촉구하였다.

②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cf. 마 6:24)"고 말씀하셨다.[14]

3)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의 광대하심 앞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예배(adoration = veneration and worship in submitting to his greatness), 그를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신뢰(trust = assurance of reposing in him), 우리의 유일한 후원으로서 그의

---

[13] Robert Kolb and Timothy J. Wengert, eds.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Minneapolis: Fortress, 2000), 386 & 388 quoted in Miller, *Ten Commandments*, 19, 28, & 31: " A 'god' is the term for that to which we are to look for all good and in which we are to find refuge in all need. Therefore, to have a god is nothing else than to trust and believe in that one with your whole heart. . . . To have a god, as you can well imagine, does not mean to grasp him with your fingers, or to put him into a purse, or to shut him up in a box. Rather, you lay hold of God when your heart grasps him and clings to him completely. To cling to him wih your heart is nothing else than to entrust yourself to him completely. He wishes to turn us away from everything else apart from him, and to draw us to himself, because he is the one, eternal good."

[14]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섬기지 못하다"라는 번역보다는 동사 δύναμαι 를 잘 반영한 누가복음의 "섬길 수 없다"라는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으로 보인다. 헬라어 본문에서 마 6:24 와 눅 16:13 의 차이는 부정대명사 Οὐδεὶς 다음에 "종, 하인"을 뜻하는 단어 οἰκέτης 가 마태복음에는 없으나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이다.
(눅 16:13) Οὐδεὶς οἰκέτης **δύναται** δυσὶ κυρίοις δουλεύειν· ἢ γὰρ τὸν ἕνα μισήσει καὶ τὸν ἕτερον ἀγαπήσει ἢ ἑνὸς ἀνθέξεται καὶ τοῦ ἑτέρου καταφρονήσει. οὐ δύνασθε θεῷ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ᾷ.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원(invocation = habit of resorting to his faithfulness and help as our only support),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thanksgiving = gratitude with praise ascribed to him for all good things)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15]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그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외적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의 눈앞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 전부와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그를 섬기고 찬양하는데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일 관계 정립

1) 제 1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알파나이] "나 외에"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에 명시된) "나"와 ([르하] "너에게"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에 명시된) "너"의 일대일 관계의 성격을 밝히시며 구원받은 백성 "너"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만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모시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다.

2) 제 1 계명의 "나"는 바로 십계명 서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네 하나님"을 지칭한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이시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이시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이시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셨다(시 136).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출 34:6). 제 1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최우선적 일이므로 십계명 중 처음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고 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 나누어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다른 신과 나누어 갖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는 말씀처럼 제 1 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이란 위대한 신학적 원리를 천명하며 십계명의 선두에 있다.

4)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언약 공동체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삶의 영역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목상이나 석상보다 더 교묘한 형태를 띠고 다가온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차적으로 만들도록

[15] Calvin, *Institutes*, II. viii. 16 (pp. 381-383).

이끄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른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16] 사람은 그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인간의 본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에 부여된 가치를 바로 보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상대화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질서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모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바른 질서가 부여된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돈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의 가치를 따라 선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며 그것들을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제 1 계명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른 질서 가운데 제 위치에 있게 되고 제대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제 1 계명이 지켜지면 타락으로 인해 전도되어 버린 질서가 바로 회복되고 사람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늘 기억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원과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실수했던 것처럼 누가 주는 자인가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나 혼동에 빠지지 않는다. 감사는 감사드리는 자를 감사드리는 대상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해 준다. 감사는 제 1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주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감사는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모든 좋은 것을 얻게 하였다는 잘못된 생각을 막아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과 구원과 풍요를 줄 수 없는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 준다.[17]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제 1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이다.

3. 제 1 계명의 금지와 요구

---

[16] Craigie, *Deuteronomy*, 153.

[17] Miller, Ten Commandments, 25-26: ". . . thanksgiving is one of the primary positive ways of keeping the First Commandment. It is a constant reminder of who is God and who has provided. It is a guard against thinking that "my own hand" has produced the good that one has, and it orients one's being toward the Lord and away from other objects of idolization, starting with oneself. Thanksgiving by definition orients one toward the object of thanks and away from oneself."

1) 카일(Keil)은 제 1 계명이 매우 일반적인 진술이고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할(cf. 신 8:11, 11, 17)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는(cf. 신 6:5, 13, 17; 10:12, 20) 것이라고 설명했다.[18]

2) 제 1 계명은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allegiance/loyalty)을 다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명하는 준수조항이다.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to go after/walk after/follow other gods הלך אחרי אלהים אחרים [할라흐 아하레 엘로힘 아헤림])"으로 언급된다(신 6:14; 8:19; 11:28; 13:2). 따라서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to go after/walk after/follow the LORD הלך אחרי יהוה [할라흐 아하레 아도나이])"으로 표현된다(신 7:4; 왕상 9:6).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עזב[아자브]) 다른 신을 따르며 절하고 섬기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고, 여호와만을 따르고 그를 떠나지 않고(דבק[다바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일이다.

3) 밀러(21)는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가장 강한 긍정적인 표현들 중의 하나로 신 13:4(MT 5)을 들었다.[19]

אַחֲרֵי יְהוָה אֱלֹהֵיכֶם תֵּלֵכוּ וְאֹתוֹ תִירָאוּ וְאֶת־מִצְוֹתָיו תִּשְׁמֹרוּ וּבְקֹלוֹ תִשְׁמָעוּ וְאֹתוֹ תַעֲבֹדוּ וּבוֹ תִדְבָּקוּן׃

[(1)아하레 아도나이 엘로헤헴 텔레후 (2)브오토 티라우 (3)브에트-미츠보타브 티시모루 (4)우브콜로 티시마우 (5)브오토 타아보두 (6)우보 티드바쿤][20]

---

[18] C. F. Keil &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II: 114. "The sentence is quite a general one, and not only prohibits plolytheism and idolatry, the worship of idols in thought, word, and deed (cf. Deut. viii. 11, 17, 19), but also commands the fear, love, and worship of God the Lord (cf. Deut. vi. 5, 13, 17, x. 12, 20)."

[19] Craigie(*Deuteronomy*, 204, 223)는 신 13:4[MT 5]와 비교할 수 있는 구절로 신 10:12-13 을 들며 이 구절이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 혹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일 큰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다섯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 10:12-13]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1)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2)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3)그를 사랑하며 (4)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5)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20] 신 13:4 의 번역 비교

[개역개정]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새번역]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① 신 13:4 은 6 개의 동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동사문(**אַחֲרֵי יְהוָה אֱלֹהֵיכֶם תֵּלֵכוּ**[아하레 아도나이 엘로헤헴 텔레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이 전체의 기반이 되고 각 동사문은 제 1 계명의 내용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신 13:4 의 번역: **(1)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2)그를 경외하고 (3)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4)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그에게 순종하고] (5)그를 섬기고 (6)그를 떠나지 말라[←그에게 붙어 있으라]**

4)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는 답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막 8:34; cf. 눅 9:23 에는 "날마다"라는 어구가 추가됨)"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이나 모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를 보여야 한다.

5) 십계명의 서언과 제 1 계명의 관계 그리고 제 1 계명의 긍부 양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신 6:10-16 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실 때(신 6:10-11)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서언]"를 **잊지 말고**(신 6:12)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제 1 계명의 요구: 긍정](신 6:13) . . .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제 1 계명의 금지: 부정](신 6:14) . . .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제 1 계명의 금지: 부정](신 6:16)"고 권면하였다.

6) 시편 81:9-10 은 제 1 계명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시 81: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7) 언약서(출 20:22-23:33)의 끝 부분은 제 1 계명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쉬운성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여호와만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복종하시오. 그분만을 섬기며 충성하시오.

[우리말성경]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너희의 하나님"과 동격인 "여호와"가 번역에 빠졌음}

NASB: You shall follow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you shall keep His commandments, listen to His voice, serve Him, and cling to Him.

NIV: It is the LORD your God you must follow, and him you must revere. Keep his commands and obey him;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ESV: You shall walk after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obey his voice, and you shall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출 20: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8) 카이저(Kaiser)는 제 1 계명이 무신론을 겨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상 숭배를 겨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다신론을 겨냥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형식주의를 겨냥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사는 모든 윤리의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21]

3. 다른 신들

1.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명시하는 구절들

1)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고 말했다. 여기에서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가나안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애굽의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2)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삿 2:11-13)."라고 기록하고 있다.

3) 열왕기 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에 있음을 왕하 17:7-18 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하 17: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21]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1), 85. "Thus the first "word" takes aim at atheism (we must have a God), idolatry (we must have Yahweh as our God), polytheism (we must have the Lord God alone), and formalism (we must love, fear, and serve the Lord God with all our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The ground of all morality [=conformity to the character and will of God] begins here."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4) 에스겔(20:1-36)은 **여호와께 물으러 온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지만 조상들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사모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며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구약 성경에 언급된 신들

1) 레반트(시리아-팔레스타인)의 신들

신	지역	지위	성경 구절
바알	가나안	폭풍의 신	왕상 16:31; 18:18-46
아스다롯	가나안	사랑과 다산의 신	삿 2:13; 10:6; 삼상 12:10; 왕상 11:5
하늘황후	가나안	아스다롯과 동일	렘 7:18; 44:17-25
다곤	블레셋	국가의 신, 곡물신	삿 16:23; 삼상 5:2-7
그모스	모압	국가의 신, 전쟁신	민 21:29; 삿 11:24; 왕상 11:7, 33; 렘 48:7
몰록, 몰렉 말감, 밀곰	암몬	국가의 신	왕상 11:7, 33; 렘 49:1; 습 1:5

2) 메소포다미아의 신들

신	지역	지위	성경 구절
마르둑	바벨론	폭풍의 신	렘 50:2
벨	바벨론	마르둑의 다른 명칭	사 46:1; 렘 50:2; 51:44
느보	바벨론	마르둑의 아들	사 46:1
담무스	수메르	다산의 신	겔 8:14

3. 고대 근동의 신들 (*ISBE* 4: 79-107, "Religions of the Biblical World")[22]

[22] ISBE = G. W. Bromiley,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Rev. ed.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9-88).

1) 소아시아 (히타이트, 후르)

① 고 히타이트(Old Hittite)

텔피누(Telipinu) 폭풍 신

자바바(ZABABA): 텔피누의 아버지, 폭풍신, 태양신

닌투(NIN.TU) = 하나하나(Hannahanna): 모신(mother-goddess)

② 중/신 히타이트(Middle and New Hittite)

테숩(Teshub) = 타르훈타(Tarhunta): 폭풍 신

헤밧(Hebat): 테숩의 아내, 태양신(=아리나 Ari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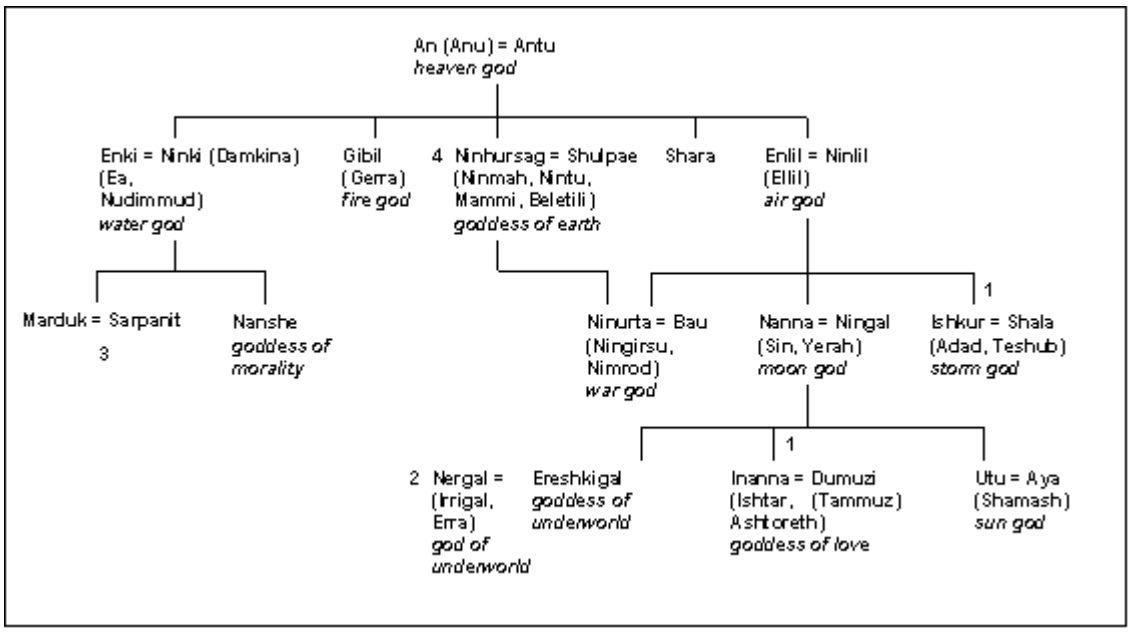
2) 레반트(시리아와 팔레스타인)

① 레반트의 주요 신들은 엘(El), 바알(Baal), 다곤(Dagan, Dagon), 아낫(Anat, Anath), 아스토렛/아스타르트(Ashtoreth/Astarte)이다.

② 다른 신들로 폭풍의 신 하닷(Hadad), 바다를 의미하는 얌(Yam), 죽음을 뜻하는 모트(Mot), 역병의 신 레셉(Resheph), 태양의 신 샤파시/세메시(Šapaš, Šemeš) 등이 있다.

③ 지역 신으로 모압의 그모스(Chemosh), 암몬의 밀곰(Milkom) 등이 있다. 밀곰(Milkom)은 말감(Malkam), 몰렉(Molech), 혹은 몰록(Moloch) 등으로도 불리운다.

3) 수메르의 신들[23]



4) 메소포타미아(앗수르와 바벨론)의 신[24]

---

[23] 이 도표는 www.ianlawton.com/mes2.htm 에 옮긴 것이다.

[24]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형상을 보려면 www.mesopotamia.co.uk/**gods**/explore/main.htm 을 참고하라.

① 앗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수메르의 신들을 자기들에게 맞게 받아들이고 새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앗수르 및 바벨론의 신들의 근본적인 성격은 수메르의 신들과 똑같다. 앗수르와 바벨론에 3 천여 신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들은 우주적(cosmic) 세 신 즉 아누(Anu), 엔릴(Enlil), 에아(Ea)와 천체적(astral) 세 신 즉 씬(Sin), 샤마시(Shamash), 이시타르(Ishtar)이다. 이외에 다른 중요한 신들로 아닷(Adad), 다간(Dagan), 닌우르타(Ninurta), 네르갈(Nergal), 마르둑(Marduk), 아슈르(Ashur) 등을 들 수 있다.

② 아누(Anu, 수메르어 AN[안])는 "하늘 heaven"이란 뜻을 가지며 신들의 아버지요 왕이다.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신이지만 실제로는 수동적이다. 아누의 아내는 안투(Antu) 혹은 이시타르(Ishtar)이고 아누의 도시는 우룩(Uruk)이다.

③ 엔릴(Enlil 혹은 Ellil[엘릴], 수메르 ENLIL[엔릴])은 "바람의 주 lord wind"란 뜻을 가지며 대기, 바람, 폭풍을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그는 주요 신으로 그리고 신들 회의의 집행자로서 활동한다. 그는 운명의 서판(tablets of destiny)을 소유하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자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엔릴의 아내는 닌릴(Ninlil, 수메르어 NINLIL)이며 엔릴의 도시는 니푸르(Nippur)이다.

④ 에아(Ea, 수메르어 ENKI[엔키] "땅의 주 lord earth", "지하의 주 lord of the subterranean region")는 지하 담수 대양의 주(수메르어 AB-ZU[아브-주]; 아카드어 apšu[압슈])이다. 에아는 수메르어 EA[에아](house of water)로 생각될 수 있으나 수메르 학자 크레이머(Kramer)는 에아가 셈족어인 것으로 생각한다. 에아는 지혜, 주술, 예술, 기술, 문화의 신이다. 에아의 아내는 닌키(Ninki, 수메르어 NINKI[닌키] 혹은 DAMGALNUNNA[담갈누나], DAMKINA[담키나]라고도 함)이고 에아의 도시는 에리두(Eridu)이다.

⑤ 씬(Sin, 수메르어 NANNA[난나]; SU-EN[쑤-엔])은 달을 나타낸다. 씬의 활동 영역은 다른 신들과 겹쳐지는데 지혜(Ea), 심판(Shamash), 운명의 결정(Enlil)이다. 씬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주전 6 세기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Nabonidus)에 의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씬의 아내는 닌갈(Ningal, 수메르어 NINGAL[닌갈] cf. 서부 셈족어 Nikkal[니칼])이고 씬의 주요 도시는 우르(Ur)이며 북부 메소포타미아 하란(Harran)에서도 숭배되었다.

⑥ 샤마시(Shamash, 수메르어 UTU[우투])는 태양(히브리어 שֶׁמֶשׁ[셰메시], 아카드어 šamšu[샴슈])을 나타낸다. 샤마시는 정의와 공평의 신이고 신들의 재판관이다. 샤마시는 함무라피 법전 비문에 함무라피 왕에게 홀을 주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샤마시의 아내는 아야(Aia)이며 샤마시의 도시들은 씨파르(Sippar)와 라르싸(Larsa)이다.

⑦ 이시타르(Ishtar, 수메르어 INANNA[이나나])는 가장 중요한 여신이며 많은 다른 여신들의 역할과 성격을 융합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이시타루(ištaru)란 형태로 "여신"을 의미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시타르는 아침과 저녁의 별(Venus)이고, 성적인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고, 앗시리아에서는 정열의 여신으로 보고 전쟁의 여신으로 여긴다. 이시타르의 도시는 우룩(Uruk)이고 따라서 때때로

아누(Anu)의 아내로 간주된다. 이스타르는 니느웨(Nineveh)의 이스타르, 아르벨라(Arbela)의 이시타르, 비트키트무리(Bitkitmuri)의 이시타르처럼 지역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며 숭배되기도 한다. 타무즈(Tammuz 혹은 Ta'ūzu[타우주], 수메르어 DUMUZI[두무지])가 그녀의 남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⑧ 아닷(Adad)은 수메르의 덜 중요한 신 이시쿠르(ISHKUR)와 관련이 있으며 서부 셈족에서는 하닷(Hadad)과 같은 신으로 천둥과 폭풍의 신이다. 아닷은 풍요를 주는 좋은 신이기도 하지만 홍수를 통하여 파괴를 주는 신이기도 하다. 마리(Mari)에서 아닷은 높은 지위의 신으로 간주되었다.

⑨ 다간(Dagan)은 다산의 신이며 마리(Mari) 지역에서 중요한 신이었다. 다간은 블레셋의 다곤(Dagon)과 같다.

⑩ 닌우르타(Ninurta, 수메르어 NINURTA[닌우르타])는 또 하나의 폭풍의 신이며 전쟁과 사냥의 신이다. 닌우르타는 신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특정 도시는 없지만 중기 앗시리아 시기(주전 1370-910)에 현대의 니므룻(Nimrud)인 칼라(Calah, cf. 창 10:8f)에서 사냥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닌우르타의 아내는 치료의 여신 굴라(Gula)이다.

⑪ 네르갈(Nergal, 수메르어 NERGAL[네르갈])은 재앙의 신이고 지하 세계의 주이며 지하 세계에서 그의 아내는 에레시키갈(Ereshkigal, 수메르어 ERESHKIGAL[에레시키갈]; 아카드어 Allatu[알라투])이다. 네르갈은 여러 지역에서 숭배되었으나 특별히 쿠사(Cutha, cf. 왕하 17:30 굿)에서 숭배되었고 거기에서 그의 아내는 라즈(Laz)이다.

⑫ 타무즈(Tammuz 혹은 Ta'ūzu[타우주], 수메르어 DUMUZI[두무지])는 목축과 농사에 관련된 다산의 신이다. 수메르에서 두무지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으나 앗수르-바벨론에서 타무즈는 별로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앗수르-바벨론의 결혼 예식(sacred marriage rite)에서 국가의 신 마르둑(Marduk)과 아슈르(Ashur)가 타무즈의 역할을 대신 하였다. 타무즈 숭배(Tammuz cult)는 매년 타무즈의 계절적인 죽음과 다산의 자연적 힘의 멈춤에 대하여 애곡한다.

⑬ 주전 1595 년 바벨론 제 1 왕조(함무라피 왕조)가 멸망한 후 주전 2 천년기 후반 동안에 마르둑(Marduk)은 바벨론의 국가 신이 되었고 아슈르(Ashur)는 앗수르의 국가 신이 되었다.

⑭ 마르둑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마르둑은 수메르어 AMAR-UTU-K[아마르-우투-크](young calf of the sun)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둑이 원래 태양신이었다고 제안되기도 하지만 국가 신으로 태양과 관련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마르둑은 에아(Ea)의 아들로 마술과 주술의 신이고 마르둑의 도시는 바벨론이고 마르둑의 신전은 에싸길라(Esagila)이고 마르둑의 아내는 싸르파니투(Sarpanitu)이다. 마르둑의 원래 도시는 에리두(Eridu)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에아(Ea, 수메르어 ENKI[엔키])의 도시가 에리두이고 그의 신전 에싸길라(Esagila)가 원래 에리두에 있던 신전의 이름이고 에리두 창조 설화(cosmogony)가 바벨론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Enuma Elish)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⑮ 아슈르(Ashur)는 앗수르의 국가 신으로 앗수르 제국의 힘이 커짐에 따라 그의 중요성도 점점 커져갔다. 앗수르에서 아슈르는 많은 다른 신들의 역할을 융합하였다. 아슈르는 샤마시(Shamash) 대신 정의의 신이고 신들의 재판관이다. 아슈르는 아누(Anu)와 엔릴(Enlil) 대신 왕위를 수여하는 신이고, 신들의 아버지로 신들을 낳는 신이다. 아슈르는 앗수르 군대에 승리를 주는 전쟁의 신이다. 아슈르의 신전은 수도 아슈르(Asshur)에 있는 에스하라(Esharra)이고 아슈르의 아내는 닌릴(Ninlil, 원래는 엔릴의 아내)이다.

5) 이집트의 신들[25]

① 이집트에는 여러 지역에 종교 중심지들이 있었고 각 종교 중심지에는 신들을 섬기는 사제 집단이 있었다. 두드러진 종교 중심지로는 하 이집트(Lower Egypt)의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와 멤피스(Memphis), 상 이집트(Upper Egypt)의 테베(Thebes)와 엘레판틴(Elephantine), 그리고 중 이집트(Central Egypt)의 헤르모폴리스(Hermopolis)가 있었다. 중교 중심지마다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창조 설화(cosmogony)가 있었다. 정치적 권력이 시대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던 것처럼 사제들의 권력도 지역에 따라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종교적 혼합 현상이 일어났다.

② 하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지금의 Cairo 의 교외지역) 창조 설화는 아텐(Aten)을 최초의 신(primal god)으로 언급한다. 그가 스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원시 대양(primeval ocean) 눈(Nun)으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아텐은 대기의 신 슈(Shu)와 습기와 이슬의 여신 테프누트(Tefnut)를 낳는다. 슈와 테프누트는 땅 신 게브(Geb)와 하늘 여신 누트(Nut)를 낳는다. 게브와 누트는 오시리스(Osiris), 이시스(Isis), 세스(Seth), 네프티스(Nephthys)를 낳는다. 이 아홉 신들은 Ennead(구신 九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대에 걸쳐 남매 신들이 결혼한 것이 특징이다.

③ 하 이집트의 멤피스에서는 프타(Ptah)가 창조주이다. 프타의 아내는 여신 나우네트(Naunet, Nun 의 여성형)이다.

④ 멤피스에서 남쪽으로 2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헤르모폴리스에서는 토트(Thoth)가 창조주이다. 토트는 자신을 스스로 낳고 그 후 4 쌍으로 된 여덟 신(Ogdoad) 즉 눈(Nun)과 나우네트(Naunet), 후(Huh)와 하우헤트(Hauhet), 쿠크(Kuk)와 카우케트(Kauket), 그리고 아몬(Amon)과 아마우네트(Amaunet)를 낳는다.

⑤ 상 이집트의 테베에서는 아몬(Amon)이 창조주이다. 아몬은 자신을 스스로 낳고 모든 신들과 인간을 창조했고 아홉 신(Ennead)과 여덟 신(Ogdoad)을 조직화했다. 그리고 아몬은 하늘로 올라가 레(Re)와 연합하여 아몬-레(Amon-Re)가 되었다. 아몬-레는 18-19 왕조의 주요 신이다. 오시리스는 테베에서

[25]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을 보려면 http://www.bbc.co.uk/history/ancient/egyptians/gods_gallery.shtml 을 참고하라.

태어났고 그의 누이이며 아내인 이시스와 더불어 호루스(Horus)를 낳는다. 호루스는 이집트 왕국의 창시자이다.

⑥ 상 이집트의 엘레판틴에는 체계화된 창조 설화가 없지만 한 변형이 발견된다. 다산과 도예의 신 크눔(Khnum)이 그의 도공 바퀴(potter's wheel)에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크눔은 지하 수로에서 나온 나일강이 하나는 북쪽 지중해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남쪽 이디오피아 국경으로 나아가는 분계점인 제일 분류[奔流](the First Cataract)를 관장하였다.

⑦ 이집트의 신들의 특징은 남녀 쌍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신들의 쌍은 많은 경우 같은 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 권력의 변동으로 인해 종교 중심지가 이동되었던 상황에서 신들의 융합이 이루어져 그 쌍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프타(Ptah)의 아내가 어떤 문헌에는 바스테트(Bastet)로 나오고 어떤 문헌에는 세케트(Sekhet)로 나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4. 다른 신(우상)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태도

1. 참된 신

1)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26]

①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사 44:6; 신 4:39-40; 6:4-5).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신 4:39-40]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②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그와 같은 신은 없다(출 15:11; 왕상 8:23).

-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

[26] 애굽의 오시리스(Osiris), 이시스(Isis), 셋(Seth), 호루스(Horus), 아문-레(Amun-Re), 아툼-레(Atum-Re of Heliopolis), 프타(Ptah of Memphis), 아몬(Amon of Thebes) 등은 구원을 주지 않았고 줄 수도 없었다. 가나안의 바알이나 시돈의 아스다롯(왕상 11:5; 왕하 23:13)이나 모압의 그모스(왕상 11:7; 왕하 23:13; 모압= 그모스의 백성, 민 21:29; 렘 48:46)나 암몬의 밀곰(왕상 11:5; 왕하 23:13)/몰렉(왕상 11:7)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못했다. 블레셋의 다곤(삿 16:23-25; 삼상 5:1-5; 대상 10;10)이나 아스다롯(삼상 31:10)이나 바알 세붑(Baal-zebub 'lord of flies' of Ekron, 왕하 1:2-3, 6, 16: ? = Baal-zebul 'lord of the heavenly dwelling, or lord Baal')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했다. 아람의 하닷(Hadad), 림몬(Rimmon, 왕하 5:18), 하닷-림몬(슥 12:11: ? Hadad-Rimmon = Hadad Rammān, Hadad Thunderer) 등과 에돔의 카우스/코스(Qaus/Qos, cf. Koze of Idumeans) 등의 신들이 구원을 주거나 풍요로운 복된 삶을 줄 수 없었다.

- [왕상 8: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말라고 권면하였다(신 8:17-18).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신 8:19). 모세가 가르쳐 준대로 여호와 이외에 구원과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

② 모세가 진정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반석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막기 위해 외우도록 지은 노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신 32:3-4, 15-17, 29-31] 3)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신 일(개역: 공덕)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 15)*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개역: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 29)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30)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31)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③ 모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신 13:6-7)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신 13:10)"로 규정하였다. 모세는 그 유혹하는 자가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이든" 간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며 돌로 쳐 죽이라(신 13:8-10)"고 명하였다.[27]

3) 구원과 풍요를 주시는 여호와 대신에 (혹은 여호와와 함께) 구원도 줄 수 없고 복된 삶을 줄 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제 1 계명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고

[27]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권면은 신 6:4-5, 12-15; 10:12-13, 20-21; 8:11, 17-19; 26:16-19; 32:3-4, 15-17, 29-31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명하시며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구원을 주신 여호와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

2. 우상, 거짓 신

1) **우상은 거짓 신이고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은 사 40-66 장이 다룬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사 40:18; 45:7, 18)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사 40:2) 고레스를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여호와이시다(사 44:28-45:7).

② 신 4:35, 39 처럼 사 44-45 장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혹은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주제적 진술이 반복된다.

[사 44:6, 8]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 . (8) . . .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 45:5-6, 14, 18, 21-22]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③ 사 40 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비하여 나라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밝힌다. 나라들은 통의 물 방울 하나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며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간주된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걸쳐 놓은 것이거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고 검불과 같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는 선지자의 질문(사 40:18)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는 거룩하신 이의 질문(사 40:25)에 누구라도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④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신을 삼은 것으로 짐승이 "실어 나르는 무거운 짐"이고(사 46:1) 사람들이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사 46:7)"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야만 이동할 수 있는 우상(carried idols)과 달리 여호와는 그가 창조한 백성을 모태에서 백발까지 안고 업고

품고(사 46:3-4) 나르시는 하나님이시다(carrying God).[28] 이러하신 여호와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사 46:5)"라고 반문하시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 46:9)"고 말씀하셨다.

⑤ 우상들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사 57:13).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9)"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2) **우상은 헛된 것이고 무익하며 거짓 스승이고 결코 구원을 베풀 수 없는무능한 것이다**(렘 2:11, 13, 27-28; 10:6-16; 11:12; 14:22; 합 2:18-19)**.**

①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이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같은 신이 없으며(10:6-7; 10)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짓된 것이고(10:14) 헛된 것이고(הֶבֶל[헤벨] 10:15; 8:19; 14:22;) 무익한 것이고(2:11)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고(2:13)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줄 수 없고(2:27-28; 11:12) 망할 것이고(10:11, 15) 섬기는 자가 수치를 당할 것(10:14)이라고 말하였다.

- [렘 10:6-16] (6)**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0)**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 [렘 14:22] 이방인의 우상[직역: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 [렘 8:19]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 [렘 2: 11, 13, 27-28] (11)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28] Miller, *Ten Commandments*, 53.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7)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 [렘 11: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② 하박국은 우상이 무익하고 거짓 스승이고 생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합 2:18-20] (18)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③ 호세아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호 13:4-6) 왕(호 13:10)이나 군사력(호 14:3)이나 우상(13:2; 14:3) 등 다른 힘을 신뢰한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이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말하라고 권면하였다.

[호 13:4-6] (4)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 14:2-3] (2)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3)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과 같게 된다**(시 115:4-8; 135:15-18). 시편 기자는 "땅에 속하고 만들어지고 생기가 없고 말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대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노래한다.

① [시 115:3-9] **(3)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9)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② [시 135:15-19] (15)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4) **우상은 실체가 없으며 아무 것도 아니다**(고전 8:4-6).

[고전 8:4-6] (4)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5) **우상(다른 신)의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신 32:15-17; 고전 10:14-21).[29]

① 다른 신들과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파괴하는 일만 하는 존재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참소하는 자다(요 8:44; 고후 11:13-15).[30]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요일 3:8).[31]

②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이외에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므로 결국 그들처럼 멸망하게 된다. 계 12-13 장의 사단적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땅 짐승)는 더러운 귀신의 영(계 16:13)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결말을 맞도록 되어 있다(계 20:10).[32]

---

[29] [신 32:15-17] (15)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개역: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고전 10:14-21] (14)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17)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18)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예하는 자들이 아니냐 (19)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20)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개역: 상)과 귀신의 식탁(개역: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30]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고후 11:13-15] (13)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31]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2] [계 12:9-10] (9)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은 짐승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게 되고 짐승처럼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우상이 신이 아니고 무익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실체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은 다음 몇 가지 내러티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①[삿 6 장]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은 일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삿 6:31)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성읍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 버린 기드온 즉 여룹바알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②[왕상 18 장]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엘리야는 "더 큰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라고 조롱하였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날뛰며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바알을 불렀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바알의 밝히 드러난 무능과 달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마르게 하셨다. 백성은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다.

③[삼상 5 장]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땅 바닥에 그 얼굴을 박고 있는 것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은 더 처참한 다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이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독종 재앙을 내리셨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계 16:13-14] (13)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옮겼지만 독종 재앙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다곤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짓 신이었고 그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었다.

④ 여러 신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만들었던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서 잘 보여 진다(행 17:23). 신들의 진노를 모두 달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의 진노를 달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심정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했던 아덴 사람들을 그려보라.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많은 신들을 섬겨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비관적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다른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제 1 계명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다신론의 문화 배경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참되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표시 중의 표시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 중의 복이었다.[33]

5. 제 1 계명과 솔로몬

1. 은혜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대상 29:25).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왕상 10:23; 대하 9:22).

2)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영광도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솔로몬이 제 1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

[33]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2-25 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관과 다른 신관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론(monotheism)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을 경배하고 섬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참 하나님이 한 분 계시며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한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한다. 유일신론과 대조되는 것들로 단일신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무신론 등이 있다. 단일신론(henotheism)과 다신론(polytheism)은 인격적이나 유한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전자는 여러 신들 중 하나를, 후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신론(deism)은 세상에서 신을 배제함으로써 신의 내재성 대신 초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범신론(pantheism)은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함으로써 피조물과 구별되며 그 위에서 무한히 고귀하신 신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무신론(atheism)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의 실제적(practical) 무신론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추론에 의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적(theoretical) 무신론이 있다. 후자는 신적 존재를 단호히 배격하는 교조적(dogmatic)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지를 의심하는 회의적(sceptical) 무신론, 신적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비판적(critical) 무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배은의 솔로몬

1)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왕상 11:4, 6). 솔로몬은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을 따랐고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비롯한 이방여인들의 신을 위하여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라이벌이 되는)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하였다(왕상 11:5, 7-8).

2)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다(왕상 11:9).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종 다윗과 그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두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기시고 나머지를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다(왕상 11:10-13; 12:16-20; 13:24).

3.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긴 솔로몬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왕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왕과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구할 것을 약속하시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 17:16-20). 이러한 왕의 규례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은금과 여인과 힘을 결국 그의 신으로 삼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진노를 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2)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긴 솔로몬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빌 4:12)" 비결을 배우는데 실패한 왕이었다.

① 솔로몬은 처음에 은금을 구하지 않았으나 점점 재물의 신을 섬기는 왕이 되어갔다. 여호와를 위해 7 년간(왕상 6:38) 성전을 건축한 것과 자신을 위해 자기의 왕궁을 13 년 동안(왕상 7:1) 건축한 것을 비교하면 부가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왕상 10:21, 27).

② 솔로몬은 처음에 힘을 구하지 않았으나 점점 권력의 신을 섬기는 왕이 되어갔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신 17:16)는 규례와 달리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고(왕상 10:28-29) 병거가 천사백 대이고 마병이 만이천 명이고 말 외양간이 사만이나 되었다(왕상 4:26; 왕상 10:26).

③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규례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의 통혼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통혼을 하며 후궁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을 두었다(왕상 11:3).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는 여호와의 경고대로 솔로몬은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다(왕상 11:1-7).

4. 제 1 계명을 어긴 솔로몬

1)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고 권면하고 경고하였다.

2) 전도자가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한 것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 전도자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전 2:7 하-11)."라고 말했다.

3)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권면과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제 1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전도자가 묘사한 것 같은 그러한 허무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시대에 반역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6. 그리스도와 제 1 계명

1. 예수님의 제 1 계명 준수

1) 예수님의 시험

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마 3:16-17). 그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눅 4:1-2)." 마귀는 40 일 동안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40 일 금식 후 매우 주리셨을 때에도 3 가지 시험을 했다(마 4:3-11; 눅 4:3-13).

②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시험을 연상하게 해 준다(출 17:1-17).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대답했다. 백성은 물을 찾으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물 문제로 인해 곧 돌로 칠 것 같은 위기를 느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는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도록 해 주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곳 이름이 "다툰 장소 quarreling place"라는 므리바(Meribah)와 "시험한 장소 testing place"라는 맛사(Massah)가 되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신 6:16])"고 권면하였다. 시편 기자도 조상들이 여호와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여호와를 시험한 것을 언급하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크신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으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시 89:8])"라고 권면하였다.

③ 마귀는 40 일 금식 후에 주리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8:3 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 91:11-12 을 인용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말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 4:6)"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6:16 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 4:7)"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6:13 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대답하셨다.

④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과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반문하며 여호와를 시험함으로써 제 1 계명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며 맛사와 므리바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제 1 계명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사탄이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현혹되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아버지만을 섬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2) 예수님의 삶

① 예수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요 4:34).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셨다(요 6:37-40).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1, 24).”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를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②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듭 같은 말씀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께 절대 충성하고 절대 헌신하고 절대 순종하며 제 1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34]

③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절규할 때에도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마 27:46; 막 15:34)”이라고 부르시는 신뢰를 보이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시며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하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셨다.

④ 이렇게 완벽하게 제 1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다.

2. 예수님의 제 1 계명에 관한 교훈

1)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cf. 마 6:24)”고 말씀하셨다. 제 1 계명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는 계명이다.

2) 예수님은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셰마(신 6:4-5) 즉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맘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레 19:18 을 인용하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35]

---

[34]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인용은 마태 복음에 두 번, 마가 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 한 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 26:39]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πάτερ μου, εἰ δυνατόν ἐστιν, παρελθάτω ἀπ' ἐμοῦ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πλὴν οὐχ ὡς ἐγὼ θέλω ἀλλ' ὡς σύ.)

[마 26:42]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πάτερ μου, εἰ οὐ δύναται τοῦτο παρελθεῖν ἐὰν μὴ αὐτὸ πίω,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막 14:36]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αββα ὁ πατήρ, πάντα δυνατά σοι· παρένεγκε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ἀπ' ἐμοῦ· ἀλλ' οὐ τί ἐγὼ θέλω ἀλλὰ τί σύ.)

[눅 22:42]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πάτερ, εἰ βούλει παρένεγκε τοῦτο τὸ ποτήριον ἀπ' ἐμοῦ· πλὴν μὴ τὸ θέλημά μου ἀλλὰ τὸ σὸν γινέσθω.)

[35] [막 12:28-34] (28)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3.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으로서 예수님

1)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 기록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란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칭호로 사용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때 제자들이 이 칭호로써 경의를 표시했다(눅 24:34; 요 20:25, 28).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마 28:18-19), 개개인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요 21:15-23).

2)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증언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고백 형식이었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

①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설교했다.

②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행 10:36)"을 전했다.

③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말했다.

④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2-3)"고 말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4-6)"고 말했다.

⑤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6-11)"고 말했다.

3) 유일한 구원의 주님

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다.

② 제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밝히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고 말했다.

③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 5:20-21)."고 말했다.

④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 섬기는 것은 제 1 계명을 범하는 큰 죄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히 2:3-4)."고 말했다.

4) 신랑이신 예수님

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사 62:5 하).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였고(요 3:29)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부르셨고(마 9:15 하) 열 처녀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셨다(마 25:1-13).

② 구원받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정절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계 14:4)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며(계 19:7-8)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옳은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

5) 청종해야 할 예수님

①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렸다(눅 9:28-36; 마 17:1-8; 막 9:2-8).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고 권면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2:36-38; 막 12:28-30).

②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함의 사랑을 주신 주님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모시고 다함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7. 제 1 계명의 준수

1. 선택과 헌신

1)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회고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자로 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은 언제나 우리의 철저한 신 선택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 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충실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 맘으로 사랑하는 것이다(신 6:4-7).

2)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7-38)."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배제하고 오직 그 분만을 섬기기로 한 철저한 선택이요 우리가 선택한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눅 8:15; 딤전 6:20; 요일 3:24; 5:2-3) 것이다.[36]

3)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셔야만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한다(마 6:24; 눅 16:13).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왕하 17:7-23). 유대인들이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기 때문에 1900 년 동안 수난을 겪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다(요 14:6).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 사탄의 종노릇하던 데서 구원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늘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으뜸가는 자리를 점유하실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우리가 사탄이 그 배경에 있는 다른 거짓 신을 맞아 들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칠 사랑을 다른 신에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박탈당할 것이다.

2. 우상 타파와 사탄 거부

1)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전 8:4).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

[36] Douma, *Ten Commandments*. 21-22.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그것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의 배경에 있는 것이 귀신이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전 10:19-20).

2) 마귀는 참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참된 신인 것처럼 나타낸다. 애굽의 이시스, 바벨론의 마르둑, 가나안의 바알, 블레셋의 다곤, 아람의 하닷,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이란 거짓 신 뒤에 사탄이나 귀신이 있다. 오늘날 무속신앙, 미신, 불교, 유교, 회교 뒤에도 마귀와 귀신이 있다. 과학을 맹신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부모나 자식 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배경에도 사탄이 숨어 있다. 처음부터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듯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사탄을 섬기는 것은 어느 때에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다른 이방 신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외의 다른 신을 두는 죄를 짓고 있다.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다곤 등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우상의 이름들과 상관없이 그 영향력은 계속 남아 우상 숭배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37] 힘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합 1:11), 금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뢰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욥 31:24), 돈이 맘몬신이 될 수 있고(마 6:24; 눅 16:13), 우리의 배를 우리의 신으로 삼을 수 있고(빌 3:19),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골 3:5).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불행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 1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무속 신앙을 따르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불교나 유교나 회교를 신봉하거나 과학을 만능으로 여기고 맹신하는 행위도 다 제 1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사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요로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보다 자연, 건강, 스포츠, 쾌락, 황금, 옷 등을 더 사랑하면 바로 다른 신을 두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요한이 지적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우상이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더 집착하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도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피조물이 지닌 고유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피조물에 부여하면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3. 사랑과 신뢰

1)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시험과 신뢰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38]

---

[37] Douma, *Ten Commandments*, 17.

[38] Ryken, *Written in Stone*, 65-67.

① 사랑의 시험이 던지는 질문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 73:25, 28)."라고 고백한 시인은 사랑의 시험에 합격한 모습을 보여준다.
- "누가 여호와 같으랴?"라는 뜻을 갖는 미가야/미가(מִיכָה/מִיכָיָה/מִיכָיָהוּ[미하/미하야/미하여후])를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아버지의 신앙고백처럼 여호와 같은 신은 전혀 없다.

② 신뢰의 시험이 던지는 질문들은 "어려울 때 내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하여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으며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안전보장으로 삼는가?" 등이다.

-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물리치기 위해 아람 왕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발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한 유다 왕 아사는(대하 16:7-14) 신뢰의 시험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관상이나 사주를 보고 점치고 길흉을 말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이고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무당 박수에 의지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신 18:9-14) 신뢰의 시험에 낙제하는 것이다.
-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왕하 18:5-6)."고 평가하며 신뢰의 시험에 합격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찾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이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2) 칼빈(Calvin)은 죄인의 마음이 끊임없는 우상의 생산 공장인 것을 설명하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지 않은 인간은 단 한사람도 발견된 적이 없다. 큰 원천에서 물이 끓어오르듯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무수한 신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다.[39] 잠언의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잠 4:23).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대주재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나중에 심판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앉고 눕는 것을

[39] Calvin, *Institutes*, I. vi. 12 (p. 65).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해야 한다.

3)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권면대로 실천하면 제 1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오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시 89:5-8)."

②"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시 95:6-7)."

③"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 29:2)."

4)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밖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된다"는 하박국의 고백(합 3:17-19)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4. 감사와 찬양

1)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받아 누리기에 급급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원망이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한 교만에서 벗어나며, 항상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

2)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해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다(고전 15:10).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해 준다.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3)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요(시 33:1),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시 147:1). 성경에는 송영 부분이 들어 있다. 송영을 드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①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윗이 드린 송영**: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0-12)."

②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다 놓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후 드린 송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③ **사도 바울의 송영**: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전** 1:17)."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5)."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1)."

④ **요한계시록의 송영**:

- **계** 4:9-11: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계** 5:11-12: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 **계** 7: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 **계**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8. 제 1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1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40]

1)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4-95)

① HC 94. 제 1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이나 진지하게 나는 모든 우상 숭배(고전 6:9-10; 10:7, 4), 마술과 점과 미신(레 18:21; 신 18:10-12)을 피하고 가감하게 버리며, 성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마 4:10; 계 19:10)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로 인정하며(요 17:3) 그분만을 신뢰하고(렘 17:5, 7) 겸손과 인내로(히 10:36; 골 1:11; 롬 5:3-4; 빌 2:14) 그분에게 복종하고(벧전 5:5-6) 그분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시 104:27; 사 45:7; 약 1:17),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신 6:5; 마 22:37) 두려워하고(신 6:5; 마 10:28) 존경하여야 합니다(마 4:10). 그러므로 나는 조금이라도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기보다는(마 5:19)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마 5:29-30; 행 5:29; 마 10:37).

② HC 95.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그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 대신이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다른 어떤 대상을 고안하여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대하 16:12; 빌 3:18-19; 갈 4:8; 엡 2:2).

2) 제 1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46; 대교리 문답[WLC] 104)

① WSC 46. 제 1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대상 28:9; 신 26:17)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마 4:10; 시 29:2; 95:6-7).

② WLC 104.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대상 28:9; 신 26:17; 사 43:10; 렘 14:22)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마 4:10; 시 29:2; 95:6-7).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말 3:16), 묵상하고(시 63:6), 기억하고(전 12:1), 존귀하게 여기고(시 71:9), 공경하고(말 1:6), 숭배하고(사 45:23), [섬길 분으로] 택하고(수 24:15, 22), 사랑하고(신 6:5), 사모하고(시 73:25), 경외해야(사 8:13)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

[40] 십계명의 각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개혁주의 교리 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HC 로 약칭하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은 WLC 로 약칭하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은 WSC 로 약칭할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WCF 로 약칭할 것이다.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본문과 증거 구절은 주로 Joel R. Beeke & Sinclair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Baker, 1999)를 참고하였다.

하나님을 믿고(출 14:31), 신뢰하고(사 26:4), 바라고(시 130:7), 기뻐하고(시 37:4), 즐거워하고(시 32:11), 그분을 위한 열심을 품고(롬 12:11; 민 25:11), 부르고 아뢰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빌 4:6),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렘 7:23; 약 4:7), 범사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요일 3:22),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렘 31:18; 시 119:136), 그분과 겸손히 동행해야(미 6:8) 합니다.

3)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 47; 대교리 문답 105)

① WSC 47.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시 14:1), 즉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롬 1:21; 시 81:10-11)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어떤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롬 1:25-26).

② WLC 105. 제 1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시 14:1; 엡 2:12); 참 하나님 대신 혹은 참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다른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렘 2:27-28; 살전 1:9);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시 81:11); 계명에서 요구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사 43:22-24); 하나님에 대한 무지(렘 4:22; 호 4:1, 6), 망각(렘 2:32), 오해(행 17:23, 29), 그릇된 의견들(사 40:18),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시 50:21);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대담함과 호기심으로 감히 캐보려는 것(신 29:29); 모든 신성 모독(딛 1:16; 히 12:16),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롬 1:30); 자기 사랑(딤후 3:2), 자아 추구(빌 2:21), 우리의 지정의를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요일 2:15-16; 삼상 2:29; 골 3:2, 5); 헛된 경신(輕信 요일 4:1), 불신(히 3:12), 이단(갈 5:20; 딛 3:10), 오신(誤信 행 26:9), 불신뢰(시 78:22), 절망(창 4:13), 완악(렘 5:3), 심판에 대한 무감각(사 42:25), 마음의 강퍅(롬 2:5), 교만(렘 13:15), 주제넘음(고범죄 시 19:13), 육적 안일감(carnal security 습 1:2),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마 4:7); 불법적 수단 사용(롬 3:8)과 인간적 수단 의지(렘 17:5); 육적 쾌락 사랑(딤후 3:4);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갈 4:17; 요 16:2; 롬 10:2; 눅 9:54-55); 미지근함(계 3:16)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은 상태(계 3:1);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며 패역한 것(겔 14:5; 사 1:4-5); 성자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나 예배드리는 것(롬 10:13-14; 호 4:12; 행 10:25-26; 계 19:10; 마 4:10; 골 2:18; 롬 1:25);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을 찾아] 마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레 20:6; 삼상 28:7, 11; 대상 10:13-14)과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행 5:3);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고후 1:24; 마 23:9);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신 32:15; 삼하 12:9; 잠 13:13);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행 7:51; 엡 4:30),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시 73:2-3, 13-15, 22; 욥 1:22); 그리고 우리의 착한 마음씨와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칭찬을 우연(삼상 6:7-9), 우상(신 5:23), 우리 자신(신 8:17; 단 4:30) 혹 어떤 다른 피조물(합 1:16)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 “내 앞에서”

① WSC 48.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갖는 죄를 눈여겨 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줍니다(겔 8:5-6; 시 44:20-21).

② WLC 106.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 혹은 “나의 면전에서”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갖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구는 다른 신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그 죄가 아주 파렴치한 도발 행위임을 밝히 보여주며(겔 8:5-6; 시 44:20-21),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면전에서 하는 것처럼 하도록 설득하는(대상 28:9) 논증이 될 것입니다.

IV. 제 2 계명

1. 제 2 계명 본문

1. 제 2 계명은 출 20:4-6 과 신 5:8-10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4-6

4 לֹא תַעֲשֶׂה־לְךָ֥ פֶ֙סֶל֙ וְ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5 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ת עַל־בָּנִ֗ים 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6 וְעֹשֶׂ֥ה חֶ֖סֶד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

② 신 5:8-10

8 לֹא־תַעֲשֶׂה־לְךָ֥ פֶ֙סֶל֙ 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9 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10 וְעֹשֶׂ֥ה חֶ֖סֶד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ו** [כ= מִצְוֹתֹו] [ק= מִצְוֹתָי]׃

③ 두 본문의 차이

- 출 20:4 에는 "새긴 우상"을 뜻하는 פֶּ֙סֶל֙[페쎌]과 "모든 형상"을 뜻하는 כָּל־תְּמוּנָ֔ה [콜-트무나] 사이에 접속사 바브(וְ)가 있으나 신 5:8 에는 접속사 바브가 없다. 출 20:4 의 접속사 바브는 동격의 바브(epexegetical vav)이다. 동격은 바브 없이 나란히 나올 수도 있으므로 바브의 유무는 의미상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 신 5:10 의 מִצְוֹתָ֛ו의 크티브는 "מצותו = מִצְוֹתֹו [미츠보토: 단수+ 3 인칭 접미 대명사] 그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크레는 출 20:6 처럼 "מצותי = מִצְוֹתָי [미츠보타이: 복수+ 1 인칭 접미 대명사] 나의 계명들"이다.

2) LXX(Septuagint): 출 20:4-6 = 신 5:8-10

(출 20:4=신 5:8) οὐ ποιήσεις σεαυτῷ εἴδωλον οὐδὲ παντὸς ὁμοίωμα ὅσα ἐν τῷ οὐρανῷ ἄνω καὶ ὅσα ἐν τῇ γῇ κάτω καὶ ὅσα ἐν τοῖς ὕδασιν ὑποκάτω τῆς γῆς

(출 20:5=신 5:9) οὐ προσκυνήσεις αὐτοῖς οὐδὲ μὴ λατρεύσῃς αὐτοῖς ἐγὼ γάρ εἰμ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θεὸς ζηλωτὴς ἀποδιδοὺς ἁμαρτίας πατέρων ἐπὶ τέκνα ἕως τρίτης καὶ τετάρτης γενεᾶς τοῖς μισοῦσίν με

(출 20:6=신 5:10) καὶ ποιῶν ἔλεος εἰς χιλιάδας τοῖς ἀγαπῶσίν με καὶ τοῖς φυλάσσουσιν τὰ προστάγματά μου

[Brenton] (출 20:4)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n idol, nor likeness of anything, whatever things are in the heaven above, and whatever are in the earth beneath, and whatever are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recompensing the sin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and (6) and bestowing mercy on them that love me to thousands of them, and on them that keep my commandments.

[Brenton] (신 5:8)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n image, nor likeness of anything, whatever things are in the heaven above, and whatever are in the earth beneath, and whatever are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halt thou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visiting the sin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and (6) and doing mercifully 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that keep my commandments.

-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Brenton 의 번역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Vulgate

(출 20:4) non facies tibi sculptile neque omnem similitudinem quae est in caelo desuper et quae in terra deorsum nec eorum quae sunt in aquis sub terra (5) non adorabis ea neque coles ego sum Dominus Deus tuus fortis zelotes visitans iniquitatem patrum in filiis in tertiam et quartam generationem eorum qui oderunt me (6) et faciens misericordiam in milia his qui diligunt me et custodiunt praecepta mea

[Douay-Rheims Bible] (출 20:4)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 graven thing, nor the likeness of any 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in the earth beneath, nor of those things that are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adore them, nor serve them: I am the Lord thy God, *mighty*, jealous,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6)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to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신 5:8) non facies tibi sculptile nec similitudinem omnium quae in caelo sunt desuper et quae in terra deorsum et quae versantur in aquis sub terra (9) non adorabis ea et non coles ego enim sum Dominus Deus tuus Deus aemulator reddens iniquitatem patrum super filios in tertiam et quartam generationem his qui oderunt me (10) et faciens misericordiam in multa milia diligentibus me et custodientibus praecepta mea

[Douay-Rheims Bible] (신 5:8)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 graven thing, nor the likeness of any things, that are in heaven above, or that are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abide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9) Thou shalt not adore them, and thou shalt not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ir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10) And shewing mercy unto *many* thousands, to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신 5:8-10)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신 5:8-10)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새번역(출 20:4-6 = 신 5:8-10)

(출 20:4=신 5:8)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 20:5=신 5:9)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출 20:6=신 5: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4-6) (4)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5)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 대까지 갚고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 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 (신 5:8-10) (4)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5)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갚고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1000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4-6) (4)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5)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삼 대, 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 (신 5:8-10) (8)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9)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BHS 본문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출 20:4-6 과 신 5:8-10 의 히브리어 본문은 동격의 접속사 바브의 유무와 신 5:10 의 마지막 단어의 크티브가 출 20:6 의 마지막 단어와 다른 것을 제외하고 똑같다. 한글 성경들은 모두 신 5:10 의 마지막 단어를 크레대로 읽으며 출 20:6 의 마지막 단어와 같게 번역하였다.

② 원문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번역을 제외하고 다른 번역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2 계명 번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르다. 두 본문의 번역자가 같은 우리말성경의 경우에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2 계명은 어구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쉬운성경의 경우 두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되었으나 어구 선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③원문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 "너는, 너의" 대신 새번역의 두 본문과 쉬운성경의 두 본문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본문에 "너희는, 너희, 너희의"라고 한 것들은 원문대로 단수로 고쳐야 할 것이다.

④개역과 개역개정

- 제 1 계명과 반대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제 2 계명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에서 "너는"을 넣지 않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너는"을 넣어 번역하였다. 두 본문에 "너는"을 다 넣거나 아니면 둘 다 넣어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 개역과 개역개정이 출애굽기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도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 개역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아비**"는 개역개정에서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아버지**"로 각각 개정되어 있다. 개역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경우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제 2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4 = 신 5:8

①לֹֽא תַעֲשֶׂה־לְךָ֣ פֶ֔סֶל וְכָל־תְּמוּנָ֕ה [로 타아쎄-르하 페쎌 브홀-트무나]

- פֶּסֶל[페쎌]은 원래 나무나 돌에 새긴 **조상**(彫像 graven/carved image)을 가리키는 말이고(출 20:4; 레 26:1), 출 34:17 에 나오는 מַסֵּכָה[마쎄하]는 구리나 은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주상**(鑄像 molten/cast image)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중에 פֶּסֶל[페쎌]은 우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어떤 제조 방식의 상(像)에도 사용되었다(*NIDOTTE* III: 645; KB II: 949).[1] 따라서 פֶּסֶל[페쎌]은 나무에 파거나 새겨 만든 **목상**(사 42:17; 44:15, 17; 45:20; 48:5) 혹은 그 위에 은이나 금을 입힌 **목상**(cf. 신 7:25 פְּסִילֵי = פֶּסֶל의 복수 의존형) 혹은 **석상**(cf. 레 26:1) 혹은 부어 만든 **주상**(사 40:19; 44:10; 렘 10:14; 51:17)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2] פֶּסֶל וּמַסֵּכָה[페쎌 우마쎄하]는 "새긴 우상과 부은/부어 만든

[1] *NIDOTTE* = W.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2] 이사야는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 41:7]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사 44:12-17] (12)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로 치고 강한 팔로 괄리므로 심지어 주려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13)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14)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15)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16)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우상"으로 따로 따로 번역되어 있지만(신 27:15; 삿 17:3-4; 18:14; 나 1:14) 이것을 중언법(hendiadys)으로 보면 "은금으로 입힌 목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출 20:4 의 "새긴 우상"을 뜻하는 פֶּסֶל[페셀]과 "모든 형상"을 뜻하는 כָּל־תְּמוּנָה [콜-트무나] 사이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וְ)는 동격의 바브(epexegetical vav)이다.
-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의 결합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며 부정어와 함께 כָּל־[콜]은 "not ... any; not . . . at all"의 의미를 갖는다.
- 번역: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곧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② וְ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브홀-트무나 아셰르 바샤마임 미마알 바아셰르 바아레츠 미트 바아셰르 바마임 미타하트 라아레츠]

- 세 번 반복된 관계사 [아셰르]는 선행사 [트무나]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각각 인도하고 있다.
- 번역: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본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③ 출 20:4/신 5:8 번역 시안

-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본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곧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 너는 자신을 위하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2) 출 20:5 = 신 5:9

① 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로-티시타하베 라헴 블로 토오브뎀]

- 동격인 "새긴 우상" 과 "어떤 형상"은 단수인데 이것을 받는 접미대명사는 לָהֶם[라헴]과 תָּעָבְדֵם[토오브뎀]에서 보는 것처럼 3 인칭 복수이다. 이것은 문법적인 일치라기보다는 의미적 일치(constructio ad sensum)이다.
- תָּעָבְדֵם[토오브뎀]은 2 인칭 단수동사 תַּעֲבֹד[타아보드]에 3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는 תַּעַבְדֵם[타아보뎀] 대신 쓰인 형이다(GBH 63b, 출 23:24 cf. 신 13:3 נָּעָבְדֵם[노오브뎀]). 이것은 יַחְבָּרֵךְ[야흐보르하] 대신에 쓰인 비정상적인 형 יְחָבְרֵךְ[여호브르하, 시 94:20 "그가 당신님과 어울리다/교제하다"]와 비슷한 범주에 속한다(GKC 60b). GKC 60b, 63p 는 תָּעָבְדֵם[토오브뎀, 출 20:5; 23:24; 신 5:9, cf. 신 13:3]을 호프알(Hoph'al) 어간으로 여기고 "thou shalt not allow thyself to be

---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brought to worship them?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나 GBH 63b 주 (1)은 이것들이 호프알 어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 번역: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② כִּי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키 아노히 아도나이 엘로헤하 엘 카나]

- 접속사 כִּי[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한다.
- אָנֹכִי יְהוָה אֱלֹהֶיךָ[키 아노히 아도나이]는 세 단어가 동격을 이루며 주어 역할을 한다.
- אֵל קַנָּא [엘 카나]는 보어 역할을 한다.
- 이렇게 주어-보어의 어순을 갖고 있는, 부사절 안의 명사문은 정체를 밝히는 명사문이다.
- 번역: 그것은/이는/왜냐하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③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포케드 아본 아보트 알 바님 브알-실레심 브알-리베임 르쏜아이]

- 이 절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저주 부분이다.
- 명명구 פֹּקֵד עֲוֹן אָבוֹת([포케드 아본 아보트] "아비들의 죄를 벌하는/갚는 분")에서 분사 פֹּקֵד[포케드]는 {다음 절에 나오는 명명구 וּלְשֹׁמְרֵי מִצְוֹתָי [(울)쇰레 미츠보타이])의 שֹׁמְרֵי[쇰레]처럼 기대되는} 의존형이 아니고 {다음 절에 나오는 עֹשֶׂה[오쎄]처럼} 자립형이다(GBH 121 l).
- 명명구의 의존형의 비한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립형 앞에 전치사 라멧(לְ)이 오는 경우는 출 20:9/신 5:9 에 나오는 וְ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 [알 실레심 브알-리베임 르쏜아이]("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대와 사대")와 출 20:10/신 5:10 에 나오는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 [라알라핌 르오하바이 울쇰레 미츠보타이]("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에서 볼 수 있다(GBH 130b; GKC 129e).
-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포케드 아본 아보트 알 바님](NIV: to punish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처럼 동사 [파카드]가 [아본]("죄악")이란 목적어와 전치사 [알] +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명구를 취하는 예들은 출 34:7; 레 18:25; 민 14:18; 사 13:11; 26:11; 렘 25:12; 36:31; 암 3:2; 시 89:33 에도 나온다(KB II: 956).
- 번역: [나는] 아버지의/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④ 출 20:5/신 5:9 번역 시안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보응하며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3) 출 20:6 = 신 5:10

① וְעֹשֶׂה חֶסֶד לַאֲלָפִ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 [브오쎄 헤쎄드 라알라핌 르오하바이 울숌레 미츠보타이]

- 이 절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축복 부분이다. 이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다.
- עֹשֶׂה[오쎄]는 {앞에 나왔던 분사 פֹּקֵד[포케드]처럼} 기대되는 의존형 עֲשֵׂה[오쎄]대신 사용된 자립형이다.
-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르오하바이 울숌레 미츠보타이]는 동격의 바브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동격 어구이고 한정된 명명구를 지배하는 비분리 전치사(לְ)는 앞에 오는 לַאֲלָפִים[라알라핌]의 비한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חֶסֶד[헤쎄드]는 구약에 246 번 사용되었고 그 절반 이상이 시편에 나온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사람들(신실한 자,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1:3 의 비율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행위 묘사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NIDOTTE*, II: 211.). חֶסֶד[헤쎄드]는 호의, 친절, 양선, 충성, 성실, 헌신, 인자, 자애, 자비, 은혜, 은총, 한결같은 인애 등의 의미를 갖는다.[3] 개역에서 이 단어는 인자[하심](시 136:1; 미 6:8), 인애(호 6:4, 6), 은혜(출 20:6; 신 5:10), 은총(삼하 9:3) 등으로 번역되었다.

---

[3] *NIDOTTE*, II: 213-217: 하나님의 인애/인자하심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①하나님의 인애는 재앙이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다(시 31:7[MT 8], 21[22]; 32:10; 57:3[4]; 59:10[11]; 94:18; 143:12). ②하나님의 인애는 생명을 지켜준다(시 119:88, 149, 159; 6:4-5[5-6]). ③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사 54:8; 미 7:18; 애 3:31-32). ④하나님의 인애는 꾸준하고 영원하다(사 54:10; 호 6:4; 렘 31:3; 시 118; 136). ⑤하나님의 인애는 잃게 될 가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절에도 나온다(창 24:27; 시 98:3; 106:45; 렘 16:5; 삼하 7:15; 시 36:10[11]; 40:11[12]). ⑥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동기이고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근거이다(민 14:17-19; 느 13:22; 시 6:4[5]; 44:26[27]; 109:21, 26; 119:149). ⑦하나님의 인애는 그의 백성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을 주고 백성의 소망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된다(출 15:13; 시 119:124; 시 13:5[6]; 17:7; 59:17[18]; 101:1; 시 107; 138:2; 92:1-4[2-5]). ⑧하나님의 인애는 크고 풍부하다(시 33:5; 119:64; 36:5[6]; 57:10[11]; 103:11; 98:3; 86:13; 106:7, 45; 애 3:32; 느 13:22). ⑨하나님의 인애는 그의 통치의 특징이고 그의 왕을 세워준다(시 89:14[15]; 삼하 7:15-16; 22:51; 왕상 3:6; 대하 1:8; 대하 6:42; 시 89:49[50]).

- 한결같은 인애(חֶסֶד[헤쎄드])는 이미 존재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여지는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인간편의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수혜자가 절박한 필요를 채워야 할 입장에 있고 시혜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수혜자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는 입장에서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넘어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편의 한결 같은 인애는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하며 그 언약관계의 본질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사울과 사울 집안에 "여호와의 인애(개역: 인자)"와 "다윗의 인애"를 베풀어 주길 원했고(삼상 20:14-15),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개역: 은총)"를 베풀고자 하였다(삼하 9:1-3). 사무엘서에서 "여호와의 인애(삼상 20:14), 하나님의 인애(삼하 9:3)"가 다윗의 인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다윗)의 인애와 하나님(여호와)의 인애가 교차되는 것을 알게 된다.

② 출 20:6/신 5:10 번역 시안

-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번역

(출 20:4 = 신 5:8)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출 20:5 = 신 5:9)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출 20:6 = 신 5:10)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제 2 계명의 의미

1. 제 2 계명의 구조

1) 제 2 계명은 금지 명령(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과 이유(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저주(삼사 대까지 벌)와 복(천 대까지 인애)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구조를 따라 제 2 계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지 명령(출 20:4-5a; 신 5:8-9a):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② 이유(출 20:5b; 신 5:9b):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③ 저주와 복(출 20:5c-6; 신 5:9c-10):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우상 제작 금지 명령

1)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출 20:23; 34:17; 레 19:4; 26:1; 신 27:15 등을 보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우상들을 만드는 일도 금지되어 있다.

① [출 20:22-24] (22)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너희는 **나를 비겨서**[אִתִּי 이티 = ESV: to be with me; NIV: to be alongside me; NASB: beides me; NLT: to rival me]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② [출 34:15-17] (15)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③ [레 19: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④ [레 26: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⑤ [신 27:15]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다른 신들의 우상일 때 제 1 계명과 관련되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일 때 제 2 계명과 관련된다. 여호와를 섬기려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2 계명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일도 막아 주며 제 1 계명 준수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

3. 제 2 계명의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본문(신 4:7-28; 행 17:16, 22-31)

1)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 제작을 금하는 제 2 계명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인 설명은 신명기 4 장에서 찾을 수 있다.[4] 모세는 제 2 계명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다.

[신 4:7-28] (7)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4] Miller, *Ten Commandments*, 48.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11)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18)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20)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① 신 4:16-18 은 제 2 계명처럼 [트무나]와 [페쎌]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 2 계명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트무나]을 본떠서 우상[페쎌]을 만들지 말라(출 20:4; 신 5:8)"는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신 4:12, 15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

③ 신 4:19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 제작 금지가 해와 달과 별 같은 자연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막아주며 그 연장선으로 다른 신을 나타내는 만들어진 형상에 대한 제작과 숭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④ 신 4:20, 23 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며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⑤ 신 4:25-28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이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열국에 흩어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⑥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늘까지 치솟는 불길이 산을 휩쌌을 뿐만 아니라 어둠과 검은 구름(직역: 어둠, 구름 그리고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신 4:11). 불의 밝음과 짙은 구름의 어두움이 함께 있는 파라독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밝고 볼 수 있는 불이면서 위험하고 만질 수 없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길들이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스로운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5]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형상을 만들어 마음대로 주무르고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⑦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경배의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고 계시되고 알려지고 접근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십계명 서언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이고 현혹이다(신 4:15).

⑧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알려지고 만날 수 있다(4:12, 36).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

2) 바울은 아레오바고 강연을 통하여 제 2 계명의 위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참되신 하나님 경외의 길을 이야기하였다.

[행 17:16, 22-31] (16)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 (22)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4. 질투하시는 하나님

[5] Miller, *Ten Commandments*, 51.

1) 질투하시는 하나님(אֵל קַנָּא [엘 카나])은 제 2 계명과 관련하여 출 20:5; 신 5:9 그리고 신 4:24 에 나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신 6:15 에 나오며, 그 이름이 질투이신 여호와와 관련하여([아도나이 카나 시모] יְהוָה קַנָּא שְׁמוֹ)는 출 34:14 에 나온다.

① [신 6:14-15] (14)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② [신 4:23-24]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③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6]

2) 질투하시는 하나님(אֵל קַנּוֹא [엘 카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수 24:19 에 나오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여호와와 관련하여 나 1:2 에 나온다.

① [수 24:19-20] (19)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20)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

[6]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안의 명사문에 대한 영어 번역은 매우 다양하다.

[ESV/NASB/KJV] for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NIV]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OJB] For thou shalt worship no el acher; for **Hashem, Whose Shem is Jealous, is El Kanah**; [YLT] for ye do not bow yourselves to another god -- for **Jehovah, whose name [is] Zealous, is a zealous God**; [HCSB] You are never to bow down to another god because **Yahweh, being jealous by nature, is a jealous God**. 이 번역들은 [아도나이 "여호와"]가 한정된 주어이고 [엘 카나 "질투하는 하나님"]가 비한정적인 보어이고 그 뒤에 대명사 [후 "이다"]가 영어의 be 동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며(Cynthia L. Miller,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195) 주어 [아도나이] 다음에 오는 [카나 시모 "그의 이름은 질투이다"]는 삽입절로 본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영어 번역들도 있다.

[ISV] indeed, you are not to bow down in worship to any other god, because **the Lord's name is Jealous—he's a jealous God—**

[LEB] For you will not bow in worship to another god, for **'Yahweh *Is* Jealous' is his name, he *is* a jealous God.**

[NCV] Don't worship any other god, because **I, the Lord, the Jealous One, am a jealous God.**

[TLV] For you are to bow down to no other god, because ***Adonai* is jealous for His Name—He is a jealous God.**

[B. S. Childs, *Exodus*, 602] You shall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his name is the LORD, the Jealous One, and a jealous God he is.**

② [나 1:2]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① 하나님의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려는 헌신과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열심에서 보여진다. 이사야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하여 말한다(사 26:11; cf. 9:7; 37:31-32).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사랑의 헌신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질투를 포함한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 있어서 철저한 헌신을 기대하며 요구한다.

②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자기 아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은 자기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cf. 사 54:4-6; 렘 31:32)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오로지하는 사랑과 헌신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배타적인 요구를 하신다.

③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제 2 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셨다.[7]

④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제 2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저주하고 제 2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의 열망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질투는 계명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하게 한다.

4) 하나님의 영광과 질투

① 하나님의 질투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함께 들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받으실 하나님으로 존경받지 못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으실 그 권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다.[8]

---

[7] Ryken, *Written in Stone*, 75.

[8] 강영안,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IVP, 2009), 103: 화란어 een God die zich doet gelden. Douma, *Ten Commandments*, 35 에는 "for, I, Yahweh your God, am a God who avenges Himself:"로 번역되어 있다.

②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직접 챙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고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사 42: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사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 사 48:11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5. 저주와 복 (제재 조항)

1) 제 2 계명에는 금지 명령(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과 이유(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이어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라는 저주와 복이 들어있다.

2) 제 2 계명에 들어있는 이 제재 조항(출 20:5 하-6/신 5:9 하-10)은 출 34:6-7 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고 신 7:9-10; 민 14:8; 느 9:17; 시 86:15; 103:8; 145:8; 욜 2:13; 욘 4:2 에도 반영되어 있다.[9] 이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복의 말씀은 종주권 조약의 저주와 복 조항과 비슷하다.

---

[9] [신 7:9-10] (9)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민 14:18-9] (18)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 [느 9:17 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 86:15-16] (15)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시 103:8-9] (8)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45:8-9] (8)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욜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욘 4:2 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출 34:6-7] (6)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개역: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3) 제 2 계명에 들어있는 저주와 복에 대한 조항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①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애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저주와 복에 관한 조항은 "삼사 대"와 "천 대"의 대조를 통하여 언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삼사 대까지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여 언약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기꺼이 인애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② "삼사 대"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취할 필요는 없다.[10]

- "삼사"는 히브리어에서 숫자적 관용구로 "whatever number, 어떤 수" 혹은 "plenty of 많은" 것을 나타낸다. 아모스 1-2 장의 "서너 가지 죄(암 1:3, 6, 11, 13; 2:1, 4, 6)"는 문자적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죄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나타낸다. 잠 30:15, 18, 21, 29 에 나오는 "서넛"도 "어느 일정한 수"를 의미한다.
-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부모 때문에 후손들에게 영원한 정죄를 내리시지는 않는다.[11] 제 2 계명의 저주 조항은 후손들이 조상들처럼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조상들처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신 7:9-10 은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을 넌지시 암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 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지체없이 당장에 주어지는 벌을 받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단수]*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그를 미워하는 자(+들, 원문의 복수가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단수]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 문자적으로 취하면 삼사 대는 제 2 계명을 범하는 조상이 살아 있는 동안 함께 있는 후손들이고 죄를 짓는 조상을 따라 제 2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 2 계명을 범하였고 그 벌로 후손들이 끔찍하게 쓸어버림을 당하며 왕조가 자주 바뀐 것을 보여준다(cf. 시 109:12-13).

---

[10] Stuart, *Exodus*, 454 n. 35; Enns, *Exodus*, 416.

[11] Kaiser, *Toward OT Ethics*, 87.

-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는 경우로 출애굽후 광야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출 17:8-16; 신 25:17-19) 후손을 몇 백 년 후에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삼상 15:2),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하신 것(마 23:35), 나봇과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 것(왕하 9:24-26; 10:1, 7, 10),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아들이 죽고 여호와의 원수들이 훼방할 거리를 얻은 것(삼하 12:14) 등을 들 수 있다.[12]
- 그러나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악한 아버지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③ "천 대"의 인애 베푸심도 문자적인 천 대를 넘어 결코 끊임이 없는 인애 베푸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13] 솔로몬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 덕분에 그의 왕조가 400 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왕상 11:34, 38-39).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와는 그의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왕하 8:19). 히스기야가

---

[12] Kaiser, *Toward OT Ethics*, 87. 이외에도 구약은 연대성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큰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며 연대 책임이 개인 책임을 뛰어넘는 경우들을 담고 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다(창 3:23). 노아의 아들 함은 그의 후손들을 저주 아래 살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창 9:18, 22, 24-25).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미치는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다(창 12:1-3).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과 연합하여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다(수 1:12-18).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처벌을 받은 예들을 몇 가지 더 들면 다음과 같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처자들과 유아들"까지 심판을 받았다(민 16:27). 아간이 저지른 언약 파기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까지 죽임을 당했다(수 7:24-25).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아들이었지만 배교자인 아버지 사울과 함께 불행한 죽음을 맞았다(삼상 31:2, 12).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 년의 기근이 임하였으며 그의 후손 일곱 명이 처형을 당하였다(삼하 21:1, 8-9). 다윗의 잘못된 인구 조사 때문에 전염병으로 칠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삼하 24:15).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병들어 죽었다(왕상 14:1, 10, 17). 열왕기는 유다의 멸망을 므낫세의 책임으로 돌린다(왕하 23:26; 24:3-4). 이러한 연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처벌은 구약에서 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죄의 오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긴 특별한 경우들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신명기 24:16 에 규정된 대로 개인 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Enns, *Exodus*, 416.

앗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고 그의 생명이 15 년이나 더 연장된 것은 다윗 덕분이었다(왕하 19:34; 20:6).

④ 하나님의 저주와 복은 조상과 후손 사이에 대를 이어가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아버지가 계명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에게 불경건한 아들 여호람이 있었고(왕상 22:43; 왕하 8:16-18), 경건한 요시야에게 불경건한 세 아들과 불경건한 손자가 있었다(왕하 22-23 장). 그러나 악한 아하스(왕하 16:2-4)에게 경건한 아들 히스기야(왕하 18:3-5)가 있었고, 악한 아몬(왕하 21:20-22)에게 경건한 아들 요시야(왕하 22:2: 23:25)가 있었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삼사 대까지의 처벌"을 운운하며 그의 조상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 2 계명의 저주 조항은 부모들 때문에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녀들의 변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에스겔 18 장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 사용을 금하며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겔 18:5-13) 불의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달리 의를 행하면 벌을 받지 않고 살 것이라고(겔 18:14-18) 말한다. 예레미야는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렘 31:29-30)."고 말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강조한 개인 책임의 원칙은 포로기 직전 또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형편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기존의 연대성의 원리를 대체할 새로운 신학적 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 개인 책임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제 2 계명의 제재 조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따라 삼사 대의 후손에게 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상과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다.[14] 신

[14] [겔 18:4, 19-20, 30-32] (4)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 (19)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20)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 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30)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cf. 개역: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NIV: then sin will not be your downfall.] (31)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24:16 은 부모와 자식의 양 방향을 언급하며 죄를 지은 자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15] 신 24:16 의 말씀을 따르며 유다 왕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는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왕하 12:20-21; 14:6).

- 구약의 처벌 규정들이 보여주는 큰 원칙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도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대성(요 15:5; 행 4:32; 롬 12:5; 고전 5:11; 12:12; 엡 4:3)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각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개인 책임의 원칙(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2:12)을 함께 가르친다.

4)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은 "아버지"로 대표된 부모의 영향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삼사 대까지의 처벌"과 "천 대까지의 인애"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도록 해 주며 부모가 하나님 경외에 대한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모는 그들의 죄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에 가져 올 형벌을 생각하며 저주 조항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데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복 조항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은 하나님 사랑과 계명 준수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다. 여기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이나 기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언약 준수 여부 즉 충절의 여부를 가리키고 있다.[16]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고 말씀하셨다.

3.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차이

1.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구분

1) 개혁교회는 출 20:3/신 5:7 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출 20:4-6/신 5:8-10 을 제 2 계명으로 여긴다.

2) 개혁교회와 달리 유대교는 십계명 서언을 제①계명으로 간주하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②계명으로 간주하고, 루터교와 천주교는 십계명 서언을 그대로 두나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①계명으로 여기고 제 10 계명의 첫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제⑨계명과 제⑩계명으로 여긴다. 개혁교회의 제 10 계명을 둘로 나눌 때 루터교는 출애굽기에 근거하고 천주교는 신명기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근거하는 루터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제⑨계명으로 여기고 이웃의 아내를 포함한

---

[15] [신 24:16]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6] Stuart, *Exodus*, 454.

나머지를 탐내지 말라를 제⑩계명으로 여기는 반면, 신명기에 근거하는 천주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제⑨계명으로 여기고 이웃의 집을 포함한 나머지를 탐내지 말라를 제⑩계명으로 여긴다.

3) 유대교와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합하여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음에 살필 이 두 계명의 차이점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2.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차이 진술

1)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은 경배의 참된 대상(whom we worship)과 관련이 있고 제 2 계명은 경배의 참된 방법(how we worship)과 관련이 있다.

① 일계명은 참된 하나님(Right God, True God)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Right Way, True Service)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7]

② 일계명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분만을 섬길 것을 명하는 반면, 이계명은 (일계명을 통해 모든 거짓 신들을 배제하고 홀로 남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경배할 것을 명한다.[18]

2) 부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은 거짓 신들(false gods)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반면, 제 2 계명은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법(false ways)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① 일계명은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들(false gods)을 금하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짓 예배(false worship)를 금한다.

② 일계명은 다른 신들(other gods)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이계명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방식들(other ways)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3. 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보는 제 1 계명과 제 2 계명

1)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어떤 형상으로 가시화되었다. 신을 나타내는 형상은 해와 달과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가까이 두도록 해 주는 통로이었다. 사람들에게 신들은 다루기에 위험스러운 고압전류(high voltage)와 같았지만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변압기(transformer)처럼 안전하게 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 주는 정말 좋은 수단이 되었었다.[19] 사람들에게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통하여 가까이 있었다.

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행 14:11)."라고 외친 사람들은 멀리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으로 다가온 것으로 간주하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무리와 함께 형상으로 온 신들에게

[17] Ryken, *Written in Stone*, 72.

[18] Douma, *Ten Commandments*, 35.

[19] Douma, *Ten Commandments*, 38.

제사하려고 하였다. 제사장이 동원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면 적법한 의식을 갖추어 형상을 통하여 신을 섬기고 신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② 아론은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가리켜 "이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אֵלֶּ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출 32:4)."라고[20] 말했다. 여로보암 1 세도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보라 여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 있다(הִנֵּ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왕상 12:28)."라고 말했다.[21] 아론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변압기 삼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의 것으로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고대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 없으면 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신의 형상이 없으면 그것이 나타내는 신의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사람들은 정말 신을 나타내는 형상 없이는 살 수 없었다.

2) 이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 제 1 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외에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 거짓 신들의 그 형상에게 절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인 반면, 제 2 계명은 거짓 신들이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경우에도 여호와를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3) 거짓 신들이 형상과 별도로 구별되어 섬김을 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이 되도록 되어 있다.[22] 그러므로 제 2 계명을 위반하며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면 그 형상은 결국 제 1 계명에서 금하는 거짓 신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왕상 14:9).

①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הִנֵּ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이스라엘아 보라 여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벧엘과 단에 두고 백성으로 숭배하도록 하였다(왕상 12:28-30).

---

[20]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는[원문은 복수] 너희를[원문 단수를 복수로 오역]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원문 단수를 복수로 오역] 신[원문은 복수; 장엄 복수로 보면 단수 번역 가능]이로다; NASB: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ES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21]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는[대명사 없는데 추가] 너희를[단수인데 복수로 오역]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단수인데 복수로 오역] 신들[원문 복수; 두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복수 혹은 장엄 복수로 단수 가능]이라; NASB: behold your gods, O Israel, that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NIV: Here are your gods,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22] Douma, *Ten Commandments*, 37: "The idols were not served apart from images, and images of Yahweh inevitably became 'other gods.'"

②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도록 한 것(왕상 12:28-30)에 대하여 여호와는 선지 아히야를 통하여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וַתַּעֲשֶׂה־לְּךָ אֱלֹהִים אֲחֵרִים וּמַסֵּכוֹת [바타아쎄-르하 엘로힘 아헤림 우마쎄호트])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왕상 14:9)."라고 평가하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을 선언하셨다.

- 개역개정에 "다른 신"과 "우상"으로 번역된 אֱלֹהִים אֲחֵרִים וּמַסֵּכוֹת [엘로힘 아헤림 우마쎄호트]는 둘 모두 복수이고 직역하면 "다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인데 접속사 바브가 동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신(들) 즉 우상(들)**"로 번역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ESV 의 "other gods and metal images"처럼 접속사 "and"를 사용하고 있지만, NIV 의 "**other gods, idols made of metal.**"처럼 쉼표나 대시를 사용하여 동격으로 보는 번역도 있다(AMPC, GW, NOG, TLV, WEB 등).[23]
- 이것은 여로보암이 벧엘과 단에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들)이요 다른 신(들)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결국 그 우상은 다른 신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보는 제 1 계명과 제 2 계명

1) 우상 숭배는 제 1 계명과도 관련이 있고 제 2 계명과도 관련이 있다.

[23] 왕상 14:9 에 대한 몇 가지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ESV: but you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and metal images, provoking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ASB: you also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and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IV: You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lived before you. You have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idols made of metal**; you have aroused my anger and turned your back on me; AMPC: But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for you have made yourself **other gods,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OG: You have done more evil things than everyone before you. You made **other gods, metal idols,** for yourself. You made me furious and turned your back to me; WEB: but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TLV: Instead you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yourself **other gods—molten images** to vex Me—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2) 절하며 섬기는 우상이 제 1 계명이 금한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이면 참된 하나님 대신 혹은 참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이지만(렘 2:27-28; 살전 1:9-10),[24] 절하며 섬기는 형상이 제 2 계명이 금한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이면 참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다(행 7:41; 고전 10:7).[25]

3) 참된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제 1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다(대하 16:12; 빌 3:18-19).[26] 성경에 계시된 참된 유일한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것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 2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다.

4)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제 2 계명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제 2 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며 우상 숭배를 언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권면이 나오는 경우이다(행 7:41; 고전 10:7, 14). 그리고 바울의 아레오바고 강연은 거짓 신을 섬기며 제 1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러한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제 2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은 주로 제 1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우상이 언급되고(살전 1:9; cf. 고전 12:2; 고후 6:16; 계 9:20) 그런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이 주어진다(요일 5:20-21). 하나님 대신 거짓 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롬 1:18-27) 탐심이 우상 숭배(엡

---

[24] [렘 2:27-28]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살전 1:9-10]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5] [행 7:41]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고전 10: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26] [대하 16:12] 아사가 왕이 된지 삼십 구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빌 3:18-19] (18)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5:5; 골 3:5)인 것이 지적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다른 죄들과 나란히 나온다(갈 5:20; 골 3:5; 벧전 4:3; 고전 5:10-11; 6:9-10; 계 22:8, 15).

5. 성경의 인물들을 통한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비교

1) 솔로몬(왕상 11:4-8)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제 1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

2) 모세의 형 아론과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 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제 2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출 32:1-8; 왕상 12:28-30).[27]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왕상 14:16; 15:30, 34; 16:2, 19, 26, 31; 21:22; 22:52; 왕하 3:3; 10:29, 31; 13:2, 6; 14:24; 15:9, 18, 24, 28, 34; 17:21, 22; 23:15; cf. 역대하 13:8)"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왕상 12:30) 헌신하게 하고(cf. 호 4:17) 입 맞추게 한(cf. 호 13:2) 것이다.

3) 사사시대에 미가(삿 17-18)가 자신을 위해 만든 여호와를 나타내는 신상은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단 지파 전체를 제 2 계명을 범하는 데로 인도하였다.

4) 아합(왕상 16:30-33)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 숭배를 장려함으로써 제 2 계명과 제 1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일을 저지르며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28]

---

[27] [출 32:1-8] (1)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אֵלֶּ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하는지라 (5)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אֵלֶּ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하였도다

[왕상 12:28-30] (28)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הִנֵּה אֱלֹהֶיךָ יִשְׂ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רָיִם:)** 하고 (29)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28] [왕상 16:30-33] (30)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5) 예후(왕하 10:23-29)는 오므리 왕조(오므리-아합-아하시야-요람[여호람])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바알을 멸함으로써 제 1 계명 준수에는 성공했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음으로써 제 2 계명 준수에는 실패하였다.[29]

4.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

1.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오해하는 행위**이다.[30]
   1)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매여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어야 하는 신이 아니다(삼상 4 장).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재이시며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니다(왕상 20:23-25). 하나님은 성전 안에 매여 있어 성전이 있는 한 백성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신이 아니다(렘 7:3-7; 26:4-19).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대하 6:18)"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을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였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대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같이 묶인 사신처럼 사람 마음대로 주무름을 당하신 분이 아니다(출 32:1-8).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의 형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셨고(신 7:6-8) 택한 백성이 살아야 할 길도 하나님 자신이 정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셨다.
   4)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과의 접촉을 위해 자의적으로 신의 형상들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일을 금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 때문이다.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본떠 만든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은 조물주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신의 뜻대로 편하게 섬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5)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무소부재하신

---

[29] [왕하 10:23-29] (23)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8)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Douma, *Ten Commandments*, 40.

하나님을 섬기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국지화 동기**(localization motive 국부화/지방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2.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오해하는 행위**이다.[31]

1) 하나님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임재할 때만 죄인들이 죽지 않는 위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신 4:11; 5:23; 왕상 8:11-12)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이다(딤전 6:16). 이렇게 흑암과 빛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둘러싸는 흑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빛처럼 꿰뚫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눈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히 4:13).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표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위엄을 조롱하고 있었다. 여호와를 나타내던 금송아지는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 신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 아니다(호 8:6; 13:2; 14:3).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손으로 만들어 진 우상(사 44:15-20)과는 달리 여호와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아노히 아노히 아도나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0 하-11)."고 선언하셨다.

3)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인간의 손길이 미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형상은 이방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로 만드는 행위이다(신 4:28). 이사야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위엄(사 40:12-17)을 묘사한 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사 40:18-19)."고 말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본뜬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땅위 궁창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고 귀인들과 사사들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와 같다고 하셨는데(사 40:21-24) 어떻게 금방 있다가 없어질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고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

4)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온갖 예배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손 안에 있어 마음대로 주무르며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신을 이용하려는 동기 곧 조종 동기(manipulation motive **조작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손으로 잡을 수 있고

---

[31] Douma, *Ten Commandments*, 41.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동기에서 형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형상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형상들은 더더구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3.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는 행위**이다.[32]

1)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는 변압기와 같은 형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이미 세워졌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우상처럼 만질 수 없지만 우상이 나타내는 어떤 신보다 그의 백성 가까이에 계셨다.
2) 하나님이 언약을 반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체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였다(신 4:12-14; 5:22-29).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알리시고 그 언약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신 6:20-25).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매우 가까워서 백성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신 30:11-14).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규례를 주시고 그들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신 4:6-7).
3)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고 나름대로 생각한 적법한 의식을 통하여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복을 받으려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며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선수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통하여 세우신 길 이외의 다른 길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4)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로 친히 주시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세우셨다. 언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고 그들의 마음과 입에 있다. 백성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32] Douma, *Ten Commandments*, 42.

것처럼 마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접근하기 쉽게 가까이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관여 동기**(participation motive 참여/밀접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33]

5. 제 2 계명과 미술 활동

1. 미술 활동의 허용과 범위

1) 제 2 계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묘사되거나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 2 계명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형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 천명한다.[34] 제 2 계명은 예배를 위한 형상(cultic images)을 금하는 것이지, 그림, 건축, 조각처럼 눈으로 봄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visual art)인 미술 활동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조물은 얼마든지 묘사되고 그려지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놓은 속죄소(시은좌)를 두 그룹들이 높이 편 그 날개로 덮고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출 25:17-20), 성막의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셨다(출 26:1). 그룹은 또한 성전의 내외소 사면 벽과 문짝을 장식하는데도 나온다(왕상 6:29, 32, 35). 그룹의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날개, 발, 얼굴이 있고(왕상 6:24-26; 대하 3:18)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 합쳐진 것이 언급된다(겔 41:18-19).

② 하나님은 등잔대 위에 봉오리(bud)와 꽃(blossom)을 가진 살구꽃 같은 등잔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다(출 25:31-24).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수놓도록 하셨다(출 28:33-34).

③ 야곱은 라헬의 묘비(창 35:20)를 세웠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란 승전비(삼상 7:12)를 세웠다.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으면서 돌로 기둥을 세웠고 증거의 돌무더기(여갈사하두다, 갈르엣/미스바)를 쌓았다(창 31:45-47).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돌을 세웠다(출 24:4). 이러한 구절들에서 돌로 세운 기둥/기념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מַצֵּבָה[마체바]인데 산당에 세운 주상(왕하 17:10; 대하 14:3)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다.[35] 이것은 형상 제작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사용 배후에 있는 목적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된 것을 보여 준다.

---

[33] 강영안(**십계명 강의**, 400 쪽, 2 계명 각주 1)은 형상을 만드는 동기들 즉 국지화 동기, 조종 동기, 참여 동기에 대한 참고문헌으로 J. A. Heyns, *Die nuwe mens onderweg. Oor die tien gebooie* (Kaapstad & Johannesber: Tafelberg, 1970), pp. 125-126 을 들고 있다.

[34] Edmund P.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Phillipsburg: P&R, 2007), 26.

[35] NIV 는 왕하 17:10 과 대하 14:3 에 나오는 [마체바]를 모두 “sacred stone”으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과 개역개정은 “목상”(왕하 17:10)과 “주상”(대하 14:3)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석상”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④ 놋을 부어 만든 바다를 그 아래에서 열 두 소(왕상 7:25, 44)가 받치고 있었고, 솔로몬의 보좌에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양편에 팔걸이가 있었는데 여섯 층계 좌우편에 열 두 사자가 서서 지켰고 보좌 양편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왕상 10:19-20).

3) 미술 활동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표현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허락되며 제 2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다.[36] 아무도 영광스러운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창 18:2-16; 19:1).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각각 "보좌 위의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겔 1:26)"과 "보좌 위의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단 7:9)"를 보았다. 성경에 보도록 허용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에 대한 인상들을 표현하는 미술 활동은 그림이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2. 천주교와 2 계명

1) 천주교는 죽은 성인(聖人)들의 생활과 선행을 보여 주는 성화(聖畵)와 성상(聖像)으로 가득 차 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화와 성상이 마치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비교된다. 성상 숭배를 정죄했던 콘스탄티노플회의(주후 754)의 결정을 뒤엎으며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배(*latreia*, worship)와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들, 성자들, 십자가 등의 형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숭배(*proskunēsis*; veneration; *douleia*, adoration)를 구분했던 제 2 니케아 회의(주후 787)의 결정이 트렌트 회의(주후 1563)에서 확인되었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37]

2) 천주교는 그리스도, 마리아,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성상을 통하여 존중될(honored)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 듣지 말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천주교에서 성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 경배하기 위해서 성상을 걸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성상 앞에 복을 빌며 절하며 경배한다. 그들은 왜 그들의 집에 마리아의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먼 곳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가? 이렇게 특별한 성상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경배의 대열에 서거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성상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복에 이르는 특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는 제 2 계명에 저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36] Douma, *Ten Commandments*, 67.

[37] Douma, *Ten Commandments*, 65.

3) 천주교의 성상 숭배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 것이나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분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38] 하나님은 성화와 성상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신자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말씀 선포와 선포된 말씀에 대한 회중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주신 이미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미지들을 교정해야 하는 것을 항상 요구한다.[39]

4) 단순한 나무 십자가, 잘 장식된 유리창처럼 예배당이 구별된 장소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경배의 대상도 되지 않고 평신도를 위한 책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예배당의 장식에 사용되어 예배자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라우니(Clowney)는 암스테르담의 라익스뮤지움(Rijksmuseum)에 소장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하여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실을 언급한다.[40] 보다 시각적인 성례에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것처럼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함께 보다 낳은 효과를 준다면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는 것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41]

---

[38] 사사기 저자는 백성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기드온에게 주었을 때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는 것이 되었고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던(삿 8:27)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기드온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스라엘이 그 앞에 분향해 오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느하시 하느호세트] נְחַשׁ הַנְּחֹשֶׁת bronze snake 놋으로 만든 뱀)을 부수고 느후스단([느후시탄] נְחֻשְׁתָּן thing of brass 놋 덩어리, 놋 물건)이라고 일컬었다(왕하 18:3-4). 개인 구원의 상징이었던 놋뱀에게 계속적으로 분향해 온 것은 보이는 놋뱀의 상징성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행위이요 제 2 계명을 범하는 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통로가 되었던 놋뱀(민 21:8-9)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들리셨던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요 3:14-15; 8:28; 12:32-34)을 통하여 확인된다. 놋뱀이 모형의 역할을 넘어서 분향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형상 제작을 금지하는 제 2 계명에 저촉되는 행위였다.

[39] 칼빈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의 그의 교회나 그가 밤낮으로 가르치던 Geneva Academy(=University of Geneva)에는 마리아 성상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십자가도 없었다. 그저 강대상 하나가 강대상 중앙에 놓여 있을 뿐이고 칼빈은 긴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 정말 참다운 설교는 회중들이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통곡하게 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논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숫자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 즉 대각성과 삶의 변화를 그 목표로 정했던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40]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31.

[41] 예배(worship) 가운데 우리는 성경(the Bible)을 읽고(read) 설교하고(preach) 보고(see) 노래하고(sing) 기도한다(pray). 성경을 읽는 것(reading the Bible)은 설교 본문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 이외에 다른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preching the Bible)은 택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6.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1)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6-28).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

2)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 안에 나타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뿐이고 인간이 고안하여 만든 목상, 석상, 주상과 같은 형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42]

2.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단어들

1) "צֶלֶם אֱלֹהִים [첼렘 엘로힘]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구는 구약에서 네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창 1:26, 27[2 번]; 9:6).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로 쓰인 "דְּמוּת אֱלֹהִים [드무트 엘로힘] 하나님의 모양"이란 어구는 창 5:1 에 오직 한 번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며 종류대로 지음 받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도록 하셨다.

2) "צֶלֶם[첼렘] 형상"과 "דְּמוּת[드무트] 모양"이 동의어로 교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 창 1:26 의 בְּצַלְמֵנוּ כִּדְמוּתֵנוּ([브찰메누 키드무테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동격 구문은 나란히 나오는 두 명사 [첼렘]과 [드무트]가 동의어로 쓰인 것을 보여준다.

② 창 5:3 의 בִּדְמוּתוֹ כְּצַלְמוֹ([비드무토 크찰모]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라는 동격 구문도 두 명사가 역순으로 나란히 나오며 동의어로 쓰인 것을 보여준다.[43]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본다는 것(seeing the Bible)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노래한다는 것(singing the Bible)은 성경 본문 그대로 혹은 성경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사를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기도한다는 것(praying the Bible)은 가능한 한 많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2] Ryken, *Written in Stone*, 83: "We are not allowed to make God's image, but only to *be* God's image."

[43] 창 1:26 과 5:3 에 나오는 전치사 בְּ[브]와 כְּ[크]도 역순으로 나오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치사 [브]는 창 1:26; 27(2 번); 9:6 에서 [첼렘] 앞에 붙어있고 창 5:1, 3 에서 [드무트]앞에 붙어있는 반면 전치사 [크]는 창 5:3 에서 [첼렘] 앞에 붙어 있고 창 1:26 에서 [드무트] 앞에 붙어 있다. 70 인역은 창 1:26 에서 [첼렘]은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고 [드무트]는 ὁμοίωσις[호모이오씨스]로 번역하였고 창 5:3 에서 [드무트]는 ἰδέα[이데아]로 번역하고 [첼렘]은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둘 중 하나만

③ 겔 23:14-15 에 (창 1:26 처럼 구문상 동격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첼렘]이 먼저 나오고 [드무트]가 뒤따라 나오며 동일한 초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두 명사가 동의어인 것을 보여준다.[44]

④ 텔 페케리예(Tell Fekheriyeh, 혹은 Tell Fakhariyah, 고대 Sikan)에서 발굴된 주전 9 세기경의 아카드어와 아람어로 쓰인 조상(彫像 statue)은 하닷 이티(Hadad-Yith'i) 왕의 통치를 묘사하며 왕의 상을 "statue[דמותא *dmwt'*] of Hadd-yith'i(1, 15)"와 "statue[צלמא *ṣlm'*] of Hadd-yith'i(12, 16)"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아람어 단어 [드무타]와 [찰마] 즉 모양과 형상이 서로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5]

3) 구약에서 17 번 사용된 [첼렘]과 25 번 사용된 [드무트]가 사용된 경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צֶלֶם[첼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과 관련하여 5 번(창 1:26, 27[2 번]; 5:3; 9:6) 사용되었다.

- [첼렘]은 여러 종류의 물리적 형상물과 관련하여 10 번(삼상 6:5, 11 독종의 형상; 삼상 6:5 쥐의 형상; 민 33:52 가나안 신들의 주상; 왕하 11:18 = 대하 23:17 바알의 상; 겔 7:20; 16:17; 암 5:26 파괴되어야 할 이방 우상; 겔 23:14 바벨론인 초상) 사용되었다.
- [첼렘]은 시편에서 2 번 사람의 존재와 관련하여 환영(幻影), 그림자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뉘앙스를 가지며 시 39:6[MT 7]에서 [헤벨]("vanity 허무, 헛됨")의 병행어로 쓰였고 시 73:20 에서 [할롬]("dream 꿈")의 병행어로 사용되었다.

나오는 창 1:27 의 [첼렘]과 창 5:1 의 [드무트]는 구별 없이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였다. 두 명사 앞에 사용된 전치사의 경우 70 역은 모두 κατά[카타]로 번역하였다.

[44] [겔 23:14-15 직역] 그녀는 음행을 더욱 행하며 그녀는 벽에 그려진 사람들, 곧 붉은 색으로 그려진 갈대아인들의 초상들(צַלְמֵי[찰메])을 보았다. 그들의 허리에 띠가 동여 있고 그들의 머리에 수건이 감기어 있고 그들 모두는 우두머리들의 모습(מַרְאֵה[마르에])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초상(דְּמוּת[드무트])이고, 갈대아가 그들의 고향이었다.

Cf. [개역개정]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새번역]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 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 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말성경]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 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45] *NIDOTTE* I: 969; *ABD* III: 389; 아카드어와 아람어로 된 이 조상에서 아카드어 ṣalmu("image, statue")가 1 행과 15 행에서 아람어 דְּמוּתָא[드무타]로 번역되고, 12 행과 16 행에서 צַלְמָא[찰마]로 번역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26* NAC 1A (Broadman & Holman, 2002), 167 n. 192 에 언급된 A. R. Millard and P. Bordreuil, "A Statue from Syria with Assyrian and Aramaic Inscription," *BA* (1982): 135-41 과 D. Gropp and T. Lewis, "Note on Some Problems in the Aramaic Text of the Hadd-Yith'i Bilingual," *BASOR* 259 (1985): 45-61 등을 참고하라.

- 히브리어 צֶלֶם[첼렘]에 상응하는 아람어 צְלֵם[츨렘]은 단 2-3 장에서 17 번 사용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인 신상(단 2 장)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단 3 장) 그리고 금신상 숭배 명령에 불복한 자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얼굴의 모양(단 3:19)등을 묘사하는데 쓰였다.

② "דְּמוּת[드무트] 모양"은 창세기에서 사람과 관련하여 3 번 즉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대로(창 1:26)"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창 5:1)"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묘사할 때 그리고 아담이 셋을 "그의 모양대로(창 5:3)" 낳았다고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 [드무트]는 겔 1-10 장에서 하나님의 현현(theophany)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직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 같은 모양을 보았다고 묘사하거나 하나님과 연관된 피조물들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고 묘사하며 구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슷함을 드러내는데 15 번 사용되었다(겔 1:5[2 번], 10, 13, 16, 22, 26[3 번], 28; 8:2; 10:1, 21, 22).
- [드무트]는 단 10:16 에서도 겔 1:10; 10:22 에서처럼 다니엘의 입을 만지신 인자의 모양 즉 인자와 같은 이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 [드무트]는 사 13:4 에서 싸우는 군대의 소리가 많은 사람의 소리와 같음을 묘사하고 시 58:4[MT5]에서 악인들의 독이 뱀의 독 같음을 묘사하며 두 사물 사이의 외모나 성질에 있어서 연관이 있음에 착안하며 유사함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 그러나 [드무트]는 물리적인 유사함을 드러내며 사 40:18 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모양 즉 하나님의 우상을, 대하 4:3 에서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바다를 아래서 받치는 소의 형상을, 왕하 16:10 에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스케치를, 겔 23:15 에서 [첼렘]과 병행어로 초상(portrait)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③ 이상의 용례들 가운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묘사하는 것에 한정해 보면 창 1:26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나란히 나오고 창 1:27[2 번]; 9:6 에서 [첼렘]이 사용되고 창 5:1 에서 [드무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드무트]와 [첼렘]을 차례로 사용하며 아담이 셋을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 낳았다고 묘사하는 창 5:3 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자손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 파괴로 묘사하는 창 9:6 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창 1:26 의 [첼렘]과 [드무트]의 관계

1) [첼렘]과 [드무트]가 겔 23:14-15 그리고 페케리예(Fekheriyeh)에서 발굴된 하닷-이티(Hadad-Yith'i)의 비문에서처럼 완전히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비추어 창 1:26 과 창 5:3 의 [첼렘]과 [드무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2) 콜린스(Collins)는 창 1:26 에서 "우리의 형상대로"와 "우리의 모양대로" 사이에 접속사 바브가 없는 것과 창 1:27 에서 "하나님의 형상"만 쓰인 것 그리고 창 5:1 에서 "하나님의 모양"만 쓰인 사실에 근거하여 창

1:26 의 동격을 이루는 두 어구가 각기 상대 어구를 분명하게 해 주며(with each clarifying the other) 사실상 같은 것을 언급한다고 설명한다.[46]

3) 해밀톤(Hamilton)은 창세기 1 장이 주된 동사(major verb) "בָּרָא[바라] 창조하다"로 시작하고 그 뒤에 부차적인 동사(minor verb) "עָשָׂה[아싸] 만들다"를 사용한 것처럼 창 1:26 이 주된 단어(major word) "[첼렘] 형상"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부차적인 단어 "[드무트] 모양"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1-10 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같거나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과 같은 대상을 보았다고 할 때 "[드무트]"가 사용된 것에 유의하며 구체적인 [첼렘]의 물질적인 뉘앙스가 보다 더 추상적인 [드무트]에 의해 약화되는 점을 지적한다.[47] 다른 한편으로 해밀톤은 [드무트]가 오히려 [첼렘]을 실제로 구체화하고 강화한다는 해석을 소개하며[48] 이 해석은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반영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며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연구함으로써 알려질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9]

4) 월트키(Waltke)는 [첼렘]이 자연적 이성을 가리키고 [드무트]가 타락하여 상실된 원래의 의로움(原義 original righteousness)을 가리킨다는 중세 신학적 해석이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저자의 주의 깊은 단어 선택에 유의할 때 [첼렘]과 [드무트]를 동의어로 보는 최근의 해석도 지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드무트]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구별됨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한다.[50] 그는 [첼렘] 다음에 [드무트]가 덧붙여진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복사(facsimile)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

[46] C. John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P & R, 2006), 62.

[47]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35-136: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ut to avoid the possibility that man be viewed as an exact image of God, the word *likeness* is appended. The physical nuance of the concrete term 'image' is toned down by the more abstract term 'likeness'."

[48] Hamilton, *Genesis 1-17*, 136, n. 13 에는 Clines, *TynBul* 19 (1968): 91 의 글 "*dᵉmûṯ* specifies what kind of an image it is: it is a 'likeness'-image, not simply image; representational, not simply representative."가 인용되어 있다.

[49] Hamilton, *Genesis 1-17*, 136: "Another approach reverses this understanding and suggests that likeness actually specifies and strengthens image. This interpretation intensifies rather than diminishes the creature's reflection of the Creator. It suggests that something about God may be known by studying his image, man." 이런 입장을 소개한 뒤 계속해서 Hamilton 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뛰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볼 정도로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50]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66 n. 51: "The word *likeness* serves to ensure the distinctness of humanity from God."

구별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고대 근동의 문화 배경에서 신상이 신과 동일시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성경적 세계관에서 [드무트]란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51]

5) 웬함(Wenham)도 전통적으로 [첼렘]과 [드무트]를 인성의 두 구별된 특성으로 보며 [첼렘]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는(make man resemble God) 이성이나 개성과 같은 자연적 성질을 가리키고 [드무트]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품과 같도록 해주는(make the redeemed Godlike) 초자연적 은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창 1:26 과 5:3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서로 교체해서 쓰인 사실에 유의하며 전통적으로 두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창세기에는 낯선 것임을 지적하고 [첼렘]의 정확한 뉘앙스를 나타내려고 [드무트]가 단순히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한다.[52]

6) 이상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첼렘]과 [드무트]는 의미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동의어이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다. 창 1:26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나란히 온 것은 중세 신학처럼 인간의 완전히 다른 구별된 두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최근 해석처럼 동의어로서 완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두 번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동격 구문에서 교체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

1)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53]

① **유사적** 견해(resemblance view)는 전통적인 견해이고 **존재론적 강조점**을 보인다. 이 견해는 종교 개혁 이후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보여주는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성, 감정, 의지, 관계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간의 재능(abilities)은 하나님 자신의 순결과 지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할 때

---

[51] Waltke, *Genesis*, 66: "The important addition of 'likeness' underscores that humanity is only a facsimile of God and hence distinct from him. Whereas the image of the deity is equated with the deity itself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word likeness serves to clearly distinguishes God from humans in the biblical worldview."

[52]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ex.: Word, 1987), 30: "The interchangeability of 'image' and 'likeness' (cf. 5:3) shows ..... that probably 'likeness' is simply added to indicate the precise nuance of 'image' in this context."

[53] Collins, *Genesis 1-4*, 62-63.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형상은 상실되었으나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② **대리적** 견해(representative view)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견해이고 인간의 역할 즉 **기능적 강조점**을 보인다.[54] 이 견해는 창 1:26 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1:26 전)"라고 하시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1:26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며 인간의 다스림에 대한 창 1:26 하반절 말씀을 지지 근거로 삼는다. 이 견해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근거하여 인간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며 노래한 시편 8 편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 된다.[55]

③ **관계적** 견해(relational view)는 인간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대리적 관점처럼 인간의 역할 즉 **기능적 강조점**을 보인다.[56] 이 견해는 창 1:27 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1:27a)"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1:27b)"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1:27c)"라는 말씀을 지지 근거를 삼는다. 하나님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임을 묘사하는 창 1:27 의 셋째 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이란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맺는 모든 종류의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동료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들에 관한 평가

① 콜린스는 학자들이 대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굳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며 셋 중 어느 하나도 완벽한 정답이 아니거나 셋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것이 옳거나 아니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다른 성경구절들과 두 단어의 용례에 근거한 그의 결론을 내린다.[57] 콜린스의 설명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54] Waltke, *Genesis*, 66 n. 46 은 인간의 기능을 강조하는 대리적 견해가 영적 속성과 관련하여 닮은 점을 강조하는 존재론적인 유사적 견해를 물리치고 지배적인 해석이 되었다고 말한다.

[55] Mathews, *Genesis 1-11:26*, 169 는 창 1:26, 28 에 사용된 동사 רָדָה[라다]("다스리다")가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는(왕하 4:14; 시 8:5-6; 72:8; 110:2; 사 14:2)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왕적 존재라는 대리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육해공의 생물을 다스리는(רָדָה[라다]) 것은 해와 달이 무생물적 영역을 다스리는(מָשַׁל[마샬]) 것과 상응한다.

[56] Wenham, *Genesis 1-15*, 31 에 의하면 이 견해는 K. Barth(*Church Dogmatics*, III.1.183-187)가 가장 웅변적으로 주창하고 Westermann 이 선호하는 견해이다.

[57] Collins, *Genesis 1-4*, 63-67.

- 창 1:26-27 이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된 구절들은 세 그룹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창 5:1; 9:6; 약 3:9),[58]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골 1:15; 고후 4:4),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고후 3:18; 롬 8:29; 고전 15:49)으로 나눌 수 있다.
- [첼렘]과 [드무트]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은 "A is *after the likeness of* B. A 는 B 의 모양대로이다."라는 표현이 "A is *like* B. A 는 B 와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in the image/likenses"라는 표현과 "after the image/likeness"라는 표현은 상당히 밀접하므로 "A is *in the image of* B. A 는 B 의 형상대로이다."라는 표현은 "A is *a concrete resemblance of* B. A 는 B 의 구체적인 닮은 꼴이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창 1:26 은 "Let us make to be our concrete resemblance, to be like us.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구체적인 닮은 꼴, 우리와 같도록 만들자"라고 풀어 바꿀 수 있다. 이것은 "man is a bodily creature who is like God in some way. 어떤 면에서 사람은 신체를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유사적 관점의 견해를 지지한다.
-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문제는 창 1:26-27 과 창 1-2 장의 문맥을 통하여 결정되어 한다.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창 1:26 의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절은 문법적으로 앞 절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Delitzsch, 100; *GBH* 116a)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창 1:27 의 "그가 남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절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남녀로 이루어졌고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남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창세기 1 장과 2 장의 더 큰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들, 예를 들어 지성(인간의 거처로서 세상에 대하여 계획하심), 언어 사용(말씀하심), 감성과 판단(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으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심), 일과 안식(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 관계 맺음(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질 사람과 관계를 맺으심) 등이 드러난다.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패턴이다. 키드너(Kidner, *Genesis*, 51)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an expression or transcription of the eternal, incorporeal creator in terms of temporal, bodily, creaturely existence 영원하시고 육체가 없으신 창조주를 시간적, 육체적, 피조적 실존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표시 혹은 사본"이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징들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하며 하나님 자신의 순결하심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것이다.

---

[58] Collins, *Genesis 1-4*, 64 은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 2:23 의 God "made man as the image of his own eternity."와 벤 시락의 지혜서(Sirach [= Ecclesiasticus, the Wisdom of Jesus the Son of Sirach]) 17:3 의 "He endowed them [mankind] with strength like his own, and made them in his own image."(NRSV)도 인용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한 입장이며 여러 성경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유사적 관점이 대리적 관점이나 관계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특징들이 인간의 지배와 관계 맺음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 세 가지 견해 즉 유사적, 대리적, 관계적 견해가 모두 각기 타당한 점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도록 해 준다.

② 월트키(Waltke, *Genesis*, 66)는 고대 근동에서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왕적 통치권을 갖는다고 설명한 후에 창세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인간 공통성 안에 남녀의 복수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③ 웬함(Wenham, *Genesis 1-15*, 31-32)은 그가 요약한 다섯 가지 견해들(자연적 속성과 초자연적 속성으로 첼렘과 드무트 구별; 정신적이고 영적인 속성; 신체적 유사성; 대리 통치; 관계성)을 들고 평가하며 결론적으로 각 견해에 옳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로 만든다는 대리적 견해가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 혹은 결과만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④ 해밀톤(Hamilton, *Genesis 1-17*, 13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심, 영혼, 원의, 이성, 사귐의 능력 등이 제시되지만 객관적 석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창 1:26 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to be human is to bear the image of God)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⑤ 매튜스(Mathews, Genesis 1-11:26, 168-171)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왕적 다스림(rulership)뿐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됨(sonship: 창 5:3 셋의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유지; 눅 3:38 아담=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 준다고 설명한다.

7.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59]

1.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명된다.
   1) [고후 4: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εἰκών[에이콘])이니라
   2) [골 1:15] 그는(=그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εἰκών[에이콘])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3) [히 1:3] 이는(=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χαρακτήρ[카라크테르] "engraved stamp, image, impression 각인, 형상, 날인" < χαράσσω "to engrave 새기다")이시라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Eternal Son)이다.

[59] 아래의 논의는 *ISBE* II: 804-805 에 실린 G. W. Bromiley 의 "Image of God"이라는 글을 참고하였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골 2:9)."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형상이다(Christ is in his essential deity the exact image of the Father in the sense that He is Himself equally God.).

2)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요 1:1 의 말씀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빌 2:6 의 말씀은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명되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3)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형상(imago substantialis)이라면 사람은 파생적인 형상(imago accidentalis)이다. 그리스도는 원형의 복사가 아니고 그 자신이 원형이다.

3.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형(Prototype of Man)이다.

1)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들로서 선재하신 삶 가운데 첫 창조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원형인 것을 또한 보여준다(In His preexistent life as the Son, Christ is also the prototype of man, even in the respect of the first creation.).

① 바울이 구속 즉 죄사함을 얻도록 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라고 한 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NIV: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는 동등하다.

②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요 1:4)"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요 1:9)"이라고 설명하며 어떤 면에서 사람이 말씀(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반영임을 암시하였다.

③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요 목표이다(According to God's counsel the Son has always been the prototype and goal of humanity.).

2) 첫 창조 때에 아담은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At his creation Adam is already fashioned according to the prototype, i.e., Christ.).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 인간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갖고 계신다(In Himself Christ already sums up all that humanity is to be.).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신 삼위로 계시고 그리스도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을 뜻한다.

4.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신인 God-Man)이다.

1)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의 성육신하신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representation)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에게 형상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퍼져 있다.

① 주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라고 말씀하셨다.

② 요한은 성육신하신 말씀(로고스)에 대하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묘사하였다.

③ 바울은 신자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라(고후 3:17)"고 말했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참으로 해당된다.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 인격,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고(마 3:17; 막 9:7; 행 2:22) 결국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4).

5. 그리스도는 종의 형상(Servant Form)을 취했다.

1) 범죄한 아담의 경우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성격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역설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에 의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고(롬 8:3)"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히 2:17)"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원형이 본떠 만든 모형의 모양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범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다.

2)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참되게 다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꼭 그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대표적 사역의 일부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꼭 그대로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를 지녔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저항하며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의 영광을 직접 알아보지 못했다(cf. 마 16:13-17). 종말에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3-16)"고 묘사하였다.

6.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원형(Prototype of the New Man)이다.

1)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새 사람들의 원형이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고 믿어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말했다.

2)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종말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60]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엡 4:22-24)" 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골 3:9-11)."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고후 10:5)"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빌 2:5)"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롬 12:1-2)" 해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빌 3:21)"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몸이 부활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고전 15:49)"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고 말했다.

4)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나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에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교회라는 몸을 남기고 가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8. 제 2 계명의 준수

1.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신적 이미지(wrong mental image)를 갖는 것은**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1]

1) 하나님의 자유와 위엄과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며 인간들 자신이 상상하고 고안하여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던 일은 구약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사색한 것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2)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섬겨야 하는 분이지, 인간이 생각해 내어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계명이 바로 제 2 계명이다. 이미지 중심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가는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보다 더 깊은 주의를

---

[60] 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ὁσιότητι τῆς ἀληθείας =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ESV: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NASB: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61] Douma, *Ten Commandments*, 70-71.

기울여야 한다. 제 2 계명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하나님의 이지미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깨뜨려 내어 던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깨우쳐 주는 계명이다.

3)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귀로 듣기를 원하셨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만든 형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대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62]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생각의 소산이고 인간 공상의 결과이고 인간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애굽에서 비옥과 능력의 상징인 수송아지를 떠올리며 여호와가 수송아지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며 만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 바로 이런 것을 제 2 계명은 금하고 있다.

4) 아삽은 여호와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여호와께서 잠잠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한 것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죄를 심판할 것을 말한다(시 50:16-21). 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며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징벌하시듯이 징치할 것을 말한다(시 94:4-10). 시편 기자들이 묘사한 악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며 제 2 계명을 범할 수 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3]

1)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나 승전을 위해 옮겨진 언약궤(삼상 4 장)처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기면 바로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의해 붙들리거나 저지당하거나 임무를 부여받거나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만 택하고 다른 속성들을 무시한다면** 제 2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분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64]

1) 자유주의 신봉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대속적 속죄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교리를 부인하고 공의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남녀 동등권을

---

[62]고재수(N. H. Gootjes),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십계명 강해** (서울: 여수룬, 1991), 35.

[63] Ryken, *Written in Stone*, 81.

[64] Ryken, *Written in Stone*, 81.

부르짖으며 여권 확장을 위한 여성 해방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면 여성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2) 산타 클로스와 같은 하나님, 스크루지와 같은 하나님, 무정하기만 하는 하나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의인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하였을 리 만무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구약의 하나님—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며 제 2 계명에서 금한 하나님의 우상에 불과하다.

4.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는 축소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섬기면**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5]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주는 것, 사회적 정의보다 개인적 윤리와 도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 자비, 은혜가 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로 제 2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2)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9. 제 2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6-98)

1) HC 96. 제 2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신 4:15-19; 사 40:18-25; 행 17:29; 롬 1:23)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것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삼상 15:23; 신 12:30-32).

2) HC 97. 그러면 아무 형상도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즉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묘사되거나 그려질 수 없고 또한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신 4:15-16; 사 46:5; 롬 1:23). 피조물들은 묘사되고 그려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출 23:24; 34:13-14; 민 33:52; 신 7:5).

3) HC 98. 그러나 평신도를 위해 책처럼 형상들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렘

[65] Ryken, *Written in Stone*, 82.

10:8; 합 2:18-19) 생명력이 있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 3:16-17; 벧후 1:19; 롬 10:14-17).

2.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0; 대교리 문답[WLC] 108)

1) WSC 50.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신 32:46; 마 28:20; 행 2:42).

2) WLC 108.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신 32:46-47; 마 28:20; 행 2:42; 딤전 6:13-14).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빌 4:6; 엡 5:20);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것(신 17:18-19; 행 15:21; 딤후 4:2; 약 1:21-22; 행 10:33); 성례를 거행하고 받는 것(마 28:19; 고전 11:23-30); 교회의 정치와 권징(마 18:15-17; 16:19; 고전 5; 12:28); 봉사 직분과 그 직분의 유지(엡 4:11-12; 딤전 5:17-18; 고전 9:7-15); 종교적 금식(욜 2:12-13; 고전 7:5);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신 6:13)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사 19:21; 시 76:11);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행 17:16-17; 시 16:4);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의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신 7:5; 사 30:22)입니다.

3.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1; 대교리 문답[WLC] 109)

1) WSC 51.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신 4:15-19; 출 32:5, 8)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어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신 12:31-32).

2) WLC 109. 제 2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거나(민 15:39) 의논하거나(신 13:6-8) 명령하거나(호 5:11; 미 6:16) 사용하거나(왕상 11:33; 12:33) 어떤 모양으로든 승인하는 것(신 12:30-32);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신 13:6-12; 슥 13:2-3; 계 2:2, 14-15, 20; 17:12, 16-17);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 혹은 어느 한 위에 대하여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어느] 피조물의 어떠한 [종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신 4:15-19; 행 17:29; 롬 1:21-23, 25); 그 신상을 예배하거나(단 3:18; 갈 4:18) 그 신상 안에서 혹은 그 신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출 32:5) 모든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출 32:8)과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왕상 18:26, 28; 사 65:11); 우리 자신들이 고안하여 취한 것이든(시 106:39),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전(벧전 1:18), 풍속(렘 44:17), 헌신(사 65:3-5; 갈 1:13-14),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삼상 13:11-12; 15:21) 아래 전통으로 받은 것이든(마 15:9), 추가하거나 삭감하여(신 4:2)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시키는(말 1:7-8, 14) 모든 미신적 고안들(행 17:22; 골 2:21-23); 성직 매매(행 8:18); 신성 모독(롬 2:22; 말 3:8);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출 4:24-26)과 경멸(마 22:5; 말 1:7, 13)과 방해(마 23:13)와 반대(행 13:44-45; 살전 2:15-16)입니다.

4. 제 2 계명의 이유(소교리 문답[WSC] 52; 대교리 문답[WLC] 110)

1) WSC 52. 제 2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시 95:2-3, 6),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시 45:11),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출 34:13-14).

2) WLC 110. 제 2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여기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V. 제 3 계명

1. 제 3 계명 본문

1. 제 3 계명은 출 20:7 과 신 5:11 에 나온다.

1) BHS

לֹֽא־תִשָּׂ֞א אֶת־שֵׁם־יְהוָ֣ה אֱלֹהֶ֗יךָ לַשָּׁוְא֙ כִּ֣י לֹֽא־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출 20:7)

לֹֽא־תִשָּׂ֞א אֶת־שֵׁם־יְהוָ֣ה אֱלֹהֶ֗יךָ לַשָּׁוְא֙ כִּ֣י לֹֽא־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신 5:11)

- 제 3 계명 본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다.

2) LXX (Septuagint)

(출 20:7) οὐ λήμψῃ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τοῦ θεοῦ σου ἐπὶ ματαίῳ οὐ γὰρ μὴ καθαρίσῃ κύριος τὸν λαμβάνοντα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πὶ ματαίῳ

[Brenton]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thy God will not acquit that takes his name in vain.

(신 5:11) οὐ λήμψῃ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τοῦ θεοῦ σου ἐπὶ ματαίῳ οὐ γὰρ μὴ καθαρίσῃ κύριος τὸν λαμβάνοντα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πὶ ματαίῳ

[Brenton]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thy God will certainly not acquit that takes his name in vain.

- 칠십인역의 제 3 계명은 원문 그대로 똑같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Brenton 의 번역은 두 절 사이의 구두점이 출애굽기는 쎄미 콜론이고 신명기는 쉼표이고 또 신명기에 certainly 가 추가되어 있다.

3) Vulgate

(출 20:7) non adsumes nomen Domini Dei tui in vanum nec enim habebit insontem Dominus eum qui adsumpserit nomen Domini Dei sui frustra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shall take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in vain.

(신 5:11) non usurpabis nomen Domini Dei tui frustra quia non erit inpunitus qui super re vana nomen eius adsumpserit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he shall not be unpunished that taketh his name upon a vain thing.

- 벌게이트역의 제 3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어구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4) 영어 성경

① ESV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takes his name in vain.

② NASB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leave** him **unpunished** who takes His name in vain.

③ NIV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④ NLT

(출 20:7=신 5:11) You must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The LORD will not let you **go unpunished** if you misuse his name.

⑤ NJPS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swear falsely by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clear** one who swears falsely by His name.

⑥ 원문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며 영어 성경들은 모두 출애굽기 3 계명과 신명기 3 계명을 똑같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어 성경이 택한 어구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② 개역개정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③ 새번역

(출 20: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신 5:11)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④ 우리말성경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 5: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⑤ 쉬운성경

(출 20:7)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 5: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⑥ 한글 성경 중에 원문이 똑같은 제 3 계명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똑같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두 본문의 번역자들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차이일 것이지만 원문이 서로 똑같은 사실에 유의했어야만 했다. 번역자가 똑같은 우리말성경의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혀 유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지칭하며 단수 "너"로 번역해야 하는 것을 복수 "너희"로 번역한 것(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쉬운성경의 신명기)은 시정되어야 한다. 새번역은 복수로 번역하면서도 신 5:11 에서 출애굽기와 달리 "너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번역하였다.
- 제 3 계명에 1 인칭 서술이 나오지 않는 원문을 무시하고 원문에 없는 "나"라는 대명사를 "여호와" 앞에 붙여 "나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원문의 3 인칭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번역한 것((개역개정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신명기와 쉬운성경의 출애굽기))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원문의 3 인칭 서술을 그대로 잘 반영한 것은 개역개정의 출애굽기, 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 쉬운성경의 신명기이다.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원문에 두 번 똑같이 나오는데 새번역의 신명기와 쉬운성경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는 이 어구를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 벌에 관한 조항을 번역할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똑같게 번역한 것은 새번역뿐이다.

2. 제 3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7a = 신 5:11a

לֹא תִשָּׂא אֶת־שֵׁם־יְהוָה אֱלֹהֶיךָ לַשָּׁוְא [로 티싸 에트-셈-아도나이 엘로헤하 라샤브]

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에서처럼 동사(תִשָּׂא[티싸])의 대명사 주어와 명사(אֱלֹהֶיךָ[엘로헤하])에 붙은 접미대명사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가리키는 2 인칭 단수 "너는, 너의"이다.

②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 동사 תִּשָּׂא[티싸]는 강한 금지 명령을 표현한다. [로 티싸]는 "너는 절대로 들어 올리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

③ אֶת־שֵׁם־יְהוָה אֱלֹהֶיךָ [에트-셈-아도나이-엘로헤하]는 한정된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불변화사(에트) + 의존형 명사(셈) + 자립형 명사(아도나이) + 동격인 자립형 명사(엘로헤하)로 이루어진 명명구로서 동사의 목적어이다. [에트-셈-아도나이-엘로헤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이란 뜻을 갖는다.

④ לַשָּׁוְא[라샤브]는 비분리전치사+정관사+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이다.

- 명사 שָׁוְא[샤브]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과 거짓됨**(속임, 사기, 허탄, falseness, deceit, fraud)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이 두 가지 의미는 쓸모없고 결국 믿을 수 없는 대상에게 걸었던 기대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서로 관련되고 적용된다.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많은 경우 שָׁוְא[샤브]에는 "거짓됨, 속임"의 개념이 들어 있고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위증을 금하는 제 9 계명에서 "거짓 증인"을 표현할 때 출 20:16 은 עֵד שָׁקֶר[에드 샤케르]를 사용하고 신 5:20 은 עֵד שָׁוְא[에드 샤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שָׁוְא[샤브]가 "거짓"을 뜻하는 שָׁקֶר[샤케르]와 같은 의미인 것을 보여준다. שָׁוְא[샤브]와 병행어로 나오는 "거짓, 속임"을 뜻하는 단어들로 שֶׁקֶר[셰케르] 외에 כָּזָב[카자브](겔 13:6-9; 21:29[MT 34]; 22:18)와 חֶלְקָה[할라크](시 12:2[3]; 겔 12:24)와 מִרְמָה[미르마](욥 31:5; 시 24:4)[1] 그리고 "부정, 악의"를 뜻하는 אָוֶן[아벤](욥 11:11; 시 41:6[MT 7]; 슥 10:2) 등이 나온다.
- 어떤 경우 שָׁוְא[샤브]는 거짓됨의 뉘앙스 없이 "헛됨, 허사"의 의미로만 사용된 경우도 있다(말 3:14; 렘 2:30; 4:30; 6:29; 46:11; 시 127:1-2). שָׁוְא[샤브]는 "vanity, 헛됨"을 뜻하는 הֶבֶל[헤벨]과 병행어로 쓰였다(슥 10:2).[2] 그리고 시 31:6[MT 7]과 욘 2:8[MT 2:9]에서 הַבְלֵי שָׁוְא[하블레 샤브]는 실상이 없어 헛된 것 즉 거짓된 우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3] 렘 18:15 의 לַשָּׁוְא[라샤브]는 KJV 에서 "vanity"로,

---

[1] 시 24:4 의 אֲשֶׁר לֹא־נָשָׂא לַשָּׁוְא נַפְשִׁי [아셰르 로-나싸 라샤브 나프시]는 KJV 에서 "who hath not lifted up his soul unto **vanity**"로, NIV 에서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an idol**"로, NASB 에서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falsehood**"로, 그리고 ESV 에서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what is false**"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역개정은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로, 새번역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로, 쉬운성경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로 번역되었다.

[2] [슥 10:2]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אָוֶן[아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שֶׁקֶר[셰케르])을 보고 거짓(שָׁוְא[샤브])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הֶבֶל[헤벨]) 백성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 명명구 הַבְלֵי שָׁוְא [하블레 샤브]는 개역개정의 두 책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번역되었으나 NIV 는 두 책에서 똑같이 번역되어 있다.

NIV 에서 “worthless idols”로, NASB 에서 “worthless gods”로, 그리고 ESV 에서 “false gods”로 번역되었다.

- 제 3 계명에 나오는 전명구 לַשָּׁוְא[라샤브]는 시 139:20 과 렘 2:30; 4:30; 6:29; 46:11 에서 모두 “헛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4]

2) נָשָׂא לַשָּׁוְא [나싸 라샤브]의 번역 문제

① 금지 명령 부분과 제재 조항 부분에 한 번씩 나오는 נָשָׂא לַשָּׁוְא[나싸 라샤브]는 동사와 전명구로 이루어져 있다. 금지 명령 부분의 동사 תִּשָּׂא[티싸]는 파알 미완료 2 인칭 남성 단수이고 제재 조항 부분의 동사 יִשָּׂא[이싸]는 파알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이고 두 동사의 어근은 “들다, 들어 올리다”란 의미의 נשׂא[나싸]이다.

② נָשָׂא לַשָּׁוְא [나싸 라샤브]는 직역하면 “to lift up ... to falsehood/for nothingness 들어 올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하게 들어 올리다, 헛되이 들어 올리다”가 된다.

③ נָשָׂא לַשָּׁוְא [나싸 라샤브]에 대한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KJV/RSV/NASB/ESV: take in vain
- NRSV: make wrongful use of; misuse

[욘 2:8]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NIV: worthless idols)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시 31:6(MT 7)] 내가 허탄한 거짓(NIV: worthless idols)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4] 시 139:20 의 원문 정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는 Van Gemeren, Allen 등의 주석을 참고하라.

אֲשֶׁר יֹאמְרֻךָ לְמִזְמָה נָשְׂא לַשָּׁוְא עָרֶיךָ׃

NASB: For they speak against You wickedly, And Your enemies take Your name in vain.

NIV: They speak of you with evil intent; your adversaries misuse your name.

Douay-Rheims: Because you say in thought: They shall receive thy cities in vain.

개역개정: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לַשָּׁוְא[라샤브]는 개역개정에서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았으나 NIV 에서 모두 “in vain”으로 번역되어 있다.

[렘 2:30]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NIV: In vain I punished your people; they did not respond to correction.

[렘 4:30]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NIV: What are you doing, O devastated one? Why dress yourself in scarlet and put on jewels of gold? Why shade your eyes with paint? You adorn yourself in vain. Your lovers despise you; they seek your life.

[렘 6:29]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NIV: The bellows blow fiercely to burn away the lead with fire, but the refining goes on in vain

[렘 46:11]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NIV: Go up to Gilead and get balm, O Virgin Daughter of Egypt. But you multiply remedies in vain; there is no healing for you.

- NIV/NLT: misuse
- NJPS: swear falsely by

④ NJPS 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요나단 타르굼과 페시타역처럼 "swear falsely by"라고 번역하였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의미로 한정해 버린 번역이다.

- Childs 는 제 3 계명과 가장 유사한 출 23:1 과 제 9 계명에서 "거짓 증인"을 나타낼 때 [샤브]와 [샤케르]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출 20:6 과 신 5:20 그리고 제 3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호 4:2; 시 24:4; 겔 13:8 등이 NJPS 의 번역을 지지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Childs 는 [샤브]와 [샤케르]를 완전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 삼은 Dillmann 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샤브]가 [샤케르]처럼 거짓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헛되다, 근거 없다"는 어원적 배경을 따라 사 1:13; 시 31:7; 시 12:3; 겔 13:2 에서처럼 실체가 없어서 헛된 것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NJPS 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5]
- NJPS 의 번역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면 동사 사용에 있어서 어근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 3 계명에 사용된 동사의 어근은 **נשׂא**[나싸](파알, 기본능동 어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신 6:13; 10:20; 삼상 20:42) "나(=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레 19:12 [블로-티샤브우 비시미 라샤케르] וְלֹא־תִשָּׁבְעוּ בִשְׁמִי לַשָּׁקֶר)는 명령에 사용된 동사의 어근은 **שׁבע** [샤바](니프알, 기본재귀 어간)이다.

⑤ נָשָׂא לַשָּׁוְא [나싸 라샤브]에 대한 한글 성경들의 번역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 20:7a	출 20:7b	신 5:11a	신 5:11b
개역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개역개정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새번역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일컫다
우리말성경	함부로 들먹이다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다	함부로 쓰다	함부로 쓰다
쉬운성경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쓰다	함부로 부르다

- 개역만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일관되게 네 번 모두 똑같이 번역하였다.
-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서로 다르다.
- 새번역은 신 5:11b 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 우리말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고 출애굽기도 서로 다르다.
- 쉬운성경은 신 5:11a 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5]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410.

⑥ נָשָׂא לַשָּׁוְא [나싸 라샤브]의 "들어 올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하게 들어 올리다, 헛되이 들어올리다"라는 직역을 반영하고 "이름"을 목적어로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사는 "이름을 일컫다, 이름을 부르다"라고[6] 번역하기보다는 "이름을 쓰다, 이름을 사용하다"라고 번역하고 전명구는 "망령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 허황되게, 헛되게, 헛되이"라고[7]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출 20:7b = 신 5:11b

כִּי לֹא 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키 로 여나케 아도나이 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라샤브]

① כִּי[키]는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이다. 부사절의 주어는 יְהוָה[아도나이]이고 동사는 יְנַקֶּה[여나케]이다.

②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라샤브]는 관계사 [아셰르]가 이끄는 명사절로서 동사 יְנַקֶּה[여나케]의 목적어이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이란 의미이다.

③ 어근 נקה[나카]의 피엘(작위능동) 어간 동사 יְנַקֶּה[여나케]는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 KB/NASB: to leave unpunished 벌 없이 내버려 두다, 벌주지 않고 내버려 두다
- KJV/RSV/NIV/ESV: to hold guiltless 죄 없다고 여기다
- NJPS: clear 면제하다, 일소하다
- NLT: let ... go unpunished 벌 받지 않게 하다

④ יְנַקֶּה[여나케]에 대한 한글 성경들의 번역은 새번역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 20:7a	신 5:11a
개역	죄 없다 하지	죄 없는 줄로 인정치
개역개정	죄 없다 하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

[6] 남영신의 **국어사전**(1798)의 "부르다"와 "일컫다"와 "이르다"의 용례 설명에 의하면 이름이나 호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할 때 "부르다"를 쓰고 특정한 부류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 때 "일컫다"를 쓴다. "사람들은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일컫는다."는 문장에서 '한국'은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한국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성립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린다."는 표현은 부정확하고 "우리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르다"는 '어떤 내용으로 말함'을 뜻하므로 내용이 없이 단순히 호칭만을 말할 때는 쓰지 않는다.

[7] 이 희승의 *국어사전*과 남 영신의 *국어사전*과 *국어용례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헛-: 비었거나 참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허망(虛妄): 거짓되고 망령됨, 허탄(虛誕)
허황(虛荒): 거짓되고 터무니 없음
망령(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언행이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그런 언행
망령(妄靈)되이: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새번역	죄 없다고 하지	죄 없다고 하지
우리말성경	죄 없다 하지	죄가 없다고 하지
쉬운성경	죄 없다고 하지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⑤ יְנַקֶּה[여나케]는 "그가 **죄가 없다고 하실/여기실** 것이다"란 의미의 곡언법으로 "그가 **처벌 없이/처벌하지 않고/처형 않고/벌주지 않고/벌주심 없이** 내버려 두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여나케]를 부정하는 לֹא יְנַקֶּה [로 여나케]는 "그가 결코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혹은 "그가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는 뜻이 된다.

⑥ כִּי לֹא 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א [키 로 여나케 아도나이 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라샤브]는 제 3 계명이 "여호와"라는 이름 사용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대명사("나")를 쓰지 않고 명사("여호와")를 밝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제재 조항을 번역할 때 주어 יְהוָה[아도나이]와 שְׁמוֹ[시모]에 붙은 접미대명사가 3 인칭 남성 단수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원문에 없는 주격 대명사 "나"를 첨가하고 "그의 이름"을 뜻하는 שְׁמוֹ[시모]를 "나의 이름"으로 번역한 개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개역개정의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그리고 쉬운성경의 출애굽기는 모두 원문대로 여호와 앞의 "나"를 빼고 "나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

4) 번역

(출 20:7 = 신 5: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제 3 계명의 의미

1. 제 3 계명의 구조

1) 제 3 계명은 제 2 계명처럼 부정 형식의 금지 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벌을 언급하는 제재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구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지 명령(출 20:7a = 신 5:11a):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② 제재 조항(출 20:7b = 신 5:11b):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름 오용 금지 명령

1) נשׂא שֵׁם[나싸 셈]이란 표현은 제 3 계명 본문(출 20:8; 신 5:11) 이외에 오직 다른 두 곳 즉 출 28 장과 시 16 장에만 사용되었다.

① 출 28:12, 29 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에봇의 견대에 달린 두 개의 홍마노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과 에봇의 판결 흉패에 있는 12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할 것이라는 규례가 나온다. 이것은 제 3 계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시 16:4 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새번역은 시 16:4 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번역하였다. 시 16:4 의 נשׂא שֵׁם[나싸 셈]이 나오는 부분을 NIV 는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이라고 번역하고 ESV/NASB 는 "take their names on my lips"라고 번역하고 NLT 는 "speak the names of their gods"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시 16:4 은 제 3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위의 번역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명사 שָׁוְא[샤브]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과 거짓됨(속임, 사기, 허탄, falseness, deceit, fraud)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 출 23:1 과 신 5:20 과 욥 31:5 에서 שָׁוְא[샤브]는 "거짓"의 의미로 사용되고 렘 2:30; 4:30; 6:29; 46:11 에서 שָׁוְא[샤브]는 "헛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샤브]가 갖는 의미의 범위는 의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연속되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8] 거짓 증인, 거짓 증언과 관련하여 שָׁוְא[샤브]와 שֶׁקֶר[셰케르]가 병행어로 쓰이고 거짓 맹세와 관련하여 לַשֶּׁקֶר [라샤케르]가 사용되었다.

① [출 20:16] 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קֶר: 너는 **거짓 증인으로서**{부사적 대격}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위증하지** 말라

[신 5:20] וְ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너는 **망령된/헛된/ 거짓된 증인으로서**{부사적 대격}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망령된 증언/허위 증언/위증**하지 말라

② [출 23:1] לֹא תִשָּׂא שֵׁמַע שָׁוְא אַל־תָּשֶׁת יָדְךָ עִם־רָשָׁע לִהְיֹת עֵד חָמָס: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③ [레 19:12] וְלֹא־תִשָּׁבְעוּ בִשְׁמִי לַשָּׁקֶר וְחִלַּלְתָּ אֶת־שֵׁם אֱלֹהֶיךָ אֲנִי יְהוָ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일련의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레 19:12)과 비교하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더 모호하고 덜 구체적이다. 이 금지 명령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8] Miller, *Ten Commandments*, 72: "The uses of the word ***šāw'*** thus show that the word has a range of meanings, but the various uses indicate a relatively narrow continuum rather than significantly different meanings. There are close connections between what is untrue and what is empty and without substance, between what is false and what is worthless. Both kinds of things are in some sense unreal."

언어 행위 전 범위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시거나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 믿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게 보이려는 심리적 압박에서 개인 이름에 신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 금지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

3. 제재 조항

1)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3 계명을 지킬 이유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경고가 첨가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제 3 계명을 범한 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벌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 벌이 약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결코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나타내는 곡언법이다.[9]

2) 구체적인 벌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론상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어떤 벌도 포함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부정직한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한 백성들에게 기근과 칼로 인한 죽음(렘 14:14-16), 추방과 죽음(렘 27:15), 혹은 바벨론 왕에 의한 살해 (렘 29:21)가 임할 것을 말했다.[10]

3. 제 3 계명의 위치와 맥락

1. 제 3 계명은 계명 나름대로 고유한 내용을 갖지만 십계명 전체의 부분으로서 앞선 계명들을 되돌아 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계명들을 내다보고 있다.

2. 제 3 계명과 서언 그리고 1-2 계명[11]

1) 제 3 계명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서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하는 제 1 계명과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는 제 2 계명을

---

[9] T. Watson, *The Ten Commandments*, 91; P. G. Ryken, *Written in Stone*, 89. 더 적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도하고(less is said but much more is intended) 억제된 표현으로 도리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수사법인 곡언법(曲言法)/완서법(緩敍法)에 대한 영어 용어는 meiosis[maióusis] 혹은 litotes[láitətì:z]이다. "not a few"가 "many"를 의미하거나 "not bad"이 "very good"을 의미하거나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가 "Never do that!"을 의미하는 것은 곡언법/완서법이다. Hendriksen(*John*, 80)은 요 1:11 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1:12 의 영접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언법이라고 설명하였다.

[10] Stuart, *Exodus*, 456.

[11] Miller, *Ten Commandments*, 64-65.

강화하며, 언약 공동체가 여호와께 나아와 반응하는 일과 관련된 여호와의 실존의 다른 측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다룬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그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의 전 인격을 말로써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신 6:12-13 과 신 10:20 그리고 렘 4:1-2 은 제 3 계명이 앞선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신 일을 언급한 후에 모세는 그 계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여호와를 온 맘으로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가나안땅에서 배부르게 해 주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서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제 1 계명) 섬기며(제 2 계명) 그 이름으로 맹세할(제 3 계명) 것이니라(신 6:12-13)."고 권면한다. 모세의 이 말은 십계명의 서언에 이어 긍정적인 형식으로 제 1-3 계명이 차례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신 6:13] אֶת־יְהוָה אֱלֹהֶיךָ תִּירָא וְאֹתוֹ תַעֲבֹד וּבִשְׁמוֹ תִּשָּׁבֵעַ [에트-아도나이 엘로헤하 티라 브오토 타아보드 우비시모 티샤베아]는 "여호와 네 하나님"과 "그를" 그리고 "그 이름으로"라는 어구가 각 동사 앞에 나오는 어순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경배의 중심인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 신 6:13 에 대한 ESV 의 "**It is the LORD your God** you shall fear. **Him** you shall serve and **by his name** you shall swear."는 어순을 통하여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 NIV 의 "Fea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only* and take your oaths in his name."에서 두 번째 대등절을 "serve him only"라고 한 것은 원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NJPS 의 "Revere only the LORD your God and worship Him alone, and swear only by His name."은 원문의 의도를 부각시킨 번역이다.

② 신 10:20 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제 1-2 계명)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제 3 계명)"는 말씀도 제 3 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③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제 1-2 계명)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제 3 계명)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렘 4:1-2)"고 말했다. 예레미야의 이 말도 제 1-2 계명에 이어 제 3 계명이 뒤따라 나오며 제 3 계명이 제 1-2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렇게 제 3 계명은 제 1-2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일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분야 즉 하나님의 이름 사용과 관련된 올바른 경배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는 권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②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권면은 여호와 이외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것은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수 23:7)."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확인된다.

③ 맹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는 말씀을 주셨다.

4)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 있어서 그의 백성이 항상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의 자세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12] 잠언 9 장 10 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이다.

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음으로 망령되게 사색하지도 않고 입으로 망령되게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다.

②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신관을 갖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제 1 계명을 위반하게 되면 표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다른 신으로 전락시키는 제 2 계명 위반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 둘 모두 망령된 것으로 나타나는 제 3 계명 위반으로 이어진다.

③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나아가려는 죄성을 저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3. 제 3 계명과 4-10 계명[13]

1) 제 3 계명은 앞선 계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계명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서언과 제 1-2 계명에서 여호와는 1 인칭으로 말씀하시지만 제 3 계명부터 제 10 계명까지 여호와는 3 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다.

- 1 인칭 서술의 예는 서언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와 제 1 계명의 "*나* 이외에"와 제 2 계명의 "*나*, 여호와 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계명들"이다.
- 3 인칭 서술의 예는 제 3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과 제 4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제 5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등이다.

②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표현은 서언과 제 1-2 계명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2 번 사용된 반면 제 3-5 계명에서 출애굽기에 3 번 사용되었고 신명기에 7 번 사용되었다.

③ 제 2 계명처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도 모두 동기를 부여하는 절들을 갖고 있다.

2) 내용 즉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제 3 계명과 제 4 계명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안식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

---

[12] 김홍전, **십계명 강해**(서울: 성약, 2008), 100.

[13] Miller, *Ten Commandments*, 66-68.

3) 신명기의 제 3 계명과 제 9 계명에 "거짓됨, 속임" 그리고 "헛됨, 무가치함"의 의미를 갖는 שָׁוְא[샤브]라는 단어가 나온다.

① 제 3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20:7)와 신명기(5:11)에 똑같은 전명구 לַשָּׁוְא[라샤브]가 나오지만, 제 9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20:16)에는 명명구 עֵד שָׁקֶר[에드 샤케르]가 나오고 신명기(5:20)에는 명명구 עֵד שָׁוְא[에드 샤브]가 나온다.

② שָׁוְא[샤브]라는 단어에 의한 제 3 계명과 제 9 계명의 연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4. "여호와"라는 이름의 표기와 발음

1. 히브리어 성경에서 אֱלֹהִים[엘로힘](하나님, God)은 2062 번 사용되었고 יְהוָה[아도나이](여호와, Jehovah, LORD)는 6828 번 사용되었다. [아도나이]의 줄인 형은 יָהּ[야흐]이고 고유명사에서 יָהּ-/-יָהוּ[야후/야]로 접미되거나 혹은 -יְהוֹ/-יוֹ [요/여호]로 접두된다.

1) 줄인형 [야흐]는 출 15:2 의 עָזִּי וְזִמְרָתִי יָהּ([아지 브짐라티 야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다)와 사 26:4 의 כִּי בְיָהּ יְהוָה צוּר עוֹלָמִים([키 브야흐 아도나이 추르 올라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14] 그리고 시 68:5; 89:8; 94:7, 12; 118:14; 사 12:2; 38:11; 26:4 등에 사용되었고 시 135:1 의 הַלְלוּ יָהּ[할렐루 야흐]나 시 135:3 의 הַלְלוּ־יָהּ[할렐루-야흐]나 시 106:1 의 הַלְלוּיָהּ([할렐루야흐])처럼 할렐루야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2) 고유 명사의 뒤에 나오는 [-야후/-야]는 히스기야(הִזְקִיָּהוּ/הִזְקִיָּה [히즈키야후/히즈키야] "여호와는 강하시다")와 예레미야(יִרְמְיָהוּ/יִרְמְיָה [이르므야후/이르므야]) 등 많은 고유명사에서 볼 수 있다.

3) 고유명사의 앞에 나오는 [요-/여호-]는 요엘(יוֹאֵל[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과 요나단(יְהוֹנָתָן[여호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과 여호람(יְהוֹרָם[여호람] "여호와는 높으시다") 등 많은 고유명사에서 볼 수 있다.

2. יְהוָה의 발음

1) יְהוָה는 있는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붙여 읽을 수 없다.

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음은 어떤 모음도 갖고 있지 않다. 자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② 단어 초두 혹은 중간의 자음이 모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바가 오는데 두 번째 자음에는 시바도 붙어 있지 않다.

③ 첫 번째 자음은 시바를 갖고 있으므로 뒤로 붙여 음절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 번째 자음에 온 모음이 없어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붙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시바를 가진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은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붙여 읽을 수가 없다.

---

[14] YLT: For in Jah Jehovah is a rock of ages; NASB: For in GOD the LORD, we have an everlasting Rock; ESV: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NIV: for the LORD, the LORD himself, is the Rock eternal.

2) 쓰여져 있는 자음(크티브) יהוה에 붙인 모음은 אֲדֹנָי[아도나이]의 첫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갖고 있는 모음(크레)이다.

① אֲדֹנָי[아도나이]에 붙은 모음을 있는 그대로 쓰여진 자음(크티브) 에 붙이면 יְהֹוָה가 된다. 자음 י는 후음문자가 아니므로 합성시바를 취하지 못하고 단순시바를 취하기 때문에 쓰여진 자음(크티브)에 읽어야 할 אֲדֹנָי[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 주면 יְהֹוָה가 된다. BHS 에 יְהֹוָה라고 표기되고 어떤 책들에 יהוה라고 모음없이 네 자음만 표기하는 것은 보는 그대로 붙여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② 한글 성경의 "여호와"라는 명칭과 영어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Jehovah 라는 명칭은 쓰여진 자음(크티브 יהוה)에 읽어야 할 단어 אֲדֹנָי의 모음(크레)이 혼합된 יְהֹוָה를 그대로 붙여 읽은 것이다. 이것은 맛소라 학자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읽어버린 것으로 틀린 것이다.

3) 히브리 성경에서 יהוה가 יְהֹוָה로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한다.

① 미국 표준역(ASV)과 한글역에서는 틀린 혼성 음역대로 "Jehovah/여호와"로 번역되었다.

② 흠정역(KJV)에서는 이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절(출 6:3; 시 83:18; 사 12:2; 26:4)이나 여호와 이레(창 22:14)와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ORD 로 번역했고, 개역표준역(RSV)에서는 Jehovah 를 전혀 쓰지 않고 모두 LORD 로 번역했다.

4) 히브리어 성경에서 יהוה가 יְהוִה 혹은 יֱהוִה로 나오면 [엘로힘]이라고 읽어야 한다.

① 만일 אֲדֹנָי יהוה (305 번)처럼 원래의 אֲדֹנָי [아도나이]가 יהוה앞에 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도록 אֱלֹהִים[엘로힘]의 모음을 취하여 אֲדֹנָי יֱהוִה(창 15:2 "주 여호와") 혹은 אֲדֹנָי יְהוִה(삼하 7:18 "주 여호와")라고 표시하였다.

② 만일 יהוה אֲדֹנָי처럼 원래의אֲדֹנָי [아도나이]가 יהוה뒤에 오는 경우에도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엘로힘 아도나이]로 읽을 수 있도록 יְהוִה אֲדֹנָי(합 3:19 "주 여호와", 직역: "여호와 주")라고 표시하였다.

③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는 אֲדֹנָי יהוה (BHS אֲדֹנָי יֱהוִה 창 15:2; אֲדֹנָי יְהוִה 삼하 7:18; 사 56:8)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고 KJV/NASB/RSV/ESV 는 "(the 호격일 때 생략) Lord GOD"으로 번역하였고 NIV 는 "Sovereign LORD"로 번역하였다.

④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엘로힘 아도나이]으로 읽는 יהוה אֲדֹנָי(BHS יְהוִה אֲדֹנָי 합 3:19)에 대하여 KJV 는 "the LORD God"으로 번역하고 NASB 는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the Lord GOD"으로 번역하였고 RSV 와 ESV 는 원문의 순서대로 "GOD, the Lord"로 번역하였고 NIV 는 "Sovereign LORD"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다.

5) 이렇게 영어 성경은 יהוה를 번역할 때 대문자만을 쓰고 폰트의 크기를 첫 철자와 나머지 철자들을 다르게 하여 LORD, GOD 으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에 이 명칭이 있음을 밝혀 주었다.[15] 그러므로

---

[15]주절에 יְהוָה[아도나이]가 나오고 종속절에 줄인 형 יָהּ[야흐]와 יְהוָה[아도나이]가 나란히 나오는 사 26:4 의 영어 번역은 여호와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JV: Trust ye in the LORD for ever: for in the LORD JEHOVAH is everlasting strength:

NASB: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in GOD the LORD, we have an everlasting Rock.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폰트 크기가 다르지만 대문자만으로 된 LORD, GOD 등을 만나면 יהוה를 번역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6) Lord, lord, LORD, LORD 그리고 God, god, GOD 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경의 하나님은 God 으로 표기하고 다른 신들은 god 으로 표기하듯이 주님은 Lord 이고 주인은 lord 이다.

② 또박또박 알아보기 좋게 쓰라(print 하라)고 할 때 god 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 GOD 으로 쓰고 lord 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 LORD 로 쓴다. 따라서 lord 나 LORD 그리고 god 나 GOD 는 대문자이냐 소문자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것이다.

③ 대문자를 사용했으나 폰트 크기가 다른(첫 문자 L/G 는 다른 대문자의 폰트의 크기[11/10]와 같고 나머지 ORD/OD 는 폰트 크기가 작은 [8/7]) 영어 성경의 LORD 와 GOD 는 한글 성경의 "여호와"와 같은 것이고 יהו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④ 영어 성경에서 폰트의 크기가 다른 LORD, GOD 처럼 해야 할 것을 어떤 한영성경에서 폰트 크기가 똑같은 LORD, GOD 로 인쇄한 것은 영어 성경의 관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영 성경을 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창 2:4 의 "여호와 하나님"이 "LORD God"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LORD God"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LORD 처럼 대문자 폰트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7) 학자들은 יהוה가 발음되었다면 아마도 יַהְוֶה([야흐웨] Yahweh)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야(흐)웨]는 고유명사 הִזְקִיָּהוּ/הִזְקִיָּה [히즈키야후/히즈키야]에서 볼 수 있는 단축형 -yah/-yahu 에서 첫 모음 a 를 유추하고, 어근을 hwy 로 가정하고 (출 3:14 의 אֶהְיֶה[에흐예]와 비슷한) 미완료형 יַהְוֶה[예흐웨]에서 종음절 모음 e 를 유추하여 읽은 것이다.[16] 애굽의 엘레판틴에서 발견된 아람어 편지의 철자 yhw(yahu?), 희랍어 음역 Iao, Iabe, Iaaoue, Iaouai, Iae 등도 Yahweh 발음의 근거이다. [야(흐)웨]라는 발음은 학자들의 추측이므로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십계명 서언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Waltke 는 그의 *Old Testament Theology* 라는 책에서 여호와를 나타낼 때 그가 창세기 주석에서 사용한 Yahweh 나 잠언 주석에서 사용한 LORD 로 표기하지 않고 대문자 이탤릭체로 *I AM* 으로 표시하였다. 본 주해는 잘못된 발음이긴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굳어진 여호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RSV: Trust in the LORD for 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ESV: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NIV: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the LORD, is the Rock eternal.

[16] Waltke(*OT Theology*, 365 n. 37)는 *yah* 가 어근 *hy/wh* 의 기본능동 어간의 접두요소일 수 있지만 1 인칭에서 고증된 형 *'eh* 와 맞먹는 3 인칭 접두요소는 *yah* 가 아니라 *yih* 인 점을 들어 이러한 역사적 재구성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5.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용

1.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너무 신성하게 여기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배경을 제공하는 구절은 레 24:6 과 출 3:15 이다.
   1) 레 24:16 의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 사용을 두려워하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2) 출 3:15 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전하라는 말씀에 이어 " זֶה־שְּׁמִי לְעֹלָם וְזֶה זִכְרִי לְדֹר דֹּר [제-시미 르올람 브제 지흐리 르도르 도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는 설명을 갖고 있다. 이 설명 부분에서 "나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לעלם이란 자음에 לְעֹלָם[르올람]처럼 모음을 붙이면 "영원히, forever"라는 뜻이지만 לְעַלֵּם[르알렘]처럼 모음을 붙이면 "감출, 감추어야 할 to be hidden"이란 뜻을 갖게 된다.[17] 이것은 동일한 자음에 모음을 다르게 붙여 여호와란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이름"으로 여긴 배경을 보여 준다.
2.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여호와"란 이름을 유대인들처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되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예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신 10:8 cf. 민 6:22-27). 다윗 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대상 16:2).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수 2:12/6:22; 9:18-19; 삼상 14:39, 45; 20:42; 24:21-22; 25:34; 왕상 18:10, 15; 22:14; 왕하 2:2, 4, 6 cf. 출 22:11; 신 6:13; 10:20).
   3)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벧엘의 청소년들을 **저주하였다**(왕하 2:24).
   4)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렘 26:9; 16).
   5)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였다(왕상 18:36-37; 시 8:1, 9; 9:10; 86:11; 109:21; 116:4; 135:13; 사 63:16; 렘 10:6).
3. "여호와"를 비롯한 하나님의 이름 사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차일즈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18]
   1) 백성들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

[17] *KB* I: 834 는 어근 עלם[알람]이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로 기본능동(파알) 어간, 기본재귀(니프알) 어간, 사역능동(히프일) 어간, 사역재귀(호프알) 어간에 쓰인 것을 싣고 있다.

[18] Childs, *Exodus*, 411-412.

①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קרא[카라] to call).

② [시 72: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ברך[바라흐] to bless).

③ [시 69: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הלל[할랄] to praise)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④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בטח[바타흐] to trust)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⑤ [습 3: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חסה[하싸] to take refuge in) 보호를 받을지라

⑥ [신 18: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דבר[다바르] to say)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⑦ [렘 11:21]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נבא[나바] to prophesy)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더럽히거나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못하도록 경고 받았다.

① [레 20: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חלל[할랄] to profane)

②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נקב[나카브] to blaspheme)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③ [겔 43: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טמא[타마] to defile)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④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תפשׂ[타파스] to abuse) 두려워함이니이다

⑤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שׁבע לשׁקר[샤바 라샤케르] to swear falsely)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חלל[할랄] to profane)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6.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

1. "이름"과 내적 정체

1) "이름"이란 단어가 성경에 천 번 이상 나오는 것은 이 단어의 신학적 중요성을 일러준다.[19]

2)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인물이나 사물이 갖는 호칭(label)을 넘어서 그 이름을 갖는 인물 혹은 사물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20] 우리에게 이름은 이름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이름을 지닌 대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 대상의 내적 정체이다.

① 삼상 25:25 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라고 한 말은 이름과 이름을 갖는 대상이 동일한 것을 잘 보여준다.

②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름"에 대한 복수형(שֵׁמוֹת[셰모트]/ὀνόματα[오노마타])은 "persons, people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민 1:2, 18, 20; 3:40, 43; 26:53; 행 1:15; 18:15; 계 3:4; 11:13).

③ 구약에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도말하거나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멸절시키는 것을 나타낸다(왕하 14:27; 사 14:22; 습 1:4; 시 83:4).[21]

④ 성경에서 이름은 내적 정체이므로 이름을 주는 것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호세아의 아들들(호 1:6, 9)의 이름과 이사야의 아들들(사 7:3; 8:3)의 이름은 예언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창 17:4-5)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창 32:28)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마 16:17-18) 것은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다.

---

[19] *NIDOTTE* IV: 147, # 9005 에 의하면 히브리어 단어 שֵׁם([셈] "이름")은 단수형으로 770 번 그리고 복수형으로 84 번 사용되었다. *ZPEB* IV: 360 에 의하면 아람어 שֵׁם[슘]은 11 번 사용되었고 히브리어 שֵׁם[셈]의 동의어 זֵכֶר[제헤르]는 23 번 나온다. 히브리어처럼 아카드어도 "이름"과 관련된 동의어 둘을 갖고 있다. שֵׁם[셈]에 대한 아카드어 단어는 šumu[슈무]이고 זֵכֶר[제헤르]에 대한 아카드어 단어는 zikru[지크루]이다. *TDNT*(*Thel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G. Friedrich, translated & edited by G. W. Bromiley) V:261 에 의하면 칠십인역에서 ὄνομα[오노마]는 외경의 100 여 번을 포함하여 1000 여 번 나온다. ὄνομα[오노마]는 주로 히브리어 [셈]이나 아람어 [슘]을 번역하는데 사용되었고 다른 히브리어 זֵכֶר([제헤르] 신 25:9), נֶכֶר([네헤르] 창 21:23), שֶׁמַע([셰마] 창 19:13; 민 14:15; 신 2:25; 왕상 10:1; 대하 9:1; 사 66:19), שֹׁמַע([쇼마] 수 6:27; 9:9)등을 번역하는데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셈]이 ὄνομα[오노마]가 아닌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경우들의 예는 *TDNT* V:261 을 참고하라. 신약성경에서 ὄνομα[오노마]는 200 여 번 사용되었다.

[20] R. Youngblood, "Names in Biblical Times, Significance of," in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750: "In the ancient world a name was not merely a label but was virtually equivalent to whoever or whatever bore it."

[21] 바벨론 창조 설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이름을 갖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동일시하며 이름을 갖는 것은 사물이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Enuma Elish* I, 1-2, 7-8).

이렇게 성경에서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본성과 인격 또는 직분이나 사명 같은 것을 보여준다.

⑤ 이름은 내적 정체로서 개성(personality)을 예시하기(시 5:11; 시 9:11; 91:14; 마 1:21; 빌 2:9-10) 때문에 이름은 또한 권위/능력(authority/power)을 의미하기도 하고(마 7:22; 막 9:39; 눅 24:47; 행 4:7; 16:18; 19:17), 혹은 명성/평판(reputation)을 뜻하기도 하며(창 6:4; 11:4; 민 16:2; 대상 5:24; 잠 22:1; 전 7:1; 막 6:14; 눅 6:22; 계 3:1), 기념/기억(remembrance, memory)과 동의어로 병행을 이루기도 한다(출 3:15; 욥 18:17; 시 135:13).[22]

3)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①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창 32:29)"라고 반문했던 것과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삿 17:18)"고 대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신비스러운 성격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②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하는 편리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There were a lot of new faces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직역: 얼굴들]이 있었다."라는 문에서 "얼굴"이 신체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으로서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부분)은 하나님 자신(=전체)을 나타내는 제유(synecdoche)로 생각해야 한다.[23]

2. 정체로서 하나님의 이름

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이고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고 그 분의 신적 존재의 본질(the essence of his divine being)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리고 성품이 집중되어 있다.

2)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자주 병행어로 사용된다(신 28:58; 욥 1:21; 시 18:49; 68:4; 74:18; 86:12; 92:1; 사 25:1; 26:8; 48:9; 56:6; 겔 20:44; 말 3:16).[24]

---

[22] 보다 자세한 것은 Kaiser, "Name," *ZPEB* IV: 363-365 를 참고하라.

[23] Ryken, *Written In Stone*, 87: "A face is part of a whole, and thus it can stand for the entire person. Similarly, God's name represents his whole identity."

[24] 인용된 성경 구절들은 *ZPEB* IV(M-P): 364 에 Kaiser 가 열거한 것이다. Kaiser 가 언급한 암 2:7 은 적절하지 않은 구절이므로 아래에 제시하지 않았다.

[신 28:58-59]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this glorious and awesome name—the LORD your God—)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욥 1:21]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시 18: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그의 거룩한 이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시 33:20-21)."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고 말함으로써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시면 그의 이름도 거룩하다.

③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그를[=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라는 말씀에서 밝히 보여 주었다.

④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3)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25]

[시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 74: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 86: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시 92:1]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사 25: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사 26:8-사 26:9]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 56:6-사 56:7]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겔 20: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25] Allen P. Ross, *NIDOTTE* IV: 150: "The name of the LORD does what the LORD does."

[신 12:5, 21] (5)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 . . (21)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시 20:1-2] (1)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① 여호와 자신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성소에 거하고(신 12:5, 21) 백성을 보호하고(시 20:2) 열렬히 그의 명예를 지킨다(겔 36:22, 23).

②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것이다.

③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그의 권위를 갖는다(신 18:18-22).

④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고(욜 2:26), 사랑받고(시 5:11) 선포되고(시 22:22) 경외되고(말 4:2) 의지되고(시 52:9) 선언되고(사 12:4) 행동의

[겔 36:22-23] (22)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 18:18-22]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욜 2: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 5:11]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52: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사 12: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근거가 된다(미 4:5).[26]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런 것처럼 훼방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될 수도 있다(사 52:5; 렘 34:16; 겔 36:21-23).[27]

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동적인 힘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대표한다.[28]

4)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체적 임재를 뜻하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신명기와 열왕기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고려하면 잘 이해될 수 있다.[29]

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신 26:15) 어떤 장소나 구조물에 매여 있지 않고(왕상 8:27) 초월해 계시지만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출 20:24) 그의 이름을 두며(신 12:5; 14:24) 그의 이름이 거할(신 12:11; 14:23) 곳을 택하시며 내재해 계신다.

---

[26] Kaiser(*Toward OT Ethics*, 88)는 하나님의 이름에 ⑴하나님의 성품, 존재, 그리고 하나님 자신(시 20:1; 눅 24:27; 요 1:12) 이외에도 ⑵하나님에 대한 교훈, 교리(시 22:22; 요 17:6, 26), 그리고 ⑶하나님의 윤리적 지침과 도덕(미 4:5)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⑴ [시 20: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⑵ [시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 17:6, 26] (6)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 . (26)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⑶ [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27] [사 52: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렘 34:16]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겔 36:21-23] (21)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8] Ross, *NIDOTTE* IV: 150: "Thus, the name of the Lord stands for God's essential nature revealed to people as an active force in their lives."

[29] C. J. H. Wright, "God, Names of," *ISBE* II (E-J): 504.

②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왕상 8:20) 하나님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왕상 8:29-30)."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왕상 9:3)"고 말씀하셨다.

5)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수단이었고 예배의 목적이었다(창 12:8; 왕상 18:14; 습 3:9).

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시 54:1[MT 3])"라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병행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맺어진 개인적 관계가 구원과 도움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②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행 9:21)"라고 반문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간 초대 기독교인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욜 2:32; 롬 10:13).

③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마술에 사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종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주권을 악용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제 3 계명은 제 1-2 계명으로부터의 논리적인 발전이다.[30]

3. 계시로서 하나님의 이름

1) 하나님의 이름들은 계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의 속성과 뜻을 알리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알리시고 그 이름들을 통하여 보여 주신 계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

2) 출 6:3 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여호와란 이름이 명칭(appellative)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넘어 그 이름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출 14:4 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30] C. J. H. Wright, "God, Names of," *ISBE* II (E-J): 504.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도 홍해와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을 뜻하고 있다.

3) 족장들에게 호칭으로 이해되던 여호와란 이름 안에 간직된 계시가 출애굽의 사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유월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일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고 확인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특권의 프로그램 가운데 그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두시며 여호와란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지만(출 3:15) 주로 칭호로 사용되며 외적인 관계를 보였던 족장 시대를 지나 모세 시대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더 크고 더 풍부한 의미가 명백하게 알려져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부르는 이름이 되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점진적인 계시의 중심에 있다.

4)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 자신과 그의 행동의 동기에 관한 참된 모든 것을 알려 주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31]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며(겔 20:9, 14, 22, 44)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이름(명예, 명성)을 내신다(삼하 7:23; 느 9:10).[32] 하나님과 백성

---

[31] Cf. J. A. Motyer, "Name" in D. R. W. Wood ed., *New Bible Dictionary* 3r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6), 801-802: "The name is thus a summary way of stating what God is in himself (his name is all that is known to be true about him and his motives of action) and also what God is to others, allowing them to know his name (letting them into his truth) and sharing his name with them (letting them into his fellowship)."

[32] [겔 20:7-9, 21-22, 44] (7)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9)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 . . (13)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 . . (21)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22)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 . . (44)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이에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출 33:12, 18-19; 요 17:6).[33] 이 새로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집합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다(대하 7:14; 사 43:7; 렘 14:9; 15:16; 암 9:12).[34]

5)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던 예수님의 죄인 구원 사역을 통하여 보다 명백하게 드러났다.

① 예수님이 자신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지도록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라고 불렀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다(막 1:9-11).

② 예수님은 그의 계시적 사역 전체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요 17:6)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요 17:26)."라는 말로 묘사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7. 그리스도의 이름

1.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되었던 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되어 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신약은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마 1:21; 눅

[삼하 7:23-24] (23)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이름)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느 9: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이름)를 얻으셨나이다

[33] [삼하 7:23-24] (23)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이름)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느 9: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이름)를 얻으셨나이다

[34]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렘 14:9]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암 9:12]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1) 맨 마지막까지(빌 2:9-11; 계 19:16; 22:20-21)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다. 구원자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이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시인하는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빌 2:9-11). 신약에서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이어 받는다.

2.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행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된다.[35]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한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마 1:23)이란 이름은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던 여호와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주어졌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의 이름 "예수"(마 1:21; 눅 1:31)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던 여호와의 사역의 연속을 보여준다.
3. 구약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יהוה[아도나이])는 칠십인역에서 κύριος[퀴리오스]로 번역되었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가장 애용하는 이름 "주님(κύριος[퀴리오스])"이 된다. 교회의 가장 이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롬 10:9; 빌 2:9-11). 헬라어 κύριος[퀴리오스]라는 칭호는 구약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의 주님을 동일시하는 명백한 사례를 제공한다.[36]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한 경우 여호와(יהוה[아도나이] LORD)가 주님(κύριος[퀴리오스] Lord)으로 나온다. 신 6:4-5 과 막 12:29-30 그리고 욜 2:32 와 롬 10:13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신 6:4-5]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LORD)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LORD)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LORD)를 사랑하라 // [막 12:29-30]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Lord)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Lord)시라 (3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Lor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 [욜 2:32] 누구든지 **여호와**(LORD)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롬 10:13] 누구든지 **주**(Lord)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말해 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해질 수 있고 말해지고 있다.
   1)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듯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다.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

[35] Miller, *Ten Commandments*, 113.

[36] Miller, *Ten Commandments*, 113: "The term *kyrios* provides an explicit equation of the names of the Lord of Israel and the Lord of the church."

[행 4:17-18]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 의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였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였다.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시 105: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4) 여호와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되고 높임을 받았다.

[시 105:1-3] (1)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3)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 12:4-5] (4)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19: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5.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그의 성품, 존재, 본성을 나타낸다.[37]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행 9:14),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고(요 1:12; 2:23; 3:18; 행 3:16; 요일 3:23; 5:13),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행 2:38; 8:16; 10:48; 19:5; 롬 6:3; 갈 3:27 cf. 마 28:19),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행 9:29).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요 14:13-14; 15:16; 16:23, 26) 것은 전통적인 기도 공식에 대한 신비적인 의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마음, 목적에 일치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근거하여 귀신을 굴복시켰다(마 7:22; 눅 9:49; 10:17).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다(행 3:6; 14:10).

2) 예수님의 권위는 구원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의 능력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시된다(행 2:21; 4:12).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받는다(롬 10:13; 고전 1: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위대함 때문에 그의 영광스러운 본성이 모든 사람에 의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37] Kaiser, "Name," *ZPEB* IV: 365-366.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빌 2:9-11) 때문이다.

3) 빌립(행 8:12), 바울(행 9:27; 롬 1:15),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요삼 7)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설교하는 것(눅 24:27)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위하여 고난 받는 것(행 9:15-16)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살후 3:6; 고전 1:10; 5:4)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 권위,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계 19:16).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름 때문에 능욕 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다(마 10:22; 19:29; 24:9; 막 10:29; 13:12; 눅 6:22; 21:12, 17; 행 5:41; 9:16; 15:26).

6.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1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금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 14:6)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고, 제 2 계명에서 형상을 금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골 1:15)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라면, 제 3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행 4:12)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다.[38]

8.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39]

1.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일반적인 이름(엘, 엘로힘, 엘로아흐, 아도나이), 일반적 이름과 다른 요소가 복합적인 이름(엘 엘욘, 엘 샤다이 cf. 엘 올람, 엘 로이, 엘 벧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고유 명사인 언약적 이름(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기타 이름(반석[쑤르], 왕[멜레흐], 주라는 의미의 바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람어 아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지만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닛시, 여호와 로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등이 있다.
2. 일반적인 이름(초월성 강조):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셈족어적이고,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1) **엘로힘**(אֱלֹהִים)은 복수형(장엄복수, 강세복수)이지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단수로 간주되었고 초월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창조의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름이다.

---

[3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7-108.

[39] Bavinck, *Doctrine of God*, 98-110;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8-51; *ISBE* II(E-J): 505-508; *NBD* 420-422; *EDT* 464-468.

2) **엘**(אֵל)은 단수형이고 엘로힘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벧엘 같은 신적 요소를 갖는 고유 명사에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데 사용된 이름이다.

3) **엘로아흐**(אֱלוֹהַּ)는 엘로힘과 같은 의미로 시에 드물게 사용되는 이름이다(시 18:32; 욥 3:4).

4) **엘 엘욘**(אֵל עֶלְיוֹן)은 창 14:18, 19, 20, 22 와 시 78:35 에만 나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엘 없이 나오는) **엘욘**은 시에서 여호와/하나님과 동의어적으로 사용되고(민 24:16, 사 14:14; 시 9:2[MT 3]; 46:4[MT 5]; 시 97:9)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하신 자"로 번역된다. 엘욘의 어근은 알라(עלה)이며 "올라가다,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엘로힘을 수식하는 엘욘은 시 57:3; 78:56(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등에 나오고, 여호와를 수식하는 엘욘은 시 7:17[MT 18]; 47:2[MT 3](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등에 나온다. 히브리어 עֶלְיוֹן[엘욘]에 해당하는 아람어 단어는 단수 עִלָּיאָ[일라이아](단 4:17[MT 14]; 7:25)와 복수 עִלָּיוֹנִין[엘요닌](단 7:22, 25)이다.

5) **아도나이**(אֲדֹנָי)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어근(דין[딘] 혹은 אדן[아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전능하신 지배자로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40]

---

[40] *KB* I: 12 에 의하면 단수 명사 אָדוֹן[아돈]에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은 אֲדֹנִי[아도니] 그리고 잠 30:10 의 크티브 אֲדֹנוֹ[아도노]와 삼상 16:16 의 אֲדֹנֵנוּ[아도네누]뿐이다. אָדוֹן[아돈]의 복수 자립형은 אֲדֹנִים[아도님]이고 의존형은 אֲדֹנֵי[아도네]이다. 복수형에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으로 창 19:2 에서 단 한 번 אֲדֹנַי[아도나이]가 나오고 휴지형이든 아니든 אֲדֹנָי[아도나이]로 쓰인다. McComiskey 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표기되는 אֲדֹנָי[아도나이]가 단수 대상을 나타내는 장엄 복수형에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것이고 맛소라 학자들이 이름의 신성함을 표시하려고 기대되는 모음 부호 파타흐를 카마츠로 변경시킨 것으로 이해한다(*EDT* 466: "It appears, then, that it is best to understand the word as a plural of majesty with a first person suffixual ending that was altered by the Massoretes to mark the sacred character of the name [by adding a small external sign]."). 신 10:17 의 명명구에 복수 의존형이 쓰인 것은 장엄 복수형인 것을 보여주고 창 15:2 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처럼 번역된 것은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출 4:10, 13 에서 모세가 "오 주여"라고 부른 것처럼 번역된 것은 "오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번역될 수 있다.

[개역개정: 신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יְהוָה אֱלֹהֵיכֶם [아도나이 엘로헤헴] the LORD your God)는 신 가운데 신(אֱלֹהֵי הָאֱלֹהִים [엘로헤 하엘로힘] God of gods)이시며 주 가운데 주(אֲדֹנֵי הָאֲדֹנִים [아도네 하아도님] Lord of lords)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개역개정: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אֲדֹנָי יֱהוִה [아도나이 엘로힘] 직역: my Lord LORD 나의 주님, 여호와시여; NIV: O Sovereign LORD; KJV: Lord GOD; RSV/NASB: O Lord GOD)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개역개정: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בִּי אֲדֹנָי [비 아도나이] 직역: O my Lord 오 나의 주님이시여; NIV: O Lord)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6) **엘 올람**(אֵל עוֹלָם)은 단 한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다음에 동격으로 사용한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창 21:33). 사 40:28 에는 여호와 앞에 엘로헤 올람(אֱלֹהֵי עוֹלָם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온다. [엘 올람]과 [엘로헤 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는 여호와를 묘사할 때 [엘 하이](אֵל חַי "살아계신 하나님")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올람]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렘 31:3 무궁한 사랑; 사 54:8 영원한 자비; 시 104:31 영원한 영광; 시 117:21 영원한 신실)에서 계속 유지된다.

7) **엘 로이**(אֵל רֹאִי)는 창 16:13 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이고 "나를 보시는/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41]

8) **엘 벧엘**(אֵל בֵּית־אֵל)은 "벧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창 31:13 에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와 창 35:7 에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벧엘에 이르러 쌓은 단의 이름으로 사용한 이름이다.

9) **엘 엘로헤 이스라엘**(אֵל אֱלֹהֵי יִשְׂרָאֵל)은 "엘(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엘[하나님]"이란 뜻으로 창 33:20 에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세겜에 이르러 쌓은 단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엘[하나님]을 명백히 밝혀 부각시키는 의미가 들어 있다.

3. 일반적인 이름(내재성 강조):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엘로힘, 엘, 엘로아흐, 엘 엘욘, 아도나이와 달리 **엘 샤다이**(אֵל שַׁדַּי)와 **샤다이**(שַׁדַּי)는 자연세계의 모든 능력을 복종시켜 은혜의 사역에 쓰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이름이다.

1) **엘 샤다이**는 7 번 즉 창(5x) 17:1; 28:3; 35:11; 43:14; 48:3; 출(1x) 6:3; 겔(1x) 10:5 에 나오며, **샤다이**는 41 번 즉 창(1x) 49:25; 민(2x) 24:4, 16; 룻(2x) 1:20, 21; 시(2x) 68:14[MT 15]; 91:1; 사(1x) 13:6; 겔(1x) 1:24; 욜(1x) 1:15; 욥(31x) 5:17; 6:4, 14; 8:3, 5; 11:7; 13:3; 15:25; 21:15, 20; 22:3, 17, 23, 25, 26; 23:16;

출 4:10 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בִּי אֲדֹנָי** [비 아도나이]는 출 4:13(모세); 수 7:8(여호수아); 삿 6:15(기드온); 13:8(마노아)에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모두 "오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른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Waltke 는 McKosmickey 처럼 **אֲדֹנָי**[아도나이]가 창 15:2 에서처럼 호격으로 사용될 때 장엄복수형에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으로 "나의 주님 my Lord"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Waltke 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겔 13:9; 23:49; 욥 28:28)와 복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시 44:24)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의 의미가 불가능하므로 장엄복수형[아도님]+1 인칭 단수 접미사[아이]로 보는 것보다는 단수형[아돈]+ 강조의 접미사 [아이]로 보고 "Lord par excellence, Lord of all"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IBHS 7.4.3e).

[41]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샘 **בְּאֵר לַחַי רֹאִי** [브에르 라하이 로이] (창 16:14)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חַי**[하이]와 나를 보시는 것을 나타내는 **רֹאִי**[로이]가 들어 있다. 이 샘의 이름의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하나님)의 샘, the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이다.

24:1; 27:2, 10, 11, 13; 29:5; 31:2, 35; 32:8; 33:4; 34:10, 12; 35:13; 37:23; 40:2 에 나온다.[42]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 48 번 사용된 **샤다이**는 창세기(17:1; 28:3; 35:11; 43:14; 48:3)와 출 6:3 과 겔 10:5 에서는 엘과 결합된 **엘 샤다이**로 나오지만 욥기(31 번)를 비롯한 나머지 경우(창 49:25; 룻 1:20, 21; 겔 1:24; 사 13:6; 욜 1:15; 민 24:4, 16; 시 68:14[MT 15] 등)는 **샤다이**로만 나온다. 샤다이란 칭호는 족장시대에서 사사시대에 이르는 왕정 이전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샤다이는 족장시대 배경을 갖는 욥기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2) **[엘] 샤다이**는 칠십인역에서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Almighty" 욥 5:17; 35:13; 37:23), ὁ θεός[세오스]("God" 창 17:1), ὁ ἱκανός[히카노스]("Mighty, Competent One" 룻 1:20-21), ὁ ἰσχυρος[이스퀴로스]("Mighty One" 민 24:4), ὁ ἐπουράνιος[에푸라니오스]("Heavenly One") 등으로 번역되고 벌게이트역에서 omnipotens[옴니포텐스]로 번역되고[43] 영어역에서 the Almighty[올마이티]로 번역되었고 개역에서도 "전능자,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과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어원은 다음과 같다.[44]

① [샤다이]를 관계사 שֶׁ[셰]와 형용사 דַּי([다이] sufficient)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he who is sufficient 자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퀼라와 심마쿠스 헬라어 역본에 반영되어 ἱκανός[히카노스]로 번역되었다.

② [샤다이]를 어근 שׁדד([샤다드] to destroy, overpower 파괴하다, 제압하다")와 관련지어 "he who destroys, overpowers 파괴하는 자, 제압하는 자"로 해석한 것은 칠십인역에 반영되어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었다. 사 13:6("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שׁוֹד מִשַּׁדַּי 쇼드 미샤다이]")에 나오는 자음 שׁ[신]과 ד[달렛]의 사용을 통한 언어유희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다.

---

[42] 욥기에 31 번 나오는 [샤다이]는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전능자(20 번)"와 "전능하신 이(11 번)"로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욥 34:17(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에 나오는 '전능하신 이'는 [샤다이](Almighty)가 아니고 [카비르](mighty, great, much; cf. NIV: the just and mighty One; ESV: him who is righteous and mighty; (N)KJV: Him who is most just)이다. 시편에 2 번 나오는 [샤다이]는 시 68:14 에서 "전능하신 이/자"로 번역되고 시 91:1 에서 "전능자"로 번역되어 있다. 구약에 48 번 나오는 [샤다이]는 엘과 함께 나오는 경우(7 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홀로 나오는 경우(41 번) "전능자"나 "전능하신 이" 등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성구 색인에 좋을 것 같다. 욥기에서 [샤다이]는 징계하시고(욥 5:17), 경외할 할 분이시고(욥 6:4, 14), 공의로우시고(욥 8:3; 34:10, 12), 기도를 들으시고(욥 8:5; 21:25), 창조자이시다(욥 33:4).

[43] *KB* II, 1421, 2; *TDNT* III, 914-915.

[44] Hamilton, *Genesis 1-17*, 462-463; Hubbard, *Ruth.*, 124, n. 24; Daniel I. Block,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1999), 645-646.

③ Weippert(*ZDMG* 111 [1961]: 42-62)와 Wifall(*ZAW* 92 [1980]: 24-32)는 히브리어 שָׂדֶה[싸데]와 관련지어 "El of the plain, or the fields, or the steppe 평지/들/초원의 신"이라고 해석했다.

④ Walker(ZAW 72 [1960]: 64-66)는 수메르어 SÀ.ZU 와 관련지어 "all-knowing one, omniscient 전지한 자"로 해석하였다.

⑤ Bailey(*JBL* 87 [1968]: 434-438)와 Ouellette(*JBL* 88 [1969]: 470-471)는 이른 바벨론 문헌에 아무루(Amurru)신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칭호 *bēl sadê*("Lord of the steppe" 초원의 주)와 관련지어 "El of the steppe 초원의 신"이라고 해석하였다.

⑥ Albright(*JBL* 54 [1934]: 180-187)와 Cross(*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52-60)는 아카드어 *šadu* 와 관련지어 "one of the mountain 산의 신"으로 해석하였다. Campbell(*Ruth*, 76) Stuart(*Exodus*, 170)은 El Shaddai 를 "God the Mountain One"으로 설명하였다.

⑦ J. A. Hackett(*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h*, HSM 31 [Chico, CA: Scholars Press, 1989], 87)는 주전 7 세기 초 데이르 알라 발람 문헌에 천상 회의를 하는 신들을 지칭하는데 *šdyn* 과 *'lhyn* 이 번갈아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šadday* 가 천상회의의 우두머리인 El 의 별칭(epithet)이라고 제의한다.

⑧ Block 은 원래 "가슴"을 의미하던 셈족어 어근 ṭdw/y 이 우가릿어에서 "산"을 의미하는 것을 지적하며 [샤다이]가 Albright, Cross, Campbell 등이 주장하는 대로 "the one of the mountain 산에 거하는 신"을 뜻할 수도 있지만 어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Block 은 *šadday* 가 천상회의의 우두머리인 El 의 별칭(epithet)이라는 Hackett 의 주장대로 신들과 산을 연결하는 것은 천상회의가 보통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고 천상회의의 주재로서 샤다이는 그의 섭리적 보살핌과 징계적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인 모든 천군천사들을 다스리는 신인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3) **샤다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주로 축복과 심판과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창세기에 6 번 나오는 샤다이는 아브람과 관련하여 한 번(17:1) 그리고 야곱과 관련하여 5 번 즉 이삭의 축복, 하나님 자신의 벧엘 현현과 축복, 야곱 자신의 기도(43:14)와 벧엘 회고(48:3)와 축복(49:25)에 사용되었다. 창 43:14 을 제외하고 [엘] 샤다이란 칭호는 5 번 모두 번성할 후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 중 세 번은 "축복하다(28:3; 48:3; 49:25)"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45] 민수기에서 발람은

---

[4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463. 창세기에 [엘] 샤다이가 나오는 구절을 좀 더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⑴하나님은 아브람의 99 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 17:1)"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다.

⑵이삭은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창 28:3)"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였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24:4, 16)"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 13:6; 욜 1:15; 욥 5:17 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겔 1:24; 10:5; 시 68:15; 91:1 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46] 우주를 통치하시는(민 24:4, 16; 시 68:14[MT 15]; 욥 40:2; cf. 34:12-13) "전능자"는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운명을 약속하시고(창 17:1; 28:3; 35:11; 43:14), 의인과 악인에게 임할 운명을 정하시고(욥 27:14; 31:2), 우주의 통치자로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욥 6:4; 23:16; 27:14-23; cf. 그의 목소리의 두려움, 겔 1:24; 10:5) 공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주관하시고(욥 8:3; 24:1; 27:2) 사람들은 "전능자"에게 변호와 구원을 위한 호소를 드린다(욥 8:5; 13;3; 31:35).[47]

4. 고유 명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 계시의 절정은 **여호와**라는 그의 언약적 이름이다. 여호와란 이름 이외에 새로운 이름들이 더 계시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특별히 여호와란 이름에서이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⑶하나님은 세겜에서 벧엘로 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됨을 말씀하시고 아브람에게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창 35:11)"이라고 선언하시며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⑷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창 43:14)"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려보내시길 기도했다.

⑸야곱은 전에 벧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창 48:3)"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후손과 땅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회상하며 요셉에게 말했다.

⑹야곱은 "전능자(창 49:25)"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하였다.

Bavinck(101-102)가 설명한 대로 [엘] 샤다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복과 위로의 원천이고 약속 이행의 보증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란 이름을 알리신 후부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창 24:12), 이삭의 하나님(창 28:13); 야곱의 하나님(출 3:6); 너희 조상의 하나님(출 3:13, 15;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출 3:18), 이스라엘의 하나님(창 33:20)으로 언급된다.

[46] [사 13: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욜 1: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욥 5: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0: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시 68:15]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시 91: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7] Robert L. Hubbard,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125.

최고의 고유명사이다(출 15:3; 시 83:19; 호 12:5[MT 6]; 사 42:8).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처럼 동격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예: 출 5:1; 32:27; 삿 5:3; 룻 2:12; 사 17:6; 습 2:9; 말 2:16). 여호와란 이름의 배타적인 성격은 복수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접미대명사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에서도 잲 드러난다.

1) "만군의 여호와 יְהוָה צְבָאוֹת [아도나이 츠바오트]"처럼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츠바오트]가 더해짐으로 자주 강조된다(삼상 4:4; 삼하 6:2; 시 80:1-7[MT 2-8]; 시 89:5-8[MT 6-9]; 호 12:5[MT 6], 사 37:16). 그리고 시 80:7, 14[MT 8, 15]의 "만군의 하나님 אֱלֹהִים צְבָאוֹת [엘로힘 츠바오트]" 혹은 89:8[MT 9]의 "만군의 하나님 אֱלֹהֵי צְבָאוֹת [엘로헤 츠바오트]"처럼 [츠바오트]는 [엘로힘]이나 [엘로헤]에 더해지기도 한다.[49] 개역개정에서 "만군"으로 번역되어 있는 צְבָאוֹת[츠바오트]는 칠십인역에서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었고, NIV 에서 "Almighty"로 번역되었고 KJV 나 RSV 나 NASB 나 ESV 에서 "Hosts"로 번역되었다.

2) [츠바오트]가 붙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동격 형태로 나오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יְהוָה אֱלֹהִים צְבָאוֹת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시 80:4[MT 5])

② יְהוָה־אֱלֹהִים צְבָאוֹת אֱלֹהֵי יִשְׂרָאֵל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 엘로헤 이스라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 59:5[MT 6])

③ יְהוָה אֱלֹהֵי הַצְּבָאוֹת [아도나이 엘로헤 하츠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호 12:5[MT 6]; 암 6:14)

④ יְהוָה צְבָאוֹת אֱלֹהֵי יִשְׂרָאֵל [아도나이 츠바오트 엘로헤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 37:16)

⑤ אֲדֹנָי יְהוִה צְבָאוֹת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50] 주, 만군의 여호와 (사 3:15; 10:23; 22:5, 14,; 렘 2:19; 46:10; 49:5; 50:25, 31)

---

[48]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거의 대부분 אֱלֹהֵי יִשְׂרָאֵל [엘로헤 이스라엘]이지만 시 68:35 에는 אֵל יִשְׂרָאֵל [엘 이스라엘]로 나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아람어 표현은 אֱלָהּ יִשְׂרָאֵל [엘라흐 이스라엘]이다(스 5:1; 6:14; 7:15).

[49] Even-Shoshan 이 편집한 히브리어 성구사전에 의하면 여호와란 이름 다음에 정관사를 지닌 [하츠바오트]가 나오는 것은 단 한번(암 9:5)뿐이고 엘로헤 다음에 정관사를 지닌 [하츠바오트]가 나오는 것은 세 번(호 12:5[MT 6]; 암 3:13; 6:14) 뿐이다.

[50] 이 성호편, *성구대사전*에 실린 개역의 구절 들 중 시 69:6 과 사 28:22 의 경우에만 원문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았다. 개역개정에서 시 69:6 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고쳤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경우 개역개정은 개역을 그대로 따르며 사 3:15; 10:23; 22:5 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하고 사 28:22 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는데 사 28:22 도 "주 만군의 여호와"로 고쳐 모든 성경 구절이 통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וַאדֹנָי יְהוִה הַצְּבָאוֹת [아도나이 엘로힘 하츠바오트] 주, 만군의 여호와 (암 9:5)[51]

⑦ אֲדֹנָי יְהוִה אֱלֹהֵי הַצְּבָאוֹת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헤 하츠바오트]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암 3:13)[52]

⑧ מֶלֶךְ יְהוָה צְבָאוֹת [멜레흐 아도나이 츠바오트] 왕, 만군의 여호와 (슥 14:16-17)

3) McComiskey(*EDT*, 467)가 설명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위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힌 천사를 만난 사건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성막이 있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린 사건을 기록한 삼상 1:3 에 처음으로 나온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삼상 17:45) 골리앗을 물리쳤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인 시편 24 편을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라고 묻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 24:10)"라고 선언하며 끝마쳤다.

5.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여호와란 이름은 족장 시대에는 호칭(appellative) 혹은 칭호(title)로 이해되었으나 모세 시대부터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동격어구가 보여주듯이 여호와는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할 때나 맹세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었다.[53]
6.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 역사적 사건을 묘사할 때 나오는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들은 여호와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래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내용 즉 정보가 들어있다.[54]
   1) **여호와 이레**(יְהוָה יִרְאֶה): 이삭 대신 드려질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며(창 22:8, 14)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사를 위한 대속을 잘 보여준다.
   2) **여호와 닛시**(יְהוָה נִסִּי): 아말렉을 무찌르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이란 뜻이며(출 17:15) 적들 앞에서 그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

[51] 영어 성경에는 "(KJV/NASB/ESV) the Lord GOD of hosts"; "(RSV) the Lord, GOD of hosts"; "(NIV) the Lord, the LORD Almighty"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2] 영어 성경에는 "(KJV/NASB/ESV/RSV) the Lord GOD, the God of hosts"; "(NIV) the Lord, the LORD God Almighty"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3]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자세한 설명은 십계명 서언의 의미 부분을 참고하라.

[5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7.

3) **여호와 로페**(יְהוָה רֹפְאֶ):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여 마시도록 해 주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이시다."라는 뜻이며(출 15:26) 죄로 인해 병든 백성을 고쳐주시는(호 7:1)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준다.[55]

4) **여호와 샬롬**(יְהוָה שָׁלוֹם):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던 것을 깨닫고 죽을 줄 알았던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며(삿 6:24)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잘 보여준다.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기묘하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사 9:6).

5) **여호와 치드케누**(יְהוָה צִדְקֵנוּ): "여호와는 나의 의이시다"라는 뜻과 반대로 불의했던 왕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으로부터 난 한 의로운 가지로서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구원과 평안을 줄 메시야를 예언하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라는 뜻이며(렘 23:6; 33:16) 그의 아들의 의를 덧입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주는 은혜를 잘 보여준다.

6) **여호와 샴마**(יְהוָה שָׁמָּה):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성읍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며(겔 48;3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보여준다.

7. 하나님의 주요 이름 요약(Bavinck, 108): **엘로힘**은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엘 샤다이**는 천지만물을 은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호와**는 인애와 성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영광의 왕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의 성소에서 모든 피조물의 경외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8.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석**(סוּר[쑤르]): 여호와의 한결같고 지속적인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시에서 자주 쓰였다(신 32:4, 15, 18; 시 18:2, 31, 46 [MT 3, 32, 47]; 19:14 [MT 15]; 89:26 [MT 27]; 사 17:10; 26:4; 44:8; 합 1:12)

2) **왕**(מֶלֶךְ[멜레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시편에서 많이 쓰였다(5:2 [MT 3]; 44:4 [MT 5]; 68:24 [25]; 74:12; 84:3 [MT 4] 등). 모세오경 가운데 출 15:18; 민 23:21; 24:7; 신 33:5 에 쓰였고 사 41:21; 43:15; 44:6; 52:7 등에도 쓰였다.

3) "**주**"라는 의미의 **바알**(בַּעַל): "바알"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데 한 번 사용된 호세아 2:16[MT 18]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אִישִׁי[이시])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בַּעְלִי[바을리])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

[55] 출 15:26 에 나오는 문은 יְהוָה רֹפְאֶךָ [아도나이 로프에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이다. רֹפְאֶךָ[로프에하]는 분사 רֹפֵא[로페]에 2 인칭 남성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는 형이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 로페"로 고치는 것이 좋다.

[새번역] 그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KJV] And it shall be at that day, saith the LORD, [that] thou shalt call me Ishi; and shalt call me no more Baali.

[NASB] "And it will come about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Ishi And will no longer call Me Baali.

[RSV/ESV] "And in that day, say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will you call me 'My Baal.'

[NKJV] "And it shall be, in that day," Say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call Me 'My Master,'

[NIV]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you will no longer call me 'my master.'

4)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קְדוֹשׁ יִשְׂרָאֵל [크도시 이스라엘]):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명사화된 "거룩하신 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하심을 잘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키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한다(레 19:2).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사야에서 애용되고(사 1:4; 12:6; 40:25; 43:3; 60:9; cf. 6:3), 왕하 19:22; 욥 6:10; 렘 50:29; 호 11:9; 합 3:3 에도 나온다.

5)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עַתִּיק יוֹמִין [아티크 요민]; עַתִּיק יוֹמַיָּא [아티크 요마야]): 단 7:9, 13, 22 에 나오는 아람어로 쓰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결한 존귀하심(noble venerability)을 묘사한다.

9.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대로 신약에도 나온다.

1) "하나님"을 뜻하는 엘, 엘로힘에 해당하는 신약의 이름은 **세오스**(θεός)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뜻하는 엘욘은 신약에 휩씨스토스(ὕψιστος)로 번역되었다(막 5:7; 눅 1:32, 35, 76; 8:28; 행 7:48; 16:17; 히 7:1).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칭호도 신약에 그대로 나오고(마 15:31; 눅 1:68; 행 13:17)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이란 칭호 혹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행 3:13; 22:14) 혹은 "그들의 하나님"(히 11:26)이란 표현도 신약에 그대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히브리어 "אֵלִי אֵלִי [엘리 엘리]" 혹은 아람어 "אֱלָהִי אֱלָהִי [엘라히 엘라히]"는 헬라어로 "θεέ μου [세에 무](마 27:46)" 혹은 "ὁ θεός μου [호 세오스 무] (막 15:34)"라고 번역되었다.[56] 일반적인 이름 "하나님"이 소유격(속격) 대명사와

---

[56] [시 22:1 (MT2)]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MT: אֵלִי אֵלִי לָמָה עֲזַבְתָּנִי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아람어): אֱלָהִי אֱלָהִי לְמָה שְׁבַקְתַּנִי [엘라히 엘라히 라마 시바크타니]

LXX: ὁ θεὸς ὁ θεός μου πρόσχες μοι ἵνα τί ἐγκατέλιπές με

결합되어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히 8:10; 계 7:12; 19:5; 21:3). 구약의 민족적 개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개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

2) 칠십인역에서 츠바오트(צְבָאוֹת)나 샤다이(שַׁדַּי)에 상응하는 **판토크라토르**(παντοκράτωρ)는 신약에서 10 번 사용되었다. 판토크라토르는 고후 6:18 에서 퀴리오스와 함께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로 나온다.[57] 나머지 9 번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 1:8 에서만 단독으로 나오고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 세오스 호 판토크라토르]처럼 세오스와 함께 두 번(계 16:14; 19:15) 나오고[58]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호 세오스 호 판토크라토르]처럼 퀴리오스와 세오스와 함께 여섯 번(계 4:8; 11:17; 15:3; 16:7; 19:6; 21:22) 나온다.[59]

Brenton: "O God, my God, attend to me, why hast thou forsaken me?"

[막 15:34]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ελωι ελωι λαμα /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로이 엘로이 라마/레마 싸바크사니]

[마 27: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ἐλώι / ηλι ἐλώι / ηλ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로이/엘리 엘로이/엘리 레마 싸바크사니]

[57]고후 6:18 은 삼하 7:8, 14 을 인용하는 말씀이다. 삼하 7:8 의 "만군의 여호와"는 칠십인역에서 "전능하신 주"로 번역되고 고후 6:8 에 70 인역 그대로 "전능하신 주"로 인용되었다.

[고후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NIV/KJV/RSV/NASB: the Lord Almighty)의 말씀이니라

[삼하 7:8, 14] (8)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יְהוָה צְבָאוֹת [아도나이 츠바오트], LXX: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 NIV: LORD Almighty; KJV/RSV/NASB: LORD of hosts)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 . . (14)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58] 개역개정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16:14; 19:15)"란 번역은 히브리어 "만군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관사를 지닌 [판타크라토르]를 한정용법(cf. NIV: God Almighty)으로 보지 않고 독립용법으로 보고 동격처럼 간주한 것이다.

[59] 개역개정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4:8; 11:17; 15:3; 16:7; 19:6; 21:22)"란 번역도 히브리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관사를 지닌 [판타크라토르]를 한정용법(cf. NIV: the[/our] Lord God Almighty)으로 보지 않고 독립용법으로 보고 동격처럼 간주한 것이다.

3) 거룩하신 이[카도시]에 해당하는 **호씨오스**(ὁ ὅσιος [하나님] 계 16:5; [그리스도] 행 2:27; 13:35=시 16:10)와 **하기오스**(ὁ ἅγιος [하나님] 요일 2:20; [그리스도] 계 3:7; cf. 행 3:14; 막 1:24; 눅 4:34; 요 6:69),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데스포테스**(δεσπότης 눅 2:29; 행 4:24; 계 6:10),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야샤]를 반영하는 구원자를 뜻하는 **쏘테르**(σωτήρ [하나님] 눅 1:47; 딤전 1:1; 2:3; 4:10; 딛 1:3; 2:10; 3:4; [그리스도] 눅 2:11; 행 13:23; 빌 3:20; 요일 4:14), "왕"을 의미하는 멜레흐에 해당하는 **바씰류스**(βασιλεύς 마 5:35; 딤전 1:17; 계 15:3) 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60] "만왕의 왕"은 항상 "만주의 주"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딤전 6:15; 계 17:14; 19:16).

4) 여호와는 신약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처음과 나중/마지막," "시작과 끝/마침"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계 1:4, 8, 17; 2:8; 21:6; 22:13) 칠십인역을 따라 **퀴리오스**(κύριος)로 번역되었다. "만군의 여호와 יְהוָה צְבָאוֹת [아도나이 츠바오트]"는 신약에서 "만군의 주"로 번역되거나(롬 9:29 κύριος Σαβαὼθ = 사 1:9[LXX: κύριος σαβαὼθ]; cf. 약 5:4) "전능하신 주"로 번역되었다(고후 6:18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 삼하 7:8[LXX: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여호와 하나님"은 "주 하나님"(눅 1:16; 행 7:37; 벧전 3:15; 계 1:8; 22:5)으로 번역되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칠십인역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4:8; 11:17; 15:3; 16:7; 21:22)"로 번역되었다. 퀴리오스는 "힘"을 뜻하는 κύρος[퀴로스]에서 유래하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주님, 소유주, 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퀴리오스는 하나님(마 5:33; 눅 1:6)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었다(마 22:44; 막 12:36; 눅 20:42; cf. 시 110:1).[61] 부활과 승천 그리고 좌정을 통한 승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교회의 최초의 고백이다(행 2:36; 롬 10:9; 빌 2:11).

5) 아버지

① 구약의 신정 통치적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אָב**[아브])이시고(신 32:6; 시 103:13; 사 63:16; 64:8; 렘 3:4, 19; 31:9; 말 1:6; 2:10; cf. 신 1:31; 8:5)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출 4:22; 신 14:1; 32:19; 사 1:2; 30:9; 렘 31:20; 호 1:10; 11:1). 구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나타내는 속격을 동반한 아버지로 언급된 것은 13 번(신 32:6; 사 63:16; 64:8; 렘 3:4, 19; 31:9; 말 1:6; 2:10; [다윗 계보의 왕, 메시아 관련] 삼하 7:14; 대상 17:13; 22:10; 시 2:7; 89:26) 정도 나온다.

---

[60] 메시야 왕

= 유대인의 왕: 마 2:2; 27:11, 29, 37; 막 15:2, 9, 12, 18, 26; 눅 23:3; 37-38; 요 18:33

= 이스라엘의 왕: 마 27:42; 막 15:32; 요 1:49; 12:13

[61] [시 110:1] 여호와께서(יְהוָה[아도나이] = LXX ὁ Κύριος] 내 주에게[לַאדֹנִי[라도니] = LXX τῷ Κυρίῳ μου]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막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κύριος] 내 주께[τῷ κυρίῳ μου]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②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태도와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그것은 관심과 사랑과 연민과 인내는 물론이고 징계와 교정을 포함한다. 이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단수로 언급된다(출 4:22; 신 1:31; 8:5; 시 103:13; 잠 3:12; 렘 31:9, 20; 호 11:1).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인 다윗 왕조의 왕의 아버지로서 묘사된다(삼하 7:14; 대상 17:13; 22:10; 시 2:7; 89:26). 이와 보완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믿고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빈번하게 반역적이고 믿음없고 불순종한 아들들에 의해 무시당하신다(사 1:2; 30:9; 렘 3:4, 19; 말 1:6).

③ 신약에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πατήρ[파테르])로 묘사되기도 한다(고전 8:6; 엡 3:15; 히 12:9; 약 1:18; cf. 신 32:6). 그러나 대체로 아버지란 이름은 우선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며(cf. 마 3:17; 막 1:11; 눅 3:22; 막 9:7) 하나님의 아들(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믿는 자녀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신자들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부자(父子) 관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부자관계의 그림자요 예표이었다.

④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복음서에 60 여 번 나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17 장)"[62] 혹은 "아빠 아버지(막 14:36)"로 [63] 부르시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시고(요 14:6)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13; 요 15:16; 16:23).

---

[62] [요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Πάτερ)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직역: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63] 신약 성경에 3 번 즉 막 14:36 과 롬 8:15 과 갈 4:6 에 나오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 **אַבָּא**[아바]를 음역한 헬라어 αββα 를 번역한 것이다. 아람어 [아바]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영어 "daddy"와 비슷하다. 그러나 Ryken(*The Prayer of Our Lord*, 23)이 지적한 대로 아람어 [아바]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를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부를 때도 사용한 단어이므로 "Daddy"보다는 "Dear Father" 혹은 "Dearest Father"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아바]를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어린 아이가 그의 아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친밀함(intimacy)과 성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경외심(reverence)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아바]를 사용한 것은 그의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 주셨다.

[막 14:36] **아빠 아버지**여(Αββα ὁ πατήρ) 아버지께는[직역: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⑤ 이렇게 **아버지**란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되었고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이름 여호와를 보충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는 최고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왕이시오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개개인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에 이르게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출 6:7; 레 26:12; 렘 24:7; 30:22)"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⑥ 엘로힘이란 이름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결과들을 받아 누리게 된 신자들은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갖는다(롬 8:15-17).[64]

9.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성경의 예들

1.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모독**된 사건(레 24:10-16)과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즉 **주술**(신 18:9-15; 삼상 24:3-25; 행 19:8-20)과 **거짓 예언**(신 18:18-22; 왕상 22:5-28; 겔 13:1-9; 렘 14:16-16; 29:8-9)과 **거짓 맹세**(렘 5:1-2; 마 26:69-74)와 관련된 일을 기록하며 하나님 이름의 오용을 경고하고 있다.[65]
2. 이름 모독
   1) 이스라엘 여인(단 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레 24:10-11).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레 24:14)."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레 24:15-16)."는 말씀을 전하셨다.
   2)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제 3 계명의 경고 말씀을 혼혈 이방인에게도 적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었다.
3. 주술

---

[64] [롬 8:15-17] (15)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αββα ὁ πατήρ**)라 부르짖느니라 (16)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갈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αββα ὁ πατήρ**)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5] Douma, *Ten Commandments*, 74.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 일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sorcery)을[66]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다(신 18:9-15).[67]
2) 사울은 전에 자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침략해 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불레셋과 싸우다가 죽었다(삼상 24:3-25). 이 사건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대상 10:13-14)는 주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오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주술이 여호와께 얼마나 큰 범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준다.[68]
3) 행 19:8-20 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으나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2 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며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행 19:13)."고 하였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 때 악귀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행 19:15)?"라고 말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므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책들(은 오만의 값)을 모아 불태우는 일도 일어났다. 구원을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 전파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 예수의

---

[66] 남영신(*국어사전*, 1997)은 주술(呪術)을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한 힘을 빌려 길흉을 점치고 화복을 비는 술법이라고 풀이한다.

[67] [신 18:9-15]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68] [대상 10:13-14] (13)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름을 허탄하게 사용하던 마술사들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69]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 7:21-23)을 생각하게 해 준다.[70]

4. 거짓 예언

1) [왕상 22:5-28]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합으로 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사백인으로부터 주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들과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아합은 흉한 일만 예언하므로 미워하는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지적하였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왕상 22:11)."라고 말하였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이다(왕상 22:12)."라고 예언하였다. 미가야는 자신을 부르러 온 사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아합의 승리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왕상 22:11)."라고 말하며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였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의 무익함을 보여주며 신 18:18-22 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준다.[71]

2)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들은

---

[69] 남영신(*국어사전*, 716)은 마술(魔術)을 사람을 호리는 이상한 술법 혹은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짓을 해 보이는 재주라고 풀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 보이는 마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마술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제 3 계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 장의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금한 주술과 같은 것이다.

[70] [마 7:21-23]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1] [신 18:18-22]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렘 14:15-16)"고 말씀하셨다.

3)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겔 13:2)" 그리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겔 13:3)"라고 불렀다. 겔 13:6-9 과 렘 29:8-9 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이 주술과 같음을 보여 준다.

① [겔 13:6-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u>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u>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u>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u>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u>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u>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u>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u>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② [렘 29:8-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u>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u>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거짓 맹세

1) 마태(26:69-74)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 말했던 사건을 기록할 때 첫 번째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고 서술하였다.[72] 베드로가 맹세할 때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의 맹세와 저주는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라는 명령이 있다(신 6:13; 10:20).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렘 4:1-2)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은 거짓 맹세이므로 제 3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렘 5:1-2).

[72] 마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베드로가 "부인하였다(14:68, 70)"라고 기록하였고, 세 번째는 마태처럼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14:71)"라고 기록하였다. 누가(22:56-62)와 요한(18:15-18, 25-27)은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고만 기록하였다.

10. 제 3 계명과 맹세

1. 구약의 맹세, 서원에 관한 교훈

1)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고 가르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레 19:12)."고 가르쳤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다.

2) 모세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하여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 30:2)." 그리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신 23:21)."고 가르쳤다.

3) 예레미야는 모세의 가르침을 반영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르게 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렘 4:1-2) 공의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을 거짓 맹세로 간주하였다(렘 5:1-2).

2. 신약의 맹세에 관한 교훈

1)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가운데 맹세와 관한 교훈을 주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2)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마 5:33-37] (33)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23:16-22]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3) 야고보의 권면은 다음과 같다.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3. 맹세 여부

1) 모세와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구약은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상반된 듯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성경의 맹세나 서원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맹세는

허락되는 것인가? 맹세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맹세는 하라고 명령된 것인가? 맹세하지 말라는 금지는 절대적인가? 바리새인의 맹세에 대한 해석의 잘못은 무엇인가?

2) 맹세나 서원은 사람이 자주 자주 거짓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이 그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말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73]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신 23:23)."는 말씀처럼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의 단음절어 "yes"와 "no" 이외에 다른 장황한 수식어를 사용하기 위해 숨을 낭비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맹세하며 말씀하기도 하셨다(창 22:16-17; 히 6:13-18).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불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②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셨고(창 9:9-11)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맹세하셨고(눅 1:68, 73)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맹세하셨다(시 16:10; 행 2:27-31).[74] 이사야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사 45:21 하-23)."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③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고 맹세 요구를 받았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대답하셨다.

④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4) 성경의 인물들과 천사가 맹세했다는 기록이 있다.

---

[73]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The Sermon on the Mount* BST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8), 102.

[74] D. A. Carson,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8), 47.

① 구약에 아브라함(창 14:22-24; 21:23-24), 이삭(창 26:31), 야곱(창 31:53), 요셉(창 47:31), 여호수아(수 9:15, 19), 이스라엘 백성(삿 21:5), 보아스(룻 3:13), 다윗과 요나단(삼상 20:3, 12-13, 42), 다윗(삼상 24:22; 삼하 3:35; 왕상 1:29-30), 오바댜와 엘리야(왕상 18:10, 15) 등이 맹세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② 신약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롬 1:9; 빌 1:8; 살전 2:10)" 혹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후 1:23; 살전 2:5)" 혹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갈 1:20)/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신다(고후 11:31)"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참된 것을 보여주었다.

③ 한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다(계 10:5-7).

④ 히 6:13-20 은 사람들 사이에 맹세가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75]

5)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고 천사가 맹세하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맹세를 한 것은 성경에 맹세가 허용된 사실을 보여준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01)은 이러한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므로(신 6:13; 10:20; 렘 4:1-2; 히 6:16) 정부의 관리가 백성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맹세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출 22:11; 느 13:25)고 가르친다. 이렇게 맹세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맹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하라고 명령된 것도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6)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 렘 4:1-2; 12:16)"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마 5:17-20) 가르치신 산상수훈(마 5-7 장)의 맥락에서 주신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해할 때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해석을 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맹세 자체와 맹세를 지킬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맹세하는데 사용되는 형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

[75] Douma(*Ten Commandments*, 90, 각주)에 따르면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창 42:15-16)" 맹세하고, 한나가 엘리에게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삼상 1:26)" 맹세하고, 아브넬이 사울에게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삼상 17:55)" 맹세한 것은 William Perkins 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처럼 잘못된 맹세로 죄를 지은 것으로 보거나 맹세로 볼 필요가 없으며 강한 어조로 호소하기 위한 언어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맹세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들어 맹세한 것은 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이 말째 아우를 데려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는 요구의 진지함을 보이려고 했고,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부각하려고 했고, 아브넬이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대답이 참된 것임을 보이려고 했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맹세는 맹세라기보다는 강한 어조로 윗사람에게 호소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에서 "망령되이"라는 어구보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어구에 무게를 두며 거짓 맹세를 위증(자신이 한 말에 대한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모독(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6]

③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형식을 사용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형식을 사용한 맹세는 지키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을 사용하여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라면 절대적으로 지켰을 것이지만) 하늘, 땅, 예루살렘, 혹은 머리를 들어 맹세하였으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러한 위선에 대하여 예수님은 맹세 공식에 사용된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사용하여 맹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시며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이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고, 머리가 맹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세시며 자연적으로 희고 검도록 통제하시는 것임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의 지적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맹세 공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이 된다.

⑤ 어떠한 말도,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맹세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 없다.[77] 그러므로 진실함을 드러내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에 지나는 것은 바로 악 즉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서 좇아 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맹세는 사소한 것이 없고 맹세는 변명하고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맹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엄숙한 약속이다.[78]

7)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맹세(성전의 금 혹은 제단의 예물로 맹세)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성전 혹은 제단 혹은 하늘로 맹세)를 구분한 것의 어리석음도 지적하셨다.

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경우 지켜야 한다면 성전으로 맹세한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한 것이므로 더더욱 지켜야 한다.

---

[76] Stott, *Sermon on the Mount*, 100: "They argued that what the law was really prohibiting was not taking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but taking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False swearing', they concluded, meant profanity (a profane use of the divine name), not perjury (a dishonest pledging of one's word)."

[77] Sinclair B. Ferguson, *The Sermon on the Mou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97.

[78] Carson, *The Sermon on the Mount*, 48.

②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경우 지켜야 한다면 제단으로 맹세한 경우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이므로 더더욱 지켜야 한다.

③ 하늘로 맹세한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바리새인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교정해 주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금지를 문맥을 배제하고 절대적인 금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맹세 형식을 가지고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며 말한 그대로 지킬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관리가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맹세할 수 있다.

②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이 맹세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 맹세를 거절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79] 16 세기의 재세례파 그리고 오늘날의 퀘이커 교도들이 법정에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4. 맹세의 목적

1) 맹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80]

2) 맹세는 사람들이 모든 반론의 종결로서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이다(히 6:16).

① 하나님 이외에 누가 더 클 수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속속들이 알며(시 139:1-6) 모든 거짓 맹세에 대하여 벌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진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서원이나 선언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를 선택해야 한다면 맹세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② 어느 다른 존재와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호소하는 참된 맹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다른 신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신 6:13-15; 수 23:7-8; 신 10:20-21).

3) 맹세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 놓이게 하므로 맹세를 존중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거짓을 삼가고 싫어하며 자신의 직책을 진지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79] Stott, *Sermon on the Mount*, 102.

[80] Douma, *Ten Commandments*, 90-91.

① 맹세를 지키려는 군주는 백성의 권리를 존중하며 선정을 베풀고, 맹세한대로 인술을 베푸는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헌신하고, 맹세한대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법정에서 맹세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며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거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②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레 19:12) 것임을 명심하며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실천한다면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③ 현대 사회에서 위증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가하므로 위증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는 위증에 대한 벌을 감수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단지 재판관을 속이고 있거나 이웃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위증에 대하여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④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만큼 맹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심각하게 행해져야하고 맹세한 자는 맹세한 대로 진실함을 보이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4) 우리는 성급하게 충동적인 서원이나 불합리한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81] 입다의 성급한 서원과 사울의 불합리한 맹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① 삼상 14 장에 의하면 사울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부대로 쳐 들어가 20 여명을 도륙한 일로 발단이 된)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왕으로서 불합리한 맹세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전폭적으로 누리는 일을 방해하였다. 사울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삼상 14:24)."라고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써 백성을 피곤하게 하여 완승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고 부친의 맹세를 모르고 꿀을 먹은 아들 요나단을 하마터면 죽일 뻔하였다. 요나단이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삼상 14:29-30)?"라고 한 말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백성의 심히 피곤한 상황은 그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다.

② 삿 11 장에 의하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여호와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삿 11:29)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듯 착각하고 성급하게 불필요한 서원을 하였다(삿 11:30-31).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왔으나 타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입다는 그의 성급했던 서원 때문에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무남독녀를 잃게 되었다(11:34-40). 입다의 서원은 성급한 것이었고 승리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호와의 호의를 사려고 충동적으로 한 것이었다.

---

[81] Watson, *Ten Commandments*, 91.

③ 지키기 힘든 것으로 드러날 서원이나 맹세는 피하는 것(잠 20:25; 전 5:2-6)이 최선이다. 서원은 여호와의 호의나 환심을 사기 위해 해서는 안 되며 그 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려진 서원과 맹세라야 후회할 것이 없게 된다.

④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민 30:2-13; 신 23:21-23; 시 15:4; 66:14; 76:11; 행 5:1-4).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서원이나 맹세는 지켜져서는 안 된다.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딸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었다(민 30:5, 8, 12-13). 레위기 27 장은 사람, 가축, 밭 등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지만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다.

- 사울이 백성의 간청에 못 이겨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은 것은 왕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한 일이었다.
-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었다. 레위기 27 장에 근거하여 입다가 딸의 값을 세겔로 계산하고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바쳤다면 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 열납하신 적도 없으시다. 그러나 입다는 율법에서 금하는 사람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년 나흘이나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한 것(삿 11:40)은 이러한 인간 번제가 다시는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 헤롯의 성급한 약속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왔지만(막 6:23-27) 헤롯은 약속을 철회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맹세를 철회했어야만 했다.

11. 제 3 계명의 준수

1.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이름 선용

1)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큰 복이요 커다란 은혜의 선물이다.

2)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시 7:17; 8:1, 9; 9:1-2; 18:49; 54:1, 6; 116:12-13, 17; 사 12:4).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왕상 18:24; 시 79:9; 99:6; 116:4; 애 3:55-57).

3)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말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82]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이름 중시

[82] 고재수, **십계명 강해**, 45.

1)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농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3] 우리가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오, 하나님 맙소사!"나 "오, 주여" 같은 어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

2) 우리가 "This Bud's for you!"란 맥주 광고를 본 따서 "This blood's for you!"란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파는 것처럼 불경한 표어를 사용하면(irreverent sloganeering) 제 3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84]

3)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저주한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건(레 24:10-16)이 교훈하듯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을 한다면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하면서 발음하지도 않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란 이름에 대하여 그들이 보이는 민감한 정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3. 영과 진리의 예배

1) 우리가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85]

① 우리는 자주 예배드리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만 그의 참된 영광과 위엄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들은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여러 가지로 나누인다. 우리의 눈은 성경의 페이지들 위로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지 않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주 우리의 목소리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가볍고 부주의하고 진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6]

②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치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

[83] Ryken, *Written in Stone*, 95 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Rob Schenck 목사가 바로 뒤에서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던 두 세일즈맨에게 "Well, I am in the ministry. And I am amazed at your communication skills. You just said God, damn, hell, and Jesus Christ in one sentence. I can't get all of that into a whole sermon!"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오용하지 못하게 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8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5.

[85] R. Albert Mohler, Jr., *Words From The Fire: Hearing The Voice of God in the 10 Commandments* (Chicago: Moody, 2009), 71.

[86] Ryken, *Written in Stone*, 97.

2)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레 10:1-3) 그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는 주님의 탄식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요 4:23).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온 맘과 온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①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며[87]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88] 우리의 찬양은 말씀과 일치되는 의미를 담은 곡을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②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구나!(cf. 고전 14:25)"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

4. 책략적 이름 사용 금지

1)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략적으로 말하면(manipulative God-talk)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9] 하나님의 뜻을 전한 미가야와는 달리 아합왕이 원하는 것을 따라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며 아합의 뜻으로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왕상 22 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설사 좋은 목적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혼동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

[87] 고재수, **십계명 강해**, 49.

[88] Watson, *Ten Commandments*, 86.

[89] Mohler, *Words From the Fire*, 72 그리고 Ryken, Written in Stone, 96 에 인용된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 Stephen L. Carter 의 책 *Taking God's Name in Vain: The Wrongs and Rights of Religion in Politics* (New York; Basic, 2001), 12-13 쪽에 나오는 다음의 글은 책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In truth, there is probably no country in the Western world where people use God's name quite as much or quite as publicly or for quite as many purposes as we Americans do—the Third Commandment notwithstanding. Few candidates for office are able to end their speeches without asking God to bless their audience or the nation or the great work we're undertaking, but everybody is sure that the other side is sincere. . . .Athletes thank God, often on television, after scoring the winning touchdown, because, like politicians, they like to think God on their side."

3)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 설명할 인가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비난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고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주신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4)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유대인 대학살이나 노예제도나 유럽인들이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선민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차별 정책(apartheid)을 편 것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죽인 것은 성경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에 이용한 것이다.[90]

5)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했다면 그의 뜻대로 바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우리는 말은 물론이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91]

5. 참된 경건

1) 우리가 값싼 경건(triumphalistic piety)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92]

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티셔츠나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판매 촉진을 위한 문구로 사용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② 계시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등과 같은 말로 경건을 포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사용하는 것이다.

③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실제로 의미가 아니라 "That's great!"와 같은 의미로 "할렐루야"를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건강과 부를 약속하셨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것같은 경건을 보이는 번영 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의 복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참된 경건과 배치된다.

3) "복음"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병원이 환자를 위한 치료와 간호에 있어서 다른 병원과 달리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며 베푸는 기독교적 특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설교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기독교적인 특성이 없다면

---

[90]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1.

[91] 고재수, **십계명 강해**, 50.

[92] Mohler, *Words From the Fire*, 69.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6. 정통 신학

1)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한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축소적인 신학(reductionistic theology)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93]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 신학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는 그의 성품, 완전성, 주권, 능력, 거룩함, 그리고 그의 사랑 등 그의 모든 속성에 대한 계시이다. 축소적인 신학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2) 이것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고 인간 이성적 사색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미지(wrong mental image)를 갖게 하는 제 2 계명 위반과 맥을 같이 한다.

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②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만 택하고 다른 속성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분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것이다.

③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는 축소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④ 성경이 계시하는 것과 다른 신학을 주창하는 신학자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제 2 계명이 금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와 제 3 계명이 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에 대하여 경고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7.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언행심사

1) 제 1 계명이 예배의 대상 즉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치고 제 2 계명이 예배의 방법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고 하나님

[93] Mohler, *Words From the Fire*, 66.

말씀이 명하는 대로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면 제 3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친다.

2) 우리가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고 또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명이 제 3 계명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딛 1:16)"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는 모두 제 3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성경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근무 태만하고 옳은 일에 상사에게 불복종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니 자기를 믿어 달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4)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생활이 건전하지 못하여 남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마 5:16),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것(행 6:3),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딤전 3:7)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열납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8. 목회자의 제 3 계명 준수

1)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잘 지켜야 할 계명이다. 주님의 종들은 외식이나 악한 목적으로 일하기 쉽다. 대교리 문답(#113)이 가르치는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딤후 3:5)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면(마 6:1-2, 5, 16)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2) 아모스가 여호와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암 7:8-9)."는 말씀을 전할 때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왕께 대한 모반이라고 하며 "다시는 벧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암 7:13)."고 말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국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혼동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왕국의 목적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와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3)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주술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신 18:10-14; 행 19:13)처럼 성직자들이 축복/저주권 운운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갖게 하여 성도들이 저주 받지 않고 복 받기 위해 억지로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겔 13:20-23)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4) 말씀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마 5:21) 잘못 적용하거나(겔 13:22) 어떤 식으로든 왜곡해서는(벧후 3:16; 마 22:24-31) 안 된다.

① 말씀 봉사자들은 신성 모독의 농담을 해서는(사 22:13; 렘 23:34, 36, 38) 안 되며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그릇된 교리를 위해(딤전 1:4, 6-7; 6:4-5, 20; 딤후 2:14; 딛 3:9)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거나, 본문의 내용보다 본문의 메시지와 관계가 없는 예화가 더 기억나게 하거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의견이나 사색이나 통찰을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94]

③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딤후 2:15)."

9. 하나님의 명예 존중

1)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위엄스러운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제 3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경하고 불손하게 다룸으로써 경멸하며 모독하는 것을 금하신 동시에 우리가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데 열의를 갖고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비에 관한 어떤 것도 경외심과 맑은 정신을 갖지 않은 채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분에게 명예로운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95]

2) 하나님께서 자기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유(實有)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의 고유의 이름(예: 여호와, 예수),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직함 혹은 칭호(예: 그리스도, 아버지), 그의 속성(예: 무소부재, 거룩, 공의, 사랑), 그의 규례(예: 제사 규례, 나실인의 규례), 그의 말씀(예: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리고 그의 행사(예: 창조, 구원)를 다 포함한다.

---

[9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4.

[95] Calvin, *Institutes*, II. viii. 22 (p. 388): "The purpose of this commandment is: God wills that we hallow the majesty of his name. Therefore it means, in brief, that we are not to profane his name by treating it contemptuously and irreverently. To this prohibition duly corresponds the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 zealous and careful to honor his name with godly reverence. Therefore, we ought to be so disposed in mind and speech that we neither think or say anything concerning God and his mysteries without reverence and much soberness, that in estimating his works we conceive nothing but what is honorable to him."

소교리 문답(#54)이 가르치는 것처럼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계 15:3-4 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4)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로 하여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체적 손상을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입으로 부르는 이름 석 자에 대해 한 것뿐인데 뭘 그러느냐?"고 반문한다고 해서 그 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96] 이름이 실유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해쳤으면 그 사람을 해친 것이 되고 어떤 이름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훼손하는 명예 훼손죄가 되듯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그의 명예 훼손죄로 여기며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5)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말 3:16)" 것을 유념하고 대교리 문답(#112)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 있어서 그리고 거룩한 고백과 합당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12. 제 3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9-102)

1) HC 99. 제 3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주(레 24:11, 13-16) 혹은 거짓맹세(=위증, 레 19:12) 혹은 불필요한 맹세(마 5:37; 약 5:12; 레 5:4)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침묵이나 무언의 동의를 통해(레 5:1; 잠 29:24)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무서운 죄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시 99:3 신 28:58-59)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렘 4:2).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올바르게 고백되고(마 10:32-33; 롬 10:9-10) 경배받으시며(딤전 2:8; 시편 50:14-15)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골 3:17; 롬 2:24; 딤전 6:1).

2) HC 100.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런 맹세나 저주를 막거나 금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도 심각한 죄입니까?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자아내게 하는 죄도 없습니다(레 5:1).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죽음으로써 처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레 24:15-16).

---

[96] 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183.

3) HC 101. 때때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가 백성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맹세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출 22:11; 느 13:25).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신 6:13; 10:20; 렘 4:1-2; 히 6:16)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창 21:24; 수 9:15, 19; 삼상 24:22; 삼하 3:35; 왕상 1:29-30; 고후 1:23; 롬 1:9).

4) HC 102. 우리가 성인들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맹세란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증거하시며 내가 위증할 경우 나에 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고후 1:23; 롬 9:1). 따라서 그러한 존영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마 5:34-35; 마 23:16-22; 약 5:12).

2.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4; 대교리 문답[WLC] 112)

1) WSC 54.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시 29:2; 마 6:9; 신 28:58)과 칭호(시 68:4)와 속성(계 15:3-4)과 규례(전 5:1; 말 1:11, 14)와 말씀(시 138:1-2; 시 107:21-22)과 행사(욥 36:24)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WLC 112.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마 6:9; 신 28:58; 시 29:2), 칭호(시 68:4), 속성(계 15:3-4), 규례(전 5:1; 말 1:11, 14), 말씀(시 138:1-2; 시 107:21-22), 성례(고전 11:24-25, 28-29), 기도(딤전 2:8), 맹세(렘 4:2), 서약(전 5:2, 4-6), 제비뽑음(행 1:24, 26), 행사(욥 36:24)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말 3:16), 묵상(시 8:1, 3-4, 9), 말(골 3:17; 시 105:2, 5), 그리고 글(시 102:18)에 있어서 그리고 거룩한 고백(벧전 3:15; 말 4:5)과 합당한 대화(빌 1:27)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고전 10:31)과 우리들 자신(렘 32:39)과 다른 사람들(벧전 2:12)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5; 대교리 문답[WLC] 113)

1) WSC 55.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쓰시는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1:6-7, 12; 2:2; 3:14; 사 5:12).

2) WLC 113. 제 3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말 2:2); 무지하거나(행 17:23) 헛되거나(잠 30:9) 불경하거나 모독적이거나(말 1:6-7, 12; 3:14) 미신적이거나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써(삼상 4:3-5; 렘 7:4, 9-10, 14, 31; 골 2:20-22)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또는 모독하거나(왕하 19:22; 레 24:11) 위증하는데(슥 5:4; 8:17) 하나님의 칭호, 속성(왕하 18:30, 35; 출 5:2; 시 139:20), 규례(시 50:16-17), 혹은 행사(사 5:12)를 사용하는 것; 모든 죄악된 저주(삼상 17:43; 삼하 16:5)와 맹세(렘 5;7; 23:10)와 서원(신 23:18; 행 23:12, 14)과 제비뽑는 것(에 3:7; 9:24; 시 22:18);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시 24:4; 겔 17:16, 18-19); 그리고 불법적인 우리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막 6:26; 삼상 25:22, 32-34);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거나(롬 9:14, 19-20) 꼬치꼬치 캐내려고 하거나(신 29:29) 잘못 적용하는 것(롬

3:5, 7; 6:1-2; 전 8:11; 9:3; 시 39);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어느 일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마 5:21) 잘못 적용하거나(겔 13:22)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여(벧후 3:16; 마 22:24-31) 신성 모독의 농담(사 22:13; 렘 23:34, 36, 38), 꼬치꼬치 캐내려거나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잡담), 혹은 그릇된 교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딤전 1:4, 6-7; 6:4-5, 20; 딤후 2:14; 딛 3:9); 하나님의 이름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아래 들어있는 어떤 것을 주술이나(신 18:10-14; 행 19:13) 죄악된 정욕과 실행에 남용하는 것(딤후 4:3-4; 롬 13:13-14; 왕상 21:9-10; 유 4);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거나(행 13:45; 요일 3:12) 경멸하거나(시 1:1; 벧후 3:3) 욕하거나(벧전 4:4) 혹은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행 13:45-46, 50; 4:18; 19:9; 살전 2:16; 히 10:29); 외식 혹은 악한 목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것(딤후 3:5; 마 23:14; 6:1-2, 5, 16;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막 8:38), 불안해하고(시 73:14-15) 지혜롭지 못하고(고전 6:5-6; 엡 5:15-17) 열매가 없고(사 5:4; 벧후 1:8-9) 비열한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롬 2:23-24)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갈 3:1, 3; 히 6:6).

4. 제 3 계명의 이유(소교리 문답[WSC] 56; 대교리 문답[WLC] 114)

1) WSC 56. 제 3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삼상 2:12, 17, 22, 29; 3:13; 신 28:58-59)

2) WLC 114. 제 3 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제 3 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출 20:7).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계명의 많은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삼상 2:12, 17, 22, 24; 삼상 3:13)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죄를 면해주시거나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겔 36:21-23; 신 28:58-59; 슥 5:2-4) 그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 모독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레 19:12).

VI. 제 4 계명

1. 제 4 계명 본문

1. 제 4 계명은 출 20:8-11 과 신 5:12-15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8-11

8 זָכ֗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9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10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11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הוָ֔ה אֶת־הַשָּׁמַ֖יִם וְאֶת־הָאָ֑רֶץ
אֶת־הַיָּ֗ם וְ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
עַל־כֵּ֞ן בֵּרַ֤ךְ יְ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קַדְּשֵׁ֖הוּ׃

② 신 5:12-15

12 שָׁמֹ֗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13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14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וְעַבְדְּךָ֥־וַאֲמָתֶ֛ךָ וְשׁוֹרְךָ֥ וַחֲמֹרְךָ֖ וְכָל־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
15 וְזָכַרְתָּ֗ כִּי־עֶ֤בֶד הָיִ֙יתָ֙ בְּאֶ֣רֶץ מִצְרַ֔יִם
וַיֹּצִ֨אֲךָ֜ יְהוָ֣ה אֱלֹהֶ֗יךָ מִשָּׁם֙ בְּיָ֣ד חֲזָקָ֔ה וּבִזְרֹ֖עַ נְטוּיָ֑ה
עַל־כֵּ֞ן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עֲשׂ֥וֹת אֶת־י֖וֹם הַשַּׁבָּֽת׃

③ 두 본문의 차이

- Times New Roman 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본문이 동일한 것을 보여준다.
- Courier New 체로 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 Arial 체로 된 히브리어 단어나 어구는 두 본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제 4 계명의 시작 단어가 차이가 나고([자호르] / [샤모르]),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어구들이 있고, 계명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 다르며 이 이유 구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 언급된다.

2) LXX (Septuagint)

① (출 20:8-11)

(8) μνήσθητ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9) ἓξ ἡμέρας ἐργᾷ καὶ ποιήσεις πάντα τὰ ἔργα σου (10) τῇ δὲ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σάββατα κυρίῳ τῷ θεῷ σου οὐ ποιήσεις ἐν αὐτῇ πᾶν ἔργον σὺ καὶ ὁ υἱός σου καὶ ἡ θυγάτηρ σου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ὁ βοῦς σου καὶ τὸ ὑποζύγιόν σου καὶ πᾶν κτῆνός σου καὶ ὁ προσήλυτος ὁ παροικῶν ἐν σοί (11) ἐν γὰρ ἓξ ἡμέραις ἐποίησεν κύριο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καὶ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πάντα τὰ ἐν αὐτοῖς καὶ κατέπαυσεν τῇ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διὰ τοῦτο εὐλόγησεν κύριος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ἑβδόμην καὶ ἡγίασεν αὐτήν

[Brenton] (출 20:8)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9) Six days thou shalt labour, and shalt perform all thy work. 10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on it thou shalt do no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servant nor thy maidservant, thine ox nor thine ass, nor any cattle of thine, nor the stranger that sojourns with thee. (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hallowed it.

② (신 5:12-15)

(12) φύλαξ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ὃν τρόπον ἐνετείλατό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13) ἓξ ἡμέρας ἐργᾷ καὶ ποιήσεις πάντα τὰ ἔργα σου (14) τῇ δὲ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σάββατα κυρίῳ τῷ θεῷ σου οὐ ποιήσεις ἐν αὐτῇ πᾶν ἔργον σὺ καὶ οἱ υἱοί σου καὶ ἡ θυγάτηρ σου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ὁ βοῦς σου καὶ τὸ ὑποζύγιόν σου καὶ πᾶν κτῆνός σου καὶ ὁ προσήλυτος ὁ παροικῶν ἐν σοί ἵνα ἀναπαύσηται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ὥσπερ καὶ σύ (15) καὶ μνησθήσῃ ὅτι οἰκέτης ἦσθα ἐν γῇ αἰγύπτῳ καὶ ἐξήγαγέν σε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ἐκεῖθεν ἐν χειρὶ κραταιᾷ καὶ ἐν βραχίονι ὑψηλῷ διὰ τοῦτο συνέταξέν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ὥστε φυλάσσεσθ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καὶ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Brenton] (신 5:12) Keep the sabbath day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commanded thee. (13) Six days thou shalt work, and thou shalt do all thy works; (14)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do in it no work, thou, and thy son, and thy daughter, thy man-servant, and thy maid-servant, thine ox, and thine ass, and all thy cattle, and the stranger that sojourns in the midst of thee; that thy man-servant may rest, and thy maid, and thine ox, as well as thou. (15) And thou shalt remember that thou wast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thy God brought thee out thence with a mighty hand, and a high arm: therefore the Lord appointed thee to keep the sabbath day and to sanctify it.

3) Vulgate

① (출 20:8-11)

(8) memento ut diem sabbati sanctifices (9) sex diebus operaberis et facies omnia opera tua (10) septimo autem die sabbati Domini Dei tui non facies omne opus tu et filius tuus et filia tua servus

tuus et ancilla tua iumentum tuum et advena qui est intra portas tuas (11) sex enim diebus fecit Dominus caelum et terram et mare et omnia quae in eis sunt et requievit in die septimo idcirco benedixit Dominus diei sabbati et sanctificavit eum

[Douay-Rheims Bible] (출 20:8) Remember that thou keep holy the sabbath day. (9)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shalt do all thy works. (10)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do no work on it,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no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beast, nor the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all things that are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② (신 5:12-15)

(12) observa diem sabbati ut sanctifices eum sicut praecepit tibi Dominus Deus tuus (13) sex diebus operaberis et facies omnia opera tua (14) septimus dies sabbati est id est requies Domini Dei tui non facies in eo quicquam operis tu et filius tuus et filia servus et ancilla et bos et asinus et omne iumentum tuum et peregrinus qui est intra portas tuas ut requiescat servus et ancilla tua sicut et tu (15) memento quod et ipse servieris in Aegypto et eduxerit te inde Dominus Deus tuus in manu forti et brachio extento idcirco praecepit tibi ut observares diem sabbati

[Douay-Rheims Bible] (신 5:12) Observe the day of the sabbath,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13)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shalt do all thy works. (14) The seventh is the day of the sabbath, that is, the rest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erein,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no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ox, nor thy ass, nor any of thy beasts, nor the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that thy manservant and thy maidservant may rest, even as thyself. (15) Remember that thou also didst serve in Egypt, and the Lord thy God brought thee out from thence with a strong hand, and a stretched out arm. Therefore hath he commanded thee that thou shouldst observe the sabbath day.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신 5: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찌**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신 5: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③ 새번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9)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1)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 (신 5:12)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13)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4)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15)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8)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6 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딸이나 **네 남녀 종들**이나 네 가축들이나 **네 문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 여호와가 6 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 (신 5:12)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3) 6 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14) 7 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15)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9) 육 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10) 하지만 칠 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11)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칠 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신 5:12)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13) *너희는* 육 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14) 그러나 칠 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서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15)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각 한글 성경에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오역으로 원문에 없는 "나"를 첨가하거나 2 인칭 단수 대명사를 복수로 잘못 번역한 것을 표시하거나 출 20:8 에 "지키라"는 단어가 없는데 추가한 것을 표시한다.

② 각 한글 성경에 크리스탈체로 된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원문 어구가 같은데도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표시한다.

③ 개역과 개역개정의 경우 [앞에 지적한 것처럼 이탤릭체의 오역 부분과 크리스탈체의 통일되지 않은 번역 부분 이외에도] 원문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출애굽기 원문에는 없으나 신명기 원문에 추가된 것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출애굽기 원문과 신명기 원문이 다른 것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2. 제 4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8 과 신 5:12

זָכ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출 20:8)

שָׁמ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신 5:12)

① 출 20:8 과 신 5:12 의 차이는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단어가 다르고[1]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절이 있는 것이다. 신명기에 추가된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카아셰르 치브하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대로"라는 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것을 가리키며 한 세대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예이다.[2]

②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출 20:8 의 **זָכוֹר**[자호르]와 신 5:12 의 **שָׁמוֹר**[샤모르]는 부정사 자립형이다. GKC 113bb 는 이 부정사 자립형을 "emphatic imperative: thou shalt, ye shall 강조 명령"으로 보았고 이것의 완전한 형태는 신 6:7 의 שָׁמוֹר תִּשְׁמְרוּן [샤모르 티시므룬]이나 신 7:18 의 **זָכוֹר תִּזְכֹּר** [자호르 티즈코르]처럼 강조의 부정사 자립형+미완료(정형동사)라고 설명한다. GBH 123v 도 부정사 자립형이 법률 문서에서 "do!"라기보다는 "you shall do = you must do"를 뜻하는 "injunctive future 명령적 미래"로 자주 쓰인다고 설명한다. IBHS 35.4a 는 부정사 자립형이 하나님 그리고/혹은 선지자의 명령에 주로 사용되며 "legislative imperative 법적인 명령"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③ 한글 성경들이 출 20:8 의 ("기억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זָכוֹר**[자호르]를 "기억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억하여 ... 지키라"고 의역한 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한 것이고, 신 5:12 의 ("지키다"라는 어근에서 온) **שָׁמוֹר**[샤모르]와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흠이 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기억하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지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다.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개역/개역개정의 출 20:8 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번역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고쳐야 한다.

④ 출 20:8/신 5:12 의 부정사구 לְקַדְּשׁוֹ[르카드쇼]는 전치사 לְ[르]와 피엘(작위능동) 어간 부정사 의존형 קַדֵּשׁ[카데시]와 명사 안식일을 받는 3 인칭 남성 단수 접미대명사 וֹ[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정사구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1] 사마리아 오경에는 출애굽기의 [자호르]가 신명기처럼 [샤모르]로 되어 있어 차이가 없다.

[2] Craigie, *Deuteronomy*, 156 and 158 n. 21.

안식일을 기억하라/지키라!"로 번역되고, 결과로 해석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그것(=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번역된다.

⑤ 출 20:8 의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 NIV: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 NLT: Remember *to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 ESV: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 NASB/KJV: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 NPJS: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Stuart(*Exodus*, 458)는 부정사구를 수단으로 보는 NIV 의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라는 번역보다는 목적으로 보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혹은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라는 전통적인 번역이 뒤따르는 설명 부분에 비추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⑥ 신 5:12 의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 NIV/NLT: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 ESV: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 NASB: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 KJV: **Keep** the **s**abbath day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 NJPS: Observe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⑦ 번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 (신 5:12)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2) 출 20:9 과 신 5:13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출 20:9)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신 5:13)

① 대격이 "언제 when?" 혹은 "얼마동안 how long?"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나 동작이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시간의 대격(accusative of temporal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GBH 126i; GKC 118k; IBHS 10.2.2c). 출 20:9/신 5:13 의 שֵׁשֶׁת יָמִים ([셰셰트 야밈] "엿새 동안")은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대격으로 사용되었다.

② 출 20:9/신 5:13 에서 미완료형 תַּעֲבֹד([타아보드] "수고하라! 힘쓰라!")에 이어서 나오는 바브 계속법 완료형 וְעָשִׂיתָ([브아씨타] "그리고 하라! 행하라!)는 앞선 미완료형과 똑같은 힘을 갖는다(IBHS 32.2.1d).

③ 신 5:13 의 כָּל־은 라페를 갖고 있고 BHS 비평 자료에 의하면 사해 사본에 את כ(ו)ל로 나온다.

④ 번역

(출 20:9 = 신 5:13) **너는 엿새(=육일) 동안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하라.**

3) 출 20:10 과 신 5:14

(출 20:10)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신 5:14)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כָל־מְלָאכָה
אַתָּה וּבִנְךָ־וּבִתֶּךָ וְעַבְדְּךָ־וַאֲמָתֶךָ וְשׁוֹרְךָ וַחֲמֹרְךָ וְכָל־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

① 출 20:10 과 신 5:14 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출 20:10 의 BHS 비평 자료는 신 5:14 처럼 접속사 바브(וְ)가 **עַבְדְּךָ**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고 **וַאֲמָתֶךָ**가 신 5:14 처럼 모음이 **וַאֲמָתֶךָ**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을 언급한다.
- 안식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동물이 출애굽기에는 "가축"(**וּבְהֶמְתֶּךָ**[우브헴테하])으로 총칭하여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소"와 "나귀" 그리고 "모든 가축"(**בְּהֶמְתֶּךָ וְכָל־ וַחֲמֹרְךָ וְשׁוֹרְךָ** [브쇼르하 바하모르하 브홀-브헴테하])으로 나온다.
- 신 5:14 에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가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절에 대한 개역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찌**니라"나 개역개정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나 새번역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나 쉬운성경의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는 모두 동사 יָנוּחַ [야누아흐] 가 히프일(사역능동) 어간 יָנִיחַ[야니아흐]처럼 번역하였다. 그러나 동사 יָנוּחַ [야누아흐] 가 파알(기본능동) 어간인 것에 유의하여 이 추가절은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하도록"처럼 목적이나 "그래서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해야 한다."처럼 결과로 번역해야 한다.

② 개역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브게르하 아셰르 비시아레하]에 대하여 "네 문안에 머무는 객"과 "네 문안에 유하는 객"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에서도 그대로 둔 것은 시정하여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이다.

③ 출 20:10/신 5:14 의 **יוֹם הַשְּׁבִיעִי** ([욤 하시비이] "일곱째 날")처럼 정관사를 가진 서수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 **יוֹם**[욤]은 정관사가 없이 나온다(GKC 126w; IBHS 14.3.1d).

④ 출 20:10/신 5:14 에서처럼 부정어 **לֹא**[로]와 **כָּל־**/**כֹּל**[콜]의 결합은 영어의 "not~all"처럼 부분부정이 아니라 "not~any"처럼 절대부정(absolute negation)을 표현한다(GKC 152b).

⑤ "אַתָּה וּבִנְךָ־וּבִתֶּךָ [아타 우빈하 우비테하]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라는 어구에서 "너" 다음에 "네 아내"가 나오지 않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

- 출 20:10/신 5:14 의 동사 תַּעֲשֶׂה([타아쎄] "너는 행하라!" 기본능동 미완료 2 인칭 남성단수)와 대명사 אַתָּה([아타] "너" 2 인칭 남성단수)는 분명 남성형이지만 때때로 여성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 성(prior gender)으로 쓰인 남성으로 부른다(IBHS 6.5.3a).
- 여기 쓰인 동사와 대명사가 나타내는 남성형 "너"는 우선적 성으로 쓰인 것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리킬 수 있다.

⑥ 출 20:10 하/신 5:14 하에서 אַתָּה([아타] "너")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접속사 바브는 "or, 혹은, 또는"의 의미를 갖는 선택적 바브(alternative vav)이다(WHS 433).

⑦ 번역

(출 20:10)**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 5:14)**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그러면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 20:11 과 신 5:15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הוָה אֶת־הַשָּׁמַיִם וְאֶת־הָאָרֶץ (출 20:11)
אֶת־הַיָּם וְ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
עַל־כֵּן בֵּרַךְ יְ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קַדְּשֵׁהוּ׃
וְזָכַרְתָּ כִּי־עֶבֶד הָיִיתָ בְּאֶרֶץ מִצְרַיִם (신 5:15)
וַיֹּצִאֲךָ יְהוָה אֱלֹהֶיךָ מִשָּׁם בְּיָד חֲזָקָה וּבִזְרֹעַ נְטוּיָה
עַל־כֵּן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עֲשׂוֹת אֶת־יוֹם הַשַּׁבָּת׃

① 출 20:11 과 신 5:15 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밝히는 절인데 두 본문이 매우 다르다.

-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다.
-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언급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역/개역개정의 출 20:11 에 두 번 나오는 "*나* 여호와"는 원문에 "*나*"라는 대명사가 없으므로 원문에 충실하려면 "*나*"를 빼고 번역해야 한다.]

---

[3] Craigie(*Deuteronomy*, 157)는 여기에 아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법이 가사적인 활동에도 적용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피하기 위한(in order to avoid any suggestion that the law also applied to domestic activities)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음(예: A. Phillips, *Ancient Israel's Criminal Law*, 69)을 지적하였다.

② 신 5:15 에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한 후 "그로 인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에 나오는 부정사 의존형 לַעֲשׂוֹת[라아쏘트]의 어근 עשׂה[아싸]는 "지키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동사는 "지키다, 거행하다, 경축하다, to observe, to celebrate"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출 31:16; 신 5:15)과 유월절(출 12:47, 48; 민 9:4, 6, 13; 수 5:10), 칠칠절(신 16:10), 장막절(신 16:13), 부림절(에 9:21, 27) 등의 절기를 축하하고 지키는 것에 사용되었다(BDB 795).

③ 출 20:11 의 כִּי[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하고 신 5:15 의 כִּי[키]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인도하고 있다. 출 20:11 과 신 5:15 에 나오는 עַל־כֵּן[알-켄]은 성경에 총 149 회 사용되었고 "for that reason, therefore; so it happens that (KB I: 833) 그로 인해, 그러므로, 그래서" "upon ground of such conditions, therefore (BDB, 487) 그런 조건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는다.

④ 번역

(출 20:11) **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신 5:15)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그러므로/그로 인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명령하신 것이다.]

5) 제 4 계명 전체 번역

①(출 20:8-11) (**8)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9)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②(신 5:12-15) **(12)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13)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15)*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2. 제 4 계명의 의미

1. 제 4 계명의 구조

1) 제 4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출 20:8; 신 5:12)"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출 20:9; 신 5:13)"는 긍정 명령과 함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신 5:14)"는 부정 명령이 들어 있다. 명령의 형식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각 계명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야 하는데 제 4 계명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다.

2) 제 4 계명은 10 개의 계명 중 가장 긴 계명으로[4] 첫째 무엇을 해야 하고(출 20:8; 신 5:12), 둘째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고(출 20:9-10; 신 5:13-14), 셋째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출 20:11; 신 5:15)를 말해 준다.[5]

① 하나님은 지켜야 할 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②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③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지어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 즉 출애굽과 관련지어 말씀하셨다.

2. 제 4 계명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구절들

1)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힘써 일하는 다른 날들과 구별하는 것에서 가시화된다.

① 이것은 제 4 계명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 출 31:14 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한 것, 그리고 렘 17:24 의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이란 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과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서 확인된다.

②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쉬라!"는 보다 짧은 명령이 출 23:12; 34:21 에 나오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성일이므로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출 31:15; 35:2 에 나오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렘 17:22 에 나온다.[6]

---

[4] Stuart, *Exodus*, 457 은 명령과 제재 사항 혹은 설명을 합쳐 계산하면 출애굽기 본문의 제 4 계명이 제 2 계명보다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5] Ryken, *Written in Stone*, 102.

[6] [출 23: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 34:21]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③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추수하는 것(출 34:21), 불 피우는 것(출 35:3), 나무하는 것(민 15:32-36), 매매하는 것(느 13:15-32), 오락과 사사로운 말(사 58:13), 집에서 짐을 내는 것(렘 17:22) 등이 언급되었다.[7]

2) 제 4 계명에서처럼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출 20:10; 신 5:14)"이라고 한 것은 출 31:13; 레 19:3, 30; 사 56:4; 겔 20:12, 13, 16, 20, 21, 24; 44:24 에도 나온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고(사 58:13) "그 백성에게 거룩한 날/성일"이 된다(출 31:14; 35:2).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고(레 23:3, 8)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을 뜻하였다(레 19:30; 26:2).[8]

① 안식일에는 별도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다(민 28:9-10). 안식일마다 성소의 상에 두 줄로 여섯씩 즉 열두 덩이 떡을 진설하였다(레 24:5-9; 대상 9:32). 안식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다(시 92 편). 안식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 가려고 할 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왕하 4:23)"라고 한 말에서 추론할 수 있다.[9]

② 포로기 때부터 회당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성경의 일부분을 읽었고 그 후 그 본문을 강해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강해가 있었다(눅 4:16-21; 행 13:14-41; 18:4). 예수님은 안식일에

[출 31: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5: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렘 17: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7]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민 15:32-36]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 사건

[느 13:15-22]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매매 금지를 명한 일

[사 58:13-14] (13)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렘 17: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8] 레 19:30 과 레 26:2 의 원문은 똑같으나(אֶת־שַׁבְּתֹתַי תִּשְׁמֹרוּ וּמִקְדָּשִׁי תִּירָאוּ אֲנִי יְהוָה)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9] Douma, *Ten Commandments*, 115. Cole(*Exodus*, 158)은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안식일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으로 왕하 4:23 과 암 8:5 을 지적한다.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고(눅 4:16)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3) 레 23:3 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10]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

[10] 레 23:3 의 "쉴 안식일"에 대한 히브리어 어구는 שַׁבַּת שַׁבָּתוֹן [샤바트 샤바톤]이다. KJV 는 "the sabbath of rest"로 번역하고, NIV 는 "a Sabbath of rest"로 번역하고 NKJV 와 ESV 는 "a Sabbath of solemn rest"로 번역하고, RSV 는 "a sabbath of solemn rest"로 번역하고, NASB 는 "a sabbath of complete rest"로 번역하였다.

שַׁבָּתוֹן[샤바톤]에 붙은 어미 וֹן-[온]에 대하여 *TWOT*(903)는 זִכָּרוֹן[지카론]처럼 추상명사에 붙는 어미로 보았다. KB(1411)는 וֹן-[온]이 인위적인 확장어미(artificial amplification) 혹은 지소어미(diminutive)로 보는 것 보다는 아카드어 어미 *-ān*, *-ānum*(von Soden, *GAG* [=*Grundriss Akkadischen Grammatik*] §56r)과 비슷한 특수화 어미(Cf. Buccellati, *A Structural Grammar of Babylonian*, 140: particularizing affix)로 보는 입장(one individual and particular , such as one that is to be observed in a particular strict way, or one observed as a special celebration)이 제일 좋다고 설명하였다.

KB(1412)는 שַׁבָּתוֹן[샤바톤]에 대하여 "a sabbath that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usual שַׁבַּת inasmuch as it is to be observed strictly and to be celebrated in a special way"라고 풀이하고 שַׁבַּת שַׁבָּתוֹן [샤바트 샤바톤]을 "a sabbath with special sabbath celebrations"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샤바트 샤바톤]이란 어구는 매주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로 언급할(레 23:3; 출 31:15; 35:2) 때뿐만 아니라 7 월 10 일 즉 속죄일을 "쉴 안식일"로 언급할(레 23:32; 레 16:31) 때와 칠년마다 땅이 가질 안식년을 묘사할(레 25:4 KJV/NIV a sabbath of rest; NASB a sabbath rest; RSV a sabbath of solemn rest) 때에도 사용되었다. שַׁבָּתוֹן[샤바톤]은 단독으로 나팔절을 언급할 때(레 23:24)와 장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을 각각 언급할 때(레 23:39) 사용되었다. 첫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하는 שַׁבָּתוֹן[샤바톤]으로 둘러싸인 장막절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안식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שַׁבַּת[샤바톤] 혹은 שַׁבַּת שַׁבָּתוֹן [샤바트 샤바톤]을 설명하는 어구가 나오는 구절들도 있다.

[출 16:23] שַׁבָּתוֹן שַׁבַּת־קֹדֶשׁ לַיהוָה מָחָר

[샤바톤 샤바트 코데시 라도나이 마하르]

NIV: Tomorrow is to be a day of rest, a holy Sabbath to the LORD.

NASB: Tomorrow is a sabbath observance, a holy sabbath to the LORD.

[출 31:15] וּבַיּוֹם הַשְּׁבִיעִי שַׁבַּת שַׁבָּתוֹן קֹדֶשׁ לַיהוָה

[우바욤 하시비이 샤바톤 샤바트 코데시 라도나이]

NIV: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rest, holy to the LORD.

NASB: but on the seventh day there is a sabbath of complete rest, holy to the LORD;

[출 35:2] וּבַיּוֹם הַשְּׁבִיעִי יִהְיֶה לָכֶם קֹדֶשׁ שַׁבַּת שַׁבָּתוֹן לַיהוָה

[우바욤 하시비이 이흐예 코데시 샤바톤 샤바트 라도나이]

① 이 말씀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 그냥 쉬며 육체적 휴식을 얻는 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날로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인 것을 잘 보여준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성회로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어야 한다.

② 안식일에 영적 안식과 육적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숨을 돌리며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안식일의 일차적인 유익이라기보다는 이차적이요 부수적인 유익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1]

3.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1)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날이요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었다(출 31:13-17; 겔 20:10-12, 18-20). 언약에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가시적인 표징이 있었다.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표징이었고,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었고, 성찬이 새 언약의 표징이듯이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었다.[12]

2)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매주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언약을 지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4. 창조와 안식일

1) 출 20:11 에 나오는 제 4 계명의 지킬 이유는 창 2:1-3 을 반영하고 있다.

[창 2:1-3] (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NIV: but the seventh day shall be your holy day, a Sabbath of rest to the LORD.

NASB: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have a holy [day,]
a sabbath of complete rest to the LORD;

[레 23:3] וּבַיּוֹם הַשְּׁבִיעִי שַׁבַּת שַׁבָּתוֹן מִקְרָא־קֹדֶשׁ כָּל־מְלָאכָה לֹא תַעֲשׂוּ

[우바욤 하시비이 샤바트 샤바톤 미크라 코데시 콜 믈라하 로 타아쑤]

NIV: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rest, a day of sacred assembly.

NASB: but on the seventh day there is a sabbath of complete rest, a holy convocation.

[레 23:24] יִהְיֶה לָכֶם שַׁבָּתוֹן זִכְרוֹן תְּרוּעָה מִקְרָא־קֹדֶשׁ

[이흐예 라헴 샤바톤 지흐론 트루아 미크라 코데시]

NIV: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you are to have a day of rest,
a sacred assembly commemorated with trumpet blasts

NASB: (In the seventh month on the first of the month,) you shall have a rest,
a reminder by blowing [of trumpets], a holy convocation.

[11] Stuart, *Exodus*, 460.

[12] Stuart, *Exodus*, 457.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13]

① 절정의 일곱째 날은 앞선 창조의 날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14]

- ⑴창조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소개 공식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의 일"이란 어구가 세 번 언급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마치셨다(1 번)." 혹은 "그의 일로부터 그치셨다(2 번)."라고 언급됨으로써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세 번 나온다.
- ⑵"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날을 마감한 공식이 없다. 이것은 창조계가 잘 발전되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을 (인간의 죄에 의하여 깨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즐기도록 의도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 ⑶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날이다.
- ⑷6 일간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와 달리 "일곱째 날"이란 어구가 3 번이나 반복되며 אֹתוֹ[오토]와 בּוֹ[보]에 들어있는 접미 대명사에 의해 2 번 더 언급되어 있다.
- ⑸첫째 날-넷째 날, 둘째 날-다섯째 날, 셋째 날-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곱째 날은 6 일 중의 어떤 날과 짝을 이루지 있지 않다. 6 + 1 (six plus one)이라는 문예적 공식은 연속되는 날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Walton 은 창 2:2-3 에 두 번 사용된 동사 שָׁבַת[샤바트]는 "안식하다, 쉬다 to rest"의 의미라기보다는 전치사 מִן[민]과 더불어 "멈추다, 그치다, to cease, stop"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하였다(*KB* II: 1407, cf. 렘 31:36; 호 7:4; 욥 32:1).[15] Wenham 도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의미 즉 "그치다(to cease to

---

[13] [창 2:1-3 원문과 번역]

1 וַיְכֻלּוּ הַשָּׁמַיִם וְהָאָרֶץ וְכָל־צְבָאָם: 2 וַיְכַל אֱלֹ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וַיִּשְׁבֹּת בַּיּוֹם
הַשְּׁבִיעִי מִכָּל־מְלַאכְתּוֹ אֲשֶׁר עָשָׂה: 3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בִיעִי וַיְקַדֵּשׁ אֹתוֹ כִּי בוֹ שָׁבַת מִכָּל־
מְלַאכְתּוֹ אֲשֶׁר־בָּרָא אֱלֹהִים לַעֲשׂוֹת:

(1)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바브 계속법 미완료: 요약 진술].

(2)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그의 일*을 이미 끝마치시고[바브 계속법 미완료: 과거완료]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치셨다.

(3)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אֹתוֹ [오토] 직역: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날에[בּוֹ [보], 직역: 그것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시던 그의 모든 일*을 그치셨기 때문이다.

[14] Mathews, *Genesis 1-11:26*, 176.

[15] John H. Walton, *Genesi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1), 146.

be)"와 "일을 멈추다(to desist from work)"와 "안식일을 지키다(to observe the sabbath)" 중에서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16]

③ 베스터만(Westermann)이 지적한 대로 창 2:2-3 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묘사할 때 사람의 일을 묘사하는 일상적인 단어 מְלָאכָה[믈라하](cf. 창 39:11; 출 20:9)가 3 번 사용된 것은 일곱째 날에 사람도 그의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17] 카쑤토(Cassuto)는 창 2:2-3 에서 "안식일(sabbath שַׁבָּת[샤바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고 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보름달의 날 즉 매월 15 일을 가리키는 šapattu[샤파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8] 해밀톤(Hamilton)도 사르나(Sarna)를 인용하며 이방인의 어떤 축제와 관련지을 가능성 때문에 피했을 것이라고 하였다.[19]

④ 메소포타미아에서 각 달의 7 일, 14 일, 21 일, 28 일은 불길한 날로 간주되었다. 이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일곱째 날)은 천체의 움직임 즉 달의 모양(phases of the moon)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불길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이었다. 사람, 장소, 종교적 물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만 안식일을 제외하고 느 8:9, 11 에서만 축제일이 성일이라고 명명되었다.[20]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고 묘사되는 모든 것의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규정된 대로 바르게 그에게 드려지는 데서 유래한다.[21] 일곱째 날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 맨 처음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당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한 지위를 얻은 날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신 것처럼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⑤ 웬함(Wenham)의 설명에 의하면 성경에서 복은 일반적으로 생물(animate being) 즉 하나님, 사람, 동물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하나님의 동물과 사람에 대한 복은 다산과 성공으로 인도한다(창 1:22, 28).[22]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큰 기쁨 가운데 쉬신 안식일이 복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점에서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2) 하나님의 안식의 사전적 의미

---

[16] Wenham, *Genesis 1-15*, 35.

[17] Claus Westermann, *Genesis: A Commentary* trans. J. J. Scullian (Minneapolis: Augsburg, 1984), I:170.

[18] U. Cassuto, *Commentary on Genesis* trans I.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4) I:65-68.

[19] Hamilton, *Genesis 1-17*, 143.

[20] Wenham, *Genesis 1-15*, 35.

[21]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18-27.

[22] Wenham, *Genesis 1-15*, 36.

①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 שָׁבַת[샤바트](창 2:2-3)와 병행어로 쓰인 다른 두 동사는 נוּחַ[누아흐](출 20:11)와 기본재귀(Nifal)어간의 נפשׁ[나파시](출 31:17)이다.[23] 이 세 동사에 대하여 월튼(Walton)은 [샤바트]가 일을 그치는 것(to cease)을 나타내고, [누아흐]가 이완/긴장 완화(relaxation)가 아니라 안전, 안정, 균형(safety, security, stability, equilibrium)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안식하고 쉬는 것을 나타내며, 기본재귀 어간의 [나파시]가 상쾌/유쾌하게 하는 것(refreshment)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24]

② 월튼(146)의 설명에 따르면 [누아흐]의 기본능동(Pa'al, Qal) 어간은 "정착하는 것 혹은 안정되는 것 to settle down, settle in"(출 10:14)을 나타낼 수 있다. [누아흐]의 사역어간(Hif'il)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 평안하게 정착하게 하신 것을 흔히 나타낸다(수 1:15; 삼하 7:1). 동전에 비교하여 말하면 [샤바트]와 [누아흐]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기본능동 어간으로 쓰일 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유일한 경우인 출 20:11 에서 [누아흐]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 정연함과 안정됨 가운데 누리시는 안식을 나타낸다. 이것은 [누아흐]가 창 2:2-3 의 [샤바트]가 나타내는 창조의 일을 그치신 것의 반대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누아흐]에서 파생된 명사 מְנוּחָה[므누하]는 태평이나 안정, 안전, 평안의 장소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므누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왕상 8:56),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전(시 132:14)이나 더 큰 성전인 우주(사 66:1)이다.[25]

③ 월튼(147)은 이 세 동사의 사전적 정보가 주는 결론으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전 6 일간의 창조 일을 그치시는 것과 그가 창조한 우주의 질서 정연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것과 그가 그렇게

---

[23] 창 2:2-3 에 나오는 שָׁבַת는 영어 번역에 "rest"로 번역되었고 개역과 개역개정에 "안식하다"로 번역되어 있다. 출 31:17 의 שָׁבַת[샤바트]와 וַיִּנָּפַשׁ[바이나파시 (휴지형)]에 대하여 KJV/NKJV/RSV 는 "rest"와 "be refreshed"로 각각 번역하였고, NIV 는 "abstain from work"와 "rest"로 각각 번역하였고, NASB 는 "cease [from labor]"와 "be refreshed"로 각각 번역하였다. 개역은 KJV/NKJV/RSV 처럼 "쉬고 평안하였다"로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NIV 처럼 "일을 마치고 쉬었다"로 번역하였다.

[24] Walton, *Genesis*, 146-147. 동사 [나파시]의 재귀어간은 출 23:12; 31:17; 삼하 16:14 에만 나오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출 31:17 에서만 사용되었다.

[25] [왕상 8:56]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מְנוּחָה[므누하])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시 132: 13-14] (13)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מְנוּחָתִי[므누하티])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사 66: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מְנוּחָתִי[므누하티])가 어디랴

하시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써 그날에 그의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요약했다.[26]

④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사용된 동사를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요약하여 설명하면 [샤바트]는 창 2:2-3 에서 "일을 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누아흐]는 출 20:11 에서 "안식하다, 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나파시]의 재귀어간은 출 31:17 에서 "유쾌/상쾌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세 동사는 출 23:12 에 한꺼번에 모두 나오며 하나님의 안식을 본 따르는 사람의 안식을 묘사하는 경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27]

3)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주무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계셨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사야(40:28-29)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3-4)"라고 고백하였다.

②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라는 평가처럼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즉 창조의 일을 그치신 것(창 2:2-3)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 심히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시고 큰 기쁨과 큰 만족을 가지시며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다.

---

[26] Walton, *Genesis*, 147: "The seventh day is marked by God's ceasing the work of the previous six days and by his settling into the stability of the cosmos he created, perhaps experiencing refreshment as he did so. By blessing it, he extends his favor to it."

[27] 출 23:12 의 이 세 동사에 대하여 NIV 와 NASB 는 다음과 같이 잘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NIV: Six days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do not work, so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and the slave born in your household, and the alien as well, may be refreshed.

NASB: Six days you are to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cease [from labor] in order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and the son of your female slave, as well as your stranger, may refresh themselves.

그러나 KJV, NKJV, RSV 는 처음 두 동사를 구별 없이 "rest"라고 번역하고 세 번째 동사를 "be refreshed"라고 번역하였는데 개역개정도 그와 비슷하게 번역하였다.

개역개정: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일을 멈추라/일을 하지 말라] 네 소와 나귀가 쉴[/안식할]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유쾌함을 누리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주기적인 안식이 결코 아니다.[28]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을 표시할 때 다른 날들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공식이 없는 것에서도 확인된다.[29] 피곤하시지도 곤비하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일주일의 어느 한 날에 특별한 안식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 계속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신다.

③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시며(사 66:1)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말한다.[30]

- 인간 창조가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의 절정이긴 하지만 창 1:1-2:3 의 내러티브의 결론이 아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주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만물을 채우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 즉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완성되어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우주가 주는 안식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다.
-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처에 거하심은 왕으로 등극하시어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 것을 밝히는 일이다. 왕으로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하나님은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시 104:2-4)." 이렇게 성경은 우주(cosmos)를 하나님의 신전(temple complex)으로 묘사하고 성전(temple)을 소우주(microcosmos)로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신전인 우주에서 그리고 소우주인 성전에서 안식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것을 말한다.[31]

---

[28] R. V. G. Tasker, *John*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60), 86-87.

[29] Waltke, *Genesis*, 68.

[30] Walton, *Genesis*, 148-152.

[31] Walton, *Genesis*, 148-149; Sailhamer, *Pentateuch*, 87, 321; Mathews, *Genesis*, 177 n. 221 등에서 지적하는 신전으로서의 우주와 작은 우주로서의 성전과의 관계를 알게 해 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⑴넷째 날에 창조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언급할 때 사용된 빛(מָאוֹר [마오르] 창 1:14)은 성막의 금 촛대의 불(מְנֹרַת הַמָּאוֹר 출 35:14 "불켜는 등잔대")을 나타내는 용어와 같다.

⑵에덴 동산(창 2:10-14)과 성전(겔 47:1)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비슷하다.

⑶아담이 에덴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언급하는 동사(עבד[아바드])가 똑같다.

⑷창조 기사에 사용된 용어들이 성막 건축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창조 기사	성막 건축 기사
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וַיַּרְא אֱלֹהִים אֶת־כָּל־אֲשֶׁר עָשָׂ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출 39:43a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וַיַּרְא מֹשֶׁה אֶת־כָּל־הַמְּלָאכָ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וַיְכֻלּוּ)	출 39:32a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끝났다(וַתֵּכֶל כָּל־עֲבֹדַת מִשְׁכַּן אֹהֶל מוֹעֵד).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וַיְכַל אֱלֹ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 40: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וַיְכַל מֹשֶׁה אֶת־הַמְּלָאכָה)
창 2:3a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וַיְ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בִיעִי)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וַיְבָרֶךְ אֹתָם אֱלֹהִים)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출 39:43b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וַיְבָרֶךְ אֹתָם מֹשֶׁה)

(5)"하나님의 신(רוּחַ אֱלֹהִים)"이란 용어가 창 1:2 과 출 31:3 에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그들의 성막 건축의 일을 할 수 있었다.

(6)출 40:34 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וּכְבוֹד יְהוָה מָלֵא אֶת־הַמִּשְׁכָּן)."라는 것과 왕상 8:11 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성전)에 가득하였다(מָלֵא כְּבוֹד־יְהוָה אֶת־בֵּית יְהוָה)."라는 것과 사 6:3 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מְלֹא כָל־הָאָרֶץ כְּבוֹדוֹ)."라고 한 스랍들의 말이 비슷하다.

(7)"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מִקְדָּשׁוֹ]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다."라는 시편 78:68-69 의 말씀은 성소가 하늘과 땅처럼 지어진 것을 말한다.

(8)"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מוֹשָׁב]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מְנוּחָתִי]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시 132:13-14)."라는 말씀은 안식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고 성전이 여호와께서 항상 안식을 찾는 곳임을 보여줌으로써 안식의 주제를 통해 소우주인 성전과 신전인 우주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④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여섯째 날에 끝마치신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정 가운데서 신전인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부터 왕으로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일을 하시며 창조의 세계가 더 높고 더 복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때까지 일을 계속 하실 것임을 가르쳐 준다.

- 하나님의 안식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 취임하신 것이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와 사망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폐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도록 구원의 일을 계속 해 오셨다.
-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 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9:3-4).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라고 기도하셨고 그리스도로서 백성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다.
-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섭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

4) 하나님의 안식의 의의

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며 창조로 시작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며 끝이 날 때 더 높고 복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보여 주셨다.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리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날인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뜻을 높이고 기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해야 한다.
- 히브리서 저자(4:3-11)는 시 95 편과 창 2:1-3 을 들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② 월튼(148)의 말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되어 질서 정연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우주 만물이 주는 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낸다. 성막 혹은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이란 개념에 대한 상징적 실재이다. 월트키(68)의 말대로 고대 근동의 창조신들은 혼돈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신전을 지었지만[32]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에 의한 질서 정연한 우주의 통치를 보여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매주 그들의 일로부터 쉬며 안식할 수 있는 소우주인 성전을 통하여 가시화된다.

---

[32] 바벨론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ANET* 60-72, 501-503)에서 마르둑은 티아맛을 죽이고 신들과 우주를 자신의 통치아래 재편성하고 거룩한 도시 바벨론을 짓는다. 안식과 신전에 대한 것은 에누마 엘리시 1:35-40 과 6:48-58 을 보라.

바알이 언급되는 많은 우가릿 문헌중 6 개의 토판에 기록된 바알 신화(*KTU* 1.1-6 = *CTA* 1-6)가 바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6 개의 토판에 남아 있는 바알 신화는 전체 본문의 약 50%를 전해 주고 있다. 바알 신화는 ⑴ 바알과 얌의 싸움(*KTU* 1.1-2 = *CTA* 1-2), ⑵ 바알의 전 건축(*KTU* 1.3-4 = *CTA* 3-4), ⑶ 바알과 못과의 싸움(*KTU* 1.5-6 = *CTA* 5-6) 등으로 세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이야기는 바알에 관한 하나의 긴 이야기의 부분들인지 아니면 바알에 관한 독립된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서 바알 신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의 왕궁 건설로 결말이 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얌이 왕궁을 원했지만 바알에게 패배함으로써 그는 그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었다. 바알의 승리는 (엘의 궁극적인 주권아래 있는) 신들에 대한 그의 왕직을 수립해 주었지만 왕궁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 왕은 마땅히 궁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므로 왕궁 건설 이야기는 바알의 이야기를 바알이 얌을 정복함으로써 왕이 될 권리를 얻은 때로부터 왕궁의 건설을 통해 그 권리를 정상적으로 확립하는 데까지 전개된다. 아낫은 위협적인 방법들을 통해 엘에게 남편 바알을 위한 궁전을 요구하나 성공하지 못한다. 바알과 아낫은 코사르-하시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 준 물품을 뇌물로 하여 엘의 아내인 아시랏(Athirat=Elat 엘랏=Asherah 아세라)으로 하여금 엘에게 바알을 위한 궁전을 요구하도록 하여 엘의 허락을 받아낸다. 코사르-하시스가 궁전을 짓는다. 코사르-하시스가 바알에게 궁전의 창을 낼 것을 권할 때 처음에는 바알이 거절하나 나중에는 허락한다. 다시 신화와 종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왕궁 에피소드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늘의 바알의 왕궁은 지상의 그의 신전에 의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 왕궁의 확립은 지상 신전의 권위의 기반이다. 이 둘은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늘 왕궁이 바알에게 권위와 보호를 주었고 그것이 유지되는 한 바알은 지상에 농작물에 필요한 유익한 비를 내려줄 것이다. 바알의 지상 신전에서 종교의 역할은 바알의 왕직과 권위의 인정인 동시에 가뭄과 기근을 가져오는 혼돈의 위협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그것을 영구히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바알 신화에 대한 번역은 *ANET* 129-142 와 J. Gibson, *Cannanite Myths and Legends* (Edinburgh: T. & T. Clark, 1977)를 참고하라.

왕 구데아는 신 닌기르수와 그의 아내 바우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신전을 짓는다. 신전 봉헌은 7 일간 계속되며 이 중 신전의 역할도 언급된다. 구데아 실린더에 대한 번역은 Thorkild Jacobsen, *The Harps That Once . . .*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7), 386-444 를 참고하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33]

- 안식일은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이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은 나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세상도 아니고 나의 세상의 역사도 아니다.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이 레 19:30 과 레 26:2 에 똑같이 나온다.
- 월튼(152-153)이 지적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인정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소우주인 성전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한 하박국(2:20) 선지자의 말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성전의 공간에 대한 관계는 안식일의 시간에 대한 관계와 같다. 공간과 시간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안식일에 성소에서 시간을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해야 한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세계관을 요구한다.
- 안식일은 자아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되돌리는 재시작의 단추(reset button)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사 56:2)."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하여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사 58:13-14)."고 말씀하셨다.

③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시 74:16-17)[34]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의 위대한 일을 마치시고 그것을 마치셨을 때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일의 주가 되시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일-안식의 본을 따르며 엿새 동안

---

[33] Walton, *Genesis*, 158.

[34] [시 74:16-17] (16)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17)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일하고 이레 되는 날에 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사람도 창조의 목적에 따라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쉬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시고 심히 좋은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만족해하시며 유쾌함을 누리신 것처럼(출 31:17) 사람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그치고 안정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숨을 돌리며 상쾌함을 맛 보아야 한다(출 23:12).

④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공간이 정복되었고 일곱째 날에 시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35]

- 사람은 공간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일의 주가 되시어 일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워 일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일을 그치시며 평안 가운데 안식하심으로써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모범을 따라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함으로써 공간을 정복하는 일을 하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야 한다.
- 공간과 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땅의 정복은 존재의 필수 요소인 시간을 희생하여 얻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시간을 들여 공간을 얻는다. 그러나 땅의 정복은 일과 안식의 경계선에 이르러 갑자기 멈춘다. 시간이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땅의 정복이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땅의 정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시간을 땅의 정복에 바치며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엿새 동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일한 후 안식일에 쉬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

5. 출애굽과 안식일

1) 출 20:11 은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일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지만, 신 5:15 는 하나님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서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의존을 강조하고 있다.[36]

① 안식일에 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과업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음을

[35] Waltke, *Genesis*, 67.

[36] Craigie, *Deuteronomy*, 157.

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은 창조의 한 유형으로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사실상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이다**.[37]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② 출애굽의 목적들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 때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일과 안식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년 52 주, 주 7 일 동안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주 6 일만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큰 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달픔을 회고하면서 안식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종들, 나그네들, 가축들까지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나누어 갖는 복된 날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 국가를 이루어 안전과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태평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상기시켜 준다.

2) 출 20:11 은 창조에 근거를 두었고 신 5:15 은 구원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하며 창조와 구원이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두 일처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38]

① 출 31:12-17 은 출애굽 사건이 창조와 구원을 함께 결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출 31:12-17] (12)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니라[개역: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언급하고(출 31:13, 17)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출 31:13)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경고하며(출 31:14)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출 31:17)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지켜야 준수 조항을 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일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출 31:16-17) **창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 출 31:13-17 이 보여 주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37] Craigie, *Deuteronomy*, 157 n. 18 의 지적대로 출 15:16 하반절의 "당신이 사신(קָנִיתָ[카니타]) 백성"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38] Collins, *Genesis 1-4*, 90-91.

②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의 날이요 성회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를 위한 안식과 영혼을 위한 안식, 즉 창조와 구원이 결합된 것을 암시한다(레 23:3).

- [레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שַׁבַּת שַׁבָּתוֹן ESV: a sabbath of solemn rest; NASB: a sabbath of complete rest; NIV: a day of sabbath rest)이니 *성회의 날*(מִקְרָא־קֹדֶשׁ ESV/NASB a holy convocation; NIV: a day of sacred assembly)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③ 구속적 언약이 손상된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사 56:6-8).

- [사 56:6-8] (6)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3) 제 4 계명에서 출애굽과 안식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일(주님의 날, 계 1:10)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①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구원과 새로운 백성의 창조를 표시하는 출애굽은 옛 생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새 사람의 창조를 표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유사하다.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구원과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39]

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을 예표하고 있다. 안식일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15 절로 이루어진 시편 92 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사 58:13 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불렀다.[40]

4)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일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매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일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고 매주 첫째 날에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주일은 창조를 되돌아보며 영원한 안식의

---

[39] Craigie, *Deuteronomy,* 158.

[40] [시 92:1-5] (안식일의 찬송 시) (1-3)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4)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사 58:13-14] (13)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새 창조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방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3. 안식일의 기원: 창조의 규례인가 아니면 구원의 규례인가?

1. 롱맨(Longman)은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41] 안식일 규례를 창조의 규례로 보았다.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최고의 율법인 십계명에 들어 있다(출 20:8-11; 신 5:12-15).
   2)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언약의 준수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라고 지적되었다(출 32:12-17; 겔 20:20).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창조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혼과 노동과 함께 제정하신 창조의 규례로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 중 하루를 구별하여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구속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종살이하던 곳인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종들과 객과 가축에게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택을 즐기는 것이다.
2. 보스(Vos)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창조 때에 행하여진 것에 근거한 것을 지적하며 모든 인간에 주어진 명령으로서의 일반적인 타당성이 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2]
   1) 보스는 만나를 줍지 않는 안식일을 언급하는 출 16:23 을 제외하고 시내산 언약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모세 오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칠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한 말(창 29:27)은 안식일의 원래 제도의 잊혀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식일 규례를 창조 규례로 보는 보스의 주장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2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조 자체에 속한 것이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안식하는 안식일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도덕법의 한 패턴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43]
   2) 몰러(80-81)는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신 법이라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안식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보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몰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줍지 않고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주었다는

---

[41] Tremper Longman III, *Immanuel in Our Place* (Phillipsburg: P&R, 2001), 164-170.

[42]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139.

[43] Mohler, *Words From The Fire*, 80: "Geerhardus Vos argued that the command is in creation itself, as evidenced by Genesis 2, and that the Sabbath is to be a pattern of moral law for all peoples and all times everywhere-six days of labor and one day of rest."

기록(출 16 장)이 있고 출 20 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에 첫 단어로 "기억하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십계명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출 20:9-10)" 안식일 패턴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 호튼(Horton)도 특히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주석가들과 보스가 안식일 규례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창조 규례로 보았지만 안식일 규례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44]
   ① 창 2:2 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피조물로 하여금 출 20:8-11 에 기록된 제 4 계명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즐기도록 하는 언급된 것이 없다.
   ② 우리가 객관적으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안식을 존중하고 즐기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출 31:14)."고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에 비로소 주셨던 말씀이다.
   ③ 모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그의 안식을 나누도록 초청—아니 사실상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것의 요점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례로 보는 것이 좋다.

4) 도우마(Douma)는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고 족장들에 의해 지켜지고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반복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지고 신약교회에서 처음부터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지켜졌다는 주장이 4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45]
   ①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기 16 장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우리가 창 29:27-28 에서 칠일 동안 결혼 잔치에 대한 것을 읽지만 안식일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으나 언급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안식일이 창조 규례라면 에덴동산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창 2:1-3 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급이지 사람이 지키도록 명령된 안식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하나님은 6 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과거의 사건을 근거하여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본받아 일곱째 날에 안식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

[4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14.

[45] Douma, *Ten Commandments*, 110-112.

③ 신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지켰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요 20:19, 26; 행 20: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할(고전 16:2)" 권면하였다.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이러한 기록들은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생각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시할 필요가 없고(롬 14:5)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갈 4:10) 안식일이 그림자로서(골 2:16-17)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신약 교회가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일요일을 처음부터 지켰다는 주장에 반하여 교회가 주후 첫 몇 세기 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암시들이 있다. 주후 2 세기 전에 신자들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일요일에 낮 동안 일을 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주후 321 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이 안식을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진 새로운 안식일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자주 씨 뿌리고 심는 일에 가장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농부들에게 일요일에 일을 하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주후 5 세기까지 교회 신자들은 모이는 통일된 시간을 갖지 못했고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고 일요일에 모이기도 했다. 일요일에 안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 초대 교회 시대 동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연결이 여기 저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 날에 대한 본격적인 신학적인 논의는 중세교회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비추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안식일과 주일이 너무 다르므로 우리는 이 둘을 동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5)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문제의 결론은 안식일을 창조의 규례로 보는 것보다 구원의 규례로 보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① 도우마(Douma)가 지적한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 이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실제 교육을 받고(출 16:21-30)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출 20:8-11)를 받았다.

② 몰러(Mohler)의 주장한 대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평일과 안식일을 구분하였던 교육을 되돌아보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출 20:9-10)" 안식일 패턴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③ 도우마(Douma)가 지적한 대로 창 2:1-3 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급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명령은 출애굽후 시내산에서 이르러 맺은 언약의 준수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고(출 20:8-11)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④ 호튼(Horton)이 지적한 대로 모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그의 안식을 나누도록 명령하셨다. 교제 즉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례로 보는 것이 좋다.

4. 구약의 안식일의 의의와 목적

1. 클라우니(Clowney)는 안식일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6]

1) 안식일은 사람에게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며 일과 휴식이란 리듬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안식일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체적 안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엿새 동안의 일과 하루 동안의 휴식이 가장 효과적인 리듬인 것을 아시고 애굽의 폭군적인 노예 감독자들과 달리 육체적 건강을 고려하셨고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도록 여섯째 날에 2 일분의 만나를 줍도록 제공하셨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 전부와 종들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안식일에 육체적 쉼을 갖도록 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2) 안식일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일이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 특히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을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안식으로 사람이 들어오도록 의도하셨다. 사람이 경험하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실 때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3) 안식일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을 기억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안식일은 창조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징표이다. 안식일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구속과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기념하며 지켜졌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은 언약의 징표였다.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이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바라보았던 안식 즉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의와 생명과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2. 호튼(Horton)은 안식일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7]

---

[46]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54-57.

[47]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15-116.

1)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 인간의 통상적이고 육체적인 안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보존하시고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지은 세상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활동으로부터의 그침이 결코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안식"이란 단어는 "평화, 평강, 평안"이란 단어와 매우 가깝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예루살렘 = "평강의 도시, 안식의 도시")과 거룩한 시간(안식일)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더라도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상태로 존재하신다.
2)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안식의 거룩한 곳(a holy place of rest)으로 만드시고 안식의 안식일 시간(a Sabbath time of rest)을 주심으로써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려고 하셨다. 아담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받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안식일 안식(eternal Sabbath rest)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의 거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안식일 안식은 더 이상 창조의 규례가 아니고 구원의 규례가 되었다. 이제 안식일 안식은 더 이상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맺어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특별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창조 규례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규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갔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구원의 부르심이요 복음 선포의 그림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난과 수고, 희생 제사와 의식들의 끝 그리고 최종적인 안식을 바라보며 매주의 끝인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의 마지막에 메시아(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다.
3)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순종을 하시고 첫 아담과는 달리 우리에게 생명 나무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신이 즐기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열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마지막 날(일곱째 날)에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매주 첫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본다. 안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이다.
4) 안식과 관련된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휴식과 사회 경제적 해방을 주며 땅에게도 쉼을 주는 정말 유익한(useful)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실용적인(utilitarian) 데 있지 않고 신학적인(theological) 데 있다.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주된 요점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즐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길을 가리킨다.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다(시 62:1, 5).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마

11:28-30)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일을 쉬게 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보여주며 영원한 안식에로 초대하는 것이다(히 4:8-10).

5. 예수님과 안식일

1.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눅 4:16)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2.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을 위한 참된 안식임을 밝히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고 말씀하셨다.[48] 예수님의 안식에로의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 . .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으라.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 . . Find rest, O my soul, in God alone; my hope comes from him [(NIV Ps 62:1, 5)."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장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락하셨다(마 12:1-8; 막 2:23-28; 눅 6:1-5).
   1) 사울을 피하여 다윗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놉에 갔을 때 시장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삼상 21:1-6; 마 12:3-4; 막 2:25-26; 눅 6:3-4).[49]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였다(민 28:9-10; 레 24:8).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마 12:6; cf. 요 2:19-22).
   2)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백성이 드리는 제사나 번제보다 백성이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구하셨다(호 6:6; 미 6:6-8; 사 1:10-17; 삼상 15:22).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 2:27).
   3)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마 12:8; 막 2:28; 눅 6:5).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주인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결국 하나님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50]

---

[4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22: "God commanded the Sabbath observance through Moses, but Christ Himself is the Sabbath for His people, as He says in Matthew 11:28-30."

[49] 제사장의 이름이 삼상 21:1-2 에는 아히멜렉이나 막 2:26 에는 아비아달로 되어 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로 흔히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른 것(cf. 삼상 22:20; 삼하 8:17; 대상 18:16), 아들이 아버지와 제사장 직무를 같이 행한 것, 혹은 아들인 아비아달이 더 유명했고 다윗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것 등이 제시된다.

[50] 이상근, **신약주해 마태복음** (서울: 총회교육부, 1982), 198 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성전의 주요, 만물의 주시니 분명히 안식일의 주가 되신다(Bengel).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상적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가

4. 예수님은 상하고 지친 백성을 돌보시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이시며(사 42:1-4; 마 12:17-21)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1)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아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데서 한편 손(오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마 12:9-14; 막 3:1-6; 눅 6:6-11).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붙잡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안식일에 양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을 병에서 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

2)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다(눅 13:10-17). 고침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회당장은 분을 내고 무리를 선동하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물을 그릇에 담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식일에 짐승을 위해 물 긷는 것은 허용되므로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먹이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몇 시간의 매임과 18 년 동안의 매임, 마구에서 푸는 것과 사탄에게서 푸는 것을 예리하게 대조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에 꼽추 여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화하셨다.

3)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셔서 그 앞에 있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 보내시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것처럼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다(눅 14:1-6).

4)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있던 38 년 된 병자를 보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다(요 5:1-9).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짐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옳지 않은 일로 여겼다(요 5:10).[51]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다고 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다(요 5:16).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되신다(Plummer, Bruce).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적 안식일이므로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에게 이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식일 준수가 된다; 그를 떠나가는 모든 것은 안식일 파괴가 된다(Lange).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의 날(계 1:10)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변경된 것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완성자이신 것을 표시한다(Clarke)."

[51] Douma, *Ten Commandments*, 118-119. 예레미야(17:19-22)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평일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이러한 짐을 옮기는 일로 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38 년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고 안식일로부터 해방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감사가 세세한 규칙의 순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유가 새로운 속박으로 대치되고 안식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훼손되어 버렸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요 5:17-18).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나 유대인들 중에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렸다고 하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되물었다(요 7:19-20). 그 때 예수님은 한 가지 일 즉 안식일에 38 년 병자를 고친 일을 그들이 괴이하게 여긴 것을 지적하셨다(요 7:21).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3-24)."고 말씀하셨다.

5)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4-5)."고 하시며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요 9:6-7).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서로 쟁론하였다(요 9:16). 고침 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2-33)."라고 말했다.

5. 마태 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참된 안식이고(마 11:28-30) 안식일의 주인이시고(마 12:5-8) 예언된 고난의 종에 대한 성취로 오셔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지치고 피곤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며 쉼을 주시는 분이다(마 12:17-21).[52]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6.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견해에 대한 것이지 제 4 계명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몸소 제 4 계명을 실천하시며 제 4 계명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이 즐길 계명인 것을 가르치시며 제 4 계명의 유효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세밀한 규칙 안에 사람을 가두는 억압의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며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방해거리들 없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다.

6. 바울과 안식일

1. 롬 14:5, 갈 4:10, 골 2:16-17 등은 안식일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구절들이다.
   - [롬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52]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23.

- [갈 4:8-11] (8)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 [골 2:16-17] (16)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 롬 14:5 에서 날을 비교하는 것은 안식일과 평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 금식에 좋은 날인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던 것을 염두에 둔 날들의 비교이다.
   1) 금식의 날로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낫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2) 바울은 금식의 날과 관련하여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낫게 여기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6)."고 말했다.
   3) 따라서 금식의 날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롬 14:5 은** (본질상 금식의 날이라기보다는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다**.
3. 갈 4:10 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날[헤메라스]과 달[메나스]과 절기[카이루스]와 해[에니아우투스]를 삼가 지켰다(갈 4:10)." 한글 성경에 단수로 번역되었으나 복수형으로 나오는 "날들"은 안식일을 가리키고 "달들"은 월삭(민 10:10; 28:11-13)을 가리키고 "절기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을 가리키고 "해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킨다.
   1)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 그 복음을 떠나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여러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을 말한다.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절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날들" 즉 안식일도 언급하였던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3)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유대주의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폐지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이 곧 바로 **매주 하루를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제 4 계명의 폐지의 선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주의 날, 주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해방을 축하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안식하며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제 4 계명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4. 골 2:16-17 에 의하면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그림자에 속한 것으로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신약에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1) 구약 시대에 그림자를 통하여 예표된 내용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마 11:28-29).
   2) 그림자에 속한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유대적 절기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사라졌고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유대적 절기와 관련된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체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제 4 계명은 여전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유효하며 신약적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53]
   3) 제 4 계명의 신약적 형태는 "주님의 날, 주일(계 1:10)"이다. 주님의 날 곧 주일은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에 그림자로서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일요일에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7. 안식일과 주일

1. 성경의 주일에 대한 묘사
   1)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주일] 오전에 예루살렘에서 ⑴막달라 마리아에게(요 20:11-18), ⑵여자들에게(마 28:1, 9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 여인들 cf. 막 16:1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눅 24:10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 요 20:2 '우리'), ⑶베드로에게(눅 24:34; 고전 15:5) 나타나셨다.
      ②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주일] 오후에 ⑷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즉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눅 24:13-35)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저녁에 또 예루살렘에서 ⑸도마가 없을 때 10 사도에게(눅 24:36; 요 20:19; cf. 막 16:14) 나타나셨다.
      ③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즉 일주일 후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을 때 11 사도에게(요 20:26) 나타나셨다.

---

[53] 고재수, **십계명 강해**, 131.

2) 바울은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떼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였다(행 20: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고 권면하였다.

3)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었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2.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들이 안식일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킬 것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즉 주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아니고 교회와 국가에 의해 반포된 규례로서 공적인 유효성을 얻었다**.

1) 이처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즉 주일을 지키는 일은 교회의 규례이지만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신 필연적 결과로 생긴 규례이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였고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며 존귀하게 여겼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즉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임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시고 안식일의 성취이신 주님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제 4 계명의 보배는 유대인의 안식일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고 다른 날 즉 주님의 날을 경축하는 일을 요구하였다.[54]

3. 도우마(139-141)는 주일이란 표현과 주일 성수에 관한 초대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주후 100 년경의 디다케(Didache) 14 장에 "주의 날, 주일"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2) 이그나티우스(Ignatius, 주후 50-110), Letter to the Magnesians(9 장):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을 주의 날을 지향하며 그날에 주님과 주님의 죽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상쾌해진다."

3)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주후 150 년경)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는 날을 언급할 때 사용된 일요일이란 용어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4)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주후 170 년경)는 "거룩한 주일"이란 용어를 언급하였다.

5) 터툴리안(Tertullian, 주후 200 년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을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전하였고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으로 오인될까봐 주일이나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터툴리안 당시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기독교인의 구별되는 표시였다.

6) 이러한 문헌들에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없고 오직 터툴리안(Tertullian)으로부터만 일요일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읽게 된다.

---

[54] Douma, *Ten Commandments*, 138.

7) 라오디게아 회의(주후 360 년경):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패턴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을 중시해야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하면 그들의 일을 쉬어야 한다.

8) 파피아스(Papias, 주후 70?-155), 마르시온(Marcion, 주후 110-160), 유세비우스(Eusebius, 주후 263-339?) 등은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비하여 일요일이 제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제 4 계명과 일치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엄격한 대립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적인 율법으로부터 유래한 규례와 연결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고 유대인의 안식일과 제 4 계명의 영원한 유효성 사이의 구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날 동안 악행으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해야 하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의 예표라고 하는 등의 초대 교회의 구약에 대한 풍유적 해석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제 4 계명만 풍유적 해석을 하며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9) 초대교회가 처음에 제 4 계명에 대한 아주 견고한 견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에서 옳은 입장을 취한 것은 일요일을 안식일의 원래의 의도처럼 정확하게 기쁨의 날로 받아들인 것이다. 나중에 교회에서 이 즐거운 기념이 믿음을 유대주의화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제 4 계명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일상의 일로부터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0) 유대주의와 결별한 후 초대교회는 새로운 많은 것을 구축해야 했고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21 년 3 월 7 일에 일요일을 로마의 안식의 날로 공포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안식일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성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요일을 온전히 쉬는 날로 주장하며 지킬 수 있는 입장을 갖지 못했다.

4. 도우마(141-142)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천하는 관점에서 제 4 계명에 들어있는 임시적인 요소와 영구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애굽으로부터 해방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성취이시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고전 5:7)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되돌아보는 제도로서 안식일은 사라지고 우리가 주일에 되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다.

2)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후에 누리신 영원한 안식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매주 하루를 성별하여 안식의 날로서 쉬는 주일에도 적용이 된다. 더욱이 히브리서 4 장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의 징표라는 것은 주일에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누리신 안식처럼 우리의 일로부터 결정적으로 쉬는 영원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히 4:9-10).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둘 다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징표이다.

3)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위치를 상실한 임시적인 요소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과 희년 등 안식의 주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하여 사형으로 벌주는 것(민 15:32-

36), 구약 시대가 미성숙의 시기이어서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필요하였지만 신약 시대가 자유의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것에 비추어(갈 4:1-5)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았던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다.

5.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하고 지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져다 준 해방이란 그림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성취로 오셔서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해방이란 실체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할례라는 그림자가 세례라는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고 유월절이라는 그림자가 성찬이란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었듯이 토요일의 안식일이란 그림자가 일요일의 안식일 즉 주님의 날 곧 주일이란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일 즉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8. 제 4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55]

1.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3)

   HC 103. 제 4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하고(신 12:19; 6:4-9, 20-25; 고전 9:11, 13-14; 딤후 2:2; 3:13-17; 딛 1:5), 특별히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여(신 12:5-12; 시 40:9-10; 68:26; 레 23:3; 행 2:42-47; 히 10:23-25)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롬 10:14-17; 고전 14:19, 26-33; 딤전 4:13) 성례에 참여하며(고전 11:23-25) 공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딤전 2:1; 골 3:16)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고전 16:2; 시 50:14; 고후 8-9 장)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악행을 그치고,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여 이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사 66:23; 히 4:9-11)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2.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8-60; 대교리 문답[WLC] 116-118)

   1) WSC 58.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이레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신 5:12-14; 사 56:2-7).

   2) WSC 59. 하나님께서 이레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창 2:2-3; 눅 23:56),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입니다(행 20:7; 고전 16:1-2; 요 20:19-26).

---

[55] 다른 계명들을 다룰 때와 달리 4 계명의 경우 개혁주의 교리 문답을 주해의 끝 부분에 부록처럼 두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둔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3) WSC 60.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날들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세상적인 일과 오락까지도 하지 말고(느 13:15-22; 사 58:13; 출 16:25-28)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출 20:8, 10)과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데 사용된 시간(마 12:1-13)을 제외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눅 4:16; 행 20:7; 시 92:1-2; 사 66:23).

4) WLC 116.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 곧 이레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신 5:12-14; 사 56:2-7).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이고(창 2:2-3; 눅 23:56) 그 이후로 매주 첫째 날이며(행 20:7; 고전 16:1-2; 요 20:19-26)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지속될 것인데(마 5:17-18)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며 신약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계 1:10).

5) WLC 117.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통상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세상적인 일들이나 오락조차도 삼가며(출 16:25-28; 느 13:15-22; 사 58:13; 렘 17:21-22) 거룩하게 쉬는 것(출 20:8, 10);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마 12:1-13)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사 58:13; 눅 4:16; 행 20:7; 고전 16:1-2; 시 92:1-2; 사 66:23; 레 23:3);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예견과 근면과 절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세상적인 일을 신속히 행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보다 더 자유롭고 또는 보다 더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출 20:8; 눅 23:54, 56; 16:22, 25-26, 29; 느 13:19).

6) WLC 118.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보다 특별하게 가정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정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보다 특별하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 자신의 일로 인해 아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출 20:10; 수 25:15; 느 13:15-17; 렘 17:20-22; 출 23:12).

3.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1; 대교리 문답[WLC] 119)

1) WSC 61.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겔 22:26; 암 8:5; 말 1:13) 그리고 게으르거나(행 20:7, 9) 그 자체로 죄 되는 일을 하거나(겔 23:38) 우리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함으로써(렘 17:24-26; 사 58:13)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2) WLC 119. 제 4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겔 22:26)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거나 지겨워하는 것(행 20:7; 겔 33:30-32; 암 8:5; 말 1:13); 게으름으로 그 날을 더럽히거나 그 자체로 죄 되는 일을 하는 것(겔 23:38); 그리고

우리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하여 필요 없는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함으로써(렘 17:24, 27; 사 58:13)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4.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소교리 문답[WSC] 62; 대교리 문답[WLC] 120-121)
   1) WSC 62.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매주 엿새를 허락하신 것(출 20:9; 출 31:15-16)과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장하신 것(레 23:23)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출 31:17)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창 2:3).
   2) WLC 120. 제 4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그것의 형평성 즉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출 20:9)"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칠일 중에 육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 떼어두신 것;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출 20:10)"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하여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출 20:11)"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출 20:11)"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자신을 섬기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 그날이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WLC 121. 제 4 계명의 초두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의 초두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게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써 모든 나머지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기독교의 핵심인 창조와 구속이란 두 가지 큰 은택을 감사하며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그날에 대한 특성이 보다 적게 밝혀지지만(there is less light of nature for it) 그날이 다른 때에 합당한 일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고, 그날이 이레 중 하루 밖에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오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날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하여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사단이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이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그날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의 기억마저 지워 버리려고 무척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 장 7-8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XXI.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7-8)
   1) WCF XXI. 7.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구별되는 것이 순리이듯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긍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을 주시며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질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출 20:8,

10-11; 사 56:2, 4, 6-7).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매주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창 2:2-3; 고전 16:1-2; 행 20:7) 이 날은 성경에서 주일로 부르고(계 1:10)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계속될 것입니다(출 20:8, 10; 마 5:17-18).

2) WCF XXI. 8.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미리미리 처리한 후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온종일 거룩하게 쉴 뿐만 아니라(출 20:8; 16:23, 25-26, 29-30; 31:15-17; 사 58:13; 느 13:15-22) 하나님께 공적 혹은 사적으로 예배하며 불가피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데 모든 시간을 사용할 때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집니다(사 58:13; 마 12:1-13).

6.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차이[56]

1)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로부터 안식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우리의 악한 일로부터 영적으로 안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안식과 예배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과 영적인 안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일상의 일을 손에서 놓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성례에 참여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한다.

2)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참된 육체적 휴식을 통한 숨을 돌리는 안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점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일상적인 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3)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둘 모두 제 4 계명의 영속적인 유효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안식일과 주일을 연관짓는 방법과 우리의 주일 성수에 대한 방법의 결과들에 대하여 계속 차이를 보일 것이다.[57]

9. 안식일/주일과 일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라는 레 23:3 의 말씀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56] Douma, *Ten Commandments*, 142-146.

[57] Douma, *Ten Commandments*, 146: "Both start with the abiding validity of the fourth commandment. . . . But with regard to the way in which the Sabbath and Sunday are connected,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or our Sunday observance, differences will likely continue indefinitely."

유월절/무교절의 규례(레 23:5-8; 민 28:16-25) 가운데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58]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신 5:13; 레 23:3)"는 명령과 절기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레 23:7-8; 민 28:15)"는 명령은 똑같은 뜻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의 "아무 일"은 כָּל־מְלָאכָה [콜-믈라하] (any work)이고 절기의 "아무 노동"은 כָּל־מְלֶאכֶת עֲבֹדָה [콜-믈레헤트 아보다] (직역: any work of labor or service)이다.

2) NIV 는 레 23:3 을 "You are not to do any work."와 레 23:7-8 을 "do no regular work."로 각각 번역하였다. 웬함(Wenham)은 전자를 "Do not do any work."로 번역하고 후자를 "You must not do any heavy work."로 번역하였다.[59] 웬함은 절기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금지된 "아무 노동 heavy work"은 농업이나 상업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며 요리하는 것과 불 피우는 것과 같은 안식일이나 속죄일에 금지된 작은 가사의 일(minor household chores such as cooking or fire-catching cf. 출 16:23-30 [만나 거두는 일 불가]; 35:3 [불 피우는 일 금지]; 민 15:32-36 [나무하는 일 금지])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60]

2. 스튜아트(Stuart)는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먹이는 것, 젖을 먹이는 동물이 새끼에게 젖을 주는 것 등 농경사회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필요한 일까지 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생물에게 해를 주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엿새 동안 하는 일상적인 일을 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61]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동물을 돌보는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가사의 일들은 분담하며 모든 사람이 가급적 안식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3. 출애굽기 16 장은 만나를 거두는 일과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며 매주 첫 다섯 날은 하루분만 거두어 먹고 남기지 말라고 명하셨고 여섯째 날은 이틀분 양식을 거두도록 하시며 일곱째 날은 처소에서 거두러 나오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하셨다. 매주 첫 다섯 날에 거둔 만나의 경우 다음날까지 남기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으나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의 경우 일곱째 날에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으며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

[58] Wenham, *Leviticus*, 302 n. 3 에 의하면 쿰란의 에센파 사람들이 사용한 희년서에 있는 희년 달력(Jubilees calendar)은 1 년이 52 주(354 일)이며 새해가 항상 수요일에 시작되고 무교절(레 23:6)이나 일곱째 달 첫날(나팔절, solemn rest day, 레 23:24)이나 장막절(레 23:34) 같은 주요 절기도 항상 수요일에 시작된다. 구약이 희년 달력을 따랐다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와 달과 별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창조된(창 1:14) 넷째 날이 곧 수요일이라는 것이 지적된다.

[59] Wenham, *Leviticus*, 297-298.

[60] Wenham, *Leviticus*, 303.

[61] Stuart, *Exodus*, 459.

자들은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여섯째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만나를 남긴 자나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는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다.

4.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 위해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1) 아모스 시대에 상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암 8:5)"라고 불평하였다.
   2) 느헤미야(13:15-22)는 안식일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 때 책망하며 못하게 하였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 때 매매를 금하며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 어두워 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성문을 열지 않게 하고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 성밖에서 자는 상인들을 잡겠다고 경고하며 안식일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3)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이었다(출 32:12-17; 겔 20:20).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겔 20:13) 언약의 저주대로 적국의 포로가 되는 재앙을 당했다(느 13:18).
5.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팔장을 끼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일을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62]
   1) 여호수아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 번 돌도록 하였고 그 후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수 6:15-20).
   2) 수넴 여인은 안식일에 20 마일이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왕하 4:23).
   3)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이 최대의 성공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왕비 아달랴를 축출하는 일을 감행하였다(왕하 11 장; 대하 22:10-23:15).
6. 전해 내려오던 구전의 율법(oral law)을 주후 200 년경에 랍비 유다 하나시(Judah Hanasi, Judah the Prince)가 글로 모은 미시나(Mishna)에는 안식일에 금하는 일에 관한 사십에 하나 감한 즉 39 개의 규례들이 들어 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구전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가며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타작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았다(마 12:1; 막 2:23; 눅 6:1).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며 송사하고자 하였다(마 12:10; 막 3:2; 눅 6:6-7). 또한 그들은 38 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62] Douma, *Ten Commandments*, 120.

장소로 짐을 옮기는 옳지 않은 일로 보았다(요 5:9-10).[63]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으로 인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정죄되었고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요 5:16-18). 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눅 13:14).

2)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마 12:5),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마 12:11)을 구해내고,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눅 14:5) 구해내며, 마구에서 풀어내어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고(눅 13:15), 할례를 행하는(요 7:22-23) 것 등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선을 행하고(마 12:12), 생명을 구하고(막 3:4; 눅 6:9),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고(눅 13:16),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해 주고(요 7:23), 눈을 뜨게 하는(요 9:14) 일을 행하셨다.

3)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요 5:1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시며(막 2:27) 안식일의 주인으로서(마 12:8; 막 2:28; 눅 6:5) 죄와 질병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에게 일로부터 쉼을 주는 것이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64]

7.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눅 4:16)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바울도 전도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고 성경을 읽은 후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을 강론하였다(행 13:14-42; 17:1-3; 18:4).
8.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0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일주일이 지난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11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필요한 경우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주일에 떡을 떼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였다(행 20:7).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었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

[63] Douma, *Ten Commandments*, 118-119. 예레미야(17:19-22)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평일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이러한 짐을 옮기는 일로 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38 년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고 안식일로부터 해방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감사가 세세한 규칙의 순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유가 새로운 속박으로 대치되고 안식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훼손되어 버렸다.

[64] Stuart, *Exodus*, 459, n. 52: "In the NT, Jesus clarified this commandment by emphasizing its purpose, which is to give a break from work to human beings, not to restrict people from doing what is enjoyable (e.g,, Matt 12:1-12 and par.; Luke 13:10-16; John 7:22-23)."

9.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쉬는 날은 아니다.
   1) 주일은 목회자에게 바쁜 날이고 의사에게 일하는 날이기도 하고 경찰관에게 근무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주일에 허용되는 일들로서 경건의 일, 자비의 일,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다.[65]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경건의 일이요(마 12:5), 병을 고치는 것은 자비의 일이요(막 2:31), 짐승에게 물을 먹이거나 구덩이나 우물에서 짐승을 건져내는 일은 필요의 일이다(눅 13:15; 14:5).
10. 신자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능한 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일의 범주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경찰관, 소방관, 전기/가스/수도/교통 등의 공익사업 종사원, 전화 교환원 등)의 경우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사, 간호원, 구급 요원 등)의 경우 긴급 상황이나 당직일 때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일에 병원을 평일과 똑같이 풀가동 운영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경우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가피한 일이나 자비의 일이란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채산성이나 보다 많은 이윤 추구 차원에서 근무 교대에 따라 혹은 장거리 운반 과정에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에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주일에 불가피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아닌데도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넓혀 가고 그러한 상가를 조성하여 발전시키고 이윤 추구 차원에서 주일에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하며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0. 제 4 계명과 주일 성수

1. 주일은 쉬는 날이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다. 제 4 계명의 원리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우선 주일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
   2) 또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이 없고 평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일상의

---

[65] Douma, *Ten Commandments*, 152 는 라틴어 용어로 이 셋을 opera pietatis, charitatis, et necessitatis 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하고 이와 반대로 주일에 허용되지 않은 일들을 가리키는 라틴어 용어로 opera servilia (daily labor), opera forensia (public courts, markets, assemblies, and the like), opera liberalia (activities for developing the spirit that required exertion, such as studying and teaching)를 소개한다.

일로부터 쉬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3) 안식일처럼 주일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쉬는 날이지만 주일이란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며 다른 날들에 할 수 없거나 보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안식과 예배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4) 공동체 전체가 일상의 일로부터 쉬는 것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합된 주일을 경축하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주일에 "안식하고, 안식하되 예배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여건 조성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66]

2.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1)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지침을 만들어 허용된 것을 하고 허용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안식일 성수 여부를 판단했던 것을 주님이 비판하시고 교정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 주일 성수에 대한 획일적인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 진정한 기쁨의 날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2)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주일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을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축의 날로 지키느냐 하는 본질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일 성수 문제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3) 획일적인 주일 성수 지침은 없더라도 우리 모두 제 4 계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통일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주일은 평일처럼 일하는 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가 쉬는 일은 그 자체로 주일 성수에 통일성을 주는 것이다. 주일은 주 5 일 근무하는 상황에서 쉬는 토요일처럼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는 날이 될 수 없다.

② 교회에 가는 일은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통일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는 말씀에 비추어 주일에 두 번 모이는 일은 특히 그렇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신 날이요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인 날인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진지하게 경축하는 주일에 스포츠 행사나 학교 숙제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장거리 여행 등과 같은 다른 일들은 스케줄에서 배제해야 한다. 주일을 경축하며 동시에 운동

---

[66] 강영안, **십계명 강의**, 170: "쉬어라, 쉬되 예배드리며 쉬고, 남과 더불어 쉬라."

경기장이나 해변이나 상가에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날로서 주일과 맞지 않는다.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일은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동시에 누리는 날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1) 육체의 안식이 오직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등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일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2) 도우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작성될 당시의 어린 아이들의 교육 상황이 오늘날과 달라 오늘날 어린이들이 주중에 교육을 받는 것을 그 당시에는 주일에 받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일 성수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고 엄격한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였다.[67] 손발을 뻗치고 숨을 돌리며 쉬는 육체의 안식이 고려되지 않고 주일이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끊임없는 말씀의 토론으로 가득찬 날이 되어버린다면 주일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주일에 구원받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온 가족과 함께 경축하는 일을 싫어할 것이다. 따라서 주일에 쉬는 것에 건전한 기분 전환적 측면(recreational dimension)도 있어야 할 것이다.

3) 주일에 쉬는 것을 단지 교회 예배 시간 동안 깨어 있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은 주일의 세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기 위하여 충분한 안식을 얻는 한 주일의 안식과 다른 날의 안식을 구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과

---

[67] Douma, *Ten Commandments*, 151 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대로 실천하기 위해 Richard Baxter, *The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 (reprint, Ligonier, Pa., 1990), 1:472-473 에 언급된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rise early on Sunday morning; pray in private; have family devotions; go to church (and do not sleep in church); after returning home, while the noon meal is being prepared, pray in private and review everything said in church; enjoy a festive meal with conversation about the love of our Redeemer or something fitting for Sunday; after the meal, gather as family for a psalm or singing and instruction; go to church once more; come home and gather as family to call upon God in prayer and song and to rehearse the sermon; thereafter eat, but not too much, just as at noon; after the evening meal, question the children and servants about what they had learned during the day; sing a psalm and conclude with prayer; and end the day with holy thoughts!" 그리고 Douma 는 G. Voetius, *Catechisatie over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republished by A. Kuyper, Rotterdam, 1891), 871-72 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eople should go to church twice on Sunday; but what should they do between and after services, "for the day is long?" Voetius mentions catechetical instruction and retelling the sermon. If there is time left, then visit the sick and elderly or others in distress, to comfort, strengthen, and warn them."

마찬가지로 가벼운 기분 전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연습이다. 과연 주일의 온전한 하루가 주님의 날로 여겨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68]

4) 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예배 사이에 오는 시간이나 예배 후에 오는 시간을 모두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과 같은 오락을 즐기는데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좋은 훈련으로 주일에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4. 주일 성수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가?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일 계산법처럼 주일은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인가, 아니면 토요일 자정에서 일요일 자정까지인가, 아니면 일요일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인가?

1) 이것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생애의 다른 기념일들처럼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WCF XXI. 8.).

2) 일반적으로 토요일 자정에서 일요일 자정을 일요일 하루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8] Douma, *Ten Commandments*, 152. "As long as we get enough rest in order to go to church, why do we need to distinguish the rest of the day from an ordinary workday or day off? Rather, just like going to church, light recreational activity on Sunday is a good exercise in self-denying faith: are we willing to spend our time off in a style that permits the entire day to be the Lord's day?"

VII. 제 5 계명

1. 제 5 계명 본문

1. 제 5 계명은 출 20:12 과 신 5:16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2

12 כַּבֵּד אֶת־אָבִיךָ וְאֶת־אִמֶּךָ

לְמַעַן יַאֲרִכוּן יָמֶיךָ עַל הָאֲדָמָה אֲשֶׁר־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② 신 5:16

16 כַּבֵּד אֶת־אָבִיךָ וְאֶת־אִמֶּךָ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מַעַן יַאֲרִיכֻן יָמֶיךָ וּלְמַעַן יִיטַב לָךְ עַל הָאֲדָמָה אֲשֶׁר־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③ 두 본문의 차이

- Times New Roman 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본문이 동일한 것을 보여준다.
- Courier New 체로 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 4 계명에서처럼 "כַּאֲשֶׁר צִוְּךָ יְהוָה אֱלֹהֶיךָ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라는 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것을 가리키며 한 세대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준다.[1]
- Arial 체로 된 히브리어 단어(**יַאֲרִכוּן** / **יַאֲרִיכֻן**)는 장모음을 표시하는 모음 문자 여부를 따라 형태론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본문은 종음절과 전종음절에서 각각 완전철자법과 불완전철자법을 보이고 있다.

2) LXX (Septuagint)

① 출 20:12

τίμα τὸν πατέρα σου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ἵνα εὖ σοι γένηται καὶ ἵνα μακροχρόνιος γένῃ ἐπὶ τῆς γῆς ***τῆς ἀγαθῆς*** ἧς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δίδωσίν σοι

[Brenton] (출 20:12)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at thou mayest live long on the *good*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s to thee.

② 신 5:16

τίμα τὸν πατέρα σου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σου ὃν τρόπον ἐνετείλατό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ἵνα εὖ σοι γένηται καὶ ἵνα μακροχρόνιος γένῃ ἐπὶ τῆς γῆς ἧς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δίδωσίν σοι

[1] Cf. Craigie, *Deuteronomy*, 156 and 158 n. 21.

[Brenton] (신 5:16)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as the Lord thy God commanded thee;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at thou mayest liv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s thee.

-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Brenton 의 번역은 여격 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신명기에만 있는 원문의 절을 볼 수 있다.
- 이탤릭체로 된 부분에 유의하면 출애굽기 본문은 맛소라 본문에 없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Vulgate

① (출 20:12) honora patrem tuum et matrem tuam ut *sis longevus super* terram quam Dominus Deus tuus *dabit* tibi

[Douay-Rheims Bible] (출 20:12)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ou mayest be longlived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will give thee.

② (신 5:16) honora patrem tuum et matrem sicut praecepit tibi Dominus Deus tuus ut *longo vivas tempore et bene sit tibi in terra* quam Dominus Deus tuus *daturus est* tibi

[Douay-Rheims Bible] (신 5:16) Honour thy father and mother,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that thou mayst live a long time, and it may be well with thee i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will give thee.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② 개역개정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③ 새번역

- (출 20:12)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 (신 5:16)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 (신 5:16)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12)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 (신 5:16)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한글 성경들에 단수 "너" 대신 복수 "너희"로 번역한 것들은 원문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오역이다. 개역/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단수로 번역한 것은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개역/개역개정의 "네 생명이 길리라"와 "네가 복을 누리리라"는 의역에 가깝다.

2. 제 5 계명 본문 번역

1) כַּבֵּד[카베드]

① 제 5 계명을 시작하는 단어 כַּבֵּד[카베드]는 더함(Durham)이 분해한 것처럼 작위능동(pi'el)어간 2 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 아니라[2] 카이저(Kaiser)가 분해한 것처럼 작위능동(pi'el)어간 부정사 자립형이다.[3] 이것은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첫 단어들 즉 출 20:8 의 זָכוֹר[자호르]와 신 5:8 의 שָׁמוֹר[샤모르]가 부정사 자립형인 것과 똑같다.

② 제 4 계명과 제 5 계명을 시작하는 부정사 자립형들은 강조명령(emphatic imperative: thou shalt, ye shall cf. GKC 113bb) 혹은 명령 미래 (injunctive future: you shall do = you must do cf. GBH 123v) 혹은 법적인 명령(legislative imperative cf. IBHS 35.4a)이라는 용어로 명명되며 강한 명령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③ כַּבֵּד[카베드]는 "무겁다 to be heavy, weighty"라는 어근과 관련이 있고 지위에 걸맞게 합당한 무게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를 [카베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부모에게 드리며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2) לְמַעַן[르마안]

① 히브리어 מַעַן[마안]은 항상 비분리전치사 לְ와 함께 לְמַעַן[르마안]으로 270 번 사용되었다. [르마안]은 전치사로서 명사나 부정사를 지배하며 목적("with reference to, on account of, for the sake of")의

[2] J. I. Durham, *Exodus* WBC (Waco: Word, 1987), 291.

[3] Kaiser, *Toward OT Ethics*, 84.

부사구를 인도하고, 접속사로서 미완료형을 지배하며 목적 혹은 결과의 부사절(in order that, so that)을 인도한다.

② 출 20:12 와 신 5:16 에서 [르마안]은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언급하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יַאֲרִיכֻן[야아리훈] / יַאֲרִיכוּן[야아리훈]

① 출 20:12 의 יַאֲרִיכוּן[야아리훈]과 신 5:16 의 יַאֲרִיכֻן[야아리훈]에 붙어 있는 어미형 눈(ן-)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לְמַעַן[르마안]이 인도하는 종속절에 사용된 첨가적 눈이다(IBHS 31.7.1b n. 61 cf. 창 3:3).

② 이 두 단어는 모음 문자(요드와 바브)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완전/불완전) 철자법을 보이고 있다. [야아리훈]은 어근 אָרַךְ의 사역능동(히프일) 어간으로 "to grow long, continue long"의 의미를 갖는다(BDB, 73).

4) נֹתֵן[노텐]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이끄는 절 안에 있는 분사 נֹתֵן[노텐]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GBH 121e, cf. 신 1:10; 왕상 20:13).

5) אֶת־אָבִיךָ וְאֶת־אִמֶּךָ [에트-아비하 브에트-이메하]

①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틀어 가리키는 "parent, 어버이, 양친, 부모"와 같은 단어가 없다. 제 5 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에서 부모를 가리킬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 언급한다. 구약에서 유일한 경우이긴 하지만 레 19:3 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다.[4]

② 헬라어에는 부모를 가리키는 통성 명사 γονείς[고네이스]가 있다(참고: 엡 6:1; 눅 2:27, 41, 43; 요 9:2-3; 고후 12:14). 엡 6:1-2 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매우 중요한[5] 계명이다"라는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의 대상으로 "γονεύσιν[고뉴씬] 부모"라는 통성 명사를 사용하고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의 대상으로 남성명사 "πατέρα[파테라] 아버지"와 여성명사 "ματέρα[마테라] 어머니"를 사용하였다.

③ 어머니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어머니가 더 약한 부모이긴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잠언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

[4] 레 19:3 의 אִישׁ אִמּוֹ וְאָבִיו תִּירָאוּ [이시 이모 브아비브 티라우]를 개역개정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번역했으나 새번역은 원문의 순서대로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처럼 공동번역의 "자기 부모"나 현대어 성경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문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았다. 새번역처럼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도 "어머니와 아버지"로 번역했다.영어 성경들은 모두 "(every one/each of you shall fear/revere) his mother and his father"의 순서로 번역하였다. 여기 תִּירָאוּ[티라우]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동사이다.

[5] 이 번역에 대하여 아래 "제 5 계명과 약속"이란 부분을 참조하라.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 23:22)"고 말하며 노년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고 있다.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인 어머니가 남성인 아버지와 똑같이 인정을 받은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드문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복된 일이었다. 열왕기에 유다 왕들의 즉위 공식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언약 공동체에서 여성이 남성처럼 합당한 인정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6) 번역

①(출 20:12)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

②(신 5:1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

2. 제 5 계명의 의미

1. 제 5 계명의 구조

1) 출애굽기의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긍정 명령(**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과 명령 순종의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약속(**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신명기의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긍정 명령(**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과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추가된 어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와 순종에 따른 [추가 확장된] 복에 대한 약속(**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제 5 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련 구절들

1) 모세오경에서 제 5 계명과 가장 가까운 병행구절은 출 21:15, 17; 레 20:9; 신 27:16 등인데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6]

- [출 21:15, 17] (15)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레 20:9]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신 27:16] 그의 부모[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6] Childs, *Exodus*, 418.

① 이러한 구절들은 제 5 계명의 출발점이 장성한 자녀들이 늙고 연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것을 암시한다.[7]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의존성과 친밀성은 변화하는 것이고 자녀라는 것은 연령의 범주가 아니고 관계의 범주이므로 제 5 계명을 받는 사람에는 부모를 둔 모든 연령의 자녀가 포함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②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형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어느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다.

2) 제 5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 21:18-21 은 부모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을 다루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신 21:18-21] (18)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그들이 그를 훈계하여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19)그의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8]

① 이 본문은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본문의 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알 만큼 나이가 먹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아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완악한[쏘레르]" 그리고 "패역한[모레]"이란 형용사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나쁜 태도와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에 유의하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사이의 유추를 볼 수 있다.

2) 잠언에도 모세 오경처럼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제 5 계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고(잠 19:26; 28:24; 30:11; 20:20; 30:17),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며 제 5 계명을 잘 풀이해 주는 구절들이 있다(잠 1:8 과 3:1-2; 잠 23:22-25).

① 부정적인 내용

- [잠 19:26]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 [잠 28:24] 아버지와 어머니의(개역개정: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 [잠 30:11]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 [잠 20:20]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 [잠 30:17]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

[7] Miller, *Ten Commandments*, 170.

[8] 위에서 한 번 지적한대로 개역개정에서 속격을 표현할 때 18 절에서 "그의"와 "그"를 쓰고 20 절에서 "우리의"와 "우리"를 쓴 것도 어느 한 쪽으로 일관되게 통일하면 좋을 것이다.

② 긍정적인 내용

- [잠 1: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 [잠 3:1-2] (1)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잠 23:22-25] (22)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25)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개역개정: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3. 제 5 계명의 위치와 중요성

1. 연결 고리로서 5 계명

1)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마 22:37-39)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되는 첫째 되는 큰 계명은 제 1-4 계명이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둘째 되는 큰 계명은 제 5-10 계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 본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들의 선두에 나온다.

2)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다른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다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 제 5 계명을 언급하신다(마 19:18-19; 막 10:19; 눅 18:20).

① [마 19:16-19]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②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③ [눅 18: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3) 세 복음서 중 마태 복음에는 마지막 자리에 온 제 5 계명에 바로 이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약 말씀도 나온다.

① 마 19:18-19 에서 제 5 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함께 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동의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대비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뒤로 하나님 사랑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웃 사랑을 바라보며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② 이러한 모호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며 제 5 계명이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암시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9]

4)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 중 제 5 계명에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① 제 1-4 계명에서 하나님은 대명사 "나"(제 1 계명 [출 20:3]) 혹은 "여호와"(제 3 계명, 제 4 계명 [출 20:7, 11]) 혹은 "여호와 네 하나님"(제 3 계명, 제 4 계명 [출 20:7, 10]) 혹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제 2 계명 [출 20:5])이란 어구를 통하여 언급된다.

② 그러나 제 5-10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제 5 계명에만 나오고("여호와 네 하나님 [출 20:12]") 제 6-10 계명에는 나오지 않는다.

③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급되는 제 5 계명은 제 1-4 계명(*fas*, divine law)과 제 6-10 계명(*jus*, human law)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10]

2. 십계명 본문에서 제 4 계명과 제 5 계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1) 이 두 계명만이 긍정 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정사 자립형[자호르/샤모르/카베드]을 사용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 이 두 계명에는 순종을 장려하기 위해 제 2-3 계명처럼 동기 부여를 위한 절(제재 조항: 축복)이 들어 있다.

3) 신명기 본문에서 이 두 계명에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라는 절이 들어 있다.

4) 이 두 계명에만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이 들어 있다.

5) 이 두 계명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1 인칭 대명사와 3 인칭 명사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십계명 서언으로부터 제 5 계명까지에만 나온다.

6) 제 4 계명은 뒤로 돌아보고 제 5 계명은 앞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지만, 제 5 계명은 제 4 계명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제 4 계명처럼 제 1-3 계명을 뒤로 돌아본다고도 할 수 있다.[11]

---

[9] Miller, *Ten Commandments*, 169.

[10] Childs(*Exodus*, 417-418)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 6-10 계명에는 나오지 않고 제 5 계명에만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 5 계명이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는 입장은 십계명의 최종적인 형태에 국한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설교적인 표현이 나오는 계명들에만 나오고 마지막 제 10 계명뿐만 아니라 맨 처음 제 1 계명에도 나오지 않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hilds 의 설명과 달리 제 1 계명의 경우 삼인칭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은 없지만 "나 이외에"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 "나"는 십계명 서언의 "여호와 네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제 1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Miller, *Ten Commandments*, 172.

3. 제 5 계명이 제 4 계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로 제 1-4 계명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 6-10 계명을 바라보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

1) 레 19:3 은 제 5 계명과 제 4 계명이 나란히 나오고 동사를 중심으로 레 19:30 과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12]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A)	אִישׁ אִמּוֹ וְאָבִיו תִּירָאוּ
내 안식일을 **지키라**(B)	וְאֶת־שַׁבְּתֹתַי תִּשְׁמֹרוּ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B')	אֶת־שַׁבְּתֹתַי תִּשְׁמֹרוּ
내 성소를 **공경하라**(A')[13]	וּמִקְדָּשִׁי תִּירָאוּ

2) 레 19:3 의 근접 문맥(레 19:2-8)을 보면 제 5 계명으로 시작하여 제 4 계명 그리고 제 1-3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레 19:2-8]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 겔 22:6-8 은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에서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며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곧 이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본문도 제 5 계명이 이웃 사랑의 제 6-10 계명을 앞으로 내다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제 1-4 계명을 뒤로 돌아보는 연결고리임을 보여준다.

> [겔 22:6-8] (6)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 (7)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8)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4) 외경 벤 시락의 지혜서(=집회서 Ecclesiasticus = the Wisdom of Jesus Son Sirach) 2 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를 다루는 장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 번 나오는 2:15-18 은 2 장의 결론이다. 3:1-16 은 부모 공경을 다루며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어머니를 화나게

---

[12] Wenham, *Leviticus*, 264: 자녀들은 "자기 부모(=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레 19:3)" 하는 반면, 부모들은 자기 딸을 창녀로 주어서는 안 되고(레 19:29)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야**(레 19:30)" 한다.

[13] 레 19:3, 30 에 똑같이 나오는 **תִּירָאוּ**[티라우]에 대하여 개역은 각각 "경외하라"와 "공경하라"로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각각 "경외하라"와 "귀히 여기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 주해는 두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유의하여 "공경하라"로 통일하여 번역했다.

하는 자는 여호와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마감한다.[14] 2:15-18 과 3:16 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15]

4. 하나님 사랑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 것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16]

1) 긍정적인 표현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신 5:16] 네 부모를 공경하라(כַּבֵּד[카베드] < [카바드])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תִּירָאוּ[티라우] < [야레])

Cf. [레 19:30] 내 성소를 공경하라(תִּירָאוּ[티라우] < [야레])

[말 1:6]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יְכַבֵּד[여하베드] < [카바드])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כְּבוֹדִי[흐보디] < [카바드])이 어디 있느냐

---

[14] NRSV Ecclesiasticus (Sir) 2:15-18; 3:1-16:

2 [15]Those who fear the Lord do not disobey his words, and those who love him keep his ways. [16]Those who fear the Lord seek to please him, and those who love him are filled with his law. [17]Those who fear the Lord prepare their hearts, and humble themselves before him. [18]Let us fall into the hands of the Lord, but not into the hands of mortals; for equal to his majesty is his mercy, and equal to his name are his works.

3 [1]Listen to me your father, O children; act accordingly, that you may be kept in safety. [2]For the Lord honours a father above his children, and he confirms a mother's right over her children. [3]Those who honour their father atone for sins, [4]and those who respect their mother are like those who lay up treasure. [5]Those who honour their father will have joy in their own children, and when they pray they will be heard. [6]Those who respect their father will have long life, and those who honour their mother obey the Lord; [7]they will serve their parents as their masters. [8]Honour your father by word and deed, that his blessing may come upon you. [9]For a father's blessing strengthens the houses of the children, but a mother's curse uproots their foundations. [10]Do not glorify yourself by dishonouring your father, for your father's dishonour is no glory to you. [11]The glory of one's father is one's own glory, and it is a disgrace for children not to respect their mother. [12]My child, help your father in his old age, and do not grieve him as long as he lives; [13]even if his mind fails, be patient with him; because you have all your faculties do not despise him. [14]For kindness to a father will not be forgotten, and will be credited to you against your sins; [15]in the day of your distress it will be remembered in your favour; like frost in fair weather, your sins will melt away. [16]Whoever forsakes a father is like a blasphemer, and whoever angers a mother is cursed by the Lord.

[15] Miller, *Ten Commandments*, 174.

[16] Miller, *Ten Commandments*, 174.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מוֹרָאִי[모라이] < [야레])이 어디 있느냐

2) 부정적인 표현

[출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מְקַלֵּל[므칼렐] < [칼랄])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 27:16]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מַקֶּלֶה[마클레] < [칼라] = [칼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Cf. [출 22:28(MT 27)] 너는 하나님을(אֱלֹהִים[엘로힘] 개역개정: 재판장; NIV 각주 the judges)

모독하지(תְּקַלֵּל[트칼렐] < [칼랄])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תָּאֹר[타오르]) 말지니라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נֹקֵד[노케드] < [나카드])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בְּנָקְבוֹ[브노크보] < [나카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5. 질서와 생명이란 관점에서 보면 제 5 계명은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17]

1) 하나님은 질서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시고 무생명에서 생명을 가져오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적절한 터전이 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 죄로 인한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명과 사망을 보면 죄로 인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상실된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은 재창조인 것이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삶을 주셨다. 그들은 애굽의 육체적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영적 속박에서도 해방되었다. 이렇게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분과의 교제를 포함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시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 주셨다.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그의 질서와 의를 반영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한다.

2) 제 1-3 계명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 유일한 창조주, 질서의 근원으로 시인하고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인간이 고안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율법이 명한 대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일치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거룩함을 힘써 지킴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제 4 계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보여주신 일과 안식의 질서를 본받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17]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88-89.

3) 제 5 계명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자녀들)을 낳는 기관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관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그의 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알고 그대로 순응하여 살도록 가르치는 기관이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지식과 순응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보존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제 5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제 5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4) 제 5 계명을 따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과 그의 법을 배운 대로 우리는 제 1-4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 6-10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성과 재산과 말과 욕망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6.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정체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신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대인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위치에 부모 공경이란 제 5 계명이 서 있다. 제 5 계명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잇는 논리적인 연결고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발점인 것처럼 부모와 관계는 인간 사회의 시발점이고 모든 대인 관계의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맺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생명 전달의 통로인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대인 관계는 없다. 제 1 계명이 제 2-4 계명의 기반이듯이 제 5 계명은 제 6-10 계명의 기반이다.
7. 제 5 계명은 제 2 계명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라고 복을 약속한다. 언약의 준수조항을 지키면 복이 임하지만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밝히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조항이 제 2 계명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에만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5 계명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4. 제 5 계명의 준수 (1): 부모의 자녀 교육

1.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에서 "아버지의 집, 가족, 가정"(בֵּית אָב [베트 아브])은 가장 아래 있는 단위이었고 그 위로 "친족, 씨족"(מִשְׁפָּחָה [미시파하]) < "지파"(שֵׁבֶט/מַטֶּה[셰베트/마테]) < "백성"(עַם[암])의 단위가 있었다.

1) "아버지의 집,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아내(들), 자녀들을 포함하고 더 확대되어 서로 서로 가까이 사는 결혼한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가장의 아저씨, 아주머니, 사촌들도 포함하였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의 혈통을 따라 형성된 단위이다. 확대된 가족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집"과 "지파" 사이에 있는 "친족, 씨족(clan, subtribe, phratry)"은 야곱의 손자들 중의 어느 하나를 공통 조상으로 하여 내려온 후손들을 가리키는 단위이다.[18] 이러한 단위와 관련하여 다윗을 예로 들어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요 에브랏 씨족 사람이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속한 아들이었다(삼상 17:12).

2)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병원이요 최초의 학교요 최초의 정부요 최초의 교회이었다. 학교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집"은 직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산실이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참된 지혜를 가르칠 책임이 있었다. 부모됨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전 12:13)임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이고(잠 9:10; 욥 28:2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잠 14;27) "장수"(잠 10:27)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잠 22:4)의 복을 주기 때문이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일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창 18:18-19).[19]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모들에게 주며(신 6:1) 그들이 여호와를

---

[18] Bush, *Ruth, Esther* WBC 9 (Dallas Waco: Word, 1996), 101 에 의하면 "씨족, 친족"은 인지된 혈족관계(recognized kinship)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동족결혼 단위(basic endogamic unit)를 형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단일 그룹(most important single group)이었다. 이스라엘에 약 60 개의 씨족이 있었으며 각 씨족은 대충 만 여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친족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수 13-17 장)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업 무를 자의 의무 중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친족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레 25 장).

[19] 개역개정의 창 18:19 에서 "의와 공도"로 번역된 [츠다카]와 [미시파트]는 삼하 8:15; 왕상 10:9; 사 5:7; 암 5:7, 24 등에서 [미시파트]와 [츠다카]의 순서로 나오는데 각각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었다.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츠다카]와 공도[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삼하 8: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미시파트]와 공의[츠다카]를 행할새

[왕상 10:9]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미시파트]와 공의[츠다카]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 5: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미스파흐]이요 그들에게 공의[츠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츠아카]이었도다

[암 5:7, 24] 정의[미시파트]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츠다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 . . 오직 정의[미시파트]를 물 같이, 공의[츠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알게 하고 지키도록 함으로써(신 6:4-9; 11:18-20; 32:46) 자자손손 영구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라고(신 6:2-3; 11:21; 32:47) 권면하였다. 그것은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 자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땅의 계속적인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 교육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

3. 부모들이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대답하며 교육하는 구체적인 5 가지 예가 있다(출 12:26-27; 13:14-16; 신 6:20-25; 수 4:6-7, 21-24).

1) 출 12:26-27 과 13:14-16 은 유월절과 관련하여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출 12:26)?

부모: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출 12:27).

자녀: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출 13:14)?

부모: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새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처음 난 모든 것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출 13:15-16)

2) 신 6:20-25 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신 6:20)?

부모: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신 6:21-25).

3) 수 4:6-7, 21-24 은 요단강을 건넌 후 거기서 취해 길갈에 세운 돌에 대하여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수 4:6)?

부모: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수 4:21)?

부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수 4:22-24).

4) 이 다섯 가지 문답식 교육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먼저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즉 사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삿 2:10)."라고 기록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셨다(삿 2:11-15)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에 종교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사사 시대가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신앙 교육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신 6:6) 마음과 뜻에 두며(신 11:18)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①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하려면 부모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에도 유의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써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 자신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부모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올바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연목구어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피장파장의 오류(tu quoque [뚜 끄오끄에] "you also 당신도 역시")**를 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20]

② 예수님은 항상 행동으로 교육시켰다(요 13:15). 사도들은 항상 본을 보였다(고전 4:6; 11:1; 빌 3:17; 살후 3:7).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해 놓고 부모는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위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말한 내용의 권위도 떨어지고 만다. 거짓말하지 말라던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시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학생이 되는 도리밖에 없다.

---

[20] 강 영안, *십계명 강의*, 184.

③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후궁과 동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사건은 부모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2)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중시하시며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막 10:13-16).

② 바울은 골 3:21 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하고 엡 6:4 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였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다.

③ "어린이"는 "어린아이/어린애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희승, **국어사전**, 1605)"로서 어린이가 인격체임을 잘 보여 준다. 가정의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당한 하나의 인격이며 인격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할 양육의 의무가 있다.

3)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칭찬을 아끼지 말고(cf. 고전 11:2)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하는(cf. 히 10:24)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소망을 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지 말며(잠 19:18)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잠 13:24).

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듯이(신 8:5; 삼하 7:14; 히 12:10; 계 3:19) 부모도 그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잠 3:2). 잠언은 부모의 징계가 자녀의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내며(잠 22:15) 결국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 줄(잠 29:17) 것이라고 말한다.

②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할 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cf. 렘 10:24; 시 6:1)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cf. 딤후 2:25).

③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며(잠 13:24) 자식을 사생자요 친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cf. 히 12:8). 엘리가 아들들의 비행을 듣고도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하며(삼상 2:23-25)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고(삼상 3:13) 아버지로서,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근실히 징계하지 않은 결과 전장에서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임 당하고 엘리 자신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④ 부모의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낳게 하고(cf. 히 12:11) 생명의 샘으로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 준다(잠 13:13-14).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녀를 부모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어 돌로 쳐 죽이라는 규례(신 13:6-10)나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아들을

부모가 잡아가지고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규례(신 21:18-21)는 모두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과 해방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4)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딤후 3:15)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딤후 1:5) 돕고 늦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체득하여 그 이후 자녀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딤전 4:7-8)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엡 2:8)을 명심하고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녀의 옳은 행실과 선행으로 증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양육해야 한다.

②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어야 한다(요이 4; 요삼 3-4).

5. 족장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준 본을 보고 우리도 자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 4 대는 신앙 유산이 잘 보존되어 내려온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 3:6, 15)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3:16)이라고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기억되는 이름이다(대상 29:18; 30:6; 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

2)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창 12:7-8; 13:4, 18; 22:9)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도 단을 쌓고(창 26:25) 야곱도 단을 쌓고(창 33:20; 35:7)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3)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을 통하여 이삭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빠가 경외하시는 분,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이라고 부른 것에서 암시된다. 다음 구절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이삭과 관련하여 사용한 이름을 보여 준다.

[창 31: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Fear of Isaac פַּחַד יִצְחָק[파하드 이츠하크])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 31:53-54]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Fear of his father Isaac פַּחַד אָבִיו יִצְחָק [파하드 아비브 이츠하크])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창 32:9]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 48:15-16]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4)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출 6:8; 33:1; 레 26:42; 민 32:11; 신 1:8; 6:10; 9:5; 30:20; 34: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생존에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했고 그곳을 후손에게 매장지로 물려주었다(창 23:19; cf. 히 11:9). 사라에 이어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고(창 25:9)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거기 장사되었다(창 49:31). 야곱은 이집트에서 아들들을 축복한 후(창 49:1-28) 약속의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의 해골을 묻으라며 해골 신앙을 물려주었다(창 49:29-33; 50:5).

5) 아버지 야곱의 해골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였다가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였고(창 50:25; cf. 히 11:22)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고(출 13:19)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수 24:32).

6)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 대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히 11:8-12, 17-22]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12)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 . . (17)**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5. 제 5 계명의 준수 (2): 자녀의 부모 공경

1.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난다.

1) 제 5 계명에 사용된 "공경하다 כָּבֵד[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to be heavy, weighty"라는 어근과 관련이 있고 지위에 걸맞게 합당한 무게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사 כָּבוֹד[카보드]도 이 어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녀 위에 세운 부모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 영예의 일부를 공유한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지어 사용된

동사들(כַּבֵּד[카베드] "공경하다 to honor", יָרֵא[야레]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to fear, revere")이 그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에도 사용된 것을 유의하면(말 1:6; 레 19:3, 30; 삼상 2:30; 잠 3:9; 사 24:15; 시 22:23[MT 24])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삼상 2:30)."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생명보다 앞서시므로 존경받으시듯이 여호와의 생명 전달의 통로로서 부모는 그 자녀들의 생명보다 앞서므로 존경받아야 한다.[21]

2)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였다(왕상 2:19).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 말하도록 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답하고 부모가 말할 때 잠잠하고 부모가 무언가를 줄 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며 익힌 예절 교육은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고 사회생활에서도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좋은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3) 존경의 반대는 불경이요 무례이다.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모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는 율법을 주었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 레 20:9)."는 율법을 주었다. 잠언은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말하고(잠 30:11)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잠 20:20)."는 강한 경고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잠언은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잠 19:26)"이라고 말한다. 잠언은 또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잠 28:24)."고 선언한다. 바울은 율법이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그리고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딤전 1:9)"를 위해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겔은 권세를 가지고 피 흘리려고 백성 가운데 있는 고관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고 더 나아가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겔 22:7)."라고 질책하였다.

2.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1)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1)."고 말하고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 6:2)."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엡 6:1) 자녀들이 모든 일에

[21] Durham, *Exodus*, 291: "As Yahweh is honored for his priority to all life, so father and mother means must be honored for their priority, as Yahweh's instruments, to the lives of their children."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골 3:20).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자녀는 마땅히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2) 자녀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잠 1:8). 부모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자녀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잠 3:1-2). 자녀들은 "너를 낳은 아버지(개역개정: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개역개정: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개역개정: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개역개정: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잠 23:22-25 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3)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잠 13:1),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잠 28:7),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잠 29:3)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지언정(잠 10:1) 미련한 아들로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고(잠 15:5) 어머니를 업신여기며(잠 15:20) 부모의 근심, 고통, 재앙(잠 10:1; 17:25; 19:3)이 되고 부모의 낙을 없게(잠 17:21)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는 잠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1) 내리사랑(=손윗사람의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손윗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22] 제 5 계명과 관련지어 풀이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이는 부모 공경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뛰어 넘는다.

2)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 즉 외출할 때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리고 귀가해서는 부모에게 얼굴을 반드시 보여드리라는 말처럼 자식들은 부모가 그들의 소재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만들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4. 자녀의 부모 공경은 믿는 배우자의 선택에서 나타난다.[23] 자녀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창 2:24)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바울의 권면대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

5.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님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효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2]이 희승 감수,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은 이 말이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법이다."와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작은 과실쯤은 관대하게 봐주어야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23] Douma, *Ten Commandments*, 174-175.

1) 자녀는 나이 들고 힘없는 부모를 끝까지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자녀는 낳아 주신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잠 23:22).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아버지께 돌아가 전할 말(창 45:9-11)을 주었던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안 식구들을 부양했다(창 47;12; 50:21). 요셉의 늙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에는 존경과 깊은 애정이 배어 있었다(창 46:29; 50:1).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창 47:28-31) 그대로 예를 갖추며 가나안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였다(창 50:1-14).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공경하고 높여 드렸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삼상 22:3)" 청했고 허락을 받아 부모를 모압에 머물게 하였다.
2) 자녀는 부모가 필요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용돈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는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마 15:4-9; 막 7:9-13).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전 5:4)."고 한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룻은 여호와 신앙을 위해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 넘는 신앙적 결단을 하며(룻 1:16-17) 나이 들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다.
3) 벤 시락의 지혜서(=집회서) 3:1-16 는 제 5 계명에 대한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다.[24] 특히 3:12-13 은 노년의 부모를 잘 보살피고 슬프게 하지 말며 심신이 쇠하여졌어도 인내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3:14-15 은 부모에 베푼 선행은 기억되고 죄를 용서받는 신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벤 시락의 지혜서 7:27-28 는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토빗서 4:3-4 도 어머니의 산고를 지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평생 동안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차원에서 부모의 장례를 잘 치러 줄 것을 말한다.[25] 연약한 부모에게 드린 자녀의 선행이나 악행은 부모의 축복 혹은 저주를 가져오기도 한다(창 9:20-27; 벤 시락의 지혜서 3:8-9).

6. 자녀의 부모 공경은 순종에 있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엡 6:1; 골 3:20).

---

[24] Miller, *Ten Commandments*. 189-191.

[25] [NRSV Sirach 7:27-28] (28) Will all your heart honor your father, and do not forget the birth pangs of your mother. (29) Remember that it was of your parents you were born; how can you repay what they have given to you?

[NRSV Tobit 4:3-4] (3) Then he called his son Tobias, and when he came to him he said, 'My son, when I die, give me a proper burial. Honour your mother and do not abandon her all the days of her life. Do whatever pleases her, and do not grieve her in anything. (4) Remember her, my son, because she faced many dangers for you while you were in her womb. And when she dies, bury her beside me in the same grave.

1) 구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안에 다 들어오게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나 모두 주안에 있었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는 자도 있고 부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였다.[26]

2)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순종의 한계(limits)와 방식(style)과 연관이 있다.[27]

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한계(limits) 면에서 부모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자녀는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가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피조물인 부모를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 4:18)."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라고 대답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버리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렇게 할 때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10:37-38; 눅 14:26-27).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을 때 화를 내거나 큰소리치며 부모를 성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겸허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② "주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방식(style) 면에서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잘잘못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부모의 죄와 실수를 예리하게 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 밑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의 부모 밑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라고 지적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눅 2:52)." 베드로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염두에 두며 종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고 권면하였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이어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순종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6]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269-272.

[27] Douma, *Ten Commandments*, 178.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많은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요나단은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인 그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사울을 잘 공경하는 아들이었다. 가정의 달에 요나단을 효도하는 아들,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꿀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처지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고 백성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②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삼상 19:1-7).

③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던진 단창을 피하고 살해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울의 전령을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여 라마 나욧의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해치려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월삭에 식사 자리에 없는 다윗을 위해 말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욕을 듣고(삼상 21:30-31)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삼상 21:33).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고 그 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다. 요나단은 셋째 날 아침에 약조한 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살해 의중을 알리고 다윗을 피난시켰다.

④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cf. 삼상 23:17) 다윗을 보호해준 것은 잘못하는 부모 밑에서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다.

⑤ 아버지요 왕인 사울 곁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은 그 위에 세운 권위에 끝까지 순종한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삼상 31:2, 6).

6. 제 5 계명의 준수 (3): 권위에 대한 순종

1. 범주/총망라 규칙은 모든 계명이 모든 범주의 행할 의무와 금할 죄를 대표하고 있다는 해석 원리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제 5 계명은 자녀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위와 아래 그리고 동등의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 개혁주의 교리 문답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04)은 제 5 계명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 124)은 제 5 계명에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잠 23:22, 25; 엡 6:1-2)뿐만 아니라 연령(딤전 5:1-2)과 은사(창 4:20-22; 창 45:8)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왕하 5:13), 교회(왕하 2:12; 13:14; 갈 4:19), 혹은 국가(사 49:23)에서 권위에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3. 이것은 "아버지(אָב[아브])"와 "어머니(אֵם[엠])"라는 단어들이 육신의 아버지(예: 창 2:24; 4:1; 출 2:8; 시 27:10; 말 1:6)와 어머니(예: 창 43:29; 왕상 2:20)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은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TWOT* I: 5-6; *NIDOTTE* I: 219-222).[28]
   1) "아버지"는 "너의 조부(אֲבִיהָ[아비하] 직역: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창 28:13)"과 "나의 조부(אֲבִי[아비] 직역: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אֲבִי[아비]) 이삭의 하나님(창 32:9[MT 10])"에서 보듯이 혈통적 할아버지에게도 사용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아비 콜-브네-에벨]이었다(창 10:21)." 혹은 "아사가 그 조상[아비브]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왕상 15:11)."에서처럼 더 먼 조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너희 조상[아비헴] 아브라함(사 51:2; 요 8:39 πατέρ[파테르])"이나 "내 조상[아비]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신 26:5)"이나 "네 아버지[아비흐]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겔 16:3)"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민족이나 지파의 조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아비]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아비]이 되었다(창 4:20-21)."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아비헴]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아비헴]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렘 35:14, 16)"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이나 모임의 창시자에게도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창 3:20)"로 언급되었다.
   2) "아버지"는 아버지와 비슷한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었다. 종의 "아버지"는 그의 주인이고(왕하 5:13 나아만), "빈궁한 자의 아버지"는 그의 보호자이고(욥 29:16), "예루살렘 거민의 아버지"는 그들의 통치자이고(사 22:21), "바로의 아버지"는 그의 고문이었다(창 45:18 요셉).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선지자(왕하 2:1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6:21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왕(삼상 24:11 다윗이 사울에게), 제사장(삿 18:19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등에게도 적용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삿 5:7)"로 언급되었다. 스데반(행 7:2)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부를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brethren and fathers"이라고 했다.
   3)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릴 합당한 공경을 모든 다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도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아올 때 보좌에서 일어나 절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레 19:32)."
4. 이렇게 제 5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와 관계된 계명인 것을 고려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듯이(엡 6:1-2)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 5:24, 33)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28] 약자 *TWOT*가 가리키는 사전은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ed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s (Chicago: Moody, 1980)이다.

한다(엡 6:5-8).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히 13:17),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벧전 5:5). 그리고 백성들은 정부의 관리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롬 13:1-7; 딛 3:1; 벧전 2:13-17).

1) 성경은 권위와 순종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 원리인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모든 백성(고전 15:20), 연장자와 젊은이(벧전 5:5), 부모와 자녀(눅 2:51), 남편과 아내(골 3:18), 주인과 종(딛 2:9), 정부와 백성(롬 13:1)의 관계에 모두 "ὑποτάσσω[휘포타쏘]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과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서 권위와 순종의 원리가 지배하는 관계를 묘사할 때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2)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인도를 따라야(to follow her husband's leading rather than to rendering obedience to her husband) 하고 고용원은 고용주의 방침에 따라야(to conform to the policies of their superiors or accept policy directives rather than to obey their employers)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29]

5. 권위와 힘

1) 힘(power)이 순종을 요구할 능력(ability to compel compliance)이라면 권위(authority)는 힘을 [적절하게]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authorization for the [appropriate] use of power)으로 정의할 수 있다.[30] 권위는 관계의 종류, 미칠 수 있는 범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 권위의 행사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 적절한 행사인지 부적절한 행사인지, 쉽게 얻은 것인지 어렵게 얻은 것인지 등에 따라 여러 양상을 보인다. 권위는 항상 제한된 권위이며 다른 영역의 권위들과 연계성이 있다. 권위는 그 성격과 범위가 제한되면 될수록 그 중요성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웃시야는 왕의 권위가 제한된 것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며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드는 벌을 받았다. 그는 죽어서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가까이에 있는 땅에 장사되는 불명예를 당했다(대하 26:16-23).
2)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건덕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섬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 자신의 배만 채우며 자기만 먹이고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목자들(겔 34:2)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기 위해 권위를 행사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롬 13:5).
3) 권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롬 13:1; 마 22:21) 사실에 근거하여 그 권위에 실질적인 힘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그 힘의 사용이 적절하든지 부적절하든지,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29] Douma, *Ten Commandments*, 182-183.

[30] Douma, *Ten Commandments*, 185.

같다(롬 13:2).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순종해야 한다. 권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권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참으며 순종해야 한다(벧전 2:18).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미리암에게 나병의 벌을 주심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셨다(민 12:1-15).

4)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권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 주신 제 5 계명은 위의 권위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우선시하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하고, 약점과 결점과 실수투성이의 위의 권위들에 묵묵히 인내하며 따르시던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제 5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중보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 입으며 주님처럼 승리해야 한다.

6. 남편과 아내

1)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전 11:3).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딤전 2:11-14)."고 말했다.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의 머리인 이유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엡 5:23).

2)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인도를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상호 사랑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한다.

[골 3:18-19] (18)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엡 5:24-25, 28, 33]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 . (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 . (33)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벧전 3:1, 5-7] (1)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 . . (5)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고용주와 고용원

1) 바울과 베드로는 종에 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

[딛 2:9-10] (9)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8] 종(개역개정: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

[엡 6:5-9] (5)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9)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골 3:22-4:1] (3:22)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1)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3) 바울과 베드로 당시와 같은 노예와 주인은 없지만,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고용인을 잘 대접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롬 13:4), 남편이 아내를(엡 5:26), 부모가 자녀를(엡 6:4) 잘 대하여야 하듯이,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을 잘 대하여야 한다(엡 6:9; 골 4:1; 레 19:13; 신 24:15; 렘 22:13; 약 5:4).[31] 고용인들은 고용주의 방침을 따르며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설령 고용원들이 착취하는 나쁜 고용주를 모시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며 제 5 계명을 지켜야 한다.

8.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

1)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그들 위에 두신 사람으로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31] 고용주의 거룩은 회사 내에 예배드리는 모임을 갖는 것에 있지 않고 고용원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약속한 대로 제때에 지불하는 것이다. 레 19:13 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의 품삯을 그날 밤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두는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Milgrom, *Leviticus 17-22*, 1637 에 따르면,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하며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억압[오셰크]이고 "당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착취[게젤]이다. 신 25:15 은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한 품꾼이 "그 품삯에 자기 목숨을 얹어 놓고 있기(개역개정: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고하는 이(=목사)들에게는 더할 것이니라(딤전 5:17).”고 권면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7).”고 권면하였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따라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며 권면하는 사람이다. 목사와 장로는 경건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범을 보이며 예수님을 믿는 참된 즐거움을 교인들에게 보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며 물질적 이득을 추구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딴 재미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주님처럼 교인들을 섬겨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과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던 것을 본받으라고 한다. 계속해서 그는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들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살피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으로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였다(행 20:28-35).

3) 베드로가 장로들와 젊은이들에게 준 권면은 다음과 같다.

[벧전 5:1-6] (1)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개역: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9. 국가와 국민

1) 모세는 왕에 대한 규례를 주었다.

[신 17:14-20] (14)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은 백성으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

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자는 제안을 거절했고(삼상 24:4-6; 26:8-11)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양심에 거리낌을 느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삼상 24:11) 그리고 "내 주,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며(삼상 26:18-20) 왕에게 합당한 공경을 보였다.

②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다윗에게 이르러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삼하 18:28)."라고 말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한 후에 아도니야 문제를 말했다(왕하 1:23).

③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단 2:37; 5:18).

④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전 10:20)."고 말했다. 가알(삿 9:27-29)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반기를 들었다. 나발(삼상 25:10)이 다윗을 무시한 것이나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삼하 16:7)."고 다윗을 저주한 것은 벧전 2:17 의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3) 오늘날 정부의 관리들을 공경하는 것은 과거에 왕을 공경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권면은 다음과 같다.

[롬 13:1-7]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딛 3: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벧전 2:13-17] (13)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4) 왕이나 관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남용되는 일은 늘 있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주었다(삼상 8:11-18). 아모스는 이방 나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끼리 서로 악행을 저지르며 그

백성을 약탈한 것을 지적하고(암 1-3 장) 이스라엘 관리들의 부패를 지적하였다(암 5:7-13). 바울은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체포하려는 기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고(고후 11:32-33), 부당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cf. 고후 11:23-24), 적법한 절차가 없이 벌을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했다(행 16:37-39). 바울이 관리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 장에서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17:14-20 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결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 요한계시록 13 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비기독교적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서 13 장에 묘사된 선정을 베푸는 국가의 모습과 일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의 왕들이 나라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날이 올 것이다(계 21:2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마 28:18) 만왕의 왕이시며(딤전 6:15) 진정한 왕직의 원형이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Lamb)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Lion)이신 예수 그리스도(계 5:5, 12)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이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다(계 12:5). 이런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로마서 13 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땅위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임을 알 수 있다.

5) 로마서 13 장은 우리가 늘 국가에 대한 충성 아니면 저항을 선택해야만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국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가 "순종"인 것을 보여준다. 저항은 긴급 상항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애굽왕의 사내 아이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출 1:17). 사울의 호위병들은 놉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였다(삼상 22:17). 이러한 행동은 국가에 대한 혁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 도우마는 혁명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만 할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로 시민들의 기본 권리들이 정부에 의해 잔인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침해되고, 둘째로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이끌고, 셋째로 있을지도 모를 피흘림이 가급적 적도록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만 하는 것을 들었다.[32]

6) 국민이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정부의 하는 일에 다 동조해야 한다거나 결코 비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판단될 때 비판해도 되지만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혁명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태도로 비판해야 한다. 국민은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2] Douma, *Ten Commandments*, 204.

기독교인들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경우 복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 5 계명을 지키는 태도로 정부에 순종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33]

7. 제 5 계명과 약속

1. 제 5 계명의 목적은 이 세상에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경건한 자손이 보존되도록 하셨다(말 2:15).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잘 발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부모나 남편이나 상전이나 통치기관을 세우셨다.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여받은 생명이 잘 보존되고 양육되고 잘 발휘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신 목적이 잘 수행될 것이다.[3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 5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에스겔(22:7)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죄들 가운데 제 5 계명 위반 즉 "부모를 업신여겼던" 죄도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엡 6:2 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ἐντολὴ πρώτη ἐν ἐπαγγελίᾳ [엔톨레 프로테 엔 에팡겔리아] 약속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 이라고 말한다.
   1) 개정개역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형용사 πρώτη[프로테]의 의미를 결정할 때 제 2 계명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복의 약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 2 계명에도 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제 5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2) 칼빈(*Institutes*, 2.8.37)은 제 2 계명의 약속이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므로 제 5 계명이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 2 계명의 약속이 일반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 2 계명에 붙어 있는 약속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제 5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하면 제 5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된다. 그러나 고대근동의 조약문 작성의 관습에 비추어 십계명 전체가 두 돌판에 각각 기록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또 요세푸스(Josephus)나 필로(Philo) 등 유대인들이 첫 돌판에 제 5 계명까지 들어 있었다고 여기는 것과도 배치된다.
   4) 헬라어 사전 BAG(726 1.c.α)는 형용사 πρώτη[프로테]가 중요성(rank, degree)에 있어서 "first, foremost, most important, most prominent"의 의미로 쓰이며 어구 전체가 최상급의 의미는 없다고 전제하고 "a

[33] 고재수, **십계명 강해**, 68-69.

[34] 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287.

commandment of the greatest importance with a promise attached"라고 번역하였다.[35]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마 22:38)이라고 설명할 때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

5) 영어 성경들은 대개 정관사를 써서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다. 헨드릭슨이 제안한 것처럼 "a commandment first, that is, a commandment of foremost importance with a promise attached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36]

3. 제 5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선이 되는 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WSC 66; WLC 133).

1)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은 늙고(זָקֵן[자켄]) 수가 차서(שְׂבַע יָמִים [스바 야밈] full of years) 죽었다.[37]

2)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1 세의 아들 아비야는 일찍 죽었지만 다른 자손들이 누리지 못한 영예로운 장례를 받았다(왕상 14:13). 죽음이 많은 불행을 면해 주는 측면에서 요시야의 경우처럼 복이 될 수 있다(왕하 22:20).

3)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장수가 반드시 복된 것만은 아니다.

4) 인간의 삶은 설명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잠깐사이에 스올에 가느니라(욥 21:7, 13)"고 말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즉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되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전 4:2)."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지만(시 73:17-18; 92:9) 그 심판을 악인은 반드시 단명해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장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빌 3:20).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욱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육신에 거하고 있다고 말했다(빌

---

[35] BAG =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Edited by W. F. Arndt and F. W. Gingrich. 2nd ed. Revised and augmented by F. W. Gingrich and F. W. Danker from W. Bauer's 5th ed., 195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36]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1989), 260.

[37] 개역개정은 שָׂבֵעַ[싸베아]를 "기운이 다하여(창 25:8)"라고 번역하고 שְׂבַע יָמִים([스바 야밈]을 "기운이 다하여(창 35:29)"와 "나이가 차서(욥 42:19)"라고 번역하였다. NIV 는 세 곳 모두 "full of years"로 번역하였다.

1:20-24). 가나안 땅이 천국에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우 짧은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란 약속 아래 놓여 있다.

6) 우리는 장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고 의인의 짧은 삶이란 예외를 규칙화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생에서도 복이 임한다. 바울의 말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딤전 4:8)" 때문이다.

8. 그리스도와 제 5 계명

1.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였다.

1) 예수님은 12 살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나사렛에 내려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눅 2:51-52).

2)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맏이로서 공생애 전까지 목수 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보셨을 것이다(막 6:3).

3)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요 2:3)."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여자여(γύναι[귀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2:4)."라고 대답했다. 여기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나오는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버릇없음이나 차가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에 들어가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신자와 구주라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된 것을 드러낸다.[38]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다.

---

[38]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58-159. William Hendriksen,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119.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했다(요 19:26).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준수하며 효도를 하려는 예수님이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음이 틀림없다.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와 말기에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의 뉘앙스를 보다 분명하게 보기 위해 예수님이 다른 네 명의 여인들 즉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에게(눅 13:12), 딸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가나안 여자에게(마 15:28),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자에게(요 4:21),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요 20:15)에게 각각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예수님은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수하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며 고쳐주셨다(눅 13:10-13). ⑵예수님은 흉악히 귀신들린 딸을 위해 무응답("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무관심("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개취급("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을 뛰어 넘는 끈질긴 모성애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말한 가나안

4)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으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9:26).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Morris, 718; Hendriksen, 434). 남편 요셉을 잃은 과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잘 봉양해 오던 예수님은 제 5 계명을 십자가 처형을 받는 중에도 실천하셨다.

2. 예수님은 제 5 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장로의 유전을 들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제자들을 질책할 때 그들을 하나님 계명 대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막 7:1-8). 예수님은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출 21:17; 레 20:9)."는 명령을 주었으나 그들의 유전을 따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로 보셨다(막 7:9-13; 마 15:1-6).[39]

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을 지적하셨다(마 19:19; 막 10:19; 눅 18:20).

3.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의 형제자매로 삼으셨다.

1)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 온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대답하셨다(마 12:46-50; 막 3:31-35; 눅 8:19-21).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인 것을 천명하셨다.

여자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마 15:22-28). ㈢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말씀하셨다. ㈣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8:10-1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하거나 차갑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거칠거나 하는 뉘앙스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두 번 "여자여"라로 부르신 경우에도 우리 귀에 거슬리는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9] ὁ κακολογῶν[호 카콜로곤]을 개역은 둘 모두 "훼방하는 자"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에서 마 15:4 는 "비방하는 자"로 번역하고 막 7:10 은 "모욕하는 자"로 번역한 것은 일관성 결여라는 후퇴로 보인다.

2)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참된 가족이 육적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묶어지는 새로운 가족인 것을 보여 준다.[40]

4.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둘이 충돌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1) 예수님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마 10:37-38).[41]
   2)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할 수 있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14:26-27).[42]
   3) 예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부모를 버린 자에게 상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마 19:29; 눅 18:29-30).[43]
   4)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먼저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곧바로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마 8:21-22; 눅 9:59-62).[44]
5.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가족 관계가 파괴되어(눅 21:16; cf. 마 24:10)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마 10:21; 막 13:12)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6.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악한 대제사장(마 26:62-64; 막 14:60-62; 눅 22:66-71; 요 18:19-23)과 불의한 빌라도(마 27:11-14; 막 15:2-5; 눅 23:3; 요 18:33-38) 그리고 악한 헤롯(눅 23:9)까지도 공경하셨다.
7.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을 잘 공경하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고 악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와 헤롯까지도 공경하셨다. 제 5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마

---

[40]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68.

[41] [마 10:37-38] (37)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42] [눅 14:26-27] (26)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43]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눅 18:29-30] (29)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44] [마 8:21-22] (21)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눅 9:59-60] (59)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8:18) 승천하시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제 5 계명을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 5 계명에 대한 완벽한 준수는 우리의 의로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 5 계명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

9. 제 5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5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4)

   HC 104. 제 5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바르게 함에 순종하며 복종하고(엡 5:22-25; 6:1-9; 골 3:18-4:1; 롬 13:1-2; 잠 1:8; 4:1; 출 21:17) 그들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참을 것을(잠 20:20; 23:22; 벧전 2:18)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마 22:21; 롬 13:1-8; 엡 6:5-6; 골 3:19, 21).

2.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4; 대교리 문답[WLC] 124-127, 129, 131)

   1) WSC 64.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윗사람(엡 5:25; 6:4, 9), 아랫사람(엡 5:22; 6:1, 5, 9; 롬 13:1; 레 19:32; 벧전 2:17-18) 혹은 동등한 사람(롬 12:10)으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요구되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45]

   2) WLC 124. 제 5 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 5 계명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잠 23:22, 25; 엡 6:1-2)뿐만 아니라 연령(딤전 5:1-2)과 은사(창 4:20-22; 창 45:8)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왕하 5:13), 교회(왕하 2:12; 13:14; 갈 4:19), 혹은 국가(사 49:23)에서 권위에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3) WLC 125.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윗사람들이 그들의 여러 관계를 따라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때 육신의 부모처럼 사랑과 애정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고(엡 6:4; 고후 12:14; 살전 2:7-8, 11; 민 11:11-12) 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의 부모에게 하듯 윗사람들에게 더욱 더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고전 4:14-16; 왕하 5:13).

---

[45]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th the preserving the honou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 존경의 유지와 의무의 이행입니다.

4) WLC 126. 제 5 계명이 망라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망라하는 범위는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엡 5:21; 벧전 2:17; 롬 12:10).

5) WLC 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존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존경은 마음(말 1:6; 레 19:3)과 말(잠 31:28; 벧전 3:6)과 행동(레 19:32; 왕상 2:19)에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딤전 2:1-2); 그들의 덕행과 장점을 본받는 것(히 13:7; 빌 3:17);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엡 6:1-2, 5-7; 벧전 2:13-14; 롬 13:1-5; 히 13:17; 잠 4:3-4; 23:22; 출 18:19, 24); 그들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히 12:9; 벧전 2:18-20); 그들의 신분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딛 2:9-10)과 옹호(삼상 26:15-16; 삼하 18:3; 에 6:2)와 지지(마 22:21; 롬 13:6-7; 딤전 5:17-18; 갈 6:6; 창 45:11; 47:12)를 드리는 것; 그들의 약점을 감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벧전 2:18; 잠 23:22; 창 9:23)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다스림에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시 127:3-5; 잠 31:23).

6) WLC 129.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처해 있는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골 3:19; 딛 2:4) 위하여 기도하고(삼상 12:23; 욥 1:5) 축복하는(왕상 8:55-56; 히 7:7; 창 49:28) 것; 그들을 가르치고(신 6:6-7) 충고하고 권고하는(엡 6:4) 것; 잘 하는 아랫사람들을 장려하고(벧전 3:7) 칭찬하고(벧전 2:14; 롬 13:3) 포상하는(에 6:3) 것; 잘못하는 아랫사람들을 면목이 없게 하고(롬 13:3-4) 책망하고 징계하는(잠 29:15; 벧전 2:14) 것; 아랫사람들을 보호하며(욥 29:12-17; 사 1:10, 17) 그들에게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엡 6:4; 딤전 5:8) 것; 윗사람들로서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몸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딤전 4:12; 딛 2:3-5)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함으로써(왕상 3: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키는(딛 2:15) 것입니다.

7) WLC 131. 동등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롬 12:10) 것과 상대방의 재능과 출세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함으로써(롬 12:15-16; 빌 2:3-4) 서로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벧전 2:17) 것입니다.

3.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5; 대교리 문답[WLC] 128, 130, 132)

1) WSC 65.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요구되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마 15:4-6; 겔 34:2-4; 롬 13:7-8).[46]

---

[46] "The fifth commandment forbiddeth the neglecting of, or doing anything against, the honour and duty which belongeth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그들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 WLC 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윗사람들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마 15:4-6); 윗사람들이 적법하게 충고하고(삼상 2:25) 명령하고 징계할(신 21:18-21) 때 그들의 인격(출 21:15)과 지위(삼상 10:27)를 시기하거나(민 11:28-29) 경멸하거나(삼상 8:7; 사 3:5) 거역하는(삼하 15:1-12) 것; 윗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조롱하는(잠 30:11, 17) 것;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수치스러운 태도를 갖는(잠 19:26) 것입니다.

3) WLC 130.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겔 34:2-4) 이외에도 그들 자신(빌 2:21)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광(요 5:44; 7:18), 안일, 유익, 혹은 쾌락(사 56:10-11; 신 17:17)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불법적인 일이나(단 3:4-6; 행 4:17-18) 아랫사람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출 5:10-18; 마 23:2, 4)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권유하거나(마 14:8; 막 6:24) 권장하거나(삼하 13:28) 허락하는(삼상 3:13) 것;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말리거나 낙담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요 7:46-49; 골 3:21; 출 5:17);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벧전 2:18-20; 히 12:10; 신 25:3); 부주의로 인해 아랫사람들이 잘못과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거나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창 38:11, 26; 행 18:17);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엡 6:4); 부당하거나 무분별하거나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 자신에게 불명예를 주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창 9:21; 왕상 1:6; 12:13-16; 삼상 2:29-31) 것입니다.

4) WLC 132. 동등한 사람들끼리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끼리 짓는 죄들은 서로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롬 13:8) 이외에도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딤후 3:3), 상대방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행 7:9; 갈 5:26), 상대방의 출세와 형통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민 12:2; 에 6:12-13); 그리고 상대방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요삼 9; 눅 22:24)입니다.

4. 제 5 계명이 약속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6; 대교리 문답[WLC] 133)

1) WSC 66.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제 5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입니다(출 20:12; 신 5:16; 엡 6:2-3).

2) WLC 133. 제 5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 즉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라는 말씀은(출 20:12) 제 5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신 5:16; 왕상 8:25; 엡 6:2-3).

VIII. 제 6 계명

1. 제 6 계명 본문

1. 제 6 계명은 출 20:13 과 신 5:17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3 [로 티르차흐]

לֹא תִּרְצָח׃ 13

② 신 5:17 [로 티르차흐]

לֹא תִּרְצָח׃ 17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 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 절(제 7 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신명기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 제 6 계명(출 20:13; 신 5:17)과 제 7 계명(출 20:14; 신 5:18) 그리고 제 8 계명(출 20:15; 신 5:19)은 모두 두 단어, 즉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 동사로 이루어진 가장 짧으며 매우 강한 금지 명령들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5 = 신 5:18

(출 20:15) οὐ φονεύσεις

(신 5:18) οὐ φονεύσεις

[Brenton] (출 20:15) Thou shalt not kill.

[Brenton] (신 5:17) Thou shalt not commit murder.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Alfred Rahlfs 의 *Septuagint* 와 http://sepd.biblos.com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 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3) non occides

[Douay-Rheims Bible] (출 20:13) Thou shalt not kill.

(신 5:17) non occides

[Douay-Rheims Bible] (신 5:17) Thou shalt not kill.

4)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13 =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3) 살인하지 말라
-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3 = 신 5:17)

살인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3) 살인하지 마라.
- (신 5:17) 살인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3) 사람을 죽이지 마라.
- (신 5:17)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개역, 새번역은 제 6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통일되어 있다.

② 개역개정의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마라"와 "말라"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쉬운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을 의미는 같지만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였고 신명기의 "너희"라는 복수는 원문의 단수 동사와 일치하지 않는 오역이다.

2. 제 6 계명 본문 번역

1) "죽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רָצַח[라차흐], הָרַג[하라그](기본능동 165 번), הֲמִית[헤미트](מוּת[무트] "죽다"의 사역능동, to put to death), הִכָּה[히카](נָכָה[나하] "치다"의 사역능동, to strike dead: 출 2:12; 창 4:15; 수 10:26), קָטַל[카탈] 등이 있다.

①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רָצַח[라차흐]는 순수 히브리어로 동족어들에 유사한 단어가 없다(*TWOT* II: 860, # 2208).

② [라차흐]는 항상 개인에게 행하여지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예외: 민 35:30)를 나타내고 특별히 동포, 동족을 죽이는 일을 나타낸다(*KB* II: 1283).

③ 히브리어 사전(*KB* II: 1283)에 의하면 [라차흐]의 기본능동(파알/칼) 어간으로 쓰인 정형 동사들은 십계명 본문(출 20:13; 신 5:17) 이외에 민 35:27, 30; 신 4:42; 22:26; 왕상 21:19; 렘 7:9; 호 4:2 에 나온다.

2) [라차흐]는 고살자(故殺者)와 오살자(誤殺者) 그리고 피의 보수자(報讐者)와 관련된 도피성 문제를 다룬 본문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민 35 장—20 번; 신 4:41-43—2 번; 신 19:1-13—3 번; 수 20:1-9—3 번).

① 고의적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경우 [라차흐]는 어근 [무트]와 [나하]와 함께 나온다.

[민 35:15-18] (15) . . .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כָּל־מַכֵּה־נֶפֶשׁ בִּשְׁגָגָה)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17)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18)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② 분사 רֹצֵחַ[로체아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murderer 민 35:16-21, 31; 신 22:26; 욥 24:14)을 나타내기도 하고 과실로 살인한 사람(NASB: manslayer; NIV: a person accused of murder, 민 35:6, 11, 25, 28; 신 4:42; 19:3, 4, 6; 수 20:3, 5, 6)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어근 רָצַח[라차흐]가 살의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murder, premeditated killing)에도 사용되고, 잘못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것(manslaughter, accidental killing)에도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1] 도피성이 עִיר מִקְלָט הָרֹצֵחַ [이르 미클라트 하로체아흐]라고 언급된 것은 후자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수 21:13, 21, 27, 32, 38).

③ 피를 보복하는 자(피의 보수자[고엘 하담])가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 민수기 35 장에서 19 과 21 절에는 [헤미트]가 사용되었고 27 절에는 [라차흐]가 한 번 사용되었다.

---

[1] Craigie, *Deuteronomy*, 159. *KB* 는 민 35:12, 30 에 나오는 분사가 둘 중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지만 NASB 는 민 35:12 의 경우 manslayer 라고 번역하고 민 35:30 의 경우 murderer 로 번역했고, NIV 도 전자를 a person accused of murder 라고 번역하고 후자를 murderer 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구별 없이 "살인자"로 번역했으나 "부지중에" 혹은 "고의로" 등의 수식어가 없는 경우에 "고살자"와 "오살자"로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민 35:19-21, 27-28]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גֹּאֵל הַדָּם הוּא יָמִית אֶת־הָרֹצֵחַ בְּפִגְעוֹ־בוֹ הוּא יְמִיתֶנּוּ**) (20)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מוֹת־יוּמַת הַמַּכֶּה** רֹצֵחַ **הוּ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גֹּאֵל הַדָּם יָמִית אֶת־הָרֹצֵחַ בְּפִגְעוֹ־בוֹ**) . . . (27)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וּמָצָא אֹתוֹ גֹּאֵל הַדָּם מִחוּץ לִגְבוּל עִיר** מִקְלָטוֹ **וְרָצַח גֹּאֵל הַדָּם אֶת־הָרֹצֵחַ**)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④ 민 35:30 은 적어도 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살인자를 죽이라는 명령에 [라차흐]를 사용하고 있다.

כָּל־מַכֵּה־נֶפֶשׁ לְפִי עֵדִים יִרְצַח אֶת־הָרֹצֵחַ וְעֵד אֶחָד לֹא־יַעֲנֶה בְנֶפֶשׁ לָמוּת׃ [민 35: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 카이저는 더 늦은 시기의 책에서 예외 없이 **רָצַח**[라차흐]가 의도적인 살인, 즉 살의(殺意)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을 나타냈다(시 94:6; 잠 22:13; 사 1:21; 호 4:2; 6:9; 렘 7:9)고 지적한다.[2] 카이저는 **רָצַח**[라차흐]를 통하여 금지하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창 9:3), 밤에 침입한 강도를 죽이는 것(출 22:2), 잘못하여 죽이는 것(신 19:5), 국가에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창 9:6),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은 반면 자살, 살인 교사죄(삼하 12:9 우리아-다윗), 살인자를 처벌할 권한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인하는 것(왕상 21:19 나봇-아합)에 적용된 것을 지적하였다.

4) 크레이기는 이스라엘 법에 있었던 사형(신 17:2-7; 19:12)과 전쟁(신 20-21 장) 그리고 과실 치사(신 19:1-13)의 경우에 대한 율법에서 보듯이 제 6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이유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3] 그는 제 6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사회적이며 종교적이라고 보았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들의 하나인 장수를 누리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각 구성원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묶여있고 각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능력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

[2] Kaiser, *Exodus*, 425.

[3] Craigie, *Deuteronomy*, 159.

5) 영어 성경은 제 6 계명의 번역에 “kill(KJV, RSV)” 혹은 “murder(NKJV, NRSV, NASB, ESV)”를 사용하였다. 도우마(215)는 제 6 계명이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murder 고살하다”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은 범위의 살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확한 “murder”가 아니라 “kill unlawfully 불법적으로 죽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6) 번역

(출 20:13 = 신 5:17)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2. 제 6 계명의 의미

1.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차흐]가 좁은 의미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to murder)에만 사용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부지중에 과실로 죽이는 것(to manslaughter)에도 사용되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제 6 계명이 어떤 형태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사 [라차흐]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해석상의 긴장으로 인해 6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이며 6 계명이 담당한 생명 보호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경맥 중시의 규칙에 따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관련된 규례들을 살피고 또 내러티브들과 선지서에 나오는 관련된 것들을 상고해야 한다.[4]
2. 모세 오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생명 보호와 관련된 규례들은 민 35 장(도피성); 출 20:22-23:19(언약서), 신 19:1-22:8; 레 24:10-23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보복법 규례(출 21:23-25; 레 24:17-21; 신 19:21)가 나온다.[5]
   1) 도피성(민 35 장; 신 4:41-43; 19:1-13; 수 20:1-9)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피의 보수자의 복수의 물결을 막기 위해 구별되었다(*NIDOTTE* III: 1188, # 8357). 도피성 규례는 살인을 저지른(רָצַח[라차흐]) 살인자(רֹצֵחַ[로체아흐])의 문제를 다루는 규례이다.
      ① [로체아흐]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오살자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로 구분되었다. 부지중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רֹצֵחַ מַכֵּה־נֶפֶשׁ בִּשְׁגָגָה 민 35:11, 15)는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 즉 철 연장(בִּכְלִי בַרְזֶל 민 35:16), [사람을 죽일 만한] 돌(בְּאֶבֶן יָד אֲשֶׁר־יָמוּת בָּהּ 민 35:17; cf. 23),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בִּכְלִי עֵץ־יָד אֲשֶׁר־יָמוּת בּוֹ 민 35:18)로 사람을 쳐 죽인(הִכָּהוּ וַיָּמֹת) 살인자(רֹצֵחַ)는 피의 보수자(민 35:19)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② 고살인지 오살인지 판단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기 사용(민 35:16-18)과 더불어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민 35:20-23)도 조사되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בְּשִׂנְאָה יֶהְדָּפֶנּוּ אֹו־הִשְׁלִיךְ עָלָיו בִּצְדִיָּה וַיָּמֹת 민 35:20)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4] Miller, *Ten Commandments*, 223.

[5] Miller, *Ten Commandments*, 224-247.

죽이거나(בְּאֵיבָה הִכָּהוּ בְיָדוֹ וַיָּמֹת 민 35:21),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שֹׂנֵא לְרֵעֵהוּ וְאָרַב לוֹ וְקָם עָלָיו וְהִכָּהוּ נֶפֶשׁ וָמֵת 신 19:11) 살인자(רֹצֵחַ)는 죽임을 당했다.

③ 오살자와 고살자를 모두 모두 [로체아흐]라고 한 것은 6 계명이 비의도적인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모두 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살인임을 증명하는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기회를 엿보거나 엎드려 기다리는 행위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해소되고 없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④ 치명적인 무기(민 35:17, 18, 23) 사용 여부와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를 통하여 오살자와 고살자를 가리는 것, 그리고 오살자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살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의 보수자가 도피성을 떠난 오살자를 죽이거나(민 35:27 וּמָצָא אֹתוֹ גֹּאֵל הַדָּם מִחוּץ לִגְבוּל עִיר מִקְלָטוֹ וְרָצַח גֹּאֵל הַדָּם אֶת־הָרֹצֵחַ אֵין לוֹ דָּם) 사람을 쳐서 죽인 모든 살인자를 두 명이상의 증인의 증언에 따라 법적으로 죽이는(민 35:30 כָּל־מַכֵּה־נֶפֶשׁ לְפִי עֵדִים יִרְצַח אֶת־הָרֹצֵחַ וְעֵד אֶחָד לֹא־יַעֲנֶה בְנֶפֶשׁ לָמוּת) 것에 [라차흐]가 사용된 것도 살인이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⑤ 지금까지 살핀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하츠]는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아래 저질러진 고의적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막을 수 없어 일어나 버린 과실 치사와 정당하게 집행되는 사형에도 사용되었다.

2) 언약서(출 20:22-23:19)의 규례들의 두 가지 주된 관심사는 생명과 재산 즉 제 6 계명과 제 8 계명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① 제 6 계명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 21:12-14 은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루고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מַכֵּה אִישׁ וָמֵת מוֹת יוּמָת"라는 출 21:12 에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용어 [라차흐]가 나오지 않으나 민 35 장(11, 15, 16, 17, 18, 21 [2 번], 30 절)에서처럼 [나카]("치다, to strike")라는 단어가 [모트]("죽다")와 함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규례는 6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출 21:13-14 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וְהָאֱלֹהִים אִנָּה לְיָדוֹ"으로 보며 (후에 정해질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제단에 피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지만, 고의적 살인자의 경우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이라 מֵעִם מִזְבְּחִי תִּקָּחֶנּוּ לָמוּת"고 명하고 있다. 이 규례는 일어난 살인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하여 실수에 의한 살인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18-19, 20-21, 22-25 은 쳤으나 죽지 않고 상해가 일어난 경우를 다룬다.

- 출 21:18-19 은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הִכָּה) 죽지 않고 상해가 일어난 경우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라"고 명한다.

- 출 21:20-21 은 상전이 종을 매로 쳐서 종이 "바로 죽으면 상전은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וּמֵת תַּחַת יָדוֹ נָקֹם יִנָּקֵם"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종이 상전의 재산인 것을 밝힌다. 이 규례는 주인의 재산인 종이라도 그 생명은 주인의 생명처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 출 21:22-25 은 싸우다가 임산부를 쳐서 낙태하게 한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해가 있을 경우 보복법에 따라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을 명하고 있다.

③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26-27 은 종의 상해가 종의 해방을 가져오는 일을 다룬다. 상전에 의한 종의 상한 눈이나 빠져버린 치아와 같은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 줄 것을 명하고 있다.

④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28-32 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와 관련된 생명 문제를 다룬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결과로 자유인이 죽으면 그 소의 주인은 죽임을 당하거나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하고 종이 죽으면 은 30 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라고 명하고 있다.

⑤ 출 22:1-2 은 제 8 계명과 관련이 있지만 밤 도둑과 낮 도둑에 대한 정당 방어 차원의 쳐서 죽이는 문제를 다루며 6 계명과 관련된 생명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밤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에서 쳐서 죽여도 피 값을 물지 않지만 낮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이라도 쳐서 죽일 수 없다고 명한다. 이렇게 도둑의 생명도 주인의 생명과 똑같이 보호되고 있다. 낮 도둑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만 나오고 다른 근동의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⑥ 이러한 언약서의 규례들은 사람에게 일어난 죽음과 상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 12-26 장 중에서 신 19:1-22:8 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나 생명의 보호 문제를 다루며 제 6 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어느 다른 계명들의 해설보다 길다.

① 신 19:1-13 은 신 4:41-43 과 민 35 장 그리고 수 20:1-9 와 함께 도피성 문제를 다루며 먼저 실수로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보호할 것을 언급한 후에(1-10 절) 보호받지 못할 살인자를 다룬다(11-13 절).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했다. 이 부분에서 오살이든 고살이든 죽임 당한 사람은 "이웃"으로 언급된다(4, 5[2 번], 11 절).

② "네 이웃의 경계표/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신 19:14 은 제 8 계명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마찰이 전쟁이나 살인으로 갈 수 있고 분배받은 기업이 생명 유지의 일차적 수단이므로 제 6 계명과도 연관이 있다.

③ 신 19:15-21 은 제 9 계명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사법적인 살인을 방지하고 있는 점에서 제 6 계명과도 연관이 있다. 어떤 범죄라도 한 증인으로는 사건이 확정되지 못하고 "그의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된" 위증자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벌을 받도록 하였다. 도피성과 지계표 문제를 다룰 때 언급된 "이웃"과 위증 문제를 다룰 때 언급된 "형제"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이웃"이고 "형제"라는 것을 고려하며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친다.

④ 신 20:1-20 은 사법적 정의(신 19:15-20)처럼 생명을 취하는 합법적인 전쟁 문제를 다룬다.

- ✓ 전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1-4 절) 전쟁에서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생명을 아직 충분히 누릴 기회를 먼저 부여받기 위해 병역에서 면죄받게 하고(5-8 절) 두려워하는 자가 전우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8 절) 지휘관이 군인들을 거느리도록 했다(9 절).
- ✓ 전쟁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회답하면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되(10-11 절) 거부하면 싸우며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도록 했다(12-14 절).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성읍들을 제외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한 것이었다(15 절).
- ✓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 그것은 살아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16-18 절). 이 규례는 제 1 계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른 족속들과의 만남이 이러한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음을 암시한다.
- ✓ 과목을 제외한 수목은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침공 수단으로 찍어내어 쓸 수 있지만 함부로 벌목해서는 안 된다(19-20 절). 자연 세계의 생명 보호 혹은 승인된 파괴도 6 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3. 생명 보호를 위한 6 계명의 적용의 범위를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들은 창 4:1-16(가인과 아벨); 9:1-7(노아); 37 장(요셉과 형들); 삿 19-20 장(레위인의 첩); 왕상 21 장(아합과 나봇); 삼하 11-12 장(우리아); 삼상 18-19 장(사울); 삼하 13 장(압살롬과 암논) 등이다.[6]

1) 가인의 아벨 살인은 아담의 원죄가 낳은 비참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전 계획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은 언제든 분노가 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아벨은 내레이터에 의해 3 번 "그의 아우 아벨(창 4:2, 8, 8)"로 언급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3 번 "네 아우 [아벨]"(창 4:9, 10, 11) 그리고 가인에 의해 1 번 "내 아우(창 4:9)"로 언급된다. 이렇게 총 7 번이나 "형제, 아우"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우"와 "아벨"이 4 번(창 4:2, 8, 8, 9) 동격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3 번(창 4:9, 10, 11)은 "아벨"이란 고유명사 없이 "아우"로만 나온다.

[6] Miller, *Ten Commandments*, 248-261.

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므로 형제 자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② **요한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권면하였다**(**요일** 3:10-12).

2)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채소처럼 모든 산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시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다**(**창** 9:1-4). **그리고 하나님은 피는 피로 갚는 보복법을 가르치시며**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① 창 9:5 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에드로시 < 다라시]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요구할 것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혀 준다.[7]

② 창 9:5-6 에 언급된 피를 피로 갚아야 하는 보복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며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가 분명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외에 어떤 것도 잃어버린 인간의 생명을 보상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으로만 갚아야 할만큼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약탈하는(despoil) 자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신에게 해를 끼침이 없이 그의 형제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③ 창 9:5c 에 의하면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각 사람이 "그의 형제"로 묘사되고 있다.[8] 각 사람을 "형제"로 언급하는 것은 형제라는 단어가 가족 혹은 친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7] 개역개정에는 이 동사가 2 번만 나오는 것처럼 번역했다. 3 번 사용된 것을 위해 아래 원문과 NASB 를 보라.

MT: **וְאַךְ אֶת־דִּמְכֶם לְנַפְשֹׁתֵיכֶם אֶדְרֹשׁ מִיַּד כָּל־חַיָּה אֶדְרְשֶׁנּוּ וּמִיַּד הָאָדָם מִיַּד אִישׁ אָחִיו אֶדְרֹשׁ אֶת־נֶפֶשׁ הָאָדָם**

NASB: Surely I will **require** your lifeblood;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every man, from every man's brother I will **require** the life of man.

[8] 창 9:5 의 번역들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MT: **וְאַךְ אֶת־דִּמְכֶם לְנַפְשֹׁתֵיכֶם אֶדְרֹשׁ מִיַּד כָּל־חַיָּה אֶדְרְשֶׁנּוּ**
וּמִיַּד הָאָדָם מִיַּד אִישׁ אָחִיו אֶדְרֹשׁ אֶת־נֶפֶשׁ הָאָדָם

Mathews, *Genesis 1-11:26*, 403:

5a And indeed for your lifeblood I will demand an accounting [darash]

5b From the hand of every animal I will demand an accounting [darash]

5c And from the hand of "man" [adam]

From the hand of <u>each person</u> [ish] <u>his brother</u>,

I will demand [darash] an accounting for human [adam] life.

NASB: Surely I will require your lifeblood;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every man, <u>from every man's brother</u>** I will require the life of man.

HCSB: I will require the life of every animal and every man for your life and your blood. I will require the life of **<u>each man's brother</u>** for a man's life.

ESV: And for your lifeblood I will require a reckoning: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man. <u>From his fellow man</u>** I will require a reckoning for the life of man.

[맛소라 본문의 절의 2 분을 위한 아트나흐 악센트를 따르지 않고

"and from man"을 5c 의 시작이 아니라 5b 의 마지막으로 오게 번역함.]

NIV: And for your lifeblood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rom every animal. And **<u>from each human being,</u>** too,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or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Wenham, *Genesis 1-15*, 151, 154: But I shall require your blood for your lives, from the hand of every wild animal I shall require it; **and from man's hand, <u>from each man his brother's life,</u>** I shall require the life of man. [מִיַּד אִישׁ stands for מִיַּד אִישׁ אֶת־נֶפֶשׁ אָחִיו (Skinner, 170-171; cf. GKC 139c)]

GKC 139c: "the second substantive (= his brother) is in apposition to אִישׁ (thus Gn 9^5 *at the hand of every man, his brother*) . . . or precedes as a kind of casus pendens, and only receives its nearer definition from the following substantive with suffix; thus Gn 41^{12}, 42^{25} (=*to every man in his sack*);"

개역개정: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u>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u>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쉬운성경: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u>사람이든 피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u>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새번역: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u>사람이 같은 사람의</u>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우리말성경: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u>사람이 같은 사람의</u>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번역: **정말로 너희의 생명을 위한 너희의 피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찾겠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각 사람 곧 그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내가 사람의 생명을 찾겠다.**

④ 노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다른 사람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창 4 장의 교훈을 반복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이므로 인간 살인(homicide)이 곧 형제 살인(fratricide)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워했고(창 37:4, 8) 기회가 생기자 계획하고 공모하여(창 37:18-20)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르우벤은 동생들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그의 생명을 치지[동사: 나하] 말라(창 37:21 cf. 민 35). 피를 흘리지 말라(창 37:22 cf. 창 9:5-6)."고 말했다.

①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시기와 증오가 살인의 계획과 공모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증오는 형제 살인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창 50:20). 자칫하면 살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② 형제에 대한 가장 끔찍한 범죄는 살인이고(6 계명 위반) 그 다음으로 끔찍한 것은 노예로 팔아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다(8 계명 위반). 형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창 9:5) 것을 고려하며 형제를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형제가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4) 레위인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었을 때 그 여인은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임을 받았으나 죽고 말았다(삿 19:25-26). 더 나아가 그 여인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시체마저 찍히고 열두 덩이로 토막이 나는 일을 당했다(삿 19:28-29). 내레이터는 이 못된 레위인을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הָאִישׁ הַלֵּוִי אִישׁ הָאִשָּׁה הַנִּרְצָחָה)이라고 부르면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차흐]를 사용하고 있다.

① 레위인의 첩이 붙잡아 끌어내는 남편의 힘과 불량배들의 집단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시체마저 토막이 나버린 이 사건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에 의해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의 경우를 잘 보여 준다.

② 시 94:6 과 욥 24:14 은 악한 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죽이는 일을 묘사하며 동사 [라차흐]를 사용한다.[9]

---

[9] [시 94:3-7] 3 여호와여 악인(**רְשָׁעִים**)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אַלְמָנָה וְגֵר יַהֲרֹגוּ וְיתֹומִים יְרַצֵּחוּ**)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욥 24: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לָאוֹר יָקוּם רוֹצֵחַ יִקְטֹל־עָנִי וְאֶבְיוֹן וּבַלַּיְלָה יְהִי כַגַּנָּב**)

③ 신 22:25-27 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들에서 약혼녀를 강간한 남자는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④ 신 22:26 에서 강간이 살인에 비교되고 있고 삿 19:25-26 에서 실제로 강간이 살인이 되었다. 신명기 22 장과 사사기 19-20 장에 의하면 힘센 남자의 강간은 약한 여자를 욕보이고 능욕하는 것이고(신 22:24; 삿 20:5 [아나]) 일어나 치며(신 22:26; 삿 20:5 [쿰 알]) 살인하는([라차흐] 삿 20:5) 것이다.

⑤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강간이 살인과 같으며 모든 생명의 보호를 위한 6 계명이 특별히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계명인 것을 잘 보여 준다.

5)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던 나봇은 그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남편의 탐욕을 위해 악한 계획과 실행 조치를 지시한 이세벨,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한 두 증인, 법정 공의를 지키지 못한 이스르엘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사형집행에 가담한 이스르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왕상 21 장).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הֲרָצַחְתָּ וְגַם־יָרָשְׁתָּ)"라고 물으신 것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21:19)."고 선언하신 것을 전했다.

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며 법정 공의를 굽게 하고 힘없는 경건한 백성 나봇에게 사법적 살인을 저질렀다. 탐욕에서 살인 계획과 조치 마련(10 계명 위반)을 지나 거짓 증언과 불법적 판결(3 계명과 9 계명 위반)을 거쳐 살인(6 계명 위반)으로 나아갔고 불법적인 토지 탈취(8 계명 위반)로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행은 결국 아합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②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증오나 악의가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웃의 것에 대한 탐욕과 도둑질이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아합 왕이 사법적 제도를 통해 힘없는 자 곧 경건한 나봇을 죽였던 반면에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잉태된 아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 군사적 제도를 통하여 힘없는 자 곧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다(삼하 10-11 장).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브니카 메트 וְנֻכָּה וָמֵת](삼하 11:15)."는 왕명 가운데 나오는 동사 נכה[나하]는 6 계명과 관련된 율법(출 21:12)과 도피성에 관련된 율법(민 35 장)에 나오는 동사이다. 다윗이 왕권을 남용하며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 다윗 가문에 암논의 강간과 죽음,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과 죽음이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7)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과 비슷하다(삼하 18:6-9; cf. 창 37:4).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꾀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계획은 다윗이 우리아를 싸움에서 죽게 한 계획과 비슷하다(삼상 18:17-30; cf. 삼하 11:14-17).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삼상 18:29) 여러 계획을 세우고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며(삼상 24:11; cf. 출 21:13; 민 35:20, 22)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cf. 삼상 24:10; 민 35:13) 엎드려 기다리지도 않았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았다(삼하 24:4-7). 다윗의 사울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의 우리아에 대한 악행과 대조된다.

8)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고(שָׂנֵא 삼하 13:22)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양 털 깎는 일을 핑계삼아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초청한 후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종들로 암논을 쳐서 죽이도록(הַכּוּ אֶת־אַמְנוֹן וְהֲמִתֻּם אֹתוֹ 삼하 13:28) 하였다. 이 이야기는 증오와 적개심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폭행으로 발전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4. 선지서에 제 6 계명이 언급되는 것은 십계명의 요약 가운데 6 계명이 들어 있는 호 4:1-2 과 렘 7:8-9 이다. 이사야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난(사 1:21-23)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비난(렘 7:8-9)과 맞먹는다. 호세아(6:9)는 제사장들이 강도와 같이 살인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10]

① [호 4:1-2] (1)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② [호 6:7-9] (7)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③ [렘 7:8-10] (7)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8)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④ [사 1:21-23] (21)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5.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 욕구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도 요구한다는 표리일치 규칙에 따라 제 6 계명의 준수를 위해 외적인 순종과 함께 내적인 신실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도피성 규례는 마음의 "증오"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고의적 살인으로 이어졌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것(민 35:20-21)과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것(신 19:11)은 고의적 살인이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은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밖으로 표출되어 살인이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10] Miller, *Ten Commandments*, 262.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가 외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을 가져오는 내적 마음의 증오까지 금하는 것을 암시한다.

2) 레 19:17-18 의 말씀은 이렇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①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와 내적 감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견책하거나 이웃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죄를 일으키는 행동이나 원수를 직접 갚는 일은 삼갈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구약에서 제 6 계명을 통하여 금하는 것은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원망, 적대심도 포함된다.

② 이것은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형제를 모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마 5:21-26)에 잘 반영되고 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요일 3:15)."

3)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살인과 동시에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과 원망과 적대심 등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긍부 양면 규칙을 보여주는 요구 사항과 금지 사항은 6 계명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개혁주의 교리 문답들에 잘 드러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그것들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

3. 제 6 계명과 생명

1. 선물로서 생명[11]

1) 동식물, 동물, 사람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 받는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돌보고 계신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다(시 104:11-30; 마 6:26-30). 하나님은 사람이 다루기 힘든 동물도 지혜로 다스리시며(욥 39:5-12; 40:15-24) 게으른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지적되는 부지런한 개미에게도 먹이를 모으도록 하신다(잠 6:6-8).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식물계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고(창 1:29-30) 또 홍수 후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양식으로 주셨다(창 9:3).

2) 동물의 가치는 사람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는 동물의 생명의 원천이고 동물의 생명은

[11] Douma, *Ten Commandments*, 207-210.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창 9:4; 레 3:17; 신 12:23). 그러므로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피를 음식으로 먹을 수 없었다(레 17:10-14).[12]

3) 우리는 동식물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이차적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명심하고 동식물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길 기다린다(롬 8:21). 평화의 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은 동식물을 포함하고 있다(사 11:6-8; 65:25; 계 22:2).

4)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잘 돌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12 만 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육축도 아끼셨다(욘 4:11). 하나님은 안식일에 동물도 쉴 수 있게 하고(출 20:10; 23:12)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신 25:4)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 그 짐을 부리도록 하라(출 23:5)고 명령하셨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보는 자이다(잠 12: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성읍을 포위하여 취하려고 할 때 먹을 것이 될 수목 즉 과목을 작벌하지 말라고 하시며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신 20:19).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식물을 잘 다스려 피조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책임이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13]

1)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점에 있어서 동식물과 다를 바 없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점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피조물이다(창 1:26-27).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왕으로서 동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러한 사람의 독특한 지위와 특별한 소명은 사람의 생명과 명예가 매우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

[12] [레 17:10-14] (10)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개역: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13] Douma, *Ten Commandments*, 210-211.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창 9:6-7)."고 말씀하셨다. 야고보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약 3:9-10)."라고 말했다.

2) 왕만이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을 경책하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아들이요 왕적 존재라고 가르친다.[14] 이것은 다스리는 왕이라도 백성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①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것과 아합 왕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던 나봇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망각하고 저지른 악행이었다. 왕도 신하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처럼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② 나단은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에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9-10)."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엘리야는 나봇을 죽인 아합 왕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왕상 21:19)."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3)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웃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 2:3)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겸허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하신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각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원받은 생명과 찬양[15]

1) 여호와께서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아래서 신음하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도록 해 주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있는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의 출애굽의 사역에 기인한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을 상기시키시며 구원의 해방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의 어떤 생명도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2) 여호와의 은혜에 기인한 생명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시 8 편; 시 118:17) 마땅히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히 13:15). 죽어 무덤에

---

[1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의 제 2 계명의 "6.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부분을 참조하라.

[15] Douma, *Ten Commandments*, 212-213.

들어간 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시 30:9).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시 35:10 내 모든 뼈)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시 150 편)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16]

3)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 강도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소명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원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생명을 불법적으로 끊어버릴 권리가 없다.

4. 고유의 가치로서 생명[17]

1)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식물과 동물,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가 있다. 물론 사람의 가치는 동식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 동물, 식물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부여받은 가치 이상을 넘어선 그 무엇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① "생명의 경외(reverence for life)"를 가장 높은 윤리 수준의 형태라고 말한 슈바이처의 입장을 따라서 나무로부터 잎을 따지 않고 꽃을 꺾지 않고 파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생명 자체에 신성한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경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한계를 넘어서 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피조물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 6 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을 죽이는 살생을 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동식물이 갖는 고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부여한 데서 기인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식물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하면 동식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기를 정부에 맡기셨기 때문에(롬 13:4) 정부는 무기와 함께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죽일 권리를 갖고 있다.

2)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고 각자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불멸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시는

---

[16] 중생한(BA: Born Again)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주인공(MA: Master of Amen)으로서 매일 매일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라(PHD: Praise Him Daily!)는 소명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다.

[17] Douma, *Ten Commandments*, 213-214.

불멸이 있을 뿐이고(딤전 6:16)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고전 15:53-54).

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땅 위에서 누리는 생명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포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동식물이 사람을 위해 희생되듯이 사람도 필요한 경우 사람을 위해 희생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

②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생물을 아끼고 돌보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respect)을 할 필요는 있지만 동식물이 불가침의 신성이 있는 것처럼 경외(reverence)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고 존중해야 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Giver)처럼 부여받은 선물 자체(gift)인 사람의 생명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5.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 생명[18]

1)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인간 생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베푸심의 대상인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것이 된다.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죽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임을 가르치는 성경은 기능 수행의 잣대로 생명을 보는 기능주의적 생명관과 모든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적 생명관을 배격한다.

2) 기능주의적 생명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그 인간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외양적인 모습이나 기능에 있어서 인간답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권고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의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나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나 아직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태아나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인간적 생명을 지닌 인간인 것이다.

3) 인본주의적 생명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인간 생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하고 위대하여 인간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다. 인간 생명이 고귀한 것은 그 생명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무조건 절대시하여 모든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입장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같다는 경직된 인본주의적 입장을 가지면 동시에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떤 생명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18]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67-373.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생명을 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임의로 선택하여 구하는 무책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하시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간의 생명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4) 생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므로 생명이 되고 죽음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른 윤리적 태도를 가질 때 낙태, 안락사, 자살, 시험관 아기 등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불법적인 살인

1. 불법적 살인의 분류

1) 살인은 사전 계획(premeditation)과 살해 의도(殺意 intention)의 관점에서 고의적 살인, 자발적 살인, 태만 혹은 무모함으로 인한 살인, 부주의함으로 인한 오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도우마(260)는 사전 계획과 살의로 가지고 저지른 살인(murder in cold blood), 사전 계획은 없었으나 살의를 가지고 저지른 충동적 살인(manslaughter with passionate rage), 무모함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야기된 태만에 의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 resulting from recklessness or carelessness) 등이 모두 제 6 계명이 금하는 살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2) 아래에서 불법적인 살인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고의적 살인, 충동적 살인, 태만에 의한 살인, 오살, 낙태, 안락사, 자살 등이다.

2. 고의적 살인(故殺 murder in cold blood)

1) 고의적 살인은 사전 계획과 살해 의도가 있는 살인이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 가운데 고살과 오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치명적인 무기 사용 여부와 사전 계획및 살해 의도 여부이다.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혹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사용하는 것(민 35:16-18),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것(민 35:20-21),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것(신 19:11)은 고의적 살인이다.

2)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창 4:8),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디나로 인하여 분노하며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창 34:25; 49:6),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삼하 11:14-17; 12:9-10), 그리고 아합이 나봇을 죽게 한 것(왕상 21:11-16, 19) 등은 모두 고의적 살인이다.

3) 민 35:31 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에 대하여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말하고 있다. 가족의 원한을 갚는 피의 보수자(גֹּאֵל הַדָּם [고엘 하담])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고살자 murderer)이나 과실로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떠난 사람(오살자 manslayer)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민 35:21, 27; 신 19:12).

3. 충동적 살인(manslaughter in passionate rage, voluntary manslaughter)

1) 충동적 살인은 사전 계획 없이 살해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살인이다.

2) 모세가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사전 계획은 없었으나 살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죽인 살인이다.

4. 태만 혹은 무모함으로 인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 reckless homicide, involuntary manslaughter)

1) 출 21:29 과 신 22:8 은 태만으로 인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이다.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한 죽음이 발생한 경우 그 임자가 속죄금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던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출 21:28-32]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신 22: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 지지 않게 하라 그 피[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2) 사전 계획이나 살해 의도가 없이 운전자가 빨간 불을 지나가는 무모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이나 간호원이 의사의 처방을 잘못 읽고 다른 약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한 것은 무모한 살인과 비슷하다.

5. 오살(誤殺 careless homicide)

1) 오살은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다. 민 35:22-23 처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나 신 19:5 처럼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한" 경우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며(민 35:23) 악의가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신 19:4) 것으로 부주의로 인한 살인 곧 오살이다.

2) 오살의 경우 여호와의 제단으로 피난하거나(출 21:13)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민 35:24-25; 신 19:1-12).

① 매우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이 밝혀져 오살로 판정될 경우에 오살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데 불충분하였고(민 35:30) 성읍의 장로들(신 19:12; 수 20:4) 그리고 심지어 상급 법원과 같은 집회가 개입되어 사람을 죽인 자의 의도를 조사하였다.

②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하더라도 잡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 죽이도록 하였다(신 19:11-12).

③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대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망명 생활의 벌로써 피 흘린 죄를 갚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민 35:25, 28, 32; 수 20:6).

④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오살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었다(민 35:26-27).

6. 낙태

1) 낙태는 태아의 생명에 관한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해야 한다.

2) 낙태는 성 생활의 문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의 약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술의 수월성, 수술의 법적 허용 등의 이유로 인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9] 낙태는 태아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태아가 인간적인 생명체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3) 성경은 많은 곳에서 태아의 생명이 인간적 생명임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① 하나님은 모태적 근원에서부터 인간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태를 열어 잉태하게도 하시고(창 29:31; 30:22; 49:25) 닫기도 하신다(창 20:18; 삼상 1:5-6). 이렇게 성경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며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욥 10:8-12; 눅 1:41-42; 렘 1:5; 사 44:2; 시 22:10; 시 139:13-16).[20]

---

[19] 임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없던 미혼모 Roe 가 텍사스주법을 들어 낙태를 막는 웨이드(Henry Wade) 검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Roe v. Wade)의 재판의 상고심에서 1973 년 1 월 22 일 미국 대법원은 첫 6 개월 동안의 태아 (그리고 임신부 생명의 위협을 주는 마지막 3 개월의 태아) 낙태를 합법화시켰다. 낙태의 합법화 이전과 이후의 통계를 보면 1969 년에 2 만 건의 낙태가 있었지만 10 년 후인 1979 년에 130 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20] [욥 10:8-12] (8)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10)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12)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눅 1:41-42] (41)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개역: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개역: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나라의(개역: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 44:1-2] (1)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 말라

[시 22:10] 내가 날 때부터(NIV: from birth)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from my mother's womb)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 139:13-16] (13)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② 성경이 태아를 인간적 생명으로 보는 것은 태아가 의학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기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 아무런 기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인간적 생명을 지닌 인간이듯이 태아도 아무런 사회적 기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여기시므로 이미 인간인 것이다.[21]

4) 성경은 낙태 문제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① 유일하게 낙태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는 출 21:22-25 은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본문은 태아를 낙태시켰을 때는 단순히 벌금만 내고 임신부에게 입힌 상해는 같은 상해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②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어머니의 생명만 생명으로 여기고 태아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어머니의 생명이든 태아의 생명이든 생명 가치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태아의 생명은 벌금 정도로 낮추고 있다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정리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본문이 임신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에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은 인간적 생명이 아님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무조건 절대시하여 모든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입장은 인본주의 생명관이지 성경적인 생명관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인간 생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22] 출애굽기 21 장에서 태아에 대한 가치가 낮게 취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④ 인간의 생명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같다는 인본주의적 생명관이 기능주의적 생명관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생명관이 될 수 없다. 인간 생명은 무조건 같다는 경직된 생명관을 따라 어떠한 생명을 구하든지 마찬가지라는 무책임한 입장은 버려야 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못하였나이다 (16)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21]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69.

[22]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0.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신 32:39; 삼상 2:6)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이 땅에 더 오래 살게 의도하시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생명을 동시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모든 생명은 똑같다는 생각에서 임의로 아무렇게나 선택한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5) 도우마는 낙태에 대한 논증으로 의료적(medical) 논증, 사법적 혹은 윤리적(judicial or ethical) 논증, 우생학적(eugenic) 논증, 심리적(psychological) 논증, 그리고 사회적(social) 논증을 들고 설명하였다.[23]

① 의료적인(medical) 측면에서 태아를 낙태시키지 않으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실할 때 낙태가 가능하다. 하나의 인격체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임산부의 완전한 생명이 태아의 완전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전쟁시에 후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뿐인 상황에서 두 부상병 가운데 더 다친 사람보다 덜 다친 사람을 후송하는 것과 비슷하다.

② 사법적(judicial) 혹은 윤리적(ethical) 측면에서 강간, 근친 상간, 미성년과의 성행위와 같은 범죄의 결과로 생긴 임신의 경우 태아는 피해자인 임신부와 자신의 불명예를 갖고 태어나므로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낙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새로운 독립된 생명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범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하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임신이라도 할지라도 임신부나 (임신부가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태아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이다.

③ 우생학적(eugenic) 측면에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낙태가 고려되기도 한다. 태어날 아기의 장애 여부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 한다.

④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에서 출산 때까지 임신이 지속되면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 실제로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밀 진단에 의한 확실한 의료적 위험의 경우보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정신과의 판단을 낙태에 대한 합법적 근거로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다.

⑤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여인이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출산 후에 양육하는데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 낙태가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라는 생명의 희생을 통한 잔인한 해결로 인해 제 6 계명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입양과 같은 합법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

[23] Douma, *Ten Commandments*, 219-220.

6) 태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이다. 그러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성경은 낙태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으로 본다. 들에서보다 가장 안전한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욱 끔찍한 것처럼 빛을 보기 전에 모태에서 태아를 죽인 것은 더욱 끔찍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이 동반되는 불법적인 살인이다. 태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낙태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태아의 부모의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하여 용납하고,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입법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금하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안락사

1)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윤리적인 입장과 관련된 문제이고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그 생명의 종결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①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므로 그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②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거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미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안락사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끊는 능동적인 안락사와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는 수동적 안락사가 있다.

① 능동적인 안락사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과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 있다.

② 수동적인 안락사에는 공기와 물과 음식물 등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부자연스러운 기계적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있다.

4) 성경이 정죄하는 안락사는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불구로 태어나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영아나 노쇠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죽이는 것은 성경이 정죄하는 능동적인 안락사이다.

②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여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명을 끊는 것도 성경이 정죄하는 능동적인 안락사이다.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하여 고통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묘사하고 주어진 고난을 원하지 않은 선물로 보도록 한다. 고통을

줄여 주려고 생명을 끊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행이다.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성경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을 인간이 가장 자기 스스로의 자기만의 결단을 엄숙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미화하는 것을 정죄한다.

③ 심사숙고하여 공기와 물과 음식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수동적인 안락사도 명백한 살인으로 성경이 정죄한다.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으며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안락사는 어떤 것이든 거부되어야 한다.

5) 성경은 사람이 고통을 줄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잠언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잠 31:6-7)."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술을 주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왕에 죽는 것이 확실할 때 그 죽음을 조금도 앞당기지 않으면서 육체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죽어가는 사람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의 안락사라면 바람직할 것이다.[24] 그러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②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의 진행 과정을 돌이킬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환자가 의식과 이성을 갖고 있는 한 인공 수단을 끊어 생명 연장을 막는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의식이 상실되었을 경우라도 살겠다는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면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인 삶을 단축시키는 것은 분명 살인이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6) 부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는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 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다.

① 그대로 두면 자연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생명유지 수단 곧 호흡기나 인공 심장 등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때 그 장치된 기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연히 죽도록 하는 수동적인 안락사의 경우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의료적 기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이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여 최상의 인위적 생명 유지 수단이라도 죽음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고 환자의 의식도 없고 환자의 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부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의 사용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에게 막대한 어려움을 줄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족, 의사, 목사, 변호사 등의 집단적인 결정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치료 중단 곧 기구 제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이러한 수동적 의미의

[24]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2.

안락사를 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입장이다. 수동적 안락사를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은 생명 자체를 절대시하는 비성경적 생명관의 결과이다.[25]

③ 달리 가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가 한 두 가지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고통의 경감(relief)을 약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불행을 증가시키고 그의 고통을 늘어나게 한다면 그 환자는 합법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마땅한 것이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는 피해야 할 것이다.

④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한 생명 연장(prolonging life)에 필요한 의료적 도움은 바람직하지만 자연적인 죽음을 지연시키며 무의미한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stretching life) 의료적 도움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끊는 것과 치료를 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영양과 보살핌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안락사라는 표현보다는 치료 중단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26]

⑤ 다른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능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동적인 안락사조차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 중단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환자를 위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간암으로 고통 당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나 밖에 없는 외삼촌이 문병을 와서 그 어머니에게 약을 애써서 드려 더 오래 살게 하면 고통만 더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떤 의미에서 안락사일 수 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과 다르다.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짧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7) 치료 중단과 달리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 아래 생명을 끊는 안락사라는 것을 일단 인정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죽인다면 이 세상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게 된다. 지체부자유를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죽기를 원한다면 다 죽여야 할 것이고 고려장과 같은 일도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게 하여 멸종시키는 것이 좋다는 괴상한 사고 방식까지 생길 것이다.

8. 자살

---

[25]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2.

[26] Douma, *Ten Commandments*, 223.

1) 자살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자살은 그 동기에 따라 이기적인 경우도 있고 이타적인 경우도 있다.

① 이기적인 자살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② 그러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는 말씀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살은 허용될 수 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이 적국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나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밀 문서를 적에게 주지 않기 위해 배를 폭파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 자살로 정당화될 수 있다.

3) 이기적인 자살은 찬반에 대한 모든 것과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심사숙고한 후에 차갑고 냉정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이겨낼 인내와 용기가 부족하여 자포자기하거나, 고독의 심연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을 부르짖는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는 병적인 행위에서 일어난다.

4) 자살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를 빠져 나가는 것으로 사회에 대하여 무책임한 범죄의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사회가 심리적으로 더 약한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해 일어나게 한 측면을 반성하게 한다.[27]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

[27] 동아일보(7/10/2010) 시론에 기고한 홍강의의 글의 일부: "최근 전홍진 조맹제 교수가 국민 6 만 5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행동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15.2%가 자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중 3.2%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자살 시도는 계획에 의해(2%) 또는 충동적으로 이뤄진다(1.2%). 자살 시도자 대부분은 1, 2 년 동안 자살하겠다고 고민했다는 점으로 미뤄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계산해 보면 자살 시도자 110 명 중 1 명이 자살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살 시도자의 극히 일부만 자살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시도자에게는 가족 갈등, 경제 문제, 이혼, 별거, 질병 등의 원인이 있었다. 이는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겨낼 능력과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을 보면 상황적, 개인심리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 차적 예방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신적 강인함, 인내력, 분노 조절능력,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물질 만능과 성취 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인생엔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이겨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요, 인격 성장의 기회임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의 붕괴 현상에 제동을 걸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우울증 약물중독 등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 심한 가족 갈등이나 이혼 별거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회계층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질병으로 판명된 사람을 위한 적극적 치료와 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구별되었다는 성도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성경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6 명의 사람이 있다. 삼손(삿 16:23-31), 아히도벨(삼하 17:23), 사울과 그의 무기 가진 자(삼상 31:3-5), 시므리(왕상 16:18-19), 그리고 가룟 유다(마 27:3-5)가 바로 그들이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자살 자체에 대한 평가의 기록이 없으므로 그들의 자살은 그들의 전체 삶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① 다윗 왕을 반대하여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아히도벨**, 바아사의 아들 엘라 왕을 죽인 **시므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자살은 그들의 전체 삶이 그들의 자살을 정죄한다.

② **사울 왕의 무기 가진 자**의 경우 섬기던 왕이 부상당해 죽여 달라는 것을 거절하며 사울이 스스로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며 죽음의 자리에도 있었던 무기 가진 자의 자살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사울**의 경우 "그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고 묘사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묘사되어 있다(대상 10:4, 14).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사울이 그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삼상 31:4 [대상 10:4])."고 말했던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이 모욕당했던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 왕으로서 모욕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정죄된다고 하더라도, 중상을 입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일말의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모욕당할 때 그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 힘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죽은 것은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잘 지켜가며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 희생적 죽음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사사기는 문제가 제일 많던 사사 삼손이라도 쓰시며 백성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도록 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삼손을 포함시킨다(히 11:32, 39).

5. 용인되는 살인

1. 용인되는 살인에는 정당 방어, 정부의 사형 집행, 합법적인 전쟁 등이 있다.

2. 정당 방어

1) 어떤 사람이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었다(출 22:2-3[MT 1-2]). 밤에는 도둑이 무장을 했는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잘 모르는

등 상황이 불분명한 가운데 집주인이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 도둑이 죽게 되면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낮에는 상황이 더 분명하므로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 규례가 보여 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보여준다. 도둑질하기에 바쁜 사람의 경우조차도 그의 목숨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2)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런 각도에서 풀면 해결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긴급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줄 수 없을 때 정당 방어는 허용된다. 정당 방어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는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3. 정부의 사형 집행

1)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살인자의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2) 구약에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다.[28]

① 고의적 살인(출 21:12-14)
② 사람 납치(출 21:16; 신 24:7)
③ 간음(레 20:10; 신 22:22)
④ 근친상간(레 20:11-12, 14)
⑤ 동성애(레 20:13)
⑥ 수간(출 22:19; 레 20:15-16)
⑦ 제사장이나 재판장 혹은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신 17:12; 21:18-21)
⑧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출 21:14; 레 20:9; 잠 20:20 cf. 마 15:4; 막 7:10)
⑨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와 이를 묵인하는 것 = 사람 희생 제사(레 20:2-5)
⑩ 거짓 예언(신 13:1-10)
⑪ 신성 모독(레 24:11-14, 16, 23)
⑫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출 35:2; 민 15:32-36)
⑬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출 22:20)
⑭ 주술(레 20:6, 27; 출 22:18)
⑮ 처녀의 순결 상실(신 22:20-21)

[28] Kaiser, *Toward OT Ethics*, 91-92.

⑯ 약혼한 처녀 강간(신 22:23-27)

3) 위에 열거된 죄들은 사형으로 다스릴 만큼 심각한 죄들이다. 민수기 35 장은 도피성으로 피해 온 살인자에 대하여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로 판명된 경우 반드시 죽이고(16-18, 21 절)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31 절)고 명하고 있고 고살자에 대하여 가족의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9, 21, 27 절). 이렇게 고의적 살인은 속전을 내고 사형을 면할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생명의 속전을 내고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29] 고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살해당한 가족 구성원의 사적인 보복이 오늘날 정부 관리에 의한 판결과 집행으로 전이된 것은 불구대천의 원한과 피의 복수를 막는 다행스러운 발전이다.

4)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경우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신성모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간음하거나 근친상간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사형은 이러한 범죄들과 다르다. 사형은 공정한 그리고 통제된 보응을 목표로 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출 21:23-25)" 것을 말하는 보복법의 맥락에서 주어졌다.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행 25:11) 바울은 신자들이 악을 선으로 갚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롬 12:19)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복수를 할 수 있음(롬 13:4)을 지적하였다. 우리의 형법 제도는 처벌에 있어서 보복적인(retributive) 성격뿐만 아니라 예방적(preventive) 성격도 갖고 있다. 모든 불법적인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떤 불법적인 살인은 정의 구현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으로 다스릴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 합법적인 전쟁

1) 정부에 주어진 무기는 내부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막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승인 아래 많은 전쟁이 수행되었기(민 21:14; 신 20:16-18; 계 19:11) 때문에 전쟁은 죄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

2) 도우마(239)는 부분적으로 신명기 20 장의 전쟁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역사상 전개된 합법적인 전쟁의 개념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합법적인 전쟁은 ⑴합법적인 정부에 의하여 ⑵합법적인 대의

[29] Kaiser, *Toward OT Ethics*, 92: "Only for the first crime, premeditated murder, was there a 'ransom' or a 'substitute' payment unacceptable (Num. 35:31), but presumably all the other capital crimes could be commuted as the judges determined."

명분을 위해 ⑶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⑷이익과 손실을 고려하며 ⑸공격에 상응하는 수단을 가지고 ⑹민간인과 군인의 차이를 인식하며 치러져야 한다."

3) 성경은 전쟁과 피 흘리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사 2:2-4; 미 4:1-5). 전쟁의 목적은 항상 평화이어야 하고 무장은 평화를 보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우마(241)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제 6 계명에 순종하여 핵무기의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만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고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한다.

6. 제 6 계명의 준수

1. 사람은 동식물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생명의 원천인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불법적인 살인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죄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므로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늘 사랑의 대상으로 보며 서로 도와야 한다.
2.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점에서 정말로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으로서 동식물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할 소명이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파괴된 그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형상으로 변하도록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롬 8:28-29)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사 중에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사 중이어서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편을 참으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3. 찬양의 소명을 위해 지음받고 구원받은 생명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강도질을 하는 범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온 맘과 온 몸을 다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늘 드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함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며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힘써 할 필요가 있다.
4.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이웃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에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

7. 그리스도와 제 6 계명

1.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을 지적하셨다(마 19:19; 막 10:19; 눅 18:20).
2. 예수님은 제 6 계명에 대하여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랍비들의 해석이 너무 좁은 시각의 해석임을 지적하시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해 주셨다(마 5:21-26).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으로 이끄는 모든 동인, 특히 분노와 모욕도 "살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웃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듯이(마 5:21) 이웃에게 분노해도 심판을 받고 이웃을 놀리거나 멸시함으로써 이웃을 모욕해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3.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마 5:22)."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당위적 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모든 분노를 금한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고 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노를 금한 것이다.[30] 성경은 모든 분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분노를 정죄한다.
   1)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며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자들 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마 21:12-13; 요 2:13-22).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노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막 3:1-5).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노하시기도 하셨다(막 7:18; 9:19). 예수님의 분노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으로서(출 34:6; 약 1:19) 사람들의 위선, 완악함, 열매 없음, 혹은 불신에 대한 슬픔이 섞인 분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당할 때 참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자기변호를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3-24)."라고 말했다.
   2)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빨리 분노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는 노하기를 더디 한다.[31]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의롭지 못한 분노 즉 자만, 허영, 증오, 악의, 복수심에서

---

[30] Carson, *Sermon on the Mount*, 41-42.

[31] Daniel M. Doriani, *The Sermon On The Mount: The Character of a Disciple* (Phillipsburg: P&R, 2006), 52-53.

나오는 분노를 나타내는 자를 형제를 살인한 자로 여겨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죄를 슬퍼하는 것과 의분은 있어야 한다(시 11:4-6; 119:136; 139:21-22).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엡 4:26-27)" 힘써야 한다.

4.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욕을 인격 살인이란 점에서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중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1) "라가"는 "empty 텅 빈"이란 뜻의 아람어 단어로 "멍청이, 멍텅구리, You Empty-headed! You Stupid! Nitwit! Blockhead! Numskull! Bonehead!)"라고 모욕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레"는 "얼간이, 쓸모없는 놈 You Fool! You Scoundrel! Stupid Idiot! Dummy! Moron!"이라고 모욕하는 것이다.[32] 형제를 "라가"라고 하면 그의 두뇌, 지성을 멸시하는 것이고, 형제를 "모레"라고 하면 그의 마음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멍텅구리"라고 하거나 "인간쓰레기, 인간 망종"이라고 모욕하면 형제에게 "지옥에 갈 놈"이라고 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μωροὶ) 맹인들(마 23:17)"이라고 부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미련하고(ἀνόητοι)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눅 24:25)"이라고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ἄφρων 고전 15:36)"라고 부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Ὦ ἀνόητοι Γαλάται 갈 3:1)"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고보는 "아아 허탄한 사람아(ὦ ἄνθρωπε κενέ 약 2:20)"라고 불렀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형제에 대하여 "라가" 혹은 "모레"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시 14:1-4; 53:1-4)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5.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의롭지 못한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다름없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요일 3:15)."라고 말했다. 분노와 모욕은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의 징후이며 우리의 생각과 표정과 말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이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분노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살인과 같고 그에 따른

[32] Stott, *Sermon on the Mount*, 84; Doriani, *Sermon on the Mount*, 53.

심판은 지옥에 가는 형벌이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며 살인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증오와 멸시 그리고 분노와 모욕도 금하셨다.

6. 우리가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금하신 예수님은 상대방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는 형제의 원망과 원수의 증오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이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주셨다.[33]
   1) 예수님은 우리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때 만일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가르치셨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앞서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가르침은 형제의 원망을 풀어주며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꼭 필요한 일임을 일깨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형제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 해결하는 것을 다룬 것이다. 우리가 살인과 살인에 맞먹는 분노와 모욕 같은 살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증오와 원망 같은 살인적 행위를 막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우리의 형제 사랑은 그 형제의 우리에 대한 살인적인 의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만큼 커야 한다. 예수님은 그 형제의 원망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형제를 노엽게 하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형제에게 전혀 죄가 없고 결백한데도 형제가 노엽게 느낄 수도 있다. 설사 우리 자신이 결백하고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기억하고 꺼림직하게 느낄 만큼 긴장이 있다면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예수님은 살인 행위 자체를 금하시고(마 5:21) 우리를 살인으로 이끄는 행위를 금하시고(5:22) 우리에게 화가 난 형제와 화목하기를 명하시고(5:23-24)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는 일의 시급함을 보이시며 그 분노를 제거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다(5:25-26).
   1) 예수님은 피고가 돈 문제로 송사한 원고와 법정으로 가고 있는 때 법정에 이르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보이시며 피고가 그렇게 하지 않아 법정에 가게 되면 판결을 받고 옥에 갇혀 일전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을 예로 드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큰 슬픔이 오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와도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형제이든

[33] Ferguson, *Sermon on the Mount*, 84: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primary, but we always appear before God as those who are related, rightly or wrongly, to our fellow men. What we are before God involves how we are related to others."

원수이든, 나에게 죄가 있든 없든, 나에게 원망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2)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다고 느끼면 바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나서서 우리가 이웃의 원망과 불평을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불하지 않은 빚을 청산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인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항상 민감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 우리가 칼로 살인하는 것이나 분노를 통하여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이나 형제를 "멍청이, 얼간이,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것이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같은 영적 질병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웃에 대한 마음의 적대심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적대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으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들이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8.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분노와 멸시를 포기해야 하며 형제나 원수나 우리가 노엽게 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이유 없이 노여워하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와 멸시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분노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실력 없음을 여실히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며 살인죄를 저지르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의 순종이 항상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에 있어서 진보를 보일 수 있다.

8. 제 6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5-107)

1) HC 105. 제 6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으로나 나의 말로나 나의 제스처로나 심지어 나의 행동으로 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나의 이웃을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레 19:17-18; 잠 12:18; 마 5:21-22; 마 26:52). 나는 복수하려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고(엡 4:26; 롬 12:19; 마 5:39-40; 18:35) 또한 고의적으로 내 자신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마 4:5-7; 골 2:23). 나는 정부가 살인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창 9:6; 출 21:14; 마 26:52; 롬 13:4).

2) HC 106. 제 6 계명은 오직 살인 자체에 관하여만 말하는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 등을 몹시 싫어하시며(잠 14:30; 롬 1:29; 12:19; 약 1:20; 갈 5:19-21; 요일 2:9)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요일 3:15)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 HC 107.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에서 말한 대로만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마 7:12; 22:39; 롬 12:10) 우리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마 5:5; 롬 12:18; 갈 6:1-2; 출 23:5; 엡 4:2; 골 3:12; 벧전 3:8)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출 23:4-5; 잠 25:21-22; 마 5:44-45; 롬 12:20)고 말씀하십니다.

2.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8; 대교리 문답[WLC] 135)

1) WSC 68.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엡 5:28-29; 마 10:23)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시 82:3-4; 왕상 18:4)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2) WLC 135.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엡 5:28-29)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왕상 18:4)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것을 불의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물리치고(렘 26:15-16; 행 23:12, 16-17, 21, 27), 그러려는 모든 혈기를 억제하고(엡 4:26-27), 그러려는 모든 경우(삼하 2:22; 신 22:8)와 유혹(마 4:6-7; 잠 1:10-11, 15-16)과 실행(삼상 24:12; 26:9-11; 창 37:21-22)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방어하고(시 82:4; 잠 24:11-12; 삼상 14:45)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로 견디고(약 5:7-11; 히 12:9)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살전 4:11; 벧전 3:3-4; 시 37:8-11)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잠 17:22). 우리는 육식(잠 25:16, 27)과 술(딤전 5:23)과 약(사 38:21)과 수면(시 127:2)과 노동(전 5:12; 살후 3:10, 12; 잠 16:26)과 오락(전 3:4, 11)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생각(삼상 19:4-5)과 사랑(롬 13:10)과 동정심(눅 10:33-34)과 온유함과 온순함과 친절함(골 3:12-13)을 가져야 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예절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약 3:17; 벧전 3:8-11; 잠 15:1; 삿 8:1-3) 관용과 화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상해를 감내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마 5:24; 엡 4:2, 32; 롬 12:17, 20-21). 우리는 곤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합니다(살전 5:14; 욥 31:19-20; 마 25:35-36; 잠 31:8-9; 시 82:3-4).

3.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9; 대교리 문답[WLC] 136)

1) WSC 69.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행 16:28)이나 이웃의 생명(창 9:6)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입니다(마 5:22; 잠 24:11-12; 요일 3:15; 갈 5:15; 출 21:18-32).

2) WLC 136. 제 6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공적인 재판(민 35:31, 33)이나 합법적인 전쟁(렘 48:10; 신 20:5-20)이나 정당방위(출 22:2-3)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행 16:28)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창 9:6)을 빼앗는 다음과 같은 모든 행동들입니다. 생명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마 25:42-43; 약 2:15-16; 전 6:1-2); 죄악 된 분노(마 5:22)나 증오(요일 3:15; 레 19:17)나 시기/질투(잠 14:30)나 복수하려는 욕망을(롬 12:19) 가지는 것; 과도한 혈기를 부리고(엡 4:31) 산란하게 하는 염려를 하는 것(마 6:31, 34); 무절제한 육식(잠 25:16, 27 꿀)이나 과음(눅 21:34; 롬 13:13)이나 과로(전 12:12; 2:22-23)나 지나친 오락(사 5:12)을 하는 것; 노엽게 하는 말(잠 15:1; 12:18)이나 억압(겔 18:18)이나 다툼(갈 5:15; 잠 23:29)이나 구타 혹은 상해(민 35:16-18, 21)나 그 외에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출 21:18-36)라도 하는 것입니다.

IX. 제 7 계명

1. 제 7 계명 본문

1. 제 7 계명은 출 20:14 과 신 5:18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4 [로 틴아프]

לֹ֥א תִנְאָֽף׃ 14

② 신 5:18 [로 틴아프]

וְלֹ֥א תִנְאָֽף׃ 18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 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 절(제 7 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즉 5:17)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 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17)로 간주하므로 신 5:18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7 계명 본문의 차이는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이다.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에 붙어 있는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neque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Neither shalt thou commit adultery.")과 한글 개역의 "간음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3 = 신 5:17

(출 20: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신 5: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Brenton] (출 20:13)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Brenton] (신 5:18)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Alfred Rahlfs 의 *Septuagint*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 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4) non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출 20:14)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신 5:18) neque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신 5:18) Neither shalt thou commit adultery.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 (신 5: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 (신 5:18) 간음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4 = 신 5:18)

간음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4) 간음하지 마라.
- (신 5:18) 간음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4) 간음하지 마라.
- (신 5:18)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한글 개역에서 신명기의 7 계명에 대한 번역 즉 "간음하지**도** 말지니라"는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신명기의 7 계명 번역에 접속사 바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금지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에서 "마라"와 "말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③ 새번역의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④ 쉬운성경 신명기의 "너희는"이란 복수 사용은 오역이다.

2. 제 7 계명 본문 번역

1) 제 7 계명에 금지된 간음을 나타내는 어근 **נָאַף**[나아프]는 총 34 번 사용되었다.

① 동사로 31 번 사용되었다(Even-Shoshan, *Concordance*, 730). 오경에서 6 번 즉 출 20:14; 신 5:18[MT 17]; 레 20:10[4x]에서 사용되었다. 선지서 특히 예레미야에서 8 번(3:8, 9; 5:7; 7:9; 9:2[MT 9:1]; 23:10, 14; 29:23), 에스겔에서 6 번(16:32, 38; 23:37[2x], 45[2x]), 호세아에서 5 번((3:1; 4:2, 13, 14; 7:4) 사용되었다. 그리고 욥(24:15), 시편(50:18), 잠언(6:32; 30:20), 이사야(57:3), 말라기(3:5)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 중 삼분의 일이 비유적 의미로 쓰였고 그 의미가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아니면 둘 모두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본문(렘 9:2[MT 1]; 23:10; 호 4:13-14; 7:4)도 있다.

② 명사로 3 번 사용되었다(*TWOT* II:542). **נָאֵף**[니우프]는 렘 13:27("간음"); 겔 23:43("행음")에서 나오고 **נַאֲפוּף**[나아푸프]는 호 2:2[MT 2:4]("음행")에서 한 번 나온다.

2) 간음의 행위를 묘사하는 다른 단어나 구는 다음과 같다.

① **שָׁכַב** [샤하브] "to lie with 함께 눕다": 민 5:13, 19, 20; 창 39:7, 10, 12, 14; cf. 창 19:32-33; 출 22:16[MT 15]

② **שָׁגַל** [샤갈] "to violate, ravish 성폭행하다": 신 28:30; 사 13:16

③ **בּוֹא אֶל** [보 엘] "to go to 들어가다": 삼하 16:21, 22; cf. 창 16:4; 30:4; 38:2, 15-16

④ **קָרַב אֶל** [카라브 엘] "to go near to 가까이 가다": 창 20:4

⑤ **כָּרַע עַל** [카라 알] "to crouch over 몸을 구부리다/쭈그리다": 욥 31:10

3) 이러한 어구들은 모두 여성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나 십계명 본문의 동사 **נָאַף**[나아프]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제 7 계명이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열린 형식으로 주어진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제 7 계명은 목적어가 표시되지 않은 보다 열린 명령 형식을 통해 보다 폭넓은 적용을 암시한다.

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신 5:1)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그 때 모인 온 회중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신(신 5:22) 것을 상기시킨 것을 고려하면 제 7 계명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레 20:10 의 " וְאִישׁ **אֲשֶׁר יִנְאַף אֶת־אֵשֶׁת אִישׁ אֲשֶׁר יִנְאַף אֶת־אֵשֶׁת רֵעֵהוּ מוֹת־יוּמַת** הַנֹּאֵף " **וְהַנֹּאָפֶת:**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도 제 7 계명을 지킬 주체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임을 밝히고 있다. 레 20:10 은 동사 **נָאַף**[나아프]의 주어로 "אִישׁ[이시] 남자"를 명시하고 목적어로 "**אֵשֶׁת אִישׁ** [에셰트 이시] 남의 아내" 곧 "**אֵשֶׁת רֵעֵהוּ** [에셰트 레에후] 이웃의 아내"를 명시하고 간음에 연루된 남자와 여자를 각각 "נֹאֵף[노에프] 간부"와 "**נֹאָפֶת**[노아페트] 음부"라고 부르고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③ 십계명은 2 인칭 남성 단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킬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4) 번역

① (출 20: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② (신 5:18[MT 17]) **그리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2. 제 7 계명의 의미

1) 간음과 성범죄

1. 구약의 간음의 정의

1) 국어 사전에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희승, **엣센스 국어사전**, 51)"이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일(남영신, **국어사전**,)"로 풀이되어 있다. 영어 사전(*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에서 adultery 는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rried man and someone other than his or her lawful spousewas"로 정의되고, fornication 은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two unmarried persons or two persons not married to each other"로 정의되어 있다. 간음(adultery)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통(fornication)은 혼전 성행위처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 "Do not commit adultery."도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어 번역 "Du sollst nicht ehebrechen."을 직역하면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이다.

2) 구약에서 간음은 결혼한 남자이든 아니든 어떤 남자의 주도로 다른 남자(남/이웃)의 아내 즉 유부녀(레 18:20; 20:10; 신 22:22) 혹은 약혼한 처녀(신 22:23-24; cf. 마 1:18-25)와 성관계를 맺거나 유부녀가 지아비 대신 외인과 성관계를 맺는(겔 16:32; 호 4:13) 것이었다.이처럼 간음의 정의에 있어서 남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여자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정혼녀)로 국한되어 있다. 간음이 여인의 신분에 의해 규정되고 약혼녀 혹은 정혼녀가 유부녀로 간주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약의 간음은 신약이나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의 풀이가 함축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더 좁았다.[1]

2. 간음과 성범죄에 대한 벌

1) 남의 아내나 약혼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간음에 대한 벌은 그 간부(姦夫)와 음부(淫婦)의 사형(레 20:10; 신 22:22), 즉 불에 태워 죽이거나(창 38:24)[2] 돌로 쳐서 죽이는(신 22:24) 것이었다.

2) 들에서 강간당한 약혼한 처녀는 보호를 받았으나 강간한 남자는 죽임을 당했다(신 22:25-27).

3) 아내의 혼전 순결이나 정조에 대하여 의심하는 남편으로부터 죄가 없는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민 5:11-31; 신 22:13-19).

4) 간음의 예가 드문 것은 아님(삼하 11 장; 잠 2:16; 렘 7:9; 23:10; 호 4:2, 13-14; 말 3:5 등)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형벌이 적용된 명백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형 판결에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3]

5) 결혼한 남자가 결혼이나 약혼에 의해 매이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륜으로 간주되었지만 간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지지 않았다(창 34 세겜-디나; 출 22:16-17[MT 15-16]; 신 22:28-29).[4]

6) 유다와 다말 내러티브(창 38 장)에서 다른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창녀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은 유다는 간음에 대한 정죄가 없었으나 시동생을 남편으로 기다리는 다말이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은 간음으로 정죄되었다.

7)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남자가 속건제 숫양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레 19:20-22).

①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간음은 죽음으로 처벌하였지만 남과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속건제로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웃의 여종은 이웃의 소유로 보았지만 이웃의 아내는

---

[1] Wenham, *Leviticus*, 259: "The OT definition of adultery . . . was rather narrower than that in the NT. It was defined as sexual intercourse with a married or betrothed woman by someone who was not her husband."

[2] 간음은 아니지만 불로 태워 죽이는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레 20:14]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레 21:9]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3] *NIDOTTE* III: 3, # 5537.

[4] [출 22:16-17] (16)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17)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 22:28-29] (28)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웃의 소유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웃의 여종에 대한 성범죄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제 8 계명 위반)이었지만 이웃의 아내에 대한 성범죄는 제 8 계명을 위반한 죄의 일종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킨 범죄로 간주되었다.

② 잠언은 도둑질과 간음에 대한 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다.

> [잠 6:30-35] (30)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아무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3. 제 7 계명의 독특성

1) 간음의 정의와 간음에 대한 벌에 대한 관찰은 제 7 계명의 독특한 성격이 소유(property) 문제에 있지 않고 성행위(sexuality)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5]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행위는 배타적인 것이고 오직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시작하는 결혼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제 7 계명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성행위가 부부 관계에 중심적이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6] 제 7 계명에서 부각되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의 중심성이다.

3) 내 이웃의 결혼과 가정은 내가 내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지켜진다. 나의 결혼도 내 이웃이 나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결혼은 내가 내 이웃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이 나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는 것에 의해 보호된다.

4) 간음은 내 이웃의 관계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결혼과 가족 관계에도 손상을 입힌다. 결혼 제도가 부패하면 사회 제도가 부패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오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

4. 간음이외에 금지된 성관계와 벌

1)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간음 이외에도 근친상간(近親相姦), 동성애(同性愛), 수간(獸姦)도 금지되었다.

2) 근친상간

①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였다(창 35:22). 야곱은 후일에 있을 일을 말할 때 르우벤에 대하여 근친상간을 지적하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창 49:3-4)"라고 말했다.

②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로 인해 다말의 친 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삼하 13 장).

---

[5] Douma, *Ten Commandments*, 245.

[6] Miller, *Ten Commandments*, 275.

③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충고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였으나 그의 반역의 종말은 죽음이었다(삼하 15-18 장).

④ 다윗의 간음과 아들 암논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제 7 계명을 위반한 행위의 인간적 불행한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도록 한다.

⑤ 레 18:7-18 의 한 남자가 결혼할 수 없는 경우 즉 금지된 근친상간(incest)은 다음과 같다.[7]

어머니(7 절)	이모(12 절) 고모(13 절)	계모(8 절) [서모: 르우벤]	삼촌의 아내(14 절)
자매/이복자매(9 절) [아브라함]	의붓 자매(11 절)	형수/제수(16 절) 처형/처제(18 절) [야곱]	—
—	의붓 딸(17 절)	며느리(15 절)	—
손녀/외손녀(10 절)	의붓 손녀(17 절)	—	—

3) 동성애

① 이성간의 성욕이나 동성간의 성욕은 잘 다스리며 절제가 필요하다. 이성에 끌리지 않고 동성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끌리는 동성간의 성욕(homophilia) 자체는 도덕적 승인을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동성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동성애(homosexuality)와는 구별된다.[8] 이성과의 성욕을 절제하듯이 동성과의 성욕도 절제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분명 동성과의 결합이 아니고 이성과의 결합임을 보여준다.

③ 성경 전체에 걸쳐 동성애는 가증한 일로 정죄된다(창 19 장; 삿 19:22-24; 레 18:22; 20:13; 롬 1:26-27; 고전 6:9).[9]

---

[7] Wenham, *Leviticus*, 254 는 여기에 근친상간으로 친딸과의 성관계가 빠진 이유는 창 19 장의 롯과 딸들의 경우처럼 부녀의 성관계가 이미 부정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창세기 2 장이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異常性慾 pedophilia)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범죄이다. 근친상간을 당한 어린 아이는 훨씬 더 심각한 상처를 갖고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잘 다스리고 근친상간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Douma, *Ten Commandments*, 270.

[9] "תּוֹעֵבָה[토에바] 가증한 일"이란 용어는 어근 תָּעַב[타아브]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에서 온 명사로 강한 비난을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타낸다(예: 잠 6:16; 11:1). Wenham,

4) 성경은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bestiality)를 금하고 있다(레 18:23; 20:15-16; 신 27:11).

5) 레 20 장은 죽음으로 처벌할 성적인 범죄로 간음(10 절), 근친상간(11 절[계모], 12 절[며느리], 14 절[장모]), 동성애(13 절), 수간(15-16 절) 등을 명시하고 있다.

5. 일부일처

1) 구약시대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시대에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평생 배우자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긴밀한 사귐을 갖는 결혼을 말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다처(一夫多妻 polygamy)나 일처다부(一妻多夫 polyandry)는 그 긴밀한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2) 이스라엘에서 용인된 일부다처제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우신 결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엘가나의 가정 같은 일부다처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은(창 16:4-6; 29:16-24; 삼상 1:6-8) 경고로서 충분하다.

3) 모세는 일부다처에 흔히 그리고 쉽게 수반되었던 학대를 막는 법을 주었다. 모세는 일부다처의 가정에서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그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에게 장자의 권리대로 두 몫을 주라고 명하였다(신 21:15-17).

6. 음행

1) 구약은 간음(adultery)에 비하여 음행(prostitution)에 대하여 너그럽게 다룬 것처럼 보이는 기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이 간음과 다르다고 하여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음뿐만 아니라 음행도 백성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되었다(출 34:15-16; 신 31:16; 렘 13:27; 나 3:4).

2)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창 38:15). 삼손도 기생을 찾아갔다(삿 16:1). 여리고의 라합은 기생이었다(수 2 장). 솔로몬은 그 시대에 살았던 두 창기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다(왕상 3:16-28).

Leviticus, 259 에 의하면 레위기에서 6 번(레 18:22, 26, 27, 29, 30; 20:13), 신명기에서 17 번, 잠언에서 21 번, 그리고 에스겔에서 43 번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책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롬 1:26-27] (26)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전 6:9-10]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3) 잠언은 음행이 어리석은 일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잠 7 장; 6:26; 23:27-28; 29:3).

[잠 6:26] 음녀(prostitute, harlot)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adultress)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 23:27-28] (27)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잠 29: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 의식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한 창기나 남창을 금하였다. 가나안 풍속에 성스러운 종교적 음행을 금했다면 일상적인 음행은 더더욱 금하였을 것이다. 모세는 결혼 후에 처녀의 표적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한 것으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였다.

[레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신 23:17-18] (17)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 22:13-21] (20)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21)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5) 신약은 더 분명하게 음행을 금하고 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처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행 15:20, 29).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전이므로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고전 6:13, 18-20).

7. 음욕

1) 예수님은 구약의 유부녀와 정을 통하는 간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게 간음을 정의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고 말씀하셨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보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여기고 성적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품고 간음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2) 음욕 간음이 행위 간음과 동일시되는 것은 제 7 계명이 성과 관련된 모든 외적인 죄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내적인 죄까지 포함하여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f. 총망라 규칙과 표리일치 규칙).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근절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실족한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실족한 오른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범죄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훈하셨다(마 5:29-30). 바울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 3:5-6)."고

말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마 5:28; 딤후 2:22)과 말(골 4:6; 엡 5:11-12)과 행동(고전 7:2-3; 살전 4:3)에 있어서 우리 자신(엡 4:29)과 이웃(벧전 3:2)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3) 자위행위(수음 手淫 masturbation)는 불결한 욕망과 생각이 동반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육체에 주어야 하고 스스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한 숭배이다.[10] 자위행위에 대하여 수많은 건강한 기독 청년들에게 지나친 죄의식을 갖게 하여 실망에 빠뜨리게 할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위행위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열망하는 사람의 진정한 반응이다.[11]

4) 춘화(春畵), 외서(猥書 외설 책), 음란 비디오(pornography), 나체쇼, 음란 전화, 러브 호텔 등 음욕을 불타게 하고 혼외 정사를 일으키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1957 년 미국 최고 재판소에서 외서(猥書)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사회는 성개방의 풍조가 더욱 확산되었고 7 분마다 1 명 꼴로 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고 이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재혼을 하는 혼란에 빠졌다.

5)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세에 성윤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성윤리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 충동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이 지켜 주실 때만 성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힘쓰며 성적 타락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안에서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해야 한다.

8.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간음[12]

1)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⑴"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고" ⑵"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커다란 악이고" ⑶"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그 주인의 처가 날마다 졸랐지만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간음죄는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짓는 크나큰 범죄이다.

2)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예시한다(렘 3:1-10; 5:7-11; 호 2 장; 말 2:10-16).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성실할 것을 명하신 성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

---

[10] 창 38:9-10 에 묘사된 오난의 행위는 자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onanism 은 성교중절(coitus interruptus) 혹은 자위행위, 수음을 의미한다.

[11] Douma, *Ten Commandments*, 262-263.

[12] Ryken, *Written in Stone*, 156-157.

3)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예시한다(엡 5:31-32). 간음한 자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몸의 지체를 창기와 같은 불륜의 지체로 만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거룩성을 깨는 것이므로 성자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고전 6:12-17).

4) 자기 몸 밖에 범하는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간음을 행한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몸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성령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고전 6:18-20).

2) 다윗의 간음[13]

1. 다윗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배부를 때 왕으로서 섬겨야 할 백성을 위해 출전하여 암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을 본 것에서 시작되었다(삼하 11:1-2).
   1) 이것은 성적인 범죄가 결코 단순히 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머지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겨 주신 백성을 위해 출전하여 랍바를 포위하고 암몬과 싸웠더라면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성적 범죄에 빠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2)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의 경건은 다른 영역들에서의 경건을 촉진시킨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하자는 유혹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이 맡긴 모든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었다.
2.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본 것으로 끝났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은 눈에 들어온 여인을 흘끗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서 위 아래로 쳐다보고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며 그녀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음욕을 품었다.
   1) 이것은 또한 성적 유혹과 그것을 피할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눈은 성적 욕망의 창이다.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음욕적인 응시를 쫓아내버리며 피하는 것이다. 경건한 여인은 항상 복장과 외모에 있어서 단정해야 하며 경건한 남자는 성적 순결을 위해 항상 계속 보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성적 이미지가 있는 오늘날은 보는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하다. 베드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를 "저주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벧후 2:14).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함께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였다(요일 2:16-17).

---

[13] Ryken, *Written in Stone*, 161-168.

3)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욥 1:1, 3; 2:3) 자로서 처녀를 음욕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로 그의 눈과 언약을 세웠고 그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고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리지 않았다(욥 31:9). 욥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변백할 때 시작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욥 31:1)"라는 수사의문문이 모든 경건한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음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 다윗은 여인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 여인을 원하게 되었다. 다윗이 여인을 마음에 그려보기 시작할 때 음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죄가 다윗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은 유혹을 피하기는커녕(창 39:12; 잠 5:8; 딤 2:22)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였다(롬 13:14).

2) 다윗은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삼하 11:3)"라고 대답하였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바로 거기서 다윗은 그의 음욕을 몰아내며 그쳤어야만 했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유부녀인 그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 유부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우리아의 아내에게 집착하였다.

3) 이것이 음욕이 역사하는 모습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원하면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를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녀와 동침을 하였다(삼하 11:4). 다윗이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었어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난 불륜의 행위이었다.

4. 다윗의 밧세바와의 동침은 그 유부녀의 임신으로 이어졌고(삼하 11:5) 이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결말지어졌다(삼하 11:17, 24).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다(삼하 11:27 하).

1) 다윗은 왕이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은밀하게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만지는 것을 아시며 언행심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2) 다윗이 음욕을 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유부녀와 동침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다윗은 그토록 애써서 얻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고(삼하 12:18),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고(삼하 13:14),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삼하 13:28-29).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하여 다윗을

내쫓아냈고(삼하 15:16), 백주에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데서 다윗의 후궁들을 근친상간하였고(삼하 16:22), 결국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삼하 18:14-15).

3) 이 모든 비극이 다윗이 침대에서 몇 분간 즐긴 유부녀 곧 헷사람의 아내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우리는 음욕이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이 모든 불행한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다윗이 옳게 행한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 것이었다.

1)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삼하 12:13)."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죽임 당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 죄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성적 범죄가 은밀히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의 식구들의 지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2)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 편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고(51:1-2) 양의 피를 통한 속죄에 근거한 용서를 구했고(51:7) 그의 삶에 계속적인 성화의 역사를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51:10-12).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형벌을 바로 내지시지 않으셨다(삼하 12:13). 다윗의 죄는 용서되고 그의 죄책은 사라졌으나 그의 죄의 결과들을 남은 생애에서 겪어야만 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인 범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는 숨기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제 7 계명과 제 1 계명의 비교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 관계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이요 충실이요 성실이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주셨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상 5:25 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고 말하고 있다(cf. 사 57:3; 렘 3:8; 13:27; 23:14; 겔 16:32, 38; 23:11; 호 4:13-14; 7:4). 구원 받은 백성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외에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는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요 영적인 간음이며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는 의식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이로 지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적 맹세를 한다(렘 34:18-20). 간음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의 저주, 즉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형벌을 받았다.

2.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각각 남편과 아내로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랑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성립되는 결혼도 언약이다.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계명은 아내를 둔 남편이든지 남편을 둔 아내이든지 결혼 안에서 허용되는 성관계를 벗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것이요 육적인 간음이며 언약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3.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되며 묘사되었다. 이 관계는 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배타적인 관계이며 상대방에게 신실이 요구되는 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 순종으로 표현되는 성실함이 배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백성이 하나님께 불성실하여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보이시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겔 16 장; 호 1-3 장).
4. 크레이기(160)가 말한 대로 제 7 계명이 금하는 간음죄는 육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라면 제 1 계명이 금하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갖는 죄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3. 결혼

1. 결혼과 관련된 주요 성경 구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עָזַב[아자브]) 그의 아내와 합하여(דָּבַק[다바크]) 둘이 한 몸(בָּשָׂר אֶחָד[바싸르 에하드])을 이룰지로다
   2) [마 19:3-12] (3)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cf. 막 10:2-12)

3) [고전 6:15-17] (15)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4) [엡 5:22-33]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cf. 골 3:18-19)

5) [잠 2:16-19] (16)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6) [말 2:13-16] (13)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7) [잠언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8)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cf. 잠 12:4; 14:1)

9) [잠 5:15-19] (15)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규례로 언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언약관계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창 2:24 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עָזַב[아자브]) 여자와 합하여(דָּבַק[다바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 사용된 동사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맥락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언약에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① עָזַב[아자브]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할 때(신 12:19; 14:27)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재앙을 내린 이유로 여호와를 버린 악행(신 28:20; 호 4:4)을 언급하거나[14] 언약을 버린(신 29:25[MT 24])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15] 여호와는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족장들(창 24:27; 28:15)과 그 백성(신 31:8)과 여호수아(수 1:5) 등에게 주셨다. 창 2:24 에서 "עָזַב[아자브]"는 문자적으로 부모를 버린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결혼하면 남자의 사랑과 헌신과 의무의 우선 순위가 부모로부터 아내에게로 바뀐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16]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고(창 24 장 리브가; 창 38 장 다말)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가족의 후원 아래 있었던 것을(신 25:5-10) 고려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17]

② דָּבַק[다바크]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친근히 하며 그분에게 붙어 있을 것을(신 10:20; 11:22; 13:4[MT 5]; 30:20) 요구할 때 사용되었다.[18] 그리고 기업을 이은 딸들이 자기

---

[14] 개역개정에서 신 28:20 의 "네가 악을 행하여 그[나]를 잊으므로"라는 부분의 직역은 "*네가 나를 버린 너의 행위들의 악함 때문에*"이다. 호 4:10 의 경우 개역의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나 개역개정의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는 번역은 원문에 없는 "좇다, 따르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원문대로 더 간단히 "이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면 될 것이다.

[15] 역대기 저자는 "겸비한"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호와의 복을 가져오지만 그와 반대되는 "버린다"는 것(עזב, 대상 28:9, 20; 대하 7:19, 22; 12:1, 5; 13:10-11; 15:2; 21:10; 24:18, 20, 24; 28:6; 29:6; 34:25)과 "범죄한다"는 것(מעל, 대상 5:25; 10:13; 대하 12:2; 26:16, 18; 28:19, 22; 29:6; 30:7; 36:14)이 여호와의 분노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기록하였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고 말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대하 12:5)"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아사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대하 15:2)"고 말했다.

[16] Wenham, *Genesis 1-15*, 71. 이러한 상대적 의미의 해석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 6:6 이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눅 14:26 에도 적용된다.

[17] Mathews, *Genesis 1-11:26*, 223.

[18] 개역에서 "그에게 친근히 하다(신 10:20)"와 "그에게 부종하다(신 11:22; 13:4; 30:20)"로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에서 "의지하다"로 통일하였으나 "그에게 의지하다(10:20; 11:22)"와 "그를 의지하다(13:4;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기지 않고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유지하며 그 기업에 영구히 붙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민 36:7-9). 이 단어는 또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다말을 욕되고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룻이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를 "붙좇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דָּבַק[다바크]로 표현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열애와 영속성(passion and permanence)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19]

③ 이렇게 언약의 맥락에서 사용된 עָזַב[아자브]와 דָּבַק[다바크]란 두 동사가 결혼을 묘사하는 데 쓰인 것은 결혼이 언약임을 암시한다.

2) 더 나아가 잠 2:16-19 과 말 2:14-16 은 명시적으로 결혼이 언약임을 밝히고 있다.

① 성경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서약 순서이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서약대로 충실하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것은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룻을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하여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 역할을 한 데서 볼 수 있다(룻 4:9-12).

②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의 증인이 되신다(말 2:14).

③ 남편과 아내는 결혼식에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고생스러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대로 평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에 있어야 할 신실함이다.

3) 하나님과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사랑의 서약 이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성은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 이후에 총각과 처녀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운 것이다. 기독 청년들은 성에 대한 궁합(?)이 맞는지 결혼 서약 전에 알아보기 위해 성관계를 가져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괴변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30:20)"처럼 토씨를 다르게 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의지하다"보다는 "달라붙다, 충실히 대하다, 꼭 붙어 있다, 붙좇다, 떠나지 않다, 부속하다, 결합하다" 등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דָּבַק[다바크]를 "버리다"의 반대어처럼 명령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로 번역하고 조건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어 성경은 신 10:20 의 경우 cleave to(KJV, RSV), hold fast to(NKJV, NIV, NRSV), cling to(NASB) 등을 사용하고 있다. 룻 1:14 의 경우 cleave to 를 쓴 KJV 를 제외하고 모두 cling to 를 사용하고 있다.

[19] Wenham, *Genesis 1-15*, 71.

싸이렌의 소리로 여겨야 한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눈물로 일생을 살거나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 처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잠언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고(18:22),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고(18:14) 집을 세우고(14:1) 지아비의 면류관(12:4)이라고 가르친다. 결혼 전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시내산 언약의 준수 사항인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출 20:14; 신 5:18)은 **결혼이란 언약적 관계를 깨는 일, 즉 간음을 금하고** 있다. 제 7 계명은 창조 규례요 언약 관계인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다. 결혼의 언약적 충실함을 파기하는 간음은 중죄로 다스렸다. 레 20:10 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고 말했다.

3. 부부 관계는 무순위적 무촌(無寸)이 아니라 영순위적 0 촌(零寸)이다.

1)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가정에서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자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가정의 핵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바울이 가정의 삶에 대한 윤리적 지침(골 3:18-4:1; 엡 5:22-6:9)을 줄 때 아내-남편(골 3:18-19; 엡 5:22-33), 자녀-부모(골 3:20-21; 엡 6:1-4), 종-상전(골 3:22-4:1; 엡 6:5-9)의 순서로 언급을 하였다. 바울이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주종 관계의 순서를 따라 윤리적 지침을 준 것도 부부 관계가 가정의 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족보에 있어서 종적 관계는 1 촌이고 횡적 관계는 2 촌이다. 즉 부자 관계는 1 촌이고 형제자매 관계는 2 촌이다. 남성 위주의 부계 사회의 족보에 있어서 부부 관계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부부의 촌수를 말할 때 흔히 "무촌"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남녀가 남남으로 살다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헤어지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에서는 부자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고, 부부 관계는 언제라도 끊어 버릴 수 있는 인륜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며 부부 관계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부자 관계에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인륜적 부부보다 천륜적 부자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 부부 관계가 인륜이라는 유교적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3) 사랑의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는 원래 남남으로 살다가 만났고 헤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이 끝나버린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무촌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언약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결코 나누일 수 없고 서로 서로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이다. 성경은 부자의 1 촌 관계를 떠나 부부의 0 촌 관계를 맺는 것은 새로운 헌신을 주고받을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여 준다. 0 순위가 1 순위보다 앞서듯이 성경은 0 촌인 부부지간이 1 촌인 부자지간 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무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순위보다 앞서는 0(영)순위의 0(영)촌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4)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는 말도 성경적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한 서약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므로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서로 서로에게 고백한 부부간의 사랑의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만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의 승화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랑의 무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시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부부에게 "권태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권태기란 말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부인의 미모가 예전만 못하고 남편의 힘이 전만 못하더라도 부부는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부는 환갑이 지나도, 진갑이 지나도 연애 시절이나 신혼 부부 시절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잠 5:18-19; 말 2:14-16).

4. 결혼의 두 가지 주된 목적은 한 몸으로서의 친밀한 사귐과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고,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음란의 방지이다.[20]

1)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부부의 친밀한 사귐이다.

① 사랑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맺은 부부는 연합하여 "한 육체/한 몸"을 이룬다(창 2:24; 마 19:5-6; 막 10:8; 고전 6:16; 엡 5:31).[21]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는 명령에 비추어 보면 "한 육체/한 몸"은 문자적으로 성적인 연합([monogamous heterosexual] sexual union)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한 육체/한 몸이라는 것은 성적 연합뿐만 아니라 "관심과 추구의 연합", "결속", "포괄적인

---

[20] Douma, *Ten Commandments*, 250, 256: (1) coniugium: forming a lifelong/living communion; (2)matrimonium: forming a family & having godly children; (3) prevention of sexual immorality. 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 장 3 항은 "Marriage was ordained for the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 for the increase of mankind with a legitimate issue, and of the Church with an holy seed; and for preventing of uncleanness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창 2:18), 합법적인 자손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경건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말 2:15), 그리고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고전 7:2, 9)."라고 말한다.

[21] 창 2:24 의 "בָּשָׂר אֶחָד[바싸르 에하드]"는 칠십인역에서 "(ἔσονται οἱ δύο εἰς) σάρκα μίαν [싸르카 미안]"으로 번역되었고 마 19:5-6; 막 10:8, 고전 6:16; 엡 5:31 에서 칠십인역처럼 인용되어 있다. 고전 6:16 의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에서 "한 몸"은 "ἕν σῶμά [헨 쏘마]"이고 "한 육체"는 "σάρκα μίαν [싸르카 미안]"이다. 개역개정은 창 2:24 와 마 19:5-6 과 막 10:8 에서 "한 몸"으로 번역하고 고전 6:16 과 엡 5:31 에서 "한 육체"로 번역하였다. 영어 성경이 "one flesh"로 똑같이 번역한 것처럼 "한 육체"와 "한 몸"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인격적 사귐",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결속", "새로운 혈연관계" "가족적 신분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22]

② "한 육체/한 몸"은 남편과 아내의 배타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문제를 낳는 일부다처(一夫多妻 cf. 창 16:4-6; 29:16-24; 삼상 1:6-8) 혹은 일처다부(一妻多夫)를 배제하고 간음과 음행을 배제하고 새로 형성된 혈연 관계로 인해 근친상간(近親相姦)을 배제한다.

③ 한 몸으로서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서약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의 성적 만족을 위해 협력하고 성적 정절을 지켜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몸과 영혼을 서로 서로에게 주며 재산, 관심사, 비전, 문제, 걱정 등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며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23]

④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존중하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이해하고, 배우자를 위해 늘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배우자에게 시간과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

2)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다(말 2:15).

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녀의 구별이란 성별의 혼란을 주는(cf. 신 22:15) 동성애(同性愛, 동성간의 성행위 레 18:22; 20:13)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간(獸姦)이 정죄된다(출 22:19[MT 18]).

② 부모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다. 언약으로 연합되어 서로에게 헌신을 하는 부부는 힘을 합쳐 자녀들의 교육과 행복을

---

[22] "one flesh" = monogamous heterosexual sexual union; union of interests and pursuits (Collins, 142); solidarity (Hamilton, 181); comprehensive personal communion (Douma, 250); complete unity and profound solidarity (Waltke, 90); new kinship as brother and sister [entering into new blood relationship as one's bone and flesh, not terminated by death or divorce] (Wenham, 71); altering familial identity in the eyes of the community (Mathews, 224).

[23] Cf.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89: "Ursinus once again comes to our aid. Positively, the seventh commandment calls us to (1) mutual love; (2) conjugal [sexual] fidelity; (3) community of goods, together with sympathy in each other's sorrows and misfortunes; (4)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5) bearing of each other's infirmities with a desire to remove them."

위해서도 헌신해야 한다.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고 말했다.

③ 성경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기적적으로 자식을 받은 여인들(사라, 리브가, 라헬, 마노아의 아내, 한나,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는 가정도 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자발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것(voluntary childlessness)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상반되는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의 문제를 생각하며 인구 조절하는 일에 협조할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가족 계획 문제는 지혜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④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불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등의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과 시험관 아기(in vitro fertilization IVF)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 인공 수정의 경우 반드시 AIH 즉 정자는 남편(H=husband)의 것이어야 하고 인위적 간음이라 할 수 있는 AID 즉 다른 기부자(D=donor)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24]
- 시험관 아기는 ⑴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의 결합이고 ⑵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착상되어야 하고 ⑶낙태의 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모두 착상되어야 하고 ⑷가능한 빨리 착상되도록 해야 한다.[25]

3)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성욕을 다스리고 음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며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 . .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전 7:1-2, 8-9)."고 말했다.[26]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장하면서도 음란 방지를 위해 결혼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였다.

---

[24] Douma, *Ten Commandments*, 252-253.

[25] Douma, *Ten Commandments*, 254-256.

[26] 고전 7:1 하반절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독신을 선호한 바울의 말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간주된다(Grosheide, Morris, NIV, 박윤선, 이상근). F. W. Grosheide(*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155)는 창 20:6 이나 잠 6:29 에서처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완곡어법(euphemism)이고 그의 아내가 아니고 "한 여자"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결혼 여부를 묻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Gordon D. Fee(*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267-276)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이 고린도교인들의 편지에 들어 있는 말로 보았다. Fee 는 고전 7:1-2 을 "*Now for the matters you wrote about*: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relations with a man." *But* because of the instances of sexual

②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단순성을 지닐 수 있는 점에서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창조 규례이며, 독신 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고전 7:7; 마 19:10-12).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독신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다.

③ 사랑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성도덕의 관점에서 건전한 결혼 생활은 방종한 성생활을 막는 길이 된다.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 장 3-4 항은 결혼 상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히 13:4; 딤전 4:3; 고전 7:36-38; 창 24:57-5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전 7:39).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같은 맥락에서 믿는 경건한 사람은 그 생활이 유별나게 악한 사람이나 멸망 받을 이단을 옹호하는 사람과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창 34:14;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27]

2) 성경 말씀에 금지된 친족 혹은 인척과의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레 18 장; 고전 5:1; 암 2:7). 이러한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인간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로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없다(막 6:18; 레 18:24-28). 남자는 혈연상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

---

immorality, each man should have his own wife, and each woman her own husband."라고 번역하였다. Fee 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의 배경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결혼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견해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되어 결혼이 필요 없는 종말론적 여인들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바울은 7:1-7 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온전한 성적 권리를 가지고 결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7:8-9 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라고 말하고, 7:10-11 에서 믿는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한 상태로 있으라고 말하고, 7:12-16 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 유지를 권면하고, 7:25-38 에서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7:39-40 에서 결혼한 여인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한 여인은 결혼한 상태로 있고 과부가 된 경우 과부로 지내라고 말했다. 이러한 권면은 결혼한 자들에게는 결혼을 취소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고 처녀와 과부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며 압력을 주는 입장을 교정하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른 입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27] WCF 24:3 It is lawful for all sorts of people to marry, who are able with judgment to give their consent. Yet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marry only in the Lord. And therefore such as profess the true reformed religion should not marry with infidels, papists, or other idolaters: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unequally yoked, by marrying with such as are notoriously wicked in their life, or maintain damnable heresies.

이외에 아내의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혈연상 자신의 남편과 결혼하는 일 이외에 남편의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레 20:19-21).[28]

6. 건강한 결혼 생활은 가정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 4 자성어(四字成語) 맞추기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며 할아버지가 의도한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의 답은 "평생원수"라고 답하여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었다. 모든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노후대책 잘하여 아내에게 정말 천생연분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이 남편에게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유행하는 네 가지 4 자성어는 설상가상(雪上加霜), 천만다행(千萬多幸), 유명무실(有名無實),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한다. 성격도 별로이고 편안하게도 못해 주는 설상가상, 편안하게는 못해 주지만 성격은 좋은 천만다행,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으나 아내에게는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 타인의 인정도 받고 성격도 좋고 편안하게 해 주는 금상첨화! 모든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상첨화라는 점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2) 창 1-2 장의 천지 창조 기사에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benediction)"라고 7 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 2:18 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malediction)"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19 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자기처럼 동물을 다스리고 자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다(20 절).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21 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22 절).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18 절, for Adam) 아담으로부터(21 절, from Adam)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22 절, to Adam) 이끌어 오셨다. 아담은 여자를

---

[28] WCF 24:5 Marriage ought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forbidden by the Word. Nor can such incestuous marriages ever be made lawful by any law of man or consent of parties, so as those persons may live together as man and wife. The man may not marry any of his wife'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he may of his own; nor the woman of her husband'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of her own. [// 남자는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와는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그 남편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 남자는 그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기 아내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그녀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기 남편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없다.]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2:23)"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였다.

3) 웬함(*Genesis 1-15*, 69)은 "The woman is not made out of his head to top him, not out of his feet to be trampled upon by him, but out of his side to be equal with him, under his arm to be protected, and near his heart to be loved. 여자는 남자 위에 있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에게 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지고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로부터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근처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말을 본문의 정신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또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Just as the rib is found at the side of the man and is attached to him, even so the good wife, the rib of her husband, stands at his side to be his helper-counterpart, and her soul is bound up with his. 갈빗대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발견되고 그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남편의 옆구리로서 좋은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의 곁에 있고 그녀의 영혼은 그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 카쑤토(Cassuto)의 말을 인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으신 것은 둘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들은 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신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한 쪽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잘 인도해야 할 것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노라"고 감동받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앙심이 깊지 못한 배우자로 인해 교회 봉사를 방해받을 때에도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며 존경하며 복종하며 자신처럼 좋은 봉사자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인의 교회 봉사를 못 마땅해 하는 남편들은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인의 교회 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이나 유명무실을 넘어 금상첨화의 배우자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에 창 2:24 을 인용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큰 신비, 큰 비밀인 것을 말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도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아들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도록 해 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승화되면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며 사랑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아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간에 있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6)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훈을 주는 골 3:18-19; 엡 5:21-32; 벧전 3:1-7 의 교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내는 질서를 위해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②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한다.

③ 남편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부부생활을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 ⑴나는 결혼할 때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 ⑵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 ⑶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 내 자신을 주고 있는가?
- ⑷나는 아내 사랑하는 것을 내 몸 사랑하듯 하고 있는가?
- ⑸나는 그리스도가 티도 없고 주름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듯이 나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④ 아내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부부 생활을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 ⑴나는 결혼할 때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 ⑵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 ⑶나의 단장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에 치중하며 나는 경건하며 온유하며 정숙한가?
- ⑷나는 잠언에서 노래한 현숙한 여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 ⑸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가?

4. 결혼과 성

1. 아가서

1)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다.[29] 다시 말하면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찬미하는 사랑의 시들의 모음집이다. 따라서 아가서의 많은 비유적 표현들은 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여인의 처녀성은 우물, 혹은 향기로운 정원으로 표현된다(아 4:12-15). 혼전 순결과 관련하여 처녀성은 "벽"인 반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은 "문"으로 묘사된다(아 8:9-12). 남녀의 성교는 시각(아 7:1), 후각(아 4:13), 미각(아 5:1), 청각(아 5:2), 그리고 촉각(아 7:8) 등 오각의 즐거움을 통해 밝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가서에 나오지 않지만 아가서는 성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경험 영역에 대한 신적인 통찰과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

[29] Raymond B. Dillard and 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263-265.

3) 아가서에 사랑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는 말도 없고, 결혼의 노래들이 나오지만 결혼식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남녀간의 강렬한 성관계를 묘사하는 아가서는 분명하게 결혼한 부부 사이를 전제하고 있다(아 6:3; 9)고 보고 혼전성교나 혼외정사를 금하고 있는 율법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아가서는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의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선하고 즐거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4) 아가서는 성적 타락 즉 성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결혼 내에서의 성마저도 저열하고 사악한 것으로 보고 금기시하는 것을 교정해 주는 책이다. 아가서에 묘사된 동산에서의 성관계(아 2:3-13; 4:12-5:1; 5:2-6:3; 6:11; 7:10-13; 8:13-14)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사랑이 타락 이전의 복된 상태로 회복된 것을 그리고 있다.

5)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결혼 이미지로 묘사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관계와 그 친밀성을 보도록 인도한다.

2. 잠언 5-7 장

1) 잠언 5-7 장은 성과 결혼에 대하여 젊은이들에게 귀한 지침을 주고 있다.[30]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의 성은 부부가 정조를 지키며 서로 공유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2) 잠언은 결혼 울타리 밖의 거센 성적 유혹을 이기도록 두 가지 방향, 즉 한 편으로 간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지적하고(잠 5:1-14; 6:25-35; 7:22-27),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배우자와의 성적 즐거움을 묘사한다(잠 5:15-23).

> [잠 5:15-21] (15)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3. 성과 성욕

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성에 속한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31] 하나님의 남녀 창조는 성적 매력과 성욕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려 준다.

2) 성욕과 성적 매력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지만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이 되었다.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사용할 경우 잘못 부쳤을 때 떨어지지 않는 강력

---

[30] Miller, *Ten Commandments*, 306.

[31] 고재수, **십계명 강해**, 83-84.

접착제와 같아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제 7 계명은 성욕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3) 성의 절제

① 성의 거부는 좌절을 가져오고 거부하면 부부 관계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고전 7:3-5 은 "(3)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결혼 안에서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유의하며 배우자의 몸을 사용하여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육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배우자의 만족을 위해 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③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이 섬기는 성이 되게 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4)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은 사랑의 언어 중의 하나이다.

①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사랑의 그릇(Love Tank)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릇과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당신의 사랑의 그릇은 채워져 있는가?

②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는 다음과 같다.[32]

- ⑴제 1 의 사랑의 언어 : 인정하는 말 (Words of Affirmation)
- ⑵제 2 의 사랑의 언어 : 함께하는 시간 (Quality Time)
- ⑶제 3 의 사랑의 언어 : 선물 (Receiving Gift)
- ⑷제 4 의 사랑의 언어 : 봉사 (Act of Service)
- ⑸제 5 의 사랑의 언어 : 육체적인 접촉 (Physical Touch)

③ 모든 인간은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를 따름이지 틀린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드려야 한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온다.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사랑한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다(요일 1:1-3).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최상의 용서이다(눅 23:34). 그러므로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요, 순종이다.

---

[32] Gary Chapman, *The Five Love Languages* (Northfield, 1992).

5. 이혼과 재혼

1. 머리(Murray)는 이혼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할 주요 본문으로 신 24:1-4; 마 5:31-32; 19:3-12; 막 10:2-12; 눅 16:18; 고전 7:15; 롬 7:1-3 을 들었다.[33] 데이비스(Davis)는 신 24:1-4 과 함께 말 2:10-16 을 이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언급했다.[34]

2. 신 24:1-4

   [신 24:1-4]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סֵפֶר כְּרִיתֻת [쎄페르 크리투트] "a document of cutting off")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סֵפֶר כְּרִיתֻת**)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אַחֲרֵי אֲשֶׁר הֻטַּמָּאָה)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תּוֹעֵבָה)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1) "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에 대한 해석

      ① 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라는 어구는 신 24:1 이외에 신 23:14[MT 15]에 한 번 더 나온다.

      [신 23:9-14(MT 10-15)] (9)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35] 들어올 것이요 (12)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② 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란 어구는 간음한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는 법(레 20:10; 신 22:22), 간통을 의심받는 아내를 다루는 법(민 5:11-31), 신부의 처녀성에 관한 법(신 22:13-21), 그리고 장소(성과 들)에 따른 강간당한 약혼한 처녀와 강간범에 대한 법(신 22:25-27 성에서; 22:28-29 들에서)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들과 신 24:1-4 의 법은 처벌과 수습에 있어서 전혀 다르므로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나 성적인 부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36] 따라서 간음과

---

[33] John Murray, *Divorc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5), 2.

[34]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Phillipsburg: P&R, 2004), 103.

[35] 이 단락에서 개역개정은 개역의 "진"을 "진영"으로 고쳤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만 그대로 "진"으로 남겨 두었다.

[36] Murray, *Divorce*, 10-12.

같은 성적 부정(不貞)으로 보는 샴마이 학파의 엄격한(rigid) 해석이나 보이스(Boice)처럼[37] 약혼전 혹은 혼전의 성적 부정으로 보는 해석은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③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보는 힐렐 학파의 느슨한(loose) 해석도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휴즈(Hughes)는 힐렐 학파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예들로 남편의 저녁을 망치는 일, 아내가 머리털을 아래로 내린 채 걷는 것, 거리에서 남자들과 말하는 것, 남편 앞에서 시부모에 대하여 불경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장모와 아내에 대한 나쁜 말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됨), 그리고 랍비 아키바가 말한 대로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풀이한 것 등을 들고 있다.[38] 이혼을 남편의 권리나 특권으로 보게 하는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밝히는 말 2:16 의 교훈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머리에 의하면 신 23:14[MT 15]의 "불결한 것"이 배설물을 법대로 덮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것에 비추어 신 24:1 의 "수치스러운 일"은 아내의 불법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성생활에 관련된 어떤 꼴사나운 못된 행실로 남편의 불쾌와 불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9] 데이비스(Davis)는 아벨 이삭슨(Abel Isaksson)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동의하였다.[40] 이 주장의 근거는 다윗이 몸을 드러낸 것 때문에 미갈의 업신여김을 받은 것(삼하 6:12-20)과 남편의 마음이 벌거벗은 아내를 싫어하는 것(겔 23:18) 그리고 머리를 풀고 거리에서 실을 만들거나 낯선 남자에게 말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다.

⑤ 톰슨(Thompson, *Deuteronomy*, 243)은 עֶרְוַ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의 직역이 "nakedness of a thing 어떤 것의 벌거벗음"이라고 지적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죽음으로 다스리던 간음을 의미할 수 없고 "some immodest exposure or unwomanly conduct 어떤 부적절한 노출 혹은 여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신 24:1-4 의 규례의 교훈

---

[37] J. M. Boice,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2), 119: "What is uncleanness then? Well, if it is a sexual sin in the woman and if it is not adultery (which would be a sexual sin after marriage), clearly it must be a sexual sin before marriage. In other words: fornication."

[38] R. Kent Hughes, *The Sermon on the Mount* (Wheaton: Crossway, 2001), 114.

[39] Murray, *Divorce*, 12-13.

[40] Davis, *Evangelical Ethics*, 102-103. Davis 는 그의 책 304 쪽의 미주 29 과 미주 30 에서 Abel Isaksson, *Marriage and Ministry in the New Temple* (Lund: C.W.K.Gleerup, 1965), p. 26 그리고 p. 45. n. 1 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① 신 24:1-4 의 내용은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친정으로 보내는 것을 언급하고 만일 그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한 후 그 두 번째 남편에 의해서도 미움을 받아 이혼 증서를 받고 본가로 돌아왔거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인을 전 남편이 아내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도리아니(Doriani)는 신 24:1-4 의 규례가 이혼당한 여자에게 재혼할 권리를 주어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혼당한 아내가 재혼하면 다시는 아내 삼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 보내기 전에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남편의 행동을 늦추며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41]

③ 크레이기(Craigie)는 이 규례가 이혼당한 여자의 재혼을 "몸을 더럽힌 것(וְנִטְמְאָה)"으로 묘사하며 간음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cf. 레 18:20)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일지라도 그 여자를 전 남편이 아내로 다시 삼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미 실행되던 이혼 관습에 제한 사항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42]

④ 머리(Murray)는 "더럽힘(וְנִטְמְאָה)"이 여인의 재혼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닐지라도 전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상황이 일어날 때는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전혀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띤 일로 간주되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43]

-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이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더럽힌 것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더럽힘"을 간음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 재혼이 간음의 범주에 든다고 하거나 이혼당하고 재혼한 여인이 음부로 간주되거나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 그러나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한 후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는 이 특별한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관련하여 몸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특별한 여인과 이 특별한 남편의 재결합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 되었다.
- 이 두 사람의 재결합을 막는 장애물은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 재결합하려는 상대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하게 한 남자(첫 번째 남편)라는 사실에 있다. 재혼이 일어난 후 첫 번째 결혼이 회복되려는 때 제기된 더럽힘의 궁극적인 책임의 짐은 바로 이혼의 사실에 있었다.
- 이 모든 것은 이혼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비정상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 이혼이 허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이 어떤 상황 아래서 남편의 고유의 권리나 특권으로 재가되거나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예수님의 해석

---

[41] Doriani, *Sermon on the Mount*, 69.

[42] Craigie, *Deuteronomy*, 305.

[43] Murray, *Divorce*, 14-15.

①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던 이 규례를 완전히 폐지시키시며 음행 이외에 "수치스러운 일"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②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창 2:24)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인 남편과 아내를 사람이 나누어 갈라놓지 못한다(마 19:6; 막 10:8-9).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말 2:16).

③ 음행 이외의 다른 이유로 버림받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재혼하여 부부가 된 두 사람 모두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 5:32; 19:9; 눅 16:18).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남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며,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는 여자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막 10:11-12).

3. 바울의 가르침

1)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전 7:8-9)고 말했다.

2)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 7:10-11)"고 권면하였다.

3)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갈리기를 원하며 고의적으로 버리면 버림당한 믿는 배우자는 이혼할 수 있고(고전 7:15) 이혼한 후 재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 장 5-6 항은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은 결혼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당사자에게 그 약혼을 취소할 근거가 된다(마 1:18-20; 마 5:31-32;).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마 5:31-32)과 이혼 후에 범죄한 당사자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마 19:9; 롬 7:2-3)은 합법적이다.[44]

2)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공직자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의적인 버림(유기 遺棄) 이외에 어떤 것도 결혼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마 19:8-9; 고전 7:15; 마 19:6; 신 24:1-4).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45]

---

[44] WCF 24:5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s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45] WCF 24:6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ful

5. 머리(Murray)는 이혼과 재혼의 구체적인 10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6]

1) 결혼한 부부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이혼한 후 어느 당사자도 재혼하지 않고 불법적인 성관계에 빠지지 않은 경우 두 당사자는 재결합할 수 있는가? 다시 합칠 수 있고 다시 합쳐야 한다. 성경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는 결혼이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부부는 실제적으로 한 몸 관계에 있으므로 결혼이 해소(解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는 결혼이 실제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가 요구하는 이혼 무효 혹은 이혼 취소의 절차를 밟고 다시 부부로 신고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성경적인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고 어느 당사자도 재혼하지 않은 경우 유책 배우자가 회개한 것에 근거하여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는가? 다시 합쳐서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경우 간음으로 인해 이전 결혼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두 당사자는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혼이 부적절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이혼 수속을 한 남편이 재혼(=간음 행위)하여 살다가 두 번째 부인이 죽은 후 회개하고서 그동안 죽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낸 첫 번째 부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재결합이 허락될 수 있는가? 허락된다. 그 남자와 첫 번째 부인이 다시 결혼 관계를 재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결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더라도 남편 쪽의 두 번째 결혼이 간음을 행한 것이므로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인이 이러한 근거로 결혼 해소 선고를 얻지 못했더라도 전체 상황이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남편이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서 또 부적절한 이유로 두 번째 아내와도 이혼하고서 첫 번째 부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재결합이 허락될 수 있는가? 허락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한 것이므로 첫 번째 결혼이 실제로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결혼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지만 이로 인해 첫 번째 결혼이 해소된 결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 결혼만 존속되는 유일한 결혼이 된다. 이 존속되는 두 번째 결혼이 부적절한 이유에 의한 이혼에 의해 해소될 수 없으므로 이 남자가 첫 번째 부인과 재혼하는 것은 간음적 두 번째 결혼에 첫 번째 부인을 끌어들이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간음 행위가 된다. 이 남자의 재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일지라도 사실상 존속하는 결혼이므로 합법적인 원인이 없이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남자는 그의 첫 번째 부인과 재혼할 수 없다.

---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46] Murray, *Divorce*, 112-117.

5)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재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서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의 죄를 회개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은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신 24:1-4 을 적용하여 재결합할 수 없는가? 구약에서 간음은 간부와 음부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혼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을 유의하면, 24:1-3 의 이혼 허락은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음행 이외에 이혼 사유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신 24:1-3 의 이혼 허용은 주님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 24:1-3 이 취소되었다면 신 24:4 의 금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필요한 일들이 지켜진다면 간음으로 인해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여 살다가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회개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지낸)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허락될 수 있다.

6) A 씨 부부가 불법적으로 이혼하고 B 씨 부부도 불법적으로 이혼한 후 A 씨는 B 씨 부인과 재혼하고 B 씨는 A 씨 부인과 재혼하여 살다가 네 명 모두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원래의 결혼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원래대로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혼이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재혼은 간음 행위가 되어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낳아 재혼만 사실상 존속된 결혼으로 간주된다. 원래의 결혼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죄책을 가중시킬 뿐이다.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하지만, 일생동안 과거의 범죄에 대한 부끄러운 결과들을 감수하며 겸손과 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7) C 씨가 간음한 것을 C 씨 부인이 알고 있지만 C 씨가 공적으로 간음죄를 자백하지 않고 C 씨 부인이 간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C 씨가 다른 이유들을 들어 부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C 씨 부인은 (증명할 수 없지만 남편의 간음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내세우는 부적절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어려운 예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들을 고려하면 이혼할 수 없다. 이혼은 합법적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인이 남편의 간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야 한다. 깊은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사례이어서 안타깝지만 무흠한 부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명령을 어기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길든 짧든 견디어내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8) D 씨는 적법한 사유가 없이 부인과 이혼했다. D 씨 부인은 재혼했고 재혼함으로써 간음을 했다. 이 경우 D 씨는 재혼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핀 대로 만일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한 D 씨가 재혼했다면, D 씨 부인은 D 씨의 재혼이 첫 번째 결혼을 해소해 주는 간음 행위이므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D 씨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 부인과 이혼한 죄를 지었고, D 씨 부인이 재혼함으로써 간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인 편의 죄가 그녀를 내어보냈던 잘못으로부터 D 씨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D 씨는 마 5:32 의 범주 즉 D 씨는 자기 아내를 간음하도록 내어 보낸 죄를 지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D 씨 부인의 재혼으로 인한 간음이 D 씨 자신에 의해 일어나게 된 것임을

고려하면, D 씨 부인의 재혼이 간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D 씨는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했으므로 이혼하게 된 무흠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재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부부 가운데 유책 배우자의 재혼의 권리 문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한 쪽으로 단정 지어 교조적으로 가부를 말할 수 없지만 말이다.

9) E 씨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저지르는 정신적 혹은 실질적(virtual) 간음에 근거하여 [육체적 혹은 행위적(actual) 간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씨 부인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행위적(사실적) 간음이 아닌 어떤 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 씨 부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부적절한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어느 쪽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없다. E 씨가 재혼하면 E 씨 부인의 재혼 권리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다룬 경우와 비슷하다. E 씨 부인이 재혼하면 E 씨는 부인의 간음적 재혼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technically) 이혼을 확보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morally) 별거를 일어나게 한 비행(misconduct)에 비추어 볼 때 E 씨의 재혼은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10) F 씨 부부는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며 자녀를 낳아 길렀다. 시간이 지나며 F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그 여자와 결혼하길 원하는데 그가 사는 주 정부에서는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다. F 씨는 공적으로 그 다른 여자와 간음했다고 자백하고 증인들로 법정에서 그의 간음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래서 F 씨는 그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실수한 것을 알았으나 이미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몇 년 후 그의 두 번째 부인이 헤어지기를 원했고 그는 그녀의 무능(impotence)에 근거하여 결혼 무효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주는 F 씨의 두 번째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F 씨는 그의 외도를 회개하고 전처에게 돌아가서 남편과 아버지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가 저질렀다고 했고 그걸 근거로 이혼이 허락된 간음은 꾸며낸 것으로 주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에 재혼하지 않았던 F 씨 전 부인은 F 씨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F 씨와 F 씨 전 부인은 재결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F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혼 전에 간음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F 씨의 재혼은 첫 번째 결혼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정의 F 씨 재혼에 대한 무효 선고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무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F 씨의 재혼은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고 구속력이 있다. F 씨가 전 부인과 재혼하는 것은 또 다른 간음 행위가 된다.

6. 그리스도와 제 7 계명

1.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하나로 간음을 지적하셨다(마 15:19; 막 7:22).
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할 계명 중의 하나로 "간음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3. 예수님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교정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고 말씀하셨다.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을 빼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오른 손을 찍어 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4.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9:4-6; 막 10:6-9).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한 것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셨다(마 19:8; 막 10:5).[47] 마가는 남편이 아내 버리고 다시 장가드는 것과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시 시집가는 것이 모두 간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막 10:11-12). 누가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의 간음과 함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의 간음도 언급하였다(눅 16:18). 마태는 "음행"을 언급하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 19:9)."고 기록하고 있다.[48] 음행 이외의 부적절한 사유로 이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혼이 해체된(dissolved)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한 몸된 부부이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 된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유로 이혼한 부부는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다시 합치든가 해야지 재혼하게 되면 간음이 된다. 음행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음행하였다고 하여 다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를 용서하고 계속 부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5. 예수님은 간음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독신 생활이 사람마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즉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셨다(마 19:11-12). 예수님은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둘 모두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지적하셨다.
6.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대로 실행해야 하는지를 질문 받으셨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또 땅에 쓰셨다(요 8:3-5). 이 말씀을 듣고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

[47] 신 24:1-4 에 언급되는 이혼 증서는 결혼 후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낸 전처가 재혼했는데 그 둘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거나 둘째 남편이 죽은 경우 처음에 그녀를 내 보냈던 전남편이 그 전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규례 가운데 나온다.

[48] Davis(*Evangelical Ethics*, 106)는 마 19:9 의 μοιχᾶται[모이카타이]가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 혹은 격언적(gnomic) 현재로서 간음의 행위(an act of adultery)를 나타내는 것이지 간음의 계속적인 상태(a continuing state of adultery)를 나타내는 것임을 주목하고 이혼과 재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는 교회를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러갔다(요 8:9). 이들의 모습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던(눅 18:11) 바리새인의 위선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 준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다(요 8:10-11). 이 사건은 간음을 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또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간음죄에 대한 사형을 시행하던 것이 폐지된 것을 보여 준다. 주님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신 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다.

7.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음죄 때문에 그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전 6:19-20).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제 7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간음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정절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다.

7. 제 7 계명의 준수

1. 독신의 은사를 따라 독신으로 살든, 독신의 은사가 없어 사랑의 서약을 통해 결혼하여 살든, 모든 사람은 언행심사에 있어서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자신과 이웃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는 곳에는 간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머물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던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에 빠졌다(삼하 11:2-4). 그러나 보디발이 위탁한 일을 성실히 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도 간음죄에 빠지지 않았다(창 39:6-12).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드는 음욕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경우처럼 순간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간음이 가져올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들을 되돌아보며 요셉처럼 어찌 이런 큰 악을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을까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이다.
3. 사랑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관계는 피보다 더 진한 언약 관계이므로 결혼 이전에 혼전 순결을 잃는 어떤 성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만 성행위를 해야 한다.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성의 배타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을 즐기고 또 배우자를 섬기는 입장에서 성을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결혼과 올바른 성의 사용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음란이 방지되도록 노력하며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8. 제 7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8-109)
   1) HC 108. 제 7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륜의 행위를 정죄를 하신다는 것(레 18:30; 엡 5:3-5)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온 마음으로 몹시 싫어해야 하고(유 22-23) 결혼하여 살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전 7:1-9; 살전 4:3-8; 히 13:4).
   2) HC 109. 제 7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殿)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 제스처, 말, 생각, 욕망(마 5:27-29; 고전 6:18-20; 엡 5:3-4) 그리고 사람들을 불륜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엡 5:18; 고전 15:33) 다 금하십니다.
2.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1; 대교리 문답[WLC] 138)
   1) WSC 71.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마 5:28; 딤후 2:22)과 말(골 4:6; 엡 5:11-12)과 행동(고전 7:2-3; 살전 4:3)에 있어서 우리 자신(엡 4:29)과 이웃(벧전 3:2)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2) WLC 138.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몸과 마음과 감정(살전 4:4; 욥 31:1; 고전 7:34)과 말(골 4:6)과 행위(고전 7:2; 35-36)의 순결;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벧전 3:2); 눈과 모든 감각 기관을 조심하는 것(욥 31:1); 절제하고(행 24:24-25) 정숙한 친구와 사귀고(잠 2:16-20)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딤전 2:9);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결혼하고(고전 7:2, 9) 부부로서 사랑하고(잠 5:19-20) 동거하는 것(벧전 3:17); 우리의 소명에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잠 31:11-12, 27-28);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잠 5:8; 창 39:8-10).
3.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2; 대교리 문답[WLC] 139)
   1) WSC 72.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마 5:28)과 말(엡 5:4)과 행동(엡 5:3)입니다.
   2) WLC 139. 제 7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잠 5:7) 외에 간음, 음행(히 13:4; 갈 5:19), 강간, 근친상간(삼하 13:14; 고전 5:1), 남색, 모든 변태적 정욕(롬 1:24, 26-27; 레 20:15-16);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계획과 감정(마 5:28; 15:19; 골 3:5); 모든 추잡한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엡 5:3-4; 잠 7:5, 21-22); 음탕한 표정(사 3:16; 벧후 2:14), 경솔하고 가벼운 행동, 단정하지 못한 용모(잠 7:10, 13); 합법적인 결혼을 막는 것(딤전 4:3)과 불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레 18:1-21; 막 6:18; 말 2:11-12); 매음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경영하고 매춘 지대를 찾아가는 것(왕상 15:12; 왕하 23:7; 신 23:17-18; 레 19:29; 렘 5:7; 잠 7:24-27); 독신 서약을

[하도록] 하는 것(마 19:10-11)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고전 7:7-9; 창 38:26); 한 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갖는 것(말 2:14-15; 마 19:5); 부당한 이혼이나 불법 유기(말 2:16; 마 5:32); 태만과 폭식과 술취함(겔 16:49; 잠 23:30-33)과 부정한 교제(창 39:10; 잠 5:8); 음탕한 노래와 책과 춤과 연극(엡 5:4; 겔 23:14-17; 사 23:15-17; 3:16; 막 6:22; 롬 13:13; 벧전 4:3);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하거나 행하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왕하 9:30; 렘 4:30; 겔 23:40).

X. 제 8 계명

1. 제 8 계명 본문

1. 제 8 계명은 출 20:15 과 신 5:19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5 [로 티그노브]

לֹ֥א תִגְנֹֽב׃ 15

② 신 5:19 [블로 티그노브]

וְלֹ֥א תִגְנֹֽב׃ 19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 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 절(제 7 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 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하므로 신 5:19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8 계명 본문의 차이는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이다.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에 붙어 있는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Douay-Rheims Bible)과 한글 개역의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4 = 신 5:19

(출 20:14) οὐ κλέψεις

(신 5:19) οὐ κλέψεις

[Brenton] (출 20:14) Thou shalt not steal.

[Brenton] (신 5:19) Thou shalt not steal.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Alfred Rahlfs 의 *Septuagint*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 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5) non furtum facies

[Douay-Rheims Bible] (출 20:15) Thou shalt not steal.

(신 5:19) furtumque non facies

[Douay-Rheims Bible] (신 5:19) And thou shalt not steal.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신 5: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5) 도둑질하지 말라
- (신 5:19)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5 = 신 5:19)

- 도둑질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5) 도둑질하지 마라.
- (신 5:19) 도둑질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5) 도둑질하지 마라.
- (신 5:15)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한글 개역 신명기의 8 계명에 대한 번역 즉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는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신명기의 8 계명 번역에 접속사 바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개역은 "도적질"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도둑질"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 의하면 "도적질"은 "도둑질"을 보라고 되어 있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으로 풀이되어 있다. **엣센스 국어사전**(이희승 감수)이나 **국어사전**(남영신 엮음)에는 "도둑질"은 표제어로 실려 있으나 "도적질"은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③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금지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에서 "마라"와 "말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④ 새번역의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⑤ 쉬운성경 신명기의 "너희는"이란 복수 사용은 오역이므로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2. 제 8 계명 본문 번역

1) 제 8 계명에서 금하는 도둑질을 표현하는 어근은 גָּנַב[가나브]이다. 이 어근은 약 60 여번 사용되었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소유자의 동의없이 혹은 그 소유자 몰래 취하는 것"을 뜻한다(*TWOT* 168, #364). *NIDOTTE*(I: 879, # 1704)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근 גָּנַב[가나브]는 몰래 훔치고 속이는 것을 나타내고(창 31:19, 27; 삼하 19:3[MT 4]; 호 4:2), 어근 גָּזַל[가잘]은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나타낸다(창 21:25; 31:31; 삼하 23:21; 욥 24:9; 미 3:2).

① 창 31:19-32 에 어근 [가나브]가 6 번(19, 20, 26, 27, 30, 32) 사용된다.[1]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가나브] 19 절)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라반을 속였다([가나브] 20 절). 야곱은 자신의 도주를 라반이 두 딸을 억지로 빼앗을지도([가잘]) 모를 두려움 때문에 실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2]

---

[1] *NIDOTTE* (I: 879, # 1704)는 어근 [가나브]가 창 32:19-32 에서 8 번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나 6 번 사용되었다.

[2] [창 31:19-32] (19)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가나브 stole]**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나브** NASB: And Jacob deceived Laban the Aramean by not telling him that he was fleeing.] (21)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가나브 deceived]**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가나브 deceived]**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② 레 19:11-14 은 정직과 관련하여 도둑질을 금하고 있고 레 19:13 은 약자[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억압과 착취라고 하며 강도질을 금하고 있다.[3]

[레 19:11-14] (11)너희는 **도둑질[가나브]**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12)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아샤크] 말며 착취[가잘]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 [가나브]는 속여서 취하는 행동을 묘사하며 호 4:2 처럼 주로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단 한 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왕하 11:2).[4]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는 숙어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5:6).[5]

3) 제 8 계명에는 동사 [가나브]의 목적어 즉 도둑질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규례들에서 어근 [가나브]의 목적어로 대부분의 경우 소, 양, 나귀 등의 가축이 나오고(출 22:1, 9, 10) 드물게 은금(출 22:7) 혹은 옷(출 22:9)이 나오며 사람을 뜻하는 [이시](출 21:16)나 [네페시](신 24:7)가 나오기도 한다.

4) 번역

① (출 20: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

(29)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가나브 stole]** (31)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가잘 take by force]*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가나브 stole]**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 Wenham, *Leviticus*, 267-268. *NIDOTTE* I: 880 에 언급된 Palestinian (Jerusalem) Talmud Sanhedrin 26b 에 의하면 "강도질은 주인이 보는 데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주인의 존엄성 상실까지 포함하는 범죄이고 도둑질은 증인들은 보았으나 주인은 보지 못한 범죄이다." Milgrom, *Leviticus 17-22*, 1637 에는 R. Hisda 가 억압[오셰크]과 착취[게젤]에 대하여 고용주가 품꾼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하면서 품삯을 계속 미루는 것이 억압이고, 내가 너의 품삯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네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착취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

[4] Childs, *Exodus*, 423; *TWOT*, 168.

[호 4: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גָּנֹב 가노브 (부정사 자립형)]**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왕하 11: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개역: 도적하여 내고)[וַתִּגְנֹב 바티그노브 (바브계속법 미완료)]**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5] [삼하 15:6]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וַיְגַנֵּב אַבְשָׁלוֹם אֶת־לֵב אַנְשֵׁי יִשְׂרָאֵל׃

(ESV) So Absalom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② (신 5:19[MT 17]) **그리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2. 제 8 계명의 의미

1. 제 8 계명에는 도둑질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도둑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연상한다. 그러나 제 8 계명이 유괴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었다.[6] 종교개혁기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한 해설이나 다른 글들에도 제 8 계명이 유괴와 관련지어 자주 논의되었다.[7]
2. 이렇게 오래 전에 잘 알려졌지만 근대에 잊혀져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제 8 계명의 유괴와 관련된 측면을 다시 부각시킨 사람은 알트(Alt)이었다.[8]
   1) 알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원래 구체적인 목적어를 갖고 있었고 특별히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알트는 훔치는 대상을 언급하며 사람이 목적어로 나오는 출 21:16 과 신 24:7 을 근거 구절로 삼았고 다른 도둑질은 배상을 통해 벌을 받았지만 사람을 납치하는 도둑질인 유괴는 살인과 간음과 마찬가지로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지 배경으로 삼았다. 출 21:16 에는 도둑질하는 자 גֹּנֵב [고네브]의 훔치는 대상으로 "אִישׁ[이시] a man, 사람"이 나오고, 신 24:7 에는 "נֶפֶשׁ[네페시] a person, 사람"이 나온다. 신 24:7 은 사람을 유괴한 자를 유괴범[가나브]이라고 언급한다.[9] 딤전 1:10 은 인신매매를 하는 자(개역: 사람을 탈취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다.

---

[6] Earl S. Kalland, "Deuteronomy"in *EBC*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58 는 Sanhedrin [courts] 86a, the fourth tractate of the fourth order, *Nezikim* ["damages"] of the Mishnah 를 지적하고 있다. Douma, *Ten Commandments*, 286 의 각주도 Talmud, *Sanhedrin* 86a 를 지적하며 "Our teacher taught: 'You shall not steal.' Scripture is speaking here about stealing people."이라는 문을 인용하고 있다. *NIDOTTE*(I: 879, # 1704)는 어근 [가나브]가 탈무드에서 유괴를 가리키거나(Sanhedrin 86a) 재산을 훔치는 일반적인 도둑질을 가리키는(Baba Qamma 7:2) 것을 지적하고 있다.

[7] 제 8 계명이 유괴와 관련지어 논의된 문헌의 예를 위해 Douma, *Ten Commandments*, 286-287 를 참고하라.

[8] Albrecht Alt, "Das Verbot des Diebstahls im Dekalog," *Kleine Schriften I* (Munich: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53), 333-340. Craigie, *Deuteronomy*, 161 에는 Alt 와 비슷한 주장을 한 문헌으로 E. Hamel, *Les dix paroles*, 82-87 과 A. Phillips, *Ancient Israel's Criminal Laws*, 130-132 도 언급되어 있다.

[9] 남 영신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유인"은 남을 꾀어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이고 "유괴"는 속여 꾀어내는 것이고 "후리다"는 "남의 재산을 채거나 뺏다, 사람을 휘몰아 채거나 잡다"는 뜻이다. 출 21:16 과 신 24:7 에서 사용된 동사 גָּנַב[가나브]는 "유괴하다"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GBH 88H a 에 의하면 גַּנָּב[가나브]와 같은 קַטָּל[카탈](Qattāl)형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nomina opificum)로 쓰인다. 예: טַבָּח[타바흐] 푸주한, דַּיָּן[다얀] 재판관, רַכָּב[라카브] 기병, פָּרָשׁ[파라시](< parraš) 마병, חָרָשׁ[하라시](< ḥarraš) 일꾼

① [출 21:16] 사람을 납치한 자(גֹּנֵב אִישׁ [고네브 이시] 개역: 사람을 후린 자 Ὃς ἐὰν κλέψῃ τις τινὰ τῶν υἱῶν Ἰσραὴλ)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② [신 24: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גֹּנֵב נֶפֶשׁ [고네브 네페시] 개역: 한 사람을 후려다가 κλέπτων ψυχὴν)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유인한 자(הַגַּנָּב[하가나브] 개역: 그 후린 자 κλέπτης)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③ [딤전 1:8-11] (8)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ἀνδραποδισταῖς 개역: 사람을 탈취하는 자; *BAG* 63, ἀνδραποδιστής[안드라포디스테스] slave-dealer, kidnapper; cf. Vulgate, plagiarius = man-stealer, kidnapper)와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3) 출 21:6 과 신 24:7 을 근거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원래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다고 하는 알트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10] 알트의 주장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차일즈는 공동체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과 간음을 금하고 어길 경우 사형으로 다스린 것처럼 유괴가 도둑질 중의 가장 악한 형태이므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심각한 죄로 금지한 것은 계명들의 큰 맥락에서 지지를 받고 십계명 본문의 이전 단계를 밝혀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재의 본문은 분명히 다른 강조점을 반영하고 의미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11]

② 크레이기는 알트이외에도 하멜(E. Hamel)과 필립스(A. Phillips)를 열거하며 제 8 계명이 일차적으로 금하는 것은 사람을 탈취하는 것 즉 유괴와 같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 8 계명이 재산보다는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의 목숨과 운명을 통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불가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오늘날의 공중 납치와 같은 범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보려는 것을 금하는 제 3 계명과 사람을 유괴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약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을 제멋대로 조정하려는 것을 금하는 제 8 계명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크레이기는 제 8 계명이

---

[10] Durham, *Exodus*, 295 는 Alt 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로 Nielsen(*Ten Commandments*, 85, 91), Stamm(*Tru* 27[1961] 298-99), Keszler(*VT* 7 [1957] 11-12), A. Phillips(*Ancient Israel's Criminal Laws*, 130-132)등을 들고 반대하는 학자들로 Andrew(Stamm and Andrew, *Ten Commandments*, 106), Hyatt(215), Gerstenberger(*Wesen*, 63-64, 77-81), Harrelson(*Ten Commandments*, 135-36) 등을 들었다.

[11] Childs, *Exodus*, 423.

도둑질의 가장 악한 형태로서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유괴를 가리키며 금지한 것이긴 하지만 더 넓게 단순한 도둑질까지 포함하여 모든 도둑질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12]

③ 콜(Cole)은 창 37 장의 요셉의 경우처럼 원래 노예로 팔기 위한 유괴를 금하는 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종류의 도둑질이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13]

④ 카이저(Kaiser)는 알트가 제 8 계명이 원래 유괴를 금하는 명령이었으나 제 10 계명의 해석과 연관이 되어 재물에 관한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과 재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카이저는 제 8 계명이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재(시 24:1; 115:16)이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과 함께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였다.[14]

⑤ 칼란드(Kalland)는 (알트의 주장처럼) 제 8 계명이 유괴에 국한된다고 하는 랍비들의 해석(Talmud, Sanhedrin 86a, *Nezikim* ["damages"] of the Mishnah)은 강도질을 도둑질의 범주에 넣는 출 22:2 과 일치하지 않으며 출 21:16 의 유괴도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제 8 계명이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물건을 훔치는 것 둘 모두에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15]

⑥ 도우마는 알트가 제 8 계명이 사람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제 10 계명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방적이고 치우친 입장으로 평가했다.[16]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 8 계명이 대상의 구별 없이 모든 도둑질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 10 계명이 제 7 계명과 제 8 계명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 10 계명은 알트의 주장대로 도둑질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계명이 아니다. 도우마는 알트가 제 8 계명 논의에 있어서 유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킨 것을 계기 삼아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삼거나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며 누리도록 허락하신 자유를 박탈하는 일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8 계명과 관련지어 오늘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유괴하는 일, 테러범들이 사람들을 공중납치하거나 인질로 삼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부정하게 조장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빼앗는 악질적인 도둑 행위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도둑질은 사회에 불신과 긴장을 조성시키며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른 사람이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소유하여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준다. 유괴범은 가족을 떼어 놓는 일을 하고, 음식

---

[12] Craigie, *Deuteronomy*, 161-162.

[13] Cole, *Exodus*, 160.

[14] Kaiser, *Exodus*, 425.

[15] Kalland, *Deuteronomy*, 58.

[16] Douma, *Ten Commandments*, 285-289.

도둑은 남을 굶주리게 하고, 의복 도둑은 더위나 추위로 고생하게 만들고, 가축 도둑은 농경을 방해한다.[17] 삶이 힘든 농경 목축 사회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었다. 그래서 유괴는 사형으로 다스리고 물건에 대한 도둑질은 일으킨 손해의 충분한 분량을 도둑 자신이 경험하도록 하는 배상으로 다스렸다.

1) 출 22:1-4 에 의하면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의 종류와 장물 소유 여부에 따라 2-5 배 사이의 배상을 해야 했다.[18]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가축이 그의 손에 있는 경우 갑절로 배상해야 했다. 이것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도둑이 의도했던 손실의 고통을 그 자신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둑이 훔친 가축을 잡아먹거나 팔아버린 경우 소는 다섯 배로 갚아야 하고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했다. 그러나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도둑질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밤의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낮의 도둑은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도둑이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2) 출 22:7-10(MT 22:6-9)는 원고의 증거 제시를 통한 피고의 도둑질은 갑절로(200%) 배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레 6:2-7(MT 5:21-26)은 도둑질을 스스로 자백한 경우 오분의 일을 더하여(120%) 배상하고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19] 이것은 자수한 도둑에게 벌을 낮추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
3) 함무라피 법전에 의하면 유괴나 왕 혹은 신전으로부터 도둑질 한 것은 10-30 배로 갚아야 했고 배상할 수 없는 경우 죽음을 부여했다. 앗시리아에서 도둑질에 대한 벌은 죽음, 사지 절단, 강제 노동 등을

---

[17] Stuart, *Exodus*, 465.

[18] [출 22:1-4(MT 21:37-22:3)]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9] [출 22:7-10(MT 22:6-9)]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레 6:2-7(MT 5:21-26)] (2)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20] Wenham, *Leviticus*, 109.

포함하였고 주전 8 세기 이후 주로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집트 신왕조에서는 2-3 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100 대의 채찍질과 100 배의 배상을 포함하고 무덤을 도굴하면 죽음을 당하도록 했다.[21] 도둑질에 대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처벌은 구약의 처벌보다 훨씬 엄격하였다. 이렇게 구약의 법이 관대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난의 혹독함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제 8 계명과 관련된 규례들

1. 훔치는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제 8 계명은 도둑질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밝히고 도둑질을 금하며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밝히는 개별적인 사례법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들은 언약서(출 20:22-23:33)와 신명기(12-26 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22]
2. 제 8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언약서의 사례법들(출 22:1-15, 30; 23:4-5)이 있다.
   1) 출애굽기 22 장에서 훔치는 대상으로 돈이나 물품(7 절, 1 번) 혹은 의복(9 절, 1 번) 혹은 그 밖의 물건(9 절, 1 번)이 언급되지만 주로 소, 양, 나귀(1, 4, 9, 10 절) 등이 언급되어 있다. 소나 양이나 나귀 등의 가축은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생계 수단이요 생산 수단이었다.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생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둑질은 배상으로 갚아야 했다.
   2) 같은 맥락에서 밭과 포도원의 소출도 실수로 놓인 짐승이나 불에 의한 것이든 도둑질같이 의도적인 것에 의한 것이든(5-6 절) 손실이 일어나면 생계 수단에 문제가 일어나는 셈이었다.
   3) 이웃이 맡긴 것이나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에 대한 규례들(7-13 절)은 이웃의 재산과의 문제가 단지 도둑맞거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상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짓을 말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대로 설명하고 여호와로 맹세하는) 이웃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이웃을 기꺼이 도우려는(농경을 위해 가축을 빌려 주거나 부재시 돌보기 위해 가축을 맡아 주는) 미덕의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4) 재산과 도둑질에 관련된 사례법의 핵심인 소와 양은 가정의 장자처럼 소와 양의 초태생을 팔일만에 여호와께 바치라는 규례에 다시 언급된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생계와 생산의 수단인 가축의 초태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가축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가능성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제 8 계명은 재산 자체의 특별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산의 정기적인 양도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소유가 불가침의 권리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1] *NIDOTTE* I: 879, # 1704.

[22] Miller, *Ten Commandments*, 320.

5) 제 8 계명의 중심 대상인 소와 나귀의 문제가 제 9 계명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규례들(출 23:1-3, 6-9)의 중간(출 23:4-5)에 다시 나온다.[23]

① 원수의 소나 나귀일지라도 길 잃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도 엎드려졌을 경우 도와 짐을 부려줄 것을 명하는 이 규례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재산의 보호, 배상, 포기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원수의 재산일지라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 8 계명과 연관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24]

② 출 23:4-5 과 병행되는 신 22:1-4 은 보다 확장하여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나귀뿐만 아니라 의복을 비롯한 이웃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함하며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돌려주기 전에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언급하고 있다.[25] 신 22:1-4 에 세 번 반복되는 "못 본 체 하다, 자신을 숨기다"라는 표현은 이웃이 부탁하여 맡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돕는 것과 반대되는 수동성(受動性 passivity)과 무위(無爲 inaction)를 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1)은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잘 풀이하고 있다.

3. 대체로 제 8 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신 23:19-24:16[MT 23:20-24:16]의 규례들은 주로 제 9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규례들(신 24:17-25:4)과 중첩되며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두 부분은 특별히 대부와 관련된 이자와 전당물 그리고 품삯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

[23] [출 23:1-9] (1)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4)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24] Miller, *Ten Commandments*, 322-323.

[25] [신 22:1-4] (1)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3)*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1) 신 23:19-20[MT 23:20-21]은 대부에 대한 이자를 타국인으로부터는 취할 수 있지만(cf. 신 15:6; 28:12) 형제로부터는 취하지 말라고 말한다(출 22:25). 신 24:10-13 은 꾸어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집밖으로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할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옷같은 전당물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한다(출 22:26-27). 이것은 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레 25:35-38).[26]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부, 전당물, 이자와 관련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갖지 못한 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도울 때 제 8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 신 23:21-23[MT 23:22-24]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 하지 말고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3) 신 23:24-25[MT 23:25-26]은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의 소출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언급하며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포도나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하지만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거나 이삭을 낫으로 베어서 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규례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섭리로 주어진 수확물이 수고한 농부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일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규례는 개인의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과 개인의 재물이 악의적인 착복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사이의 아주 적절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4) 신 24:6 에는 맷돌이나 맷돌의 위짝을 전당잡으면 생명을 전당잡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생명 유지에 긴요한 물품을 전당잡지 말라는 규례가 나온다. 그리고 신 24:7 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규례,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유괴범을 죽이라는 규례가 나온다. 신 24:6-7 에 중심 되는 단어는 "생명, 사람"을 뜻하는 נֶפֶשׁ[네페시]"라는 단어이다. 이 두 구절은 제 8 계명이 생명을 훔치는 유괴와 생명 유지의 수단에 대한 법적인 박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임을 보여준다.
5) 신 24:14-15 은 가난하여 그 생명이 품삯에 달려 있는 품꾼에게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에 품삯을 주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 레 19:13 은 품삯을 제 때 주지 않는 것과 도둑질/강도질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약 5:1-6 은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8 계명 위반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6] [레 25:35-38] (35)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38)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24:14-1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עָנִי וְאֶבְיוֹן싸히르 아니 브에브욘]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타아쇼크](레 1913 억압하지)** 말며 15 그 품삯[שְׂכָרוֹ스하로]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וְאֵלָיו הוּא נֹשֵׂא אֶת־נַפְשׁוֹ"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그의 목숨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גָּזַל[가잘])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약 5:1-6] (1)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 신 24:17-18 은 신 24:10-13 처럼 전당물을 다루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고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신 24:19-22 도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며 사회의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후에 남은 것을 그대로 둘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제 8 계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재물을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이다. 야고보는 외모에 치중하여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자는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임을 상기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이 부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다(약 2:1-9).

7) 제 8 계명과 관련된 일련의 규례들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며 순종을 장려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다.[27] 이것은 제 2 계명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 자체에 동기 부여하는 구절이 들어 있는 것과 흡사하다.

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신 24:18, 22).

② 이스라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 앞에 의가 될 것이지만(신 24:13, 19) 불순종하면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다(신 24:15).

[27] Miller, *Ten Commandments*, 330.

4. 제 8 계명과 관련된 내러티브들

1. 요셉과 그 형들

1)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한 제안은 사람을 탈취하는 도둑질이 몸값을 받고 팔거나 석방해 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요셉은 "גֻּנֹּב גֻּנַּבְתִּי מֵאֶרֶץ הָעִבְרִים [구노브 구나브티 메에레츠 하이브림] I was really stolen out of the land of Hebrews.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정말로 도둑맞아/유괴되어 강제로] 끌려왔다(창 40:15; cf. 물건이 주어: 출 22:7[MT 6 וְגֻנַּב 브구나브])."라고 말했다. 형들의 제 8 계명 위반으로 인해 요셉은 편안했던 보금 자리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해야만 했다.

3)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유괴는 경제와 늘 연관을 맺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훔쳐서 그 훔친 대상이 생산을 위한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극악한 범죄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 노예를 만드는 것, 경제적 생산을 강요하는 것, 착취하는 것 등은 모두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야곱과 라반

1) 야곱은 피곤하고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음으로써(창 25:27-34) 형을 한 번 속이고(창 27:36)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음으로써(창 27:5-30) 형을 또 한 번 속였다(창 27:36).

2)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칠년을 일한 야곱을 속이고 큰 딸 레아를 주었고 1 주일 후에 라헬을 주며 다시 칠년 동안 일을 하게 하였다(창 29:18-30).

3) 야곱은 육년 동안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가운데 검은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을 품삯으로 받기로 하고 꾀를 부려 튼튼한 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을 외삼촌의 것이 되게 하였다(창 30:31-43).

4)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을 듣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보고 야곱이 귀향에 대한 의사를 비칠 때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집에 분깃이나 유산이 없고 아버지가 그들을 팔고 그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하며 야곱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창 31:1-16).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 야곱은 외삼촌이 모르게 가만히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창 31:17-22). 라반은 칠일 길을 쫓아가서 도망친 야곱에게 이르렀다. 거기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향했다(창 31:18-55).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할 때 그리고 라반에게 말할 때 각각 한 번씩 라반이 열 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켜주신 것을 언급한다(창 31:7-9, 41-42).

5) 야곱과 라반에 대한 내러티브는 강자가 약자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의 중요성과 부르짖는 약자를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3. 아간

1) 아간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수 6:17-18)."는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며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수 7:11)." 아간이 시날 산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그의 장막 땅 속에 감춘 죄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었다(수 7:20-21).

2)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진노는 훔친 물건들 그리고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는 것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기생 라합의 정탐군을 살려준 행위로 통한 믿음으로 인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 가족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었다.

3) 아간은 탐내어 훔친 것을 누리기 전에 그의 목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릴 배교,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안식일 위반과 같은 수준의 범죄인 것이 밝혀진다.

4. 아합과 이세벨

1)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했다(왕상 21:).

2)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짓 증언하고 불법적인 살인을 하고 도둑질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게 하셨고(왕상 21:17-24)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지연시키셨지만(왕상 21:27-29) 선언된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셨다(왕상 22:34-38; 왕하 9:30-37).

5. 회복기의 귀족들

1) 회복기 가난한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팔 수 밖에 없어 크게 부르짖었다(느 5:1-5).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출 22:22-23; 신 24:15)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진노하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이자 받기를 그치고 저당 잡은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권면하였다(느 5:6-11).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에게 순종하며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제사장 앞에서 약속 시행을 맹세하였다(느 5:12-13).

2)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부유한 사람들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재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제 8 계명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

1. 선지서: 선지자들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엄중하게 질책하였다.

1) 포로 이전 시대의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를 향해 경고하였다(사 3:14-15; 10:1-2; 미 2:1-5).

①[사 3:14-15] (14)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그잘라트 헤아니]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우프네 아니임 티트하누]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②[사 10:1-2] (1)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리그졸<가잘 미시파트 아니예 아미] 과부에게 토색하고[과부들이 그들의 노략물이 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야보주<바자즈] 자는 화 있을진저

③[미 2:1-5] (1)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밭들을 탐하여 빼앗고[가잘루<가잘]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나싸우<나싸]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아시쿠<아샤크] (3)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4)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5)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2)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였다(암 2:6-8; 5:10-15).

①[암 2:6-8] (6)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cf. 창 37 장 요셉] (7)힘 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cf. נָטָה to pervert 출 23:2; 신 24:17]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cf. 출 22:26; 신 24:13]

②[암 5:10-15] (10)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보샤스헴<보샤스 폴렐어간]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초르레<차라르 차디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에브요님 히투<나타 히프일어간] 자로다 (13)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4)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3) **말라기**는 회복기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을 지적하였다. 말라기는 제 8 계명을 포함한 계명 위반하는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말 3:5). 말라기는 또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묘사한다(말 3;8-9). 십일조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러이 바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바치며 인색하거나 억지로 바치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다(cf. 고후 9:5-15).

①[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오시케<아샤크 스하르-싸히르 알마나 브야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마테<나타 히프일어간 게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②[말 3:8-9] (8)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4)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백성의 범죄 가운데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과 함께 도둑질을 지적하였다(렘 7:9; 호 4:2).

①[렘 7:9-10] (9)너희가 도둑질하며[가노브]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②[호 4:1-3] (1). . .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가노브]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3)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2. 사무엘서와 예레미야서

1) 사무엘서 저자는 비유적으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것을 묘사한다(삼하 15:6).

2) 예레미야도 비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으로 묘사하였다(렘 23:30).

3) 예레미야는 붙들린 도둑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선언했다(렘 2:26).

3. 욥기

1)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제 8 계명과 관련된 욥의 죄를 지적하였으나(욥 22:6-9), 욥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 8 계명을 위반한(욥 24:2-12)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을 지적하였다(욥 24:1, 12).

① [욥 22:6-9 (엘리바스)] (6)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목마른 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9)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② [욥 24:2-4, 9] (1)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개역: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cf. 신 19:14)**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cf. 창 31:18)** (3)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cf. 신 24:17; 출 22:22)** (4)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cf. 출 23:2, 6; 암 2:7)**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그들은 거친 땅의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cf. 출 22:26-27; 신 24:12-13)** *(8)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10)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2) 나중에 욥은 제 8 계명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백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욥 31:13-32, 38-40).

[욥 31:13, 16-17, 19-21, 24-25, 29, 31, 38-39] (13)만일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 . . (16)*[만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하였다면]* (17)*[만일]*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아니하였다면]* . . . (19)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체 했다면 (20)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 . . (24)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 . . (29)*[만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뽐내었다면]* . . . (31)*[만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아니하였다면]* . . . (38)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39)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28]

4. 잠언

[28] 개역은 조건절과 귀결절을 번역할 때 "내가 언제 . . . 하였던가"라는 수사의문문과 "그리하였으면 . . .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개역개정은 조건절을 "만일 . . . 하였다면"으로 표현하고 귀결절을 바로 뒤이어 번역했고 조건절 다음에 실상을 말하는 삽입절이 나오는 경우 개역처럼 "내가 언제 . . . 하였던가 실상은 . . . 하였노라"라고 번역하였다. 위의 개역개정 본문에 첨가된 대괄호 안의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조건절을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잠언 22 장에는 빈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구절들이 들어 있고(잠 22:2, 7), 제 9 계명과 관련지으며 제 8 계명을 범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으며([잠 22:16, 22-23), 보증을 서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잠 22:26-27).

① [잠 22:2, 7] (2)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 .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② [잠 22:16, 22-23] (16)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오셰크 달]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 . . (22)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티그졸<가잘 달]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트다케<다카 아니] 말라 (23)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③ [잠 22:26-27] (26)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27)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 잠언은 가난한 자가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일을 언급하며 그럴 경우 멸시 당하지는 않겠지만 들키면 7 배나 갚아야 할 것을 경고한다(잠 6:30).

3) 야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일 즉 제 9 계명과 관련하여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제 8 계명과 관련하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가나브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라고 말한다. 여기서 도둑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로 묘사되고 있다.

5. 신약: 신약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은 마 19:18; 막 10:19; 눅 18:20; 롬 2:21; 13:9; 고전 6:10; 엡 4:28; 딛 2:10; 벧전 4:15 등이다.

6. 제 8 계명의 준수: 재물의 가치 그리고 청지기직

1.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보존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1)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시 24:1)."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행 14:15)"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행 14:17)."고 증언하였다.

2) 창조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셨다.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개역: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 5:18-19)."고 말했다.

2.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עבד[아바드]) 지키게(שׁמר[샤마르]) 하셨다(창 2:15).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 것을 잘 보여준다.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1) 제 8 계명은 우리 각자에게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청지기적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빼앗는 행위이다. 제 8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제 8 계명은 맡은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는 계명이다.

2)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을 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산하지만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인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와 우리 이웃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므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유 재산을 선용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선한 일에 잘 써야 한다.

3) 우리는 한편의 사유 재산의 권리와 소유권 그리고 다른 한편의 청지기적 책임과 의무 사이에 있는 팽팽한 줄을 타고 산다.[29]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청지기적 의무라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하여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이웃으로부터 취할 때 우리는 그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30]

1)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독생자까지 포함한 모든 필요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그것을 즐기며 선하게 사용할 권리와 책임을 주셨다. 우리 이웃이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것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도둑질은 우리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공격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4. 잠언은 게으름이 가난의 한 원인인 것을 지적하고(잠 6:10-11; 24:33-34), 가난이 도둑질의 유혹을 가져오는 것을 지적한다(잠 30:8-9). 도둑질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것이다.

1)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고 말하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를 짓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던 자신을 본받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였다.

---

[29]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13.

[30] Ryken, *Written in Stone*, 174.

2)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일함으로써(골 3:23) 소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기며 최상의 업적을 쌓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살전 4:11-12).

3)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의 반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권면하였다. 이 권면은 도둑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은 후 도둑질을 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부지런히 일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돈을 벌고 사치품을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제적 자립을 얻고 필요한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31]

5. 제 8 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에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 재물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직에 대한 계명이다.

1)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한 긁어모으려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우리의 재물은 낭비되어서도 안 되고 자신만을 위하여 써도 안 된다(잠 21:20; 23:20-21). 재물을 마구 허비하며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사 58:5-10; 갈 6:9-10).

3) 우리는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전 6:17-19). 잠언은 우리에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언 11:24-25)."고 가르친다.

4) 바울은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cf. 눅 6:38; Didache 1: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손을 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선한 일에 쓰는 사람이다.

6.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절약(simple)하며 저축(saving)한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너그럽게 베풀며 나누는(sharing) 삶을 살아야 한다.

---

[31]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20.

1) "네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취할(take) 것이다."라는 태도는 도둑의 태도이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간직할(keep) 것이다."라는 태도는 보통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이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눌(share) 것이다."라는 태도는 제 8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이다.[32]

2) 예수님은 그의 재림이 어느 때에 임할 줄 모르는 도둑같이 이를 것을 말씀하셨다(마 24:42-44; 계 3:3).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에게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복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눅 12:35-44).

7.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나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8.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위반할 때마다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둑질이 내포되어 있다.
   1)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2)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도둑질이 된다.
   3)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4) 살인은 생명을 훔치는 것이고 간음은 순결을 훔치는 것이고 거짓 증언은 진실을 훔치는 것이다.
   5) 도둑질 중의 도둑질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범행이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6)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레 11:45; 19:2; 벧전 1:15-16)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한다(마 5:48).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마 5:16).

7. 그리스도와 제 8 계명

1.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거짓 맹세에 대한 계명처럼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다루시지는 않으셨지만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은 주셨다.

[32] Ryken, *Written in Stone*, 176.

1) 로빈슨은 재물에 관한 예화의 첫 번째 보고가 성경 자체라고 지적하며 예수님의 38 개의 비유 중의 적어도 12 개가 돈과 재물 사용에 대한 것이고 복음서는 매 여덟 절 중 한 절 정도의 비율로 돈 문제를 다루고 빌립보서가 선교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 편지인 것을 지적하였다.[33]

2) 로빈슨은 또 어림수로 복음서의 육분의 일, 그리고 비유의 삼분의 일이 재물 사용에 대한 청지기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은 후원금 모금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셨다고 설명하였다.[34]

2.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눅 16:13)."라고 말씀하셨다.[35]

1) 예수님은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제 8 계명이 유일무이한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제 1 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으로 섬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경고하며 재물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2) 예수님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미국 화폐에 적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In *this* god we trust. 이 맘몬의 신을 우리가 신뢰한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3) 돈의 주인 행세는 교묘해서 파리가 파리 잡이 끈끈이(flypaper)에 앉으며 "내 종이"하지만 그 끈끈이가 "내 파리"하는 것과 같다.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다.

① 돈을 벌기 위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잠 22:1).

②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것은 재물을 신으로 삼는 것이다(cf. 집 vs. 가정; 침대 vs. 잠; 관심 vs. 존경; 편안 vs. 평안).

③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에 대한 관심을 어둡게 한다면 재물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마 6:25-34).

3. 예수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땅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1).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보물에 두도록 가르치셨다.[36]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

[33] Haddon W. Robinso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1999), 145.

[34] Ibid., 150.

[35] 마 6:24 의 마지막과 눅 16:13 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문이 똑같으나 개역개정의 마태복음에는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36]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107.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6: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한 재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며 우리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환영해 줄 것인가? 우리의 투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눅 16:10)."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4.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와 손을 펴서 주지 않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눅 16:19-31) 그리고 재물을 택하고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눅 18:18-30; 마 19:16-30)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재물의 위험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부자 청년이 제 8 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물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 즉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는 처분과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눅 18:22). 예수님은 근심하며 떠나가는 큰 부자 청년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다. 재물을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cf. 고전 6:9-10).
5. 예수님은 마리아가 삼백 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부은 일이 그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기뻐 받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마리아의 이 선행도 말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1-8; 마 26:6-13; 막 14:3-9).
   1) 선행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두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상의 물질을 드려 섬기는 것이다.
   2)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극히 비싼 향유로 헌신했던 마리아의 주님 사랑을 본받으며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께 하듯이 이웃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 때에 돌보고 옥에 갇힐 때 가서 보는 일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마 25:31-40).
6.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자기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면서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셨다(사 53:12).

1)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실제로 3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37] 그 셋 중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한 사람은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으나 그가 담당한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 당하고 강도로 헤아려지며 그가 빚지지 않은 빚을 갚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다.
2) 제 8 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고 제 8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는 모든 도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도둑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3) 그리스도 좌우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우리는 모두 도둑이다.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직장에서 잘못 사용한 한 시간이나 사무실에 돌려주기를 잊어버린 한 물품이나 회사 비용으로 건 개인적인 장거리 전화 하나나 가게에 너무 비싼 값을 매긴 물건 하나이면 충분하다.[38] 회개한 강도는 로마의 진노를 받아 죽었지만 그의 죄책을 지고 그 곁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비롯한 어느 계명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8. 제 8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0-111)
   1) HC 110. 제 8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죄(출 22:1; 고전 6:10)와 강도죄(고전 5:10)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도둑질은 폭력에 의하든 합법을 가장하든 이웃에게 속한 소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 도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책략을 포함합니다(눅 3:14; 살전 4:6; 약 5:1-6). 여기에는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것(신 25:13-16; 잠 11:1; 겔 45:9-12), 거짓 광고를 통하여 상품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는 것(시 15:5; 눅 6:35),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밖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탐욕(눅 12:15; 엡 5:5; 고전 6:10)과 그가 주신 은사들을 함부로 쓰거나 허비하는 것(잠 21:20; 23:20-21; 눅 16:10-13)도 금하십니다.
   2) HC 111. 제 8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들을 대하며(마 7:12), 더 나아가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엡 4:28; 사 58:5-10; 갈 6:9-10).
2.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4; 대교리 문답[WLC] 141)

---

[37] Ryken, *Written in Stone*, 182.

[3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22.

1) WSC 74.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늘리는 것입니다(잠 27:23; 28:19; 창 30:30; 47:14, 20; 레 25:35-37; 신 22:1-4; 출 23:4-5; 빌 2:4; 딤전 5:8).

2) WLC 141.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로운 것(시 15:2, 4; 슥 7:4, 10; 8:16-17);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롬 13:7); 불법 점유된 물건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레 6:2-5; 눅 19:8);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거나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눅 6:30, 38; 요일 3:17; 엡 4:28; 갈 6:10);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딤전 6:6-9; 갈 6:14); 우리의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형편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딤전 5:8; 잠 27:23-27; 전 2:24; 3:12-13; 딤전 6:17-18; 사 38:1; 마 11:8);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고전 7:20; 창 2:15; 3:19) 부지런히 일하는 것(엡 4:28; 잠 10:4); 검소하게 사는 것(요 6:12; 잠 21:20); 불필요한 소송(고전 6:1-9)과 보증 혹은 그와 비슷한 약속(잠 6:1-6; 11:15)을 피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레 25:35; 신 22:1-4; 출 23:4-5; 창 47:14, 20; 빌 2:4; 마 22:39).

3.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5; 대교리 문답[WLC] 142)

1) WSC 75.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의 획득과 증진]을 부당하게 막거나 막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딤전 5:8; 잠 20:4; 24:30-34; 엡 4:28; 잠 21:6; 살후 3:7-10).

2) WLC 142. 제 8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약 2:15-16; 요일 3:17) 이외에도 절도(엡 4:28), 강도(시 62:10), 유괴(딤전 1:10), 장물 취득(잠 29:24; 시 50:18); 사기 거래(살전 4:6),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것(잠 11:1; 20:10), 지계표를 옮기는 것(신 19:14; 잠 23:1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암 8:5; 시 37:21)이나 신탁(눅 16:10-12)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 억압(겔 22:29; 레 25:17), 착취(마 23:25; 겔 22:12), 고리 대금(시 15:5), 뇌물 수수(욥 15:34), 남을 괴롭히는 소송(고전 6:6-8; 잠 3:29-30), 공유지의 불법적인 사유화와 주민 추방(사 5:8; 미 2:2);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매석(잠 11:26), 불법적인 직업(행 19:19, 24-25);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두기 위해 혹은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죄악된 방법(욥 20:19; 약 5:4; 잠 21:6); 탐욕(눅 12:15); 세상 재물에 대한 과대 평가와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것(딤전 6:5; 골 3:2; 잠 23:5; 시 62:10; 요일 2:15); 세상 재물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초조해하며 지나친 염려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마 6:25, 31, 34; 전 5:12); 남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시 73:3; 37:1, 7); 더 나아가 게으르고(살후 3:11; 잠 18:9), 방탕하고, 낭비적 노름을 하는 것; 그리고 여타의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잠 21:17; 23:20-21; 28:19);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전 4:8; 6:2; 딤전 5:8).

XI. 제 9 계명

1. 제 9 계명 본문

1. 제 9 계명은 출 20:16 과 신 5:20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6

16 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קֶר׃

② 신 5:20

20 וְ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 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 절(제 7 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 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하므로 신 5:20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9 계명 본문은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와 "거짓 증인"을 나타내는 명명구의 두 번째 단어 선택에서 차이를 보인다.
  -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의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Douay-Rheims Bible)과 한글 개역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 "거짓 증인"을 표현하는 명명구로 출애굽기는 **עֵד שָׁקֶר** [에드 샤케르]를 사용하고 신명기는 **עֵד שָׁוְא** [에드 샤브]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증인"(עֵד[에드])과 명명구를 이루는 단어로 출애굽기는 שָׁקֶר[셰케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명기는 שָׁוְא[샤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거짓, 속임"을 뜻하고 있다. 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에드 샤케르]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고, [에드 샤브]는 "**허위 증인**"이라고 하면 구별이 될 것이다. 남영신(**국어사전**, 2401)은 "허위"를 "거짓"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명명구가 부사적 대격으로 "대답하다"는 의미

동사 [아나]와 함께 쓰인 것을 직역하면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대답하다"가 되고 의역하면 "**거짓 증언하다/허위 증언하다/위증하다**"가 된다.

2) LXX (Septuagint): 출 20:16 = 신 5:20

(출 20:16 = 신 5:20) οὐ ψευδομαρτυρήσεις κατὰ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μαρτυρίαν ψευδῆ

[Brenton] (출 20:16 = 신 5:20)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 70 인역은 신명기를 맛소라 본문과 달리 접속사 바브가 없는 것처럼 번역하였으므로 출애굽기와 똑같다.

3) Vulgate

(출 20:16) non loqueris contra proximum tuum falsum testimonium

[Douay-Rheims Bible] (출 20:16)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신 5:20) nec loqueris contra proximum tuum falsum testimonium

[Douay-Rheims Bible] (신 5:20) Neither shalt thou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Vulgate 역과 Douay-Rheims Bible 은 히브리어 본문의 접속사 바브의 유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 (출 2016:)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 (신 5:20)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 (신 5:20)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6)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신 5:20)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개역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접속사 바브 유무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고 원문이 똑같은 것도 똑같게 번역하고 있다. 나머지 한글 성경은 신명기의 접속사 바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원문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통일하여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② 개역개정의 "말라"와 "말지니라"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③ 새번역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그리고 쉬운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웃"이란 명사가 갖고 있는 접미대명사 "너의, 네"를 생략하지 말고 원문대로 "네 이웃"이라고 번역했어야 한다.

④ 새번역의 ". . .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새번역의 "거짓 증언" 앞에 붙인 출애굽기의 "불리한"과 신명기의 "모함하는"이란 수식어는 비분리 전치사 בְּ[브]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면 원문의 전치사가 동일한 것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번역이 될 것이다.

⑤ 새번역의 출애굽기의 "너희"와 쉬운성경의 신명기의 "너희는"은 원문이 단수인 것을 반영하지 못한 오역이므로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⑥ 접속사 바브 유무와 거짓 증언을 표현하는 어구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말성경이 "위증"과 "거짓 증언"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좋지만 동일한 나머지 본문에 대하여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⑦ 쉬운성경의 신명기의 "재판할 때"라는 어구는 원문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의역일지 모르지만 굳이 명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제 9 계명 본문 번역

1) 제 9 계명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문의 구조를 갖는다.

명명구: **부사적 대격**		전명구: 수식어			주어+술어		연결어	
자립형명사	의존형명사	접미대명사	명사	전치사	동사	부정어	접속사	
שָׁקֶר׃	עֵד	ךָ	רֵעֶ	בְּ	תַּעֲנֶה	לֹא־	-	출 20:16
שָׁוְא׃	עֵד	ךָ	רֵעֶ	בְּ	תַּעֲנֶה	לֹא־	וְ	신 5:20

2) 접속사 바브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개역의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처럼 "-도"를 써서 번역할 수도 있다.

3) 정형동사 תַּעֲנֶה[타아네]의 어근 ענה[아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서 법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이 서로 답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전치사와 접미대명사를 지닌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전명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בְּרֵעֲךָ[브레아하]에 들어 있는 비분리 전치사 בְּ[브]는 반의적(adversative) 의미 즉 "대하여, 반대하여, 대적하여, 대항하여, against"라는 뜻을 지닌다(신 19:18; 삼하 1:16).

5) "이웃"을 나타내는 רֵעַ[레아]는 십계명 가운데 여기 9 계명에서 처음으로 한번 명시되고 제 10 계명에서 3 번 더 명시된다. "이웃"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일차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고(레 19:18)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 나오는 "원수"도 일차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웃"의 개념에 동족인 원수도 포함된다(출 23:4-5; 잠 24:17; 25:21). 사랑의 대상으로 "타국인"이 언급되는 것은(레 19:34) 이웃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신약 시대에도 이웃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용된다(롬 15:2; 약 4:12; 엡 4:25).

②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웃의 개념은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제한성을 상실한다.

-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민족, 종교, 빈부, 지식, 나이 등의 모든 구별을 뛰어넘는다(마 28:19; 엡 2:11-13). 예수님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와 바울이 이방 정부에 대한 언급 후에 이웃 사랑의 권면을 "다른 사람" 즉 "남을 사랑하라(롬 13:8)"고 표현한 것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딛 3:4)"라고 표현한 것은 이웃의 개념이 자기 자신의 부류(one's own kind)에 속한 범위를 넘어 민족도 초월하고 원수도 포함하며 어떤 제한도 없어진 것을 보여준다.
-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포함하여 우리의 길에 놓으신 모든 사람 즉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다.[1]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길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으나 지나가 버린 것과 달리 사마리아인이 민족과 적대적 감정을 초월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③ 법이나 공적 규칙에서 "이웃"은 근접성이나 친밀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법적으로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2] 따라서 "네 이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6) עֵד שָׁקֶר [에드 샤케르]와 עֵד שָׁוְא [에드 샤브]는 의존형 명사와 자립형 명사로 이루어진 명명구이다.

① 명사 עֵד[에드]는 "증인"을 의미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명사 שָׁקֶר[샤케르]는 שֶׁקֶר[셰케르]의 휴지형인데 שֶׁקֶר[셰케르]는 "거짓, 속임"을 의미한다. 제 3 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명사 שָׁוְא[샤브]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 허망)**과 거짓됨**(falseness, deceit, fraud, 속임, 사기, 허탄,)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이 두 가지 의미는 쓸모없고 결국 믿을 수 없는 대상에게 걸었던 기대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1] Douma, *Ten Commandments*, 233, 320.

[2] Stuart, *Exodus*, 466: "In laws and formal rules, neighbor has nothing to do with proximity or familiarity; your 'neighbor' connotes any other human being you may have dealings with, actually or potentially."

서로 관련되고 적용된다. "공허한 말" 혹은 "무가치한 말"이 "거짓된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듯이 "공허한 것 혹은 무가치한 것"은 "거짓된 것"과 병행적으로 사용된다.

② 많은 경우 שָׁוְא[샤브]에는 "거짓됨, 속임"의 개념이 들어 있고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שָׁוְא[샤브]와 병행어로 "거짓, 속임"을 뜻하는 단어들은 שֶׁקֶר[셰케르] 이외에도 כָּזָב[카자브](겔 13:6-9; 21:29[MT 34]; 22:18)와 חֶלְקָ[할라크](시 12:2[3]; 겔 12:24)와 מִרְמָה[미르마](욥 31:5; 시 24:4) 그리고 "부정, 악의"를 뜻하는 אָוֶן[아벤](욥 11:11; 시 41:6[MT 7]; 슥 10:2) 등이 있다. 예언과 관련하여 שָׁוְא[샤브]는 거짓 예언을 나타내며 거짓된 복술과 병행구를 이루는데 사용된다(애 2:14; 겔 12:24; 13:6, 7, 9, 23). NIV 는 [샤브]를 출 23:1; 겔 12:24; 13:6-7, 23; 21:29(MT 34); 22:28 등에서 "false 거짓"으로 번역하였다.

③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3 계명 본문에는 "망령되이, 헛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라는 의미의 전명구 לַשָּׁוְא[라샤브]가 똑같이 나온다. 제 3 계명과 가장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출 23:1 의 "לֹא תִשָּׂא שֵׁמַע שָׁוְא [로 티싸 셰마 샤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명령은 제 9 계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허망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헛소문 혹은 거짓된 풍설을 들어 올려 퍼뜨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의 제 9 계명은 제 3 계명에 나오는 שָׁוְא[샤브]라는 단어를 다시 쓰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인 것을 보여준다

④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의 제 9 계명에 나오는 שָׁוְא[샤브]는 출애굽기의 9 계명에 나오는 שֶׁקֶר[셰케르]와 동의어로서 "거짓, 속임"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עֵד שָׁוְא[에드 샤브]는 "witness of emptiness, worthlessness = empty witness 헛된/망령된 증인, 무가치한 증인, 허탄한 증인"에서 더 나아가 "witness of falsehood = false witness 거짓 증인, 허위 증인, 위증자"를 의미하며 출애굽기의 עֵד שָׁקֶר [에드 샤케르]와 똑같은 의미의 명명구인 것을 알 수 있다.

⑤ 구문적으로 명명구 עֵד שָׁקֶר [에드 샤케르]와 עֵד שָׁוְא [에드 샤브]는 부사적 대격으로 쓰였다. 직역하면 "as a witness of falsehood 거짓 증인으로서" 그리고 "as a witness of emptiness/falsehood 헛된/망령된/거짓/허위 증인으로서"가 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반영하려면 [에드 셰케르]는 "거짓 증인"으로, [에드 샤브]는 "허위 증인"으로 번역하면 될 것이다. 우리말 "허위"는 "거짓"과 동의어이다.

7) 제 9 계명의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이다.[3]

[3] Miller, *Ten Commandments*, 344: "You shall not answer/testify against your neighbor as a false witness."

① 제 9 계명을 번역할 때 개역은 십계명 본문(출 20:16; 신 5:20) 그리고 예수님의 인용(마 19:19; 막 10:19; 눅 18:20)에서 모두 "거짓 증거"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개정은 십계명 본문에서 "거짓 증거"로 번역한 반면 예수님의 인용에서 "거짓 증언"으로 번역하였다.

②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의 "증거"보다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뜻의 "증언"이 더 적절한 번역이므로 십계명 본문과 예수님의 인용을 모두 "거짓 증언"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③ "너는 거짓 증인으로서/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해치려고 대답하지 말라."는 직역은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 혹은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의역으로 바꿀 수 있다.

8) 번역

① (출 20:16)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u>거짓</u> 증언하지 말라**

② (신 5:20 [MT 17]) **<u>그리고</u>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u>허위</u> 증언하지 말라**

2. 제 9 계명의 의미

1.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을 통해 서로 서로의 생명과 성과 재산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제 9 계명에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웃"임을 명심하도록 제 6-8 계명에 암시되었던 "이웃"이 명시되며 이웃의 생명과 결혼과 재산의 보존을 돕는 법정의 공의 실행을 목적으로 이웃과 법정 제도 자체가 보호되도록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제 9 계명에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 요소, 즉 이웃을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이를 위해 법정 제도가 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들어 있다.
2. 제 9 계명의 일차적인 목적은 법정에서 언약 공동체의 자유로운 시민인 이웃을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열왕기상 21 장의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제 9 계명이 배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9 계명의 이차적인 목적은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법정의 합당한 운영은 재판관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출 18:21)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고(신 16:19; 27:25; 출 23:8) 증인이 사실만을 증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을 때(출 23:1-3, 6-9; 레 19:15)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보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정 제도의 운영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이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3. 제 9 계명은 법정에서의 참된 증언과 공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말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다.

3. 증언과 법정의 공의

1.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사람들이 늘 출입하는 성문에서 열렸으므로 오늘날 별도의 법정에 따로 출두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과 달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와 같은 과학적 증거

자료를 갖는 일도 불가능하고 탐정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소한 자와 고소당한 자의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법정의 공의를 위해 재판관과 고소하는 자를 포함한 증인들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졌다.

2.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을 위해 재판과 재판관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졌다.

1) 모세는 힘들게 혼자서 재판하는 일을 하다가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 18:21)."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작은 일들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성문에서 주로 그 지역의 장로들에 의해 주관되었다(cf. 룻 4:1-2).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전문 재판관(대하 19:5-6[여호사밧]; 스 7:25[에스라])이 임명되었고 왕들(삼하 14:4-11[다윗]; 왕상 3:16-28[솔로몬])이 재판을 했던 기록이 있다.

2) 모세는 재판관에 대한 규례를 주었고 재판과 뇌물(שֹׁחַד[쇼하드])에 관한 교훈도 주었다.

- [신 25:1-3] (1)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네가 네 형제로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 [신 16:18-20] (18)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티싸 **프네**-달 lift up the **face** of the poor]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테흐다르 **프네** 가돌 honor the **face** of the great]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 [신 27:25]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3) 모세와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뇌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신 10:17-19] (17)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대하 19: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4) 잠언은 뇌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 [잠 6:34-35] (34)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뇌물 [쇼하드])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 [잠 17:8, 23] (8)뇌물([쇼하드])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 . . (23)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쇼하드])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 [잠 29:4]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트루마])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 1.3.5. 다윗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시 26:10)" 행악자와 달리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시 26:11)."라고 기도하였다. 다윗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영영히 요동하지 않을(시 15:5)" 것을 말했다.

5) 모세가 율법을 주며 재판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삼상 13:3)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삼상 8:3).

② 이사야는 부유한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였고 여호와와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자 가운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들었다.

- [사 1: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 [사 5:23]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 [사 33:14-16] (14)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③ 다른 선지자들도 뇌물 받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였다.

- [겔 22:12]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암 5:12]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쇼하드])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 [미 7:3-4]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실룸])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3. 이스라엘에서 증인의 위력은 생사를 가를 정도로 대단하였다.[4]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한 두 증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왕상 21:3). 거짓 증인들 사이의 만장일치는 예수님(마 26:60-61)과 스데반(행 7:13-14)의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거짓 증인의 말은 언어 폭력이다.

1) 모세는 위증하는 자를 עֵד חָמָס [에드 하마스]라고 불렀다(출 23:1; 신 19:16). KB(I: 329)에 의하면 [하마스]는 "violence 폭력, wrong 잘못"을 뜻하고 [에드 하마스]는 "witness who does wrong 나쁜/악한 증인, false witness 거짓 증인"을 뜻한다. 위증하는 자(עֵד חָמָס [에드 하마스], 신 19:16)가 거짓 증인(עֵד שֶׁקֶר [에드 셰케르])으로서 그 형제에 대하여 거짓을 증언하는(שֶׁקֶר עָנָה [셰케르 아나], 신 19:18)"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관한 규례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이 이웃을 해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과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 [출 23:1] לֹא תִשָּׂא שֵׁמַע שָׁוְא אַל־תָּשֶׁת יָדְךָ עִם־רָשָׁע לִהְיֹת עֵד חָמָס׃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에드 하마스])이 되지 말라
- [신 19:16, 18] (16)כִּי־יָקוּם עֵד־חָמָס בְּאִישׁ לַעֲנוֹת בּוֹ סָרָה׃ 만일 위증하는 자([에드 하마스])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8)וְהִנֵּה עֵד־שֶׁקֶר הָעֵד שָׁקֶר עָנָה בְאָחִיו׃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5]

2) 다윗은 거짓 증인이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묘사하며 여호와께 그러한 자의 뜻에 그의 생명을 맡기지 말라고 부르짖고(시편 27:12)[6] 자신을 괴롭힌 위증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

[4] Douma, *Ten Commandments*, 314.

[5] 신 19:16, 18 에 나오는 두 명명구의 차이를 ESV, NASB, RSV 는 잘 드러냈으나 NKJV 와 NIV 는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개역은 "위증하는 자"와 "위증인"으로 번역하여 NKJV 처럼 구별하지 못했다. 개역개정은 "위증하는 자"와 "거짓 증언하여"라고 번역하여 구별하긴 했으나 두 번째 명명구를 동사처럼 번역해 버렸다. 신 19:18 의 조건절의 직역은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었고 그의 형제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면"이다.

- ESV: (16) If a **malicious witness** arises to accuse a person of wrongdoing, (18). . .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and has accused his brother **falsely**
- NIV: (16) If a **malicious witness** takes the stand to accuse a man of a crime, (18). . . if the witness proves to be a liar, giving false testimony against his brother,
- NKJV: (16) If a false witness rises against any man to testify against him of wrongdoing, (18). . .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who has testified **falsely** against his brother,

[6] [시 27:12]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עֵדֵי־שֶׁקֶר [에데 셰케르] NIV/ESV: false witness)와 악을 토하는 자(יָפֵחַ חָמָס [여페아흐 하마스] NIV: breathing out violence; KB: witness of violence)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개역개정은 [에데 셰케르]를 개역의 신 19:18 처럼 "위증자"라고 번역하였으나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false witnesses, 거짓 증인들"이라고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에데 셰케르]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명명구 [여페하흐 하마스]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악을 토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NIV 는 분사처럼 "breathing out violence"라고 번역하고 ESV 는 "they breathe out violence"라고 번역하였으나 KB 는 [여페아흐]를

것을 말한다(시 35:11-13).[7] 다윗은 위증인의 언어폭력 앞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나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고난의 종은 강포[하마스]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미르마]이 없으셨다(사 53:9).[8]

3) 잠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증언과 거짓말의 위험과 결과를 묘사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교훈한다.

- [잠 25:1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드 셰케르])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9]
- [잠 6:16-19] (16)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17)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르숀 샤케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야피아흐 크자빔 에드 샤케르])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10]
- [잠 12: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속이는 말[미르마])을 하느니라

[에데]처럼 "witness"라고 풀이했다. KB 를 따르면 [여페하흐 하마스]는 [에드 하마스]처럼 "violent witness, malicious witness 폭력적 증인, 악의적 증인"의 의미를 갖는다.

[7] [시 35:11-13] (11)불의한 증인들(עֵדֵי חָמָס [에데 하마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에드/에데 하마스]란 명명구를 번역할 때 NIV 는 출 23:1 과 신 19:16 에서 "malicious witness"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에서 "ruthless witnesses"라고 번역하여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으나 ESV 는 일관되게 모두 "malicious witness(es)"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의 각주에 "malicious" 대신 "violent"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역개정은 출 23:1 에서 "위증하는 증인"이라고 번역하고 신 19:16 에서 "위증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에서 "불의한 증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번역의 일관성이 없다.

[8] [사 53:9] 그는 강포(חָמָס[하마스])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מִרְמָה[미르마] cf. 잠 12:17)이 없었다.

[9] 인용된 잠언 구절들에서 עֵד שֶׁקֶר[에드 셰케르]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잠 25:18)" 혹은 "거짓 증인(잠 14:5)"이라고 번역되었다. עֵד שְׁקָרִים[에드 시카림]은 "거짓 증인(잠 12:17; 19:5, 9)"이라고 번역되었고 עֵד כְּזָבִים[에드 크자빔]도 "거짓 증인(잠 21:28)"이라고 번역되었다.

[10] KB(II: 917)에 의하면 어근 פוח[푸흐]에서 파생된 יָפִיחַ[야피아흐]는 사역능동어간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로 "to declare (someone telling lies), to testify 선언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거나 접두요소 요드가 붙어 있는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יָפִיחַ כְּזָבִים[야피아흐 크자빔]의 반의적 병행구는 עֵד אֱמוּנִים[에드 에무님] "신실한 증인(잠 14:5)"과 עֵד אֱמֶת [에드 에메트] "진실한 증인(잠 14:25)"이고, 동의적 병행구는 "거짓 증인"을 뜻하는 עֵד שֶׁקֶר [에드 셰케르](잠 6:19; 14:5)와 עֵד שְׁקָרִים [에드 시카림](잠 19:5, 9)이다. [야피아흐 크자빔]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잠 6:18)" 혹은 "거짓말을 뱉느니라(잠 14:5)" 혹은 "거짓말을 내는 자(잠 19:5)" 혹은 "거짓말을 뱉는 자(잠 19:9)"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통일해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 [잠 14:25] 진실한 증인([에드 에메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야피아흐 크자빔])은 속이느니라([미르마])[11]
- [잠 14:5] 신실한 증인([에드 에무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에드 샤케르])은 거짓말을 뱉느니라([야피아흐 크자빔])
- [잠 19:5]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야피아흐 크자빔])도 피하지 못하리라
- [잠 19:9]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야피아흐 크자빔])는 망할 것이니라
- [잠 21:28] 거짓 증인([에드 크자빔])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12]

4. 모세는 이웃을 보호하고 법정 정의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에 관련된 규례들을 주었다.

1) 모세는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레 5:1 새번역)."라고 말하며 증인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말했다.

2) 모세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고 일월성신에 절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를 접하였을 때 자세히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주면서(신 17:2-5)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신 17:6)."고 말했다. 모세는 도피성의 규례를 줄 때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지만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민 35:30)."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위증에 관한 규례를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신 19:15)."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아무리 큰 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3) 모세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도록 하는(신 17:7)"

---

[11] 잠 12:17 과 잠 14:25 에 나오는 מִרְמָה[미르마]에 대하여 KB(I: 636)는 전자를 "trick, fraud 속임, 사기"로 풀이하고 후자들 "disillusionment 환멸"로 풀이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와 "속이느니라"라고 각각 번역하였다.

[12] 잠 21:28 에 대한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NJPS: A false witness is doomed, but one who really heard will testify with success.

NIV: A false witness will perish, and whoever listens to him will be destroyed (Or, but the words of an obedient man will live on.

ESV: A false witness will perish, but the word of a man who hears will endure.

NASB: A false witness will perish, But the man who listens [to the truth] will speak forever.

규례도 주었다. 고소당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에 고소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도록 한 것은 몇 마디 거짓 증언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요구하는 일로 거짓 증언을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4) 모세는 신 19:16-21 에서 위증이 드러날 경우 위증자를 벌하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주었다. "(16)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이니라." 이렇게 고소하는 자와 고소당하는 자가 함께 재판장 앞에 서고 재판장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 후 고소한 자가 고소당한 자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거짓 고소를 통하여 의도하였던 것이 그대로 고소한 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하여 무고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았다.

5.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재판관과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사실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들의 동일한 증언을 유효한 증언으로 삼고,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를 지적했던 증인이 먼저 손을 대도록 하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무고죄를 밝혀 위증한 사람을 그의 의도와 맞먹는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이웃의 명예와 재판 제도의 공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 9 계명이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므로 제 9 계명은 오늘날의 사법 제도에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

1) 도우마는 법정이 매우 중요하며 법정 제도를 통하여 정의가 구현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므로(시 72:1-3) 공의와 평강이 서로 입을 맞춘다(시 85:10)고 말하며 오늘날의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에 요구되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3]

① 재판관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Audi et alteram partem = Hear the other side too! 상대편의 말도 들으라!"라는 말처럼 재판 당사자들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와 같은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고소하는 사람은 반감이나 복수심 때문에 상대방을 불필요하거나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증인은 사실을 말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④ 변호사는 고소당한 사람을 돕고 죄책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밀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검은 것을 희다고 하거나 흰 것을 검다고 해서는 안 된다.

⑤ 고소당한 사람은 죄책이 증명되었을 때 그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

[13] Douma, *Ten Commandments*, 315-316.

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5)은 법정의 공의와 관련지어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로 "공적인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 거짓 증언을 제공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뒤집어엎는 것,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 악인에게 의인이 행한 것처럼 상을 주고 의인에게 악인이 행한 것처럼 벌을 주는 것, 문서를 위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소해야 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들었다.

4. 말과 명예의 가치

1. 제 9 계명은 법정에서의 증언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심으로부터 이웃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는 관심으로 이동시키는 제 9 계명은 거짓 증언을 포함하여 혀로 말미암는 모든 죄를 금하고 있다.
   1)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열거하며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호 4:2 에 사용된 כָּחֵשׁ[카헤시]("속임")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넘어서 일상 생활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가리키므로 제 9 계명의 범위가 훨씬 확대된 것을 잘 보여준다.
   2) 잠언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잠 19:5)."는 말씀도 병행적 표현을 통하여 거짓 증언과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3)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 결혼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짓 증언과 악의의 거짓말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 9 계명은 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다윗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제 9 계명의 이해를 돕는 혀와 관련된 말을 하였다.
   1) 다윗은 도엑 같은 악인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선이 아닌 "악을 사랑"하고 의가 아닌 "거짓을 사랑"하며 의인들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의인들의 멸망을 꾀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여 "살아 있는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을 말한다(시 52:1-5).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시 5:6)."라고 말한다.
   2) 야고보의 말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약 3:1).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며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약 3:6)." 우리가 혀로 범하는 죄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죄인인 우리의 혀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약 3:8)." 우리는 혀를 가지고 항상 죄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 사회에 독이 퍼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혀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약 3:9).

3. 잠언은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심을 두고 반복적으로 교훈한다.
   1) [잠 6:12-15] (12)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3)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2) [잠 12:6-7, 13-14, 18-19] (6)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3)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3) [잠 17: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4. 지금까지 살핀 대로 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과 일상 생활에서의 거짓말을 금하는 제 9 계명은 또한 명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을 금하고 이웃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금하며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말하거나 이웃의 말을 곡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12)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 모략해서는 안 되고(롬 1:29-30),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마 7:1; 눅 6:37),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벧전 3:8-9; 4:8).
   1) 구약에 6 번 나오는 רָכִיל[라힐]이란 명사는 "slanderer 비방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 헐뜯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며(겔 22:9) 동사 הָלַךְ[할라흐]와 함께 "비방하다, 중상 모략하다, 헐뜯다,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레 19:16; 렘 6:28; 9:4[MT 3]; 잠 11:13; 20:19).[14] 비방은 비밀을 폭로하고(잠 11:13; 20:19)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레 19:16) 피 흘리는 데로 인도하는(겔 22:9)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렘 6:28; 9:4[MT 3]).[15] 비방, 험담, 중상

---

[14] Kaiser, *OT Ethics*, 228.

[15] 다음에 보는 것처럼 [라힐]이 나오는 구절에 대한 개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NIV 는 잠언의 두 구절에 "gossip"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slander, slanderer, slanderous"를 사용하였다. ESV 는 모든 구절에 "slanderer, slander"를 사용하여 히브리어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겔 22:9]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모략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도둑질이며(cf. 레 19:11) 이웃의 인격을 모독하는 살인이다(잠 11:9; 시 52:4; 시 109:2-3). 중상 모략은 미움에서 나오며 미련한 짓이다(시 109:2-3; 잠 10:18). 악한 자는 그 입을 악에게 주고 그 혀로 거짓을 지어내며 자신의 가족까지 비방하는 자이다(시 50:19-20).[16]

2)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 22:1)"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은 많은 재물보다 귀한 보배인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명예 훼손은 쉽게 일어나지만 한번 손상된 명예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① 우리가 남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대화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말할 필요가 있는 사실인가? 내가 화제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대화의 자리에서 듣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17]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말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우리는 이웃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이웃의 선행이나 장점에 대하여 말하며 이웃의 명예, 명성, 평판을 가능한 한 지켜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그 차가 아이를 칠까봐 그 사람이 급히 차도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착한 의도를 느끼도록 해 준다.[18] 우리는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될지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3)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18:8)."는 말씀은 남의 험담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죄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레 19: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개역: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렘 6: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개역: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개역: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렘 9:4(MT 3)]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개역: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잠 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 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16] [잠 11:9]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시 52: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개역: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 109:2-3] (2)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개역: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잠 10: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시 50:19-20] (19)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20)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7] Ryken, *Written in the Stone*. 190-191.

[18] 고재수, **십계명 강해**, 108.

① 우리는 남의 험담을 들을 때 비록 우리 자신이 험담을 하지 않을지라도 남을 험담하는 죄에 동참하게 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험담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혹은 "잠깐만. 우리가 이 대화를 더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도한 후에) 자네가 말하고 싶어 하던 것이 무엇이었나?" 혹은 "미안하네. 더 이상 자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말해 본 적이 있나? 만일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라고.[19]

4)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며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일인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이웃의 말을 곡해하는 것도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다.[20]

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험담만 듣고 자세한 조사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하였다(삼하 16:4; 19:24-28).

② 제자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을 두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악한 죄인들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고(눅 13:1-2)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른 교훈을 주셨다.

③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며(요 2:21)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마 26:61)."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우리는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오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조차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유 1:9)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⑤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나의 이익과 연관해서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우를 범한다. 우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물의 요모조모를 따져서 공정하게 판단"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

[19] Ryken, *Written in the Stone*. 191.

[20] Douma, *Ten Commandments*, 316-319. Douma 는 진실하지 못한 것의 유형(forms of untruthfulness)으로 험담(backbiting, gossip)과 성급한 판단(judging rashly)과 곡해하여 부정확하게 말하는 명예 훼손(libel)을 들었다.

기울여야 한다.[21]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제보할 때, 연구하며 이론을 검토하거나 세워 나갈 때,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⑥ 우리는 사람들의 언행심사에 대하여 오류가 없는 판단을 가지고 심판할 대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고전 4:5)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5)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솔직(candor)과 반대되는 것은 비방(calumny)과 의심(suspiciousness)이다.[22]

① 비방은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흠을 잡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말해진 것에 근거하여 가장 나쁜 생각을 하고 거짓된 것을 조작하여 퍼뜨리는 악행이다. 그리고 의심은 바르게 혹은 모호하게 말해진 것들을 가장 나쁜 쪽으로 이해하고 죄책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만한 정당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가지며 믿지 못해 이상하게 여기는 악행이다.

②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유죄가 판명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심되는 점을 이웃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to give our neighbor the benefit of doubt) 이웃에 대하여 항상 좋은 것을 바라고 이웃이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며 그 의심스러운 것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③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듣거나 읽은 모든 것을 믿어버리고 잘 속고 정에 약한 감상적인 낙관주의(naive, sentimental optimism)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 이웃의 언행심사에 대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6)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5)이 가르치는 이웃의 명예 손상과 관련된 금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불명예를 초래할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하고 삼가지 않거나 능히 말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② 우리는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들추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수군수군하거나 중상 모략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적에 합당한 남의 명예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의 훼손을 바라거나 훼손을 위해 노력하고 남의 치욕과 불명예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

[21] 강영안, **십계명 강의**, 325.

[22] Horton, *Law of Perfect Freedom*, 231-234.

③ 우리는 적절하지 않을 때 혹은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를 품고 진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우리는 이웃의 의도와 언어와 행동을 오해하거나 이웃의 참 작은 허물을 크게 보거나 악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5. 진리의 가치

1. 제 9 계명은 말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3] 머리는 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24]
   1) 진리는 상대적인(relative)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absolute) 것이다.
   2) 진리는 유래된(derived)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ultimate) 것이다.
   3) 진리는 일시적인(temporal) 것이 아니라 영원한(eternal) 것이다.
   4) 진리는 임시적인(temporary)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permanent) 것이다.
   5) 진리는 부분적인(partial)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complete) 것이다.
   6) 진리는 그림자적인(shadowy)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substantial) 것이다.
2.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אֱלֹהֵי אָמֵן [엘로헤 아멘]"이시다(사 65:16).
   1)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라고 말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라고 말했다.
   2)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요 17:3). 모든 인간은 거짓되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3)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요 1:14)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사 53:9) 진리이시다(요 14:6).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참되시다(요일 5:20).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요 18:37).
   4)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14:17; 15:26; 요일 4:6; 5: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5)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진리는 그 거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거짓과 비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반되는 것이고 악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고(딛 1:2; 히 6:8; cf. 롬 3:4)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딤후 2:13).
3.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시다.

---

[23] Horton, *Law of Perfect Freedom*, 227.

[24]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23.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전적으로 참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시 119:142, 151; 요 17:17). 시편 기자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시 111:7-8)"라고 고백했다.

2)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25]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요 17:17).

4. 진리와 신실은 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26]

1)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의 성실, 신실, 정직과 같은 덕목은 모든 지혜와 영적 지식이 들어 있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확보된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2) 하나님이 참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참되어야 하고 이웃에게 참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진실해야 한다.

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살후 2:13)"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고전 13:6)" 것이라고 말했다.

4)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요삼 1:4)."라고 말했다.

5. 거짓과 비진리는 불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27]

1) 요셉의 형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께 드린 거짓말, 보디발의 아내의 음욕과 거절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악의적 거짓말,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들어 있던 입맞춤으로 포장한 거짓 등은 불경건의 특징적 표를 잘 보여준다.

2) 거짓은 사탄에 속한 것이고 어두움의 일이다. 빛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두움의 일을 하며 거짓말 하던 자가 들어설 곳은 없다(계 21:17; 22:15).

3)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잠 6:17, 19; 슥 8:17).

4)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골 3:9).

---

[25] Ryken, *Written in Stone*, 192.

[26]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131.

[27]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128.

6. 사도행전 5 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28]
   1)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행 4:32).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행 4:34-35). 바나바도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행 4:36-37).
   2)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 주었고 그것이 교회에서 바나바의 명성을 높여 준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나 어느 누구에 의해 그들의 소유를 팔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그 소유를 팔았다(행 5:1). 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값의 전부를 바칠 수도 있고 그 일부를 바칠 수도 있었다.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 아나니아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행 5:2). 이 때의 아나니아의 언행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큰 소리로 말했거나 그 돈을 놓는 행동으로 암시했거나 그는 그 돈이 그의 소유를 판 값의 전부라고 표현하였던 것 같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나니아는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바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있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그가 했던 일보다는 그가 했던 거짓말(혹은 거짓된 암시적 제스처)에 있었다.
   3)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하여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아나니아의 죄는 일차적으로 도둑질이나 탐욕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었다. 둘째, 아나니아의 속이는 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요 8:44)의 조종에 굴복한 것이었다. 셋째,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일차적으로 사도들이나 교회가 아니라 거짓을 혐오하시는 모든 진리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 아나니아는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오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속이는 언행을 피해야 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짓말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악행이요 죄인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4)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고 젊은이들에 의해 장사되었다(행 5:5-6).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 쯤 지나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행 5:7-8). 그러나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하며 회개할 기회를 차버렸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28] Ryken, *Written in Stone*, 194-197.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행 5:9)."고 말했다. 그 때 곧 삽비라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고 그 젊은이들에 의해 남편 곁에 장사되었으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행 5:10-11).

7. 모세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1-12)."는 말씀을 전해 주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8.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엡 4:25)."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진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지도록 실천하였고(고후 2:4; 갈 4:16, 19; 살전 2:7-12)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다(엡 3:18; 4:2; 5:1, 2; 딤전 4:11-13).[29]
   1)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웃이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하여 동기를 의심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쪽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한 이웃이 부당하게 공격을 당할 때 그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이럴 경우 침묵의 죄는 말로 인해 짓는 죄처럼 실제적인 죄이다.
   3)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며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사실대로 지적해야만 할 때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엡 4:15)" 것을 의미한다.[31]

6. 선의의 거짓말

1. 전통적으로 거짓말은 세 가지 종류 즉 악의의(악의적인, 해로운) 거짓말, 농담의(익살맞은/우스운) 거짓말, 선의의(불가피한) 거짓말로 분류되어 왔다. 도우마는 거짓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거짓된 것을 전하려는 의도(voluntas falsum enuntiandi, the intent to communicate something false)보다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voluntas fallendi, the intent to deceive someone)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바르다고 설명한다.[32]
   1) 악의의 거짓말(mendacium perniciosum, malicious lie)은 명백하게 남을 속일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며 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 9 계명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짓말이다.

---

[29] Hendriksen, *Galatians and Ephesians*, 203: ". . . *the truth* must be practiced *in love* (Eph. 3:18; 4:13; 5:1, 2), which was exactly what he was constantly doing (II Cor. 2:4; Gal. 4:16, 19; I Thess. 2:7-12); and telling others to do (I Tim. 4:11-13)."

[30] Ryken, *Written in Stone*, 193.

[31] 엡 4:15 의 ἀληθεύω[알레슈오]는 "to be truthful, to tell the truth, 진실하다, 진실을 말하다"는 뜻인데 영어 성경들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하였다.

[32] Douma, *Ten Commandments*, 325.

2) 농담의 거짓말(mendacium iocosum, jocular lie)은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에서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다.

①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거짓말의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면 우스운 거짓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 9 계명에서 금하는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우스운 거짓말에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웃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농담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잠 26:18-19). 남을 놀릴 의도를 가지고 만우절에 악의가 없이 재미로 하는 거짓말의 경우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 관공서의 불필요한 대처나 이웃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9 계명 위반과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③ 건전한 유우머는 객관적 진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웃음을 주므로 괜찮다. 그러나 유우머가 이웃을 속이고 놀리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스운 거짓말이 아니고 불쾌감을 주는 유우머이며 더 이상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3) 선의의 거짓말(mendacium officiosum, lying for a neighbor's benefit)은 이웃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다.

① 도우마는 선의의 거짓말이 상황에 의하여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짓말인 점을 드러내기 위해 noodleugen(화란어)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독어의 Notlüge 와 같고 영어로 번역하면 lie of necessity(불가피한 거짓말)가 된다.[33]

②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불어의 용어는 mensonge pieux(pious lie 경건한 거짓말)이다.

4) 이상의 세 가지 거짓말 이외에 네 번째 종류로 예의의 거짓말(mendacium humilitatis, hoffelijkheidsleugen, polite lie)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하얀 거짓말(white lie)에 해당한다.

① 좀 더 먹고 싶을 때 "배불리 드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속한다. 우리가 관습이나 예의범절을 지키며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때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존경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Dear"로 시작하고 "Respectually Yours"로 마치는 것은 편지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을 억제하며 대화의 예절을 따르는 것은 복된 일이다.

[33] Douma, *Ten Commandments*, 325: "A lie of necessity is a lie made critically necessary by the situation."

③ 관습과 예절은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벧전 4:8; 고전 13:6)"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34]그러나 예의범절이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사용되며 굳어버리면 부패된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이다. 이 경우 예절은 가식이고 점잖은 거짓말이 된다.

④ 언행의 불일치는 가식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신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연약한 신자의 삶과 속이는 신자의 삶은 차이가 있다. 언행이 상치되며 경건하게 말하나 악하게 행동하는 신자는 속이는 신자이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먼 사람의 언행은 가식이며 정죄받아 마땅하다(마 15:9).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마 24:7)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 사건들을 거짓말의 진위 여부, 거짓말한 의도, 거짓말의 불가피성과 칭찬 여부 등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의 거짓말 사건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찾는데 가장 적합한 선의의 거짓말 사건이다.[35]

1)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라(수 2:3)."고 말했다.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려가 벌여 놓은 삼대에 숨긴(수 2:4, 6)" 라합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수 2:4-5)."고 대답했다. 라합은 실제로 거짓말을 했다.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거짓말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라합의 사건은 바로의 명을 어기며 남자 아기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의 사건과 다윗을 기름부으러 갔던 사무엘의 사건과 비교해 볼만 하다. 의 사건과 비교해 볼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들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던 사건이다.

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묻는 애굽 왕에게 십브라와 부아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출 1:19)."라고 대답하였다. 두 산파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cf. 출 1:18) 어떤 경우 참말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도 아니다.

②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삼상 16:2-3)."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

[34] Douma, *Ten Commandments*, 332.

[35] 아래의 논의는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47-366 을 참고한 것이다.

가서 인사하는 장로들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삼상 16:5)."라고 말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승인 아래 진실이 은폐된 사건이고 거짓말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③ 참말일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산파의 말이나 거짓말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사무엘의 진리 은폐 사건에 비하여 라합의 사건은 거짓말이 직접 개입된 사건으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3) 거짓말의 선한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의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 다윗의 거짓말, 베드로의 거짓말과 비교된다.

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탐꾼들을 살릴 선한 의도에서 거짓말을 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에 따른 거짓말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라합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사건을 들었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수 2:9-11). 이러한 신앙에 따라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히 11:31). 이렇게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이 갖는 좋은 의도와 동기를 인정하고 있다.

②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창 12:11-20; 20:2-18; 26:7-11)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

③ 다윗도 위기적 상황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에 처하여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삼상 20:5-6)."라고 말했다. 다윗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삼상 21:1)"라고 묻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삼상 21:2)."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생각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자라고 할 때 그 말을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다윗이 거짓말 또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며 지나치게 나쁜 동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잘못된 동기가 들어 있다.

④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거짓말한 것도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었다.

⑤ 사실을 왜곡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리고 베드로의 거짓말은 자신들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동기에 비롯된 것이므로 좋은 의도와 동기가 인정되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적합하다.

4) 거짓말에 대한 칭찬과 관련하여 라합의 거짓말과 바후림 여인의 거짓말과 비교된다.

①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 여호수아 6 장 17 절과 25 절은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긴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진멸되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 히브리서 11 장 31 장은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1)"라고 반문하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36]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5)"라고 반문하며 이방 여인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야고보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준 일까지 칭찬하고 있다.
- 라합은 정탐꾼들과 무관함을 보이려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수 2:4)."라고 거짓말했다. 계속해서 라합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수 2:5)."고 거짓말을 하였다.
- 라합이 정탐꾼들과 무관함을 말하고 그들을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짓말(수 2:4-5)은 라합의 생명을 지켜주며 칭찬받은 두 번재 일 즉 정탐꾼들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떠난 후 라합은 그녀가 숨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며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길을 가라고 충고하였다(수 2:15-16). 라합의 충고대로 정탐꾼들은 사흘간 산에 숨어 있다가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다.

② 성경은 바후림 여인을 칭찬하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

[36] 라합이 정탐군을 맞이하여 대접한 것에 대하여 히 11:31 은 δέχομαι[데코마이]를 사용하고 약 2:25 은 ὑποδέχομαι[휘포데코마이]를 사용하였다. *BAG* 177 에 [데코마이]는 "to receive as a guest, welcome"라고 풀이되어 있고 *BAG* 844 에 [휘포데코마이]는 "to receive, welcome, entertain as a guest"라고 풀이되어 있다. NIV 는 전자를 "welcome"으로 번역하고 후자를 "give lodging to"로 번역하였고 RSV 는 전자를 "receive"로 번역하고 후자를 "welcome"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전자를 "영접하다"로 번역하고 후자를 "접대하다"로 번역하였다. 남영신(*국어사전*, 1924)에 의하면 "접대"는 "손님을 맞아 시중드는 일"이고 "대접"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요릿집이나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자인 "접대부"가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라합의 기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연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여 대접한 것을 잘 드러내며 원문의 단어 차이를 반영하고 번역상의 유운적 일치를 보이기 위해 ("μετ' εἰρήνης [메트 에이레네스] 평안히"라는 전명구와 함께 나오는) δέχομαι[데코마이]는 "영접하다"로 번역하고 ὑποδέχομαι[휘포데코마이]는 "대접하다" 혹은 "응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후새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었던 계략을 알고 그것을 자신이 주었던 계략과 함께 다윗에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되어 쫓길 때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찧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다(삼하 17:15-19).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물을 때 그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삼하 17:20)."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살 수 있었고 다윗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있었다.
- 바후림 여인의 거짓말은 압살롬의 반역을 따르지 않고 정통성 있는 다윗 왕을 위해 일하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합이 칭찬받은 것과 달리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이 여인의 거짓말도 정죄되지 않고 칭찬받는 일이 될 것이다.

5) 거짓말의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라합의 거짓말과 예후의 거짓말은 비교된다.

① 예후는 왕이 된 후에 바알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왕하 10:18-19)."고 말했다. 예후의 명을 따라 바알의 신당에 모인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바알 신당은 파괴되었다.

- 예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왕하 10:30)."고 말씀하셨다. 예후가 바알을 제거한 점에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었다(왕하 10:29, 31).
- 이러한 예후의 평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율법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바알 제거 과정에서처럼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후가 서슬이 시퍼런 실권을 쥐고 있는 왕으로서 왕명을 통해 바알섬기는 자들을 불러 모아 제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후의 거짓말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었다.
- 예후가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는 그의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의도와 일의 결과를 좋게 보셨기 때문이다. 예후가 거짓말한 것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한 것이 칭찬을 받은 것이다. 예후의 거짓말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라합의 거짓말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상의 비교에서 보듯이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 진짜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살리려는 선한 의도와 동기에서 한 거짓말이고, 성경이 정죄하지 않고

칭찬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라합의 거짓말은 성경 전체의 원리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3. 라합의 거짓말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1)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선한 의도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므로 배격하신다는 입장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녀를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한 것을 유의하면 라합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설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라합의 행위가 모세의 이혼 허용처럼 구약적인 기준에서 용납될 만한 것이지만(신 24:1-4) 신약의 참된 성도의 기준에 미흡한 것이었다면(마 19:7-9) 신약 성경이 라합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다.[37]

2) 칼빈(Calvin)과 머리(Murray)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도 배격하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라합의 행위에는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섞여 있었으며 라합의 전체적인 태도나 입장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거짓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위에서 살핀 예후의 경우에 참 잘 어울리지만 라합의 경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정탐꾼들을 대접한 것과 함께 불가피한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을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것도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과 머리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잘한 것으로 칭찬받았다고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3) 원칙적으로 배격되어야 할 라합의 거짓말이 칭찬받은 이유로 그녀가 이방인인 사실을 들거나 그녀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의 전체적 태도나 입장을 들어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4) 라합의 거짓말은 거짓을 배격하는 제 9 계명의 바른 이해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충돌(collisio officiorum)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① 제 9 계명은 법정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에서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소와 법정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하는 요소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제 9 계명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속여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도 요구한다.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일 수가 있다. 남을 속일 의도로 속이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을 전혀 속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아닌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

[37] Douma, *Ten Commandments*, 326-327 은 어거스틴의 확신이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의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한 거부가 기독교회를 과연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표시하고 어거스틴이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한 구절들을 다룰 때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며 모든 거짓말을 정죄하는 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② 제 9 계명이 남을 나쁜 의도로 속이지 말라는 것과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며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요구하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9 계명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라합은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말, 즉 거짓말을 한 것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제 6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38]

③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합에게 제 6 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셨고 제 9 계명의 두 번째 요소인 사실대로 말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제 6 계명을 지키며 제 9 계명의 사실대로 말하라는 2 차적 요소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 5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39]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거짓말이 성경에서 한 번도 정죄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

[38] Douma(*Ten Commandments*, 328)는 불가피한 거짓말의 특징이 그릇 인도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능력(capacity to mislead)에 있다면 그릇 인도하는 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제스처이든 원리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Douma 가 잘못 인도하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⑴전략적 속임(military deception):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를 할 때(수 8:1-26)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삼하 5:22-25) 사용했던 속임

⑵시치미를 떼는 것(dissimulation = Mennonite lie [Menno Simons 와 관련이 없음])

①아다나시우스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 "아다나시우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멀리 간 것이 아니니 좀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오."라고 대답한 것

②Hans Busscher 가 추격당하여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있던 마차에서 일어나 "Hans Busscher 가 여러분 가운에 앉아 있소?"라고 묻자 다른 승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

⑶가장하는 것(simulation):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며 말이 아니라 얼굴로 거짓말하는 것

⑷심중 제한(restricto mentalis): 집에 있는 남편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 남편은 집에 없소."라고 대답하고 마음으로 "찾는 당신에겐 말이오."라고 덧붙이는 것

[39] Douma(*Ten Commandments*, 329-330)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정죄되지 않는 것을 몇 가지 계명 충돌의 예를 통해 설명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레 24:9; 삼상 21:3-6),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것, 낮에 침입한 도둑을 막으려다가 죽이는 것(출 22:2), 출애굽 직전에 애굽사람들에게 물품을 요구한 것(출 3:22; 11:2; 12:35-36) 등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마 12:5)처럼 율법은 어겼으나 죄책은 없는 것이다.

① 라합의 거짓말이 죄가 아니었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라합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제 9 계명의 두 번째 의미가 아직 우리에게 엄연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별로 나쁜 의도 없이 사실이 아닌 말에서 시작되고 사실 확인도 안하고 남에 대해 한 말이 화근이 되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 9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사실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도 칭찬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상생활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곡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두 번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한 마디 말도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변해 갈 것이고 제 9 계명을 마구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우리는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적 요구가 있을 때에 라합처럼 사실이 아닌 말을 통해 형제의 생명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순간적인 입장의 난처함 때문에 나쁜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말, 즉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40]

7. 제 9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계명들

1.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는 문제가 나란히 결합되어 나온다.[41] 거짓말쟁이와 도둑은 이웃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치는 점에서 똑같다.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도둑은 이웃의 재산을 훔치고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위증자는 이웃의 명예를 훔친다. 제 3 계명을 위반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제 9 계명을 위반하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는 이웃의 이름에 모욕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다.

---

[40] Douma(*Ten Commandments*, 330)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긴박한 상황 즉 우리 이웃 혹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제 9 계명을 정직하게 지킨다면 불가피한 거짓말을 사용해야 할 긴박한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ouma(331)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적절한 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회퍼가 제시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였다. 수업 시간에 전체 급우들 앞에서 선생님에 의해 "너의 아버지께서 매우 자주 술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어린이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이 어린이가 좀더 나이를 먹었거나 성숙하였더라면 "선생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어린 학생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학생 중 누가 제 9 계명을 더 심각하게 어겼는가? 그 대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41] Miller, *Ten Commandments*, 362-365.

2. 모세 오경에 제 3, 8, 9 계명을 연관지어[42]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를 금하는 율법들이 나온다.

1) [출 22:10-13]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2) [레 6:2-5(MT 5:21-26)] (2)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카하시]) 도둑질하거나([가잘]) 착취하고도([아샤크]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3) [레 19:11-16] (11)너희는 도둑질([가나브])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12)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아샤크]) 말며 착취하지([가잘])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4) [출 23:1-9] (1)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4)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3. 선지서에도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제 3 계명)이 연관지어 묘사되기도 하고(호 7:1; 슥 5:3-4)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말 3:5; 호 4:2; 렘 7:9-10).[43]

1) [호 7: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⑨*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⑧도적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42] Childs, *Exodus*, 363.

[43] 아래 성경 구절에 첨가한 원문자는 개혁교회에서 구분하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몇 번째 계명인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2) [렘 6:13; 8:10]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⑧탐욕을 부리며/욕심내며[44]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⑨*거짓을 행함*이라

3) [슥 5:3-4] (3)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무릇 ⑧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⑨(?③)*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4)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⑧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⑨(?③)*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4)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③점치는 자에게와 ⑦간음하는 자에게와 ⑨*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⑧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5) [호 4:2] 오직 ③저주와 ⑨*속임*과 ⑥살인과 ⑧도둑질과 ⑦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6) [렘 7:9-10] (9)너희가 ⑧도둑질하며 ⑥살인하며 ⑦간음하며 ⑨*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4. 시편 50:16-20 은 악인의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비방을 언급한다.

[시 50:16-20] (16)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5. 위에서 살핀 대로 매우 밀접한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은 제 9 계명이 이웃의 명예와 재산의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은 두 종류의 자산 즉 재산과 명예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며 좋은 평판이 재산을 얻고 지키는 데 필수적이고 재산의 소유가 좋은 평판과 명예를 주는 것을 보여준다.[45]

6. 신약에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두 본문이 있다. 엡 4:25-5:2 는 거의 대부분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지만 그 중간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약 5:4-6 도 도둑질과 거짓 증언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진술을 보이고 있다.

1) [엡 4:25-5:2] (4:25)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

[44] 표기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가 똑같은 렘 6:13 의 **בֹּצֵעַ בָּצַע** [보체아 바차]와 렘 8:10 의 **בֹּצֵעַ בָּצַע** [보체아 바차]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개역은 모두 "탐남하며"라고 통일하여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은 서로 다르게 6:13 에서 "탐욕을 부리며"라고 번역하고 8:10 에서 "욕심내며"라고 번역하였다. ESV 는 "[everyone is] greedy for unjust gain."이라고 번역하고 NIV 는 "[all are] greedy for gain."이라고 번역하였다.

[45] Miller, *Ten Commandments*, 366-367.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1)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 [약 5:4-6] (4)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제 9 계명의 준수

1. 법정의 공의를 세우려는 제 9 계명에는 법정에서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곧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여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법정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 곧 법정에서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들어 있다. 법정에서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증언해야 한다. 법정 제도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공의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판의 전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2.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위증과 악의의 거짓말이 남무하는 사회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 혀를 재갈 물리는 경건을 통해 말의 가치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이웃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할 험담이나 비방이나 중상 모략을 삼가고, 명예 훼손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곡해하거나 사실대로 말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예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리와 신실은 경건의 특징적인 표인 반면 거짓과 비진리는 불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진실하고 신실함으로써 진리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아닌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곧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것이다.

9. 그리스도와 제 9 계명

1.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들 가운데 "거짓 증언과 비방(마 15:19)", "속임과 비방(막 7:22)"을 지적하셨다(마 15:19; 막 7:2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할 계명 중의 하나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2.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요 17:3)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요 1:14)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사 53:9) 진리이시고(요 14:6) 참되시다(요일 5:20).

1)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요 18:37).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고(딛 1:2; 히 6:8; cf. 롬 3:4)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딤후 2:13).
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요 8:31-32)."고 말씀하셨다.
3) 세례 요한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요 5:33).
4)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ὁσιότητι τῆς ἀληθείας =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NASB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KJV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NIV/ESV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엡 4:21-24).

3.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계 1:5)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계 3:14).
1)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보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히 6:16-17). 성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셨고(요 5:37-39, 46; 눅 24:44; 행 10:42-43) 하늘에서 음성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요 8:16-18; 마 3:17; 막 1:11; 눅 3:22; 마 17:5; 막 9:7; 눅 9:35).
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뜻에 관하여 증언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요 19:30).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하여 보이시고(요 5:36; 행 2:22)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증인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은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율법을 충족시킨다(요 8:14, 16-18).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고(막 8:31; 9:9, 31; 10:34),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을 옹호하고(cf. 딤전 3:16; 롬 1:3), 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증언하고(cf. 롬 4:25; 5:9), 그로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고(벧전 1:11; 눅 24:26),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것을 선언한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46]
3) 진리의 영(요 14:17; 15:26; 요일 4:6; 5:6)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며(요 15:2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실 사역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46] Everett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8), 243-245.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 16:8-11).”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줄 메시지를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독생자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사실이 예수님의 의를 증언하므로 예수님의 의 이외에 다른 의는 이 세상에 전혀 없다. 셋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결코 사탄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47]

4)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 받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경의를 표하고(눅 24:34; 요 20:25, 28) 그의 증인되도록(행 1:8) 부르신 소명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대사명을 이루는 데(마 28:18-19)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요 8:38)”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요 8:40)”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1)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8:47)”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요 8:44)”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고 말씀하셨다.

2)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고 말했다. 거짓말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3)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요 21:8, 27; 22:15).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심판은 우리의 반면교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장막에 유하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비방하지 않는(시 15:2-3)” 사람이다.

5.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우리의 실상보다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1) 우리 안에는 없는데 밖으로는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꾸미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 지내며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쓴 가장 큰 거짓말이다.[48]

2)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마 23:27-28)”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물리치셨어도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며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언제든지 용납하시고(마 9:10; 막 2:15; 눅 5:29) 용서해 주셨다(눅 18:9-14).

---

[47]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143-144.

[48] Ryken, *Written in Stone*, 199: “The biggest lie is the one we live with every day, the lie we work so hard to maintain. It is the lie that we are on the inside what we pretend to be on the outside.”

6.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실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주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1)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 제 9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시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을 때 그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계 14:4-5)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계 21:23; 22:5).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 된 모습으로이다. 야곱과 라반이 세운 돌 무더기(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자체가 그들이 언약을 세운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증인이다.[49] 구원받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언제나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

10. 제 9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2)

   HC 112. 제 9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며(잠 19:5, 9; 21:28)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시 15:3). 나는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롬 1:29-30). 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마 7:1; 눅 6:37). 나는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인(잠 12:22; 13:5; 요 8:44; 계 21:8)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이나 속이는 일을 피하여야 합니다(레 19:11).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재판과 모든 다른 일에 있어서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똑바로 말하며 진리를 입증해야 합니다(고전 13:6; 엡 4:25).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벧전 3:8-9; 4:8).

2.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7; 대교리 문답[WLC] 144)
   1) WSC 77.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슥 8:16)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인데(요삼 12;)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잠 14:5, 25).

---

[49]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139.

2) WLC 144.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지키며(슥 8:16)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요삼 12); 진실을 위하여 나(타나)서는 것(잠 31:8-9); 심문과 재판(레 19:15; 잠 14:5, 25) 그리고 모든 다른 일에 있어서(고후 1:17-18; 엡 4:25) 마음으로부터(시 15:2) 진지하고(대하 19:9) 거리낌 없고(삼상 19:4-5) 분명하고(수 7:19) 충분하게(삼하 14:18-20) 진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귀히 여기는 것(히 6:9; 고전 13:7); 이웃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롬 1:8; 요이 4; 요삼 3-4); 이웃의 허물을 슬퍼하고(고후 2:4; 12:21) 덮어주는 것(잠 17:9; 벧전 4:8); 이웃의 재능과 장점을 아낌없이 인정하고(고전 1:4-5, 7; 딤후 1:4-5) 이웃의 결백을 옹호하는 것(삼상 22:14);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으나(고전 13:6-7)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시 15:3); 나쁜 소문 퍼뜨리는 것(잠 25:23)과 아첨(잠 26:24-25)과 중상모략(시 101:5)을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아끼고 돌보며 필요한 경우 변호하는 것(잠 22:1; 요 8:49); 서원을 지키는 것(시 15:4); 무엇에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힘써 실천하는 것입니다(빌 4:8).

3.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8 ; 대교리 문답[WLC] 145)

1) WSC 78.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입니다(잠 6:19; 19:5; 시 15:3; 레 19:16; 골 3:9).

2) WLC 145.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레 19:15; 합 1:4)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삼상 17:28; 삼하 16:3; 1:9-10, 15-16); 거짓 증언을 제공하고(잠 19:5; 6:16, 19) 거짓 증인을 세우고(행 6:13)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뒤집어엎는 것(렘 9:3, 5; 행 24:2, 5; 시 12:3-4; 52:1-4);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잠 17:15; 왕상 21:9-14); 악인에게 의인이 행한 것처럼 상을 주고 의인에게 악인이 행한 것처럼 벌을 주는 것(사 5:23); 문서를 위조하고(시 119:69; 눅 19:8; 16:5-7)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레 5:1; 신 13:8; 행 5:3, 8-9)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소해야 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왕상 1:6; 레 19:17); 적절하지 않을 때(잠 29:11) 혹은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를 품고 진실을 말하거나(삼상 22:9-10; 시 52:1-5)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시 56:5; 요 2:19; 마 26:60-61)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창 3:5; 26:7, 9); 비진리를 말하고(사 59:13) 거짓말하고(레 19:11; 골 3:9) 중상모략하고(시 50:20) 험담하고(시 15:3) 비방하고(약 4:11; 렘 38:4)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레 19:16) 수군수군하고(롬 1:29-30) 냉소하고(창 21:9; 갈 4:29) 욕하고(고전 6:10) 경솔하고(마 7:1) 가혹하고(행 28:4) 편파적으로 비난하고(창 38:24; 롬 2:1) 사람의 의도와 언어와 행동을 오해하는 것(느 6:6-8; 롬 3:8; 시 69:10; 삼상 1:13-15; 삼하 10:3); 아첨하고(시 12:2-3) 허황되게 자랑하고(딤후 3:2)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눅 18:9, 11; 롬 12:16; 고전 4:6; 행 12:22; 출 4:10-14);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장점을 부인하는 것(욥 27:5-6; 4:6); 참

작은 허물을 크게 보는 것(마 7:3-5); 자복해야 할 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가벼이 보는 것(잠 28;13; 30:20; 창 3:12-13; 렘 2:35; 왕하 5:25; 창 4:9);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들추어내는 것(창 9:22; 잠 25:9-10);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출 23:1)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좋아하고(잠 29:12) 정당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행 7:56-57; 욥 31:13-14); 악한 의심을 품는 것(고전 13:5; 딤전 6:4); 공적에 합당한 남의 명예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민 11:29; 마 21:15) 그것의 훼손을 바라거나 훼손을 위해 노력하고(스 4:12-13) 남의 치욕과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렘 48:27); 조롱하며 멸시하는 것(시 35:15-16, 21; 마 27:28-29); 분별없게 칭찬하는 것(유 16; 행 12:22);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롬 1:31);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삼상 2:24) 불명예를 초래할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하고 삼가지 않거나 능히 말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삼하 13:12-13; 잠 5:8-9; 6:33).

XII. 제 10 계명

1. 제 10 계명 본문

1. 제 10 계명은 출 20:17 과 신 5:21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7

17 לֹא תַחְמֹד בֵּ֣ית רֵעֶ֑ךָ לֹא־תַחְמֹד֙ אֵ֣שֶׁת רֵעֶ֔ךָ

וְעַבְדּ֥וֹ וַאֲמָתוֹ֙ וְ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② 신 5:21

21 וְלֹ֣א תַחְמֹ֔ד אֵ֥שֶׁת רֵעֶ֖ךָ וְלֹ֣א תִתְ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עַבְדּ֥וֹ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③ 두 본문의 차이

- 제 10 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대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출애굽기는 "בֵּ֣ית 집" 그리고 "אֵ֣שֶׁת 아내"의 순서를 갖고 있지만 신명기는 "אֵ֣שֶׁת 아내" 그리고 "בֵּ֣ית 집"의 순서를 갖고 있다.
- 신명기 제 10 계명에는 "בֵּ֣ית 집" 다음에 "שָׂדֵ֣הוּ (그의) 밭"이 추가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곧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밭"이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여종과 그의 소" 사이에 출애굽기(**וְשׁוֹר֣וֹ** **וַאֲמָתוֹ֙**)에는 접속사 바브가 있으나 신명기(**שׁוֹר֣וֹ** **וַאֲמָתוֹ֙**)에는 접속사 바브가 없다.
- 제 10 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탐내다"를 표현하는 동사의 사용에도 차이를 보인다. 즉 출애굽기에는 **תַחְמֹד**[타흐모드]가 두 번 나왔으나 신명기에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출애굽기처럼 **תַחְמֹד**[타흐모드]가 사용되었으나 집을 비롯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 **תִתְאַוֶּ֗ה**[티트아베]가 사용되었다.
- 출애굽기의 경우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두 번 나오는 부정어(**לֹא**[로]) 앞에 전혀 붙어 있지 않으나 신명기의 경우 두 번 모두 붙어 있다. 앞 선 계명들과 관련하여 접속사 유무를 설명하면 출애굽기의 경우 계명들 사이에 접속사 바브에 의한 연결이 전혀 없지만 신명기의 경우 신 5:17-20(MT 5:17)에 접속사 바브가 3 개(제 7-8-9 계명 앞에) 있고 신 5:21(MT 5:18)에 접속사 바브가 2 개(제 10 계명의 두 개의 절 앞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 5:17 을 시작하는 "살인하지 말라"에는 접속사가 없으나 같은 절(신 5:17)로 간주되는 "간음하지 말라-도둑질하지 말라-거짓증언하지 말라"에는 접속사 바브가 각각 붙어 있고 그리고 신 5:21(MT 5:18)의 "탐내지 말라-탐하지 말라"에도 접속사 바브가 각각 붙어 있다. 맛소라 본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 6-10 계명 (출 20:13-17)	신명기 6-10 계명 (신 5:17-21 [MT 5:17-18])
13 **לֹא** תִּרְצָח׃ ס	17 (17) **לֹא** תִּרְצָח׃ ס
14 **לֹא** תִּנְאָף׃ ס	(18) וְ לֹא תִּנְאָף׃ ס
15 **לֹא** תִּגְנֹב׃ ס	(19) וְ לֹא תִּגְנֹב׃ ס
16 **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ס	(20) וְ לֹא־תַעֲנֶה בְרֵעֲךָ עֵד שָׁוְא׃ ס
17 **לֹא** תַחְמֹד בֵּית רֵעֶךָ	18 (21) וְ לֹא תַחְמֹד אֵשֶׁת רֵעֶךָ ס
לֹא־תַחְמֹד אֵשֶׁת רֵעֶךָ וְעַבְדּוֹ	וְ לֹא תִתְ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עַבְדּוֹ
וַאֲמָתוֹ וְ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ף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ס

④ 절 수의 차이

- 제 6 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 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영어 성경의 신 5:17-20 을 한 개의 절(MT 5:17)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제 10 계명이 나오는 영어 성경의 신 5:21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8 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7 = 신 5:21

(출 20:17)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γυναῖκα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οἰκίαν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ὔτε τὸν **ἀγρὸν** αὐτοῦ οὔτε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οὔτε τὴν παιδίσκην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βοὸς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ὑποζυγίου αὐτοῦ οὔτε παντὸς κτήνους αὐτοῦ οὔτε ὅσα τῷ πλησίον σού ἐστιν

(신 5:21)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γυναῖκα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οἰκίαν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ὔτε τὸν **ἀγρὸν** αὐτοῦ οὔτε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οὔτε τὴν παιδίσκην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βοὸς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ὑποζυγίου αὐτοῦ οὔτε παντὸς κτήνους αὐτοῦ οὔτε ὅσα τῷ πλησίον σού ἐστιν

[Brenton] (출 20:17)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servant, nor his 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of his cattle, nor whatever belongs to thy neighbour.

[Brenton] (신 5:21)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beast of his, nor any thing that is thy neighbour's.

▪ 제 10 계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맛소라 본문과 달리 칠십인역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이 똑같다. 맛소라 본문과 달리 집과 아내의 순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동사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출애굽기에 밭도 언급되어 있다.

▪ Brenton 의 번역은 칠십인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의 단어나 어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3) Vulgate

(출 20:17) non concupisces **domum** proximi tui nec desiderabis **uxorem** eius non servum non ancillam non bovem non asinum nec omnia quae illius sunt

[Douay-Rheims Bible] (출 20:17)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either shalt thou desire his **wife**, nor his servant, nor his hand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his.

(신 5:21) non concupisces **uxorem** proximi tui non **domum** non *agrum* non servum non ancillam non bovem non asinum et universa quae illius sunt

[Douay-Rheims Bible] (신 5:21)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nor hi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his.

▪ 벌게이트역은 맛소라 본문처럼 집과 아내의 순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맛소라 본문의 출애굽기의 두 번 똑같이 사용된 동사를 다르게 번역하고 신명기의 서로 다른 동사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한 번만 번역하였다.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 (출 20:17)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 (신 5: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네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 (신 5: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7)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 (신 5:21)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신명기의 두 동사가 다른 것을 다른 용어를 써서 번역하는 한글 성경이 없다. 쉬운성경의 신명기에 세 번 동사를 사용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원문에 나오는 대로 두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신명기에 다른 동사가 사용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개역은 두 본문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두 본문의 다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똑같은 부분을 통일성있게 잘 번역하고 있다. 특히 **וְלֹא תַחְמֹד אֵשֶׁת רֵעֶךָ וְלֹא תִתְאַוֶּה** 라는 신명기 원문의 부정사 **לֹא**[로]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 **וְ** [브]를 두 번 똑같이 조사 "~도"를 사용하여 "탐내지**도** 말지니라"고 번역하며 유일하게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개역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은 부분에 대하여 두 본문이 통일되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없다.

- 원문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은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무릇 네 이웃의 소유"와 "네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 새번역은 "너희"라는 속격을 출애굽기에는 사용하나 신명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우리말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자가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라"와 "말라" 그리고 속격 번역 유무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네 이웃의 것은"과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 쉬운성경은 주어의 사용, 동사의 사용 횟수, 그리고 "그 밖에 이웃의 어떤 것도"와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처럼 두 본문의 같은 것들을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④ 개역이나 개역개정처럼 "네 이웃의"와 "그의"를 두 본문 모두 통일되게 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한 번역들은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⑤ 새번역과 쉬운성경의 복수 "*너희*"는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2. 제 10 계명 본문 번역

1) 접속사 바브

① 세일하머(Sailhamer)가 지적한 것처럼 신명기의 십계명 본문의 마지막 다섯 개의 절이 접속사 וְ[브]와 부정어 לֹא[로]가 결합된 וְלֹא[블로]로 시작한다.[1] 접속사에 유의하면 신 5:17-20(MT 5:17)에 접속사 바브가 3 개 있고 신 5:21(MT 5:18)에 접속사 바브가 2 개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5 개의 절들은 처음에 모두 וְלֹא[블로]가 붙어 있으므로 직역하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집에 탐하지 말라."가 된다.[2]

② 개역에서 "간음하지도 말지니라."처럼 신명기 5 장 18 절에서 21 절까지의 각 계명을 "~도 말지니라"고 번역한 것은 접속사 וְ[브]를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조사 "~도"를 뺀 개역개정보다 조사 "~도"가 들어있는 개역의 번역이 원문을 더 잘 반영한 번역이다.

③ 본 주해는 접속사 바브가 있을 때 모두 "그리고"라고 번역하였다.

2)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

① 출애굽기에서 "아내"보다 먼저 나오는 (즉 첫 번째로 나오는) "집"은 콜(Cole, 161)이 설명한대로 "household 가정, 한 집안"을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아내,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함한다. 이웃의 가정에서 아내가 제일 우선적인 것은 포괄적인 용어인 집 다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아내"가 제일 먼저 언급됨으로써 명시화된다.[3]

② 신명기에서 "아내" 다음으로 나오는 (즉 두 번째로 언급된) "집"은 건물을 가리키며 "집"과 (출애굽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부동산을 가리킨다.

---

[1] Sailhamer, *Pentateuch as Narrative*, 284 n. 44.

[2] 접속사 וְ[브]로 시작되는 제 7-10 계명(신 5:18-21)을 NIV/NASB/NKJV 는 접속사 וְ[브]가 없는 제 6 계명(신 5:17)처럼 "You Shall not"으로 번역하였지만 ESV 는 접속사 바브를 반영하며 "And you shall not"이라고 번역하고 KJV/RSV/NRSV 는 "Neither shall you"라고 번역하였다.

[3] John A. Thompson, *Deuteronom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4), 118 는 신명기의 아내 그리고 집의 순서가 여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다른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여인에 대한 민감한 태도에 대한 다른 예로 신 21:10-14; 22:13-19; 24:1-5 등을 들었다.

③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동일하게 언급되는 "남종과 여종"은 주인의 귀한 재산이었다. 그리고 "소와 나귀"는 유목민/농민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사람, 집과 밭, 그리고 가축으로 삼분하는 것은 서원 예물의 값을 말하는 레 27:1-25 에서도 볼 수 있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대상을 언급하는 레 27:28 에서도 볼 수 있다.[4]

④ 제 10 계명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부동산(不動産), 이웃의 동산(動産) 등을 열거하고 וְכֹל אֲשֶׁר לְרֵעֶךָ [브홀 아셰르 르레에하] "그리고 네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첨가함으로써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마지막 어구는 열거된 대상 이외에도 얼마든지 탐낼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계속 변할 수 있는 대상의 계속적인 열거를 중단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항상 곁에 있는 대상 즉 "네 이웃"으로 향하시고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는 그 사람 곧 그 이웃에 속한 어떤 것을 탐내는 존재임을 일깨우시며 네 이웃에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다.[5]

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원문에 똑같이 나오는 וְכֹל אֲשֶׁר לְרֵעֶךָ [브홀 아셰르 르레에하] "그리고 네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는 개역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처럼 "무릇 네 이웃의 소유"라고 번역하였으나 신명기는 "네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번역했다. 남영신(**국어사전**, 815)은 "무릇"을 부사로서 "헤아려 생각하건대, 대체로 보아, 대저"의 의미를 갖는다고 풀이한다. 본 주해는 이 어구를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3) 동사 [하마드 > 타흐모드]와 [히트아바 > 티트아베]

① חָמַד[하마드]가 쓰인 몇 구절들을 들며 그 용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NIDOTTE* II: 168, # 2773; *TWOT* I: 295, # 673; Cole; Douma).

---

[4] [레 27:1-25] 사람(1-8 절); 가축(9-13 절); 집과 밭(집: 14-15 절; 밭: 16-25 절)

[레 27:28]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5] Miller, *Ten Commandments*, 396 에는 이 마지막 어구에 대하여 언급한 René, Girard, *I See Satan Fall Like Lightening* tr. James G. Williams (Maryknoll, NY: Orbis Books, 2001). 9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인용되어 있다. "In reading the Tenth Commandment one has the impression of being present at the intellectual process of its elaboration. To prevent people from fighting, the lawgiver seeks at first to forbid all the objects about which they ceaselessly fight, and he decides to make a list of these. However, he quickly perceives that the objects are too numerous: he cannot enumerate all of them. So he interrupts himself in the process, gives up focusing on the objects that keep changing anyway, and he turns to what never changes. Or rather, he turns to that one who is always present, the neighbor. One always desires *whatever belongs to that one*, the neighbor."

- ⑴[하마드]는 기본능동(칼, 파알) 어간에 16 번, 기본재귀(니프알) 어간에 분사로 4 번, 작위능동(피엘) 어간에 1 번 사용되었다. [하마드]는 잠 1:22 과 시 19:10[MT 11]을 제외하고[6] 눈에 보이는 대상 즉 사람과 사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욕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물질적인" 동사이다.
  - 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것들은 땅(출 34:24), 나무(창 2:9; 3:6), 그늘(아 2:3), 사람(사 53:2), 은과 금(신 7:25), 보물(잠 21:20), 상수리나무[지역](사 1:29), 우상(사 44:9), 그리고 이웃의 재산(출 20:17; 신 5:21[MT 18]; 수 7:21; 잠 6:25; 12:12; 미 2:2) 등이다.
  - 사 1:29 에서 [하마드]가 **בָּחַר**[바하르]와 병행어구로 쓰인 것은 바라는 대상이 선택하는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사 1:19-20] (29)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חֲמַדְתֶּם)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בְּחַרְתֶּם)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 ⑵[하마드]는 문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며 대상의 바람직함(desirability of an object)을 강조하거나 얻으려는 바람(desire to obtain)을 강조한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נֶחְמָד לְמַרְאֶה**)

  먹기에 좋은(**וְטוֹב לְמַאֲכָל**)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 53:2] 우리가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וְלֹא־מַרְאֶה וְנֶחְמְדֵהוּ**).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טוֹב הָעֵץ לְמַאֲכָל**)

  보암직도 하고(**תַּאֲוָה־הוּא לָעֵינַיִ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וְנֶחְמָד הָעֵץ לְהַשְׂכִּיל**) 나무인지라
  - 창 2:9 에서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묘사할 때 대상의 바람직함을 강조하지만 창 3:6 에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묘사할 때 얻으려는 바람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 창 3:6 에서 **תַּאֲוָה**[타아바]와 **נֶחְמָד**[네흐마드]가 병행되며 동의어로 쓰였다.
  - 사 53:2 은 창 2:9 처럼 대상의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 ⑶[하마드]는 창 2:9 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시 68:16[MT 17]; 아 2:3).

  [시 68:16(MT 17)]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חָמַד אֱלֹהִים לְשִׁבְתּוֹ**)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

[6]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חָמְדוּ**)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시 19:9-10(MT 10-11)]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הַנֶּחֱמָדִים**)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חָמַדְתִּי)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 ⑷[하마드]는 창 3:6 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잠 6:25; 미 2:2; 신 7:25; 수 7:21; 출 34:14; 왕상 20:6).
  - 잠 6:25 은 마음에 음녀에 대한 미의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한다.

    [잠 6:25] *네 마음에* 그(=음녀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אַל־תַּחְמֹד יָפְיָהּ בִּלְבָבֶךָ)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 미 2:1-2 은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탐심이 일어나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탐내어 취하는 행동을 정죄한다.

    [미 2:1-2] (1)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וְחָמְדוּ שָׂדוֹת וְגָזָלוּ וּבָתִּים וְנָשָׂאוּ)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 출 34:24 은 여호와께서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어 취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다.

    [출 34:24]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וְלֹא־יַחְמֹד אִישׁ אֶת־אַרְצֶךָ) 못하리라
  - 왕상 20:6 은 아합 시대에 벤하닷이 아합과 아합의 신복들의 집을 수탐하여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

    [왕상 20:6] 내일 이맘때에 내(=벤하닷)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아합)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네 눈이 기뻐하는 것(כָּל־מַחְמַד עֵינֶיךָ)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 신 7:25 에서 모세는 조각한 신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서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다.

    [신 7:25]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לֹא־תַחְמֹד)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 수 7:21 은 아간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취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수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כ= וָאֶרְאֶה] [ק= וָאֵרֶא]) 탐내어 취하였나이다(וָאֶחְמְדֵם וָאֶקָּחֵם)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 ⑸[하마드]는 탐내는 것과 상응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가 뒤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미 2:2; 신 7:25; 수 7:21)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잠 6:25; 출 34:24; 시 68:16[MT 17]).

- 차일즈(426)는 "[하마드]가 원래 취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는 헤르만(Herrmann, "Das zehnte Gebot", *Sellin-Festshift*, Leipzig 1927, pp. 69-82)의 주장보다 "[하마드]가 가끔 취하는 행동을 분명하게 암시한다고 하여 취하는 동작이 [하마드]의 고유 의미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모란(Moran, "The Conclusion of the Decalogue (Ex. 20, 17 =Dt. 5, 21)", *CBQ* 29, 1967, pp. 543ff)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콜(Cole)은 [하마드]가 "loving 사랑하는 것"과 "hating 미워하는 것"처럼 행위(an activity)로서 "seeking to acquire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desiring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7]

• ⑹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문맥에 따라 [하마드]의 긍정적인 뉘앙스(사 1:29; 시 68:16[MT 17]; 아 2:3)와 부정적인 뉘앙스(잠 6:25; 미 2:2; 신 7:25; 수 7:21; 출 34:14; 왕상 20:6)를 구별해야하고, [하마드]의 강조점이 주체(창 3:6) 혹은 객체(창 2:9; 사 53:2)에 있는지를 구별해야 하고, [하마드]에 취하게 될 행동의 암시가 들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제 10 계명의 경우 [하마드]는 (이미 이웃에 속한 대상이기 때문에) 탐내서는 안 될 객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고, 취하게 될 행동의 암시가 들어 있는 것 같다.

②אוה의 작위재귀(히트파엘) 어간 הִתְאַוָּה[히트아바]가 쓰인 몇 구절들을 들며 그 용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NIDOTTE* I: 304-305, # 203; *TWOT* I: 18, # 40).

• ⑴[히트아바]는 이기적인 욕망, 탐욕을 나타낸다(selfish desire, lust, craving).

[민 11:4, 34] (4)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הִתְאַוּוּ תַּאֲוָ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 . . . (33)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graves of craving" קִבְרוֹת הַתַּאֲוָה)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אֶת־הָעָם הַמִּתְאַוִּים)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잠 13: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מִתְאַוָּה)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 21:26]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הִתְאַוָּה תַאֲוָ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잠 23:3-6] (1)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2)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וְאַל־ תִּתְאָו [כ= תִּתְאָו] [ק= תִּתְאָיו])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4)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7] Cole, *Exodus*, 161: "As in case of 'loving' and 'hating', 'desiring' is an activity, almost equivalent to 'seeking to acquire'."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וְאַל־[כ= תִּתְאָו] [ק= תִּתְאָיו])

[잠 24:1-2] (1)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וְאַל־ [כ= תִּתְאָו] [ק= תִּתְאָיו])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 ⑵[히트아바]는 중립적이거나 합법적인 소원을 나타내기도 한다(neutral or legitimate desire)

  [전 6:2]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וְאֵינֶנּוּ חָסֵר לְנַפְשׁוֹ מִכֹּל אֲשֶׁר־ **יִתְאַוֶּ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시 45:10-11] (10)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וְיִתְאָו** הַמֶּלֶךְ יָפְיֵךְ)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삼하 23:15=대상 11:17] 다윗이 사모하여(**וַיִּתְאַוֶּה**)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 ⑶[히트아바]는 동기가 잘못된 욕망을 나타낸다(wrongly motivated desire)

  [암 5:18-20] (18)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הֹוי הַמִּתְאַוִּים** אֶת־**יֹום** יְהוָ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19)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렘 17: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았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וְיֹום** אָנוּשׁ לֹא **הִתְאַוֵּיתִי**)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 ⑷[히트아바]는 [하마드]가 자주 탐내는 것에 상응하는 동작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뒤 따르는 상응하는 동작이 언급되지 않고 자주 נֶפֶשׁ(마음, 영혼)와 관련지어 언급되며(전 6:2) 대개 마음으로 원하는 욕망에 강조점을 갖는다(잠 13:4; 삼하 23:15; 민 11:4, 34).

③ חָמַד[하마드]와 הִתְאַוָּה[히트아바] 사이에는 서로 공통되는 명시적인 의미(common denotation)의 영역을 갖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뉘앙스와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 ⑴시온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것을 노래하는 두 시편은 이 두 단어가 동의어로 서로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8]

  [시 68:15-18(MT 16-19)] (15)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חָמַד** אֱלֹהִים לְשִׁבְתֹּו)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8] Childs(*Exodus*, 427)는 시온의 전통(Zion tradition)을 언급하는 구절로 시 68:19 와 132:13f 를 언급하였으나 시 68:19 은 시 68:17 로 정정해야 한다.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 132:13-14] (13)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has chosen בָּחַר יְהוָה בְּצִיּוֹן)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has desired it אִוָּה לְמוֹשָׁב לוֹ) 이르시기를 (14)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have desired it פֹּה־אֵשֵׁב כִּי אִוִּתִיהָ)

- (2)두 단어에 공통적인 명시적 의미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 חָמַד[하마드]는 자주 상응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을 강조한다면 הִתְאַוָּה[히트아바]는 감정 자체를 강조한다.[9]
- (3)חָמַד[하마드]가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취하는 동작의 요소를 덧붙여 갖는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의미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חָמַד[하마드]는 두 번 사용되며 탐내는 대상을 취하는 데로 이끄는 술책 등을 포함하는 탐욕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었다. 신명기에서 [하마드]와 [히트아바]를 한 번씩 사용하며 הִתְאַוָּה[히트아바]를 חָמַד[하마드]의 병행어로 사용한 것은 출애굽기에 이미 들어있는 금지의 주관적인 측면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10]
- (4)많은 영어 성경들에서 חָמַד[하마드]는 "covet"로 번역되고 הִתְאַוָּה[히트아바]는 "desire, set desire on"으로 번역되었다. *KB*는 [하마드](I: 325)를 "to desire (brings damage upon the thing or person desired) and to try to obtain"으로 번역하고 [히트아바](I: 20)를 "to crave for (usually in an unfavorable sense)[민 11:34; 신 5:21]; to perceive a longing[삼하 23:15]; to be greedy[잠 13:4]" 등으로 번역하였다.
- (5)우리말로 두 동사를 구별하여 번역한다면 [하마드]는 "눈독을 들이다" 혹은 "탐욕을 드러내다"라고 번역하고 [히트아바]는 "탐심을 갖다" 혹은 "탐욕을 품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주해는 *자주 상응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을 강조하는 חָמַד[하마드]를 "탐내다"라고 번역하고 *감정 자체*를 강조하는 הִתְאַוָּה[히트아바]를 "탐심을 갖다, 탐욕을 품다"는 의미로

---

[9] Childs, *Exodus*, 427: "There does remain a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the semantic range of *ḥāmaḏ* and *hiṯ'awweh* in spite of an area of common denotation. The emphasis of *ḥāmaḏ* falls on an emotion which often leads to a commensurate action, whereas the focus of *hiṯ'awweh* rests much more on the emotion itself."

[10] Childs, *Exodus*, 427: "Herrmann was not justified in playing down the emotional denotation of the verb *ḥāmaḏ*, even though it probably carried in addition the element of subsequent action. The original command was directed to that desire which included, of course, those intrigues which led to acquiring the coveted object. The Deuteronomic substitution of the verb *hit'awweh* did not mark a qualitative difference of approach which had the effect of internalizing a previously action oriented commandment. . . . Rather, Deuteronomic recension simply made more explicit the subjective side of the prohibition which was already contained in the original command."

"탐하다"라고 번역하였다.[11] 본 주해의 "탐내다"와 "탐하다"는 신명기의 다른 두 개의 동사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선택이다.

4) 열 가지 계명의 구분과 관련된 제 10 계명 문제

① 서론의 "십계명의 구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천주교와 루터교에서는 개혁교회와 같이 십계명이 서언과 열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나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 10 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여긴다.

② 제 10 계명을 둘로 나눌 경우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에 혼란이 생긴다.

-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 이와 대조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③ 세일하머(284 n. 44)는 신 5:17-20(MT 5:17)에 וְלֹא[블로]가 세 번[개혁교회의 제 7, 8, 9 계명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신 5:21(MT 5:18)에 וְלֹא[블로]가 두 번[개혁교회의 제 10 계명] 나오며 각각 다른 정형동사와 결합된 것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루터교나 천주교처럼 둘로 나누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④ 그러나 도우마(338)는 출 20:17 과 신 5:21 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절들이 둘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으나 둘로 나누어 10 개의 계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이 절들을 둘로 나누게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도우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출애굽기에서 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신명기에서 두 개의 다른 동사를 한 번씩 사용한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절들이 두 개의 구별된 계명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십계명을 논의할 때 그들의 9 계명과 10 계명을 따로 따로 논의하지 않고 하나로 함께 논의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은 그들이 둘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넌지시 보게 하는 것이다.
- 롬 7:7 에 "탐내지 말라"로 나오고 롬 13:9 에 다른 계명들과 함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된 것이 분명하다.

---

[11] 남영신, **국어사전**, 2235-2236 은 "탐내다"를 "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 하다"로 풀이하고 "탐욕"을 "가지고자 탐내는 욕심"으로 풀이한다. 이희승, **대국어사전**, 3830-3831 에 의하면 "탐"은 "탐욕"의 준말이고 "탐하다"는 동사로 쓰이고, "탐욕"은 "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고 "탐내다"는 "매우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다"로 풀이되어 있다.

⑤ 도우마가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 대상을 달리 하여 두 개의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5) 제 10 계명의 강조점과 위치[12]

① 제 10 계명에 주어진 강조점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너는 탐내지 말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너는 탐내지 말라/너는 탐하지 말라"고 반복되는 금지 어구이고, 둘째로 탐내서는 안 될 대상의 긴 목록이고, 셋째로 "네 이웃의 [다른]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결론적 어구이다.

② 제 10 계명은 십계명의 마지막을 차지하며 십계명의 절정을 이룬다.

6) 번역

① (출 20: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② (신 5:21[MT 18])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2. 제 10 계명의 의미

1)제 10 계명의 금지 출발점

1. 제 10 계명을 논의할 때 탐심에서 범행에 이르는 단계들을 상정한다. 첫째로,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일어난다(to *be caught* off guard by an immoral desire, cf. 見物生心 견물생심). 둘째로, 그 탐심은 계속 자라나 남의 것에 손을 대어 취하려는 탐욕으로 자리잡는다(to *nurture* that desire). 셋째로, 그 탐욕에 의지를 굴복시켜 그 탐욕을 충족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한다(to surrender one's *will* to that desire and thus develop a *plan* to satisfy that desire). 넷째로, 그 탐욕을 채워줄 계획과 조치대로 실행하는 범죄를 저지른다(to translate the desire into *deed*).[13]
2. 하이델베르그 문답 113 번에서 제 10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는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칼빈(Book II, CH. VIII, # 49)은 제 6-9 계명이 우리의 마음이 분노, 증오, 간음, 도둑질, 거짓말의 행위로 기울어져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제 10 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행위를 향해 이끌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4] 칼빈은 제 10 계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

[12] Miller, *Ten Commandments*, 389.

[13] Douma, *Ten Commandments*, 339-340.

[14]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stminster), 413: "As he has forbidden our minds to be inclined and led into anger, hatred, adultery, robbery, and lying, he now prohibits them from being prompted thereto."

소유가 상해나 사취할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작은 탐심으로부터**조차도 본래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요약했다.[15]

3. 탐심이 일어나서, 계속 탐욕을 품고, 그 탐욕에 굴복당하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고려하면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설명은 제 10 계명이 일어난 탐심으로 인해 계속 탐욕을 품는 내적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우마는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제 10 계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종착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6]
   1) 제 1-9 계명이 실제로 죄를 짓는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며 그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태도까지 금하는 것처럼 제 10 계명도 (제 1-9 계명에 비하여 보다 더 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실행 계획과 조치들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깊이 내적인 것으로 들어가며 보이는 외적 행위가 밝히 드러나기 전의 모든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탐심이 일어나서, 계속 탐욕을 품고, 그 탐욕에 굴복당하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들에서 제 10 계명이 금하는 외적 영역은 (내적인 첫 두 단계를 넘어) 탐욕의 대상물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실행에 옮길 조치를 취하는 셋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3) 그래서 도우마는 셈족어 학자 레팅가(J. P. Lettinga)의 제안대로 חָמַד[하마드]를 "to covet [탐내다]"로 번역하기 보다는 "to set one's desire(s) on [탐욕을 두다, 눈독을 들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① 도우마는 "우리가 어떤 것에 탐욕을 두면 우리는 우리가 탐내는 것을 취하러 나선다. 이렇게 어떤 것에 탐욕을 둔다는 것은 기회가 생기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꾸민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수 7:21; 미 2:2; 신 7:25; 출 34:24 등을 예로 들며 "이웃의 집, 아내, 종들, 혹은 가축에 탐욕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손을 뗄 수 없을 것이고 사전 계획을 가지고 칠 의도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제 10 계명의 일차적인 의미다."라고 주장하였다.[17]

---

[15] *Calvin: Institutes*, 414-415: "God, in short, commands us to keep possessions of others untouched and safe, not only from injury or the wish to defraud, but even from the slightest covetness that may trouble our hearts."

[16] Douma, *Ten Commandments*, 340.

[17] Douma, *Ten Commandments*, 341: "If we set our desire upon something, we are out to get what we desire. Thus, to set our desire on something *already* involves forming a *plan* (recall what Calvin said!) ready to be put on motion as soon as opportunity arises. . . Anyone who sets his desire(s) on his

② 도우마는 제 10 계명의 "탐내는 것이 의향(disposition)과 행위(deed)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선 계명들, 특히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법 행위를 정죄하지만 제 10 계명은 그런 불법 행위의 배후에 있는 정욕적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꾸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가리키며 정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8]

4. 도우마는 사람의 마음을 "중역회의실(boardroom)"로 비유하였다. 닫힌 방에서 열린 중역회의의 결정 사항은 그 회의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무슨 결정이 일어났는지 결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지된다.[19]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기(눅 6:45) 때문에 탐욕은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 드러나게 된다.
   1) 사람은 신체기관들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돈에 대한 사랑은 눈을 이글거리게 하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고 신경을 뻗어가게 한다. 사람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눈으로 말한다. 사람은 얼굴빛으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잠 16:15; 창 4:5; 에 7:6). 사람의 악의가 속임으로 감추어질지라도 사람의 악은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잠 26:26).[20]
   2) 다른 여자를 둔 남편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결국 아내에게 발각된다. 테러나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써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꼬리가 잡힌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두고 있을 때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긴장하며 괴로워하고 이로 인해 가정 전체가 불안해 진다. 그들 나름대로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국제적으로 항구적인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 같은 보안 정책이 마련된다.[21]
   3) 간음과 살인이 무서운 죄이지만 간음이나 살인에 이르는 과정에 조성된 긴장은 범행 자체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더욱 더 심하게 분쇄시킬 수 있다. 욕망들은 그 목표에 도달함이 없이도 "의도"와 "행위" 사이의 어딘가에서 소용돌이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은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에 주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제 10 계명은 탐욕의 지배를 받아 범행을

---

neighbor's house, wife, employees, or animals will not be able to keep his hands off. With premeditation he intends to strike. That is the primary meaning of the tenth commandment."

[18] Douma, *Ten Commandments*, 341: "Therefore, we may properly insist that the "coveting" of the tenth commandment lies somewhere between the disposition and the deed. The deed has been condemned by the preceding commandments, especiall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nd "You shall not steal." But the tenth commandment looks behind those deeds to the passionate heart *and* to the steps a person takes to implement the plans he has forged in his heart."

[19] Douma, *Ten Commandments*, 342.

[20] Douma, *Ten Commandments*, 343.

[21] Douma, *Ten Commandments*, 342-343.

계획하고 조치들을 강구하는 일이 죄인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죄가 언약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 긴장과 불행을 막기 위해 탐내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22]

4) 왕이나 대통령을 암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전복시킬 역모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국가가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제 6 계명보다는 제 10 계명과 더 관련 있는 행동에 근거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2)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

1.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

1) 앞에서 설펴 본대로 제 10 계명이 금하는 출발점은 계획이 되어버린 탐욕, 실현하고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탐욕,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에 손을 뻗치려는 단계까지 나아간 탐욕이지만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은 그 마음에 꾸민 계획과 조치 이전에 쉽게 간파되지 않는 죄악된 마음이다. 천주교 신학자들은 욕망을 마음에 무심코 일어나는 욕망(spontaneous desires)과 자라난 욕망(nurtured desires)과 실현된 욕망(fulfilled desires)으로 구별하고 이 중 둘째 욕망과와 셋째 욕망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첫째 욕망 즉 무심코 일어나는 욕망까지도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23]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악한 욕망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제 10 계명은 감지되는 단계의 탐욕을 일차적으로 금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마음의 모든 탐심까지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하이델베르그 문답(#113)의 설명은 제 10 계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제 10 계명의 종착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구약에 마음이 악한 것을 언급하는 구절들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1) [렘 17:9-10] (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10)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2) [창 6:5-6] (5)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3) [창 8:21-22] (21)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

[22] Douma, *Ten Commandments*, 343: "The acts of adultery and murder are serious wrongs, but the tensions en route to both of them disrupt society even more. Passions may rage somewhere rage between 'inclination' and 'deed' without ever reaching their goal. . . . What lies brooding in the heart does become so manifest, and the harm to society so enormous, that this tenth commandment is needed to bring home to us this sin and misery."

[23] Douma, *Ten Commandments*, 351.

4) [시 19:12-13] (12)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hidden/secret faults)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5) [시 90:8-9] (8)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secret sins)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6) [시 139:23-24] (23)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my heart)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my anxious thoughts)을 아옵소서 (24)내게(in me)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3. 바람직하지 못한 정욕에 대하여 언급하는 신약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막 7:21-23] (21)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 [막 4:18-19] (18)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 [딤전 6:9-10] (9)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4) [고전 6:9-10]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개역: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5) [엡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골 3:5-6] (5)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눅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4. 탐심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1)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은 그것을 먹을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 때문이었다(창 3:5-6). 탐심은 "what I am 지금의 나"와 "what I have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귀에 "you should be more than you are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 그리고 "you should have more than you have 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누려야만 한다."고 속삭인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고전 10:3-4)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것을 회상하고 원망하며(출 16:3) 출애굽과 역출애굽

사이에서 갈등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갈 5:16-26).

3) 요한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욕의 힘은 매우 강하다. 요한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3) 제 10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성경 본문들

1. 수혼(오난)과 자발적인 수혼적 책임(보아스)

1) 오난은 장형 엘이 죽고 아버지 유다의 명으로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창 38:8-9). 장자 엘이 죽어 장자가 되어 있던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이 장자 엘의 아들이 되고 두 몫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에게 후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오난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죽이셨다(창 38:8-9).

2) 신명기에 명시된 수혼 제도(신 25:5-10)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정반대로 가족과 형의 유산을 지키려는 절제되고 통제된 선한 욕망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24]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하여 욕망을 잘 통제하여 형제 자매로부터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러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대조적으로 보아스가 룻과 법적으로 결혼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 무름을 위해 수혼적 책임을 감당한 것은 탐욕과 대조되는 절제된 욕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준다.

2. 사회의 약자들

1) 출애굽기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출 22:21-24)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출 22:25) 전당잡힌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출 22:26-27)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출 23:4-5)는 언약서의 규례들은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 신명기에도 이웃의 전당잡힌 옷을 해질 때에는 돌려주고(신 24:10-13) 품삯을 해진 후까지 끌지 말고 당일에 주고(신 24:14-15)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밭에 곡식을 남겨두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를 남겨두고(신 24:19-22) 매 칠년 끝에 면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주라(신 15:1-15)는 규례가 나온다.

> "(신 15: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24] Miller, *Ten Commandments*, 404.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3)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약 5:1)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3. 경제 행위

1) 모세는 공동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신 25:13)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16)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תּוֹעֲבַת יְהוָה [토아바트 아도나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머니에 같지 않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갖는 것과 집에 같지 않은 두 개의 되를 두는 것은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도둑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 가증한 일로 정죄되었다.

2) 잠언도 신명기와 같이 공평하지 못한 저울추와 되를 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가증한 것으로 정죄한다(잠 16:11; 20:10, 23).[25] 신명기에서 "תּוֹעֲבַת יְהוָה [토아바트 아도나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란 명명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신 7:25-26; 12:31; 13:13-14; 17:2-4; 18:9-12; 20:18; 27:15; 32:16) 것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취하려는 탐심을 가지고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려는 것이 정죄될 탐욕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이 드러난다.[26]

---

[25] [잠 16:11] 공평한 저울(개역: 간칭)과 접시 저울(개역: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개역: 추돌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잠 20:10, 23] (10)한결 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תּוֹעֲבַת יְהוָה [토아바트 아도나이]) . . . (23)한결 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תּוֹעֲבַת יְהוָה [토아바트 아도나이])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תּוֹעֲבַת יְהוָה [토아바트 아도나이]라는 명명구는 개역개정의 신명기에서 "여호와께 가증하니라"로 번역되고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미워하시는 것이요"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KJV/NASB/RSV/ESV 는 통일하여 "an abomination to the LORD"로 번역하고 NIV 는 "the LORD detests"로 번역하였다.

[26] Miller, *Ten Commandments*, 404-406.

3) 경제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한 것은 황금만능주의, 재물주의를 조장하는 맘몬이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일하신 참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대치하는 것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었다. 이것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골로새서 3 장 5 절 말씀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3. 제 10 계명과 자력 구원

1. 불교는 사람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의 영화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며 외적 충동이나 내적 열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1) 세상의 영화에 대해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스님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기 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만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되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 10 계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을 금한다.
   2)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불교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모든 죄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3) 욕망을 품지 말라는 불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 10 계명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를 바로 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 준다.[27]
2. 바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찾았다.
   1) [롬 7:7-8, 21] (7)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 . . (21)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 [롬 7:24-25] (24)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7] 고재수, **십계명 강해**, 115-116.

4. 제 10 계명과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

1.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취한 일을 말하는 내러티브(왕상 21:1-29)는 아합의 탐욕이 아합의 파멸을 가져온 것을 말하며 탐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2.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28]

1) 피라밋 구조 (pediment structure)

I. 서론: 배경설명 (왕상 21:1)

II. 갈등: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개입 (왕상 21:2-10)

III. **변화**: **나봇의 죽음** (왕상 21:11-16)

IV. 해결: 아합에게 임할 심판 (왕상 21:17-27)

V. 결론: 아합의 회개와 심판의 연기 (왕상 21:27-29)

2) 장면적 구조 (scenic structure)

A 배경설명(왕상 21:1)

B 제 1 장면 (왕상 21:2-3):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나봇

C 제 2 장면 (왕상 21:4-10): 왕궁 (침상), 아합과 이세벨

X **제 3 장면** (왕상 21:11-14): **이스르엘, 성 사람들과 나봇**

C' 제 4 장면(왕상 21:15-16): 왕궁, 아합과 이세벨

B' 제 5 장면 (왕상 21:17-27):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엘리야

A' 결론(왕상 21:28-29)

3.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배경 설명(왕상 21:1 exposition)으로 시작한다. 북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르엘 사람 나봇은 이스르엘에 아합의 궁 가까이에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포도원을 갖고 있었다(왕상 21:1).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고 이스르엘에도 왕궁이 있어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 지내던 아합의 눈에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왔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그것을 채소밭으로 바꾸어 거기에서 나올 신선한 채소들을 그리며 군침을 흘렸다.
4. 첫 번째 장면(왕상 21:2-3)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과 나봇이 나눈 대화를 보여준다. 어느 날 아합은 나봇에게 사정하듯 자신이 줄 더 좋은 포도원이나 돈을 받고 그 포도원을 팔라고 말했다(왕상 21:2). 아합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 제의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레 25:23 에 명시된 율법에 근거하여 토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조상의 유업을 왕을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28]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Minneapolis: Fortress, 2001), 54-57.

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왕상 21:3).[29] 나봇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봇은 아무리 큰 물질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다. 아합에게는 하나 더 더하는 사치품에 불과하였을 포도원이 나봇에게는 경건의 문제였다. 나봇은 여호와께 속한 포도원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왕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라도 팔 수 없었다. 나봇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마 6:21)."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의 보물을 찾았지만 아합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잘못된 곳에 있었다.

5. 두 번째 장면(왕상 21:4-10)은 왕궁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대화를 나눈 후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여준다.
   1)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말에 어린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처럼 아합은 삐져서 근심하고 답답해 하며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였다(왕상 21:4). 아합은 누릴 것이 많았던 왕이지만 그의 마음이 오직 그의 이웃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에만 집착되었고 거래 거절에 대한 오기를 부리고 있었다. 국가에 재앙이 온 것도 아니고 바알 제사장들이 다시 제거된 것도 아니고 왕자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아람을 물리친 군대도 건재하고 갈멜산 사건 이후 바알 숭배도 다시 살아났다. 왕의 슬픔의 원인을 찾고자 애쓰는 아내 이세벨도 그의 곁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아합은 처음에 보기 좋았었고 사서 채소밭으로 바꾸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에 굴복되어 왕의 체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궁 방의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2) 탐욕이 점점 커져 꼭 취하겠다는 의지에 무릎 꿇어 이웃의 포도원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대책이 없어서 삐져 식사를 하지 않던 아합에게 아내 이세벨은 해결사로 등장한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라고 물었다(왕상 21:5). 아합은 "내가 네 포도원 대신에 돈을 주거나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나봇이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왕상 21:6). 아합은 나봇과

---

[29]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민 36:6-9] (6)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친족)에게로[르미시파하트 마테 아비헴]만 시집갈지니 (7)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 모든 딸)은 자기 조상 지파 종족(=친족) 되는 사람에게로[르에하드 미미시파하트 마테 아비하]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9)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세벨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는 말로 전하였다. 아합은 나봇에게는 사정하듯이 말했으나 아내 앞에서는 왕처럼 당당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나봇이 거절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자신이 처음 제의할 때와 역순으로) 돈으로 주거나 다른 포도원으로 주겠다고 공정한 거래 제의를 했는데도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왕이 제의하는 정말 좋은 거래를 거절하며 왕명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왕이 법이다"라는 것을 보고 배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자였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리이다(왕상 21:6)."라고 말한다.

3) 이세벨은 그녀가 말한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위해 악한 계획을 꾸미고 포도원을 빼앗을 조치들을 취한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다(왕상 21:8). 내레이터가 상세하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왕상 21:9-10)"는 것이었다. 이세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을 저주한 나봇에 대한 공적 재판이라는 것을 보이고 두 사람(신 19:15)의 증언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고 구체적인 처형 방법까지 지시한다. 이세벨의 편지가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그의 인"을 쳐서 보낸 편지이므로 이세벨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아합이 저지른 악행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그의 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여(왕상 21:25) 악한 길을 걸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합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되었다(왕상 21:20, 25).[30]

6. 세 번째 장면(왕상 21:11-14)은 내러티브의 중앙(축)에 위치하며 나봇의 성읍에서 이세벨의 지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묘사한다.[31] 내레이터는 이스르엘 성읍 사람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지시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쓰인 그대로(왕상 21:11)" 실행했다고 반복하여 진술한다.[32] 내레이터는 등장 인물들에게 무대를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로

---

[30]개역은 왕상 21:20, 25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은 "여호와 보시기에"와 "여호와 앞에서"라고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의 예이므로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Cf. NIV: "sold himself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31] 왕상 21 장은 나봇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왕하 9:26 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언급하며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는 예후의 말이 나온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던 나봇이 상속자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여준다.

[32] (왕상 21:11) 그의 성읍 사람들(וַיַּעֲשׂוּ אַנְשֵׁי עִירֹו), 곧 그의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은(הַזְּקֵנִים וְהַחֹרִים אֲשֶׁר הַיֹּשְׁבִים בְּעִירֹו)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그대로(כַּאֲשֶׁר שָׁלְחָה אֲלֵיהֶם אִיזֶבֶל), 곧

서술해 나가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왕상 21:13)."라는 거짓 증언을 인용하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왕상 21:14)."라고 이세벨에게 통보된 것을 묘사한다. 비록 아합이 이 재판 장면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왕의 인이 쳐진 편지에 따라 재판한 것이므로 이 재판을 재가하고 후원한 아합 왕에게 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을 통보받고 왕에게 보고한 것도 아합 왕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합이 이웃의 포도원을 탐낸 것으로 인해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워 경건과 충성으로 포장한 악한 조치들을 취하게 하여 이스르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범행에 참여하게 한 것은 지도자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불의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네 번째 장면(왕상 21:15-16)은 두 번째 장면(왕상 21:4-10)처럼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한다. 이세벨은 그녀의 지시대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통보를 듣고 아합에게 "일어나서 그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왕상 21:15)."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세벨은 나봇의 죽음을 두 번 반복하여 전하며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나봇의 포도원에다 아합이 원하는 채소들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왕상 21:16). 우울증으로 침상에 누워 괴로워하던 아합은 벌떡 일어나 어린 꼬마처럼 "엄마(mamma)"같은 이세벨이 얻어 준 새로운 "장난감(toy)"을 가지고 놀려고 내려갔다.
8. 다섯 번째 장면(왕상 21:17-27)은 첫 번째 장면(왕상 21:2-3)처럼 다시 나봇의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 즉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던 일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왕조의 몰락을 선언하신다.
   2)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왕상 21:19)."고 하신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봇의 포도원으로 간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여호와의 질책은 이세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아합을 지목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합에게 빠져 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왕상 21:20-22)."고 선언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에 기록된 그대로(כַּאֲשֶׁר כָּתוּב בַּסְּפָרִים אֲשֶׁר שָׁלְחָה אֲלֵיהֶם) 행했다.

3) 엘리야는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왕상 21:23)."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4) 내레이터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왕상 21:27)."라고 묘사하며 이 장면을 마감한다.

9.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배경 설명(왕상 21:1)에 상응하는 결론,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결론(왕상 21:28-29)으로 끝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합의 뉘우침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왕상 21:29)."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 그러나 아합 당대에 연기된 심판은 아합의 아들 시대에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다.

1)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정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활에 맞았고 부상한 몸으로 그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죽었고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어 낼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왕상 22:34-38).

2)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예후는 화살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죽인 후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하였다(왕하 9:24-26).

3) 예후는 이스르엘로 와서 창을 통하여 그를 보는 두세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으로 내어던지라고 명령한다. 창밖으로 내려 던져질 때 이세벨의 피가 담에 튀고 시체를 밟은 말에게 튀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도록 명령했지만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스르엘 성읍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시체가 토지에 거름같이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왕하 9:30-37).

10. 십계명의 준수 조항과 관련지어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를 보면 제 10 계명을 포함한 다른 여러 계명들이 위반된 것을 알 수 있다.

1)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탐욕적 의지에 굴복당했다(제 10 계명 위반).

2) 이세벨은 아합을 위해 거짓 증인 둘을 세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죽일 계획과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보냈다(제 10 계명 위반).

3) 불량자 두 사람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함으로써 제 3 계명과 제 5 계명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거짓 증언을 하였고(제 3 계명과 제 9 계명 위반) 이스르엘 장로와 귀족들은 법정 공의를 세우지 못했고(제 9 계명 위반) 이스르엘 사람들은 의로운 나봇과 그 아들들을 불법적으로 죽였다(제 6 계명 위반).

4) 아합은 나봇이 죽은 후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제 8 계명 위반).

5) 아합의 탐욕은 결국 아합의 파멸을 가져왔다. 아합이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여 조상의 유업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조치들을 입안한 단계에서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합이 이세벨의 편지 내용을 보고 시돈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것을 일러주며 옥쇄를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이스르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형제 수호의 원리대로 의로운 나봇을 위해 어명을 따를 수 없다고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6) 탐심에서 범행에 이르는 단계들 가운데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일이 일어났더라면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계획과 조치들이 무산되고 공동체 전체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5. 제 1-9 계명과 제 10 계명의 관계

1. 십계명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은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아노히(나는) 아도나이(여호와) 엘로헤하(네 하나님)로 시작하여 וְכֹל אֲשֶׁר לְרֵעֶךָ [브홀(그리고-모든 것-) 아셰르 르레에하(-네 이웃-에게 속한)]으로 끝난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나[아노히]"와 "네 이웃[르에에하]"이다.[33] 출 20:2 의 첫 단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고, 출 20:17 의 마지막 단어 "네 이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 두 주체 사이에 언약의 준수 조항인 모든 계명이 놓여 있다. 준수 조항으로서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은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고 있다.

1) 제 1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최우선적 일이므로 선두에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전체 언약 공동체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제 1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며 나머지 제 2-10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며 그 근저에 있다.

2) 제 10 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다루기 때문에 역으로 되돌아보며 다른 모든 계명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고안해 낸 신을 원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권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원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방종을 원하고, 이웃의 생명과 성과 재산과 명예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탐낸다.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죄요 근본적인 악이므로 제 2-9 계명에서 금하는 죄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제 1 계명을 어기는 죄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해 준다.

3) 욥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33] 십계명에서 "네 이웃"이란 단어는 제 9 계명에 한 번 그리고 제 10 계명에 세 번 나온다.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욥 31:24-28)"라는 고백은 제 10 계명과 제 1 계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준수 조항의 양 끝에서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은 십계명의 교향악적인 포괄성(symphonic comprehensiveness)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준다.[34]

2.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5-6)"라고 자랑하던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롬 7:7)" 것이라고 하였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던 부자 청년처럼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만 없었더라면 모든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10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 10 계명은 범죄한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 주는 계명이다. 제 10 계명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계명이다. 제 10 계명은 언약의 열 가지 준수 조항인 열 가지 계명 중의 절정이다. 제 10 계명은 죄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3. 제 10 계명은 어떤 대상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그 대상물로부터 손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취할 계획을 꾸미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죄를 금하고 있다. 왓슨(Watson, 177)이 말한 것처럼 탐내는 것은 근원적인 죄(mother sin)이고요 근본적인 악(radical vice)이다. 제 10 계명에서 금한 죄는 제 1-9 계명에서 금하는 죄로 나아가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 1-9 계명을 범한 사람은 이미 제 10 계명을 범한 사람이다.

   1) 제 1 계명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탐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얼마든지 더 많은 신들을 둔다.

      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제 10 계명을 범하고 제 1 계명을 범한 것이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며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다.

      ② 만유보다 크신(요 10:29)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고전 15:28)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시다(엡 4:6).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

[34] Mohler, *Words From The Fire*, 183.

③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계속 구하며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지키는" 대신 "병마와 여자와 은금"을 계속 탐내어 취하며(신 17:16-17) 제 10 계명을 범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제 1 계명을 범하는 왕이 되었다.

2) 제 2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로보암 1 세는 백성이 절기를 좇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백성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벧엘과 단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제단에 세우고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지으며 제 2 계명도 위반하였다.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상 12:25-30] (25)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개역: 신]이라 하고 (29)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 제 3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경은 탐내는 것을 금하는 제 10 계명의 위반이 제 3 계명의 위반으로 쉽게 나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 압살롬은 4 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삼하 15:1-6)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탐내어 반역을 꾀할 때 다윗 왕에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삼하 15:7)"라고 말하며 제 3 계명을 위반하였다.

②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탐내며(제 10 계명 위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허망하게 사용하며(제 3 계명 위반) 다가올 재앙 대신 평화를 예언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하였다.

③ 베드로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용하고 . . .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벧후 2:3, 14).

4)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① 아모스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개역: 잿밀]을 팔자 하는(암 8:5)" 자들의 탐욕을 지적한다.

② 느헤미야는 탐심을 가지고(제 10 계명 위반) 안식일에 일을 하고 매매 행위를 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제 4 계명 위반) 그의 백성과 이방사람들을 꾸짖고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렸고 장사하려고 성 밖에서 자는 상인들을 잡겠다고 위협하여 쫓아내었다(느 13:15-22).

③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주님의 날을 더럽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7 일 동안의 일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6 일 동안의 일과 주일 하루 동안의 영육간의 안식을 훨씬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5)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의 유전을 통하여 부모에게 유익한 것을 드리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제 5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

①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마 23:25)"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부모에게 아무 것도 드리지 않는(막 7:11-12)" 것을 책망하셨다.

②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부모를 죽이는 패륜도 제 10 계명과 제 5 계명의 깊은 연관을 보여준다.

6) 제 6 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예들은 많다.

① 여룹바알이 세겜의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 아비멜렉(삿 8:31; 9:1-6)은 왕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제 10 계명 위반)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칠십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제 6 계명 위반).

② 아합의 딸로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왕하 11:1-3; 대하 22:10-12)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왕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권좌가 탐이 나서 (고모 여호세바/여호사브앗이 숨긴 요아스를 제외한)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였다.

7) 제 7 계명은 간음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은 성적인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된다.

① 신 23:18 은 돈을 위해 순결한 몸과 양심을 파는 "창녀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② 다윗은 그 이웃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며 간음을 저지르고(삼하 11:2-4) 불륜의 씨앗을 감추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삼하 11:6-13) 우리아를 죽게 하였다(삼하 11:14-17). 다윗이 제 10 계명과

제 7 계명과 제 6 계명을 위반하며 저질렀던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삼하 11:27)"로 묘사되었다.

③ 바울은 탐욕이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엡 4:19-20)."고 말했다.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 5:3)."고 권면하였다.

8) 제 8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고 있다. 탐내어 불법적으로 취하는 일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①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제 10 계명 위반) **취하고**(제 8 계명 위반) 그 물건들을 그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며 은을 그 밑에 두었다(수 7:21).

②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목록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고전 6:10).

9) 제 9 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다. 행 5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탐욕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온 끔찍한 일로 제 10 계명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해 준다.

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돈 즉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1-2 절).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3-4 절)."라고 아나니야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야는 엎드러져 죽게 되고 장사된다(5-6 절).

② 세 시간쯤 지난 후 그 일어난 일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나아왔다(7 절).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8 절).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9 절)."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삽비라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어 장사된다(10 절). 탐욕이 부른 거짓말이 아나니야와 삽비라의 목숨을 빼앗은 이 일을 들은 사람들과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5, 11 절).

4.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네 이웃의 집, 밭, 소, 나귀, 기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 10 계명의 독특한 성격은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탐내다'라는 말의 원어는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죄를 범할 생각과 죄를 짓는 것은 둘 다 열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다."[35]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극약을 산 사람의 경우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법은 손을

[35] 고재수, **십계명 강해**, 111-112.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책망하시고 벌하신다.

1) 우리가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제 10 계명과 제 7 계명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2) 우리가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도 이웃의 재산을 탐내면 제 10 계명과 제 8 계명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3)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우리의 마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 10 계명과 제 5 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
4)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10 계명과 제 6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5)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 것과 같고 제 10 계명과 제 9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6)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정말로 없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이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제 10 계명과 제 1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7)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준 것과 조금만 빗가나는 생각을 하면 제 10 계명과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8)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속이면 제 10 계명과 제 3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9)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제 10 계명과 제 4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10) 이렇게 제 10 계명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을 이런 방법으로 통틀어서 금지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5.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므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으신다.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히 보여주셨다. 제 10 계명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죄까지 금하고 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6. 자족과 자유

1.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 제 1 계명에서 제 9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지켜야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마음가짐을 요구하신다.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시 119:47-48)."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늘 의식하고,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부모를 비롯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하고, 이웃의 명예를 높여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획하고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에 이른 탐욕으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2.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자족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47-148)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씨를 갖고 우리 이웃의 모든 행복을 돕고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 5-9 계명이 각각 권위, 생명, 결혼과 가정, 개인 재산과 청지기 의식, 진실과 명예에 대한 특별한 가치에 근거한 것처럼 제 10 계명은 자족이란 특별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36]
   1) 자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 심지어 고난이나 부족한 것도 합력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자족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족에 이르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이다.[37]
   2) 사실상 탐욕은 신학적인 문제로서 선하신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구원과 광야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며 돌보시는 섭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필수품의 부족 앞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36]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44.

[37] Ryken, *Written In Stone*, 212.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광야에서 지존자에게 대들었다. 그들이 바라는 음식을 달라고 졸라대며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빈정대며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물이 시내처럼 풍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수 있으랴?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시 78:17-20 사역)."

3)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욕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차려주시랴?"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며(히 13:5) 그 이유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신 31:6)을 들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다. 자족을 위한 닻은 행운이나 개인적인 경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서 찾아야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독생자마저 주셨기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닻을 달고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의 바다를 자족하며 지날 수 있다.

4. 아삽은 경건한 자신이 종일 재난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자기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허사라고 생각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며 실족할 뻔하였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회개한다. 아삽은 "(시 73:22)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3)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한다.

5. 바울은 자족의 달인이었다.

1)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 감사 편지를 쓰면서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38]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예하였으니 잘하였도다(빌 4:11-14)."라고 말했다.

---

[38]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번역된 어구의 원문은 ἐν τῷ ἐνδυναμούντί με [엔 토 엔뒤나문티 메]이다. NIV 는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라고 번역하고 KJV/RSV/NASB/ESV 는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나를 강하게 해 주시는 자로 인하여)"라고 번역하였다.

2) 바울은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 세 번 기도하였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후 12:9 상)."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 하-10)."고 말했다.

3) 바울의 자족은 자신의 내려놓음이나 비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움이고 그리스도를 높임이었다. 바울의 자족은 자신을 비우고 어떤 상태라도 충족하다고 여기는 자기 충족(self-suffieciency)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리스도 충족(Christ-suffieciency)이었다.

4) 바울은 처한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며 만족해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 우리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골 3:1-2)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갈 5:16)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뜻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바울은 딤전 6:6-19 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딤전 6:6)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10)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 . .(11)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12)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 . . (17)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 바울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에게(딤전 6:3-5) 자족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지만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을 경고하고(딤전 6:6-10),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딤전 6:11-16), 부유한 자들에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선용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하는 명하라고 말한다(딤전 6:17-19).

2)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바른 교훈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굳게 잡고 맡겨 주신 재물을 선용해야 한다.

7.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하지 않은 선물"인 고난은 필수이지만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하는 것은 선택이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기 때문이다.

1) 욥은 참된 경건의 소유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베풀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자로서 고난을 당했다.

2)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67, 71)."라고 고백했다.

3)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였다(행 5:31)."

4) 많은 매를 맞은 후 차꼬에 발이 단단히 묶여 있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행 16:23-25).

5)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롬 5:3-4).

6)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말했다.

7)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 받으시며 우리가 그의 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여 주셨다(벧전 2:21).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대속적 고난이었다(벧전 2:24).

8) 베드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벧전 3:14),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벧전 3:17),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벧전 4:14)은 복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였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자족할 수 있다(벧전 4:19).

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요 15:20).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행 14:22).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롬 8:18).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롬 8:35-39).

10)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다(빌 4:6-7).

8.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이 모든 욕망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1) 사람의 천래적인 욕구가 죄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도 배고프셨고(마 4:2) 목마르셨고(요 19:28-29) 잠을 주무셨다(눅 8:23).

2) 창 2:22-23 과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성적 사랑을 고양된 언어로 노래한다.

3) 우리는 자녀를 바랄 수 있고(창 30:22-23; 삼상 1:17; 시 127:3-5)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잠 24:27).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과 달리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은 풍족함을 얻는다(잠 13:4; 21:5). 우리는 다른 선한 것들도 원할 수 있고 원해야 한다.

4)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시 42:1-2). 우리는 아삽처럼 우리가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고후 5:8)" 것 혹은 "훨씬 더 좋은" 일 즉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기를(빌 4:8)" 바라고 노력해야 한다.

5) 죄와 관련이 있는 악한 욕망과 달리 선한 욕망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선한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들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받았다. 이 충분하게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행을 넘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주기 위해 받았다. 우리의 자족은 우리가 받은 것에 있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데 있다.[39] 우리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었다(고후 9:8)."라는 자족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7. 그리스도와 제 10 계명

1.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을 지적하시고 무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막 7:15-16)."는 비유를 주셨다. 이 비유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막 7:18)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39] Douma, *Ten Commandments*, 350.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를 받고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 식사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식사 전에 예수님의 손 씻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길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접시] 안에 있는 것[=너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눅 11:39-41**)." **마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25-28**)."

3. **예수님은 형과의 유산 문제를 조정해 달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2:13-15**). **그리고 예수님은 소출이 많아 쌓아 둘 곳이 없어 고민하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셨다**(**눅 12:16-19**).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실 하나님을 가리키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경고하셨다**(**눅 12:20-21**).

4.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마 6:19-21, 24-34; 눅 12:22-34; 16:13**).

   1) **누가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눅 12:29**)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2) **마태는 산상수훈**(**마 5-7 장**) **가운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마 6:31**)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5.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가르치셨다.
   1) 누가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교훈을 두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3-34)."
   2) 마태는 하늘에 쌓을 보화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6.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1)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나라, 내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요 4:34; 5:30; 6:38)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백성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이루셨다(요 6:39-40; 19:30).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복종과 그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롬 12:2)"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도록(요일 2:15-17)" 힘써야 할 것이다.

8. 제 10 계명의 준수

1.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이브를 부추기던 사탄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도록 유혹한다.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대 포장하여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여 나누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분수에 맞는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 자체는 정죄되지 않지만 더 소유하려는 탐욕은 정죄된다. 세계 도처에 퍼져있는 빈곤과 우리 자신의 사치를 비교하며 우리는 돈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40] 우리는 선전 문구나 이미지가 속삭이는 데 넘어져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로 채우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약 4:1)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2)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간음한 여인/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2. 확률에 의하여 운이 좋을 경우 일확천금할 수도 있는 복권, 승부에 대한 내기, 슬롯 머신(자동 도박기)과 같은 모든 형태의 도박, 행운의 바퀴(wheel of fortune)를 잘 돌리고 잘 추측하여 대답한 결과로 엄청난 보상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 자선 모금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을 주는 추첨 등은 모두 더욱 많이 소유하려는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가지려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도박이나 다른 비슷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41]
3.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딤후 3:2-5)"로 묘사하였다.
   1) 이러한 문화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대신에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며 잘못된 신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칭찬과 돈과 쾌락을 탐낸다. 영적 지도자들도 성공을 탐낸다. 교회는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값싼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악들을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우리의 후원과 축복까지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탐내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영리한 쇼핑객이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탐내지 마시오!"라는 권면으로는 불충분하다.
   2) 사람들은 탐낼 때 우상이란 거짓 신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문제는 일차적으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 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탐내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
   3)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셨다. 엡 1:3-14 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 구속, 기업, 칭의, 소명, 인치심, 보호하심 등을 들었다. 이러한

[40] Douma, *Ten Commandments*, 346-347.

[41] Douma, *Ten Commandments*, 347-348.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누리는 이기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아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불순종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거나 순종에 대한 상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선행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망을 우리 존재의 최고 동기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42]

4. 제 10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족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고 이웃과 함께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어진 준수 사항이다.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도록 준 말씀처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올바르며 경건하게 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딛 2:11-14)" 할 것이다.

9. 제 10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3)

   HC 113. 제 10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롬 7:7-8; 시 19:7-14; 139:23-24).

2.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80; 대교리 문답[WLC] 147)

   1) WSC 80.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히 13:5; 딤전 6:6)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바르고 관대한 마음씨를 갖는 것입니다(욥 31:29; 롬 12:15; 딤전 1:5; 고전 13:4-7).

   2) WLC 147.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히 13:5; 딤전 6:6)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심령으로 관대한 마음씨를 가짐으로써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이웃의 모든 행복을 돕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욥 31:29; 롬 12:15; 시 122:7-9; 딤전 1:5; 에 10:3; 고전 13:4-7).

3.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81; 대교리 문답[WLC] 148)

---

[42]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53-255.

1) WSC 81.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족과(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아파하는 것과(갈 5:26; 약 3:14, 16)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입니다(롬 7:7-8; 13:9; 신 5:21; 골 3:5).[43]
2) WLC 148. 제 10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과(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아파하는 것과(갈 5:26; 약 3:14, 16)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입니다(롬 7:7-8; 13:9; 신 5:21; 골 3:5).

[43]소교리 문답 81 과 대교리 문답 148 에 똑같게 나오는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이란 어구의 "inordinate motion"에 대하여 교리 문답을 번역한 사람들이 대개 "부당한/불의한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motion 은 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동, 성향, 경향, 의향, 동기, 욕망"을 나타낸다.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는 "motion"의 뜻의 7 번째로 "inward prompting or impulse; inclination"을 싣고 있다. Johannes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ed. G. I. Williamson (Phillipsburg: P&R, 2002), 404 는 147 문답에 나오는 "our inward motions and affections"라는 어구가 "the thoughts, desires, and motives of our hearts, which spring from our character, and which determine our outward life an conduct"라는 의미라고 해설하였다.

참고문헌

Decalogue

Boice, J. M.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2.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Calvin, Joh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Be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Calvin, John. *The Sermons of J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 of Moses Called Deuteronomy*. London: Henry Middleton, 1583.

Carson, D. A.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8.

Clowney, Edmund P.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Phillipsburg: P&R, 2007.

Davis, John Jefferson. *Evangelical Ethics.* Phillipsburg: P&R, 2004.

Doriani, Daniel M. *The Sermon On The Mount: The Character of a Disciple.* Phillipsburg: P&R, 2006.

Douma, J.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lated by Nelson D. Kloosterman. New Jersey: P&R, 1996.

Ferguson, Sinclair B. *The Sermon on the Mou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Hopkins, E. *A Practical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1701. = "Understanding the Ten Commandments" in Walter C. Kaiser, Jr., ed., *Classical Evangelical Essays* (Grand Rapids: Baker, 1972), 41-58.

Horton, Michael Scott. *The Law of Perfect Freedom*. Chicago: Moody, 2004.

Kaiser, Walter C.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Esp. 80-111.

Kevan, Ernest. *Moral Law.* Phillipsburg: P & R, 1991.

Miller, Patrick D. *The Ten Commandment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Mohler, R. Albert Jr. *Words From The Fire: Hearing The Voice of God in the 10 Commandments*. Chicago: Moody, 2009.

Murray, John. *Divorc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5.

Murray, John.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81.

Reisinger, Ernest C. *The Law and the Gospel.* Phillipsburg; P&R, 1997.

Ryken, Philip Graham. *Written in Stone: The Ten Commandments and Today's Moral Crisis.* Wheaton: Crossway, 2003.

Stott, John R. W. *The Message Of The Sermon on the Mount.* BST.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8.

Vos, Johannes G.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ed. G. I. Williamson. Phillipsburg: P & R, 2002.

Watson, Thomas. *The Ten Commandments.* 1692. Repri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5.

고재수(N. H. Gootjes).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십계명 강해.** 서울: 여수룬, 1991.
강영안.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IVP, 2009.
김홍전. **십계명 강해**. 서울: 성약, 2008.
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Introduction to Pentateuch

Aalders, G. C. *A Short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London: Tyndale, 1949.
Alexander, T. D.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Grand Rapids: Baker, 2002. An Evangelical and theological survey of the Pentateuch. = 알렉산더, T. 데스몬드. **주제별로 본 모세오경.** 정효제 역.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2009.
Armerding, Carl E. *The Old Testament and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83.
Blenkinsopp, Joseph.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AB. Doubleday, 1992.
Carpenter, E. E. "Pentateuch." *ISBE*.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6. 3:740-53.
Clines, 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S 10.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79.
Dyrness, William A.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9. Esp. 113-42. = 다이어네스, 윌리엄. **주제별로 본 구약신학**. 역. 생명의 말씀사, 2006.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2: Genesis-Numbers. Grand Rapids: Zondervan, 1990.
Fretheim, Terrence E. *The Pentateuch*. IBT. Nashville: Abingdon, 1996.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1982. = 해밀턴, 빅터 P.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Livingston, G. H. *The Pentateuch in Its Cultural Environment*. Grand Rapids: Baker, 1974. = 리빙스톤, G. H. **모세오경의 문화적 배경.**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Longman, Tremper, III. *How to Read Genesi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5. = 롱맨, 트렘퍼.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전의우 역. IVP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6.
Longman, Tremper, III. *How to Read Exodu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9.
Millard, Alan R., and Donald J. .Wiseman, eds. *Essay on the Patriarachal Narrative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Patrick, D. *Old Testament Law*. Atlanta: John Knox, 1985.
Pilch, John. *Introducing the Cultural Context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Paulist, 1991.
Poythress, Vern 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1.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92.
Sailhamer, John H.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Downers Grove, Ill.: IVP, 2009.
Schnittjer, Gary Edward. *The Torah Story: An Apprenticeship on the Pentateuch.* Zondervan, 2006.
Schultz, Samuel J. *The Gospel of Moses*. New York: Harper & Row, 1974.
Vogt, Peter T. *Interpreting the Pentateuch: An Exegetical Handbook*. Kregel, 2009. = 보그트, 피터 T.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류근상 역. 크리스챤, 2010.

Walton, John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89.

Wenham, Gordon. *Exploring the Old Testament.* vol. 1. *A Guide to the Pentateuch*.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2003. = 웬함, 고든. **모세오경**. 박대영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Wenham, Gordon J. *Story As Torah: Reading Old Testament Narrative Ethicall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Wolf, Herbert.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Chicago: Moody, 1991. = 울프, 허버트. **오경개론.** 엄성옥역. 은성, 2002.

Old Testament Theology

Anderson, Bernard W.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Fortress, 1999. = 앤더슨, 버나드 W. **구약신학.** 최종진 역. 한들, 2001.

Barr, James.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SCM, 1999.

Brown, M. L. *Israel's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브라운, M. L. **구약의 치유신학**. 김진섭 역. 대서, 2010.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Fortress, 1997. = 브루그만, 월터. **구약신학**. 류호준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Brueggemann, Walter. *Old Testament Theology: An Introduction.* Fortress, 2008.

Childs, Brevard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Fortress, 1986. = 차일즈, 브레바드 S. **구약신학**. 박문재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Clements, R. E. *Old Testament Theology*. London: John Knox, 1976. = 클레멘츠, R. E. **구약 신학**. 김찬국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9.

Clowney, Edmund P. *The Unfolding Mystery*. P & R, 1991. = 클라우니, 에드먼드 P.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네비게이토, 1991.

Dever, Mark. *The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Crossway, 2006. = 데버, 마크.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 1, 2**. 김귀탁 역. 부흥과개혁사, 2009.

De Graaf, S. G. *Promise and Deliverance*. vols 1-2.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7-81. = 드 그라프, S. G. **약속 그리고 구원**. 박권섭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5.

Dumbrell, J. *Covenant and Cre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 덤브렐, J. **언약과 창조**. 최우성 역. 서울: 크리스챤 서적, 1990.

Dyrness, W.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9. = 다이어네스, 윌리엄. **주제별로 본 구약신학**. 김지찬 역. 생명의 말씀사, 2006.

Eichrodt, W.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67. = 아이히로트, W. **구약 성서 신학 I, 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Goldingay, John. *Old Testament Theology. Volume One. Israel's Gospel*. InterVarsity Press, 2003; *Volume Two. Israel's Faith*. InterVarsity Press, 2006; *Volume Three. Israel's Life.* InterVarsity Press, 2009.

Hasel,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Eerdmans, 1995. Fourth edition. Detailed survey of authors and issues. = 하젤, 게하르드. **구약 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역. 서울: 엠마오, 1993.

Hengstenberg, E. W.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1970. = 헹스텐베르그, E. W. **구약의 기독론**.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7.

Hess, R. S., and G. Wenham, eds. *Zion, City of Our God*. Eerdmans, 1999.

Hess, R. S., and M. Daniel Carroll R., eds. *Israel's Messiah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Baker, 2003.

Hess, Richard S., and M. Daniel Carroll R., eds. *Family in the Bible: Exploring Customs, Culture, and Context.* Baker, 2003.

House, Paul R. *Old Testament Theology*. IVP, 1998. = 하우스, 폴. **구약 성경 신학**.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Kaiser, W. C.,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Zondervan, 1978. = 카아저, 월터 C. **구약 성경 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Kaiser, W.C., Jr.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카아저, 월터 C. **구약성경신학: 구약에서의 메시야**. 류근상 역. 크리스챤출판사, 2001.

Klingbeil, Gerald A. *Bridging the Gap: Ritual and Ritual Texts in the Bible*. BBRS 1. Eisenbrauns, 2007.

Laurin, R. B., ed. *Contemporary Old Testament Theology*. Judson, 1970.

Leman, C. K. *Biblical Theology*. 2 vols. Scottdale, Pa.: Herald, 1971-2. = 레만, C. K. **성경신학 I, II**.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Longman,T, III and D. G. Reid. *God as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Martens, Elmer. *God's Design*. Grand Rapids: Baker, 1981. = 마텐스, E. A.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김지찬 역. 생명의 말씀사, 1999.

Martens, Elmer A. ed. *Old Testament Theology*. Bibliographies No. 13. Baker, 1997

McComiskey, T. *The Covenants of Promise*. Grand Rapids: Baker, 1985. = 맥코미스키, T. **계약 신학과 약속**.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McConville, J. G. *Grace in the En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Niehaus, J. J.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니하스, J. J. **시내산의 하나님**. 김진섭 역. 이레서원. 2009.

Ollenburger, Ben C., Elmer A. Martens, and Gerhard F. Hasel, eds.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Eisenbrauns, 1992. = 올렌버거, 벤 C, 엘머 A. 마텐스, 게하르트 F. 하젤 편.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Payne, J. B.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2.

Payne, J. B. *A Contemporary Old Testament Studies*. = 페인, J. B. **현대적 구약 연구**. 교회문제 연구소 역. 서울: 엠마오, 1992.

Preuss, H. 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OTL. Westminster/John Knox, 1995-6.

Robertson, O. P.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1. = 로벗슨, O 팔머.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Sailhammer, John H.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Zondervan, 1995. Evangelical. Structured study on how to do Old Testament theology. = 쎄일하머, 존 H. **구약신학 개론**.

김진섭 역. 솔로몬, 2003.
Sailhamer, John H.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Downers Grove, Ill.: IVP, 2009.
Satterthwaite, Philip E., Richard S. Hess, and Gordon 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and Paternoster, 1995.
Smith, Ralph L.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Broadman & Holman, 1993. Evangelical.
Terrien, S.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Harper and Row, 1978. Focus on the wisdom literature.
Van Gemeren, W.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
Vanhoozer, Kevin J. ed. *Dictionar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aker, 2005.
Vanhoozer, Kevin J. e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A Book-by-Book Survey.* Baker, 2008.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Harper and Row, 1962-65. = 폰 라트, G. **구약 성서 신학 I, II, III.** 허혁 역. 서울: 분도, 1976-7.
Vos, G.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 보스, 게할더스.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Vriezen, T. C.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58. = 브리젠, T. C. **구약 신학 개요**. 노향규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5.
Waltke, Bruce K.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 월트키, 브루스 K. **구약신학**. 김귀탁 역. 부흥과 개혁사. 2012.
Young, E. J.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Westwood, N. J.: Revell, 1958. = 영, E. J. **구약 신학 입문**. 김정훈 역. 서울: 바울, 1994. =영, E. J. **현대 구약 신학 연구**. 성 기문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Youngblood, R.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 영블러드, R. **9 가지 구약 핵심 주제**. 차학순 역. 서울: 예루살렘, 1995.
Zimmerli, Walther.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John Knox, 1978.
Zuck, Roy B.,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oody, 1991. = 주크, 로이 B 편. **구약성경신학**. 김의원, 류근상 역. 크리스챤출판사.
김희보. **구약 신학 논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75.
박윤선. **성경 신학**. 서울: 영음사, 1983.
윤영탁 역편. **구약 신학 논문집**. 1-8. 서울: 총신/성광/합신, 1979-1994
윤영탁. **구약 신학과 신앙**. 서울: 엠마오, 1991.
정규남. **구약신학의 맥**. 서울: 두란노, 1996.
홍반식. **구약 성경과 신학**. 서울: 교회 교육 연구원, 1990.
황창기 편.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Exodus

Bahnsen, G. L.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Craig Press, 1977.

Beegle, D. M. *Moses, The Servant of Yahweh*. Ann Arbor: Pryor Pettengill, 1979.

Bimson, John J.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SOTSS 5. Sheffield: Almond Press, 1981.

Brisco, T. V. Exodus, Route of the." *ISBE*.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2. 2:238-41.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 tran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Childs, Brevard S. *The Book of Exodu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4.

Clark, W. M. "Law," in *Old Testament Form Criticism*.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4. 99-140.

Clements, R. E. *Exodus*.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Coats, G. W. *Rebellion in the Wilderness: The Murmuring Motif in the Wilderness: Traditions of the Old Testament*. Abingdon, 1968.

Cole, R. A.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ondon: Tyndale, 1973.

Davis, J. J. *Moses and the Gods of Egypt*. Grand Rapids: Baker, 1971.

Dozeman, T. B. *God on the Mountains*. SBLMS. Scholars Press, 1989.

Durham, J. I. *Exodus*. WBC. Vol. 3. Waco, Tex.: Word Books, 1987.

Ellison, H. L. *Exodus*. DSB-OT.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Enns, Peter. *Exodu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0.

Fokkelman, J. P. "Exodus," in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 R. Alter and F. Kermode. Harvard, 1987.

Gispen, W. H. *Exodus*. BSC. Zondervan, 1987.

Gooding, D. W. *The Account of the Tabernacle*. Cambridge, 1959.

Haran, M. *The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Oxford, 1978.

Hoffmeier, J. K. "Moses." *ISBE*.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3. 3:415-25.

Houtman, Cornelis. *Exodus. Vol. 1 (1:1-7:13)*. and *Exodus. Vol. 2 (7:14-19:25)*. HCOT. Kok Pharos, 1993 and 1996.

Hyatt, J. P. *Exodus*.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1.

Kaiser, Walter C. "Exodus." *EBC*.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87-497.

Kiene, P. *The Tabernacle of God in the Wilderness of Sinai*. Zondervan, 1977.

Kitchen, K. A. *Ancient Orient and the Old Testament*. London, 1966.

Livingston, D. "The Location of Biblical Bethel and Ai Reconsidered," *WTJ* 33. 1970. 20-44.

Livingston, D. "Tradition site of Bethel Questioned," *WTJ* 34. 1971. 39-50.

Longman III, T. "The Divine Warrior: The New Testament Use of an Old Testament Motif," *WTJ* 44. 1982. 290-307.

Longman III, T. "God's Law and Mosaic Punishment Today," in *Theonomy*. Zondervan, 1990.

Longman III, T. and D. Reid. *God Is a Warrior: studies in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Zondervan, 1995.

Deuteronomy

Achtemeier, E. "Plumbing the Riches: Deuteronomy for the Preacher," *Int* 3. 1987. 269-81.

Baker, J. A. "Deuteronomy and World Problems," JSOT 29. 1984. 3-17.
Carmichael, C. M. *The Laws of Deuter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Clements, R. E. *Deuteronomy*. OT Guides. Sheffield: JSOT, 1989.
Christensen, D. L. *Deuteronomy 1-11*. WBC 6. Dallas: Word, 1991.
Clifford, R. *Deuteronomy with Excursus on Covenant and Law*. OTM. Wilmington: M Glazier, 1982.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Cunliffe-Jones, G. *Deuteronomy*. NICOT. Eerdmans, 1976.
Driver, S.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895.
Kalland, Earl S. "*Deuteronomy.*" *EBC*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Kaufman, Stephn A.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Maarav* 1, 2 (1978-79): 105-58.
Kline, Meredith G.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Kline, Meredith G.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 1989.
Maxwell, J. C. *Deuteronomy*. CC. Word, 1987.
Mayes, A. D. H. *Deuteronomy*. NCB. Eerdmans, 1979.
McCarthy, Dennis J. *Treaty and Covenant*.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McConville, J. Gordon. *Deuteronomy.* AOTC 5. Leicester: Apollos; Downers Grove: IVP, 2002.
Mendenhall, George E.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ittsburgh: Biblical Colloquium, 1955.
Miller, P. D., Jr. *Deuteronomy*. Interp.; John Knox, 1990.
Nelson, Richard D.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Nicholson, E. W. *Deuteronomy and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1967.
Payne, D. F. *Deuteronomy*. DSB. Westminster, 1985.
Ridderbos, J. *Deuteronomy*. BSC. Zondervan, 1984.
Tigay, J. H.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Thompson, John A. *Deuteronom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4.
von Rad, G. *Deuteronomy*. OTL. Westminster, 1966. Theological.
Walton, John H.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Grace Theological Journal* 8 (1987): 213-25.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Weinfeld, M. *Deuteronomy 1-11*. Doubleday, 1991.
Wright, Christopher J. H. *Deuteronomy.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Hendrickson, 1996.

Literature Cited

Amit, Yairah. *Reading Biblical Narratives*. Minneapolis: Fortress, 2001.
Bavinck, H. *The Doctrine of God*. Trans. W. Hendriksen. Grand Rapids: Baker, 1977.
Beeke, Joel R. & Sinclair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Baker, 1999.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4th Revised & Enlarg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Block, Daniel I. *Judges, Ruth*. NAC 6. Broadman, 1999.

Carson, D. A. "Matthew"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Cassuto, U. *Commentary on Genesis.* Trans. I.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4.

Chapman, Gary. *The Five Love Languages.* Northfield, 1992.

Collins, C. John.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P & R, 2006.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Gibson, J. *Cannanite Myths and Legends* . Edinburgh: T. & T. Clark, 1977.

Grosheide, F. W.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Hamilton, Victor.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Harrison, Everett F. *A Short Life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8.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Baker, 1975.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Baker, 1973.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1989.

Hendriksen, William.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Hubbard, Robert L.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Hughes, R. Kent. *The Sermon on the Mount*. Wheaton: Crossway, 2001.

Jacobsen, Thorkild. *The Harps That Once . . . .*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7.

Kaiser, Walter C.,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Longman, Tremper III. *Immanuel in Our Place.* Phillipsburg: P&R, 2001.

Mathews, Kenneth A. *Genesis 1-11:26*. NAC 1A. Broadman, 1996.

Milgrom, J.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Niehaus, Jeffery J. "Amos," in *The Minor Prophets.* Thomas E. McComiskey. ed. Vol. 1. Grand Rapids: Baker, 1992.

Robinson, Haddon W.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ited by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1999.

Ross, Allen. *Creation and Blessing: A Guide to the Study and Exposition of Genesis*. Grand Rapids: Baker, 1988.

Sailhamer, John. "Genesis." *EBC*.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0.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2001.

Walton, John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89.

Walton, John H. *Genesi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Wegner, Paul D.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9.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Tex.: Word, 1987.

Wenham, Gordon J.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Wessel, Walter W. "Mark"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Westermann, Claus. *Genesis: A Commentary.* Trans. J. J. Scullian. Minneapolis: Augsburg, 1984.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송제근.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서울: 솔로몬, 1992.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이상근. **신약주해 마태복음.** 서울: 총회교육부, 1982.

General Resources

ABD = Freedman, David Noel. ed.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Garden City, N.Y.: Doubleday, 1992.

ANEH = Hallo, William W. and William Kelly Simpso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ich, 1971.

ANEP = Pritchard, J. B. ed. *The Ancient Near East in Picture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54

ANET = Pritchard, J.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69.

CS = Hallo, William W. and K. Lawson Younger, Jr.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Volume 1.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1997. *Volume 2.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2000. *Volume 3. Archival Document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2002. This is the new Pritchard as a current compendium of ancient Near Eastern texts in English. There is an abundance of footnotes and cross references to biblical texts.

ISBE = Bromiley, G. W.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Rev. ed.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9-88.

ZPEB = Tenney, M. C. ed. *Zondervan Pictorial Bible Encyclopedia*.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75.

Hebrew Reference Grammar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anslated by A. E. Cowley. Oxford: Clarendon, 1910. =***GKC***

Joüon, P.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 & rev. T. Muraoka.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1. =***GBH***

Waltke, B. K. and M. O'Connor. 1990.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IBHS***

Williams, R. J. *Willimams' Hebrew Syntax: An Outline*. 3rd ed. Revised & expanded by John C. Beckam.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2007. =***WHS***

Hebrew-English Dictionaries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 ***BDB***

Clines, Davi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8 vol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Six volumes have appeared.

Holladay. W. L. 1971.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upon the Lexical Work of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e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rd ed. 5 vols. Brill, 1994-2001; Study edition, 2 vols. Brill, 2001. Transla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 ***HALOT/KB***

Theological Dictionaries

Botterweck, G. J., H. Ringgren, H.-J.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erdmans, 1977-.

Harris, R. L.,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s. Chicago: Moody, 1980.

Jenni, E.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s. Hendrickson, 1997.

VanGemeren, W. 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Internet Resources for Bible Study

1. www.biblehub.com
2. Hebrew Bible and Greek New Testament
   1) Hebrew Bible (WLC): http://biblehub.com/wlc/genesis/1.htm
   2) Greek New Testament(UBS4) : http://whnac.biblos.com/matthew/1.htm
3. Septuagint
   1) Sir Lancelot C. L. Brenton, *English Translation of the Greek Septuagint Bible* (1851): http://www.ecmarsh.com/lxx/
   2) Septuagint Old Testamnet Bilingual (Greek and English): http://www.ellopos.net/elpenor/greek-texts/septuagint/default.asp
4. **Searchable Bibles: http://www.biblegateway.com/**
5. **Bible Dictionaries**
   1) Holman Bible Dictionary : **http://studylight.org/dic/hbd/**

2)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
http://www.biblestudytools.net/Dictionaries/BakersEvangelicalDictionary/

3) The older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http://www.studylight.org/enc/isb/**